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의 과거와 미래

■ 李 泰 鎮 (서울대학교) ■

한중일 3국의 상호인식의 과거와 미래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회상하며 —

李 泰 鎮 (서울대학교)

〈목 차〉

- I. 전근대 3국 관계의 음미 - 정형과 미정형의 사이
- II. 서양 국제법 질서의 수용 속 3국의 길항과 충돌
- III. 한중일 국제관계의 과제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 IV. 에필로그

I. 전근대 3국 관계의 음미 - 정형과 미정형의 사이

한국, 중국, 일본은 수 천 년 간 문화를 교류하면서 하나의 문화권역을 이루었다. 청동기 시대 이래 금속기의 재료와 의식주의 생필품을 사고팔고, 종교와 사상을 나누면서 하나의 문화권역을 형성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속에 이루어진 이 권역은 ‘同文(문자, 문화를 같이 한다)’이란 표현이 있듯이 漢字란 표기 수단으로 묶어져 동질성의 밀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밀착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돌하는 역사도 적지 않았다. 수, 당과 고구려 간의 전쟁, 신라·당의 연합세력과 고구려, 백제·왜국과 신라·당 간의 싸움이 있었고, 근세에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과 명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다. 고대의 전쟁들은 대체로 물자의 생산력이 제한된 조건아래 더 많은 인력과 물자를 차지하려는 목적아래 생긴 것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전쟁까지도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작용하고 있었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로는 무엇보다도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체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이 체제는 중국 내부의 질서로 시작된 것이지만 漢 나라 때부터 대외관계에도 적용되어 중국의 왕조가 중심이 된 국제질서가 장기간 존속하였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영역과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넓고 많은 나라였다. 이런 물리적 조건이 문화적, 정치적으로까지 발전한 것이 곧 책봉조공체제이다. 이 질서는 유교의 포용적 대외관계 사상에 힘입어 장수하였다. 즉 멀리 있는 나라들을 부드럽게 대하면 모두 다 가까이 온다는 사상은 평화적 기능성을 발휘하여 이를 하나의 체제로 장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書傳』, 『舜典』조공책봉체제는 중심의 편중성이 낳은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평화적 질서를 추구한 점에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 이바지 한 점이 적지 않다.

중국은 북방 유목 민족과의 관계에서 충돌의 역사를 자주 겪었다. 북방 유목민족들이 기후 변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남하하게 되면 자연히 중국 漢族의 기존 왕조와 충돌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들어와 북방민족이 세운 왕조는 한들이 아니었지

만, 그 북방족은 대부분 결국 한족에 흡수되어 문화적으로나 종족적으로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는 특이한 현상을 반복하였다. 중국의 주변 민족 가운데 한국 민족만은 중원으로 들어간 역사가 없었다. 한국민족은 중국에 대해 무력관계 보다 문화 수용에 역점으로 두는 역사를 가졌고, 그 결과로 한족에 동화하여 소멸하는 현상은 겪지 않았다. 한국민족의 이런 독특한 문화 교류는 책봉조공체제와 이를 뒷받침한 유교의 평화적 대외관계에도 익숙하게 만들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왕조는 중국 명나라의 책봉조공체제에 대해 순응하면서 여진, 왜와의 관계에 같은 사상을 부여하여 평화적 관계를 정립하였다. 이런 성향은 무력적 약세의 불가피한 결과로 매도하기 보다 자기보전의 노력으로 평가해 줄 여지가 없지 않다.

일본은 고대국가 수립 단계에서 불교와 함께 유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고대 말기부터 武士社會가 형성되면서 일본 열도내의 세력 간의 각축의 역사를 겪으면서 중국의 책봉조공체제에 대해서도 무관심 하였다. 중국의 왕조들도 그 지리적 격절 때문에 굳이 강요하는 기미도 없었다. 이런 형세는 평화적 관계를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유교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도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시대에 아메모리 호슈(雨林芳洲)가 조선과의 국교 관계에서 유교적 평화관계로서 성실외교론을 폈다. 일본사에서 이 주장은 특이한 것일지 몰라도 유교국가 조선에서는 왕이나 사대부들에게 상식에 속하는 것이었다. 아메모리 호슈의 성실외교론에 대한 일본 측의 특별한 평가는 일본의 무사사회가 유교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곧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체제로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본이 이 질서를 동의하거나 실제로 편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전체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때 이 체제가 요구하고 또 중요한 기능을 발휘한 通交의 이익을 얻기 위해 편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도쿠가와 막부는 중국의 왕조가 明에서 淸으로 바뀌고, 새로 들어선 청 나라가 서쪽의 몽고와 티베트 족에 대한 통제를 우선하는 형세 속에 더 이상 편입의 압박을 받지 않는 덕을 보았다. 이 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중국의 책봉조공체제는 定形과 未定形의 가운데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불완전성은 중국이 한중일의 동아시아 세계의 반대편에 다른 하나의 세계에 이어진 조건으로 빚어진 것이다. 몽고, 티베트 족이 라마 불교를 통해 지속시킨 유대 관계는 청 제국에게 적지 않은 위협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국력의 투입은 반대편의 일탈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함수관계를 낳았던 것이다. 명 나라가 청 나라로 바뀐 뒤, 조선과 일본(도쿠가와 막부) 사이에 맺어진 국교가 전과 달리 청조와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조선의 반청 의식이 일본의 일탈성과 합류하여 낳은 이 새로운 관계는 청조의 동쪽 세계에 대한 불가피한 유화주의로 쉽게 소멸하지 않았다. 18세기 조선은 이를 토대로 ‘조선중화(朝鮮中華)’ 의식을 키웠고, 책봉조공질서의 이런 이완상태는 19세기에 서양식 근대국가의 주권 의식의 수용을 그만큼 쉽게 만드는 역사성을 발휘하였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조선, 명에 대한 침략전쟁은 중국의 책봉조공질서에 대한 명료한 도전이었다. 이 전쟁은 첩포(鐵砲, 한국에서는 鳥銃)라는 서양의 문명 요소가

개입한 점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일본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가 많았다. 당시 일본의 여러 다이묘(大名)들은 조선으로부터는 면포(綿布), 명나라로부터는 비단(緋緞)을 수입하고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는 철포라는 새로운 무기를 샀다. 면포는 다이묘들에게 휘하 병졸의 유니폼으로, 비단은 무사들의 위세(威勢) 장식품으로 가치가 높았다. 철포는 새로운 무기로서 무사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켜 국산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졌고, 또 무사들의 싸움의 형태를 바꾸어놓았다. 화약을 사용하는 철포는 창과 칼, 활을 주로 사용하던 전술을 무력하게 하거나 크게 보강하였을 뿐더러 군사적 거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산성을 대신한 천수성(天守城)의 등장 이 바로 그것이다.

천수성은 군사적 요충이 아니라 다이묘들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 거점인 도시에 세워졌다. 튼튼한 돌담을 하부구조로 하고 상부에 망루를 세운 이 독특한 형태의 성곽은 철포를 쏘고 철포부대를 막아야 하는 새로운 전투기술이 가져온 변화였다. 천수라는 명칭은 처음에 천주(天主)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천하의 주인’ 이 지키는 곳이란 뜻이다. 이 성들은 새로운 패자(覇者)가 등장하면 앞의 패권자의 것이 파괴되는 관례가 생겼듯이 철저한 패권의식을 담고 있었다. 도요토미가 ‘朝鮮出陣’ 을 명령한 것은 자신이 지키는 ‘천하’ 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식의 발로였다. 그것은 중국의 책봉조공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지만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다. 16세기 말엽에 표출되었던 일본의 이런 팽창주의는 3세기 뒤에 서양 열강들이 책봉조공체제를 무너뜨릴 때, 이에 편승하여 다시 날개 짓을 크게 하였다.

II. 서양 국제법 질서의 수용 속 3국의 길항과 충돌

19세기 중반,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은 한중일 3국으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몰아넣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증기선, 거기에 거치된 함포는 전날에 보던 범선이나 홍이포(紅夷砲)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차등적인 통상과 조차지 요구의 조약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국제법의 자연법적 규범주의와는 달리 문명과 야만의 차등으로 요구하는 조약들은 자존심과 국부(國富)를 앗아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부해온 중국이 느끼는 상실감은 무엇보다도 컸다. 서양 열강의 국제법 앞에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체제는 무력하게 무너져 갔고, 3국은 각기 서둘러 살길을 찾아야 했다.

한중일 3국 중 일본이 가장 빠른 행보를 보였다. 일본은 국력의 집중화를 위해 명치유신(明治維新)을 일으켜 천황제 국가를 수립하면서 서양 열강국의 문명을 시찰하고 이를 수용하는 데 정치의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중국은 책봉조공체제의 붕괴를 최대한 저지하면서 서양의 기계문명을 수용하는 길을 택했다. 티엔진(天津)과 상하이(上海)를 거점으로 한 양무운동(洋務運動)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중국의 동향을 보느라 가장 뒤늦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국의 조선왕조는 서양의 기계문명의 수용에 못지않게 중국과의 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다. 1882년 1월에 미국과의 수호통상조

약의 체결을 앞두고 조선 국왕은 이 조약이 체결되면 청국, 조선, 미국은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므로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왕래사신(往來使臣) 제도를 상주사신(常駐使臣, 즉 公使) 제도로 전환해야 하지 않는가를 물었다.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해 청 나라 조정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6월에 임오군란(壬午軍亂)이 발생하자 피책봉주(조선군주)가 원하지 않는 정변을 책봉주(중국 천자)가 좌시할 수 없다는 구실로 4000여명의 천자(天子)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정변의 주모자(興宣大院君)를 잡아 티엔진으로 송치하였다. 천자의 군대는 이 임무를 마친 뒤에도 서울에 그대로 머물러 조선을 청국의 속방으로 만드는 정책을 폈다. 미국과의 조약을 구상할 때 조선은 새로운 국제법 질서에 자주 독립국을 안착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 조선에게 청나라의 이런 강압적 방략은 큰 위협이었다.

서양 열강국과의 조약 관계에서 한중일 3국의 입장은 이렇게 서로 달랐다. 개국과 동시에 불평등 조약에 시달린 일본은 국제법을 처음부터 약육강식의 법으로 이해하였다. 중국은 국제법의 조약질서가 지금까지의 책봉조공체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이의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조선은 오히려 이를 완전한 자주 독립국으로 진입하는 기회로 생각하여 이의 수용과 실행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타국과 체결한 조약은 불리한 것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상대방도 끝내 성실한 관계를 허용할 것이라는 신념아래 여러 조약의 사항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일람표식으로 정리한 『약장합편(約章合編)』을 여러 차례 편찬하기도 하였다. 유교적 성실외교론의 현대판이었다. 3국의 이런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는 곧 서양 열강의 출현이란 새로운 조건아래 생긴 것이지만 3국의 공동체 의식은 전혀 작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해체와 생성의 대전환 속에 진행된 하나의 역경(逆境)의 행로였다.

일본은 서양 열강들로부터 강요당한 불평등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으로 16세기말에 표출되었던 팽창주의를 새로운 조건에서 실현하려는 야욕을 함께 가졌다. 정한론(征韓論)에서 시작하여 한국병합의 강제에 이르는 한국에 대한 국권침탈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명치(明治) 일본은 이를 위해 1889년에 제국헌법을 반포함과 동시에 제2차 징병령(徵兵令)을 내려 100만 대군을 일컫는 청국 군대와 싸울 수 있는 30만 정예 병력 확보에 국력을 기울였다. 이 목표는 5년 여 만에 달성하여 실제로 1894년에 청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때 이미 한차례 조선의 보호국화를 기도하였다. 이것이 미국의 개입과 ‘삼국간섭’으로 수포로 돌아가자 10년 뒤에 다시 군비를 크게 증강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이고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국의 국권을 수중에 넣었다. 청일전쟁에서 패전국인 된 중국이 더 이상 견제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후원세력으로 부상하자 이와 결전을 벌여 승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1905년 11월 18일에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을 강제한 다음, 일본 측의 관계자들은 서울의 주한공사관에서 축배를 들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여! 당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들이 마침내 이루었다”고 기뻐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탈취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불법이 자행되었다. 국권이 관련되는 조약인데도 비준과정이 없는 약식 조약의 형식을 일관하였고, 제목조차 붙이지 못한 조약문을 영국, 미국 등 서양 수교국에 알리기 위해 작성한 영문에서는 명칭을 넣어 정식조약처럼 보이게 하였다. 최초의 병합조약에서는 한국 황제가 일본 측이 준비해온 병합의 사실을 알리는 조칙(詔勅)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국새가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 황제가 승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런 불법행위는 서울과 한반도를 대규모 병력을 투입

하여 점령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1880년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약식 조약조차도 위임장과 비준 절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켜 군사력으로 한국의 주권을 탈취하려 할 때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팽창주의는 백인 특히 러시아의 동아시아 점령에 대한 방어를 중요한 논거 또는 구실로 삼았다. 이런 변설은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세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최종 구현형태가 한국 병합으로 나타나자 구미 열강의 태도도 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견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본의 동양평화론은 처음부터 일본이 맹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중국, 한국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서구열강 사이에 일기 시작한 평화의 담론을 일본 고유의 팽창주의의 外飾으로 입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일본의 팽창주의는 무사사회 전통의 패권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본토 침략에 이어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계속 침략주의로 치달은 것과는 달리 1899년 한국과 청국은 책봉조공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법적 관계를 약속하는 데 성공한다. 이해 8월에 대한제국 황제와 대청제국 황제가 동등한 지위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양국의 대표가 1월부터 8월에 걸친 협상 끝에 협정문을 작성하여 조인하고 다시 양국 황제가 비준하는 완벽한 근대조약으로서의 요건을 다 갖추어 체결한 조약이었다. 1882년 조선 군주의 뜻이 17년 만에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청국은 러일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여 한국에 대한 일본의 강제 병합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다. 일본의 한국병합은 동아시아 3국이 조약체제에 편입된 지 반세기만에 일어난 동아시아의 지각변동이었다. 이 변동은 흔히 명치 일본의 근대화의 신화로 치부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결코 '근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수한 폭력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동아시아 세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III. 한중일 국제관계의 과제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명치 일본의 근대화가 무사사회의 전통을 배경으로 팽창주의의 길을 걸은 반면에 대한제국의 근대화는 유교적 문치 전통을 배경으로 평화주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19세기 후반 이래 한반도의 상황은 어렵고 복잡했다. 청국과 일본의 개입 뿐 만 아니라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의 관심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작은 나라 조선, 대한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평화노선 밖에 없기도 하였다. 조선, 대한제국은 시종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요건 갖추기를 근대화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조선, 대한제국의 군주(高宗皇帝)가 왕궁 안에 서양식 건물을 짓고, 미국 워싱턴 디씨를 모델로 서울에 방사상(放射狀) 도로체계(현 시청 앞 서울광장 지점)를 도입하고 전차를 달리게 하여 황성(皇城) 만들기에 나선 것은 문명국화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하게 보여 영세중립국 승인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재정적 제약 속에 3만 여의 국방력 양성에 노력한 것은 그것이 영세 중립국의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일본의 팽창주의에 짓밟히고 말았다.

1909년 10월 26일, 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의 참모중장(參謀中將) 안중근(安重根)은 하얼빈 철도역에서 일본의 명치유신을 주도하고 한국 보호국화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였다. 이 사건은 한반도를 보호국화 한 뒤, 만주로 진출하는 새로운 행보를 재촉하던 일본에게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그리고 세계가 모두 놀란 대사건이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3개의 저술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첫째는 이토 히로부미의 죄상 15개조, 둘째는 안중근자서전, 셋째는 동양평화론이다. 첫째 글은 이토 히로부미가 명치 일본정부의 대표로서 대한국의 황후 폐하를 시살하고, 황제 폐하를 위협하여 주권을 빼앗는 조약을 강제하고 또 황제를 폐위하는 일을 저지르고, 한국의 산업, 금융의 자산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고의적으로 부채국을 만든 것,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교육을 방해하고 허다한 의사들을 폭도로 몰아 총살하고, 청년들의 유학을 금지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허위 선전한 것등을 들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동양평화를 깨트리고 수많은 인명을 죽음으로 모는 것이기 때문에 총살되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글은 한자 3만3천여자로 된 장문의 자서전으로 자신이 이 거사를 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밝히면서 이 거사는 결코 살인행위가 아니라 항일 독립의군부의 군사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어느 것이나 ‘근대’를 가장한 일본의 침략주의의 불의, 불법을 규탄하는 것이었다.

셋 가운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의 동양평화론이다. 참모중장 안중근은 이 글을 쓰기시작하면서 여순(旅順) 법원 당국에 자신에 대한 형 집행을 이 글이 완성된 뒤로 미루어주기를 요청했다. 여순 법원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일본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중근은 서문과 앞부분(前鑑)을 쓴 뒤 집행일이 다가오자 법원장과 3시간 동안 담화로 그 요지를 밝혔다. 히라이시(平石) 법원장이 남긴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중근은 먼저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한 일본인들의 동양평화론은 침략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과 장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장악을 막기 위해 한중일 3국이 같이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일본은 러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차지한 여순항을 원 소유국인 중국에 돌려줘야 하며, 둘째 여순항을 돌려받은 중국은 이를 개방항구로 삼아 여기에 한, 중, 일 3국의 ‘동양평화회의’를 설치하고 동시에 그 산하에 은행을 설립하여 두고 3국 통용의 화폐를 발행하여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며, 셋째 3국의 주요 도시에 동양평화회의의 지부와 은행 지행을 설치하여 산업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하며, 넷째 이것이 성공하면 인도, 태국, 월남 등의 나라들도 가맹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동아시아를 서양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동아시아에 기능해온 평화주의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것은 조선이 책봉조공체제에 대한 순응으로 자기 보전을 추구해오다가 국제법적 조약체제로의 전환에 직면하여 영세중립국으로 자정하기를 바라면서 지속해온 평화주의에 입각한 침략주의에 대한 강력

한 항변이었다. 그리고 그 장치를 경제공동체의 형성에서 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한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동아시아 세계가 서양의 국제법적 질서에 편입되는 역사적 시간대에서 동아시아의 미래의 질서를 평화적으로 모색한 최초의 것이란 점에서도 동아시아인들이 모두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이다.

IV. 에필로그

19세기 중반 이래 동아시아 세계가 서양세력을 맞아 실행해야 할 역사적 과제는 서양의 우수한 기계문명을 수용하는 것과 국제법적 조약체계의 질서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한중일 3국이 모두 시간을 선후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큰 진전을 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3국간에 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역사분쟁으로 볼 때 이 한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21세기 동아시아 세계는 동서양이 이미 여러 부면에서 하나로 묶어진 ‘세계화’의 여건에서 국제법적 질서의 명실상부한 실현을 위해 숙제를 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 천년 쌓은 문화적 권역의 기반을 토대로 정치적, 민족주의적 장벽을 넘는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과거의 잘못은 그냥 묻거나 밟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에는 역사적 진실에 입각한 솔직한 반성이 서로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국 각기의 고유한 정서를 국제화 시킬 필요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내 기준에서는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던가, 나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폐쇄적 정서가 존속하는 한 동아시아의 ‘과거사(過去事)’ 청산은 영원한 미결로 남을 것이다.

안중근의 거사에 대해 과거 한중일 3국은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인에게 안중근의 거사는 모든 불의, 불법을 씻어주는 영웅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중국에서도 항일전 기간에 중국인들의 안중근에 대한 흠모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리더인 주은래(周恩來)는 한중 양 인민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공통투쟁의 시발로 그의 거사를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명치 일본의 영웅을 쓰러트린 인물인데도 그에 대한 외경심을 토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모두 제 나라 입장에서 가해진 것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반성의 여지가 없지 않다. 먼저 일본인의 흠모에는 무사도의 기준에서 그를 가장 강력한 적장을 쓰러트린 최고의 무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남는다. 그리고 주은래의 평가도 대적(對敵)의 시각이란 시대적 조건을 안고 있다. 한국인들의 인식에는 더 불행한 요소가 끼어 있다. 안중근은 법정에서 자신은 단독살인범이 아니라 항일 독립군의 참모총장으로 작전 중에 적장을 쏜 것이므로 포로에 관한 만국법을 적용하라고 4회나 역설했는데 장군이 아니라 의사(義士)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소홀한 인식 토대에서 최근 이라크 사태 속에 그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동양평화론은 소수의 전공자들의 지식 속에 갇혀 있었다. 안중근은 한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주의의 선각자였다. 20세기 말엽 동서양은 교통, 통신, 자본주의의 발달로 세계가 명실상부하게 하나가 되는 이른바 세계화가 엄

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세계화는 정신적 지주가 세워지지 않고 경제 이윤만능 끝에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금융위기의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불 때 도덕적 세계관으로 불의를 척결하는 거사에 뒤이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경제공동체의 설립을 주장한 안중근은 진정한 세계주의자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위대한 사상이 지난 100년 간 냉전 체제 속 3국의 이해 관계 속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불행이지 않겠는가? 이는 한중일 3국간의 진정한 대화를 통한 평화적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하는 “동아시아 연구자 포럼”의 화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 안중근에 대한 나의 평가는 결코 한국인의 시각에서 가해진 것이 아니며, 2009년 10월 26일로 맞이하는 하얼빈 거사 100주년은 한중일 3국의 평화 선언 원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8. 11. 25)

〈參 考 文 獻〉

渡辺浩・朴忠錫 編, 『韓國・日本・「西洋」－ その交錯と思想變容－』,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5.

渡辺浩・朴忠錫 編, 『國家理念と對外認識 17－19世紀』,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 2001.

安田 浩・趙景達 編, 『戰爭の時代と社會』, 青木書店, 2005.

中塚 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 1997.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 編, 『近代化像』, 東京大學出版會, 1994.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편, 『동아시아 경제문화 네트워크』, 태학사, 2007.

李泰鎮 著 六反田豊 譯, 『朝鮮王朝社會と儒教』, 法政大學 出版局, 2000.

李泰鎮 著 島海 豊 譯, 『東大生に語つた韓國史』, 明石書店, 2006.

李泰鎮 編, 『韓國併合의 不法性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YI TAE-JIN,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 CORNELL East Asia Series 136, 2007.

韩中日三国对过去和未来的思维认知

回顾安重根东亚和评论 -

李 泰 鎮 (서울大學校)

〈目 次〉

- I. 对近现代三国关系的思考 - 定型与未定型之间
- II. 接受西方国际法秩序中的三国抵抗和冲突
- III. 韩中日在国际关系上的课题及安重根的东亚和评论
- IV. 结 尾

I. 对近现代三国关系的思考 - 定型与未定型之间

韩、中、日通过数千年的相互之间文化交流，形成了一个文化圈。从青铜器时代开始，对金属材料及衣食住有关的日常用品进行交易，分享宗教与思想形成了一个文化圈。在很多人来来往往的过程中形成的这一圈子里，就如同“同文(同样的文字、文化之意)”这样的词，以汉字为标记手段紧密联系在一起，更加提高了相互间的认同感。不过，虽然有文化上的紧密性，也不少出现了相互冲突的历史。隋唐和高句丽之间的战争、新罗·唐的联合势力和高句丽之间的战争、百济·倭国和新罗·唐之间的战争及进入近世日本的丰臣秀吉侵略朝鲜和明朝挑起战争，使东亚陷入战争的漩涡里。古代因为物质生产力有限，大部分的战争是为更多地占有人力和物资而发动的。连丰臣秀吉的侵略战争中，这些属性也起到作用。

谈前近代东亚国际秩序，我们不得不就谈起以中国为中心的册封朝贡制度。朝贡制度原本是中国为了控制内部秩序而开始，但到汉朝在对外关系上也适用册封朝贡制度，从而以中国王朝为中心的国际秩序长期延续下去。中国在东亚与其他国家相比人口众多、地大物博。这些物质条件一直延伸到政治与文化之中，而发展起来的就册封朝贡制度。这秩序得益于儒教的包容性及对外关系思想，而长期持续下去的。即“柔远能迩”(怀柔远方，使之靠近朝廷)思想发挥和平作用，使之形成一个体系并让它“长命百岁”(【书传】，舜典)。册封朝贡制度虽有中心的偏重性，但在追求和平秩序方面，在东亚国际关系史上起到了一定的作用。

中国在历史上曾经与北方游牧民族经常发生冲突。北方的游牧民族因气候的变化等各种理由南下，自然就与中国汉族王朝发生冲突。虽然这些北方民族进入中国建立了不少王朝，然而却反复出现北方民族的大部分被汉族吸收或很难延续种族命脉的特殊现象。中国周边的很多民族中，只有韩国民族没有进入中原的历史。韩国民族在对华关系中，把重点放在收容文化而不是武力关系。结果就没有经历被汉族同化而消灭的现象。韩国民族的这些独特的文化交流方式，使韩国善于应对册封朝贡制度及支撑它的儒教的和平对外关系。朝鲜王朝把儒教当作国家统治的理念，一边对中国的明朝册封朝贡制度顺应，一边对女真、倭国关系上也赋予儒教思想，订立了和平友好关系。这些趋向与其说成在武力弱势下不得已的结果，不如评价为自身保存而努力的结果。

日本从古代建国初期开始，对佛教和儒教都予以关注但并没有持续下去。还有日本自从古代末开

始形成武士政权之后，列岛内发生争夺势力的勾心斗角，对中国的册封朝贡制度并没有予以关心。中国的王朝也因地理上的断绝，而无意与日本建立册封朝贡关系。这种局势又往往使日本对于一种以和平为最高美德的儒教并不寄予特别的关注。不过，日本曾经在德川幕府时代，雨林芳洲在与朝鲜的邦交关系上提出过基于儒教和平关系之上的诚实外交论。在日本这些主张或许很特别，但对儒教国家朝鲜的国王或士大夫来说，这是一个最基本的常识。日本方面一般高度评价雨林芳洲的诚实外交论，如实证明了日本的武士社会离儒教有多么遥远。

前近代东亚的国际秩序可以说，是一个以中国为中心的册封朝贡制度的延续，但因为日本没有同意此秩序或实际没有编入在内，也可以说并不完全是这样。为了获取通交上的利益，丰臣秀吉曾经考虑过是否编入此制度，但未能实现。之后的德川幕府时代，中国清朝推翻明朝并对西部的蒙古和西藏开始进行统治的形势下，日本并没有再受到编入册封朝贡制度的压力。从中可以看到，东亚国际关系与中国的册封朝贡制度就在于定型与未定型之间。这些不完全性是因为中国站在包含韩中日在内的东亚世界的相反方向，与另一个世界连在一起而出现的结果。蒙古族和藏族通过喇嘛佛教形成的纽带关系，对清帝国来说是一种极大的危险。就是因为清朝为了对付蒙古族和藏族集中投入资金和人力，就没有强力控制东边两国的偏离行为。清朝推翻明朝后值得瞩目的是，朝鲜和日本(德川幕府)与过去完全相反，并不考虑与清朝的关系。朝鲜的反清意识与日本的偏离连在一起而出现的这一新的关系，因清朝对东方世界不得已而采取的宽大政策，没有消灭。十八世纪朝鲜，基于此掀起了“朝鲜中华”思想意识，使得册封朝贡秩序有所松懈，在一定程度上有利于朝鲜容易接受十九世纪西方近代国家主权意识。

1592年，丰臣秀吉对朝鲜和明朝发动的侵略战争，分明是对中国册封朝贡制度的挑战。值得注意的是，在此次战争中使用了叫做铁炮(在韩国称为鸟铳)的西方文明因素。发动战争以前，就是战国时代的日本从外国进口很多物资。当时日本的很多大明从朝鲜进口棉布，从明朝进口丝绸，从葡萄牙进口叫铁炮的武器。大明把棉布用在手下将兵的制服，丝绸作为武士显示权威的装饰品而备受欢迎。铁炮作为新武器备受武士的关心，使它较快时间内变成国产化，同时也完全改变了武士的作战形态。使用火药的铁炮，使用枪、刀、弓的战术变得无能为力，同时又大幅度加强武器及战术，给军事据点带来了很大的变化，即替代山城出现天守阁。

天守阁是建在政治、经济的核心城市的一种建筑，而不是军事要塞。天守阁是发射铁炮及封锁铁炮部队等新战术带来的建筑变化，用坚固的石墙筑下部结构，上部是建有瞭望塔的具有独特形态的城楼。“天守”之名开始指天主，即“天下主人”在守住之意。这些城堡就像一旦出现新的霸主就彻底被破坏一样，具有彻底的霸权意识。丰臣秀吉命令向“朝鲜出征”，就是为了扩张自己守护的“天下”之范围的意识表露。这虽然是一种对中国册封朝贡制度的强烈挑战，但最终由失败而告终。16世纪末的日本扩张主义，在三个世纪以后西方列强推翻册封朝贡制度时，与其一起再次掀起。

II. 接受西方国际法秩序中的三国抵抗和冲突

十九世纪中叶，西方列强势力的东亚扩张使韩中日三国卷入另一个新的世界。快速奔驰的轮船及装载的舰炮与曾经见过的帆船或红夷炮截然不同。因此，韩中日三国无法拒绝不平等的通商条约及租借地条约。与国际法的自然规范主义不同，依靠文明及野蛮的不平等地位而强加于人的条约，是掠夺自尊心和国富的行为。直到现在以东亚中心意识而自豪的中国，当时感到了前所未有的失落感。在西方列强的国际法前，以中国为中心的册封朝贡制度就如此无力地被彻底击溃，韩中日三国就急

忙各奔东西自谋生路。

在韩中日三国中,日本一马当先走在前头。日本为了提高国力掀起“明治维新”运动,明治天皇建立国家之后,视察西方列强的文明世界,同时政治头脑们积极吸收西方科技。而中国一方面阻止朝贡制度的崩溃,另一方面也选择吸收西方机械文明之路。此时,以天津和上海为据点掀起了洋务运动。韩国跟随中国的动态而最晚开始寻找应对之策。对韩国的朝鲜王朝来说吸收西方的机械文明一样,如何整理与中国的过去也是一个很重要的课题。1882年1月,与美国签约《朝美守护通商条约》之前,朝鲜国王曾对清朝问起,如果签订此条约清朝、朝鲜、美国将是一个同等的关系,所以是否对目前为止的使臣往来制度转换成使臣常驻(及公使)制度?对这一理所当然的提问清朝一直避而不管。直到同年6月发生“壬午军乱”,清朝就是以册封主(中国天子)不能坐视不理被册封主(朝鲜君主)的政变为借口,给朝鲜派多达4000多名的天子军队,将政变主谋(兴宣大院君)押送到天津。天子的军队完成此任务后并没有撤回,开展了旨在把朝鲜当作清朝属邦的政策。与美国签订条约时,朝鲜期待的是在新的国际法秩序下自己成为一个自主独立的国家。而清朝这些强压方略对朝鲜是一个很大的威胁。

与西方列强签订条约时,韩中日三国的立场就如此各不相同。日本一开始就被不平等条约折磨,而把国际法理解为是一个弱肉强食的政策;中国认为,国际法的条约秩序要替代当时的册封朝贡制度,采取了消极的态度;韩国则把国际法当做进入自主独立国家的绝好机会,就积极吸收并实施了国际法。韩国相信,这些不平等条约既然是不利的,但只要认真履行,对方最终也会容许诚信关系。所以,韩国对条约的诸多事项进行整理,编了几次整理一览表式的《约章合编》。可以说是一个儒教意识非常强的现代版诚实外交论。韩中日三国的这些各不相同的立场和态度,虽然是在西方列强的出现这一新的条件下而形成,不过三国的共同体意识毫无起作用。这是一个解散与生成的大转换中,形成的又一条逆境之路。

日本一方面为了清理从西方列强被迫建立的不平等关系做努力之外;另一方面16世纪末日本曾经表露出来的膨胀主义在新的条件下再次掀起。从“征韩论”到强制性的韩国合并为止,日本对韩国的侵略历史是一个佐证。为此,明治日本1889年公布《大日本帝国宪法》,同时颁布征兵令。为了确保能应对清军100万大军,全力以赴征集30万精锐兵力。过5年就完成目标,实际在1894年日本开展了甲午战争,此时已经企图一次要把韩国“保护国化”。然而,因美国的介入及“三国干涉”而变成泡影。不过再过10年,日本再次增强军备与俄罗斯进行了一场战争,依托其军事实力又把韩国的主权掌握在自己手中。在甲午战争中被打败的中国,再也不能发挥牵制力的情况下,俄罗斯以韩国“后盾”亮相,日本就此决一死战而获胜,实现了预期目的。

1905年11月18日,日本强迫韩国签订了《韩日保护协约》。当时日方的驻韩公使馆的人员高兴地举杯喊“丰臣秀吉!你的梦终于由我们来实现了!”。

日本在掠夺韩国主权的进程中,犯了很多恶劣的罪行。主权相关的条约也没有通过批准过程,就任意以简单条约的形式签订;连题目也没有的条文,为了通知给英国、美国等西方邦交国,在英文条约上像正式条约一样填写了题目。在最终合并条约时,对日方预已准备好的合并诏敕上,韩国皇帝拒绝签名,日本就乱用不是国玺的其它玉玺盖印,就像是皇帝御名签署。这些非法行为是在以大规模的兵力抢占首尔和韩半岛情况下,强迫朝鲜签定条约的行为。1880年代,日本为了确保对韩半岛影响力,连简单条约都要求委任状及批准程序。与此相反,通过甲午战争、俄日战争等动武掠夺韩国主权时,日本就完全无视所有程序。

日本的扩张主义总是以防御白人尤其是俄罗斯对东亚霸占行为为主要论据或借口。这些口舌对英国、美国等西方列强之间少许有说服力,但是最终以合并韩国的形态凸现之后,欧美列强的态度也起变化不像以前。不过,要牵制却为时已晚。日本的东亚和评论一开始就是以日本成为盟主为前提

的，所以无法得到中国和韩国的支持。因为日本的和评论就只不过是一个，在日本掩盖在1899年第一次万国和平会议后西方列强之间的和平论之下的扩张主义而已。日本的扩张主义没有脱离武士社会传统的霸权主义，因而继侵略中国大陆，且扩大到与美国的太平洋战争。

与日本的侵略战争不同，1899年韩国和清朝在履行替代册封朝贡制度的新国际法关系上取得了成功。同年8月，大韩帝国皇帝和大清帝国皇帝在同等的地位签订了通商条约。此条约是两国代表从1月开始，通过八次协商立下协定文件及双方签订之后，再次由两国皇帝批准的、比较完整的近代条约。1882年是朝鲜君主等待17年而如愿的一年。不过清朝自从俄日战争之后，在国际关系上并不能施展影响力，看到日本强迫朝鲜合并，中国却无能为力。日本对韩国的合并条约，是在东亚三国编入条约体制后，过半个世纪而发生的东亚地区的地壳变动。对此变动日本自认为是明治日本近代史上的神话，但其里面却包含在近代绝不容忍的无数残酷的暴力。这是东亚地区在面向未来的今天，决不能继承和发扬的理念。

III. 韩中日在国际关系上的课题及安重根的东亚和评论

明治日本的现代化是基于武士社会的传统，是走扩张主义之路的近代化。而大韩帝国的近代化是以儒教的文治传统为基础，追求和平主义路线的近代化。十九世纪后期开始，韩半岛形势错综复杂。清朝和日本的介入，加之俄罗斯等西方列强的关心，小国朝鲜-大韩帝国能选择的路就是和平路线而已。朝鲜-大韩帝国始终对永世中立国予以关心，并把近代化道路上的优先课题定为具备实现永世中立国的必要条件。大韩帝国的君主(高宗皇帝)在皇宫建西式建筑，以美国华盛顿城市为模板，在首尔引进放射型道路体系(现市厅前首尔广场附近)，让电车穿过，就是为了让国际社会看到朝鲜为建设文明国家的强烈意志，从而得到永世中立国的承认。在财政薄弱的条件下依然努力培育了三万多国防兵力，因为这是永世中立国的必要条件。不过日本的扩张主义就扼杀了这些构想。

1909年10月26日，大韩义军府的参谋中将安重根在哈尔滨火车站击毙了主导日本的明治维新、韩国“保护国化”罪魁祸首伊藤博文。这是一件轰动世界的大事件，这对原本把韩半岛“保护国化”之后，要进军满洲的日本来说也是一个巨大的打击。

安重根在监狱里写了三部著作，然后英勇就义。第一部陈述了伊藤博文的十五条罪行，第二部是安重根自传，第三部是《东洋和评论》。第一部著作里安重根一一举例陈述伊藤博文的罪行。例如：伊藤博文作为明治日本政府的代表，暗杀韩国的皇后；逼迫皇帝陛下强制签订掠夺主权的条约；掠夺韩国的产业、金融财产，而故意把朝鲜变成负债国；妨碍韩国政府的学校教育；日本指鹿为马说义士是暴徒，枪毙很多无辜义士；禁止年轻人留学；在国际社会胡作非为说是韩国希望受日本保护等。这些行为最终会破坏东亚和平，会让数十万人失去生命，因此处决伊藤博文是理所当然的。第二部著作是在监狱用3万3千多汉字写的长篇自传，详细地记述了自己刺杀伊藤博文壮举的背景和具体经过。焦点放在此壮举并非是杀人行为而是抗日独立义军府的军事作战。句句都控诉了假装“近代”的日本侵略主义的不义、非法罪行。

三部著作中最为瞩目的是第三部《东洋和平论》。参谋中将安重根在撰写《东洋和平论》时，请求旅顺法院当局缓期执行绞刑。旅顺法院院长接受此邀请而日本政府不同意。安重根在监狱完成“序论”和“前鉴”两个部分，临刑前与法院院长进行了长达三个小时的谈话，阐述了东亚和评论的主要内容。平石法院院长的摘记内容如下：安重根首先强烈谴责，包括伊藤博文在内的日本人的东洋和平论只不过是侵略政策的借口而已。同时，对俄罗斯会打进韩半岛以及掌握韩半岛的可能性，与日

方持同一见解。为了防止俄罗斯对东亚的瓜分，安重根还提出了韩中日三国应共同要进行的事项。第一，日本应该把在俄日战争中获得的战利品旅顺港归还给中国；第二，中国开放旅顺港，在旅顺港成立韩中日三国的常设机构-“东洋和平会议”，同时创办属下银行，发行流通三国的货币，构筑经济共同体；第三，三国的主要城市成立“东洋和平会议”支部和银行支行，共同推进产业的发展；第四，这些构想如果成功，就让印度、泰国、越南等国家也联盟参加。

安重根的“东洋和平论”表现出一个顽强意志，为了在从西方列强势力中守护东亚，要把东亚的和平主义用现代的理念来体现。安重根的“东洋和平论”是一个基于和平主义立场出发对侵略主义提出的抗议，表现出过去顺应册封朝贡制度来追求自主保存的朝鲜面对国际法条约体系，愿意成为永世中立国持续保持下来。更让我们惊讶的是，安重根甚至提及经济共同体的必要性。东亚人应牢记，安重根的《东洋和平论》是在东亚秩序正接入西方国际法秩序的历史性时期，首次用和平的方式谋求东亚未来的秩序。

IV. 结 尾

十九世纪中叶开始，东亚面临西方势力要履行的课题，是吸收西方先进的机械文明及国际法上的条约体系秩序。前者韩中日三国直到现在先后都取得了成就，而后者很难看成有很大的进展。尤其是三国之间引起的所谓历史纠纷，在在证明这一点。二十一世纪的东亚，在东西方已在诸多领域成为一体的“全球化”趋势下，为实现名副其实的国际法上的秩序，需要解决很多课题。以数千年累计下来的文化圈为依托，为建立跨越政治、民族主义壁垒的新的关系，我们应该全力以赴。为此，目前出现的历史纠纷是不能隐藏或掩饰的问题，从历史真相出发，相互间必须坦诚地反省。因此，韩中日三国有必要将各自传统情绪向国际社会转移。如果死守封闭型民族情绪，认为放弃此情绪就意味着死亡或等于抛弃自尊，那么，东亚‘过去历史’将永远得不到解决及整理。

过去，对安重根壮举韩中日三国都持以肯定的态度。对韩国人来说，安重根是洗清被日本人遭受很多不义及非法创伤的英雄，这是不争的事实。中国抗日战争时期，很多人用不同方法敬仰安重根。特别是中国领导人周恩来总理曾经高度评价安重根的壮举，说是“反对日本帝国主义的两国人民的共同斗争是从安重根刺杀伊藤博文开始的。”日本人之间也有不少人对击毙明治日本英雄的安重根表示敬畏之心。

不过这些评价都是从本国立场上出发的，所以从长远的眼光看有很多反思的余地。首先日本人的敬佩是否从武士道基准出发，把安重根看成打败最强敌将的武士。还有周恩来的评价也具有对敌视觉的时代背景。韩国人的认识更具不幸的因素。安重根在法庭上4次庄重声明，击毙伊藤不是单独报仇而是以抗日独立军参谋中将身份作战时击毙敌将的，因此要适用万国法把自己当作俘虏加以对待。不过韩国人通常称安重根为义士。在这些疏忽认识的基础上，最近发生的伊拉克事件中，有的甚至提出安重根是否恐怖分子的见解。此外，他的东亚和平论只存在于少数专家的知识世界里。

安重根不是韩国的先驱者而是东亚和平主义的前驱者。20世纪末开始，东西方由于交通、通信、资本主义的发达，世界成为名副其实的整体 - 即全球化就以惊人的速度发展。不过，全球化在没有树立精神支柱的情况下，只追求经济利润为万能，最终导致了史无前例的金融危机。由此可见，以道德世界观铲除不义壮举之后，接着主张为真正的和平建立经济共同体的安重根，应作为真正的世界主义者受到高度评价。

不过这一伟大的思想，在过去百年间因冷战埋在三国的利害关系之中，没有发挥其真正的作用，

这岂不是我们的不幸?! 今天我们通过韩中日三国之间真正的对话, 为确立和平秩序而成立“东亚研究者论坛”。因此安重根的东亚评论有充分理由成为本次论坛的话题!

我对安重根的评价并非是从韩国人的角度而进行的。

2009年10月26日是迎接安重根哈尔滨举义百周年纪念日, 但愿百周年能成为韩中日三国和平宣言的元年!(2008.11.25)

〈参 考 文 选〉

渡辺浩・朴忠锡编, 『韩国・日本・「西洋」- その交错と思想变容-』, 庆应义塾大学出版会, 2005.

渡辺浩・朴忠锡编, 『国家理念と对外认识 17-19世纪』, 庆应义塾大学出版会, 2001.

山室信一, 『思想课题としてのアジア』, 岩波书店, 2001.

安田 浩・赵景达 编, 『战争の时代と社会』, 青木书店, 2005.

中塚 明, 『历史の伪造をただす』, 高文研, 1997.

沟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宫嶋博史 编, 『近代化像』, 东京大学出版会, 1994.

翰林大学小亚细亚文化研究所篇, 『东亚经济文化网络』, 太学士, 2007.

李泰镇 著 六反田丰 译, 『朝鲜王朝社会と儒教』, 法政大学 出版局, 2000.

李泰镇 著 岛海 丰 译, 『东大生に语つた韩国史』, 明石书店, 2006.

李泰镇 编, 『韩国併合의 不法性 研究』, 首尔大学校出版部, 2003.

YI TAE-JIN,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 CORNELL EastAsiaSeries136, 2007.

韓中日3国の相互認識の過去と未来

- 安重根の東洋平和論を回想して -

李 泰 鎮 (서울大學校)

〈目 次〉

- I. 前近代3国関係の吟味 - 定形と非定形のあいだ
- II. 西洋国際法秩序の受け入れにおける3国の拮抗と衝突
- III. 韓中日国際関係の課題と安重根の東洋平和論
- IV. エピローグ

I. 前近代3国関係の吟味 - 定型と未定型の間

韓国、中国、日本は数千年間の文化交流を通じて一つの文化圏を形成してきた。青銅器時代以来、金属器の材料と衣食住の生活必需品を売買し、宗教と思想を分かちながら一つの文化圏域を形成した。数多くの人々が往来するなかで形成されたこの圏域は、「同文(文字、文化を一緒にする)」という表現があるように漢字という表記手段で結ばれ、同質性の密度を高めた。しかしこうした文化的密着性にもかかわらず、互いに衝突する歴史も少なくなかった。隋唐と高句麗間の戦争、新羅・唐の連合勢力と高句麗、百済・倭国と新羅・唐間の戦いがあり、近世には日本の豊臣秀吉が朝鮮と明を攻撃する戦争を引き起こし、東アジアを渦中に巻き込んだ。古代の諸々の戦争は、およそ物資の生産力が制限された条件下で、より多くの人力と物資を占有しようとする目的のもとで生じたものであった。豊臣秀吉の侵略戦争までも基本的にこうした属性が作用していた。

前近代東アジアの国際秩序としては、何よりも中国中心の冊封朝貢体制を挙げずにはいられない。元来、この体制は中国内部の秩序として始まったものであるが、漢代から対外関係にも適用され、中国の王朝が中心となる国際秩序が長期間存続した。中国は東アジアで領域と人口が他の国に比べて格段に広く多い国であった。こうした物理的条件が文化的、政治的にまで発展したのが、すなわち、冊封朝貢体制である。この秩序は、儒教のもつ包容的対外関係思想に依拠して長命を維持した。すなわち、遠くに存在する国々に和をもって接すれば、すべてが近くに来るという思想は、平和的可能性を発揮し、これを一つの体制として生きながらえるよう、形成したのである。『書傳』、舜典] 朝貢冊封体制は、中心の偏重性が置かれるという問題点がないとは言えないが、平和的秩序を追求する点においては、東アジア国際関係史に貢献した部分が少なくない。

中国は北方遊牧民族との関係において衝突の歴史をたびたび重ねた。北方民族は、気候変動などの様々な理由でもって南下すれば、おのずから中国の漢族の王朝と衝突する運命にあった。ところで、このように南下して中国に入り、北方民族が建てた王朝は一つや二つではなかったが、北方民族の大部分は、結局漢族に吸収され、文化的にも種族的にも命脈を維持できないという特異な現象を繰り返した。中国の周辺民族の中で韓国民族だけは中原に侵入した歴史が存在しなかった。韓国民族は中国に対して武力関係より文化受容に力点を置く歴史を保持し、その結果、

漢族に同化して消滅する現象は経験しなかった。韓国民族のこうした独特な文化交流は冊封朝貢体制とこれを支える儒教の平和的対外関係にもよく調和した。儒教を国家理念として標榜する朝鮮王朝は明の冊封朝貢体制に対して順応しながら女真、倭との関係に同じ思想を付与して、平和的关系を定立した。こうした性向は武力的に弱い勢力の不可避の結果として否定的に捉えるより、自己保全の努力として評価する余地があるだろう。

日本は古代国家樹立の段階から仏教と同時に儒教に対しても関心を持っていたが、持続しなかった。そして古代末期から武士社会が形成され、日本列島内の勢力間における角逐の歴史を経験しつつ、中国の冊封朝貢体制に対しても無関心であった。中国の諸王朝も日本が地理的に隔絶しているため無理に強要する様子ではなかった。こうした形勢は平和的关系を最高の美德として認識する儒教に対する無関心を引き起こしもした。日本でも徳川幕府時代に雨森芳洲が朝鮮との国交関係で儒教的平和関係として誠実外交論を説いた。日本史においてこの主張は特異なものであるかもしれないが、儒教国家の朝鮮では王や士大夫にとって常識的なことであった。雨森芳洲の誠実外交論に対する日本側の特別な評価は、日本の武士社会が儒教からどれほど遠く離れていたのかを示す一つの証拠である。

前近代東アジアの国際秩序は、すなわち、中国中心の冊封朝貢体制として継続したとすることができるが、日本がこの秩序にうけいれずに、実際に編入しなかった点からそれが全体であったとすることはできない。豊臣秀吉は一時この体制が要求し、また重要な機能を発揮する通交の利益を得るため、編入を検討もしたが、成立しなかった。その後をうけた徳川幕府は、中国の王朝が明から清へと変わり、新しく樹立した清が西側の蒙古とチベット族に対する統制を優先する形勢の中で、これ以上編入の圧迫を受けない恩恵を被った。この点から見ると、東アジアの国際関係は中国の冊封朝貢体制は定形と未定形の間にあった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こうした不完全性は中国が日中韓の東アジア世界の反対側に別のもう一つの世界を連結つながら条件として醸成されたであろう。蒙古族、チベット族がラマ教を通して持続させた紐帯関係は清帝国に決して少なくない脅威として残っており、これに対する政策的配慮と国力の投入は、反対側の逸脱を強力に統制できない含数関係を生み出したのである。明が清に変わったのち、朝鮮と日本(徳川幕府)の間に結ばれた国交が前とは違って、清朝との関係を全く考慮していないことも注目すべき変化であった。朝鮮の反清意識が日本の逸脱性と合流し生み出されたこの新しい関係は、清朝の東側世界に対する不可避の宥和主義として簡単に消滅しなかった。18世紀朝鮮はこれを土台に‘朝鮮中華’意識を育て、冊封朝貢秩序のこうした弛緩状態は、19世紀に西洋式近代国家の主権意識の受容を、それだけ容易に作る歴史性を発揮した。

1592年豊臣秀吉が起こした朝鮮、明に対する侵略戦争は、中国の冊封朝貢秩序に対する明瞭な挑戦であった。この戦争は鉄砲(韓国では鳥銃)という西洋文明の要素が介入した点からも注目すべきことである。この戦争が起きる前、戦国時代の日本には、外国から輸入する物資が多かった。当時日本の諸大名は朝鮮からは綿布、明からは緋緞を輸入し、ポルトガル商人からは鉄砲という新しい武器を購入した。綿布は諸大名麾下の兵卒のユニフォームとして、緋緞は武士たちの威勢を示す装飾品として価値が高かった。鉄砲は新しい武器として武士達に大きな関心を引き起こし、国産化が最も早く成し遂げられ、また武士の戦いの形態を変化させた。火薬を使う鉄砲は槍と刀、弓を主に使う戦術を無力化したり、大きく補強するだけでなく、軍事的拠点にも大きな変化をもたらした。すなわち、山城の代わりとなる天守城の登場がまさにそれである。

天守城は軍事的要衝ではなく、諸大名の政治的、経済的な重要拠点である都市に建てられた。

頑丈な石垣を下部構造として上部に望楼を建てたこの独特な形態の城郭は、鉄砲を撃ち鉄砲部隊を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新しい戦闘技術がもたらした変化であった。天守という名称は初め天主とも言ったが、これは、‘天下の主人’が守る場所という意味である。このような城は新しい覇者が登場すれば、前の覇権者のものが破壊されるという慣例が生まれたように、徹底した覇権意識をそなえていた。豊臣秀吉が‘朝鮮出陣’を命令したことは、自身が守る‘天下’の範囲を拡張しようとする意識の発露であった。それは、中国の冊封朝貢体制に対する強力な挑戦であったが、しかし失敗に終わった。16世紀末葉に表出した日本のこうした膨張主義は3世紀のちに西洋列強国が冊封朝貢体制を覆す際に、これに便乗して改めて大きく成長した。

Ⅱ. 西洋国際法秩序の中の三国の拮抗と衝突

19世紀中盤、西洋列強の東アジア進出は日中韓3国をして全く新しい経験という未知の世界に陥れた。高速で動く蒸気船、そこに据え置かれた艦砲は以前に見た帆船や紅夷砲とは全く違うものであった。それで、彼らが要求する差別的な通商と租借地の要求という条約を拒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国際法の自然法的規範主義とは違い、文明と野蛮の差等として要求する諸条約は自尊心と国富を奪っていくものであった。今まで東アジアの中心として自負して来た中国が感じる喪失感は何よりも大きかった。西洋列強の国際法の前に中国中心の冊封朝貢体制は無力にも崩壊して行き、3国はそれぞれ急いで活路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韓中日3国の中で日本が最も早く歩みを見せた。日本は国力の集中化のために明治維新を起こし、天皇制国家を樹立しつつ西洋列強国の文明を視察し、これを受容する際、政治首脳部が積極的に対応した。一方、中国は冊封朝貢体制の崩壊を最大限阻止しつつ西洋の機械文明を受容する道を選択した。天津と上海を拠点とした洋務運動が始まった。韓国は中国の動向を見て一番遅く一步を踏み出した。韓国の朝鮮王朝は西洋の機械文明受容の課題に勝るとも劣らず、中国との旧関係をどのように整理するのかがもう一つの大きな課題であった。1882年1月、アメリカとの修好通商条約の締結を念頭に、朝鮮国王はこの条約が締結されれば清、朝鮮、アメリカは互いに対等な関係となり、これにより今までの往来使臣制度を常駐使臣(すなわち公使)制度に転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否かを尋ねた。この当然な質問に対して清朝廷は答えず、少しばかりのちの同年6月に壬午軍乱が発生するや被冊封主(朝鮮君主)が望まない政変を冊封主(中国の天子)が座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口実で4000余名の天子の軍隊を朝鮮に派遣し政変の首謀者(興宣大院君)を捕らえ天津に送致した。天子の軍隊はこの任務を終えた後にも漢城にそのまま滞在して朝鮮を清国の属邦にする政策遂行した。アメリカとの条約を構成する際、朝鮮は新しい国際法秩序に、自主独立国を安着することを期待した。そのような朝鮮にとって清のこうした強圧的な方策は大きな脅威であった。

西洋列強国との条約関係で日中韓3国の立場はこのように互いに違っていた。開国と同時に不平等条約に悩まされた日本は国際法を最初から弱肉強食の法として理解した。中国は国際法の条約秩序が、今まで冊封朝貢体制の代わりとなるものとして受け入れられるためこの受容に消極的であった。朝鮮はむしろこれを完全な自主独立国として進む機会と考え、この受容と実行に非常に積極的であった。そうして他国と締結した条約は不利なものであっても忠実に履行すれば、

相手も最後には誠実な関係を許容するものだという信念のもと、諸条約の事項を利用するのに便利な一覧表形式で整理した『約章合編』を何度も編纂したりもした。儒教的誠実外交論の現代版であった。3国のこうした互いに違う立場と態度はすなわち、西洋列強の出現という新しい条件下で生じたものであるが、3国の共同体意識は全く作用しなかったわけである。解体と生成の大転換の中で進行した一つの逆境の行路であった。

日本は西洋列強から強要された不平等関係を清算するための努力を傾注する一方で、16世紀末に表出した膨張主義を新しい条件で実現しようとする野心と欲望を抱いていた。征韓論から始まり韓国併合の強制に至る韓国に対する国権侵奪の歴史がまさにそれである。明治の日本はこのために1889年に帝国憲法を頒布すると同時に、第2次徴兵令を下し、100万の大軍という清の軍隊と戦うことができる30万の精鋭兵力確保に国力を傾けた。この目標はたった5年余りで達成し、実際に1894年に清との戦争を起こし、この時すでに一度朝鮮の保護国化を祈念した。これはアメリカの介入と‘三国干渉’で水泡に帰したが10年後に再び軍備を大きく増強し、ロシアとの戦争を起こしその軍事力を背景にして韓国の軍権を手中に収めた。日清戦争で敗戦国になった中国がこれ以上牽制力を発揮できない状態で、ロシアが韓国に対する後援勢力として浮上し、これとの決戦をして勝利を収めることにより、所期の目的を達成した。1905年11月18日に韓国に対する保護条約を強制したのち、日本側の関係者達は漢城の駐韓公使館で祝杯をあげながら、“豊臣秀吉よ！あなたの成しえなかったことを私達がついに達成した”と喜んだ。

日本が韓国の国権を奪取する過程では多くの不法がほしいままに行われた。国権が関連する条約であっても批准過程がない略式の条約形式を一貫し、題目さえ付けることができない条約文を、英国,アメリカ等の西洋修好国に知らせるために作成した英文には、名称を挿入して正式な条約のように見えるようにした。最終の併合条約では、韓国皇帝が日本側の準備してきた併合の事実を知らせる詔勅に最後に署名しなか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国璽ではない別の印章を捺印して、皇帝が承認したもののように見えるようにした。こうした不法行為は首都漢城と韓半島を大規模な兵力を投入して占領したような状況で成り立っていた。1880年代、日本は韓半島に影響力の根拠を確保しようとする目的で略式条約さえも委任状と批准の順序を要求した。これに反して日清戦争, 日露戦争を起こし軍事力で韓国の主権を奪取しようとした時は全ての手順を無視する相反した態度を見せた。

日本の膨張主義は白人、特にロシアの東アジア占領に対する防禦を重要な論拠、または口実とした。こうした弁舌は英国,アメリカ等西欧列強世界に対してはある程度説得力を持つものでもあった。しかし、その最終具現形態が韓国併合として現れると欧米列強の態度も前と同じではなかった。しかし、この時はすでに牽制が不可能な状態であった。日本の東洋平和論は初めから日本が盟主になることを前提とし、中国,韓国の支持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は、1899年第1次万国平和会議を契機に西欧列強の間に一気に広まった平和の談論を日本固有の膨張主義の外飾でまとうのに過ぎないものであった。日本の膨張主義は武士社会伝統の覇権主義から大きく離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ので中国本土侵略に引き続きアメリカとの太平洋戦争にまで拡大されたのである。

日本が侵略主義に走り続けたこととは別に、1899年韓国と清は冊封朝貢体制に代わる新しい国際法的関係を約束するのに成功する。この年の8月に大韓帝国皇帝と大清帝国皇帝が同等な地位で通商条約を締結した。両国の代表が1月から8次にわたる協商の末、協定文を作成して調印し、もう一度両国の皇帝が批准するという完璧な近代条約としての要件を全て備え締結した条約であっ

た。1882年の朝鮮の君主の意志が17年ぶりに実現された瞬間であった。しかし清国は日露戦争以後起きる国際関係で影響力を持つことができず、韓国に対する日本の強制併合をただ見ていることしかできなかった。日本の韓国併合は東アジア3国が条約体制に編入された半世紀だけで生まれた東アジアの地殻変動であった。この変動は明治日本の近代化の神話として記されているが内容的には‘近代’が決して受け入れることのできない無数の暴力というものを内包していた。それは決して東アジア世界が未来志向的に継承したり発展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であった。

Ⅲ. 日中韓の国際関係と安重根の東洋平和論

明治日本の近代化が武士社会の伝統を背景に膨脹主義の道を歩んだ反面、大韓帝国の近代化は儒教的な文治の伝統を背景に平和主義路線を追求した。19世紀後半以来、韓半島は複雑難解な状況であった。清国と日本の介入だけではなくロシア等西欧列強の関心まで重なりあっている状況で小国の朝鮮、大韓帝国が選択することのできる道は平和路線しかないように感じられた。朝鮮、大韓帝国は終始、永世中立国に対して関心を持ち、これに必要な要件を備えることを近代化の優先課題とした。朝鮮、大韓帝国の君主(高宗皇帝)が王宮内に西洋式建物をたて、アメリカワシントンDCをモデルに首都に放射状道路体系(現在の市庁前ソウル広場地点)を導入し軌道電車を走らせ、皇城をつくるのに積極的であったことは文明国化の意思を国際社会にきちんと見せ永世中立国承認の一助とするためであった。財政的制約の中で3万余りの国防兵力養成に努力したことはそれが永世中立国の必須条件だったためである。しかしこうした構想は日本の膨脹主義に蹂躪されてしまった。

1909年10月26日、大韓義軍府の参謀中将である安重根はハルビン鉄道駅で日本の明治維新を主導し、韓国保護国化の主役でもあった伊藤博文を狙撃した。この事件は韓半島を保護国化したのち、満州に進出する新しい歩みを急ぎ進めていた日本に大きな衝撃を投げかけた。そして世界全てが驚愕した大事件であった。

安重根は獄中で3つの著述を残し、刑場の露と消えた。一つ目は伊藤博文の罪状15ヵ条、2つ目は安重根自叙伝、3つ目は東洋平和論である。第一の文章では伊藤博文が明治日本政府の代表として大韓国の皇后陛下を弑殺し、皇帝陛下を威圧脅迫し、主権を奪った条約を強制し、また皇帝を廃位するという過ちを犯し、韓国の産業、金融の資産を強制的に奪いつつ故意的に負債国を作り上げたこと、韓国政府が推進する学校教育を妨害し、幾多の義人達を暴徒に追いやり銃殺し、青年達の留学を禁止し、国際社会に対して韓国人が日本の保護を受けるのを望んでいると虚偽の宣伝をしたことなどを挙げた。こうした行為は結局東洋平和を壊し、数多くの人命を死に追いやることであるので銃殺されてしかるべきであった。第二の文章は漢字3万3千余字からなる長文の自叙伝に、自分がこの挙事を行うようになった背景と経緯を明らかにしつつこの挙事は決して殺人行為ではなく抗日独立義軍部の軍事作戦の一環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焦点をあわせていた。どれも‘近代’を装った日本の侵略主義の不義、不法を糾弾するものであった。

3つの文章の中でここで注目しようとするのは第三の東洋平和論である。参謀中将安重根はこの文章を書き始めながら旅順法院当局に自分に対する刑の執行をこの文章が完成した後に延ばしてくれることを要請した。旅順法院長はこの要請を受け入れたが、日本政府はこれに同意しなかった。それで安重根は序文と前半部を書いた後、執行日が近づき、法院長と3時間の間の談話

を通してその要旨を明らかにした。平石法院長が残したメモの内容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安重根はまず伊藤博文を含む日本人達の東洋平和論は侵略の口実に過ぎないものであることを批判した。そしてロシアの韓半島進出と掌握の可能性については日本側と見解を同じくしつつロシアの東アジア掌握を防ぐため日中韓3国が一緒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仕事を次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初めに、日本は日露戦争の戦利品として占有する旅順港をもとの所有国である中国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次に旅順港を返還された中国はこれを開放港とみなし、ここに日中韓3国の‘東洋平和会議’を設置し、それと同時にその傘下に銀行を設立して、3国で通用する貨幣を発行し経済共同体を構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3つ目に3国の主要都市に東洋平和会議の支部と銀行支店を設置し、産業発展を一緒に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4つ目にこれが成功すれば、インド、タイ、ベトナム等の国々も加盟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た。

安重根の東洋平和論は東アジアを西洋勢力の脅威から守るために、東アジアで可能にして来た平和主義を現代的に具現化しようとする意思を盛り込んだものである。それは朝鮮が冊封朝貢体制に対する順応として自己保全を追及してきたのちに、国際法的条約体制での転換に直面し永世中立国として自定するのを望みつつ、持続してきた平和主義に立脚した侵略主義に対する強力な抗弁であった。そしてその装置を経済共同体の形成に求めていることには驚きを禁じえないと言える。彼の東洋平和論は東アジア世界が西洋の国際法的秩序に編入される歴史的時間帯から東アジアの未来の秩序を平和的に模索した最初のものである点からも東アジアの人々が全て忘れてはならない対象である。

IV. エピローグ

19世紀中盤以来東アジア世界が西洋勢力を交えて実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歴史的課題は、西洋の優秀な機械文明を受容することと、国際法的条約体制の秩序を受容することであった。前者は日中韓3国が全て時間を前後して今までにある程度成就したと見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後者は大きい進展を見せたと捉えるには難しい部分が多い。特に、3国の間で惹起されているいわゆる歴史紛争として捉える時、この限界を否定するのは難しい。21世紀東アジア世界は、東西洋がすでに様々な部分で一つに結ばれた‘世界化’の与件から国際法的秩序の名実相伴った実現のための宿題をやり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このためには数千年積み重ねられた文化的圏域の基盤を土台に政治的、民族主義的な長壁を越える新しい関係を樹立するために互いに惜しむことなく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から過去の過ちはただ、問いたり踏んで歩き、越えることのできない問題なのでこれには歴史的眞実に立脚した率直な反省の場を互いに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には3国それぞれの固有の情緒を国際化させる必要性もあるであろう。私の基準としてはそうしたことを行うことは、死を意味するとか私の自尊心を捨てるなど閉鎖的情緒が存続するかぎられた東アジアの‘過去事’清算は永遠の未決として残るであろう。

安重根の挙事に対する過去の日中韓3国は全て肯定的な反応を見せた。韓国人にとって安重根の挙事は全ての不義、不法を拭ってくれる英雄であっ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中国でも抗日戦期間に中国の人々の安重根に対する敬慕は様々な形で現れた。特に政治的リーダーである周恩来は韓中両人民の日本帝国主義に対する共同闘争の初発として彼の行動を高く評価した。日本人の中でも明治日本の英雄を倒した人物でも彼に対する畏敬の念を吐露した人々が少なくなかった。し

かし、こうした評価はすべて自分の国の立場から加えたものとして未来志向的に見る時、反省の余地がないこともない。まず、日本人の敬慕には武士道の基準から彼を最も強力な敵将を倒した最高の武士として見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懼心が残る。そして周恩来の評価も対敵の視角という時代的条件をそなえている。韓国人の認識にはさらに不幸な要素が暗雲のようにたちこめている。安重根は法廷で自分は単独殺人犯ではなく抗日独立軍の参謀中將として作戦中に撃ったことから捕虜に関する国際法を適用するよう4回も力説したが、将軍ではなく義士という称号を一般的に使用した。こうした不徹底な認識を土台に最近イラクの事態から彼をテロリストと看做す見解まで登場した。そして、彼の東洋平和論は少数の専攻者達の中にしまわれていた。安重根は韓国ではなく東アジア平和主義の先駆者であった。20世紀の末葉の東西洋は交通、通信、資本主義の発達で世界が名実相伴い一つになるいわゆる世界化が非常に早く進行した。しかし、その世界化は精神的支柱が立たず、経済利潤万能の末に人類歴史上の由来のない金融危機の災難を引き起こしている。この状況から見ると、道徳的世界観として不義を清算する挙事に引き続いて真正な平和のために経済共同体の成立を主張する安重根は、世界主義者として高く評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あろう。そうした偉大な思想が過去100年間帝國主義と冷戦体制のもと、3国の利害関係の中で埋もれ、光が当てられなかったことは我々の不幸ではないだろうか。これは日中韓3国間の真正な対話を通じた平和的秩序確立に寄与するために発足する“東アジア研究者フォーラム”の頭辞の発話として充分ではないだろうかと思う。安重根に対する私の評価は決して韓国人の視角から加えられたものではないが、2009年10月26日に迎えるハルビン挙事100周年が日中韓3国の平和宣言元年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2008.11.25)(翻訳：ソウル大学校 国史学科 博士課程 小宮秀陵-)

〈参 考 文 献〉

- 渡辺浩・朴忠錫 編、『韓国・日本・「西洋」-その交錯と思想變容-』,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5
 渡辺浩・朴忠錫 編、『國家理念と對外認識 17-19世紀』,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
 山室信一,『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岩波書店, 2001
 安田 浩・趙景達 編,『戦争の時代と社會』,青木書店, 2005
 中塚 明,『歴史の偽造をただす』,高文研, 1997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 編,『近代化像』,東京大學出版會, 1994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편,『동아시아 경제문화 네트워크』,태학사, 2007
 李泰鎮 著 六反田豊 譯,『朝鮮王朝社會と儒教』,法政大學 出版局, 2000
 李泰鎮 著 島海 豊 譯,『東大生に語つた韓國史』,明石書店, 2006
 李泰鎮 編,『韓國併合의 不法性 研究』,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YI TAE-JIN,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 CORNELL East Asia Series 136, 2007

The Past and Future of Mutual Perceptions Held by Korea, China and Japan

- Recalling An Jung-Geun's Theory of Oriental Peace -

YI Taejin

1. Close Examination on Premodern Relation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Between Formality and Informality

Korea, China and Japan established one cultural region through cultural exchanges over thousands of years. Since the Bronze Age, they bought and sold materials for metal ware, and necessitie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shared religions and ideologies, forming one cultural zone. This zone, created by the movement of people, demonstrated high cultural homogeneity as the Chinese characters connected the three nations. Despite the cultural affinity, however, they had a history of conflicts between them as well. There were wars between Quin/Tang dynasties and Goguryo; allied forces of Shilla/Tang and Goguryo; and Bakjae/Japan and Shilla/Tang. And in the modern age, Toyotomi Hideyoshi of Japan fought a war with Joseon and Ming dynasty, driving East Asia into turbulence. Wars in ancient times were largely aimed at securing as many workforce and goods as possible due to low productivity in producing goods. The reason behind Hideyoshi's invasion into Korea and China was basically the same as the ancient wars.

The international order in premodern East Asia centered on China's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This system was launched to provide an order within China but was applied to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Han dynasty. As a result, the China-centered order lasted a long period. China had much larger territory and population than other nations in East Asia. These Chinese physical characteristics developed into cultural and political fronts, leading to the birth of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This system prolonged thanks to Confucianism's tolerance toward others. That is, if you treat far-away countries softly, all of them will come closer to you. This idea promoted peace and helped the system last long. However,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caused a problem because it placed too much emphasis on China. But it made a profound contribution to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 that it pursued a peaceful order.

China had often gone through a history of conflicts with nomadic tribes in the north. As the tribes moved southward for several reasons like weather changes, they were naturally confronted with the dynasty of the Chinese race. Consequently, the north tribes entered China and founded many dynasties. But in the end, they assimilated into the Chinese race, repeating an unusual pattern that they failed to maintain their existence both culturally and ethnically. Among the peripheral ethnic groups, only the Korean race never got into China. The Korean race had a history of focusing on importing the Chinese culture rather than military engagement so that it didn't assimilate into the Chinese race and thus die out.

Such unique cultural exchanges made the Korean race get accustomed not only to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but also to Confucianism's emphasis on peaceful relations with others, which supported the tributary system. Joseon, which proclaimed Confucianism as its national ideology, adapted itself to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while applying the same ideology in establishing peaceful relations with Jurchen and Japan. There is a room to evaluate this attitude as self-preservation efforts rather than to denounce it as an inevitable result from its military inferiority.

The ancient country of what is now Japan had an interest in Confucianism as well as Buddhism, but the interest didn't last long. In addition, as the society of *samurai* warriors was formed at the end of ancient times, Japan underwent a power struggle so that it was indifferent to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of China. On the other hand, Chinese dynasties didn't force the system to Japan due to the geographical alienation between them. These circumstances prompted its indifference to Confucianism which regarded peaceful relations as its top virtue. During the Tokugawa Shogunate period, Amemori Hoshu stressed "faithful diplomacy" in its relation with Joseon. Though this ideology may seem unusual in the Japanese history, it was common knowledge to kings or the *yangban* gentries in Confucian Joseon. Japan's special evaluation of Hoshu's faithful diplomacy is one example that shows how far the *samurai* society stayed away from Confucianism.

In short, the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of the premodern age continued with China-centered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However, it wasn't the whole picture, in that Japan didn't agree to or wasn't actually integrated into this order. Toyotomi Hideyoshi once considered joining the system to gain benefits from friendly relations which served a vital function, but his thought didn't materialize. The succeeding Tokugawa Shogunate didn't suffer from the pressure of integration any longer, because Ming gave way to Ching and the new government put more emphasis on its control over Mongolia and Tibet. In this light,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stood between formality and informality when it comes to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The imperfection resulted from the situation in which China was located between East Asia and the opposite world in the west. The close ties that Mongolia and Tibet had maintained through the Lamaist Buddhism remained a big threat to the Ching dynasty. Therefore, China's considerate policies toward the western nations and concentration of its national power on them failed to strongly restrain the deviation of East Asia.

It was a noticeable change that Joseon and Japan (Tokugawa Shogunate) didn't take into account their relations with Ching whe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m. The new relations, which resulted from the mix of Joseon's anti-Ching sentiment and Japan's deviation, didn't easily disappear due to Ching's inevitable appeasement policy toward the eastern world. Under this situation, the 18th-century Joseon promoted itself 'Middle Kingdom' in the meaning of the true successor of Ming's Confucian culture. The looser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laid a historical foundation to make it much easier to import a sense of sovereignty from the nineteenth-century Western countries.

The invasion waged by Toyotomi Hideyoshi in 1592 against Joseon and Ming was an outright challenge to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It is notable that an element of the Western civilization appeared in the war - iron musket (fowling piece in Korea). Before the war, during the

Sengoku era, Japan imported a lot of goods from foreign countries. At that time, many *daimyos* (leading figures) purchased cotton stuff from Joseon, silk from Ming and iron musket from Portugal. Cotton stuff was used as uniforms for soldiers of *daimyos* and silk was valued to show off the power of samurai warriors. The new weapon, iron musket, provoked so much interest from samurais that it became the first to be domestically produced and changed the pattern of combats among samurais. The iron musket, which used gunpowder, not only incapacitated or greatly strengthened previous tactics that focused on spear, sword and arrow, but also made a big change in military bases. A good example of this is *tenshujyo fort* that replaced a mountain fortress. The *tenshujyo fort* was established not in military strongholds but in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mportant positions for *daimyos*. The extraordinarily shaped fortresses, which had strong stone walls in the lower part and an observation tower in the upper part, was a change brought out by new combat techniques required to fire iron musket and block a unit of iron musket. The term *tenshu* (天守) was also called *tenshu* (天主) which means "the lord of the world under the heaven." These forts reflected supremacy, since that of a former ruler was destroyed when a new ruler emerged. Toyotomi sent Japanese troops to invade Joseon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his "world under the heaven." The war posed a great challenge to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but achieved nothing. Three centuries later, the expansionism of Japan in the late-sixteenth century prevailed again when the Western powers pulled down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2. Antagonism and Confrontations Between the Three Nations While Adapting to the New Order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est

The Western powers' advance into East Asia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brought Korea, China and Japan into a whole new world. The high-speed steamers and guns loaded on them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sailing boats and *hong'ip'o*, the red western cannon. That was why the three nations were unable to resist Western powers' demand for differential trade and territorial concessions. Unlike the natural rul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agreements deprived the three nations of national pride and wealth. The sense of loss was especially huge for China which had prided itself as the center of East Asia. China's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became powerless at the face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est and the three countries had to find their way for survival.

Japan was the first to take action. In an effort to centralize its national power, Japan inaugurated "Meiji Restoration" and established the emperor system. Its political leaders visited the Western powers, noticed their civilizations, and were active in importing them. In the meantime, China tried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as much as possible while importing the machine civilization from the West. "The self-strengthening movement" started around Tianjin and Shanghai. And Korea was the last to move as it kept an eye on the situation of China. In addition to importing the machine civilization from the West, how to handle its past relation with China was

another important challenge for the nation. Before signing the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with the United States in January 1882, the king of Joseon ordered his officials to consult with the Ching government whether the traditional "shuttle envoy system" should be replaced by the new "stationed envoy system" because Ching, Joseon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come equals after the treaty was concluded. The Ching government gave no answer to this question. But in June of the same year, when the Imo Military Insurrection broke out in Joseon, the Chinese emperor said that the appointer couldn't ignore the coup that the appointee (the king of Joseon) didn't want. Thus, China sent an army of 4000 soldiers to Joseon and captured and took the leader of the rebellion (Heungseon Daewongun, the father of king) to Tianjin. After completing their mission, Chinese troops stayed in Seoul, trying to make Joseon as a subordinate state. When conceiving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Joseon looked forward to establishing itself as a sovereign and independent nation in the new order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For such anticipation of Joseon dynasty the enforcement of Ching's plan was a major threat.

Korea, China and Japan showed different attitudes toward agreements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Japan, plagued by unequal agreements it signed with the Western nations when opening its door to them, understood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rule of the jungle from beginning. China was reluctant to accept the international law, thinking that it would replace the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By contrast, Korea was very active in implementing the law since it considered the new situation an opportunity to establish itself as a completely sovereign nation. Thus, believing that if it faithfully implemented an agreement signed with other nations even though it was unfavorable, they would allow a faithful relation in the end, Korea published a series of *Yakjanghapyeon*, which complied the treaties and agreements in a list for convenient use. It was a modern version of Confucianism's faithful diplomacy. Different positions and attitudes of Korea, China and Japan stemmed from a new circumstance caused by the appearance of Western powers, but a sense of community of the three nations didn't play any role. This was the path of adversity amid a big change of break-up and emergence.

Japan strived not only to break unequal relations forced by the Western powers, but also to realize its expansionism under new conditions following its first attempt in the late-sixteenth century. This was when the history of Japan's invasion into Korea ranging from "the debate to conquer Korea" (the Seikanron debate) to annexation of the nation began. To do so, the Meiji Japan ordered the second conscription to build up an elite unit of 300,000 soldiers, at the same time of publishing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in 1889, which could fight with the one-million-strong Chinese army. This goal was achieved in about five years. Japan waged a war against China in 1894 and tried to subjugate Korea. After this attempt failed due to the engag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ntervention by Germany, France and Russia, Japan considerably strengthened its military force 10 years later, fighting a war with Russia and capturing its sovereignty over Korea. As Russia emerged as a supporter for Korea while China couldn't act as a deterrent after losing the Sino-Japanese war, Japan fought with Russia and achieved its goal. After forcefully concluding the Protectorate Treaty with Korea on November 18, 1905, Japanese officials proposed a toast in its legation in Korea, saying, "Toyotomi

Hideyoshi! We finally achieved what you had failed to achieve."

Japan committed many illegalities in stealing away Korea's sovereignty. It forced Korea to sign the treaty in simplified form without any ratification even though Korea's sovereignty was at stake. It even made the untitled treaty look like a formal one by putting a title in its English version when notifying of the treaty the nations like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it had diplomatic ties with. The Japanese stamped the final Annexation Treaty with a fake seal although the Korean emperor didn't sign the edict prepared by the Japanese officials to prove the annexation. Such an illegal act was done while Japan captured Seoul and the Korean peninsula with its massive army mobilized for the war against the Russia. In a bid to secure the cause to exert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880s, Japan requested the letter of attorney and ratification for an agreement everytime. By contrast, it ignored all the procedures when it tried to seize sovereignty over Korea through wars with China and Russia.

Japan used it as an important logic or pretext in its policy of expansionism to protect East Asia from the White people, especially the Russians. This argument had some persuasive power to the Western countries like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But their attitude wasn't the case when the Japanese annexed Korea. However, Japan was already uncontrollable. Japan's theory of oriental peace didn't get support from China and Korea because it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Japan was the leading power. The theory was created by disguising Japan's unique expansionism in the discussions about peace which was taking place among the Western powers following the 1st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in 1899. Since Japan's expansionism was hard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hegemony of the samurai society, it led to Japan's invasion to the mainland China and Pacific War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Japan pursued a policy of invasion, Korea and China successfully promised in 1899 to establish a new relation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that replaced the traditional appointment and tributary system. In August of the same year, emperors of both nations reached an equal treaty. Following eight rounds of negotiations, representatives from the two nations wrote and signed an agreement which then was ratified by both emperors. It was a perfect treaty that met all requirements of a modern agreement. At last, the dream of the Joseon emperor came true in 17 years. However, having no power ove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developing after the Russian-Japanese War, China couldn't do something about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The annexation was like cataclysm in East Asia which occurred in half a century since Korea, China and Japan entered the system of treaties. Such an upheaval was usually considered a myth of the modernization of the Meiji Japan, but in substance, it implied enormous violence that the modern age could never tolerate. It was what the East Asian world couldn't hand over or develop in a future-oriented way.

3. The Challenge of the Relation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Ahn Jung-Geun's Theory of Oriental Peace

Whereas the modernization of the Meiji Japan pursued expansionism based on its tradition of the samurai society, that of Korea pursued pacifism based on its civil administration of Confucianism. The Korean peninsula faced a difficult and complicated situation since the late-nineteenth century. With the intervention of China and Japan, and a big interest of the Western powers like Russia, the smaller nation of Joseon had no choice but to pursue pacifism. Korea had a continuous interest in permanent neutrality and made it as a priority of its modernizatio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becoming a permanently neutral state. In an effort to get approval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showing its willingness to be a civilized nation, Emperor Gojong constructed a Western-style building in the royal palace, introduced radial roads in Seoul (now the Seoul Plaza in front of the City Hall) resembling those in Washington D.C. and brought a tram into operation. He strived to build a 30,000-strong army because it was a requirement of becoming a permanently neutral country. However, these efforts were nullified by Japan's expansionism.

On October 26, 1909, Ahn Jung-geun, a deputy lieutenant general of the Korean Righteous Army, shot fire at Ito Hirobumi at the Harbin train station who was regarded as chief architect for Japanese aggressive plans in Korea and the Meiji Restoration in Japan. The accident shocked Japan which had made Korea its subordinate nation and stepped up its advance into Manchuria. It sent shock waves across the world as well.

Ahn Jung-geun ended his life on the gallows with his three works in prison. The first was about 15 charges of Ito Hirobumi, the second was his autobiography and the last was his Theory of Oriental Peace. In the first writing, Ahn pointed out Ito's charges: The representative of the Meiji Japan had the Korean Queen killed, threatened the Joseon emperor to sign an agreement for seizing sovereignty over the nation, dethroned him; intentionally made Korea indebted by confiscating assets of Korean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blocked the public education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alsely accused numerous doctors of insurgency and killed them; banned young Koreans from studying abroad; and spread propaganda that the Koreans wanted Japan to protect them. He insisted that Ito Hirobumi be executed because these acts would destroy the oriental peace and kill numerous people. The second writing was a long autography made up of around 33,000 Chinese characters, unveiling how and why he decided to shoot Ito Hirobumi and explaining that the action wasn't a killing but committed as part of the mission of the Korean Righteous Army. These works tried to criticize the injustice and unlawfulness of Japan's invasion which was disguised as its modernization efforts.

What I want to pay attention to is the third one: Ahn's Theory of Oriental Peace. After starting this essay, deputy lieutenant general Ahn Jung-geun asked the Lushun Court to put off his execution until after he completed writing. The court president accepted his request, but the Japanese government didn't agree. So Ahn wrote the prologue and former part of the piece. And when the execution day

came, he asserted his point during a three-hour meeting with the court president. Court president Hiraishi left his memo. His theory of peace was as follows:

Ahn Jung-geun criticized the theory of oriental peace of the Japanese including Ito Hirobumi as a pretext for their invasion. But sharing a view with the Japanese on the possibility of Russia's advance onto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control over Korea, he presented what Korea, China and Japan must do in order to prevent Russia's dominance in East Asia. First, Japan must return Lushun Port which it took as a loot during the Russian-Japanese War to its original owner (China). Second, China is asked to open the port, launch the Oriental Peace Conference of Korea, China and Japan, set up a bank under the conference, issuing common currency, and build up an economic community. Third, the three nations are required to establish branches of both the conference and the bank in major cities, pursuing industrial development simultaneously. And last, if these are successful, they are supposed to invite countries like India, Thailand and Vietnam to join the conference.

Ahn's Theory of Oriental Peace contained his determination to realize pacifism in modern times, which had served well to safeguard East Asia against the Western influences. It was a strong pacifist protest against a policy of aggression. His pacifism was derived from the historical experience that his motherland Korea pursued self-preservation by adapting to the tributary system and tried to become a permanently neutral country when it was replaced by a system of treatie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And it is surprising that Ahn was trying to find the answer in forming an economic community. All people in East Asia should never forget his Theory of Oriental Peace, in that it was the first attempt to peacefully build a future order in East Asia at a historical moment when the East Asian world joined the new order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est.

4. Epilogue

Confronted with the Western powers since the mid-nineteenth century, East Asia has had two historical tasks: to import the advanced machine civilization from the West and to accept the system of treaties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The former has been achieved to some extent by Korea, China and Japan, one after another. It seems, however, that the latter has made no big progress. Such limitation is undeniable,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the history disputes taking place between the three nations these days. In an age of globalization connecting the East with the West in many aspects, the 21st-century East Asian world is required to do its tasks to fully realize the order of the international law. To do this, the three nations should spare efforts to establish new relations overcoming political and ethnical obstacles based on the cultural zone strengthened over thousands of years. Since the past mistakes can't be ignored or disappear, the three countries are supposed to share candid reflections based on the historical facts. In order to do this, each of them needs to globalize its unique sentiment. In my opinion, if a closed mind-set persists, so doing this may mean a death or losing self-identity, eliminating the legacy of East Asia may be impossible.

In the past, Ahn's shooting received positive responses from Korea, China and Japan. Needless to

say, it was a heroic act resisting all the injustice and unlawfulness of Japan's wrong-doings for Koreans. During the anti-Japanese movement, the Chinese showed various types of admiration for him. The nation's political leader Zhou En Lai, in particular, praised Ahn's heroic deed as the starting point for joint liberation movements against Japan's imperialism by Korean and Chinese people. Many Japanese even showed awe and respect for Ahn even though he killed the hero of the Meiji Japan.

However, these evaluations were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nation, so there is a room to take a future-oriented approach to these assessments. First, I doubt that the Japanese might have admired him in terms of *samurai* chivalry because he took the life of the strongest commander of the enemy. And Zhou En Lai's assessment had historical limitation because of its antagonism. Even Koreans had wrong perceptions of Ahn Jung-geun. In court, he stressed four times that he wasn't just a killer but shooting fire at the enemy commander in combat action as the deputy lieutenant general of the Unit of Independence Fighters, so he should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on prisoners of war. But Koreans have called him a righteous man rather than a general. Amid such improper perceptions, some people recently regarded him as a terrorist. And his Theory of Oriental Peace is only enshrined in the knowledge of a few scholars. Ahn Jung-geun was a pioneer of the pacifism in East Asia, not just in Korea. In the late-twentieth century,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and capitalism, the world underwent a rapid globalization uniting the East with the West. But this globalization is bringing about an unprecedented financial catastrophe for the world which has had no spiritual pillar but concentrated on materialism and economic profits. Against this backdrop, we must think highly of Ahn Jung-geun as a true globalist who call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community to bring real peace to East Asia following his act to eliminate the injustice according to his moral world view. Isn't it a shame that his grand ideas have been overshadowed by the interests of the three nations in the imperialism and the Cold War system for 100 years and have never come to light? Isn't it sufficient to be a topic at the "East Asia Researchers Forum," which will be launch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peaceful order through sincere discussion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 didn't evaluate Ahn Jung-geun from a Korean point of view. I hope that Korea, China and Japan will declare the East Asia's First Year of Peace on October 26, 2009 which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Ahn Jung-geun's righteous action at Harbin. (November 25, 2008)

References

- 渡辺浩・朴忠錫 編, 『韓國・日本・「西洋」-その交錯と思想變容-』,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5
 渡辺浩・朴忠錫 編, 『國家理念と對外認識 17-19世紀』,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 2001
 安田 浩・趙景達 編, 『戦争の時代と社會』, 青木書店, 2005
 中塚 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 高文研, 1997
 溝口雄三・浜下武志・平石直昭・宮嶋博史 編, 『近代化像』, 東京大學出版會, 1994
 한림대학교 아시아 문화연구소 편, 『동아시아 경제문화 네트워크』, 태학사, 2007
 李泰鎮 著 六反田豊 譯, 『朝鮮王朝社會と儒教』, 法政大學 出版局, 2000

李泰鎮 著 島海 豊 譯, 『東大生に語つた韓國史』, 明石書店, 2006

李泰鎮 編, 『韓國併合의 不法性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YI TAE-JIN, The Dynamics of Confucianism and Modernization in Korean History, CORNELL East Asia Series 136, 2007

• **Panel 1-1** 殖民地, 戰爭과 歷史記憶

Moderator 徐仲錫 (SEO Joongseok, 成均館大)

Panelist-1 胡澎 (HU Peng, 中國社會科學院 日本研究所)

：性別視角下的東亞“慰安婦”問題

(젠더의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 “위안부” 문제)

Panelist-2 榮維木 (RONG Weimu,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抗日戰爭研究中的熱點問題

(항일전쟁 연구의 쟁점)

Panelist-3 安鐘哲 (AN Jongchol, 서울大)

：중일전쟁 전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평양의 선교사계
중등학교

Panelist-4 李承機 (LI Chengchi, 國立成功大)

：殖民地歷史經驗中的「個人記憶」與「集體記憶」

(식민지 역사 경험 속의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

Discussant 鄭在貞 (CHUNG Jaejeong, 서울시立大)

朴敬石 (PARK Kyungsuk, 東北亞歷史財團)

性別視角下的东亚“慰安婦”問題

■ 胡 澎（中國社會科學院 日本研究所） ■

性别视角下的东亚“慰安妇”问题

胡 澎（中國社會科學院 日本研究所）

—〈目 次〉—

- I. 从性别视角研究“慰安妇”问题的必然性与必要性
- II. “慰安妇”问题中蕴涵的性别歧视意识
- III. 介入女性史、性别史的“慰安妇”问题
- IV. “慰安妇”问题中的对妇女的暴力问题
 - 一. 作为战争犯罪的“慰安妇”问题
 - 二. 作为对妇女的暴力问题的“慰安妇”问题
- V. “慰安妇”问题中的性别与民族/国家

内容提要：“慰安妇”问题的实质是日本军人对被侵略国家女性采取的集体性暴力行为，是一种“反人类”的罪行。然而，建构在东亚的传统性别歧视意识，使这一历史的真实被遮蔽了近半个世纪。在研究“慰安妇”问题上，性别是继历史、政治、国际关系、国际法等视角之外一个新的也是重要的切入点。20世纪90年代以来，东亚国家的女性研究者、女性社会活动家和民间妇女团体跨越国境对“慰安妇”幸存者的调查、采访以及由女性主导的“女性的国际战犯法庭”使得“慰安妇”问题在性别意义上超越了国家主义的藩篱，成为了一个东亚和世界的问题。

关键词：慰安妇 性别视角 战争犯罪 历史问题

第二次世界大战时期，在日军铁蹄之下普遍设置了与日军相关联的慰安所¹⁾，强迫被侵略国家妇女充当日军的性奴隶。在这一制度的奴役下，数十万中国、朝鲜、东南亚和欧美各国的妇女惨遭日军蹂躏。“慰安妇”指的就是这些在日本政府或军队的命令下为日本军人提供性服务的妇女。在二战后相当长的历史时期里，“慰安妇”一直是一个被遗忘的群体。直到1991年，韩国的金学顺第一个勇敢地站了出来，证明自己就是被日军强征的“慰安妇”，并与其他两名“慰安妇”幸存者以及原韩国的“日军军人”、军属和遗族等32人组成控诉团，向东京地方法院状告日本政府，要求日本政府承认战争罪行、给予赔偿和谢罪。沉默了46年后之久的“慰安妇”问题终于重新浮出了历史地表。此后，韩国、中国、东南亚等国从前被迫做过“慰安妇”的妇女相继公开自己的姓名，并纷纷出来作证，要求日本政府谢罪和赔偿。之后，“慰安妇”问题在日本、东亚乃至世界范围成为一个新的话题，并由此而引出一系列错综复杂的事件。

1) 慰安所的设置据称是为了防止日本军人在战地实施强奸等不法行为以及性病蔓延导致兵力低下，然而实际上，这一以配备慰安妇来杜绝和减少强暴现象、强奸案件的做法，并没能阻止或减少日军铁蹄所到之处的性暴力。

I. 从性别视角²⁾研究 “慰安妇” 问题的必然性与必要性

20世纪90年代以来,随着“慰安妇”问题在日本、东亚乃至国际社会的一次次被提及,“慰安妇”已成为一个世界性的话题,对“慰安妇”问题的认识、表述和研究涉及了政治、历史、文化、人权、国际关系等诸多领域,并与战争、民族、国家、性别等概念纠葛在一起,呈现出纷繁万象。如今,“慰安妇”问题所涵盖的意义已远远超过了“慰安妇”事件本身。

归根结底,“慰安妇”问题的实质是男性日军施暴者对被侵略国家女性所实施的性暴力。因此,“慰安妇”问题自诞生的那一刻就已经与性别扯上了关系。同时,“慰安妇”问题重新进入人们的视野也与性别有着密不可分的联系。1988年韩国教会女性联合会的尹贞玉等人从福冈到冲绳开始了“慰安妇”调查,并在联合会里设立了“挺身队研究委员会”。1989年1月“韩国女性团体联合”发表了反对韩国派遣使节参加昭和天皇葬礼的声明,在声明中提到了挺身队问题并要求日本政府谢罪。针对韩国妇女团体的要求,日本召开国会进行审议,但审议的结果否认了“慰安妇”与军队和国家之间的关联,一些日本政要也发言污蔑“慰安妇”是“卖淫”,强调“慰安妇”并非强征而是一种商业行为。日本政府和政要这些回避责任的发言激起韩国妇女和妇女团体更大的愤怒,“韩国女性团体联合”等37家妇女团体向日本国会递交了抗议信,并结成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负责调查、研究和取证日军对朝鲜女性的性暴力活动。正是在韩国妇女运动的鼓舞和直接影响下,1991年作为亲历者的“慰安妇”幸存者们终于停止了沉默,针对把“慰安妇”说成是“卖淫”的这一被歪曲的历史勇敢地说“不”,并将日本政府推到被告席的位置。可以说“慰安妇”幸存者的告发既是受韩国妇女运动的激励,又反过来为包括“慰安妇”问题在内的整个东亚社会女性问题的研究注入了活力。

当我们用性别视角考察“慰安妇”问题的时候,就不难发现:“慰安妇”在二战结束后长达半个世纪的集体“失声”、日本政治家和右翼对“慰安妇”问题的否认、歪曲乃至人身攻击,其中都蕴涵着一种深刻的性别歧视意识。直至21世纪的今天,这种性别歧视意识依旧潜伏于日本社会意识的底层,并主宰着一些日本的政治家和右翼人士的历史认知。

以性别视角分析“慰安妇”问题还有一个更为有利的条件,就是日本学术界从性别视角对日本近代史研究的起步比较早,也取得了一定的成果。在20世纪70年代后期,随着“日本女性学会”、“日本女性学研究会”等多个女性学研究团体的成立,不少文学、社会学、法学、历史学等领域的学者开始在研究中引进女性学的理论。像加纳实纪代、上野千鹤子、铃木裕子等女性学者分别从性别视角反思近代以来日本女性史,挖掘二战期间日本妇女支持战争的史实并追究日本妇女所应承担的战争责任。1991年“慰安妇”幸存者的告发使得一些有良知的日本学者开始关注“慰安妇”问题。日本的一些妇女团体、女性学者、社会活动家本着对历史负责、对“慰安妇”幸存者负责的态度,从性别的视角介入历史,去反思包括“慰安妇”问题在内的历史遗留问题。这些由女性学者、妇女社会活动家、妇女团体所构成的女性主义阵营成为研究、调查和解决“慰安妇”问题的积极参与者和推动方,也是抗衡和批判性别歧视意识、狭隘民族主义思潮、历史修正主义、自由主义史观的一支重要力量。她们对日本近代女性史的重新梳理和思考、对“慰安妇”幸存者的调查和研究为我们更进一步地思考和研究“慰安妇”问题提供了可能。

2) 性别(Gender, 也称社会性别)指男女两性在社会文化的建构下形成的性别特征和差异,即社会文化形成的对男女两性差异的理解,以及在社会文化中形成的属于男性或女性的群体特征和行为方式。性别视角指从性别的角度去观察和思考问题。

II. “慰安妇”问题中蕴涵的性别歧视意识

为什么“慰安妇”问题被尘封了近半个世纪?为什么对“慰安妇”问题的叙述、认知以及解决途径上各派观点众说纷纭甚至尖锐对立?究其原因,蕴涵于东亚文化中的性别歧视意识是根源之一。众所周知,东亚漫长的父权制在制造了女性的从属地位以及男女性别不平等的权利关系之上,也构筑了这一性别歧视意识。女性作为男性的私有财产被限定在家庭领域,并在公共领域常常处于“失明”、“失聪”和“失语”的地位。

追根溯源,“慰安妇”制度并不是二战时期日军的新产物,而是一直植根于漫长日本历史中的一个“传统”。早在16世纪后半期,丰臣秀吉在大阪、京都就专门辟有游廓(妓院区),由幕府进行管理。游廓里的妓女、艺妓是没有人身自由的性奴隶。这一政府通过政治权利对卖春进行“公”的管理的制度被称为公娼制。明治维新后,随着日本在海外殖民地的扩张,日本的娼妓业开始在东南亚地区扎根,之后在台湾、“满洲”、朝鲜半岛等地遍地开花。战争结束后的1946年,盟军下达了关于废止日本公娼的备忘录,但公娼制并未真正被取缔。日本当局为了减少占领军强奸日本妇女案件的发生,依然延续了公娼制的思维和做法,设立了特殊慰安设施协会(RAA: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这一买卖春的场所,公开招募慰安妇对占领军从事性服务,并美其名曰此举是为了保障良家妇女的安全而设立的一道“防波堤”。因此,日本的公娼制实质上是一种国家权利对女性个体的性侵略政策,而二战时期日军的“慰安妇”制度不过是对女性的性侵略政策在被侵略土地上的延续和扩展。

当公娼制以及父权家长制下对女性的歧视和压抑成为一种普遍的社会意识,“慰安妇”问题的实质便被遮蔽了。因此,战后以来的“慰安妇”问题一直被认为是军队内部的买淫问题而被合理化了。作为加害者的原日本军人往往不认为自己的行为在实施公娼制的战争期间是一种犯罪,缺少良心上的反省和自我谴责。也有不少人将慰安所、“慰安妇”看成是战争的产物,是避免不了的,认为“战争时期嘛,尽管慰安妇很可怜,可也是没有办法的事情”。一些右翼知识分子或政治家不但极力否认“慰安妇”历史的真实性,甚至对那些勇敢站出来指证的“慰安妇”幸存者进行肆意诋毁和羞辱,说什么“既然有那样一种经历,就应该感到耻辱而保持沉默”。以上事实表明:尽管二战后日本妇女在政治、经济、教育、家庭上的地位得到很大提高,但两性在社会分工和政治参与、权利关系等方面依然存在差异和不平等,性别歧视意识依然残存于日本人思想观念深处,这些都导致了“慰安妇”问题成为战后遗留问题。

同样,在东亚传统的性别观念影响下,受害妇女往往认为自己被迫做过“慰安妇”的经历是自己一生的耻辱,而周围人也大都认同这种耻辱,并把她们的遭遇看作是他们居住共同体的耻辱。这种“耻”的思维使她们在二战后依然长期生活在自卑的阴影中,命运十分悲惨。

III. 介入女性史、性别史的“慰安妇”问题

作为过去发生过的一个重要的历史史实,“慰安妇”问题无疑是一个历史问题。同时,又因其蕴涵着的性别因素而被理所当然地划归到了女性史、性别史的研究范畴。因此,“慰安妇”问题不仅关系到如何客观对待历史、将历史的真实告诉后代的问题,还关系到如何以性别视角重新审视历史、还原历史,并如何在东亚共同记忆和共同历史认知的基础上书写和建构东亚女性史、性别史的问题。

女性史、性别史的一个突出特征在于“性别”是作为与“种族”、“阶级”同样重要的视角而被引入

的。当性别没有被作为一种视角或是一种方法引入时，在历史叙述中它一直让位于公共领域、国家概念等理论。这就造成了在长达14年侵略战争的历史叙述中女性是缺席的。同时，在以往描述“慰安妇”历史的话语中，作为历史主体的“慰安妇”也是“失语”的，这种“缺席”和“失语”必然导致“慰安妇”历史的不完全和不客观。

“慰安妇”问题被纳入女性史、性别史的最重要意义之一在于长期以来被遮蔽的历史主体——“慰安妇”的登场。20世纪90年代以来，中日韩的女性研究者、妇女团体对“慰安妇”幸存者进行了大量的采访、调查和研究。她们通过对“慰安妇”个体记忆的记录、整理和分析，寻求“慰安妇”受害整体的记忆，从而弥补了“慰安妇”在历史叙述中的缺席。

由于日军在战败的最后时刻，将大量重要文件和资料进行了销毁，其中有不少是证明政府、军队与慰安所设置之间关系的重要资料。因此，日本社会滋生出了诸如力图隐蔽和抹杀“慰安妇”历史存在、为侵略战争寻找合理依据的“历史修正主义”史观、自由主义史观、侵略史观以及将历史的细节、官方资料作为唯一证明史实存在依据的史料至上主义等多种史观。这些都使得对“慰安妇”问题的探讨、研究和争论时而纠葛在政治立场和主张的旋涡之中，时而又陷入一种文书至上、“一叶障目不见泰山”的境地。在这样的背景之下，对“慰安妇”幸存者的调查、采访、录音、整理、分析的口述史方法就显得弥足珍贵。

20世纪90年代以来，日本一些妇女团体以及日本律师联合会等NGO组织，在“慰安妇”问题上始终坚持历史唯物主义，做着还原历史的工作³⁾。她们不仅仅将目光停留在慰安所的“慰安妇”身上，还把目光转到战场那些遭受日军性暴力的普通女性身上。例如，“揭示山西省实情会”、“从性暴力的视角看日中战争的历史性格研究会”以及“查明日军在中国的性暴力实情、支援索赔诉讼会”从1996年到2004年期间，对日军在山西省孟县实施性暴力的情况进行了连续的采访调查。参与调查的不仅有研究人员、律师，还有学生、公司职员、主妇等一般市民。他们通过大量取证、口述记录进行学术研究，还对孟县“慰安妇”幸存者的对日索赔进行了声援。

采访者通过一次次的访谈，消除了“慰安妇”幸存者的恐惧、自卑和羞耻，帮她们找回了做人的尊严，并使她们产生向日本政府讨还公道的勇气。随着对事件的调查、取证，这些受害妇女尘封的记忆闸门被打开。女性研究者们将对当事人的采访以口述史的方式记录下来，并将研究成果陆续发表。如石田米子·内田知行主编《黄土之村的性暴力——大娘们的战争还没有结束》⁴⁾、石田米子著《中国农村采访中所见之战时性暴力的结构》⁵⁾等研究成果，不仅揭露了日军在孟县性暴力的实情、背景和性暴力的结构，同时指出孟县的性暴力是不同于“南京型”、“慰安所型”的前线“底端型”性暴力⁶⁾，即日本兵将中国妇女强制绑架、监禁在部队据点和设施中加以轮奸，也有的被军官长期占有；对那些离开家、家庭成员便无法生存的妇女则在其家中进行长期、常态的轮奸等。女性研究者对这些“慰安妇”幸存者的采访极大地扩展了“慰安妇”历史的研究空间，把那些将“慰安妇”悲惨遭遇污蔑为“卖淫”的历史还原为了“对妇女的性暴力”的历史，并把日军性暴力的实情、背景的研究向前推进了一大步。“慰安妇”幸存者的个体记忆被挖掘出来并逐渐成为人类共同的记忆，同时也成为其所属民族历史的重要组成部分。

3) 还原真实的历史需要一种客观的历史态度，既要记录民族的优良传统中的“善与美”，也不遮盖民族历史中的“丑与恶”，尽可能把历史的真实、经验和教训传承给下一代。

4) 《黄土之村の性暴力—大娘たちの戦争は終わらない》(创土社，2004年)，该书获得山川菊荣优秀女性问题研究著作奖。

5) 《中国農村における聞き取りから見えた戦時性暴力の構造》(《鸣门史学》18, 2005年)

6) 参见小滨正子：《利用口述史料研究中国近现代史的可能性—以山西孟县日军性暴力研究为例》，《史林》2006年第3期。

IV. “慰安妇”问题中的对妇女的暴力问题

一. 作为战争犯罪的“慰安妇”问题

“慰安妇”问题是建构在战场上日本军人所作所为基础之上的,同时,也是建立在为什么会产生这一现象的历史认知之上的。日本社会在“慰安妇”问题上存在着各种不同的历史认知,有人认为战争是残酷的,战争中发生的强奸以及对女性的暴力是不可避免的,没有把这一行为看成为战争犯罪。还有一些人把“慰安妇”问题看作是军队内部的买淫问题,并把它与个人行为、商业活动划上了等号。日本政府也在“慰安妇”问题上表现出少有的暧昧与含糊其词,尽管有1993年的“河野谈话”⁷⁾,仍以种种借口逃避政府的认罪赔偿的要求。1995年7月,日本政府为平息亚洲各国对其解决“慰安妇”问题不力的指控和缓解舆论压力而设立了“亚洲女性和平基金会”(简称亚洲女性基金)⁸⁾,但此举只是从道义出发对部分“慰安妇”幸存者进行了赔偿援助,回避了政府所应承担的法律责任。

20世纪90年代以来,联合国人权委员会等国际人权机构形成决议,认为“慰安妇”问题是通过军队实现的集体暴力,是一种战争犯罪,要求日本政府承担不容推卸的国家责任。1999年8月联合国人权专门委员会做出决议,要求日本政府向二次大战中的“慰安妇”做出赔偿,并斥责日本政府拒绝赔偿的法律理据不足,同时要求各国政府须对它们的士兵在战争中的罪行和其他违反人权的行为负责,对其军队的暴行做出赔偿。国际社会不断召开的要求日本政府正式谢罪和进行赔偿的集会以及专题讨论会,都促进了“慰安妇”问题的解决。

二. 作为对妇女的暴力问题的“慰安妇”问题

日军对妇女的暴力是对妇女的一种深刻的歧视,它既是使妇女屈从的一种手段,又是实行性别统治制度及意识形态的工具。二战后,联合国人权会议、世界妇女大会的召开宣传了男女平等权利和人的尊严,特别是《世界人权宣言》、《消除对妇女一切形式歧视公约》等一系列文件普及了性别意识和人权意识。1993年世界人权会议上通过的《消除对妇女暴力行为的宣言》,首次明确了“对妇女的暴力行为”一词系指对妇女造成或可能造成身心方面或性方面的伤害或痛苦的任何基于性别的暴力行为,包括威胁进行这类行为、强迫或任意剥夺自由,而不论其发生在公共生活还是私人生活中。”1995年在北京召开的第四次世界妇女大会上通过的《行动纲领》重申了上述原则,并详细叙述了特定暴力形式包括武装冲突情况下侵犯妇女的人权,尤其是谋杀、蓄意强奸、性奴役等。会上,“女性的权利是人权”被作为口号加以普及。这些国际活动将二战期间作为日军性暴力受害者的“慰安妇”问题与妇女的人权问题联系在一起,使“慰安妇”问题由历史问题上升到了人权问题。

7) 河野在谈话中承认“慰安所的设置、管理及慰安妇的移送,与旧日本军有着直接或间接的关系”,“招募慰安妇确实是应军队的要求并以业者为主,但存在许多以谎骗、强制等违反本人意愿的事例,并且,宪兵有时也直接参与。政府借此机会,再次向不论出身地的被作为随军慰安妇、有着很多苦痛经历的、有着难以愈合身心伤痛的所有人表示由衷的谢罪和反省。”日本政府在“慰安妇”问题上的这一重要表述被称为“河野谈话”。虽然“河野谈话”现在看来仍不够充分,在谁是导致“慰安妇”问题的主要责任者、日本军队和业者两者谁应负主要责任上有些暧昧,隐藏了问题的实质,但“河野谈话”承认了“慰安妇”问题是重大的人权侵害事件,具有不容低估的意义。

8) 该基金由总理府和外务省共同管理。政府全额负担基金的运营经费,并对募集资金活动进行全方位的支持。对于这种试图用金钱赔偿来了结问题的权宜之计,韩国的原“慰安妇”和挺身队协会等内外43家团体发表了反对声明,大多数受害者拒绝领取慰问金,舆论也对基金采取批评态度。2007年3月该基金宣布解散。

“慰安妇”历史是日本国家和军队对妇女的人格、人性、民族荣誉和民族自尊心的极大侵害,是一个强势民族的男性对另一个弱势民族的女性所进行的集体奴役,是对妇女人权的侵犯。把“慰安妇”问题提升到人权的高度是向一种传统思维的挑战。从“被害者之耻”到“加害者之性犯罪”也是重新审视历史、转变性别权力关系的过程。因此,“慰安妇”幸存者要求日本政府谢罪、要求日本政府对她们个人予以赔偿其实是在恢复被践踏的女性的尊严。

自20世纪90年代至今,日本社会已形成和积蓄了一股正视历史、积极谋求解决历史问题的和平、正义的力量,女性学研究者、妇女活动家和民间妇女团体在揭示“慰安妇”历史的真实性、追究“慰安妇”制度的责任与要求谢罪和赔偿的运动上走到了一起,她们采取了积极行动,为推动“慰安妇”问题的解决做出了贡献。其中,成立于1998年的“战争与对女性的暴力网络”(VAWW-NET Japan)是最积极也是最具斗争性的一股力量。该组织是以1997年秋季在东京召开的“战争与对女性的暴力国际会议”为契机而成立的,旨在对过去乃至当今的战时性暴力采取跨越国境的联合行动。她们所关注的战时性暴力包括二战中的“慰安妇”问题、生活在冲绳等美军基地附近女性遭受的性暴力问题以及世界范围内武力纷争下对女性的暴力问题。2000年12月,该组织负责人松井やより⁹⁾经过4年的筹备,联合数家世界民间组织,在东京的九段会馆以模拟法庭形式召开了“女性的国际战犯法庭”来审判日军战时的性奴隶制度。参加会议的人数高达5000人。“法庭”上,来自朝鲜、韩国、中国、中国台湾、菲律宾、印尼、东帝汶、荷兰8个国家和地区的约80名“慰安妇”或日军性奴役的受害者以亲身经历控诉了日军对她们的迫害,对日军犯下的罪行进行了愤怒的声讨。该法庭由世界国际法权威法官宣读了判决书,判定裕仁天皇以及9位军部、政府领导人犯有反人类罪,判定日本政府违反了国际法,应对性暴力的受害人进行赔偿。

“女性的国际战犯法庭”是以女性为主导的国际民间法庭,它明确了被称为“慰安妇”制度的日军性奴隶制度是对女性的战争犯罪,认定日本政府具有法律责任。2001年12月,“女性的国际战犯法庭”在荷兰海牙再次以模拟法庭的形式开庭。“女性的国际战犯法庭”的召开意义重大。首先,它的召开与国际社会采取的消除对女性的暴力、捍卫女性的人权的目标是一致的。对受害人的谢罪与赔偿,对加害者的处罚,是为了防止历史的重演,其次,也杜绝了战时及武力纷争状况下性暴力不予以追究法律责任的恶性循环,为确立女性人权做出了贡献。

日本的女性研究者、社会活动家以及“法庭”的发起和运营者们在法庭结束之后,开始筹备如何将法庭记录以及“慰安妇”问题传给后代、让“慰安妇”的历史不再重演。2002年松井提议建立一个资料馆,将“女性的国际战犯法庭”所搜集到的资料以及1991年后历次“慰安妇”诉讼中积累的文件、照片、视频资料都保存下来,从而使这一正义的事业发扬光大。在日本战败60周年的2005年,“女性们的战争与和平资料馆”¹⁰⁾正式开馆。该资料馆坚持以下五个基本理念:一是以性别正义的视角聚焦于战时性暴力;二是收集、整理和展示每一位受害人的资料并明确加害责任;三是成为实现未来和平与非暴力的活动据点;四是发起民众运动实现和平与非暴力;五是推进跨越国境的联合活动。资料馆展示的大量历史图片和受害人的血泪控诉有力地驳斥了一些政治家和右翼分子否认历史的谎言,把真实告诉给民众,宣传了和平的重要性和必要性。目前,该资料馆已经成为研究“慰安妇”问题的一个重要阵地。

9) 曾是《朝日新闻》的记者,退休后成立亚洲女性资料中心,后发起成立“战争与对女性的暴力网络”。在她被诊断得了晚期癌症的时候,还捐出了自己的财产作为成立“慰安妇”资料馆的原始资金。《纽约时报》称她是维护“亚洲妇女权利的斗士”“将被永远怀念,永不会被忘记”。

10) 西野瑠美子是这家资料馆的负责人之一,而且是“日本战争责任资料中心”“实现战争被害调查会法市民会议”“支援中国人‘慰安妇’裁决会”等多家民间组织的成员。

V. “慰安妇”问题中的性别与民族/国家

作为男性的日军施暴者对被侵略国家女性所实施的性暴力，已不仅仅构成了单纯的性别意义上强者一方对弱者一方的侵犯，即一个是男性军人、一个是普通女性这样的一组权力关系，同时，它还涉及的是一个侵略民族与一个被侵略民族之间的权力关系。由此，“慰安妇”问题由于介入了民族/国家话语，而呈现出性别与民族主义狭路相逢的一种局面。

女性主义认为妇女的实际处境是不能脱离民族/国家的语境的。克内则威克(Djurdja Knezevic)在《情感的民族主义》中指出：“强暴是对国家进行羞辱和污染的策略。很清楚，国家是一个女人的身体，或者说它就是一个女人。”陈顺馨也撰文强调：“女性的身体在民族战争中其实是战场的一部分，侵犯民族主权或自主性与强暴女性之间、占领土地与“占领”妇女子宫之间，似乎可以画上一个等号。换句话说，入侵者强行对“它者”领土的“进入”(penetration)可以理解作为一种“阳具”霸权行为。”¹¹⁾日军对“慰安妇”实施的性压迫、性剥削是民族/国家意义上的。作为男性施暴者的日本军人通过对“慰安妇”、对被占领地女性身体的占领和蹂躏达到对一个民族的凌驾和压迫。日本军人对“慰安妇”的蹂躏张显了强势民族对弱小民族侵犯和占有的权力，表现出日本军人对本民族的自傲和对他民族的蔑视。

在固有传统思维下，“慰安妇”的女性身份注定了其被他民族男性凌辱而造成的耻辱，已经不仅仅是她自身的耻辱，还是她所属国家和民族所有男性的耻辱，甚至是她所属国家和民族的耻辱。这里，“慰安妇”、被占领地女性的身体成为了这个民族耻辱与灾难的载体。因此，“慰安妇”在身体和精神上所遭受的是性别、民族/国家的双重迫害。

女性不仅不能脱离民族/国家的语境，其本身就是民族/国家的重要一部分，因此，“慰安妇”的话题是被缝缀在战争、女性、性暴力、民族/国家等语境中的，同时，它不但是一个经典的历史命题，还具有极强的现代意义。追古溯今，大量的历史事实证明：在一个处于强势的民族对另一个相对弱势民族进行的攻击或侵略行动中，总是伴随着对这个民族妇女的身体进行性侵犯，并以性侵犯来加强这一受害民族的耻辱感。女性似乎已经顺理成章地成为了民族之间战争或冲突时候性暴力的受害者和牺牲品。即便是21世纪的今天，在世界范围内民族冲突或武力纷争的时候，对女性的暴力依然没能避免。因此，“慰安妇”问题在当今也有着极强的现实意义。

那么，在东亚国际关系框架中如何解决已经渗透了民族/国家概念的“慰安妇”问题？性别视角的介入能否使“慰安妇”问题超越民族/国家的概念？

笔者认为：在过去的战争中女性被编织在民族/国家的概念之下，民族问题在阶级、性别等问题中成为首要问题。但今天在全球化这样一个背景下，民族之间的沟通和交往有了多种渠道，不同民族、不同国家之间的人，可以跨越意识形态和社会制度的差异在某种观念和思想倾向上达成一致。在这种情况下，性别似乎比较容易跨越民族/国家的概念，而在东亚获得一种认同。另外，性别理论和视角对历史的介入提升了性别问题，使它可以与民族、国家这些话题平起平坐，同时，也为不同国家和民族的女性学研究者站在一个更高的高度来审视历史带来了极大的可能性。事实上，世界妇女大会、东亚妇女论坛这样世界性和区域性妇女会议的召开，已经把东亚女性、妇女NGO在性别的旗帜下聚拢在了一起。“慰安妇”问题已经被纳入到了东亚妇女问题之中，或者说“慰安妇”问题已经将这些亚洲国家的妇女问题一并席卷了进来。

从1991年至今，围绕“慰安妇”问题的种种事件表明这一问题客观上将日本与韩国、中国以及曾

11) 陈顺馨、戴锦华《妇女、民族与女性主义》，中央编译出版社，2004年，第17页。

经遭受磨难的亚洲近邻的命运紧紧联系在了一起。日本的女性主义学者站在性别视角对“慰安妇”问题的调查、研究和认知已经跨越了国家主义的藩篱，与被侵略国家的女性达成了共鸣。同时，它带来一个必然结果就是：订正被篡改的历史、重新书写历史的真实，并共同拓展亚洲妇女问题研究的空间。

젠더의 시각으로 본 동아시아의 “위안부” 문제

胡 澎 (中國社會科學院 日本研究所)

〈목 차〉

- I. 젠더 시각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할 필연성과 필요성
- II. “위안부” 문제 속에 내포된 성별 경시 의식
- III. 여성사·젠더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입
- IV. “위안부” 문제 속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 1. 전쟁범죄로서의 “위안부” 문제
 - 2.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
- V. “위안부” 문제 속의 성별과 민족/국가

내용요약 : “위안부” 문제의 실질은 일본군이 피침략 국가 여성에게 취한 집단적 성폭력 행위로, 이는 “반인류” 적 죄행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세워진 전통적 성별경시의식은 이 역사적 진실을 반세기동안 감춰왔다. “위안부” 문제를 연구할 때 성별은 역사, 정치, 국제 관계, 국제법 등의 시각에 이어 또 하나 새롭고 중요하게 파고드는 지점이다. 1990년대 이후로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연구자, 여성사회활동가와 민간 여성단체는 국경을 넘어서 “위안부” 생존자(幸存者)를 조사하고, 인터뷰하며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성별의 의의로 국가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여 동아시아와 세계의 문제로 부각시켰다.

키 워 드 : 위안부 성별시각 전쟁범죄 역사문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군대의 폭력 아래 널리 설치된 일본군과 관련된 위안소¹⁾는, 침략국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충당했다. 이 제도 노역 아래, 수십만 중국, 조선, 동남아와 구미 각국의 부녀들이 참혹하게 일본 군대에게 유린당했다. “위안부”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 정부 혹은 군대의 명령 하에 일본 군인을 위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여성들이었다. 제2차 대전 후 상당히 긴 역사적 시기 속에서, “위안부”는 줄곧 잊혀진 집단이었다. 1991년이 되자, 한국의 김학순(金學順)이 첫 번째로 용감하게 일어나 자신이

1) 위안소의 설치하는 일본군이 전지에서 강간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성병의 만연이 병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위안부를 배치하여 폭행, 강간 사건을 근절하거나 감소시킨다는 방법으로는 전혀 일본군의 철제 편자가 닿는 곳마다 일어난 성폭력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했다.

바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징용된 “위안부”였음을 증명했고, 다른 두 명의 “위안부” 생존자 및 한국의 구 “일본군인”, 군속과 유족 등 32명과 함께 고소단을 조직해, 동경 지방 법원에 일본 정부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일본 정부가 전쟁의 죄행을 인정하고 배상과 사죄를 할 것을 요구했다. 긴 침묵의 46년이 지난 후 “위안부” 문제는 결국 역사의 지표 위로 다시금 떠올랐다. 이 이후, 한국, 중국,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 예전에 강제로 “위안부”를 했던 여성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성명을 공개하고, 분분히 증언을 하고,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위안부” 문제는 일본, 동남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범위에서 새로운 화제가 되었고, 또한 여기에서부터 일련의 뒤얽힌 복잡한 사건을 이끌어냈다.

1. 젠더 시각²⁾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할 필연성과 필요성

1990년대 이래, “위안부” 문제가 일본과 동아시아,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점차로 언급됨에 따라, “위안부”는 이미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표현과 연구는 정치, 역사, 문화, 인권, 국제관계 등 수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전쟁, 민족, 국가, 성별 등 개념과 함께 알력을 일으키면서 많고 복잡한 온갖 형상이 나타났다. 오늘날에는 “위안부” 문제가 포괄하는 의미가 이미 “위안부” 사건 자체를 한참 넘어섰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위안부” 문제의 실질은 남성 일본군 폭력 행사자가 피침략 국가 여성에게 행사한 성폭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탄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성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위안부” 문제가 다시 사람들의 시야로 들어오는 것도 성별과 밀접해,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1988년 한국 교회여성연합회의 윤정옥 등은 후쿠오카(福岡)부터 오키나와(沖縄)까지 “위안부” 조사를 시작하고, 연합회 안에 “정신대연구위원회”를 설립했다. 1989년 1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쇼와(昭和)천황 장례에 한국이 사절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에서는 정신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했다. 한국 여성단체의 요구에 대해 일본은 국회를 소집해 심의를 진행했는데, 심의의 결과는 “위안부”가 군대와 국가와 관련이 있음을 부정했고, 일부 일본 정계의 요인들도 “위안부”가 “매음”이라고 모욕하면서 “위안부”는 절대 강제 징용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상업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정계 요인의 이러한 책임 회피의 발언은 한국 여성과 여성단체들에게 더욱 분노를 일으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7개 여성 단체는 일본 국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책임 조사, 연구와 일본군이 조선 여성에게 한 성폭력의 증언 수집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국 여성운동의 고무와 그 영향 아래 1991년 경험자인 “위안부” 생존자들이 결국 침묵을 깨고 “위안부”를 “매음”이라고 하는 역사 왜곡에 대해 용감히 “아니다”라고 선언했고, 일본정부를 피고석의 위치로 밀어붙였다. “위안부” 생존자들의 고발은 한국 여성운동의 격려를 받기도 했으

2) 젠더(gender, 또는 사회성별이라고도 한다)는 남녀 양성이 사회문화의 구조 아래 성별특징과 차이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남녀 양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사회문화 속에서 형성된 남성 혹은 여성 집단에 속한 집단적 특징과 행위 방식을 말한다. 성별시각은 성별의 각도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면서 역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체 동아시아 사회 여성문제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별의 시각으로 “위안부” 문제를 고찰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안부”가 2차 대전 종결 후 긴 반세기에 걸쳐 집단적인 “실어(失聲)” 상태에 있던 것, 일본 정치가와 우익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인과 왜곡이 곧바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것, 이들 안에는 모두 심각한 성별 경시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1세기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성별 경시의식은 여전히 일본사회의식의 저층에 잠복해 있고, 이것은 또한 일본 정치가와 우익인사들의 역사인식을 지배하고 있다.

성별 시각으로 “위안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보다 유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학계에서 성별 시각으로 일본 근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일렀고, 또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기, “일본여성학회”, “일본여성학연구회” 등 많은 여성학연구단체가 성립되어 문학, 사회학, 법학, 역사학 등 수많은 영역의 학자들이 연구에 여성학의 이론을 이끌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노 미키요(加納實紀代),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스즈키 유우코(鈴木裕子)와 같은 여성학자들은 각기 성별의 시각에서 근대 이래 일본 여성사를 반성하고, 2차대전 시기 일본 여성들이 전쟁을 지지한 사실을 발굴하면서 일본 여성이 반드시 져야할 전쟁 책임을 규명했다. 1991년 “위안부” 생존자의 고발은 양심 있는 일본 학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주목하도록 했다. 일본의 몇몇 여성단체, 여성학자, 사회활동가들은 역사와 “위안부” 생존자에게 책임을 지는 태도를 기반으로 성별의 시각에서 역사에 개입하여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가 남긴 문제를 반성했다. 이러한 여성학자, 여성사회활동가, 여성단체가 구성한 여성주의진영으로부터 형성된 연구 및 조사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자와 추동하는 쪽은 성별경시의식, 협애한 민족주의사조, 역사수정주의, 자유주의사관에 맞서고 그것들을 비판하는 중요한 세력이기도 하다. 그들의 일본 근대 여성사에 대한 새로운 정리와 사고, “위안부” 생존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위안부”에 대해 사고하고 연구하는 데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II. “위안부” 문제 속에 내포된 성별 경시 의식

왜 “위안부” 문제는 근 반세기 동안 먼지에 덮여 있었는가? 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서술, 인식, 해결의 길 위에는 각 파의 관점이 각기 분분하며 심지어는 첨예하게 대립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동아시아 문화 속에 내포되어 있는 성별 경시의식이 근원 중의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의 길고 긴 부권제는 여성의 조속적인 지위와 남녀 성별의 권리 불평등 관계를 만들어냈고, 또한 성별경시의식을 구축했다. 여성은 남성의 사유재산으로서 가정의 영역에 한정되어서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항상 “보지 못하고(失明)”, “듣지 못하고(失聽)”, “말하지 못하는(失語)” 지위에 처했다.

근본을 찾아가보면, “위안부” 제도는 절대 2차 대전 시기에 일본군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길고 긴 일본 역사 속의 하나의 “전통”에 뿌리박고 있다. 일찍이 16세기 후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오오사카(大阪), 교토(京都)에 유곽(遊廓)(妓院區)을 전문적으로 개설하여 막부(幕府)에서 관리하게 했다. 유곽 안의 기녀, 예기(藝妓)는 인신의 자유가 없는 성노예였다. 이렇게 정부가 정치권력으로 매춘을 “공(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공창제(公娼制)라고 부른다. 메이지유신 후 일본이 해외 식민지를 확장함에 따라 일본의 창기업(娼妓業)은 동남아 지역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그 후 타이완, “만주”, 조선반도 등지에서 널리 꽃피었다. 전쟁 종결 후인 1946년 연합군은 일본 공창 폐지의 비망록을 하달했으나 공창제도는 실질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 일본 당국은 점령군의 일본 여성들 간 사건 발생의 감소를 위해 여전히 공창제도의 사고방식을 연장하여 특수위안시설협회(RAA: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라는 매매춘 장소를 설립하여 점령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할 위안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면서 이름은 아름답게 갖다 붙이기를 이같은 일은 양가집의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하는 하나의 “방파제”라고 했다. 그리하여 일본의 공창제도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권리가 여성 개인에 대한 성침략의 정책이고, 2차 대전 시기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는 여성에 대한 성침략정책을 피침략영토 위에 연장하고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창제도 및 가부장제하에 여성에 대한 멸시와 억압은 일종의 보편적인 사회 인식이고, “위안부” 문제의 실질은 곧 은폐된다. 따라서 전쟁 후의 “위안부” 문제는 줄곧 군대 내부의 매음문제로 합리화되었다. 가해자로서 전일본군인은 왕왕 공창제가 실시된 전쟁기간 중 자신의 행위가 일종의 범죄였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심적인 반성과 자기비판을 결여한 태도를 보인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안소, “위안부”를 전쟁의 산물로 보면서 그것이 불가피한 것이었고, “전쟁 시기이지 않느냐. 비록 위안부가 불쌍하긴 하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우익 지식인들 혹은 정치가들은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성을 극력 부인할 뿐 아니라 그렇게 용감히 일어나 증거를 밝힌 “위안부” 생존자들을 심지어는 함부로 헐뜯고 치욕을 입히면서 “그런 경험을 겪었으니 치욕을 감내하고 침묵을 지켜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한다. 비록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여성들은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등에서 지위가 대폭 상승했지만 양성의 사회적 분업과 정치참여·권리 관계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성별 경시의식도 여전히 일본인의 사상관념의 깊은 곳에 잔존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안부” 문제를 전후(戰後)에 남겨진 문제로 만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전통적인 성별관념 영향 아래에서 피해자 여성들은 종종 자신이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던 경험을 자기 일생의 치욕으로 여기고 주변인들 또한 대다수가 이것을 치욕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녀들의 운명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치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치욕”의 사유방식은 2차 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그녀들을 자괴의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게 만들었고 그 운명을 심히 비참하게 만들었다.

III. 여성사·젠더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입

과거에 발생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서 “위안부” 문제는 의심할 바 없이 하나의 역사문제이다. 동시에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성별 요소로 인해 당연히 여성사와 성별사의 연구 범위에 편입된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대할 것인가, 어떻게 역사의 진실을 후대에 알려줄 것인가와 관계될 뿐 아니라 어떻게 성별의 각도에서 다시금 역사를 깊이 살펴보고 역사를 복원할 것인가와도 관계되며 또한 동아시아 공통의 기억과 공통 역사인식의 기초 위에 동아시아 여성사·성별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여성사·성별사의 특출한 특징은 “성별”을 “종족”·“계급”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각으로 포함시킨다는 데에 있다. 성별이 하나의 시각 혹은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되지 않을 때에 역사서술 속에서 그것은 줄곧 공공영역, 국가개념 등의 이론에 자리를 내준다. 이것이 장 14년에 달하는 전쟁에 대한 역사서술에서 여성의 결석을 조장했다. 동시에 이제까지 “위안부”의 역사를 묘사하는 언어 속에는 역사의 주체로서의 “위안부”가 역시나 “말하지 못하는(失語)” 상태였고, 이러한 “결석”과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위안부”의 역사의 불완전과 비객관을 초래했다.

“위안부” 문제가 여성사·성별사의 궤도에 오른 가장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장기간 은폐되었던 역사의 주체 - “위안부”가 등장했다는 데에 있다. 1990년대 이래로 한중일의 여성 연구자, 여성단체는 “위안부” 생존자에 대해 대규모의 인터뷰,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위안부” 개인의 기억에 대한 기록, 정리와 분석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 전체의 기억을 찾고, 이로써 “위안부”의 역사서술 속의 빈자리를 메웠다.

일본군이 전쟁에서 패한 최후의 시점에, 대량의 중요한 문건과 자료들을 소각했는데 그 중 적지 않은 것은 정부와 군인의 위안소 설치와의 관계를 증명할 중요한 자료였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는 이를테면 “위안부”의 역사적 존재를 은폐하고 말살하려고 도모한다거나,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 “역사수정주의” 사관, 자유주의 사관, 침략사관과 또한 역사적 세부사실이나 관방자료만을 유일한 사실(史實) 존재의 근거로 여기는 사료지상주의 등 각종 역사관이 생겨났다. 이러한 것은 모두 “위안부” 문제의 탐구 토론, 연구와 논쟁에서 정치적 입장과 주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한 장의 문서에만 빠져서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조사, 인터뷰, 녹음, 정리, 분석의 구술사 방법은 분명히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매우 귀한 것들이다.

1990년대 이래로 일본의 일부 여성단체와 일본 변호사 연합 등의 NGO 조직이 “위안부” 문제에서 한결같이 역사유물주의를 견지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³⁾ 그들의 시야는 단지 위안소의 “위안부” 몸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장에서 일본 군인

3) 진실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일종의 객관적인 역사적 태도가 필요한데, 민족의 우수한 전통 속의 “선과 미”를 기록하면서도 또한 민족 역사 속의 “추와 악”을 가리지 않아 가능한 한 역사의 진실과 경험,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한다.

에게 성폭력을 당한 보통 여성의 몸으로도 눈길을 돌린다. 예를 들어 1996년에서 2004년에 걸쳐 “산시성의 실정(實情)을 밝히는 모임”, “성폭력의 각도에서 중일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연구하는 모임” 및 “일본군의 중국에서의 성폭력 실정을 밝히고 배상과 고소를 지원하는 모임”은 일본군이 산시성 위현(盩厔)에서 행한 성폭력의 정황에 대해 인터뷰 조사를 계속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는 연구원, 변호사뿐만 아니라 학생, 회사원, 주부 등 일반 시민도 있었다. 그들은 대규모로 증거를 수집, 구술기록을 통해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위현 “위안부” 생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에 성원을 보냈다.

탐방자들이 방문취재를 진행하면서 차차 “위안부” 생존자들의 공포와 자기비하, 수치감 등을 없애고 그녀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녀들이 일본 정부에 정의를 요구하는 용기가 생겨나도록 만들었다. 사건에 대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함에 따라 이 피해 여성들은 먼지에 덮인 기억의 철문을 열어젖혔다. 여성연구자들은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구술사의 방식으로 기록하였고 또한 연구 성과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시다 요네코(石田米子)와 우치다 도모유키(内田知行) 주편의 『황토촌의 성폭력-아주머니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⁴⁾ 이시다 요네코 저 「중국 농촌 탐방 중 본 전시성폭력의 구조」⁵⁾ 등의 연구성과는 일본군이 위현에서 행한 성폭력의 실상 및 배경과 성폭력의 구조를 밝혔을 뿐 아니라 동시에 위현의 성폭력이 “남경형”, “위안소형”의 전방의 “저단형(底端型)”⁶⁾ 성폭력과도 다름을 지적했다. 일본병사는 중국 여성들을 납치하고 부대 거점 내에 감금하고 윤간을 행했는데, 때로는 군관이 장기간 점유하기도 했다. 집에서 떠났거나 가족 구성원들과 헤어져서 생존할 방도가 없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또한 그 집안에서 장기간 혹은 상시적인 윤간을 행했다. 여성연구자들은 이러한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위안부”의 역사적 공간을 크게 확장하고 이들 “위안부”들의 비참한 운명을 “매음”이라고 혈똥었던 역사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역사로 복원하고 일본군 성폭력의 실상과 배경 연구에 큰 한 걸음을 내딛게 했다. “위안부” 생존자 개인의 기억은 점차로 인류 공동의 기억으로 발굴되어 나오고 있고, 그와 동시에 그 소속 민족 역사에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

IV. “위안부” 문제 속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1. 전쟁범죄로서의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는 전장에서 일본군 행위에 기초하여 구축되었고, 동시에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역사적 인식 위에 세워졌다. 일본사회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인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쟁은 참혹한 것이고, 전쟁 중에 발생한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행위들을 전쟁범죄로 볼

4) 『黄土の村の性暴力—大娘たちの戦争は終わらない』(创土社, 2004年), 이 책은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栄) 우수 여성문제연구 저작상을 받았다.

5) 「中国農村における聞き取りから見えた戦時性暴力の構造」, 『鸣門史学』18, 2005年.

6) 小濱正子, 「利用口述史料研究中國近現代史の可能性以山西孟縣日軍性暴力研究爲例」, 『史林』2006年 第3期 참조.

수 없다고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를 군대 내부의 매음문제로 보고 그것을 개인행위나 상업활동과 같은 것으로 본다. 일본정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소 애매하고 모호한 단어로 표현하여, 비록 1993년 “고노에(河野) 담화”⁷⁾가 있었지만, 여전히 각종 구실이 정부의 죄 인정과 배상의 요구에서 도피하게 만들고 있다. 1995년 7월, 일본 정부는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힘쓰지 않는다는 고발을 잠재우고 여론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 여성 평화기금회” (줄여서 아시아여성기금)를 설립했으나,⁸⁾ 이는 단지 도의에서 출발해 일부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배상원조를 한 것일 뿐 정부가 저야 하는 법률적 책임은 회피한 것이었다.

1990년대 이래, 연합국 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위안부” 문제를 군대에서 실시한 집단 폭력으로, 일종의 전쟁범죄라고 인정하고, 일본정부에게 회피를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1999년 8월 연합국 인권전문위원회는 결의문을 작성, 일본정부를 향해 2차 대전 중의 “위안부”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배상을 거부한 법률 논리와 근거가 부족함을 꾸짖었으며, 동시에 각국 정부에 그들의 병사들이 전쟁 중에 지은 죄와 기타 인권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군대의 폭행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꾸준히 일본정부에 정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이것들은 모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진했다.

2.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서의 “위안부” 문제

일본군의 여성에 대한 폭행은 여성에 대한 일종의 심각한 경시이며 그것은 여성들을 복종시키는 일종의 수단이며, 성별통치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2차 대전 이후 연합국 인권회의, 세계여성대회는 회의를 열어 남녀 평등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언했는데, 특히 〈세계인권선언〉, 〈여성에 대한 모든 형식의 경시를 제거하는 공약〉 등 일련의 문건은 성별의식과 인권의식을 보급했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중단선언〉이 통과되었다. 여기서는 최초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라는 문구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심신 혹은 성적 측면에 상해나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성별에

7) 고노에는 담화 중에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했고, “위안부 모집은 확실히 군대의 요구에 응해 업자가 주로 했으나 수많은 속임과 강제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게다가 헌병이 직접 참여한 적도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로 다시금 출신지를 막론하고 군에 따라가 위안부가 되어 수많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아물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인정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러한 중요한 진술을 한 것을 “고노에 담화”라고 불린다. 비록 “고노에 담화”는 지금 여전히 충분치 않아 보이고 누가 “위안부” 문제의 주요 책임자이며 일본군대와 업자 양자 중 누가 주요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애매해, 문제의 실질을 숨기고 있으나 “고노에 담화”는 “위안부” 문제를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하여 평가절하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8) 이 기금은 총리부와 외무성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기금 운영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고 자금 모집활동에 전방위 지원을 했다. 이러한 시도는 금전으로 배상해 문제를 임시변통하려는 계략으로, 한국의 전 “위안부”와 정신대협회 등 안팎의 43개 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위문금을 받기를 거부했으며 여론 또한 기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2007년 3월 이 기금회는 해산을 선포했다.

기반한 폭력 행위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이러한 행위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나 강요하는 것, 자유를 임의로 박탈하는 것, 공공영역이나 사적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행동강령〉을 통과시켜 상술한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무장 충돌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 인권의 침해나, 특히 살해, 강간모략, 성노예 등을 포함하는 특정한 폭력 형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했다. 회의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는 구호가 보급되었다. 이 국제활동은 2차 대전 시기 일본군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면서 “위안부” 문제를 역사문제로부터 인권의 문제로 확장했다.

“위안부”의 역사는 일본국가와 군대가 여성의 인격, 인성, 민족영예와 민족자존심을 극도로 침해한 것이고, 강성한 민족의 남성이 다른 약소한 민족의 여성에게 행한 집단적 노역이며, 여성인권에 대한 침범이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의 수준을 높이 끌어올려서 전통적 사유체계에 도전한다. “피해자의 수치”에서부터 “가해자의 성범죄”로 라는 것은 또한 역사를 재심사하고 성별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위안부” 생존자들이 일본정부에 사죄를 요구하고 일본정부가 그들 개인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짓밟힌 여성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서 지금까지 일본사회는 이미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평화·정의의 역량을 형성·축적했다. 여성학연구자, 여성활동가와 민간 여성단체는 “위안부” 역사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위안부” 제도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추동하는 데에 공헌했다. 그 중에서도 1998년에 성립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네트워크”(VAWW-NET Japan)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투쟁적인 세력이다. 이 조직은 1997년 가을에 베이징에서 열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가 계기가 되어 성립했는데,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시성폭력에 초국가적인 연합행동을 취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그들은 전시 성폭력, 2차대전 중의 “위안부” 문제와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 부근에서 생활하는 여성이 당하는 성폭력 문제에서부터 세계적인 무력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포함한 전시 성폭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00년 12월 이 조직 책임자인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⁹⁾는 4년간 기획 준비하여 여러 세계 민간조직과 연합해, 도오쿄오의 九段회관에서 모의법정의 형식으로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개최해 일본군 전시 성노예제도를 심판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5000명에 달했다. “법정”에서는 북한,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8개국과 지역에서 온 약 80명의 “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일본군의 그들에 대한 박해를 고소하고, 일본군이 범한 죄행에 대해 분노의 성토를 했다. 이 법정은 세계적으로 국제법에 권위가 있는 법관이 판결문을 읽고, 히로히토 천황 및 9명의 군부·정부 지도자들을 인류에 반하는 죄를 범했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9) 일찍이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의 기자로, 퇴직 후 아시아여성자료센터를 건립하고 이후 “전쟁과 여성폭력 네트워크” 성립을 발기했다.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위안부” 자료관의 기초 자금으로 삼았다. 『뉴욕 타임즈』는 그녀를 “아시아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운 투사”라고 부르며 “영원히 그리워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여성이 주도가 된 국제 민간법정으로, 그것은 “위안부” 제도라고 불리는 일본군의 성노예제도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확정했다. 2001년 12월, “여성국제전범법정”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재차 모의법정의 형식으로 개정(開庭)했다. “여성국제전범법정” 개최의 의의는 중대하다. 우선, 이 법정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인권을 지킨다고 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시 및 무력분쟁상황 하의 성폭력에 법률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악순환을 끊으며, 여성 인권을 확립하는 데에 공헌했다.

일본의 여성연구자, 사회활동가 및 “법정”의 발기자와 운영자들은 법정이 끝난 이후, 어떻게 이 법정을 기록하고 “위안부” 문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 “위안부”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2년 마쓰이가 건의한 자료관은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수집한 자료와 1991년 이후 여러 차례의 “위안부” 고발을 거치며 누적된 문건, 사진, 비디오 자료를 모두 보존하고 이로써 정의로운 이 사업이 발양되어 한층 빛나게 했다. 일본 패전 60주년인 2005년에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¹⁰⁾이 정식으로 개관했다. 이 자료관은 다음 다섯 개의 기본 이념을 견지한다. 첫째는 성별정의의 시각으로 전시 성폭력에 초점을 모은다. 두 번째는 피해자 개개인의 자료를 정리 전시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세 번째는 미래의 평화와 비폭력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거점이 된다. 네 번째는 민중운동을 일으켜 평화와 비폭력을 실현한다. 다섯 번째는 초국가적 연합 활동을 추진한다. 자료관이 전시하는 수많은 역사 사진과 피해자의 피눈물 섞인 고발은 강력하게 일부 정치가와 우익분자들이 하는 역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반박하면서, 진실을 민중에게 알려주고 평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선언했다. 이제, 이 자료관은 이미 “위안부” 문제 연구의 중요 진지가 되었다.

V. “위안부” 문제 속의 성별과 민족/국가

남성으로서 일본군 폭행자가 피침략국 여성에게 행한 성폭력은 이미 단순한 성별 의미에서의 강자일방이 약자 일방을 침범한 것, 즉 하나는 남성군인이고 하나는 보통 여성이라는 이러한 권력관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와 동시에 침략민족과 피침략민족 사이의 권력 관계의 문제가 개입된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민족/국가의 언어가 개입되고 성별과 민족주의가 좁은 길에서 만나 양보하기 힘든 국면을 출현시킨다.

여성주의는 여성의 실제 처지는 민족/국가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크네제빅(Djurdja Knezevic)은 『감정(感情)의 민족주의』에서 “강간은 국가에게 수치를 주고 오염시키는 책략이다. 명백히, 국가는 하나의 여성의 신체, 혹은 하나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천순신(陳順馨)도 이렇게 강조했다. “여성의 신체는 민족전쟁 속에서 실로 전장의

10) 西野瑠美子は 이 자료관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이며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 “전쟁피해자조사회법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 “중국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 민간조직의 성원이다.

일부분이다. 민족주권이나 자주성을 침범하는 것과 여성의 신체를 강간하는 것 사이, 토지를 점령하고 여성의 자궁을 ‘점령’ 하는 것 사이에는 등호를 그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침입자가 ‘타자’의 영토에 ‘진입’(penetration)을 강행하는 것은 일종의 ‘남근(陽具)’ 패권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¹¹⁾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성적 압박, 성적 착취를 시행한 것은 민족/국가 의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성 강간자로서의 일본군인은 “위안부”에 대해, 피점령지의 여성 신체에 대해 점령과 유린을 하여 한 민족을 능욕하고 압박한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유린한 것은 강한민족이 약소민족을 침범하고 점유하는 권력을 펼쳐 내보이는 것이며, 일본군인의 자기민족에 대한 자만과 타민족에 대한 멸시를 표출하는 것이다.

고유한 전통적 사유체계 아래에서 “위안부”의 여성신분은 타민족 남성에게 능욕당할 운명에 처하고, 거기에서 생겨난 치욕은 이미 그녀 자신만의 치욕이 아니고 그녀가 소속한 국가와 민족의 모든 남성의 치욕이 되고, 심지어는 그녀가 소속한 국가와 민족의 치욕이 된다. 여기에서 “위안부”, 피점령지 여성의 신체는 이 민족적 치욕과 재난의 담지자가 된다. 따라서 “위안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은 것은 성별적인 것이자, 민족/국가적인 중첩된 박해이다.

여성은 민족/국가의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신체가 곧 민족/국가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따라서 “위안부”라는 화제는 전쟁, 여성, 성폭력, 민족/국가 등의 맥락 속에서 기워지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경전적 역사 명제이면서도 강력한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를 더듬어 올라가보면,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한다. 강세에 놓인 민족이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민족을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행동 안에는 언제나 그 민족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범이 있고, 이 성침범은 피해 민족의 치욕감을 강화한다. 여성은 거의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처럼 민족 사이의 전쟁이나 충돌이 있을 때 성폭력의 피해자와 희생양이 되었다.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민족충돌 혹은 무력 분쟁이 일어날 때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가 당금에도 강력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제관계 구조 속에서 이미 민족/국가 개념이 침투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별시각으로 개입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를 민족/국가 개념을 초월하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과거의 전쟁 중에 여성은 민족국가의 개념 아래 조직되었고, 민족문제는 계급, 성별 등의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지구화라는 배경 아래, 민족 사이의 소통과 교류는 다양한 통로를 가지고 있고,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사이의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일정한 관념과 사상의 경향에서는 일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은 비교적 용이하게 민족/국가의 개념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동일시를 획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성별이론과 성별시각이 역사에 개입하는 것은 성별문제를 확장시키고 민족, 국가라고 하는 화제들과 동등해지고, 동시에 다른 국가와 민족의 여성학연구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역사를 세심히 연

11) 陳順馨, 戴錦華, 『婦女, 民族與女性主義』, 中央編譯出版社, 2004年, 17쪽.

구하는 데에 커다란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사실상 세계여성대회, 동아시아 여성논단과 같은 세계적이고 지역적인 여성회의의 개최가 이미 동아시아여성, 여성 NGO들을 성별의 기치아래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이미 동아시아 여성문제 안으로 들어왔고, 혹은 “위안부” 문제가 이미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여성문제들을 한데 거두어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이 문제가 객관적으로 일본과 한국, 중국 및 이제까지 수모를 당했던 아시아 근린국들의 운명을 단단히 한데 묶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여성주의학자들은 성별의 각도에 서서 “위안부” 문제를 조사, 연구, 인식하였고, 이것은 국가주의의 울타리를 이미 넘어서 피침략국가의 여성들과 공명하는 데 이르렀다. 동시에 이것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는 역사에 대한 왜곡을 수정하고, 역사의 진실을 다시금 서술하며, 아시아 여성문제 연구의 공간을 다 함께 확장했다는 것이다.

【Abstract】

On comfort women in East Asia —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Justice

HU Peng

For a very long period after WWII, the issue of “comfort women” had received little attention and gradually faded from public consciousness. Till 1991, Kim Hak Soon from South Korea stood out bravely as the first victim to reveal the fact that she was forced to serve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WWII. Kim and other 32 accusers, involving two comfort -woman survivors, soldiers of South Korea who once served in Japanese Army and the families of late army men, formed the voluntary corps problem Resolution Council to file a law suit against Japanese government in the local court of Tokyo, demanding that the government admit the crime it committed in war, compensate and publicly apologize to the survivors or their families. Thus the issue of “comfort women”, after remaining silent for forty-six years, was finally disclosed and reappear on the stage of history. Henceforward, the “comfort women” victim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etc. stood up one after the other to testify against Japanese government, all asking for compensation and sincere apology. After that, the issue of “comfort women” has rolled into a hot topic in Japan and East Asia, even the whole world keeps an eye on it. Meanwhile, it also resulted in a series of complex events and disputes.

The problem of “comfort women” is essentially the sexual abuse inflicted upon women in the invaded countries by the aggressors. However, this undeniable historical truth has been covered up intentionally for nearly half a century, which makes the issue of “comfort women” remain an unresolved problem after WWII. Ironically, Japanese government becomes remarkably good at equivocation whenever it deals with “comfort women” issue. In 1993, Kōn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dmitted in an interview: “former Imperial Army must take direct or in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transfer of military comfort women”; “It was out of the need of the Army that the government decided to recruit comfort women, most of whom were actually prostitutes. However, many women were serving the Army as sex slaves totally against their own will, usually kidnapped through deception and coercion. Sometimes, the military policemen were directly involved, too.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hereby re-deliver its sincere wish of atonement and introspection to those who experienced the nightmare of war as ‘comfort women’ and were hurt heavily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no matter where they came from.” In spite of all these confessions, the State of Japan still refused to admit the crime, nor did it agree on compensation with the shield of various of excuses. Some right-wing intellectuals and politicians tried to deny the facticity of “comfort women”, what is more, they even wantonly denigrate and humiliate the victim survivors who bravely revealed the truth to the public. Some inflictors (soldiers of Imperial Army) seldom felt conscience-stricken and lack of any sense of self

-condemnation for their evil deeds. Besides, an attitude regarding “comfort women” and “comfort stations” as a unavoidable outcome of war is prevalent among Japanese. In this way, they intend to assist the invaders to get away with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conven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in East Asia, the female victims consider their experience of once being comfort women as a lifetime disgrace. Tragically, people around them think no difference. This psychological torment caused extended miserable post-war lives that imbued with inferiority and shame.

When analyzed with the perspective of gender, the issue of “comfort women” becomes less complicated: considering either the collective “voice-losing” of the group of “comfort women” during the long period after WW II, or the denial, distortion, and assault been thrown upon the issue by some Japanese politicians and right-wingers, a deep-root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manipulating every single event. Even today, in the 21st century, this kind of sexual discrimination is still hidden at the bottom of the social awareness in Japanese society, with firm dominance over the historical cognition of a few politicians and right-wingers in Japan. Furthermore, due to sexual discrimination, as well a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human rights between two genders in East Asia, the stage of women was restricted to home as a sort of private property attached to men; while in public arena, they had always been “blind, deaf and dumb”.

In dealing with the issue of “comfort women”, we need to treat history as it is, pass down a veridical human past to our offspring, and reexamine the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gender. In order to bring back the history its original look, the objective of building a new female and gender history on the basis of common memory and historical cognition of East-Asian people must be taken into agenda.

At the very last period before surrender in WW II, Japanese Army destroyed many important documents and data that mainly display the connection between Japanese government, army and the arrangement of comfort stations. Since 1990s, under the cooperation of comfort women survivors, a lot of interviews, investigations and researches have been done by female researchers and some women committees from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hey tried to seek for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victims through collating and analyzing the record of individual experience. In this way, they successfully brought the picture of “comfort women” back onto the screen of historical cinema.

Since 1990s, some female group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 Japan, take United Community of Lawyer for example, has been working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all the way sticking to the principle of historical materialism. The members of these organizations collected a large amount of evidence, and academically study the data orally stated by the survivors so that the history could step forward steadily in the process of regaining its original look. They also show firm support to the efforts made by “comfort women” survivors on claiming for compensation. In order to accelerate the process, some researchers published their investigative works in high frequency. The articles were mainly about the interview records of the tragic experience endured by the people involved in this historical event.

Though a series of interviews, the victims gradually erased fear, inferiority and shame from their

hearts, and they also retrieved precious dignity with the help of interviewers. Under progressive investigation into this historical matter, those forgotten memory suddenly rushed into the brain of the inflicted women, and endowed them with unprecedented courage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crime to justice. Some scholars who study women published their works in succession after interviewing involved witnesses. Two typical contributors were: isidayoneko, the author of 《phenomenon I saw in china's countryside—the structure of wartime sexual abuse.》; and utidatomoyoki, who co-edited 《sexual abuse in yellow-earth villiages》 with isidayoneko. The interviews made with the comfort women by researchers obviously enhanced the possibility of digging into this event further, meanwhile, the study on true happenings and the backgrounds of “sexual abuse” had been pushed forward to a great extent. For all these efforts, the researchers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prove that the woeful experience befell the comfort women was not a history of “prostitution”, but a cruel fact of “sexual abuse” in which women were the sacrifices. With the exposal of individual recollections one after the other, the remembrance of the “comfort women” issue had melted into the integrated memory of human kind, and was deemed to be a critical part of the history belonging to the victimized countrie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ince 1990s, several international human-rights institutions, including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UN, had formed a resolution concerning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which it states that the whole affair was martial crime in nature, a form of violent activity carried out by the Imperial Army. The resolution also demanded Japanese government shoulder the unshirkable responsibility for this event. In August of 1999, the special committee of Human Rights reached an agreement on the item of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agreement, Japan, as well as other countries participated, must be responsible for the serious consequences resulted from the war, in which their soldiers had committed unforgivable crimes and launched a series of actions that were against human rights. Japan, in particular, was required to make compensation to the victims. Due to insufficiency of evidence, the law declaring refusal of compensation was also turned down by the council. In addition, a number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meetings and symposiums had been hold in recent years. On the meetings, the necessity for Japanese government to deliver official apology and to make compensation was discussed constantly. These social movements have been a great help in accelerating the settlement of “comfort women” problem, which was progressively uplifted to the stage of human rights.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witnessed the immense emotional damage brought upon the personality, humanity as well as ethnologic honor and dignity of women in the countries invaded by Japan. This period in history carries the enslavement of weak nations' women by another strong nation's men, which is certainly a violation of female human rights. It is a huge challenge with traditional conventions to consider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the point of human rights. However, people look at the history in a different way now. The attention has been drawn from “the shameful inflicttee” to “the sex-abuser”. The history is also witnessing a new process of transformation in the old right-distribution system governed by sexual discrimination.

The history between 1990s and today saw the growing of a force standing by peace and justice, which

was composed of researchers, activists and civil groups that fight for women rights. They adopted a realistic attitude in treating historical problems and worked actively on those which were left unresolved; moreover, they fight as a joined force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and hitherto made a large contribution to the final settlement of the issue through great endeavor, which mainly includes the revealment of “comfort women” truth, charging Japan’s obligations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demanding official apology and compensation. It is worth mention that among all the social organizations, VAWW-NET Japan is one of the forces that have utmost resolution. On December of 2000, joining with several civil organizations abroad, VATT-NET Japan held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form of simulation court. Up to five thousand people attended the meeting; eighty “comfort women” victims from eight countries and areas (North and South Korea, China, Taiwan China, Philippines, Indonesia, East Timor and Netherland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ok part. The survivors gave testimonie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 to denounc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persecution on sex slaves in war. An international law judge of high authority issued the preliminary judgment, which found Emperor Hirohito, as well as the other 9 military and government leaders, guilty of crimes against humanity; State of Japan violated the international law and was ordered to compensate the victims of sexual slavery. In December of 2001, the tribunal was held again in Hague, the capital of Netherlands.

After the tribunal, its originators and organizers, together with some women-researchers and social activists started to work on the project of how to pass the court records to our future generations, in the hope of preventing “comfort women” crimes from happening again. In 2005, the 60th anniversary of Japan’s surrender, “women’s museum for war and peace” was officially opened. The museum kept all the resources collected for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as well as the documents, photographs and videos accumulated in civil suits of “comfort women” in various countries since 1991. Through these efforts, the course of peace of peace is carried forward. The five principles the museum observes are as follows: focus on sexual violence during wartime,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der justice; clarify not only victims but also the responsibility for crimes; not only preserve and exhibit the past and future but also create a base for future nonviolent activities; build and operate museum as people’s activity unrelated to state authority, and a final point: transmit information outside of Japan and promote borderless solidarity. The museum exhibited a great amount of historical pictures and denunciations filled with tears and blood of the victims to show the public the truth, and at the same time, to refute the statements announced by some politicians and right-wingers who tried to deny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Through exhibition,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eace are widely disseminated. After several years of development, the museum has become a substantial base for investigating the issue of “comfort women”.

Female had always been playing a subordinate role in war, hidden behind the notion of nationality or country. Among the problems raised by class, gender, etc. the issue around nations has been elevated to be the top item. Nevertheless, as globalization connected us all, people from different nations could easily transcend the gap of distinct ideology and regime, so that a certain degree of concordance in

conception and perspective would be reached. As a result, a variety of channels are created for the communication and intercourse between na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it seems easier for gender to cross the boundaries of nations and countries, furthermore, to gain a universal identity throughout East Asia.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gender theories and angles in examining history not only promoted the status of gender issue, making it as significant as the topics related to nations, but also create great possibility for researchers who study women to assess the human past with a higher standard. In fact, female and NGO for women in East Asia have already been summoned under the banner of gender by such international and regional women meetings as World Conference on Women and East-Asian Women's Forum. Nowadays, the matter of "comfort women" is regarded as a branch in the category of East-Asian women issues, or rather say, the latter is engulfed in the matter of "comfort women".

The process of the "comfort women" issue from 1991 till now proved an objective truth: it is this glorious course that has closely connected Japan with all the neighbor countries in Aisa, including South Korea, China and other nations that were victimized in war. Feminist scholars in Japan have been investing, studying and perceiving the "comfort women" problem for years, with an orientation of gender justice. Their understanding has gone beyond the bounds of nationalism and reached a resonance with the aspirations of women in those invaded countries. Meanwhile, as the course develops, there follows a consequential appeal, that is to modify the distorted history, rewrite the history as it is, and to explore under common endeavor more research space for the issue of Asian women.

抗日战争研究中的热点问题

■ 榮 維 木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

抗日战争研究中的热点问题

榮 維 木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目 次〉

- I. 关于抗日战争的民族一致性
- II. 关于抗日战争与中国的现代化进程
- III. 关于战争遗留问题
- IV. 关于抗日战争的历史启迪
- V. 关于抗日战争研究中存在的问题

抗日战争是中国近代历史中仅有的以中华民族的完全胜利而告结束的民族解放战争。战争期间,在政府与人民之间、在各个政治派别之间、在各个民族之间、在国内人民与海外同胞之间建立了密切的合作关系,表现出中国近代以来前所未有的民族凝聚力。同时,从30年代开始的日本对中国的全面侵略,也给中华民族带来了空前的灾难,国家和人民遭受的损失比近代以来任何一次外敌入侵造成的损失都要惨重。另外,受到战争影响,中国国内政治力量的对比以及中国在国际社会中所处的地位,在战争结束时也发生了很大改变,并且这种变化最后促成了中国近代历史因中华人民共和国的建立而告结束。所有这些表明,抗日战争历史在中国近代历史中占据着重要地位,因而它也是中国近代史研究中的一个重要对象。

抗日战争研究,尚在战争正进行的时候就已经开始了,只不过当时的研究侧重的是战争规律以及战争对中国社会的现实影响,这种研究是为着争取抗日战争的最后胜利和战后对侵略者进行清算,还不能算是历史研究。新中国成立以后,抗日战争研究被纳入中国近代史研究的范畴,但在相当长的时期内,这个研究被包置在中共党史和中国革命史研究之中,而不是独立的历史分枝学科研究,因此难免带有局限性。直到80年代,抗日战争研究才开始向着历史分枝学科研究的方向发展。1985年,1987年,特别是1991年中国抗日战争史学会成立,把这个研究推向了高潮。进入90年代,一方面,由于中国显著加快了实现现代化的步伐,作为促进现代化的系统理论工程的一个组成部分,对于中国民族复兴历史的研究成为热点;另一方面,也由于日本右翼掀起了为侵略战争翻案的新的恶浪,以及解决战争遗留问题的声音出现,也促进了人们对抗战历史和日本侵华历史研究的深入。关于近些年来抗日战争研究中的状况,我已经有过文章了,所以在这里无须重复,而只想就研究中出现值得思考的现象,谈点个人的看法。

I. 关于抗日战争的民族一致性

《广州日报》在抗日胜利之际的一则报导说:在重庆召开的庆祝会上有人出了这样一个灯谜:谜面叫作“抗战胜利”,谜底是打中国史书上的一个著名人物。结果出现了四种答案:一曰屈原;二曰苏武;三曰蒋干;四曰共工。什么意思?不言而喻。

“屈原”和“苏武”不必说了,那是讲美国与苏联对中国抗日战争的贡献。这里我只想说说“蒋干”

和“共工”。抗日战争的胜利,到底了靠着国民党的努力,还是靠着共产党的努力才取得的?尽管我并不认为这是一个科学的命题,但是,由于这个疑问不仅在战争刚刚结束时就已经被提出,而且至今仍使无数的中国人感到困惑,那么就很有必要对它进行探讨了。

先说谁是抗日的主力。全面抗日战争开始后,国共两党并不处于同等的地位。当时国民党已经完成182个陆军师的整编,空军拥有600余飞机,海军舰艇百余艘共6万吨,而红军改编时仅有4万余人,国共两党军事实力悬殊。也正是由于这种实力的差别,在共产党参加的国防会议上,两党进行了抗日作战的分工,即由国民党军队担负正面抗击日军侵略的任务,而由共产党的军队担负侧面牵制日军的任务。战争的初期,两党军队正是按照这样的分工很好地进行了作战配合。从这点来看,国民党理所当然应该成为中国抗日的主力。

但是,抗日战争还有一个重要的规律,即中日双方矛盾着的各自特点以及由此决定的战争规律。敌强我弱决定了日本可以比较快地占领中国大片国土;而敌小我大、敌寡我众又决定了它不可能很快占领全部中国。于是,在日军推进线之后,形成了广大空间,这就使中国抗日军队在这里有了用武之地。而按照两党约定的战略分工,共产党的军队成为了开辟敌后战场和在这里消灭牵制敌人的主力。两个战场由此形成。

正面战场和敌后战场,到底哪一个战场的作用更大一些呢?先来看一组统计数字:

据国共两党战后公布,国共两党军队在抗日战争中的作战情况如下:国民党正面战场,在八年期间共举行过22次重大战役,军队伤亡321万(其中阵亡是131万),歼灭日军100余万;共产党敌后战场,大小作战12万余次,军队伤亡是60万,歼灭日军52.7万,此外还歼灭118万伪军。

从上述数字来看,正面战场的牺牲和战果明显地高于敌后战场。但是,还有另外一种统计,即按兵力多少来算,敌后战场平均每个兵员歼敌数字和平均伤亡率又高于正面战场。

仅以上述统计为依据,就可以得出两种不同的答案。但是我却认为,无论是哪种答案,源出于这样的依据都是不能使人信服的。在我看来,尽管如前述战争规律决定了中国的抗日战争划分成了正面和敌后两个战场,但抗日战争面对的不是任何一个党派的敌人,而是全体中国人民的共同敌人,因而这个战争是中华民族争取生存权力的整体战争。而从军事方面来看,两个战场也是缺一不可。没有战争初期正面战场的顽强抵抗,就没有敌后战场的开辟;反过来,没有敌后战场对敌人的牵制和消耗,正面战场也难以长期坚持。因此我认为,上述统计数字,虽是寻求答案的客观依据,却不是问题的关键。既然两个战场缺一不可,那么“抗战胜利”,就不能单纯地归结为是“蒋干”的结果,同样也不能简单地归结为是“共工”的结果。

排除了二择其一的思考方式,实际上就是否认了最初的命题。而这个命题之长期存在,表明抗日战争研究一直存在着一个误区。而中国海台两岸的分裂,则是这种误区产生的根本原因。

在大陆,从上世纪50年代开始,到70年代末止,抗日战争史一直是作为中共党史的一个阶段史加以描述的,因此难免带有浓重的政治色彩。这主要表现在,仅强调共产党在抗日战争中的作用,而忽略甚至否认国民党在抗日战争中的作用。关于正面战场的描述,经常使用的字眼是“一溃千里”、“不战而逃”,而对于国民党的评价,强调的也是“消极”、“妥协”、“分裂”、“反共”等等。即使有时提到正面战场,一般地也只是介绍和表扬国民党官兵个人,而对指挥者经常的评语则是“片面抗战”。这样的描述,不符合历史实际,容易产生误导,似乎国民党在战争中没有起到一点积极作用。

而在国民党治下的台湾,情况恰好相反。一般的史书并无对敌后战场的描述,甚至根本不承认中国抗日还有一个敌后战场。即使提到共产党的抗日,也以所谓“三分应付”、“七分发展”来做评语。而国民党总结的历史教训,则是最使蒋介石等人感到切肤之痛“共产党坐大”论。其实这也难怪,国民党最终没有完成以剿共为目标的“安内”,第二次国共合作之初中共不过只有几万人的军队,而到

了抗日战争胜利之际，却发展到了百万人以上，并且占据了大片地盘。最终国民党败在共产党手下，抗日战争胜利后没有几年，共产党就取代国民党而执掌国家。但是，这里面也存在着认识上的误区。首先，共产党在抗日战争时期从来就没有隐瞒过要发展自己的意图，而国民党也从来没有隐瞒过对共产党的限制，以至于在抗日战争时间，两党屡有冲突，甚至兵戎相向。但是，两党的矛盾最终没有妨碍以整个民族利益为前提的抗日合作。其次，共产党是在抗日战争时期寻到了命运的转机，但所谓“坐大”，“大”是大了，但却不是“坐”的结果，而是抗日的结果。另外，共产党在敌后的“大”，对战争的全局不仅无害，而且十分有利。这种“大”起到了减轻正面战场压力的战略作用，因此应该加以肯定而不是否定。

意识形态的对立而造成的上述分歧，对抗日战争研究产生了十分消极的影响。而值得庆幸的是，在上世纪80年代以后，海峡两岸在抗日战争研究方面，都发生了变化，开始思考怎样走出误区。当然，这种变化也有它的政治背景，从大陆方面讲，对第三次国共合作的展望是推动人们走出误区的外在动力，同时，学术氛围的宽松与研究视角的拓展，又为人们客观描述历史创造了条件。同样，台湾方面，因国民党的抗战历史以及在这一历史阶段中与中共毕竟有过的合作，也使得它对中共的态度有所呼应。在今天两党彼此希望成为对方朋友的背景下，从历史上寻找两党的契合点，八年抗战无疑是一个非常重要的视角。

II. 关于抗日战争与中国的现代化进程

以往人们对抗战历史经验的总结，主要集中在抗日战争对中国近代民族、民主革命的影响方面，而实际上，抗日战争对中国的现代化进程也发生过重要影响。这主要表现在：

第一，日本的侵华战争打断了中国原有的现代化进程。

对中国的侵略和掠夺，是近代日本走向现代化道路的因素之一。通过甲午战争，日本不仅强占了中国的台湾，还向中国索取了2.3亿两白银的巨额赔款，这些赔款，是当时中国全年财政收入的3倍，是日本年财政收入的4倍多。中国被迫开始向西方列强举借大债，而日本却用这笔战争赔款中的一部分建立了现代化的八幡制铁厂，一部分用来发展现代教育。这在一定程度上可以说明，日本的现代化进程的加速，在很大程度上是以对中国现代化进程的破坏为条件的。

如果说甲午战争已经表明日本的侵略对中国的现代化进程产生了重大影响，那么到了20世纪30年代，日本对中国发起的全面侵略战争，则完全地打断了中国原有的现代化进程。在抗日战争爆发前的十年里，中国现代化工业每年的平均增长率约为7.6%，而且这种增长突出地表现在基础工业上¹⁾，1936年资本主义生产已占工业总产值的65%，占工农业总产值的24.48%。²⁾ 假设没有日本对中国的侵略，中国的工业化步伐必将大大加快。这种假设虽然已经无法得到历史的验证，却正如毛泽东所说：没有鸦片战争以后西方列强的侵略，中国始于明清之际的资本主义萌芽也将缓慢地发展到资本主义。这都是事实为根据，因而也是合乎逻辑的假设。

但是，假设毕竟没有成为现实，日本对中国的侵略，彻底地打断了中国原有的现代化进程。先是日本对中国东北的占领，使中国丧失了1/3的森林、铁矿和煤矿；4/10的铁路；7/10的大豆产量；2/5的出口贸易；以及93%的石油；55%的黄金。³⁾ 另据统计，至1932年底，中国政府在东北的损失达178

1) 郑竹园：《日本侵华战争对中国经济的影响》，载罗荣渠、牛大勇主编《中国现代化历程的探索》，北京大学出版社，1992年，第212页。

2) 吴承明：《中国现代化：市场与社会》，三联书店2001年版，第105页。

亿元，加上私人损失，不下200亿元。⁴⁾ 在全面侵华的八年间，日本占领了中国城市总数的47%以上，其中包括了大城市的80%以上。这些城市，聚集着中国几乎全部的现代化工业。这些工业，有的直接损毁于炮火之中，有的因战争而失去运转的条件导致关闭，有的被迫内迁损毁于途中。在沦陷区，日军不仅任意掠夺公私财产，还截留税收，把持金融，并建立起依附于日本的以掠夺中国资源财富为目标的殖民地经济体系。据1995年中国政府公布的数字，中国在抗日战争中的直接财产损失是1000亿美元，间接损失是5000亿美元。对于一个本来就十分贫穷的中国来说，上述战争损失不仅使中国原有的现代化进程难以为继，还足以使它的经济全面崩溃。

第二，中国的抗日战争积累了新的现代化因素。

有人认为，中国的现代化本来就不是中国社会内部自身现代性积累和成熟的结果，而是对外部挑战所做出的回应，因此主张将其称为“后发外生型”现代化。这种说法不无道理。因为中国近代的开港以及后来洋务运动的出现，都明显地带有被动的特征。而这个特征又决定了这种现代化本身的脆弱。但是，抗日战争的发生，在很大程度上改变了中国现代化的“后发外生型”性质。正是由于日本的侵略极大地破坏了中国原有的“后发外生型”的现代化进程，又使得新的“自发内生型”现代化进程在中国反抗日本侵略的过程中悄然开启。

首先从政治层面来看。关于现代化的含义，除了工业化为其核心外，国家民主制度的建立也应包括在其中。而对于一个有着两千年封建历史的中国来说，后者更是实现现代化的重要条件。抗日战争，无疑地为中国民主制度的发展，在客观上提供了条件。中国共产党在七七事变不久即在著名的《抗日救亡十大纲领》中提出了“改革政治机构”的要求，与此同时，其他政治派别也先后发出了开放民主的声音。而在民族生存受到日本侵略严重威胁的时候，以蒋介石为代表的国民政府只能顺应潮流，在全国开放了民主。尽管这种民主是十分有限的，但却是前所未有的。但是，国民党因抗战所需开放的民主是以国民党执政地位的巩固为条件的。如果离开了这个条件，民主随时都要被关闭。因此，政治民主还需要另外的社会条件作为支撑，这个条件就是进步力量能够很好地发挥对社会的主导作用。而这个条件，在抗日战争之前的中国社会是不具备的。但在抗日战争开始之后，由于以共产党为代表的进步力量已经在中国社会产生了不容忽视的影响，在民主与独裁的较量中，后者就很难占到上风了。而进步力量的发展和壮大，同样是中国现代化因素积累的一个重要表现。

其次从经济层面来看。前述日本对中国的侵略打断了中国原有的现代化进程，指的就是日本侵略对战前中国积累起来的现代化经济的严重破坏。但是，也正是由于日本侵略对中国经济的摧残，迫使中国必须以积极的态度去应对，战时经济体制的建立就是应对的结果。战时经济体制是一种被迫的应变措施，它的实施一方面是通过金融、物资、资源的统制，集中了抗日战争所需的财力物力，一方面又使官僚资本扩大了势力，从而压缩了民族资本的发展空间。但是，如果从现代化的视角来审视，这种体制下的现代金融体制的建立，工业结构的调整，资源的调查与统筹开发，工业发展的布局调整等等，都表现出了现代化因素。尤其是被称作是工业化传动的沿海工业的内迁，改变了中国西部工业落后的状况。

共产党领导的敌后根据地，由于它是建立在中国经济最为落后的地区，在那里并不具备实现现代化经济的条件。但是共产党制订与实施的包括减租减息，鼓励垦荒，发放农贷，发展商业等一系列经济政策，不仅使抗日力量在贫困的地区得以生存，并且在一定程度上改善了人民的物质生活，阶级构成的比例也由此发生变化。而这些变化，最终又为后来的土地革命准备了条件。从这点来看，这也是现代化因素的积累。

3) 骆清华：《五十年来之中国经济》，台湾文海出版社，第232—233页。

4) 《革命文献》第35辑，第1328页。

再次从国家主权层面来看。自1842年中国被迫与英国签订《南京条约》以来,帝国主义列强通过强加于中国的不平等条约,使中国丧失了诸多基本主权,因此,中国一直没有取得完整意义上的主权国家地位。但是在中国全面抗战爆发之后,尤其是中国的抗日战争与世界反法西斯战争融为一体时,这种状况很快得到了改变。1941年太平洋战争爆发的时候,中国已经独自与日本作战4年,并且牵制了日本陆军的大部兵力。正是由于中国战场在世界反法西斯战争中表现出来的重要地位和作用,使得美、英等国不能不对中国加以重视。1943年初,中国先后与美、英等国签署了废除旧约、签订新约的协议。从此,中国摆脱了束缚百年之久的不平等条约,获得了一个独立主权国家应有的尊严。独立的主权是任何现代化国家不可缺少的一个条件。

III. 关于战争遗留问题

战争遗留问题,是指与战争历史密切相关而在战后没有解决的问题。上世纪90年代,一方面是由于中国战争受害民间诉讼引起两国重视,一方面也是由于日本右翼否认历史事实的现象频频发生,并对日本政府保守势力产生影响,使得战争遗留问题研究越来越受到人们的关注。该研究有以下几点值得关注。

首先是钓鱼列岛的主权归属研究。1894年日本实际占领了该列岛,1945年后,该列岛受美国托管,1969年美国结束托管,1971年将该列岛作为琉球群岛的一部分归还日本。新中国成立以后多次申明对该列岛拥有主权。近年来,有人以中国古代文献论证,早在15世纪以前中国就已经发现了钓鱼岛并为之命名。以后几个世纪,在日本图籍中不仅沿用了中国对钓鱼岛及附近岛屿的命名,而且明确将其划在中国海域之内。另据明清文献数种,钓鱼列岛列入中国版图之后,曾先后划归中国福建和台湾海防区域。虽然日本在甲午战争后吞并了钓鱼列岛,但按照《开罗宣言》和《波茨坦公告》,日本理应将其交还给中国。(吕一燃:《历史资料证明:钓鱼列岛的主权属于中国》,载《抗日战争研究》1997年第4期)还有人以日本文献论证,日本在1894年实际占领钓鱼列岛之前,朝野人士的共识是:“钓鱼列屿系台湾附近清国所属岛屿。”论者还对日本霸占钓鱼列岛的历史过程做了详细阐述。(吴天颖:《日本觊觎我钓鱼列屿的历史考析——再质奥原敏雄教授》,载《抗日战争研究》1998年第2期)

其次是与战争受害诉讼相关的实证研究。该研究包括中国慰安妇受害、劳工受害、生化武器战时受害与战后遗害等研究。其中关于慰安妇问题研究,中国起步较晚,落后于日本和韩国,但近年也取得一些成绩。如关于受害人数,有学者考评后提出,在日军中36万—41万慰安妇中,大多数是朝鲜和中国受害妇女(苏智良:《关于日军慰安妇制度的几点辨析》,载《抗日战争研究》1997年第3期)。针对日本右翼提出的战时慰安妇是商业行为的产物,中国学者依据史料论证了慰安妇制度的起源,指出这一制度完全是为日本侵略方针服务的。2003年8月4日发生的日军遗留化学武器伤害中国平民事件(八四事件),引起人们对日本化学战及化学武器遗留问题的关注。步平的《日本在中国的化学战及战后遗留化学武器问题》(载《民国档案》2003年第4期),比较系统地论述了日本在侵华战争期间使用化学武器的具体史实,认为在战争期间,日本至少生产了700万枚以上的化学武器;在中国战场实施化学战超过2000次,造成近10万人的直接伤亡;战后遗留化学武器又伤害2000-3000人,并且这种伤害还在继续。作者还叙述了中日两国关于解决遗留化学武器的共识,认为对日本化学战责任的追究可以成为日本人正确认识侵华战争历史的突破口。

再次是关于史观的研究。该研究主要集中在对右翼教科书的剖析方面。从2001年日本科学文部省

第一次通过右翼教科书之后，中国就出现了一批剖析日本右翼教科书的著述。其中由张海鹏、步平主编的《日本教科书问题评析》（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2年出版），对战后日本历史教科书问题出现、演变的历史过程进行了系统评介，比较深入地分析了该问题产生的日本国内与国际的政治背景，以及它反过来对日本社会和周边国家产生的影响，并针对日本扶桑社教科书错误史观和对历史歪曲的具体问题进行剖析。今年4月，日本政府再次审定通过右翼教科书，仍然引起学者高度关注，目前正进行有针对性的研究。而值得重视的是，针对右翼教科书中的错误，中日韩三国学者已经联合起来，撰写了客观描述东亚历史的三国共同历史读物，该书将在今年5月底在三国同时出版。

在研究右翼史观时，还有一个问题应该引起注意，这就是关于民族主义的评判。笔者的《中日战争遗留问题研究术评》（载《江海学刊》2001年第6期）提出：“民族主义在中华民族抵御外侮时起到了战胜侵略者的至关重要的作用，并且，维护民族利益也是我们进行战争遗留问题研究的一种不可缺少的动力。”“但是，还必须看到问题的另外一个方面，这就是，从更高的角度来看，战争遗留问题也是一个超越了民族界限的问题，是一个关系亚洲、世界和平与人类美好前途的问题。从这点来看，我们对它的审视和研究，又不能完全受到民族主义的支配。特别是在我们批判日本社会存在着社会达尔文主义的时候，我们就更应该防止把自己也降低到同样的程度。实际上，战争遗留问题已远远超出了民族主义所能容纳的范畴。”

IV. 关于抗日战争的历史启迪

关于抗日战争的历史经验，历来受到人们的重视。近些年来，相关研究主要集中在以下几个方面，我想就这些方面谈谈个人的看法。

第一是落后与先进的关系问题。著名历史学家胡绳评价中国近代历史说：“因为落后，所以挨打；因为不断挨打，所以更落后。这是一个恶性循环。”对中国近代史稍有常识的人都会赞成这样的说法。实际上，最早提出“落后就要挨打”的是斯大林。他是在上世纪20年代初期苏联正处在帝国主义国家环伺时提出的。而中日战争的发生，只是印证了“落后就要挨打”的规律。

中日两国的近代历史有着相似的地方，两个国家都是在西方列强的炮舰下被迫开港的。但是，开港之后两国却走上了截然不同的道路。日本通过维新运动走上了资本主义现代化的道路；中国尽管在19世纪70年代曾经出现过洋务运动，但是这个运动本身并不是以发展现代资本主义而是以维护封建王朝为目的，所以它不可能成功。而日本的先进与中国的落后之间的差距，恰好发生在帝国主义时代来临之际，于是，两国之间的基本关系也就因此而被确定了下来，这就是，落后的中国不断地受到先进的日本的侵略。发生在20世纪30年代的中日战争，把“落后就要挨打”规律的作用推向了极致。

第二次世界大战，在所有的参战国家中，中国是人员伤亡是最多的国家。据统计，在战争中，英国武装部队、本土加殖民地人民共死亡80余万人；美国海陆空军死亡32万余人；苏联伤亡2600余万人；而中国军民伤亡则达到了3500万人，超过了上述国家伤亡的总和。这种情况，一方面说明了中国人民不屈服于强敌的民族牺牲精神，并以这样的牺牲精神为世界反法西斯战争的胜利做出了巨大贡献；另一方面也说明了中国抵御侵略能力的低下，而这种能力的低下，究其原因是落后造成的。从抗日战争比较大的战役中可以看出，以落后的武器装备去面对先进的武器装备，结果只能是付出更多的牺牲，这是中国军队伤亡远远超出日本军队伤亡的主要原因。当然，日本军国主义的种族灭绝政策，如对于平民的大规模屠杀，也是造成中国军民重大伤亡的原因之一。但是从总体来看，如果中国与日本同样拥有先进的武器装备，恐怕战争的伤亡要小了许多。

中国战胜日本靠的是“血肉长城”，而不是“钢铁长城”。“血肉长城”反映出的是一种不屈的精神，我们至今仍有理由为这种精神而感到骄傲。但是，我们还需要“钢铁长城”这种物质，而这种物质不能产生在落后状态之下。

应当承认，到现在为止，中国还不是一个综合国力强大的国家，为了改变落后的面貌，中国还要走过漫长而曲折的道路。提高综合国力，使中国真实地强大起来，是中国人民当前的奋斗目标。在我们坚持不畏强暴并保持民族尊严的时候，还应该清醒地意识到，落后仍然是我们民族的最大忧患。

第二是民族凝聚力与争取民族复兴的问题。“落后就要挨打”是一条历史规律，但中日战争的结局却是落后的中国战胜了先进的日本。这是为什么？可以有许多不同的回答。而我以为，“血肉长城”的建立，是中国战胜日本侵略的最基本的条件。中国最终战胜了日本，靠的就是以民族凝聚力为实质内容的“血肉长城”。

什么是民族凝聚力？我赞成这样的定义：“它是一种观念形态(感情、理想、价值观)，它蕴藏在每一个民族成员之中，是中华民族共同的民族心理和民族精神的集中体现。民族凝聚力是一种合力，包括了民族整体(通过执政党、中央政府等民族领导核心)对民族成员的吸引力、民族成员对民族整体的向心力和民族成员之间的亲和力。是这三种力的有机统一，其中民族整体对民族成员的吸引力处于主导地位，它经常制约和影响民族向心力和民族亲和力的状况。”

一般地说，民族凝聚力的产生有两个特别显著的时间条件：第一，当一个民族的生存受到极大威胁而面临着灭亡的危险时刻，它容易产生内部的凝聚力量，这是任何一个民族都曾经发生过的民族自我保护的自然反应；第二，当一个民族正处于上升而走上振兴道路的时候，民族整体与民族成员的利益最大限度地保持了一致，凝聚力也便从中产生了。

以抗日战争为例，在它发生之前，中国显然缺少还没有形成一个民族的生存和发展都不可少的民族凝聚力。这是因为，自1840年以来，中国受到帝国主义国家的侵略，逐渐由一个独立的封建国家沦为一个半殖民地半封建的国家，民族的凝聚力也由于国家统治者的对外弱而开始涣散。尤其是在多个帝国主义国家的操纵之下，中国实际处于分裂的状态，更影响了民族凝聚力的形成。直到南京政府成立后，中国的分裂状态不仅依然存在着，而且愈演愈烈，连年不断的内战，使中国出现了一幅民不聊生的悲惨景象，民族的离心力代替了向心力而成为社会的主流。20世纪30年代以后，中国的内战已经到了连年不绝的地步。我们说，日本发动侵华战争是早已决定的国策，但从另一方面来说，中国的分裂状态，又是日本敢于发动侵华战争的一个重要条件。

九一八事变发生的时候，南京政府却仍然把全副精力放在了剿共战争和国民党内部不同派别之间的战争方面。日本利用中国的这种分裂，不仅轻易地占领了东北，还很快地把势力渗透到华北，为发动全面侵华战争准备了条件。由此可以看出，一个国家，如果它的执政者不能把民族的整体利益放在首要的位置，而把执政集团的利益放在首位，那么这个国家就不能产生民族凝聚力，结果只能是丧失抵御外侮的能力。

但是，抗日战争毕竟是在中华民族最危险的时候发生的，而正如前面说过的，当一个民族的生存受到威胁而使这个民族的成员也面临着生死抉择的时候，它的凝聚力就很容易产生了。当然，这个凝聚力的产生还需要有一个先进力量的催动，而共产党的存在使这个条件得到了满足。具体地说，中华民族在抗日战争时期表现出来的民族凝聚力，就是以中国共产党倡导的，以国共两党合作为基础的抗日民族统一战线为标识的。

抗日民族统一战线的建立和在它在八年抗日战争中的坚持不破裂，充分体现了在民族危亡的关头，由民族情感的认同而决定的民族凝聚力。日本对中国的侵略，并没有使中国内部的分裂倾向完全消失，但是却把它降低到了最低的程度。在八年抗战期间，也曾出现过汪精卫一类的卖国者，也曾出

现过国共两党间的严重摩擦，但是从整体上来看，中华民族的团结却是前所未有的。为了拯救民族的危亡，在不同的政党和政治派别之间，在不同的阶级和阶层之间，在政府和人民之间，在国内人民和海外同胞之间，形成空前团结，民族凝聚力达到了最高程度。直到今天国歌奏出“把我们的血肉筑成我们新的长城”的时候，人们仍然会受到这种民族凝聚力的强烈振撼。

民族凝聚力是在历史发展长河中维系整个中华民族生存与发展的一种内在力量，因而它历来为人们所重视。今天的中国已经发生很大变化，中国人民的任务已经不再是挽救民族生存，而是使民族振兴。但是作为历史的经验，我们仍然可以说，民族凝聚力还是中华民族复兴的一个重要条件。

第三是“自力更生”与外援的关系问题。所谓自力更生，对于一个国家和民族来讲，就是依靠国家自身与民族成员的内部力量，来保证国家与民族的生存与发展。

我们知道，上世纪发生了两次世界大战，中国不仅都是参战国，而且都是战胜国，但是两次世界大战却给中国带来了不同的结果。第一次世界大战后，中国以战胜国的身份出席了在巴黎召开的凡尔赛和会。在会议上日本提出了接管德国在中国山东的一切权益，其他列强不顾中国的反对同意了日本的要求，中国的命运仍然任由他人摆布。这说明，当时的中国在国际上没有丝毫的地位和尊严，不仅民族复兴无从说起，而且民族的生存都是一个极大的问题而没有解决。

第二次世界大战中国仍然是参战国，但与第一次世界大战不同的情况是，中国不是依附于任何一个国家而是以独立的主权国家参身份加了这次大战。1941年太平洋战争爆发后，中国的抗日战争融入到世界反法西斯战争之中，开始与盟国结成了相互援助的关系，只是从这个时候，中国才比较多地得到了盟国的援助。但是即使如此，中国的抗日战争仍然主要是依靠着自力更生才得以坚持。

在敌后战场，共产党领导的抗日武装，并没有直接得到盟国的物资援助，是以最简陋的武器，对抗着装备精良的日军。而事实证明，敌后战场却发挥了巨大威力，有效地消灭和牵制了敌人的大量兵力。而敌后战场的坚持，除了人民战争的作用外，自力更生显然是敌后军民得以生存的一个重要条件。

在正面战场，国民党的抗日武装确实等到了盟国的较多援助。据统计，在全部抗日战争期间，中国从苏联得到了2.5亿美元的援助(实际动用了1.7亿)；从美国得到了6.2亿美元的援助，另外，英国也给予中国一定的援助。这些物质援助，对于穷而弱的中国，确实给到了很大作用。除物资援助外，苏联与美国援华人员也直接参加了战争并付出了牺牲。中国人民至今仍然感谢盟国对中国抗日战争的支援。

但是，在肯定国际援助对中国抗日战争产生的积极影响的同时，还应该看到，与中国对于世界反法西斯战争的贡献相比较，盟国的援助其实也是十分有限的。以美国为例，它在第二次世界大战的全部过程中，向反法西斯的其他国家总共提供了460亿美元的援助，其中对中国的6亿美元援助仅占不到七分之一。另外，盟国对中国的援助，除道义因素外，更多的是由维护本国利益为驱动的。

以美英为例。中国抗日战争爆发之初，美、英等西方国家在中国的利益受到了日本的威胁，因此反对日本侵略中国。但是，当时美、英等国更关注的法西斯德国在欧洲的扩张趋势，无暇顾及亚洲和中国。所以，它们反对日本对中国的侵略，还仅仅是从道义的方面对日本进行谴责，并以本国利益出发，继续与日本进行与战略原料相关的贸易。在欧战爆发之初，美、英对日本一度采取了绥靖政策，封闭了中国对外通道，从而给中国抗战造成了很大的困难。只是在太平洋战争爆发后，美、英等国才增加了援华力度，但这种援助是因中国抗日战争显示出了它在世界反法西斯战争的重要战略地位，

再以苏联为例。不能否认，苏联是首先给予中国抗战援助的国家，并且在当时这种援助起到了很大作用。但是，一方面苏联对中国的这样援助，后来中国都以战略物质资源进行了补偿；一方面苏联援助同样是以本国利益优先为原则。如在1941年中国抗日战争最艰难的时候，苏联却与日本签订

了《苏日中立条约》。这个条约保证了苏联在远东的安全，使之能够集中力量准备对德作战，这对世界反法西斯战争的全局具有意义。但苏日互相保证尊重“满洲国”和“蒙古人民共和国”的领土完整和不可侵犯，却明显地侵犯了中国的领土主权。又如1945年签订的《中苏友好同盟条约》，一方面使苏联很快对日宣战，加速了结束战争的进程；另一方面却将雅尔塔协定合法化，其中有关旅顺、大连、东北铁路等内容，都严重侵害了中国的主权。

从以上史实不难做出这样的判断，在抗日战争时期，尽管由于中国得到了盟国的援助，但这些援助一般是在互利的情况下得到的。本国利益优先，是盟国援助中国的前提条件。

如果换一个思考方式，要是没有盟国的援助，中国是否可以取得抗日战争的胜利？回答也是肯定的。在太平洋战争开始之前，中国独立对抗着亚洲最强的日本帝国主义，并且打破了日本迅速灭亡中国的幻想；在抗日战争的相持阶段中，中日两相互矛盾着的特点中有利于中国的方面，已经充分的反映出来，证明日本永远无法达到它霸占中国的目的。而正是由于中国自力更生的抗日战争，才遏制了日本的北进，迟缓了日本的南进，因此在战争的中后期，不仅中国得到盟国援助有很大的必然性，而且中国国际地位的提高使它成为联合国的发起国之一，也有很大的必然性。

V. 关于抗日战争研究中存在的问题

从总体上看，抗日战争研究在近些年来取得了很大成绩，但是，不容回避的另一个事实是，还明显地存在着影响这个研究继续深入的各种问题。主要的问题是：

第一是资料的发掘和利用问题。十余年来，主要档案部门整理出版了大量文献资料，虽然这些资料多数被研究者利用，但随着研究的深入，资料欠缺的问题又重新出现了。而从现在的研究著述可以看出，具备利用境外档案和外文资料条件的研究者并不多。另外，除主要档案部门刊布和可以查阅的档案资料外，一些地方和部门的档案资料，有许多并未被研究者注意和利用。形成明显反差的情况是，凡是发掘和利用了新史料的，都在不同程度上把研究引向深入，反之，则难有研究新意。此外，为弥补文献史料的不足，近些年来搜集和利用口碑史料的人多了起来，但是，这个工作目前还很不规范，一方面存在着口碑凭信程度不高的问题，一方面也存在着把口碑史料与口述史混淆的问题。

第二是研究的方法问题。一般地说，历史研究包含了实证研究和理论研究两个部分，而这两个部分又是相互关联的。这种关联表现为，只有弄清基本历史事实，才可能对历史规律进行理论的总结；也只有对历史规律进行理论的总结，才可能比较准确地解释具体的历史现象。在过去很长时期内，受到政治因素的影响，实证研究受到很大限制，随处可见的是以论代史的现象，这在很大程度上削弱了抗日战争研究的科学性。而近些年来，在一些研究中却表现出了完全相反的倾向，即孤立地考证和解释具体的史事，而完全忽略了对历史现象的理论分析。其结果是以偏盖全，成为名副其实的管窥研究，这同样会也是不科学的。

第三是眼界的拓展问题。台湾有位学者，仅考证卢沟桥中的卢字就写了厚厚的一本书，精神固然可嘉，却不免显得眼界狭小。而从我们的研究现状来看，同样存在着眼界需要拓展的问题。应该承认，与20年前或10年前比较，抗日战争研究的课题确实丰富了许多。但是随着时间的推移，原本是新的课题，现在却变成了旧的课题。这就需要我们重新调整视角来更新课题。另外，即使是对原有课题的研究，恐怕也存在着调整视角重新切入的问题。

항일전쟁 연구의 쟁점

榮 維 木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목 차〉

- I. 항일전쟁의 민족일치성에 관하여
- II. 항일전쟁과 중국의 현대화 진행 과정에 관하여
- III. 전쟁 유류 문제에 관하여
- IV. 항일 전쟁에 관한 역사 계발
- V. 항일전쟁 연구에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항일전쟁은 중국 근대 역사에서 중화민족의 완전한 승리로서 종결을 선고한 민족해방전쟁이라 할 수 있다. 전쟁 기간에 정부와 인민 사이, 각개 정치 파벌 사이, 각개 민족 사이, 국내 인민과 해외 동포 사이에 밀접한 합작관계를 맺었고, 중국 근대 이전에는 없던 민족 응집력을 드러내었다. 동시에 30년대 시작한 일본의 대중국 전면 침략은 중화민족에게 공전의 재난을 가져다주었는데, 국가와 인민이 맞닥뜨린 손실은 근대 이래 어떠한 외적의 침입에 의한 손실보다도 막대했다. 그 밖에 전쟁을 영향을 받아, 중국 국내 정치역량의 비율 및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처한 지위는 전쟁이 끝난 때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한 이러한 변화는 결국 중국 근대 역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으로 인해 종결을 고하는 것을 재촉했다. 이는 모두 항일전쟁 역사가 중국 근대역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근대사연구의 하나의 주요한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표명한다.

항일전쟁 연구는 아직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때 이미 시작했었는데, 다만 당시의 연구가 치중하던 것은 전쟁 규율 및 중국사회에 대한 전쟁의 실제 영향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는 항일전쟁의 최후 승리를 쟁취하고 전후에 침략자에 대한 청산을 진행하려는 것이었는데, 아직 역사 연구라 할 수 없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 항일전쟁 연구는 중국 근대사 연구의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이 연구는 중국 공산당사와 중국 혁명사 연구 속에 포함되었고 독립된 역사 연구 분과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80년대에 이르러 항일전쟁 연구가 비로소 역사 연구 분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85년, 1987년, 특히 1991년에 中國抗日戰爭史學會가 성립하여 항일전쟁 연구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90년대에 들어서는 한편으로는 중국이 현대화 실현의 발걸음을 현저하게 빨리 했기 때문에, 현대화를 촉진하는 시스템이론 공정의 조성 부분으로서 중국 민족 부흥 역사에 대한 연구가 쟁점이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우익이 침략전쟁을 반복하려는 새로운 사악한 세력(惡浪)을 꺾기시키고 전쟁의 遺留 문제를 해결하자는 소리도 나왔기 때문에, 항일전쟁 역사와 일본의 중국침략 역사연구에 깊게 파고드는 것을 촉진하기도 했다. 요 몇 해 항일전쟁 연구 상황에 관하여 나는 이미 글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복할 필요가 없고, 연구 중 나타난 생각해볼 만한 현상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I. 항일전쟁의 민족일치성에 관하여

《廣州日報》는 항일전쟁이 승리할 무렵의 첫 번째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경에서 개최된 경축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수수께끼를 내었다. 수수께끼의 문제는 “항전승리” 이고 답은 중국사서에서 유명한 인물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4가지 답안이 나왔다. 하나는 취위엔(屈原), 다음은 쑤우(蘇武), 그 다음은 장간(蔣干), 마지막은 공공(共工)이었다. 무슨 뜻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취위엔” 과 “쑤우” 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항일 전쟁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공헌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장간” 과 “공공” 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항일전쟁의 승리는 도대체 국민당의 노력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공산당의 노력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인가? 나는 설령 이것이 결코 과학적 명제라고 생각하진 않을지라도, 이 의문은 전쟁이 막 종결되었을 때 이미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중국인들이 곤혹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누가 항일의 주력인가. 전면적 항일전쟁이 시작된 후, 국공 양당이 결코 동등한 지위에 처해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민당은 이미 182개 육군 사단의 정리개편을 마쳤고, 공군은 비행기 600대, 해군은 함정 백여 척 6만 톤을 보유하고었는데, 홍군은 개편 시기에 겨우 4만여 명이어서, 국공양당 군사실력은 큰 차이가 있었다. 또 바로 이러한 실력 차이 때문에 공산당이 참가한 국방회의에서 양당은 항일전쟁의 분업을 진행했는데, 곧 국민당 군대가 정면으로 일본군의 침략을 반격하는 임무를 맡고 공산당의 군대는 측면에서 일본군을 견제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전쟁 초기에 양당군대는 이러한 분업에 따라 작전 협동을 매우 잘 진행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국민당은 웅당 중국 항일의 주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항일전쟁에는 중요한 규율이 하나 더 있었는데, 곧 중일쌍방이 서로 배척하고 있는 각자의 특징과 이로 인해 결정된 전쟁 규율이다. 적이 강하고 내가 약하면, 일본이 비교적 빠르게 중국 국토를 크게 점령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적이 작고 내가 크거나 적은 수가 적고 나는 수가 많다면 또한 일본이 전체 중국을 빨리 점령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한다. 그리하여 일본군의 진격선의 뒤에서 넓은 공간을 형성했는데, 이는 중국 항일군대로 하여금 여기에서 전쟁할 곳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양당이 약정한 분업 전략에 따라, 공산당 군대는 적진의 후방에 전장을 열고 거기에서 적을 견제 소멸하는 주력이 되었다. 두 전장은 이로써 형성되었던 것이다.

정면전쟁과 후방전쟁, 도대체 어느 전장의 작용이 더 큰 것인가? 먼저 통계 숫자를 보도록 하자.

국공양당의 전후 공포에 따르면, 국공양당 군대의 항일전쟁 중의 작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민당 정면 전장은 8년간 스물 두 차례의 대전투를 했는데, 군대 사상자 수는 321만 (그 가운데 육군 사망자 수는 131만 명), 일본군 섬멸수는 100여 만이었다. 공산당의 후방 전장은 대소작전 12만여 차례, 군대 사상자 수는 60만, 일본군 섬멸 52.7만, 그 외 괴뢰군 118만을 섬멸하기도 했다.

위에서 상술한 숫자로 볼 때, 정면전장의 희생과 전과는 명확하게 후방전장보다 크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가 더 있는데, 즉 병력의 다소에 따라 계산했을 때 후방전장의 병사 일인당 섬멸한 적군의 수와 사상률 평균은 정면전장보다 높다.

겨우 상술한 통계를 근거로 삼아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답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중 어떠한 답안이든 간에 이러한 근거에서 나온 것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쟁규율이 중국의 항일전쟁의 구분이 정면과 적후의 두 전장을 만드는 것을 결정했는지라도 항일전쟁이 대면한 것은 어느 한 당파의 적이 아니라 전체 중국 인민의 공동적이었고, 따라서 이 전쟁은 중화민족이 생존 권력을 쟁취하는 총체적 전쟁이었다. 군사 방면에서 보자면, 두 전장은 하나라도 없어선 안되는 것이기도 했다. 전쟁 초기에 정면전장의 강력한 저항이 없었다면 후방전장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역으로 후방전장이 적을 견제하고 소모시키지 않았다면 정면전장이 장기간 버티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통계 숫자는 답안을 찾는 객관적 근거가 될지라도 문제의 관건은 아니다. 두 전장이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되는 이상, “항전승리”는 단순히 “蔣干”의 결과로 귀결시킬 수 없고 마찬가지로 “共工”의 결과로 귀결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사고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실제로는 곧 최초의 명제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명제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것은 항일전쟁 연구가 계속해서 잘못된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중국 양안의 분열은 이 잘못된 부분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다.

대륙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항일전쟁사는 줄곧 중공당사의 段階史로서 서술된 것이고 따라서 짙은 정치 색채를 지니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그 주요 표현은 공산당이 항일전쟁에서 한 작용을 강조하고 국민당이 항일전쟁에서 한 작용을 흘락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데 있다. 정면전장에 관한 서술은 계속해서 “一潰千里”, “不戰而逃”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국민당에 관한 평가에서 강조하는 것도 “消極”, “妥協”, “分裂”, “反共” 등등이었다. 설령 어떤 때 정면전장을 언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민당 관병 개인을 소개하고 칭찬할 뿐, 지휘자에 대해서는 계속 “片面抗戰”이라 평가한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 실제와 부합하지 않고 쉽사리 誤導를 빚어서 국민당이 전쟁 중에 어느 한 가지 적극적인 작용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국민당 치하의 대만에서는 상황이 꼭 그 반대이다. 일반적인 역사책은 절대로 후방전장에 대해 서술하지 않고, 심지어 근본적으로 중국항일에 이 후방전장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공산당의 항일을 언급하더라도 소위 “三分應付”, “七分發展”으로 평가한다. 국민당이 총결한 역사교훈은 곧 장개석 등이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공산당은 앉아서 세력이 커졌다(共產黨坐大)”론이다. 사실 이도 이상한 것인데, 국민당이 결국 초공을 목표로 한 “安內”를 완성하지 못했고, 제2차 국공합작 초에 중공은 겨우 몇 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었지만 항일전쟁 승리 무렵에 백만 명 이상으로 발전했고 또한 크게 기반을 점거했다. 최후에 국민당이 공산당의 손 아래 패하고 항일전쟁이 승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공산당은 국민당을 대신하여 집권했다. 그러나 이 안에도 인식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선 공산당이 항일전쟁 시기에 여태껏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었고 국민당도 공산당에 대한 통제를 감추지 않았었으며, 항일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양당은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 심지어 무기가 서로를 향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당의 모순은 최후에는 전체 민족 이익을 전제로 한 항일합작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다음에 공산당은 항일전쟁 시기에 운명적 전기를 찾아냈는데, 그러나 소위 “坐大”에서 “大”는 大지만, “坐”의 결과가 아니라 항일의 결과였다. 그 밖에 공산당의 적의 후방에서의 “大”는, 전쟁의 전체 국면에서 무해할 뿐 아니라 충분히 유리한 것이었다. 이러한 “大”는 정면전쟁의 압력을 경감시키는 전략적 작용을 했고 따라서 마땅히 긍정해야지 부정해서는 안된다.

의식 형태의 대립으로 조성된 위의 分岐는 항일전쟁 연구에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이 생겼다. 다행스러운 것은 1980년대 이후 해협 양안이 항일전쟁 연구 방면에서 모두 변화가 생겼는데, 어떻게 잘못된 부분으로부터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변화에도 그 정치적 배경이 있는데, 대륙 방면에서 말하자면, 제3차 국공합작에 대한 전망이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촉진한 외적 동력이었고, 동시에 학술 분위기가 유연해지고 연구 시각이 확장된 것이 다시 연구자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조건을 창조했다.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는 국민당의 항전 역사 및 이 역사 단계에서 중공과 결국 합작했었기 때문에, 대만의 중공에 대한 태도가 호응하게 하기도 했다. 오늘날 양당이 피차간에 서로 친구가 되길 바라는 배경에서 역사상 양당이 친밀해질 지점을 찾는 것은 팔년 항전이 매우 중요한 시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II. 항일전쟁과 중국의 현대화 진행 과정에 관하여

중전 연구자들의 항일전쟁 역사경험에 관한 총결은 주로 항일전쟁의 근대 민족, 민주 혁명에 대한 영향 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항일전쟁은 중국 현대화 진행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침략전쟁이 중국에 원래 있던 현대화 진행 과정을 단절시켰다.

중국에 대한 침략과 약탈은 근대 일본의 현대화 노정의 한 요소다. 갑오전쟁을 통해 일본은 중국의 대만을 강점했을 뿐 아니라 또 중국에게 2억 3천 2백 냥이란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이는 당시 중국 한해 재정 수입의 3배, 일본 연 재정 수입의 4배였다. 중국은 부득이 서구 열강에게 대거 차금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일본은 이 배상금의 일부로는 현대화한 八幡制 철공소를 세웠고 일부로는 현대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썼다. 일본의 현대화 진행 과정의 가속은 대체로 중국현대화 진행 과정에 대한 파괴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갑오전쟁이 일본 침략이 중국의 현대화 진행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1930년대에 이르러 일본이 중국에 대해 일으킨 전면 침략 전쟁은 중국에 원래 있던 현대화 진행 과정을 단절시켰다. 항일전쟁 발발 전 10년 동안에 중국현대화 공업의 매년 평균성장률은 약 7, 6%였고, 또한 이러한 성장은 기초 공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¹⁾ 1936년

1) 鄭竹園, 「中國侵華戰爭對中國經濟的影響」, 載羅榮渠, 牛大勇 主編, 『中國現代化歷程的探索』, 北京大學出版社, 1992, 212쪽.

자본주의생산은 이미 공업총생산액의 65%, 농공업 총생산액의 24.48%를 점했다.²⁾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의 공업화의 발걸음은 반드시 매우 빨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비록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할 순 없을지라도, 바로 모택동이 아편전쟁 이후 서방 열강의 침략이 없었다면 중국은 명청 시기의 자본주의 맹아에서 시작하여 장차 완만하게 자본주의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던 바와 같다. 이는 모두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논리에 합치되는 가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설은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고, 일본의 대중국 침략은 철저하게 중국 본래의 현대화 진행 과정을 끊어버렸다. 먼저 일본의 중국 동북 점령은 중국이 삼림, 철광, 탄광의 1/3, 철로 1/4, 대두 생산량의 7/10, 무역수출의 2/5 및 석유 93%, 황금 55%를 상실하게 했다.³⁾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1932년 말에 이르면 중국 정부의 동북에서의 손실은 178억 원에 달하는데, 개인 손실을 더한다면 200억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⁴⁾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던 8년 동안에 일본은 중국 도시 총수의 47% 이상을 점령했고, 그 중에는 대도시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이들 도시에는 중국의 거의 모든 현대화 공업이 모여 있었다. 이들 공업은 어떤 것은 전쟁의 포화 속에 직접 파손되었고, 어떤 것은 전쟁으로 인해 운행 조건을 잃어버려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어떤 것은 강제로 내륙으로 옮기던 도중에 파손되었다. 淪陷區에서 일본군은 임의로公私 재산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또 稅收를 가로채고 금융을 독점했으며 또한 일본의 중국 자원재부 약탈 목표에 따라 식민지 경제 체계를 세웠다. 1995년 중국정부가 공포한 수자에 의거하면, 중국의 항일전쟁 중의 직접 재산 손실은 1000억 달러이고, 간접손실은 5000억 달러다. 본래 매우 빈곤했던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상술한 전쟁 손실은 중국의 본래 현대화 진행과정을 계속 하기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그 경제를 전면적으로 붕괴시키기에 충분했다.

둘째, 중국의 항일전쟁은 새로운 현대화 요소를 축적했다.

후자는 중국현대화가 본래 중국 사회 내부 자체 현대성이 축적하고 성숙한 결과가 아니라 외부 도전에 의해 만들어진 반응이라고 하고, 따라서 그것을 “後發外生型” 현대화로 부를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중국 근대의 개항 및 훗날 양무운동의 출현은 모두 명확하게 피동적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이 특징은 다시 이러한 종류의 현대화 자체의 취약성을 결정했다. 그러나 항일전쟁의 발생은 대체로 중국현대화의 “후발외생형” 성질을 상당히 변화시켰다. 바로 일본의 침략이 중국에 원래 있던 “후발외생형” 현대화 진행과정을 극대하게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自發內生型” 현대화 진행과정이 중국의 항일 과정 중에 조용히 열리게 했던 것이다.

우선 정치 층면에서 보겠다. 현대화에 관한 함의는 공업화를 그 핵심으로 하는 것 외에 국가 민주 제도의 건립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2천 년 봉건 역사를 가진 중국에 대해 말하자면, 후자는 현대화를 실현한 중요 조건이다. 항일전쟁은 의심할 나위 없이 중국 민주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건을 제공했다. 중국 공산당은 7·7사변이후 곧 저명한 『抗日救亡十大綱領』에서 “정치기구 개혁” 요구를 제출했고, 이와 동시에 다른 정

2) 吳承明, 『中國現代化: 市場與社會』, 三聯書店, 2001版, 105쪽.

3) 駱清華, 『五十年來之中國經濟』, 臺灣文海出版社, 232~233쪽.

4) 『革命文獻』 第35輯, 1328쪽.

치 파벌도 차례로 민주를 개방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그리고 민족 생존이 일본 침략의 엄중한 위협을 받던 때, 장개석을 대표로 한 국민당 정부는 다만 조류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서 전국에 민주를 개방했다. 비록 이러한 민주는 매우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당이 항전으로 인해 개방해야 했던 민주는 국민당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벗어난다면 민주는 아무 때고 중단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민주주의는 또 다른 사회조건을 필요로 하여 지탱되는데, 이 조건은 곧 진보역량이 사회에 대한 주도적인 작용을 매우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건은 항일전쟁 전 중국사회는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항일전쟁이 시작된 후, 공산당을 대표로 한 진보역량이 이미 중국 사회에 홀시해서는 안되는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민주와 독재의 대결에서 후자는 우세를 점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진보역량의 발전과 장대강대함은 마찬가지로 중국현대화 요소 축적의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다.

이번에는 경제 측면에서 보겠다. 위에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이 중국 본래의 현대화 진행 과정을 단절시켰다는 것을 서술했는데, 이는 일본 침략이 戰前 중국이 축적해내던 현대화 경제에 대한 심각한 파괴였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또한 바로 일본 침략의 중국 경제에 대한 파괴는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응대하지 않을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전시경제체제의 건립은 바로 응대의 결과다. 전시경제체제는 일종의 강요받은 응변 조치인데, 그 실시는 한편으로는 금융, 물자, 자원의 통제를 통해 항일전쟁이 필요로 하는 재력 물력을 모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관료 자본으로 하여금 세력을 확대하게 하고, 그리하여 민족 자본의 발전 공간을 압축했다. 그러나 만일 현대화의 시각에서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러한 체제 하의 현대 금융 체제의 건립, 공업 구조의 조정, 자원의 조사와 총괄 개발, 공업 발전의 구조 조정 등등은 모두 현대화 요소를 나타내었다. 특히 공업화 傳動인 연해 공업의 내륙 이전은 중국 서부 공업이 낙후한 상황을 변화시켰다.

공산당이 지도한 후방 근거지는 중국 경제가 가장 낙후한 지구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코 현대화 경제를 실현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제정하고 실시한 포괄 감조 감식, 황지 개간 격려, 영농자금 대부 방출, 상업 발전 등 일련의 경제 정책은 항일역량이 빈곤한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인민의 물질생활을 상당히 개선시켰고, 계급구성의 비율도 이러 인해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훗날의 토지혁명을 위해 조건을 준비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것도 현대화요소의 축적이다.

다시 국가주권 측면에서 보겠다. 1842년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영국과 『남경조약』을 체결한 이래, 제국주의 열강은 중국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는 것을 통해 중국이 허다한 기본주권을 상실하게 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계속해서 완전한 의의에서 주권국가의 지위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면 항전이 폭발한 후에, 특히 중국의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이 하나로 융합된 때, 이러한 상황은 매우 빨리 변화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폭발했을 때, 중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일본과 전쟁을 치룬지 4년째였고, 또한 일본 육군의 대부분의 병력을 견제했다. 바로 중국 전장이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나타난 중요 지위와 작용 때문에, 미, 영 등의 국가가 중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1943년 초, 중국은 차례로 미, 영 등 국가와 옛 조약을 폐제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다는 협의를 조인했다. 이로부터 중국은 백년간의 불평등 조약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독립주권국이 마땅히 가

저야 하는 존엄을 획득했다. 독립적 주권은 어떠한 현대화 국가도 결핍해서는 안되는 조건이다.

III. 전쟁 유류 문제에 관하여

전쟁 遺留 문제는 전쟁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으면서 전후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리킨다. 1990년대, 한 쪽으로는 중국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의 소송이 양국의 중시를 이끌어내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일본 우익이 역사사실을 부인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일본정부 보수 세력에 영향을 끼쳤던 것 때문에, 전쟁 유류 문제 연구는 갈수록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연구는 아래의 몇 가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우선 피아오위 열도(釣魚列島)의 주권 귀속 연구다. 1894년 일본은 실제로 이 열도를 점령했는데, 1945년 후 이 열도는 미국에 위탁관리 되었고, 1969년 미국이 위탁관리를 끝냈으며, 1971년에 이 열도는 류큐 군도의 일부분으로 일본에 귀환되었다. 신중국 성립 이후 여러 차례 이 열도에 주권을 가짐을 공표했다. 요 몇 이래 중국 고대 문헌으로써 논증을 한 연구자가 있었는데, 일찍이 15세기 이전 중국이 이미 피아오위다오(釣魚島)를 발견했고 또 한 피아오위다오라 명명했다는 것이다. 이후 몇 세기 동안 일본도서에는 중국이 피아오위다오 및 부근 도서에 대해 한 명명을 계속 사용했을 뿐 아니라 명확하게 그것을 중국 해역 안에 그어 넣었던 것이다. 또 다른 명칭 시기 문헌 여러 중에 의거하면, 피아오위 열도가 중국 판도에 집어넣어진 후에, 이미 차례로 중국 푸젠(福建)과 타이완 해안 방어 구역에 편입되었다. 일본이 갑오전쟁 후에 피아오위 열도를 병합했을지라도, 『開羅宣言』과 『波茨坦公告』에 의거하여 일본은 이치에 비추어 마땅히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呂一燃, 「歷史資料証明: 釣魚列島的主權屬於中國」, 『抗日戰爭研究』 1997年 第4期) 또 어느 연구자는 일본 문헌으로 논증했는데, 일본이 1894년에 실제로 피아오위 열도를 점령하기 전, 정부와 민간의 인사가 모두 “釣魚列嶼系는 타이완 부근 청국 소속 島嶼” 라고 인식했다. 논자는 일본이 피아오위 열도를 패권 점령한 역사 과정에 상세하게 논술했다.(吳天穎, 「日本覬覦我釣魚列嶼的歷史考析 - 再質奧原敏雄教授」, 『抗日戰爭研究』 1998年 第2期)

이번에는 전쟁 피해자 소송과 관련한 실증 연구다. 이 연구는 중국 위안부 피해, 노동자 피해, 생화학무기전 피해와 전후 遺害 등의 연구를 포괄한다. 이 가운데 위안부 문제 연구에 관해서 중국에서는 비교적 늦게 시작했고 일본과 한국에 뒤져있지만, 근년에는 몇 가지 성취도 있었다. 예를 들어 피해 인수와 관련하여 어느 연구자가 심사 평가 후에 일본군에서 36-41만 위안부 가운데 대다수가 조선과 중국의 부녀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제출했다.(蘇智良, 「關於日軍慰安婦制度的幾點辨析」, 『抗日戰爭研究』 1997年 第3期) 일본 우익이 전시 위안부는 상업행위의 산물이라고 제출했던 것에 겨누어서, 중국 학자가 사료에 의거하여 위안부 제도의 기원을 논증했고, 이 제도가 완전히 일본 침략 방식을 위해 복무한 것임을 지적했다. 2003년 8월 4일 발생한, 일본군이 남겨놓은 화학 무기가 중국의 일반인을 상해한 사건(8·4사건)은 사람들의 일본 화학전쟁 및 화학무기 遺留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

으켰다. 뿌핑(步平)의 「日本在中國的化學戰及戰後遺留化學武器問題」(『民國檔案』2003年第3期)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일본이 중국침략전쟁 기간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구체적史實을 논술하고, 전쟁 기간에 일본이 최소한 700만 개 이상의 화학무기를 생산했다고 간주한다. 중국 전장에서 화학전을 2000차례 이상 실시하여 근 10만 명의 직접 사상자를 내었고, 전후에 남겨진 화학무기가 또 2000-3000명을 상해했으며 또한 이러한 상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그는 중일양국이 유류 화학무기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공통인식을 서술했는데, 일본 화학전 책임에 대한 규명이 일본인이 일본 침략 전쟁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에는 史觀에 관한 연구다. 이 연구는 주로 우익 교과서 분석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2001년 일본 과학문부성이 처음으로 우익 교과서를 통과시킨 후, 중국은 일본 우익 교과서를 분석하는 저술이 한 무더기 나타났다. 이 가운데 쟁하이펑(張海鵬), 뿌핑이 主編한 『日本教科書問題評析』(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은 전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의 출현, 변화에 대한 역사 과정에 체계적으로 평가했고, 이 문제가 만들어진 일본 국내와 국제적 정치배경 및 그것이 역으로 일본 사회와 주변 국가에 끼친 영향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게 분석하고 또한 일본 扶桑社 교과서의 착오사관에 일침을 가하고 역사왜곡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올해 4월, 일본정부는 재차 우익교과서를 審正 통과시켰고 여전히 학자들의 관심을 매우 많이 끌어내어 현재 비판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우익 교과서의 착오에 대한 지적은 한, 중, 일 3국 학자들이 이미 연합하여 동북아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3국 공동역사 도서를 썼던 것이 중시할 만한데, 이 책은 올해 5월 말에 삼국에서 동시에 출판되었다.

右翼史觀을 연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곧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다. 필자는 「中日戰爭遺留問題研究術評」(『江海學刊』2001年第6期)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 바 있다. “민족주의는 중화민족이 외침을 막아내던 때 침략자를 이기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다. 또한 민족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 유류 문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일종의 불가결한 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의 또 다른 면을 보아야만 하는데, 이는 매우 고차원 적 각도에서 보자면, 전쟁 유류 문제도 민족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이고, 아시아, 세계화평과 인류 애호의 전도와 관계되는 문제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은 다시 완전히 민족주의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가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다윈주의를 비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도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실제로 전쟁 유류 문제는 이미 민족주의가 용납될 수 있는 범주를 멀리멀리 뛰어넘었다.

IV. 항일 전쟁에 관한 역사 계발

항일전쟁에 관한 역사 경험은 줄곧 사람들의 중시를 받았다. 요 몇 년 동안, 관련 연구는 주로 다음의 몇 가지 방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방면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낙후와 선진의 관계 문제. 저명한 역사학자 후성(胡繩)은 중국 근대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낙후되었기 때문에 당했다. 당하는 것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낙후되었다. 악순환이다.” 중국근대사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은 모두 이러한 설명에 찬성할 것이다. 실제로 가장 먼저 “낙후되면 당한다” 고 했던 것은 스탈린이다. 그는 1920년대 초기에 소련이 바로 제국주의 국가가 엿보고 있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발생했으나 그저 “낙후되면 당한다” 는 규율을 입증했다.

중일 양국의 근대 역사는 비슷한 데가 있는데, 두 국가는 모두 서방 열강의 포함 아래 강제로 개항되었다. 그러나 개항 후 양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일본은 유신운동을 통해 자본주의 현대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1870년대 일찍이 양무운동이 출현했었을지라도 이 운동 자체가 결코 현대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아니라 봉건왕조 보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의 선진과 중국의 낙후 사이의 격차는 바로 제국주의 시대가 임박했을 때 발생했고 따라서 양국 사이의 기본 관계도 이로 인해 확정되어 갔는데, 이는 곧 낙후한 중국이 부단히 선진적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것이다. 1930년대에 발생한 중일전쟁은 “낙후하면 당한다” 는 규율의 작용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모든 참전 국가 가운데 중국은 사망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였다. 통계에 따르면, 전쟁 중에 영국은 무장부대, 본토에 식민지 인민을 합쳐서 모두 80여 만 명이었다. 미국은 해륙공군 사망자 32만여 명, 소련 사망자 2600여만 명, 그리고 중국 軍民 사망자는 3500만 명에 달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사망자 수의 총합을 초과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중국 인민의 강적에 굴복하지 않는 민족 희생정신을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희생정신이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에 거대한 공헌을 했었다는 것을 설명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침략 방어 능력의 저하,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저하는 낙후함이 조성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항일전쟁이 비교적 컸던 전투에서 낙후한 무기 장비로 선진적 무기 장비에 대면하면 결과는 단지 매우 큰 희생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군대 사망자 수가 일본 군대 사망자 수를 크게 초과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다. 당연히 일본 군국주의의 종족멸절 정책은 일반인에 대한 대규모 도살과 같이, 중국 군민의 중대한 사망을 조성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자면, 만일 중국과 일본이 마찬가지로 선진적 무기장비를 가졌다면, 아마 전쟁의 사망자수는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중국의 일본전 승리가 기대고 있는 것은 “血肉長城” 이 아니라 “鋼鐵長城” 이다. “血肉長城” 이 알려주는 것은 일종의 불굴의 정신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러한 정신으로 인해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鋼鐵長城” 과 같은 물질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질은 낙후한 상태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

현재에 이르러 중국은 아직 綜合國力이 강대한 국가는 아니어서, 낙후한 면모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은 여전히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종합 국력을 제고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진실로 강대해지게 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눈앞에 두고 있는 목표다. 강폭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민족 존엄을 유지하려는 때, 낙후함이 여전히 우리 민족의 최대 우환임을 뚜렷이 인식해야만 한다.

둘째, 민족 응집력과 민족의 부흥을 쟁취하는 문제. “낙후하면 당한다” 는 것은 하나의 역

사 규율이지만 중일전쟁의 국면은 오히려 낙후한 중국이 선진적 일본을 이긴 것이었다. 왜인가?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血肉長城”의 건립이 중국이 일본 침략 전쟁에 이긴 가장 기본적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최후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족 응집력을 실질 내용으로 한 “血肉長城” 덕분이다.

무엇이 민족 응집력인가? 나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동의한다. “이는 일종의 관념형태(감정, 이상, 가치관)이고, 매 민족 구성원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며, 중화민족 공통의 민족 심리이고 민족정신의 집중 체현이다. 민족 응집력은 일종의 합력으로, 민족 전체의(집권당, 중앙정부 등 민족의 지도 핵심을 통해) 민족 구성원에 대한 흡인력, 민족 구성원의 민족 전체에 대한 구심력과 민족 구성원 간의 친화력을 포괄한다. 이 세 종류의 힘의 유기적 통일, 그 가운데 민족 전체의 민족 구성원에 대한 흡인력이 가장 주도적 지위에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민족 구심력과 민족 친화력을 제약하고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민족 응집력의 생산은 두 가지 특별히 현저한 시간 조건을 갖는다. 첫째, 어느 민족의 생존이 극대한 위협을 받아서 멸망의 위협을 맞닥뜨린 순간에 그 민족은 쉽게 내부의 응집 역량을 만들어내고, 이는 일찍이 어느 민족에게서도 모두 발생했던 민족 자아 보호의 자연적 반응이다. 둘째, 어느 민족이 향상하여 진흥의 길을 갈 때, 민족 전체와 민족 성원의 이익은 최대한도로 일치됨을 유지하고 응집력도 곧 거기에서 생긴다.

항일전쟁을 예로 들자면 전쟁 발생 전에, 중국은 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모두 없어서는 안될 민족 응집력을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 이는 1840년 이래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아 점차로 독립된 봉건 국가에서 반식민지 반봉건 국가로 떨어졌고, 민족적 응집력도 국가 통치자의 대외적인 약함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여러 제국주의 국가의 조정 아래 중국은 실제로 분열 상태에 처했고, 민족 응집력 형성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 남경 정부 수립 후에 중국의 분열 상태는 여전히 존재했을 뿐 아니라 더욱더 강렬해졌으며 여러 해 동안 끊이지 않은 내전은 중국에 백성이 생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정경이 나타나게 했고, 민족적 원심력은 구심력을 대신하여 사회적 주류가 되었다. 1930년대 이후, 중국의 내전이 이미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이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한 것은 일찍이 결정되었던 국책이라 말하는데, 그러나 다른 편에서 말하자면 서, 중국의 분열 상태가 일본이 감히 침략 전쟁을 발동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9·18 사변이 발생한 때, 남경정부는 여전히 전 정력을 剿共 전쟁과 국민당 내부 파벌간의 전쟁 방면에 쏟고 있었다.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분열을 이용하여 쉽게 동북을 점령했을 뿐 아니라 또한 신속하게 화북에 세력을 침투시켰으며 전면적인 침략 전쟁을 발동하기 위해 조건을 준비했다. 이로부터 한 국가가 만약 그 집권자가 민족의 전체 이익을 우선적 위치에 두지 않고 집권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이 국가는 곧 민족 응집력을 만들 수 없고 결과 외적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항일전쟁은 필경 중화민족이 가장 위험한 때에 발생한 것이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민족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이 민족의 성원도 생사 선택에 직면하게 했을 때, 그 응집력은 곧 쉽게 만들어진다. 당연히 이 응집력의 생산은 또한 어떤 선진 역량이 재촉되어야 했고, 당의 존재는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중화민족이 항일

전쟁 시기에 드러낸 민족 응집력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제항하고 국공 양당합작을 기초로 삼은 민족통일전선으로서 표식을 삼는다.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건립과 그것이 8년 항일전쟁 중에 계속 유지된 것은 민족 危亡의 전환점에서 민족의 정서적 동질감에서 결정된 민족 응집력을 충분히 체현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은 결코 중국 내부의 분열 경향이 완전히 소실되게 하진 못했지만 최저한도로 낮추긴 했다. 8년 항전 기간에 일찍이 汪精衛와 같은 매국노도 나타나고 국공양당간의 엄중한 마찰도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화민족의 단결은 오히려 이전에 없던 것이었다. 민족의 危亡을 구해내기 위해 다양한 정당과 정치 파벌 사이에서, 다양한 계급과 계층 사이에서, 정부와 인민 사이에서, 그리고 국내인과 해외 동포 사이에서 공전의 단결을 형성했고, 민족 응집력은 최고도에 달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國歌는 “우리의 血肉을 가지고서 새로운 長城을 축성하자”고 연주하는 때에 이르러,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민족 응집력이 자신을 강렬히 뒤흔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민족 응집력은 역사발전의 긴 과정에서 전 중화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틀어 쥔 일종의 내재역량으로서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중시되었다. 오늘의 중국은 이미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중국 인민의 임무는 이미 더 이상 민족 생존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진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서, 우리는 민족 응집력이 여전히 중화민족 부흥의 중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는 “自力更生”과 外援의 관계 문제다. 소위 자력갱생은 한 국가와 민족에 대해 말하자면 국가 자신과 민족 성원의 내부 역량에 의지하여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발생했었고, 중국은 두 차례 모두 참전했을 뿐 아니라 전승국이었지만, 양차 세계대전이 중국에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중국인 전승국의 신분으로서 파리에서 개최된 베르사이유 회담에 참석했었다. 회의에서 일본은 독일의 중국 산둥에서의 일체의 권익을 인수할 것을 제의했는데, 다른 열강들이 중국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중국의 운명은 여전히 타인에게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이 국제적으로 조금도 지위와 존엄을 갖지 못하여 민족 부흥은 말조차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민족의 생존도 긴급한 문제이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국은 참전국이었는데, 단 제1차 세계대전과 달랐던 상황은 중국이 다른 국가에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독립 주권 국가의 신분으로서 이 대전에 참가했던 것이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폭발한 후에, 중국의 항전은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 녹아 들어가면서 동맹국과 상호 원조의 관계를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중국은 비로소 비교적 많이 동맹국의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중국의 항일전쟁은 여전히 주로 자력갱생에 의지하여만 비로소 견지될 수 있었다.

후방 전장은 공산당이 지도한 항일 무장인데, 결코 동맹국의 물자 원조를 직접 받아본 적 없었고, 가장 초라한 무기로서 무장을 잘 갖춘 일본군에 대항했다. 事實은 후방전장이 도리어 거대한 위력을 발휘했었음을 그리고 적의 대량 병력을 효과적으로 소멸시키고 견제했었던 것을 증명한다. 적후 전장의 견지는 인민전쟁의 작용 외에, 분명히 자력갱생이 후

방 軍民이 생존할 수 있는 중요 조건이었다.

정면전장에서 국민당의 항일무장은 확실히 동맹국의 원조를 비교적 많이 받았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항일전쟁 기간에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2억 5천 달러의 원조(실제로는 1억 7천 억 달러 유용)를 받았다. 미국으로부터는 6억 2천 달러를 받았고, 그 외, 영국도 중국에 상당한 원조를 했다. 이러한 물질 원조는 가난하고 힘없던 중국에게 매우 큰 작용을 했다. 물질 원조 외, 소련과 미국이 중국에 지원한 인원도 전쟁에 직접 참가했고 또한 희생되었다. 중국인민은 지금도 여전히 동맹국의 중국 항일전쟁 지원에 대해 감사한다.

그러나 국제원조가 중국 항일전쟁에 만들어낸 적극적 영향을 긍정하는 동시에, 중국의 세계반파시스트 전쟁에 대한 공헌과 서로 비교하여 동맹국의 원조가 실상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보아야만 한다. 미국을 예로 하자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체 과정에서 반파시스트를 하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모두 46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는데,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6억 달러의 원조는 그 중의 겨우 1/7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외, 동맹국의 중국에 대한 원조는 도의적 요소 외, 대체로 본국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영미를 예로 보자. 중국 항일전쟁이 폭발한 처음에 미, 영 등 서방국가는 중국에서의 이익이 일본의 위협을 받으면, 이로부터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미, 영 등의 국가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던 파시스트 독일이 유럽에서 확장 추세이어서, 아시아와 중국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반대더라도 도의적 방면에서 일본을 비난할 따름이고 또한 본국 이익에서 출발하여 일본과 전쟁 원료의 상호 무역을 계속 진행했다. 유럽에서 전쟁이 폭발할 처음에 미, 영은 일본에 한동안 유화정책을 취했고, 중국의 대외 통도를 봉쇄했으며 따라서 중국 항전에 매우 큰 곤란을 조성했다. 다만 태평양전쟁이 폭발한 후에 미, 영 등 국가는 비로소 중국 원조 역량을 증가했는데, 단 이러한 원조는 중국 항일전쟁이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원문 누락)

다시 소련을 예로 보자. 소련이 먼저 중국 항전에 원조한 국가라는 것, 또한 당시 이러한 원조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소련의 중국에 대한 이러한 원조는 훗날 중국이 전략 물질 자원으로써 보상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원조는 마찬가지로 본국의 이익의 우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41년 중국 항일전쟁이 가장 어려웠던 때, 소련은 도리어 일본과 『蘇日中立條約』을 맺었다. 이 조약은 소련의 遠東에서의 안전을 보증하여 대독 작전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는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국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소련과 일본은 “만주국” 과 “몽고인민공화국” 의 영토 완정을 존중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 오히려 명확히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범했다. 또 예를 들어 1945년 체결한 『中蘇友好同盟條約』은 한편으로는 소련이 매우 빨리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하면서 전쟁 종식 과정을 빠르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알타협정을 합법화하여 그 중 旅順, 大連, 東北 鐵路 등 관련 내용에서 모두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상의 史實로부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항일전쟁 시기, 중국이 동맹국의 원조를 얻었을지라도 단 이 원조는 일반적으로 상호 이익의 상황 아래 얻은 것이다. 본국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동맹국이 중국을 원조하는 전제조건이었다.

만약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동맹국이 없었다면 중국은 항일전쟁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을까? 답은 또한 확실하다. 태평양전쟁이 시작하기 전, 중국 독립은 아시아 최강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있었고 또한 일본 중국을 신속하게 멸망시킨다는 환상을 타파했다. 항일전쟁의 대치 단계에서 중일 양국은 서로 모순된 특징에서 중국에 유리한 방면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일본이 중국을 覇占한다는 목표는 영원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바로 중국 자력갱생 항일전쟁 때문에 일본의 北進을 저지했고 일본의 南進을 지연했으며, 그리하여 전쟁의 중후기에 중국은 동맹국이 원조를 받는 것이 매우 필연적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중국의 국제 지위가 제고되어 중국이 연합국의 발기국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한 것 또한 필연적이었다.

V. 항일전쟁 연구에 존재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항일전쟁 연구는 근래 큰 성과를 거뒀는데, 다만 한 가지 회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事實은 이 연구가 계속해서 깊이 파고드는 각종 문제에 명확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발굴과 이용 문제. 10여 년래, 주요 당안 부문에서 대량의 문헌 자료를 정리 출판했는데, 이들 자료의 다수가 연구자에 의해 이용될지라도 연구가 깊이 들어감에 따라 자료의 결핍 문제가 다시 새롭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연구 저술로부터 보아, 境外 당안과 외국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연구자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밖에 주요 당안 부문에서 공포하고 찾아 읽을 수 있는 당안 자료 외에, 여러 지방과 부문의 당안 자료가 연구자에 의해 관심을 받고 이용되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 명확한 대비를 형성한 상황은 만약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용하면 모두 다양한 정도에서 연구를 심화시켜주고, 이와 반대로 곧 연구에 새로운 의미가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밖에 문헌사료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근 몇 년 사이에 구술 사료를 수집하고 이용한 이들이 많아졌는데, 다만 이러한 작업은 요즘 아직 그다지 규범에 맞지 않아서 한 면으로는 구술이 신뢰 정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다른 면에서는 구술사료를 구술사와 뒤섞는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연구 방법의 문제. 일반적으로 역사연구는 실증 연구와 이론 연구를 두 부분을 포함하는데, 이 두 부분은 다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은 기본 역사 사실을 똑똑히 밝혀야만 비로소 역사 규율에 이론적 총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 규율에 이론적 총결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비교적 정확히 구체적 역사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오랫동안, 정치 요소의 영향을 받아 실증 연구가 크게 제한을 받았는데,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論代史 현상인데, 이는 항일전쟁 연구의 과학성을 매우 크게 약화시켰다. 최근에 몇몇 연구가 완전히 상반된 경향을 드러냈는데, 즉 구체적 史實을 독립적으로 고증하고 해석하여 역사 현상에 대한 이론 분석을 완전히 생략했다. 그 결과는 일부로 전체를 덮는 것이어서 명실상부하게 한쪽만 보는 연구가 되니, 마찬가지로 비과학

적이다.

셋째, 시야를 넓히는 문제. 대만의 어느 학자는 盧溝橋의 盧자를 고증하여 매우 두꺼운 책을 한 권 썼는데, 정신이 물론 훌륭하다 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시야가 협소한 것은 면하지 못한다. 우리 연구 현황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마땅히 20년 전이나 10년 전을 비교하여 항일전쟁 연구의 과제가 확실히 매우 풍부해졌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간의 추이에 따라, 원본은 새로운 과제인데, 현재에는 낡은 과제로 변했다. 이는 우리가 새롭게 시각을 교정하여 과제를 교정해야만 한다. 그 밖에 원래부터 있던 관제에 대한 연구라 할지라도 시각을 교정하고 새롭게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Abstract】

Issues in study of China's Resistance War Against Japanese Aggression

RONG Weimu

Research on China's resistance war against Japan have already started in the midst of the war. However, the scope of study at that time has been limited to war strategy and regulations and the influence of war on the Chinese society. The research, of which purpose was to help achieve a final victory in the war against Japan and prepare for post-war arrangements, was a far cry from historical scholarship.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research on the resistance war was incorporated into the category of modern history studies of China. But the research works had not been conducted by an independent research department but as part of studies of Communist Party of China(CPC) and Revolution history.

Entering the 1980s, the research began to gain momentum as it was treated as an independent study category. The research activities have peaked when the China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Resistance War Against Japan was founded in 1981. I have already published my articles. Now I want to give my opinions on some topics of the studies.

1. On national integrity and the resistance war

When victory is certain for China at the end of the war, the Guangzhou Daily reported in its first victory news, "A man presented a puzzle in a victory celebration meeting in Chungching. The puzzle was to find a historical figure from Chinese history books who is comparable to a contributor to victory of the resistance war. Four answers were presented. The first was Qu Yuan(屈原), the Chu Dynasty poet, second, Su Wu(苏武), a diplomat and statesman of Han dynasty, third Jiang Gan(蔣干), a subordinate of Cao Cao, general of late Han Dynasty, the last was Gong Gong(共工), a legendary figure in ancient Chinese myth. We can understand characters each figure implies in connection with their role in war.

Qu Yuan and Su Wu were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ich played a decisive role for victory in the war. I want to talk about Jiang Gan and Gong Gong here.

Who fought the war? Who contributed to the war victory? Is it Kuomintang(KMT),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or the CPC, the Chinese Communists? I don't think this question is an appropriate one as it includes problems that can't be resolved by a scientific method. But I think it deserves studying this theme as it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perplexing many Chinese people for a long time since the end of war.

First, who did bear the brunt of war? When China and Japan entered into a full-scale war, KMT and

CPC were not in equal position. There was a big gap in military strength and capabilities between the two political powers, which drove both to agree on division of roles in war at a national defense meeting. It was decided KMT forces conduct a open war against the Japanese army while the CPC army fight behind the enemy lines. In the initial stage of war both sides collaborated well sticking to the war strategy. The communist forces used guerrilla warfare behind the Japanese troops harassing the latter's supply lines. The Japanese had to fight in two frontline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ole division one may pick up one among two figures as an answer for the above puzzle. However, none of the answers, I think, is correct as far as they are based on role division. During the war Chinese efforts were, in accordance with war regulations, divided into two front lines, the front and back of the Japanese army. This does not mean Japan was an enemy only for a specific political power group. It was the enemy for the whole Chinese people. The resistance war was a total war for salvation of the Chinese people. Any front line, whether it is at the front of or behind the enemy, was indispensable to China. So the war victory is not the result of efforts either by Jiang Gan or by Gong Gong solely.

To avoid selecting the sole contributor to the war victory is to deny the propriety of the first theme 'Who contributed to the victory?' The fact that such improper theme existed for a long time means studies of the anti-Japan resistance war has been stalled in a wrong place. Furthermore, the wrong theme is one of fundamental causes for separation of China and Taiwan.

In mainland China from the 1950s to the end of 1970s, the war studie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a part of CPC studies, which made it difficult to avoid political influence. The official history in mainland China emphasizes CPC efforts against Japan underestimating or denying contributions by KMT. Fortunately, entering the 1980s, scholars on both sides of the Taiwan straits began to change their hitherto rigid attitudes and try to revise the past wrongs in connection with the war studies.

Admittedly a political background stimulated the change. The prospect for forming the 3rd United Front of KMT and CPC accelerated people to revise their attitude. At the same time extension of a practical spirit and diversity of research views promoted researchers to describe history more objectively. From Taiwanese' point of view, the alliance with CPC during the war made them more favorable toward mainland China. Today both KMT and CCP are willing to make friends with each other. It is obvious the eight-year war of resistance will play decisive role in finding a historic rendezvous point for them.

2. The war and China's modernization progress

Until now the war studies has focused on its influences on China's revolution for nation building and democracy. Beyond them the war exerted an important influence on China's modernization.

First, Japanese invasion broke off ongoing Chinese modernization process.

Second, the Chinese resistance war supported the modernization by accumulating new factors needed for modernization.

The breakout of war changed greatly China's passive and lagging pattern in modernization. Japan's invasion interrupted ongoing modernization process completely, which in turn opened the way for China quietly to pursue modernization in a voluntary and self-generating pattern during the war.

Let's look at such change of pattern in China's modernization fro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first. Modernization should encompass not only industrialization as its core but also establishment of national democratic system. For China which has a 2,000 year history of feudal system, the latter is an important factor for its modernization. And the political democracy is based on other social condition, namely progressive group has sufficient capabilities for leading the society efficiently.

The Chinese society lacked this condition before the war. After the breakout of war, however, the progressive political groups represented by the communist party exerte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inese society that they were not overwhelmed by the nationalists in the democracy vs. dictatorship power struggle. The enhancement of capabilities and strength of progressive powers thereafter became a major factor in promoting modernization in China.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the war contributed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China. In the above I pointed out that Japan's invasion interrupted process of China's modernization. It inflicted severe damages to economic abilities China has fostered since before the war. However, the war made China positively respond with the crisis and set up wartime economic emergency system. Under this system, which was a kind of enforced extraordinary measure, finance, supplies and resources were under strict control in order to secure money and resources needed for staging war.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made bureaucratic capital gain strength while checking the accumulation of national capital. Despite the bad effect, the system created some favorable conditions for modernization such as advanced financial system, streamlining of industrial structure and scientific research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Noteworthy is that coastal industries moved to inner part of China, which encouraged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backward western China.

From the national sovereignty point of view, the war gave an opportunity for China to recover national sovereignty, a prerequisite for a modern state.

Since China was forced to sign the treaty of Nanjing in 1842, the Western powers demanded China to sign unequal treaties in succession depriving it of sovereignty. For that China had not status as a sovereign state all the time. Things have changed after the Chinese people threw themselves into an all-out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and the Chinese war of resistance became part of the world-wide struggle against Fascism. China has been engaged in war against Japan for four years facing most of Japanese troops when Pacific War broke out in 1941. The Chinese role in anti-Fascist war made western countries including US and Britain could not but to recognize and honor China as an ally. In early 1943, China succeeded in getting agreement from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other allied countries to repeal unequal treaties and sign new treaties, bringing to an end a century of unequal treaty relations. With that China recovered national dignity as a sovereign state.

3. On the legacy of war

The legacy of war points to problems that are closely related with war history and still unresolved even after war ends. Studies on the legacy of war begin to attract keen interests from the public entering the 1990s. A series of lawsuits filed by civilians who received damages by wartime atrocities were closely watched both by Japan and China. Moreover, the Japanese right-wingers frequently denied a variety of crimes attributed to Japan stimulating the conservatives in the Japanese government. Pending issues of the legacy of war are as followings.

First, the sovereignty of the Senkaku Islands. Japan occupied the islands by force in 1894. It was under the trust management by the United States from 1945 to 1969 and then returned to Japan along with Okinawa Islands in 1971.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China openly asserted its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on several times. Recently a Chinese scholar cited ancient documents and claimed that the islands had been known to the Chinese before 15th century and it had been named Diaoyutai Islands. Since then, according to him, even Japanese books have used the Chinese names and included it in the waters of China for hundred of years. Other documents during the period of Ming and Qing dynasties incorporated the islands into the Chinese territory and then into Fuzhou Province and Taiwanese sea defense area. Japan should return the islands, which it annexed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to China based on sound reasoning. (Lu Yi-ran, Historical data evidence: Territorial sovereignty of Diaoyutai Islands belong to China, Study on Anti-Japanese Resistance War, 1997, the 4th period) Another scholar, citing a Japanese historical literature, asserted that before Japan occupy the islands in 1894 the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civilians all regarded "Diaoyutai Islands as islands near Taiwan under sovereignty of Ching Dynasty." The historian described in details the process of occupation of the islands by the Japanese. (Wu Cheon ying: Japanese Study on History of Diaoyutai Islands -, Study on Anti-Japanese Resistance War, 1998, the 2nd period)

Another legacy of war is compensation demands brought by Chinese victims of Japan's war crimes and related lawsuits. An empirical study on war reparations includes problems of comfort women, enforced military service, germ warfare and other damages that sustains after the war ended. China has been lagging behind Japan and Korea in their study on problems related to comfort women, but has achieved some accomplishments in recent years.

Next is a legacy related to disputes on historical viewpoints. The study focused mainly on analysis of right-wing history textbooks.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uthorized textbooks that contains historical viewpoints of right-wing conservatives for the first time in 2001. In response China published articles and books in bulks that analyzed the Japanese textbooks. There is one thing one should be cautious with when he studies right-wing viewpoint of history; appraisal on nationalism. In connection with it, I have presented following opinions. (A Treatise On Study of Legacy of Sino-Japanese War, Jiang Hai Xue Kan, 2001, the 6th period)

4. Themes in the study of anti-Japanese resistance war

The Chinese people experienced the war themselves, which makes the war study all the more important. For the past few years, relevant studies focused on several themes as in the following. I would like to give my own view on them.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ckwardness and advance in the progress of modernization. China and Japan has similarities in their modern histories. Both countries were forced to open their ports under threats of warships dispatched by Western powers. However, after opening their ports, the two countries went the totally different way. Japan, through restoration movement, followed the path of modernization under capitalism system. In contrast, China failed to modernize itself. China started the so-called Yang-Wu Movement for self-strengthening through learning western techniques and methods. But the movement could not succeed as it was aimed from the start to strengthen and continue federal dynasty instead of developing modern capitalism in China. And the gap in progress of moderniz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had already widened just before opening of imperialism period. This determined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backward China consistently under threat of invasions by advanced Japan. The Sino-Japanese war in the 1930s is the most prominent case in which the rule "Once a nation is back, then it is dominated by other nation." applied.

Second, method for achieving national cohesion and revitalization.

"Once back, then dominated" is a kind of historical rule that applies in international affairs. But during the Sino-Japanese War, contrary to the rule, backward China won a final victory over advanced Japan. How can it be possible? There may be various reasons. But I think build-up of "Great Wall of blood and flesh" is the basic cause for the Chinese victory over the Japanese invaders. We can attribute Chinese victory to the "Great Wall of blood and flesh" which is based on the power of national unity.

Then what is national cohesive power? It is a kind of combination power comprising the absorption power toward members of the people by the whole nation (through core leading group such as governing political party and central government, etc.), loyalty to the nation by members of a people and affinity between them.

Generally speaking, two kinds of special time factors are needed to generate national cohesion. First, when a nation is in great danger and on the brink of perishment, the people can be easily united and consolidated. It is natural and historically proven fact that a people in the critical situation will unite to survive. Second when a nation flourishes, national cohesion power is easily generated as the nation's interests coincide with those of its members to the maximum level then.

The third theme is about self-recovery policy and outside help. The self rehabilitation for a nation and people here means to secure survival and development with efforts of its own people. Although China received assistances from the allies during the resistance war, they were offere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reciprocal benefits. The allies helped China as far as it is beneficial to them.

5. Problems in the study of Anti-Japanese War

First, search of data and its use. In the past 10 years, a great literature has been arranged and published. Much of them are being utilized by many researchers. However, insufficient data has emerged as an obstacle for an in-depth study.

Second, research method. The historical research in general consists of two categories-empirical and theoretical researches. The two methods are closely interrelated that only when basic historical facts are clearly known, the theoretical works for history regulations can proceed.

Third, widening of perspective. Taking into current situation in our research works it is necessary to widen the perspective. In the study of anti-Japanese resistance war, a much greater range of research topics are being treated in comparison with 10 to 20 years ago. However, new theme became old one as time passes by. Therefore promoting a diversity of views and widening perspectives are needed in the study.

중일전쟁 전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평양의 선교사계 중등학교

■ 安 鐘 哲 (서울大學校) ■

중일전쟁 전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평양의 선교사계 중등학교

安 鐘 哲 (서울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신사참배 강요의 배경-제국의 의례적 통합
- III.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중등학교 측의 대응
- IV. 학교 폐쇄와 조선인들 내의 분열
- V. 맺음말

I. 머리말

식민지시기 평양에는 서구선교사가족 수백 명이 거주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주일 선교사 조지 풀턴(George Fulton)은 당시 평양과 선교사 거주지를 둘러보고 “제국 속의 제국” 이라고 했다.¹⁾ 이는 식민지 시기의 일본제국이 처한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달리 구미선교사들이 자국 식민지에서 활동했으므로 식민지 경영에서 항상 영미권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²⁾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부(Chosun Mission)는 당시 자파의 최대 선교지 평양에서 학교, 병원, 교회라는 세 축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서북지역의 개신교인 수는 전체 조선 개신교인의 반 수 이상에 해당되었으므로 이 지역 선교사들은 일제 측의 관리, 타협의 대상이었다.³⁾ 아울러 식민지 시기는 공교육의 부실과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한으로 선교사들이 운영한 학교는 교육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⁴⁾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압도적

*서울대 강사.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하지 말아주세요.

- 1)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ッショ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 (東京: 社會評論社, 2006), 42. 미국의 남북전쟁(1861~65)시 미장로교도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미 북장로교는 호레이스(Horace N. Allen)부터 1884년부터 선교사들을 한반도에 보냈는데 당시 선교사들 중 최대교파를 형성했다.
- 2) 1910년대 한국인 민족운동인 ‘105인사건’ 이나 ‘3·1운동’ 발발 시 일제의 한국인들에 대한 잔인한 고문이나 학살의 실상이 선교사들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3) 식민지 시기 개신교인에 통계는 일정하지 않다. 대체로 태평양 전쟁 직전 천주교가 10만 이상, 장로회가 25만 이상, 감리회가 5만 이상으로 도합 46만 정도로 전 국민의 2%내외로 본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1991), 260-261. 노치준은 장로교인만 1941년에 354,913명에 달했다고 본다. 노치준, 「일제하 한국장로교회 총회 통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문학과 지성사, 1992)(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 35집), 68쪽의 표.
- 4) 노치준은 1908년에서 1942년 장로회 총회자료를 근거로 식민지 시기 개신교 계통의 학교가 전체중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20, 최대 40%로 보았다. 노치준, 위의 논문, 84-90쪽. 1940년 5월 말 당시 외국인학교, 성경학교 등을 제외한 약 90개 정도의 사립 중등교육기관 중 최소 25개 이상이

인 평양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일제는 1931년 이후 중국침략을 단행했는데 이에 비판적인 서구세력은 일제의 일방적인 행동에 걸림돌이었다. 이 시기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는 시기까지 선교사들은 일제 측의 새로운 정책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평양지역은 식민지 시기 내 비교적 일제 측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전시체제 기에는 일제의 본격적인 관리대상이 되었다.⁵⁾

신사참배 문제는 개신교 역사학계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⁶⁾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종교적 신념체계의 충돌이 다루어졌다. 즉 신사는 일본의 태양신, 아미테라스 오오카미(天照大神)을 참배하는 것이므로 개신교신앙과 양립 불가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상에 대한 유교적 제사를 우상숭배로 비판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종교적 혹은 민족적 저항이라는 잣대에서 이 문제를 평가해 온 경향이 강하다. 당시 평양지역의 선교사계 학교를 지속시키고자 했던 일군의 집단에 대해 배교, 혹은 친일이라는 암묵적인 판단이 있어왔다.⁷⁾

필자는 이 글에서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철수가 당시 선교사, 조선인, 일본 당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논문은 중일전쟁 전후로 일제 측이 평양지역 미션계 학교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과정을 다루면서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입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미일관계의 특징이 드러날 것이다. 이 문제는 해방 후 서북지역의 개신교계 지도력과 정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II. 신사참배 강요의 배경--제국의 의례적 통합

일본사회는 만주침략(1931)이후 국제사회의 항의에 직면하자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서구사회는 일제의 만주침략을 비난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주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제는 중국에서의 공세를 강화해나갔다. 특히 군부는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갔는데 그 기초에 천황제가 있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제사, 즉 신사참배와 관련이 있었다. 신사는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일본적 전통이었으므로 영미선교사들의 개신교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려고

선교사 혹은 한국인 개신교인들이 개신교를 건학이념으로 경영하는 학교였다.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284-289의 표들 참조.

5)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시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철수논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1~2장 참조.

6)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을 참조.

7) 종교적, 혹은 민족적 저항이라는 관점의 연구는 위의 책에 실려 있는 이근삼, 김양선, 한석희 등의 연구를 참조. 이러한 시각은 평양지역 선교사인 윌리엄 블래어(William N. Blair) 등에 의해 일찍부터 제기되어온 시각이다. William N. Blair, *Gold in Korea*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1946), 93-101. 한국기독교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도 그러한 입장을 담고 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273-338쪽을 참조.

했다. 일본은 1934년 6월 문부성 내에 사상국을 설치해서 종교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이 무렵 일본 사회 내에서 일어났던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 논쟁은 일본의 지성계를 군국주의에 복속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35년 2월 28일 일본 귀족원 본회의에서 남작 키쿠찌 다케오(菊池武夫)가 같은 의원이었던 헌법학자 미노베 다스키치(美濃部達吉)가 일본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천황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통치권이 천황에게 있지 않고 천황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기관에 불과하다” 라고 했으며 강력히 비난했다.⁸⁾ 이후 학계는 ‘천황주권설론자들’이 주도하면서 ‘국체명징(國體明徵)’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도시샤(同志社) 대학이 학내에 가미타나(神棚)를 설치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도시샤 가미타나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의 기독교에 대한 통제가 일층 강화되었다. 게다가 1936년 2월 26일에 일어난 군부 하급 장교들의 쿠데타(2·26사태)는 이후 군부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일본은 급속히 군국주의화되었다.⁹⁾

천황제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위기는 당연히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우선 1933~1935년간 식민지 대만에서 선교사계 사립 중등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영국과 캐나다 선교사계 학교(台南長老教中學校, 淡水中學·淡水女學院)가 주된 목표물이었다.¹⁰⁾ 재향군인회가 외곽에서 대만 총독부를 압박했고 총독부는 재향군인회의 압박을 받아들여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논란 끝에 영연방 선교사계 학교들은 당국의 입장에 굴복했다.¹¹⁾

한편 1935년은 ‘조선병합’ 25주년이 되는 해로서 직전부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¹²⁾ 당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총독은 만주-조선-일본을 연결하는 제국의 결합력을 높일 것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조선통치에서 앞으로 주력할 사업을 1) 공업 발전, 2) 농가개생계획의 확충, 3) 심전(心田)개발로 설정하였다.¹³⁾ 특히 ‘심전개발’의 목적은 종교계와 총독부의 전면적 협력을 목표로 천황제를 중심으로 개별 종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1935년 초두부터 도지사회의, 중추원회의, 각 지역 경무과장 등과 총독이 가진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¹⁴⁾

8) 천황기관설 사건은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 까지」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124-131쪽.

9) Marius B. Jansen, *The Making of Modern Japa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597-599. 이 사건으로 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도 암살되었다. 이는 군부 내 ‘온건파’의 종말을 상징한다.

10) 식민지 이전인 1850년대에 스페인의 도미니칸(Dominicans)선교사들이 대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1860년대에는 영국장로교가 타이난(台南)에, 1870년대에는 캐나다 장로교가 타이페이(台北)지역에서 사립 중등학교를 운영했다. 선교사계 학교의 활동은 조선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E. Patricia Tsurumi, *Japanese Colonial Education in Taiwan, 1895-19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34-36.

11) 재향군인회가 대만총독부에 선교사계 사립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실시하도록 압박했고 대만총독부는 이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駒込 武, 「1930年代台灣におけるミッション・スクール排撃運動」, 『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 7』 (東京: 岩波書店, 2002) 참고. 고메고메 다케시(駒込 武)의 연구는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만에서의 신사참배 강요가 전체적인 제국통제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12) 한궁희, 「1935-37년 日帝의 ‘心田開發’ 정책과 그 성격」, 『한국사론』35(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6), 141-143.

13) 『宇垣一成日記』1935년 5월 15일, 10월 1일자. 위의 논문 144쪽에서 재인용.

14) 각종회의에서는 조선에 있어서의 대내외적 위기와 각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이 강조되었다.

1935년 9월 22일에 총독부는 각 도지사에게 모든 학생들이 신사에 참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당국의 일원적 통제가 시작되었다.¹⁵⁾ 미 북장로교는 조선에서 8개의 중등학교와 3개의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였는데 중등학교는 1935년경까지 한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 정부로부터 ‘지정학교’로 인가받으면서 총독부의 교육체제에 편입되었다.¹⁶⁾ 아래 <표 1-1>은 북장로교 선교부 소속 각 학교의 지정학교화를 보여준다.

<표 1> 북장로교 소속 중등학교의 지정학교화

중등학교 명(지역)	지정학교 당시 교장	지정학교화 연도
경신학교(경기 서울)	E. W. Koons	1923년 5월 (최초)
정신여학교(경기 서울)	Margo L. Lewis	1935년 5월
승실학교(평남 평양)	George S. McCune	1928년 5월
승의여학교(평남 평양)	Olivette Swallen	1931년 12월 18일
신성학교(평북 선천)	장리옥	1931년 3월
보성여학교(평북 선천)	Blanche I. Stevens	1935년 5월
계성학교(경북 대구)	Harold H. Henderson	1933년 4월 13일
신명여학교(경북 대구)	Harriet E. Pollard	준비

출전: 李省展, 『アメリカ人宣教師と朝鮮の近代: ミッションスクールの生成と植民地下の葛藤』(東京: 社會評論社, 2006), 7장; 김승태·박혜진, 『내한선교사 총람』(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등.

1935년 7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장로교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이하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선교사들은 신사참배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그 해 봄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 신사참배를 강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기에 선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¹⁷⁾ 선교부 연례회의는 참배반대라는 강경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새로 임명된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로 하여금 총독부 학무국과 교섭토록 했다.¹⁸⁾ 실행위원회 구성원 3인, 스탠리 솔타우(T.

“道知事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1월 11일, 4월 19일), 朝鮮總督府官房文書課 編纂, 『諭告・訓示・演述總覽』(朝鮮行政學會, 1941), 124-137.

15) Langdon to Edwin L. Neville (주일 미 대사 대리), "Attendance of Christian School Children at Shinto Exercises," 1935년 10월 10일(395.1163/21),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미국 국무성 극동국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자료총서 제 35집, 이하 『신사참배자료 I』), pp. 100-101; "Obeisance of School Pupils at Jinja," *Seoul Press*, 1935년 11월 29일. Langdon to Neville, 1935년 12월 10일(395.1163/21)에 첨부. 『신사참배자료 I』, pp. 113-114.

16) ‘고등보통학교’는 정부가 정한 모든 교과과정을 따라야 했고 정규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다. ‘지정학교’는 당국의 교과과정을 따르면서도 정규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각종학교’ 출신자는 상급학교진학에 불리했으므로 1922년 ‘신교육령’ 공포 후 장로교 선교회와 조선 장로교 측은 관할학교들이 ‘지정학교’로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감리교 측은 배재고등보통학교, 송도고등보통학교, 광성고등보통학교 등으로 ‘고등보통학교’ 체제를 따랐고 장로교 측은 ‘지정학교’를 받아들였다. 지정학교 승격의 사례는 권영배, 「日帝下 私立各鐘學校의 指定學校昇格에 관한 一研究」 『朝鮮史研究』 제 13집 (조선사연구회, 2004), 대학은 연희전문(1917), 세브란스 의전(1917), 숭실전문(1925) 순으로 당국으로부터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17) Holdcroft to C. B. McAfee, 1935년 7월 4일(RG 140-12-14), 『신사참배문제 영문자료집-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문서 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자료총서 제 36집, 이하 『신사참배자료 II』), pp. 13-14. McAfee는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로 승실학교와 전문학교 교장인 맥쿤의 처남이었다.

Stanley Soltau, 蘇悅道; 1890-c.1967)¹⁹⁾, 해리 로우즈(Harry A. Rhodes, 盧解理; 1875-1965)²⁰⁾, 그리고 대표인 제임스 홀드크로프트(James G. Holdcroft, 許大展; 1878-1972)²¹⁾는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한 인물들이었다.²²⁾ 실행위원회는 선교부 내 다수파의 의견을 대변했다. 1935년의 연례회의가 선교사들이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후에는 경찰의 참여 하에 연례회의가 열렸다. 실행위원회는 선교부로부터 당국과 교섭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전권위원회’로 기능했다.²³⁾ 실행위원회는 평양의 학교들이 일본 당국의 신사참배 강요의 “주된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²⁴⁾

홀드크로프트는 뉴욕의 북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가 보기에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점은 4가지였다. 첫째, 조선의 교회가 “50년 넘게 조상숭배를 금지해온 점,” 둘째, 일본 당국이 조선 기독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 셋째, 일본인들이 몇 년간의 정치적 상황으로 “매우 흥분한 상태”라는 것, 넷째, 참배반대 문제에서 기독교인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²⁵⁾

홀드크로프트는 해외선교부가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문제를 두고 조선 장로교 총회 내에서도 7인 위원회를 구성, 선교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²⁶⁾ 실행위원회는 해외선교부가 국무부와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²⁷⁾ 해외선교부는 실

18) 강경책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이 총독부와의 타협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Ibid.

19) 솔타우는 1914년 내한하여 만주, 서북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청주에서 18년 동안 활동했다. 장로회 신학교 교수로 가르치다가 1939년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조선선교부가 열리기 직전,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면담한 후 그들이 신사참배를 국가의례로만 생각하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 그는 신사의례의 종교성을 강조했다. T. S. Saltau to McAfee, 1935년 6월 6일, 『신사참배자료 II』, pp. 10-12.

20) 로우즈는 1908년 내한 후 주로 강계에서 활동했다. 1918-33년에는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성서와 영어 등을 강의하면서 장로교 역사에 대한 책을 저술했다.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Vol. I. 1884-1934, Vol II. 1935-1959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965).

21) 홀드크로프트는 미주리주 파크대학(Park College)을 졸업한 후 1903년에 내한, 평양지역에서 활동했다.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1926년부터 미 북장로교 조선 선교부 회장과 총무 등을 역임했고 1936년에는 회장으로 일하면서 블레이어(William N. Blair), 솔타우, 로우즈 등과 강경입장을 주도했다. 해외선교부의 교육인퇴문제에 대해 실망해서 1940년 미국 귀국 후 북장로교를 탈퇴, 정통장로회 독립선교단에서 활동했다. 김승태·박혜진 엮음, 『내한선교사 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303-304.

22) 홀드크로프트는 평양, 솔타우는 청주, 로우즈는 서울에서 활동했지만 주로 이들이 교육사업 보다는 직접 선교사역 혹은 학내의 성경교수 등에 종사했기 때문에 활동지역과 관계없이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23) "Statement Concerning Our Attitude toward patriotic Ceremonies, Resolutions Passed by Chosen Mission," July 1935, 『신사참배자료 II』, p. 32.

24) 앞의 Holdcroft to C. B. McAfee, 1935년 7월 4일.

25) Holdcroft to McAfee, 1935년 10월 7일, p. 4, 『신사참배자료 II』, p. 28.

2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1934년 10월 1일, 12월 6일 총회장 이인식 목사 명으로 기독교계 학교에 신사참배를 시키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총독부에 제출하려 했다. 총독부는 여러 구실로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24회 총회록』, 1935년 9월, 富坂キリスト教センター編, 『日韓キリスト教關係史資料 II, 1923-1945』 (신교출판사, 1995), 462에 수록.

27) 홀드크로프트는 동경의 미 대사관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의

행위원회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²⁸⁾

이러한 때 평양에서 평양신사가 건립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잘 알려진 대로 1935년 11월 14일 평남도청에서 도내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회의 직전 평남 도지사는 참석한 인사들에게 평양신사에 참가한 후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참석한 16명의 교장 중 3명의 개신교계 학교 교장들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²⁹⁾ 1935년 4월 평양에 부임해 온 도지사 야스다케 타다오(安武直夫)는 부임 전 대만총독부 학무국장을 역임한 인물로 그가 대만총독부에 재직할 때 대만에서 개신교계 학교에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다.³⁰⁾ 그러므로 기존의 평남도청 측과 평양거주 선교사들의 협력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웠다. 승의여학교 교장대리 벨마 스누크(Velma L. Snook, 鮮于 梨; 1866-1960)³¹⁾와 함께 참배를 거부한 맥쿤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부각되었다.³²⁾

평남 도지사는 두 교장에게 금후 참배를 거부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이들의 답변 기한을 12월 20일로 제시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한 실행위원회는 총독부 학무국과 총독에도 서신을 보내어 1936년 6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조선선교부 연례회의와 조선 장로교총회를 통해서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남 당국은 정해진 기한 내 답변하라고 명령했다.³³⁾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실행위원회와 일부 선교사들이 동년 12월 9일, 총독부 학무국장 와타나베 도요히코(渡邊豊日子)를 방문했다. 와타나베는 “학교 교육과 종교는 구분” 되어야 하며 신사참배는 “제국의 정신적 기초”라고 주장할 뿐이었다.³⁴⁾ 실행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며칠 동안 긴급회의를 가지면서 몇몇 선교사들 및 조선인 개신교 지도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조선인 평양노회가 12월 13일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토론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³⁵⁾

Holdcroft to McAfee, 1935년 10월 7일, p.5-7, 『신사참배자료 II』, pp. 28-30.

28) “Minute Adopted by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Presbyterian Church, U.S.A.,” 1935년 11월 18일, 『신사참배자료 II』, pp. 34-35.

29) 『동아일보』1935년 11월 24일 자. 승실, 승의여학교, 의명학교(제 7일 안식교회) 교장들로 의명학교는 후일 총독부의 강경책에 굴복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290쪽.

30) 그가 1932년 3월부터 1935년 4월까지 대만총독부 문교국장을 역임할 때 대만에서 선교사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가 본격화되었다. 駒込 武, 「1930年代台灣におけるミッション・スクール排撃運動」, 235쪽; 그에 대해서는 岡本眞希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台灣總督府と帝國日本』 (東京: 三元社, 2008), 459의 대만총독부관료 표 참조.

31) 스누크는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1900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1903년부터 추방되는 1936년 초까지 줄곧 승의여학교의 교장으로 일했다. 스누크에 대해서는 『崇義 100年史 1903-2003』 (學校法人 崇義學園, 2003), 88-89.

32) 이에 대해 김승태 엮음,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중 한석희,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참조.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285-301쪽 참조.

33) Holdcroft to Ugaki (1935년 11월 25일), Yasutake to Holdcroft(1935년 12월 2일). 김승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1910-194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193-196쪽.

34) 방문선교사들은 실행위원회 홀드크로프트, 로우즈, 승실교장 맥쿤, 그리고 남장교 측 선교사 다니엘 커밍(Daniel J. Cumming, 목포, 광주 등에서 활동)과 윌리엄 린튼(William A. Linton, 전주에서 활동)이었다. 『京城日報』1935년 12월 9일 자, Langdon to Neville, 1935년 12월 14일, (395.1163/22), 『신사참배자료 I』, p. 129에 첨부. 이 기사는 위의 5인이 당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신사참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오보다.

35) 『동아일보』는 이것이 종교집회를 금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일제 당국은 신사참배는 애국적 행위이므로 만약 노회가 이 문제를 논한다면 집회는 “사회적 집회”가 된다고 맞섰다. 『神社參拜問

결국 실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은 12월 13일 맥쿤을 통해 그대로 평남당국에 제출되었다. 신사참배에는 종교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신사참배는 “일본제국 헌법이 허용한 종교자유”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내용이 었다. 또한 조선선교부, 해외선교부, 조선장로회 총회 등을 거쳐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³⁶⁾ 다만 “애국적 행위를 다른 방식” 또는 “개인 또는 교장 자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³⁷⁾ 이 때만해도 실행위원회 측은 당국의 온건책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총독부는 실행위원회가 맥쿤을 통해 제출한 12월 13일 자 글을 동월 19일 자로 반송했다. 총독부로서도 12월 20일 자의 최종시한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³⁸⁾ 하지만 이미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적 흐름 속에서 신사참배강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³⁹⁾ 결국 실행위원회는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보았다. 맥쿤은 해외선교부에 타협이 안되면 선교부는 북장로교계 학교들을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⁴⁰⁾

총독부 학무국과 실행위원회 측은 1935년 12월 30일에 다시 만났다. 당국은 신사참배의 국가의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와타나베 학무국장 취임 후 4개의 학교가 지정학교로 인가받았으므로 총독부의 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⁴¹⁾ 총독부의 입장을 확인한 맥쿤은 회담 직후 총독부와 선교부가 결국 충돌할 것이라고 예견했다.⁴²⁾ 다음 날 총독부 학무국장은 맥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본부 학무당국은 학교 교육 및 종교에 관한 우리 국제(國制)의 큰 틀(梗概) 및 본부의 방침을 분명히 하여 선교사로서 학교 교육에 관여하는 일부 인사의 반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의 당면 책임자인 평양 숭실학교 교장 윤산은 씨는 그 책무에 비추어 당국의 의도를 양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국은 윤산은씨가 끝까지 학교장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도로 하여금 신사에 참배케 할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확히 해둡니다.(강조: 필자)⁴³⁾

題 深刻化; 「老會側 態度强硬」, 『동아일보』 12월 7일, 8일 자. 12월 13일 200명 이상 되는 경찰과 헌병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다. 「五十餘老會員이 會集해 默禱코 散會/李承吉氏談」, 『동아일보』 12월 14일, McCune to Friend, 1935년 12월 30일, 『신사참배자료 II』, pp. 70-71.

36)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Presbyterian Mission, Seoul" (December 9-13, 1935), 『신사참배자료 II』, pp. 37-38; 김승태, 『종교정책사 자료집』, 196-197쪽.

37) McCune to Yasutake (평남 도지사) (1935년 12월 13일), 『신사참배자료 II』, p. 39. 번역은 김승태, 위의 책, 198쪽. 동일한 취지의 글을 실행위원회(홀드크로프트)는 학무국장에게도 보냈다. "Holdcroft to Watanabe," 『신사참배자료 II』, pp. 40-42; 김승태, 『종교정책사 자료집』, 199-202쪽.

38) Langdon to Joseph C. Grew, 1935년 12월 20일, (395.1163/23), 『신사참배자료 I』, pp. 135-136. 서울의 미 영사 랭던은 총독부가, 선교사들과 가능한 한 조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려한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39)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명령에 불복 시, 당국은 학교폐쇄라는 강경책을 세우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參拜拒否問題擴大 美本部에 總會召集要請」, 『기독신보』 1935년 12월 4일 자.

40) McCune to Cleland B. McAfee, 1935년 12월 20일, 『신사참배자료 II』, pp. 45-49.

41) "Notes on Conference of Dec. 30th, 1935," 『신사참배자료 II』, pp. 51-52.

42) McCune to Friend, 1935년 12월 30일, 『신사참배자료 II』, pp. 70-71.

43) "A Warning to Dr. G. S. McCune, Principal of the Sujitsu School on Dec. 31, 1935," 『신사참배자료 II』, p. 73.

1936년 1월 14일에 평남 당국은 맥쿤과 학교 ‘설립자’인 사무엘 모펏(Samuel S. Moffett)을 평남도청으로 불러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상기시키며 동월 18일까지 최종입장을 제출토록 했다. 평양 삼승학교 재단은 1월 17일, 맥쿤과 스누크의 교장사임을 거부했다.⁴⁴⁾ 이 때 실행위원회는 평양의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다. 평양신학교 교수 박형룡과 산정현 교회 목사 주기철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맥쿤과 실행위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맥쿤은 1월 18일 모펏과 함께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신사참배를 할 수 없음과 송실 이사회 측이 자신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설명했다.⁴⁵⁾ 맥쿤은 신사참배의 종교성과 개신교와의 충돌을 주장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참배를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여전히 “일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기대”한다고 했다.⁴⁶⁾

평남 당국은 회담 당일인 1월 18일에 맥쿤을 송실학교 교장 직에서 해임했고 이틀 후 조선총독부가 그를 송실전문학교 교장 직에서 해임했다.⁴⁷⁾ 평남 당국은 송의여학교의 스누크도 2월 22일에 교장 직에서 해임했다.⁴⁸⁾ 당국으로부터 해임통고를 받은 실행위원회는 학교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수립을 해달라고 해외선교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총독부 학무국의 선교사제 학교의 직접 접수설이 선교사들을 긴장시켰기 때문이다. 실행위원회는 선교사제 학교들의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한 예로 선천의 신성학교가 독립재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⁴⁹⁾

〈표 2〉 1936년~1938년 초 평양부내 중등학교 일람표

학교명	종별(種別)및 주체	설립연도	연한 및 수용학생	기타(전신, 후신)
평양사범학교	관립	1922년	본과 4년 강습1년 / 조선인·일본인 공학	
평양제일중학	공립(道費)	1915년	5년/ 일본인	
평양제이중학	공립(道費)	1899년	5년/ 조선인	구한국 관립고등 보통학교가 전신
평양상업학교	공립(道費)		갑종5년 / 조·일 공학	
평양농업학교	공립(道費)	1910년	갑종5년/ 조선인	
승인상업학교	사립(한국기독교)	1923년	갑종5년/ 조선인	조만식, 오윤선
송실학교	사립(장로교)		5년/ 조선인	평양제3중학교

44)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1일(395.1163/25), 『신사참배자료 I』, p. 148.

45) McCune to Yasutake, 1936년 1월 18일 편지, 『신사참배자료 II』, pp. 74-75. 『신사참배자료 I』pp. 156-157과 210-211에도 실려 있다.

46) 일본 측 주장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90쪽 참조.

47) 『송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 편』(송실대학교, 1997), 494쪽; 「當局과 最後會談에 尹校長參拜拒絶」, 『기독신보』1936년 1월 22일 자. 당시 전문학교에 대한 관리는 총독부 학무국이 담당했다.

48) 스누크의 학교운영과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崇義 100年史』, 103-104, 204-209쪽.

49) 이는 독립재단이 선교회나 교회재단보다 총독부 학무국의 압력에 더 취약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Holdcroft to McAfee, 1936년 1월 24일, 『신사참배자료 II』, p. 82.

학교명	종별(種別)및 주체	설립연도	연한 및 수용학생	기타(전신, 후신)
송의여학교	사립(장로교)		5년/ 조선인	평양고등여학교에 흡수
광성고등보통학교	사립(감리교)		5년/조선인	경창중학교가 됨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사립(감리교)		5년/ 조선인	남산고등여학교가 됨
서문고등여학교	공립(道費)	1914년	5년/ 조선인	
평양고등여학교	공립(道費)	1913년	5년/ 일본인	
화정여학교	사립(일본불교)	1920년	5년/ 일본인	
평양종로상업전수학교	공립(府費)		을종3년/조선인	종로소학교부설
평양상업실천학교	공립(府費)		을종3년/일본인	일본인소학교부설
평양명륜실과여학교	공립(府費)		을종3년/조선인	
평양공업실습학교	공립(府費)		을종3년/조선인	

* 참조 : 고당전·평양지간행회, 『평양지』 (평남민보사, 1964), 30에 기초해서 작성.

III.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중등학교 측의 대응

서울지역의 선교사, 특히 교육계에 관련된 인사들은 거의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는 연희전문의 대학위원회(College Council)내에 파견된 각 교파 선교부의 교직원들의 신사참배와 관련된 동향을 전해준다. 학감 유억겸, 문과 백낙준, 수학물리와 이춘호, 상과 이순탁 등 각 과 과장들은 신사참배에 찬성했다. 감리교파 대표 아더 베커(Arthur L. Becker, 白雅德; 1879-1978)⁵⁰⁾와 남감리교의 제랄드 스페이델(Gerald C. Speidel)도 찬성했다. 다만 연희전문의 성경과목을 담당한 북장로교 측의 로스코 코엔(Roscoe C. Coen)은 반대했다.⁵¹⁾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선교부가 교육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우려하면서 해외선교부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⁵²⁾ 그는 개신교계 학교가 폐쇄된다면 조선인들이 “물질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학교”에서 교육받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이 여러 개신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이화여전, YMCA 이사장 윤치호, 감리교 총리사 양주삼, 캐나다 장로회 소속 함흥 영생학교의 김관식, 경신학교의 에드윈 쿤스(Edwin Koons), 정신여학교의 마르고 루이스(Margo L. Lewis), 오금선, 애비슨, 호주장로교의 찰스 매클라렌(Charles I. McLaren), 영국 성공회, 제 7 안식교, 로마가톨릭 등이 취하는 입장과 같다고 주장했다.⁵³⁾ 그러므로 신사참배에 반대하

50) 베커는 연희전문에서 물리학 및 수학을 가르쳤고 해방 후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일했다. 그의 딸 Evelyn Becker McCune(1907-현재)는 맥쿤 선교사의 아들인 George M. McCune(1908-1948)과 결혼했다.

51) 앞의 “Underwood to McAfee,” 1936년 2월 5일, p. 5.

52) 언더우드의 해외선교부를 통한 항의는 평양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부분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대해서는 안중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15-151쪽 참조.

53) 위의 “Underwood to McAfee,” pp. 5-6. 호주 장로교의 매클라렌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가 잘못 파악한 듯하다. 매클라렌의 입장은 정병준, 『호주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사상과 한국선교 1889-19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307-310. 그러나 호주장로교 내에 초기에 입장정리에 혼선이 있었던

는 선교사들이 북장로교 내에서는 다수이지만 전체 선교부에서는 “소수파”라고 보았다.⁵⁴⁾ 이는 사실로 해외선교부가 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전달했던 것이다.

대체로 언더우드의 지적대로 기호지역의 교육관련 선교사들과 한국인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북 지역의 교육관련 선교사들 중에도 선교부의 교육사업 철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사들이 있었다. 감리교는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는 통첩을 받고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했다.⁵⁵⁾

한편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철수가능성을 전해들은 삼송학교의 교직원과 동문회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당국이 송실전문학교 졸업생들은 졸업 후 정부기관에서 일하지 못할 것을 암시한 데 있었다.⁵⁶⁾ 1936년 2월 18일 송실전문 교수회는 세 가지 원칙을 학교경영자 측에 요구했다. 첫째, 교수회는 송실전문학교와 운명을 같이 할 것, 둘째, 학교를 영구히 존속시킬 것, 셋째, 경영자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영권을 조선인 측에 넘길 것 등이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송실전문학교 학생들이 대강당에 모여 학교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송실학교 교원과 학생들도 유사한 결의를 채택했다.⁵⁷⁾

선교사들과 한국인 개신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송실재단 이사회는 1936년 2월 26일에 각 학교의 교장 후임자를 선정할 것을 학무국에 보고한 후 동년 3월 4일에 송실전문학교 교장에 엘리 모우리(Eli M. Mowry, 牟義理; 1880-1970), 부교장에 농과과장인 이훈구를 임명했고 다음날 송실중학교 명예교장에 모우리, 교장에 정두현 교수를 임명했다.⁵⁸⁾ 송의여학교도 3월 12일에 교장 사무취급자로 김승섭을 선임했다.⁵⁹⁾

해외선교부는 미국에서 직접 조선에 사람을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판단하고 필리핀 주재 북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로저스(James B. Rodgers)와 중국 산둥[山東] 주재 선교사 폴 애보트(Paul R. Abbott)를 조사위원단(commission)으로 임명, 1936년 중순 급히 조선에 파견했다. 이들은 먼저 일본에 들러 일본 거주 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들은 대체로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를 애국행위로 설명한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은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를 방문해서 당국의 신도 비종교론 입장을 청취했다. 이들은 평양을 방문한 후 서울에서 개최된 북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6월 25일-7월 2일)에 참여했다.⁶⁰⁾

것은 확실하다. 같은 책, 310-312쪽.

54) 위의 “Underwood to McAfee,” p. 6.

55) 「신사문제에 대한 통첩」, 『감리회보』1936년 4월 10일,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I, 1884-1992』(kmc, 1994), 642에서 재인용. 감리교 교단차원의 대응은 같은 책, 641-645쪽 참조.

56) 2월 14-15일 송실재단 설립자 모팻은 평남 학무국장에게 신입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낼 것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하면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Langdon to Grew, 1936년 2월 28일 (395.1163/28), pp. 1-2, 『신사참배자료 I』, pp. 161-162.

57) 「崇專, 崇中經營을 朝鮮人에게 讓渡要求」, 『기독신보』1936년 2월 26일 자.

58) 『송실대학교 100년사 1: 평양송실 편』, 494쪽; 『동아일보』1936년 3월 7일 자.

59) 『송의 100년사』211쪽; 『기독신보』1936년 2월 26일 자.

60) 이들은 1936년 8월에 “Report of the Board's Commission to Chosen Regarding the Shrine Question” (이하 *First Commission Report*)라는 보고서를 해외선교부에 제출했다. 『신사참배자료 II』, pp. 141-148.

두 명의 위원단은 총독부와 접촉하면서 총독부 관료들이 군부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외사과와 학무국은 다소 유화적이지만 경찰과 군부는 강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⁶¹⁾ 군부의 압력으로 인해 총독부 정책 상 조선 내 모든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강요는 확고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들은 조선 내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기본적인 입장에 동조했다. 이들은 당국의 간섭으로 소수의 조선인 지도자들 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조선인 지도자들이 “학교보다는 교회를 선택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아울러 조선인들이 선교사계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⁶²⁾ 당시 위원단이 참여한 선교부 연례회의가 개최되기 전 실행위원회는 신사참배 문제는 토론할 수 없다는 경무국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았고 결국 서명했다. 단 이 문제를 사적으로 토론해도 좋다는 구두 확약을 받았다.⁶³⁾

선교부 연례회의는 1936년 7월 1일,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철수’를 결정한 후 그 결정을 해외선교부에 보냈다. 교육철수 안의 내용은 우선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선교부가 총독부 측과 “긴밀히 협조할 것”과 실행위원회에 교육철수의 “모든 시간과 방법”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실행위원회의 전권을 전제로 (1) 실행위원회와 각 선교지부가 협의할 것, (2) 실행위원회가 선교부에 그 결정을 보고하되, 각 선교지부가 반대의견을 15일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 안이 그대로 확정되며, 만약 선교지부에서 반대가 있다면 연례회의 또는 실행위원회의 판단 하에 임시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투표로 결정할 것, (3) 해외선교부에 보고해야 할 내용은 선교부 지침서(Manual)에 따를 것 등이 골자였다.⁶⁴⁾ 이 결의안은 69대 16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맞서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선교부 내 “자유주의적 소수파”는 각 선교지부의 교육위원회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주자는 안건을 냈지만 이는 68대 19로 부결되었다.⁶⁵⁾ 소수파들은 교육기관의 “설립목적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철수를 받아들여 중등학교에만 국한하고자 했다. 만약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가 불가하다면 학교의 설립목적은 “가장 유사하게(most nearly) 유지할 수 있는 단체”에 학교를 넘기자고 주장했다.⁶⁶⁾ 소수파의 의도는 각 선교지부가 교육기관의 경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적어도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철수는 막아보려는 것이었다.

조선선교부가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던 것은 교육철수 안을 실행하는데 장애가 된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철수가 결정된 학교에서 재학생들이 졸업 전, 당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소수파는 당연히 참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장로교 측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실행위원회는 철수기간에 신사참배를 해야한다면 교육철수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⁶⁷⁾ 둘

61) *First Commission Report*, p. 4.

62) *Ibid.*, pp. 5-6.

63) *Ibid.*, pp. 2-3. 미국 영사는 당국이 일본 극우파들의 압력 하에 있다고 보았다.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16일 (395.1163/39), p. 5, 『신사참배자료 I』, p. 258.

64) Edson to Grew, "Presbyterian Mission's Educational Policy," 1936년 7월 6일 (395.1163/38)의 첨부물 "Education Policy," 『신사참배자료 I』, pp. 242-243.

65) *First Commission Report*, p. 6, 『신사참배자료 II』, p. 146. 위의 Edson to Grew, p. 7.

66) 소수파들이 제안한 정책전문은 앞의 Edson to Grew, 1936년 7월 16일의 첨부물 "Education Policy," 『신사참배자료 I』, p. 260.

67) 앞의 Edson to Grew, 1936년 7월 6일, p. 5.

째, 신입생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재학생의 졸업을 위해 교사진을 그대로 둘 때 생기는 재정부족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만약 폐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국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미국의 재정지원자들이 지원을 철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였다.⁶⁸⁾ 이는 학교철수 결정 이후 철수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 빚어질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해외선교부 위원단은 교육선교사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선교부의 교육철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지만⁶⁹⁾ 조선선교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⁷⁰⁾

흥미롭게도 북장로교 해외선교부는 1936년 9월 21일 자로 미국 남장로교 및 남북 감리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단서 하에, 조선선교부와 위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⁷¹⁾ 특히 해외선교부는 위원단의 보고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북장로교의 자산이 자의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선교부에 지시했다. 즉 조선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외선교부의 자산에 “담보권(lien)을 설정”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자산을 “대여(loan), 임대(lease), 증여(grant)”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⁷²⁾ 해외선교부는 “가치 있는 기독교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면 선교부가 할 것이지만 만약 선교부가 할 수 없다면 다른 누가 할 수 있나” 고 반문할 정도로 이 시점에서 조선 선교부의 입장을 존중했다.⁷³⁾

IV. 학교 폐쇄와 조선인들 내의 분열

평양 선교지부와 평양노회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조선인들은 평양의 유서 깊은 학교들의 폐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각도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1936년 12월 10일부터 해를 넘겨가면서 조선인 이사들은 학교 인수자 설정 문제를 두고 선교사들과 논의를 지속했다. 조선인 이사들은 학교를 폐교하지 말도록 선교사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모우리(Eli M. Mowry)와 같은 교육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⁷⁴⁾

평양의 유지들은 “숭전·숭중·숭의 3교 후계촉진회”를 결성, 학교운영진과 협의한 후, 학

68) Ibid. 이미 맥클은 미국에서 일본의 정책에 반대해서 재정지원자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지원을 철회시키고 있었다.

69) *First Commission Report*, p. 6.

70) Ibid., pp. 7-8.

71) 해외선교부의 반응은 "Board Action of September 21, 1936,"("이하 Board Action I"), 『신사참배자료 II』, pp. 149-151.

72) "Board Action I," p. 2.

73) Ibid., pp. 2-3. 이 결정문에서, 가을에 스티븐슨 목사(Rev. J. Ross Stevenson)가 조선을 방문할 것이므로 그가 선교사, 한국지도자들과 협의 후 해외선교부에 조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스티븐슨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고 메이첸과 신학 논쟁 후에도 프린스턴에 남았다. Bradley J. Longfield, *The Presbyterian Controversy: Fundamentalists, Modernists, and Moderates* (New York etc: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166-170.

74) 『매일신보』 1936년 12월 12일, 『숭실대학교 100년사』, 498쪽에서 재인용. 「崇專,崇中,崇義校の廢校に猛烈反對」, 『朝鮮新聞』 1936년 12월 12일 자.
(<http://www.history.go.kr/> url.jsp?ID=NIKH,DB=np_sc_1936_12_12_0220).

교의 이사진 중 고한규, 정두현, 김동원을 “인계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임명하고 사무를 일임했다.⁷⁵⁾ 평양의 유지인 조만식, 오운선 등도 인계위원들과 함께 전국의 재력가들과 접촉했다. 그 결과 송의여학교 측은 20만 여원의 자산을 소유한 재단법인 백선행기념관에 경영을 의뢰토록 했고 송실전문학교와 송실학교는 다른 재단을 물색하기로 했다.⁷⁶⁾ 선교부 실행위원회도 조선인들의 요구에 따라 1937년 1월 초, 해외선교부에 몇 개의 제안을 보냈다. 그것은 조선인들에게 인계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세 가지 안이었는데 첫째, 모든 시설을 인계, 둘째, 송실전문학교의 본관, 과학관, 운동장 등(1,500평)을 제외하고 인계, 셋째는 평안남도 대동군소재의 농장(33만평)을 제외한 모든 학교들을 인계하는 안이었다.⁷⁷⁾

인계위원회 김동원의 노력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던 서북인 방응모가 합동경영을 전제로 하는 인수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송실전문학교 측은 큰 기대를 걸었다.⁷⁸⁾ 그러나 처음부터 송실학교가 분리경영을 주장해서 초기의 인수안은 암초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송실전문학교 학생들은 1937년 2월 2일, 대강당에서 학생대회를 개최하고 송실의 합동경영안을 강력히 제기했다.⁷⁹⁾ 송실학교 교직원들은 이에 반해 1937년 2월 5일 “학교 내용의 충실과 자유로운 향상발전”을 위하여 송실전문과 분리, 단독경영을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선장로회 총회장 이승길을 중심으로 한 현직목사들과 송실학교 교장 정두현 등은 단독경영을 지지했다. 이에 김동원은 삼교 합동경영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분리와 합동경영의 주장은 송실전문학교 혹은 송실학교의 존속여부와 관계되어 있었다. 분리경영을 주장하는 측은 독지가가 나타날 지를 우려하면서 단독경영이 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보았다.⁸⁰⁾

내분으로 말미암아 삼송학교 인계운동은 복잡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행위원회 측은 솔타우는 평양지역 선교지부회의를 긴급히 개최, 1936년 7월 1일에 결정했던 대로 삼교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않기로 확인했다. 실행위원회는 학교의 분리경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므로 평안남도 당국에 조속히 폐교수속을 단행하기로 했다.⁸¹⁾ 이 소식은 학생, 학부모, 일반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어서 당시 학교가 곧 폐교될 것이라

75) 「崇實後繼促進會解體 報告書發表」, 『기독신보』1937년 2월 24일 자.

76) 「四十年歷史를 갖인 崇專, 崇中, 崇義의 通悲한 最後」, 『기독신보』1937년 2월 10일 자.

77) 「崇專, 崇中, 崇義 三校 引繼具體案을 宣敎部에 請訓」, 『기독신보』1937년 1월 13일 자.

78) ‘인계위원회’와 방응모의 관계는 Hoon K. Lee (이훈구)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신사참배자료 II』, p. 173.

79) 송전 측의 입장은 『매일신보』1937년 2월 4일자 기사, 『송실대학교 100년사』, 498쪽에서 재인용.

80) 송실중학 측의 입장은 「崇中職員團 聲明書發表」, 『기독신보』1937년 2월 17일 참조. 분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실대학교 100년사』, 499-501쪽 참조. 송실전문학교는 맥쿤 교장시절 미국인 독지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며 급성장했다. 맥쿤의 사임으로 독지가 2명의 재정기부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송실중학 측은 통합운영이 불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앞의 『기독신보』1937년 2월 24일 자 기사.

81) 앞의 『기독신보』1937년 2월 10일자 같은 기사. 선교사들은 송실학교의 분리문제가 교육철수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솔타우를 중심으로 하는 실행위원회 측은 애초부터 학교폐쇄, 철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조선인들의 강력한 압력으로 해외선교부에 최종 결정을 미루었을 뿐이다. 앞의 『기독신보』1937년 2월 24일 자 기사는 실행위원회 측이 합동경영 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일신보』1937년 2월 13일 자 기사는 선교사 측이 합동이나 분리를 상관치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기독신보』측의 기사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는 소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이에 송실전문학교 교장 모우리는 학교폐교설은 낭설이라고 일축하면서 신입생 모집이 늦어지더라도 학생모집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⁸²⁾ 모우리는 신사참배 반대파들인 평양 선교지부 다수파 선교사들을 “과도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렀다. 송의여학교 교장 올리벳 스왈렌(Olivette R. Swallen, 蘇安燁)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경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⁸³⁾

이후 평양 유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인보(韓仁輔)가 70만원을 투자하여 송실전문과 송의여학교를 경영하고, 이춘섭(李春燮)이 30만원을 투자해서 송실중학을 경영하기로 했다.⁸⁴⁾ 관련학교 측과 후계촉진회의 80여 명의 평양유지들은 이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리하여 1937년 3월 3일 밤 선교사 랄프 라이너(Ralph O. Reiner, 羅道來)의 집에서 후계경영 청원안이 조인되었다. 청원서는 송실학교의 분리 경영, “인계 후의 학교 경영은 종교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와 동일히 한다”는 것과 소속 학교들의 자세한 재산목록을 담고 있었다. 이 청원서는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선교부에 보내졌다.⁸⁵⁾

실행위원회와 선교부 강경파들은 평양지역 유지들과 학교관계자들의 학교인수에 대한 열망에 그다지 동정적이었던 것 같지 않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한인보의 도덕성(축첩과 카톨릭 신자)을 의심했다.⁸⁶⁾ 김동원, 조만식, 오윤선 등 평양지역의 유지들도 한인보의 도덕성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대세를 따라 그의 인수를 지지했다. 라이너는 후일 자신은 조선인들의 학교유지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⁸⁷⁾ 1937년 2월 24일에 호남지역 남장로교 선교부의 학교철수안인 ‘폴턴 성명서’가 발표되자 실행위원회 측은 해외선교부 측이 동일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랐다.⁸⁸⁾ 그러나 선교사들은 평양과 서울 등지의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82) 「崇專校長 悲壯한 訓話－廢校說을 絶對否認」, 『기독신보』1937년 2월 17일 자.

83) Marsh to the Secretary of State, "The Mission School-Shrine Problem in Chosen," 1937년 5월 7일 (395.1163/52), 첨부된 Memorandum by Vice Consul Ralph Cory, (1937년 5월 6일), 『신사참배자료 I』, pp. 329-331.

84) 「北長老派宣教會 經營各學校問題」, 『기독신보』1937년 3월 10일. 이훈구는 송실전문학교의 양주동이 주동이 되어 한인보를 끌어들이고 모우리가 이를 강력히 지원했다고 했다. 앞의 Hoon K. Lee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pp. 1-2.

85) 청원서 전문은 『송실대학교 100년사』, 501-505쪽과 「崇專, 崇中, 崇義三校 後繼請訓調印完了」, 『기독신보』 1937년 3월 17일 자. 해외선교부에 대한 학교운영진의 간청서는 "Petition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Korea Mission and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 S. A." 1937년 3월 5일(송실전문학교 교직원 일동), 3월 9일(송의여학교 교직원 일종), 『신사참배자료 II』, pp. 168-172. 후계청원서가 조인 후인 3월 6일에 학교 측은 한인보, 이춘섭을 위해 찬하회(讚賀會)를 개최했다.

86) 이훈구는 양주동이 평남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이너와 교섭할 때도 일제 측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의심했다. 이훈구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일제 당국이 이 문제에 모종의 개입을 하고 있음과 ‘인계위원회’ 측 인사들 내에서도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인보의 재산액은 맥쿤과 이훈구의 지인인 변호사 노진설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앞의 Hoon K. Lee to McCune, 1937년 3월 20일, pp. 1-3.

87) 라이너는 해외선교부가 평양유지들의 인수안을 수정한 후 그것을 받아들여줄 것을 바랐다. 그는 송실 학교 이외에는 송실전문학교와 송의여학교는 고등교육의 비효율성과 한인보의 도덕성을 각각 들어 학교 폐쇄를 희망했다. "Letter dated August 1, 1937 from Ralph O. Reiner," 김홍수 역음, 『WCC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자료집-105인 사건, 3·1운동, 신사참배 문제 편』 (이하 『WCC 신사참배자료』), pp. 395-398.

88) Holdcroft to Scott, 1937년 3월 25일(RG 140-12-21, PCUSA), 『신사참배자료 II』, pp. 176-177.

해외선교부는 이 문제를 더 조사하기 위해 1937년 3월, 두 명의 위원, 찰스 레버(Charles T. Leber)와 르로이 도즈(J. LeRoy. Dodds)를 2차 위원단으로 조선에 파견했다. 이들은 3월 9일에서 22일까지 머물며 강계를 제외한 모든 선교지부를 방문하면서 교육철수 문제를 조사했다.⁸⁹⁾ 이들이 3월 13일 평양을 방문해서 솔타우의 안내로 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승전의 모우리, 박치우, 승중의 정두현, 송기업, 승의의 오문화, 한인보 측 대표 양주동, 그리고 각 학교의 교수회, 교직원, 교우회 등이 2차 위원단에게 세 학교의 인계청원안을 속히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⁹⁰⁾ 두 위원은 황해도 재령에서 1937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참석해서 학교인계안을 토론했다.⁹¹⁾ 실행위원회는 동년 3월 3일에 서명된 청원서를 해외선교부에 보내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조선 언론은 실행위원회의 결정이 뉴욕에 도착한다면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최후결정”으로 보도되었다. 관련 학교 측은 이에 환호작약했다.⁹²⁾

조선사회 내의 긍정적 반응과는 달리 2차 위원단은 선교부 내와 한국인들 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총독부의 태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했다.⁹³⁾ 이들은 조선인들의 인계안과 다른 입장을 해외선교부에 개진했다. 두 위원도 신사의식에는 “종교의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일본 당국은 조선인들이 “반일활동과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사참배를 이용해서 “제국정신(empire spirit)”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두 위원은 대부분의 조선 개신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지만 학교폐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⁹⁴⁾ 이들은 당시 기독교계의 딜레마를 정확히 짚었다.

두 위원의 기록은 자신들이 참석한 실행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준다. 실행위원회는 주로 신사 및 교육관련 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에서 평양의 학교철수와 관련해서 네 가지의 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고 부동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안(선교부의 초기입장).
2. 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완전 철수 후 조선인들에게 학교와 부지를 넘기는 안(한국인들의 인계요구안).
3. 선교부가 교육사업으로부터 철수한 후,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를 위해 보유하되, 정부가 허락하는 조선인들에게 학교 교직원(선교사는 제외)과 학생들은 인계하는 안.
4. 3안과 대체로 같지만 선교부가 보유한 부동산 중 조선인들이 기부한 두 곳과 일본당국이 기부한 한 곳의 토지를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안.⁹⁵⁾

89) *Second Commission Report*, p. 1-2. 이들은 총독부 학무국 사무관 타카오 진조오(高尾甚造)를 두 차례 방문해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당국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다.

90) 「米國北長老派宣教師總務 다드, 레버 兩氏來訪」과 「米國北長老派總務에게 崇實三校引繼 早速實現을 要望」, 『기독신보』 1937년 3월 24일 자.

91) 「載寧서 레버, 다드 兩氏와 같이 宣教師實行委員會開催」, 『기독신보』 1937년 3월 24일 자.

92) 「崇實三校後繼問題를 宣教師會實行委員會에서 正式通過」와 「崇實三校後繼問題 不遠間最終的 落着」, 『기독신보』 1937년 3월 31일 자.

93) *Second Commission Report*, p. 4.

94) 개신교계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는 Ibid., pp. 4-8.

95) 이상의 네 가지 안은 Ibid., pp. 8-9.

평양 선교지부 인사들은 대부분 1안에 동의했지만 이내 2, 3, 4안으로 의견이 나누어졌다. 2안은 평양지역의 일부 선교사들과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열렬한 희망사항이었고 일본 당국의 지지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들의 한인보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매우 열정적인 한국인들의 위협” 등으로 보건대 이는 바람직한 안이 아니라고 두 위원은 판단했다. 3, 4안은 상당수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지지하는 안이지만 2안에 묻혀서 실제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⁹⁶⁾ 위원단의 보고서 결론은 조선 선교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외선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를 취하되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1937년 6월 24일부터 열리는 조선선교부 회의가 개최된 후 선교부 회원 중 일부가 미국에 건너가서 해외선교부 인사들과 토론을 거친 후 해외선교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⁹⁷⁾

해외선교부가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두 번째의 학교인계 안을 부결시킬 의도에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인계자의 도덕성은 학교의 개신교적 특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위원단의 대안은 제 4안으로, 조선인과 일본 당국에 그들의 원래 소유지를 돌려주고 교사와 학생들만 인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⁹⁸⁾ 인계안의 핵심이 학교명과 건물임을 생각할 때 이는 한국인들의 인계 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행위원회 측과 2차 위원단의 학교인계 안 찬성 안은 조선인들과 총독부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행위원회와 2차 위원단의 실제 입장을 모르고 있었던 평양지역의 유지들과 학교관계자들은 해외선교부의 답변이 늦어지자 해외선교부에 거듭 확답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⁹⁹⁾ 이 문제는 1937년 4월 1일자에 시작된 새 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도 시급한 문제였다. 일제 당국과 조선인들은 교육인계가 확실시됨으로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¹⁰⁰⁾ 이에 실행위원회 측은 해외선교부의 결정이 있기 전에 신

96) *Second Commission Report*, pp. 9–10.

97) *Ibid.*, pp. 10–11. 해외선교부 파견 위원단의 입장은 성명서로 채택되어서 총독부 학무국, 평남 도지사, 평양의 인계후원회, 평양선교지부에 돌려졌다.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고 다만 해외선교부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취지였다. 같은 문서, pp. 12–13. 실행위원회 측은 당연히 철저한 학교폐쇄 쪽을 선호했다. Holdcroft to Scott, 1937년 3월 25일(RG 140–12–21, PCUSA), 『신사참배자료 II』, pp. 176–177.

98) 이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해외선교부가 자신들의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일본이나 조선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다. 자신들의 보고서도 중국 상하이에서 1937년 4월 12일에 작성되었다. *Second Commission Report*, pp. 14–15.

99) ‘3교수계후원회 실행위원회’ 측은 자신들의 후계청원서에 해외선교부가 4월 20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기한이 지나자 신입생 모집과 후계청원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평남 도당국과 해외선교부에 5월 초에 다시 발송했다. 이 후원회는 평양주민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실행위원회 측과 신입생모집을 위해 교섭했다. 「新入生問題로 受繼後援會 活動」, 『기독신보』1937년 5월 5일자; 「米國宣敎本部和 宣敎師側에 陳情과 懇願書發送」, 동 신문, 1937년 5월 19일 자. 이에 실행위원회의 솔타우는 6월 20일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後繼問題를 六月 二十日까지 解決」, 동 신문, 1937년 5월 26일 자. 그러나 이는 조선인들의 ‘위협’을 해소하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外地傳道部委員會 十日頃에 重大會合」, 동 신문, 1937년 6월 9일 자.

100) 사설「북장노회 선교회에 一언을 드리노라」, 『기독신보』1937년 6월 30일 자는 선교사들이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었으면서도 때로는 찬성, 때로는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선교부의 애매한 태도를 비난했다.

입생 모집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¹⁰¹⁾

조선인들의 거듭된 입장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부 측은 교육철수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결국 1937년 중순까지 하지 못했다.¹⁰²⁾ 해외선교부는 1937년 6월 말, 실행위원회에 보낸 답신에서, 외사분과위원회(Foreign Department Committee)에서 다시 심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동년 9월 경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¹⁰³⁾ 해외선교부의 답신에 조선인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다.

해외선교부의 답신이 온 직후인 1937년 6월 24일부터 1주일 간 선교부 연례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조선인들은 학교인수안이 통과되도록 다시 선교부에 압력을 넣었다. 실행위원장 솔타우는, 평양지역 세 학교의 교육인계문제는 해외선교부의 소관이므로 선교부 연례회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¹⁰⁴⁾ 그런데 이 회의에서 대구와 서울의 학교들에 대한 폐교가 결정됨으로 조선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6월 29일의 회의는 1939년부터 대구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에서 철수, 30일 회의는 1939년부터 서울의 경신학교에서 철수가 결정되었다. 서울의 정신여학교와 선천의 신성학교, 보성여학교의 문제는 일단 보류되었다.¹⁰⁵⁾ 한편 1937년 9월 말, 해외선교부는 조선선교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평양 학교들에 대한 인수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선교부는 11월 1일자로 당국에 학교 폐교원을 제출했다.¹⁰⁶⁾

조선총독부는 평양지역 학교들에 대한 조선선교부의 교육철수 안을 허가했다. 다만 총독부는 평양 선교지부가 2년 동안 두 개의 건물 중 한 개 반을 대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폐쇄에 동의했다. 이는 평안남도 당국이 전문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거나 인가한다면 새로운 교사(校舍)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외선교부는 실행위원회에 이 문제를 일임했으므로 실행위원회는 당시 평양지역의 조선인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평남 당국의 안을 수용했다.¹⁰⁷⁾

결국 승실관련 학교들은 폐교하게 되었다. 그러자 광산가 이종만이 폐교 위기에 몰린 승실전문학교를 인수할 것을 총독부 학무국에 요청했다. 이종만은 1938년 6월 1일 당국의 승

101) 선교사들은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거부했다. 「平南當局에서 新入生募集을 懲通」, 『기독신보』1937년 4월 7일 자. 실행위원회 측이 처음부터 학교인계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02) McAfee to George T. Scott, 1937년 4월 12일, 『신사참배자료 II』, pp. 164-165.

103) 「崇專, 崇實, 崇義三校後繼問題의 米國宣教會本部回答到着」, 『기독신보』1937년 7월 7일 자. 해외선교부 결정문은 "Board Action June 14, 1937: Chosen School situation," 『WCC 신사참배자료』, p. 358.

104) 「平壤三校後繼請願問題로 蘇悅道 宣教師重大聲明」, 『기독신보』1937년 6월 30일 자.

105) 「敝新, 信聖도 經營引退를 決議」, 『기독신보』1937년 6월 30일 자. 신성학교에는 1937년 가을부터 신사참배가 강요되었기에 실행위원회 측은 즉시로 학교폐쇄를 결정했다. Holdcroft & Soltau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1938년 3월 28일(RG 140-12-26), p. 2, 『신사참배자료 II』, p. 292.

106) 선교부는 9월 말에 해외선교부에서 통보를 받고 평안남도 도지사에게 소식을 전달했다. 「決定된 米 順學校의 運命」(1937년 10월 1일), 「崇實專門의 廢校願, 遂 昨日 府 提出」(동년 11월 2일), 『동아일보』

107) 해외선교부는 건물대여 조건의 폐쇄 안에 대해서 실행위원회로부터 1938년 2월 1일자로 전보를 받았고 2월 21일에서야 결정을 내렸다. 위의 "Board Actions Regarding Withdrawal from General Education in Chosen," pp. 7-8; 「平壤崇專의 校舍 大同工專에 貸與」 『동아일보』1938년 2월 24일 자. 학교부지 대여문제로 선교부와 총독부, 도당국과의 협의와 타협에 대해서는 『승실대학교 100년사』, 517-520쪽 참조.

인을 받게 되어서 7월 1일자로 대동공업전문학교로 개교했다.¹⁰⁸⁾ 숭실학교는 평양 제3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숭의여학교는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의 일부 흡수됨으로 총독부의 교육체계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평양의 유서 깊은 삼숭(三崇)학교는 1938년 3월에 개신교계 학교로서의 역사를 매듭지었다.¹⁰⁹⁾

결국 1937년 7월부터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감행한 일본으로서는 후방인 서북지역의 조선인들을 포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당국의 통제권 내로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수용했던 것이다. 1938년 2월 총독부는 「육군특별지원법령」(칙령 제 95호)을 반포해서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입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제 3차 교육령(동년 3월)을 발표해서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학교의 명칭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하면서 기존의 일본인과 조선인들에 대한 이원적인 교육을 통합했다.¹¹⁰⁾ 두 가지의 정책은 사실상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1938년 총독부의 핵심적인 정책이었다.¹¹¹⁾ 일본은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인들의 교육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평양에서의 조선인들과 선교사들 간의 일제의 분리전략은 성공했다.¹¹²⁾

V. 맺음말－해방 후의 유산의 문제

해방 후 평양을 포함한 38선 이북은 소련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숭실학교 등 개신교계 학교와 선교사 타운은 대체로 소련군과 조선노동당의 숙소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이는 태평양전쟁기 이 부지들이 적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소련 측에 일제의 적산으로 편입되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평양에 일진으로 들어갔던 제 5공군 소속의 하워드 모펏(Howard P. Moffett)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그는 선교부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데 이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의 최고사령부에 의해서 점령되고 사용되었기” 때

108) 「大同工業五月開校 今年鑛山科만 設置」, 「當分間 鑛山科만」, 『동아일보』1938년 6월 1일, 3일 자. 이훈구는 이종만과 접촉을 성사시켰다. Soltau to Leber, 1938년 1월 6일 (RG 140-12-27), 『신사참배자료 II』, pp. 280-281.

109) 숭실학교는 평양 제 3고등보통학교가 되었다가 1938년 제 3차 교육령 반포 후 학제 개편에 따라 평양 제 3중학교로 개명되었다. 「崇中後身 平壤第三中學 設立認可」, 『동아일보』1938년 4월 5일 자. 평남도의회에서 숭의여학교를 제 2 여자고보로 만드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崇義女學校를 第二女高普로 하라” 貧困兒童의 授業料 免除도 強調 平南道會 第五日」, 『동아일보』1938년 3월 18일; 『崇義100年史』, 225쪽.

110) 「육군특별지원법령」(칙령 제 95호)과 「제 3차 교육령」(3월)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스즈키 케이후(鈴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研究』(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9), 164-174 참고.

111) 미나미 지로 총독은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법령」이 공포된 날 도지사들에게 “이상의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의 중요시책을 달성하고 싶다. 그 하나는 조선인지원병제도의 실시이고 그 두 번째는 교학쇄신(刷新) 및 확충이다”라고 연설했다. 조선총독부, 『施政三十年史』(朝鮮印刷株式會社, 1940), 803에서 재인용. 미야다 세츠코는 ‘지원병제도’, 제 3차 교육령, 창씨개명(1940년 2월)이 중일전쟁 개전 직전부터 거의 동시에 조선인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입안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야다 세츠코(宮田節子), 『朝鮮民衆과「皇民化」政策』(일조각, 1994), 103-124.

112) 해외선교부의 조치를 비난한 홀드크로프트는 결국 일본의 썬기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았다. Holdcroft to Hooper, 1939년 10월 13일, 『신사참배자료 II』, pp. 410-413.

문이라고 지적했다.¹¹³⁾ 모펏은 식민지 시기의 선교가 이제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현지 지도자들의 부족 때문에 외국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¹⁴⁾ 그러나 전황이 불리해지자 북한에서의 선교활동은 다시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장로교에게는 해방 이후 남한에서의 선교가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 시기 서북지역 인사들이 대거 남하했다. 이들은 주로 한경직, 윤하영 등 서북지역 목사들의 지도력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남한의 적산 일부가 이들에게 가게 되었다. 미군정은 신사의 한 종파인 천리교 부지를 피난민이 주축이 된 영락교회에 양도했다.¹¹⁵⁾ 개신교계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붕괴된 평남지역 보다는 평북지역의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꾸려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이면에는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있었다. 미 북장로교 조선선교부는 해방 후 북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 중 상당분량을 영락교회 등 월남교회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¹¹⁶⁾ 아마도 개신교인들은 이를 당연한 보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울러 송실학교 인사들의 소련 치하의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하 등은 이들을 해방 후 굳건한 ‘친미세력’으로 주조했던 것이다.¹¹⁷⁾ 그러므로 식민지 말과 소련점령기 북한에서의 이들의 경험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이 될 수 있다.

113) Howard P. Moffett to John C. Smith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1950년 10월 25일 자. 이는 김홍수, 『WCC 도서관 소장 한국교회사 자료집-한국전쟁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139-140에 실려 있다. 모펏은 평양지부를 개척한 사무엘 모펏의 아들로 전쟁 후 대구 동산병원 원장을 역임했다.

114) Ibid., p. 140.

115) 『영락교회 35년사』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1983), 46-47, 100쪽.

116) 북장로교의 새로운 자금투자와 한국개신교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안종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247-251쪽.

117) 베트남전 직후 1970년대 중후반 주한미군 철수반대운동에 영락교회가 앞장 서 있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영락교회 35년사』, 312-314쪽.

【Abstract】

Shinto Shrine Issue and Mission Schools in Pyeongyang around the Second Sino-Japanese War

AN Jongchol

As George Fulton, an American Missionary in Japan, said after his visit to Pyeongyang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Pyeongyang missionary compound was “Empire in Empire.” This expression aptly represents the Japanese colonial rule. Since several hundred American missionaries worked in the colonial Chosun, Japanese colonialists always had to consider another imperial power, the US. In Pyeongyang, the missionari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CUSA) ran the biggest mission station focusing in evangelism, hospital and schools. Due to colonial indifference to Korean education, missionary education was critical not only to Christians but to general Koreans.

Since Japanese invaded Manchuria in 1931, western society became a stumbling block to Japanese ambition. Domestically, Japan tried to mobilize war efforts through the Shinto Shrine worship, the unique organization that contained State and Sect Shinto. The government argued that the State Shinto is not religious, but patriotic one. Since missionaries and conservative Korean Christians did not accept this definition, the previous scholarship focused on mainly religious points. Also, Korean scholars considered Korean Christian’s resistance to Shinto worship to be the evidence of the Korean nationalistic movement. In this paper, I wanted to show that Shinto shrine issue should be studied not only from the religious and national dimensions but from educat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It is well known that Japan withdrew from the League of Nations in 1933 after Manchu invasion, Japanese militarist stressed upon the Japanese emperor system. Emperor system contains a unique worship ceremony dedicated to emperor’s ancestors. Usually, State Shinto enshrined Amaterasu Ōkami and Meiji Emperor, the fact that conservative Christians were reminded of ancestor worship. It was foreseeable to collide between half million Korean Christians and the colonial government. Especially after “Emperor Organ” debate was going on in 1935, Japan quickly plunged into militarism with compulsory Shinto worship.

The first case happened in Taiwan. During 1933~1935, Anglo Presbyterian and Canadian mission schools succumbed to Shinto worship. At this movement, Japanese Veteran’s Associ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to coerce worship upon mission schools. Pyeongyang was the first target in colonial Korea. Until mid-1930s, PCUSA ran the 8 middle schools in four mission stations, Syenchun, Pyeongyang, Seoul, Taegu. All the schools except one, got “government recognition,” which made possible to send their graduates to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eptember 22, 1935, colonial government ordered all the Provinces to enforce Shinto worship upon all the students. Just before this order came out, annual meeting of the Chosun Mission predicted the strict government policy and designated influential missionaries to consult Japanese authorities. At

that time Mission Board in New York did not take any steps. When the authorities of the Southern Pyongan Province demanded all the school principals to go to newly built Pyeongyang Shinto shrine on November 14, 1935, the two principals, George S. McCune and Velma L. Snook, declined this order. Pyeongyang case became exemplary one in the whole mission schools. After several talks were held between Chosun Mission including Pyeongyang station and the colonial government, at last two missionaries were de facto forced to leave Korea. This sent clear warning signals to American missionaries working in Korea.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Chosun Mission, However, led very hawkish steps like closing mission schools and withdrawing themselves from educational works in Korea. Some minorities in PCUSA and other denomination missionaries put that the Shinto worship is one thing and education work is another. Horace H. Underwood was the leading figure in this opinion. He tried to block the majority's drastic policy and to preserve mission schools anyhow. He knew very well the Korean passions for education, especially in big cities. Corresponding to Horace's idea, many Koreans including school-related persons, established the "Committee for Inheriting Schools from Missionaries" in Pyeongyang and directly sent petitions to the Mission Board. To the "Committee," not only minority missionaries and school managers, but many Korean local elites such as Cho Man-sik, Kim Tong-won, O Yoonsun added their support.

Amid-turmoil, the Mission Board dispatched Investigative Commissions to Korea two times. When the first Commission was dispatched in early 1936, the Board accepted the majority's opinions that the schools should be closed. Also, it decided that the schools should not be loaned, leased, granted to other organizations. But the Mission Board got the Korean Committee's letters since mid-1936. In early 1937, the Board sent another Commission but still could not decide this issue. While Board oscillated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the Chosun Mission decided to close the mission schools in Pyeongyang. This decision made Korean people in Pyeongyang despondent and angry.

But the colonial government shrewdly tried to appeal to Koreans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students enrolled in the mission schools. The male middle school became the third public middle school while the female one was absorbed into a female public school in Pyeongyang. Also, the science department of the Union Christian (Soong-sil) College became the Mining College owned by Koreans while college of humanities became a part of Chosun Christian (Yonhi) College. The Japanese colonial policy dividing missionaries and Koreans became successful through the Shinto Shrine controversy.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grips, the USSR occupied North Korea, while the US installed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Presbyterian missionaries did not get access to the previous stations except only brief time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South they began to invest their money into the previous projects such as schools and hospitals and other new activities. Their influence became more indirect compared to the colonial ones. Through the Shinto worship issues, we can see the colonial rule and Korean desire for education better.

殖民地历史经验中的「个人记忆」 与「集体记忆」

— 战後台湾「历史记忆」的构成与演变 —

■ 李 承 機 (國立成功大學校) ■

殖民地历史经验中的「个人记忆」与「集体记忆」

— 战後台湾「历史记忆」的构成与演变 —

李 承 機 (國立成功大學校)

—〈目 次〉—

- I. 《海角七號》所喚起的「記憶」
- II. 從「被壓迫」的「集體記憶」到抗日的「歷史記憶」
- III. 從戰後成長的「集體記憶」到多元對立的「歷史記憶」
- IV. 結語—隱喻的殖民地「歷史記憶」

I. 《海角七號》所喚起的「記憶」

2008年8月底台灣電影市場上映了一部名為《海角七號》的國產電影片，其首輪上映票房截至10月底為止已超過台幣4億5千萬，不僅打破以往所有國片的票房紀錄，也超越絕大部分好萊塢電影在台灣的賣座成績，而成為自1990年代以降有電影票房紀錄以來第二賣座的電影片(第一名為1997年的《鐵達尼號》)。該片的劇情內容主要由兩組台日間的跨國愛情故事所交織構成，其一的發生背景為今日台灣，其二則以1945年間在台日本人受遣返回國之前後為背景。這兩組台日間的跨國戀情在電影敘事中的交錯，似乎成為該片意圖呈現兩個相異時代之間反差的手法，但由於牽涉到1945年前被稱為「日本時代」的台灣受日本殖民支配的歷史經驗(或稱具有歷史意味的「形象」)，加上票房大賣引起的觀影風潮，即引發了一連串的討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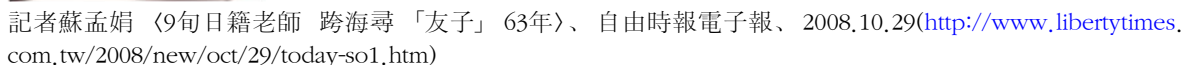
最具批判意味的討論，即直接將《海角七號》中所呈現的「日本」形象視為台灣無法割除日本影響的證據，甚至認為台灣戰後的文化發展至今仍然受制於日本。這種觀點基本上延續1945年以後的「殖民vs被殖民」觀點，並更進一步認為台灣的被殖民歷史中的「抗日」經驗應該不斷反覆被強化，簡言之具有殖民地在脫離殖民地支配後普遍擁有的「後殖民」思想。這種觀點並不奇特，但在許多討論及《海角七號》所引起的話題之中，與「後殖民」相較之下最特別的現象是，許多在殖民地時期所發生的台灣人與日本人的個人關係被提及，一些發生在台日之間的戀愛故事亦被書寫在網路之中，甚至做為報紙與電視的報導材料。其中最具代表性的，就是將被認為是個人實際經驗的愛情故事，與《海角七號》所虛構的愛情故事列表比較，並稱之為「海角七號真實人生版」的報導記事¹⁾。

該記事能夠登上全國性大報的版面，無非因為《海角七號》一片所引起的社會現象之中，包含了某些容易喚起個人對殖民地時期記憶的元素，並促使這些「個人記憶」和台灣社會的某些「集體記憶」產生連結，並開始投射到「歷史記憶」中而開始與殖民地時期台灣的歷史經驗產生互動。因此，本論文將試圖探索戰後台灣人「個人記憶」與戰後台灣社會的「集體記憶」，如何和1945年前的殖民地歷史經驗發生關係，並著眼於這層關係之中所產生的「歷史記憶」如何在戰後發生變化的過程，以說明「個人記憶」與「歷史記憶」之間所存在的既互補又相互挑戰的奇妙關係。

關於「個人記憶」和「集體記憶」之間的關係，本論文參照M. Halbwachs所做的社會心理學式討

雖然Halbwachs指出了「個人記憶」與「集體記憶」兩者間有其「外觀上的對立」而存在著「尖銳的對照」，也直接將兩者區分為「內部—外部」「個人的記憶—社會的記憶」或「自傳的記憶—歷史的記憶」，卻認為個別的個人同時參與了這兩種記憶。之所以如此採用二元對立式的引伸，並且直接將「集體記憶」等同於「社會的記憶」或「歷史記憶」，乃是因為「個人生活的歷史為一般歷史的一個部分」而使「過去以要約後的圖式般型態顯示」，以做為「個人記憶」的輔助⁴⁾。

至於論文的主要軸線，將沿著電影這種大眾媒介所形成的大眾文化的發展，把1950年代以降台灣所出現的大眾文化，視為戰後台灣社會中「個人記憶」與「集體記憶」相互交會的「通路」或「場所」，並嘗試說明這兩者和1945年前的殖民地經驗發生關係乃經過一連串政治與社會的過程。更進一



- 2) Maurice Halbwachs(著)、小関藤一郎(訳)《集合的記憶(La memoire collective)》、京都：行路社、1989年、7~16頁。
- 3) Maurice Halbwachs、前掲《集合的記憶》、37~42頁。
- 4) Maurice Halbwachs、前掲《集合的記憶》、45~48頁。
- 5) Jacques Le Goff(著)、立川孝一(訳)《歴史と記憶(Histoire et memoire)》、東京：法政大学出版局、1999年、2、93頁。

步，則著眼於「集體記憶」如何受到操作或如何在政治與社會意義之中成為「歷史記憶」。經由這些探討希望能夠說明，戰後台灣社會中所能觀察到的殖民地時期「歷史記憶」，從「被壓迫」的「集體記憶」到抗日的「歷史記憶」，以及從戰後成長的「集體記憶」到多方爭奪的「歷史記憶」，乃經過了幾番的轉變，始成為今日充滿各種既多元又對立的樣貌。

II. 從「被壓迫」的「集體記憶」到抗日的「歷史記憶」

在殖民地時期台灣很早即有電影的放映及上映活動，1929年間由於有聲電影技術的實用化，做為一種同時刺激視覺與聽覺的媒介工具，在電視普及之前電影應該被認為是最具「大眾性」之媒體。如同三澤真美惠所指出的，電影早在1920年代中期的台灣，就已取代演劇而達到「娛樂界的頂點」⁶⁾。但縱貫整個殖民地時期，源自於台灣本土之資本、技術所製作或創作的電影片為數不多，如果扣除與台灣總督府相關的宣傳片及新聞片，則出自台灣人之手的電影極為稀少，遑論以本土資本進行商業式電影製作與上映。因此，殖民地台灣在日本的統治之下，其電影市場不是做為日本本國資本進出逐利的場所，就是成為西方好萊塢式電影市場的最末端。進入1930年代末的戰爭期以後，台灣的電影市場也隨著日本本土進行「映畫統制」將電影納入國家動員與思想控制體系之中，所謂「國策映畫」與其他受歡迎的日本製作娛樂電影也同時佔據整個市場⁷⁾。

不論戰爭期「國策映畫」或日製娛樂電影，其戲劇的元素或符碼不會和台灣本土有太大相關自不待言。雖然在台灣總督府的策劃配合之下，也曾出現包含某些台灣符碼的「國策映畫」，但以宣傳角度觀之應為恰當。戰後至1950年代中期台灣電影市場基本上充斥香港或上海製作者，台灣自製電影除了少數宣傳性質者，「銀幕上，台灣電影等於缺席；即使偶爾出現，也僅聊備一格，乏人問津」。可是，自1920年代興起的台灣本土戲劇歌仔戲，就已經擁有一套戲班與台灣民眾間共通的基礎元素及符碼，其中包括中國或漢民族傳統上的歷史故事，以及部分源自台灣的民間傳說。所以自1954年由台灣自製且瞬間般崛起的「正宗台語片」，就是依靠「歌仔戲電影」的形式打開市場而受到歡迎⁸⁾。

研究者廖金鳳認為，台語片從歌仔戲到電影文化的意涵演變與擴展其關係複雜，從殖民地時期過渡到國民黨政府統治時期也有其政治、經濟、社會面等因素。廖也將1955年至1972年的台語電影視為一個再現體系(representation system)，並認為其「文化想像的內涵」在「多重論述相互抗衡中顯現，並且也隨著歷史情境的演變而游移浮動。台語片的電影實踐，仰賴於國際電影文化、本土電影文化，以至於台灣歷史經驗和生活文化的多樣論述」⁹⁾。其中所指出的「歷史情境的演變」，當然和政經社會等變遷有關；而「台灣歷史經驗」，若從1950年代的時間點往前回溯，當然會指向1945年前的殖民地時期。引伸來說，經歷過殖民地時期的戰後台灣人，會把殖民地時期與戰後區分為兩的相異的「時代」，如此區分之下也才符合當時台灣社會所擁有的「時代感」。

這種「時代感」應該會促使戰後的台灣人把殖民地時期當作一個有整體性意義的「時代」，因此不論個別的「個人記憶」之間擁有多少異質的回憶，把殖民地時期當作一個「整體」的「時代感」促

6) 三澤真美惠 《殖民地下的「銀幕」——台灣總督府電影政策之研究(1895—1942)》、台北：前衛出版社、2002年、286~290頁。

7) 綜觀戰爭期台灣電影市場的相關研究不多，部分可參照三澤真美惠 《殖民地下的「銀幕」》（前揭）。關於戰爭期日本「映畫統制」與「國策映畫」的「挫折」，以及娛樂電影的風行，可參照古川隆久 《戰時下の日本映画一人々は国策映画を觀たか》（東京：吉川弘文館、2003年）。

8) 盧非易 《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 1949~1994》、台北：遠流出版、1998年、61~67頁。

9) 廖金鳳 《消逝的影像——台語片的電影再現與文化認同》、台北：遠流出版、2001年、18~21頁。

使「個人記憶」不斷連結，而容易形成一種對殖民地時期做出整體性詮釋的「集體記憶」。為研究者葉龍彥《春花夢露—正宗台語電影興衰錄》一書撰寫序文的陳萬益，就引用了1957年間出版的文獻指出，殖民地時期曾從事文學、文化運動的戰前一輩台灣人知識份子，經過戰爭期的「皇民化運動」及戰後國民黨政府的「高壓統治」雖然「長期暗聲嚟啞」，卻因為「正宗台語片在五0年代的興旺，就曾經激起了他們的熱情和理想」，甚至稱之為「台灣的文藝復興時期」¹⁰⁾。亦即，殖民地時期的台灣人知識份子到了戰後1950年代寄予「正宗台語片」類似「文藝復興」厚望的原因，即是相較於殖民地時期台灣本土電影的「荒蕪」，眼見台製的台語電影席捲市場成為大眾文化的主流，觸動了他們對殖民地時期的記憶。陳所引用的王白淵文章中，甚至提及殖民地時期「禁止台語」的「個人記憶」，顯見對比之下殖民地時期經驗中「被壓迫」的部分被做為一種記憶而被喚起，再透過「正宗台語片」這個使「個人記憶」與「集體記憶」相互交會的「通路」，就使具有殖民地經驗台灣人的「個人記憶」集結成「被支配」等針對殖民地時期的「集體記憶」。而根據研究者葉龍彥的觀點，即指出戰後自1950年代中期所興起並延續至1970年代中期的台語片風潮，其「大時代的環境」與台灣人「在國民黨的高壓統治之下，其心情與被日本帝國殖民統治是類似的」，即台語自殖民地時期以降即受到打壓有關¹¹⁾。

但此間有一個需要深入理解的問題是，皆為當代研究者的陳萬益、廖金鳳、葉龍彥三人，咸認戰後國民黨政府對台灣施行的「高壓統治」亦是促成「正宗台語片」興起的原因，但到底如何與台灣社會對殖民地時期的「集體記憶」發生關係？如果考慮到1945年戰後隨著「大日本帝國」的瓦解，殖民地台灣獲得解放並被迅速地併入到國民黨主導的中華民國體制之中這一點，就可以發現台灣社會對殖民地時期的「集體記憶」亦經歷過一番轉化而成為「歷史記憶」的過程。

由於戰後統治台灣的國民黨政府以回復「中國」或「中華」做為統治意識型態，「去日本化」旋即成為官方政策上的論述基礎，其中包括最不容易定義清楚的「文化」，也被從政治權力的操作角度進行理解¹²⁾。若使用此種觀點來認識殖民地時期台灣的文化發展，則容易將殖民地時期的台灣「文化」直接導向「日本的VS非日本的」這種二元對立的圖式。在經過1947年「二二八事件」與進入其後的「白色恐怖」及戒嚴時期之後，利用這種二元對立圖式解釋「文化」的權力更加掌握在國民黨政府的官方之手。如果台灣延續自殖民地時期的「文化」全盤被解釋為「日本的」，則難逃被埋葬或消滅之命運。因此，將某些台灣的文化符碼解釋為「非日本的」、甚至設法與「中國的」或「中華的」相連結，則某些「非日本的」部分才有可能留存下來。

誠然，上述這套邏輯從若干不同角度看起來，都只是從事文化解釋權爭奪時的一種工具或策略，前述國民黨政府對台灣的所謂「高壓統治」也不僅限於意識型態上的箝制。但由於此時期的「正宗台語片」做為一個大眾文化的主流角色，和「中國的」或「中華的」有所連結卻有其必要性。實際上，許多以中日戰爭做為題材的台語片「都與日據殖民和抗日戰爭的歷史經驗再現密切相關」，廖金鳳在探討台語片所顯現的國族意識與歷史認知時更指出，1960年代中期以後台語片「明顯展現中國或台灣與日本的對立狀態」，甚至在「觸及日據時期的殖民生活時明顯地將中國的抗戰經驗，納入其電影的故事講述」¹³⁾。而在有關近代歷史或社會事件的論述上，台語片也開拓了有別於歌仔戲的文化意涵，「中國／日本」取代了「中原／番邦」，「忠臣／奸逆」也變成「兇殘的日本人／苦難的中國人」¹⁴⁾。

10) 陳萬益〈台語片的啟示〉、葉龍彥《春花夢露》(前揭)所收、3~5頁。另陳所引用的文獻為1957年間出版的《影劇內幕》，其中包括王白淵、張文環、陳豪三位殖民地時期即活躍於文壇的台灣人知識份子。

11) 葉龍彥《春花夢露—正宗台語電影興衰錄》、台北：博揚文化、1999年、43~44頁。

12) 關於戰後初期台灣的政治狀況與文化上的「區分」及「差異」問題所引起的大規模反亂事件，可參照何義麟《二·二八事件—「台灣」形成のエスノポリティクス》(東京：東京大学出版会、2003年)。

13) 廖金鳳、前揭《消逝的影像》、131、151~153頁。

簡言之，台灣大眾文化的主流，從殖民地時期包含台灣社會所熟悉的戲劇基礎元素及文化符碼為基礎的歌仔戲，演變到戰後以「歌仔戲電影」為起頭的「正宗台語片」，不論其間納入「中國的抗戰經驗」是否為一種應付「歷史情境演變」的策略，也不論其間是否依據「歷史情境演變」而產生文化論述上的變化，若將殖民地時期台灣人「被壓迫」的「集體記憶」連結至中國的抗日戰爭經驗中，就使台灣社會中對殖民地時期的「集體記憶」，有被操作或轉化成與中國共同抗日的「歷史記憶」之機會。

殆1970年代初「正宗台語片」風潮式微之後，電影市場中接之而起的國語(華語)電影基本上有兩支主流：其一是以愛情故事構成主要敘事基調的「文藝愛情片」，其二就是圍繞著中國對日抗戰題材的「愛國政宣片」。「文藝愛情片」之中當然也包括了台灣社會自1970年代以後城市發達、經濟成長、社會轉型等內涵，但貼近電影本身所具有的娛樂性意義較高。至於「愛國政宣片」受到歡迎的背景，則與同年代初台灣的國際地位逐漸被削弱(特別是1971年影響巨大的「台日斷交」)，國民黨政府不得不承認陷入「外交困境」的政治狀況有關。研究者盧非易即指出，這類電影受到官方大力支持，自1974年上映的《英烈千秋》大受歡迎之後，國防部與其他政府宣傳機構也都「慣例配合」。盧亦認為正值台灣面臨國際地位與形象低落的1970年代，這些全數自中國對日抗戰經驗所做的選材，「無非是在過去的歷史中，尋找勝利的記憶，藉以忘卻現實中的挫敗」；而「愛國政宣片」也似乎成了國民黨政府面對危機的標準應對模式之一¹⁵⁾。

因而，就台灣社會對殖民地時期的「集體記憶」來說，自早先的「正宗台語片」就已提供被轉化成與中國共同抗日的「歷史記憶」之機會，至「愛國政宣片」大受歡迎之後，如同研究者廖金鳳直接指出「國語片的「去日本化」明顯地抹去了這塊土地的殖民經驗」¹⁶⁾，一種「中國化」的抗日「歷史記憶」就已幾乎等同於對殖民地時期的「集體記憶」了。

III. 從戰後成長的「集體記憶」到多元對立的「歷史記憶」

進入1980年代前後，由於延續自1970年代以來一連串的國際事件衝擊，使得台灣國內的政治社會狀況隱現詭譎多變的氣氛。在知識份子的社群中，自1970年代初已出現過「本土反思運動」，至1977年間開始了一場影響日後思潮發展甚為深遠的「鄉土文學論戰」。該論戰中數種複雜的立場一再反覆地分裂與重組，延續至1983年間所發生的「台灣意識論戰」之後，最主要的立場歧異才比較清楚地被區分成所謂「中國意識」和「台灣意識」的對立¹⁷⁾。

但相較於文學界等其他的文化領域在「鄉土文學論戰」時就已經開始實踐某種「鄉土意識」或「本土意識」，台灣電影市場算是「最後才感受到」。盧非易將此種現象歸咎於「電影始終掌握在國家與資本家手裡」，也因為電影的「強大商業本質」，使其「對挑戰保守現狀的思潮避之不及」¹⁸⁾。不過，雖然晚至1982年才出現第一部選材自「鄉土文學」的電影，至1986年被稱為「台灣新電影」的這一波風潮，卻被認為擁有「落實鄉土與寫實主義之傾向」，即使「無刻意之本土化或鄉土意識的傾向」，

14) 廖金鳳、前揭《消逝的影像》、92頁。

15) 盧非易、前揭《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181~183、222頁。

16) 廖金鳳、前揭《消逝的影像》、193頁。

17) 關於「鄉土文學論戰」從台灣文化國族主義發生的角度進行的分析探究，可參照A-chin Hsiao(蕭阿勤)，*Contemporary Taiwanese Cultural Nationalism*, Routledge, 2001.

18) 盧非易、前揭《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227頁。

也「反映了較多的個人成長經驗，且其成長經驗與台灣經驗同行，因此從中呈現本土性」¹⁹⁾。

從而，「台灣新電影」中主要是呈現著製作者成長於戰後台灣的「個人記憶」，在受到觀眾的共鳴與票房的肯定之後，開啟了一個通往戰後台灣社會共同成長經驗得以聚集成「集體記憶」的「通路」。雖然「台灣新電影」的主要製作者皆成長於戰後的台灣，碰觸殖民地時期歷史經驗的可能性相對較少，但因為這個戰後台灣社會成長的「集體記憶」形成之後，又會不斷對這些戰後世代的個人成長經驗產生一種「召喚」的效果，使得個別的「個人記憶」強化後又繼續和「集體記憶」產生連結，即造成這些「個人記憶」和「集體記憶」之間持續相互進行「再構成」。就在1980年代經濟成長與社會變遷加劇的此時，戰後世代透過「個人記憶」與「集體記憶」的相互影響回顧成長經驗時，即對戰後台灣也產生了一種「時代感」，而約略的把1980年代以前的戰後台灣和1980年代以後也區分開來。

台灣在殖民地時期的歷史經驗對於戰後世代來說，大概只有一部分稀少的幼年期「個人記憶」得以存在，因此通過戰後成長經驗的一個「時代」再來觀看殖民地經驗時，大多只能依靠確實擁有殖民地經驗世代的「個人記憶」，或者僅依靠前述1970年代所被定型之後的抗日「歷史記憶」了。如果要試圖說明這段時期之中這些戰後世代對台灣殖民地經驗的一般認識大概非常困難，但若把他們所擁有的「本土化或鄉土意識的傾向」和抗日「歷史記憶」對照起來，從身處的1980年代隔了一個自身成長經驗的「時代」再觀看前一個「時代」時，應該是充滿某種神秘的感覺，甚至因為政治上的原因而感受到一種莫名的「禁忌」。

而與此「台灣新電影」浪潮興起的同時，不僅「愛國政宣片」快速失勢，純粹的「文藝愛情片」也宣告終結。電影市場上除了「台灣新電影」之外，其實還充斥著各種以既有「類型」無法辨識的商業片。若稱此為「電影政治結構的鬆動」時期，則民主化浪潮的衝擊之下迫使國民黨政權不得不在1986年宣布解除戒嚴體制，就是台灣電影挑戰既往電影檢閱制度所鋪設之各種禁忌的開始²⁰⁾。其中，算是接續自「台灣新電影」浪潮而在1989年上映的《悲情城市》，因為挑戰到1947年所發生的「二二八事件」其「禁忌性」，在受電視和錄影帶打擊而日漸萎縮的電影市場中不止寫下了票房佳績，也引發知識份子社群和社會上一連串的「歷史」與「再現」問題的討論。

在1980年代初的台灣社會中就已隱約浮現挑戰「二二八禁忌」的氣氛，其背後包含著民主化要求與前述「中國意識」和「台灣意識」的對立自不待言。在《悲情城市》上映前一年公開出版的《辛酸六十年一二二八事件二七部隊部隊長鍾逸人回憶錄》，就是企圖把事件發生時曾組織武裝部隊與國民黨軍隊對抗的重要當事人回憶公開，以達到挑戰「禁忌」的效果。為其寫序的一位文學家和三位學者更清楚地以「大家來寫歷史」「真相的回復」「珍惜這塊土地上的歷史」「為那個年代做活見證」²¹⁾之類的表現，來把一種爭奪歷史解釋權的正當性展現出來。也就是說，從1986年國民政府解除戒嚴前後開始在台灣社會四處流竄的「二二八事件」相關「個人記憶」，就已經擁有挑戰前述抗日「歷史記憶」的可能性。

殆《悲情城市》做為一個以該歷史事件為背景的虛構文本出現在大眾文化領域，並且「以疏離的窺影構圖，將作者認識的歷史(或記憶的過去)，放在彷彿夢境回憶般不斷閃現的紛亂光影中，提供觀眾一個忽遠忽近的窺視歷史過去的位置」²²⁾時，不止「二二八事件」所具有的「禁忌性」被瞬間突破，受到誘發的「二二八事件」相關「個人記憶」也開始不斷朝同一個方向匯集，即通過《悲情

19) 盧非易、前揭《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277、280頁。

20) 盧非易、前揭《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297、280頁。另，這些既往的「禁忌」包括許多引發倫理道德爭議的題材，以及中國製電影、中國相關之政治題材、甚至包括中國的風景等。

21) 鍾逸人《辛酸六十年 二二八事件二七部隊部隊長鍾逸人回憶錄(上)》、台北：前衛出版社、1993年新增訂版(1988年初版)、〈序一〉～〈序四〉。另，四位撰寫序文者分別是李喬、陳芳明、張炎憲、李筱峰。

22) 盧非易、前揭《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305頁。

城市》這個「通路」迅速在台灣社會中構成一個以「二二八事件」經驗相關的「集體記憶」。這個「集體記憶」自此開始充滿顛覆抗日「歷史記憶」的能量，也成為日後台灣社會開始充滿「多元／對立」的各種「歷史記憶」的起點。

至於「二二八事件」的「集體記憶」何以讓之前的抗日「歷史記憶」迅速崩壞，理由在於該「集體記憶」不但足以將殖民地時期與戰後台灣的區別清楚標示出來，更因為追究「真相」與「歷史」的驅力將「二二八事件」的發生原因求諸於殖民地時期與戰後這兩個相異「時代」的比較。這種心態對於有殖民地經驗的台灣人來說理所當然，對於已經擁有戰後成長經驗「集體記憶」的戰後世代而言，愈是企圖從台灣歷史經驗過程中尋求「本土意識」甚至是「台灣意識」的源頭，愈是需要某種有別於抗日的「歷史記憶」，以幫助他們認識形同晦暗的「二二八事件」，以及一個未曾經驗過的殖民地「時代」。

殖民地時期或「二二八事件」之中到底有何種「本土意識」或「台灣意識」並非本論文要處理的，但既然某種「二二八事件」所涉及的殖民地時期「歷史記憶」被需要，就使得擁有殖民地經驗的「個人記憶」被需要，僅從擁有殖民地經驗者其「回憶錄」的公開出版自1990年後開始增加，就可以觀察到這種需要不斷增加。連盤據台灣學術界最高領導地位的中央研究院，其所屬近代史研究所都在1991年初決定將常態出版的《口述歷史》期刊編輯成「二二八事件專號」。在兩期的「專號」中，即依據1989年後的訪談（大部分的訪談時間都集中在1991年以後）總共收錄了75篇的「訪談記錄」²³⁾。其中所呈現的種種「個人記憶」中，幾乎大多數相通的觀點，就是將「二二八事件」發生的原因具體的指向戰後來台接收的國民黨政府及軍隊極度腐敗；甚至做為一種文化論述上的「辨識」，將該事件的「真正原因」歸咎於殖民地時期台灣的「進步」與戰後中國來台統治者的「落後」，這種二元對立式的矛盾。

如此一來可以明瞭，就像「二二八事件」的「個人記憶」從1980年代中期若伏流一般的流竄於台灣社會中，殖民地時期的「個人記憶」也像是談論「二二八事件」時的「副產品」一般的開始浮動。到了《悲情城市》提供「二二八事件」相關「個人記憶」匯集成「集體記憶」的「場所」，同時殖民地時期的種種「個人記憶」也藉此開始匯集成一種殖民地時期的「集體記憶」。這兩組像是孿生現象一般的同時出現，顯示了比較殖民地時期與戰後這兩個「時代」的差異成為一種認識論上的「常態」，不止讓兩組「個人記憶」所匯集的「集體記憶」必須相互不斷地「再構成」，也讓「二二八事件」的「集體記憶」脫離了事件本身。在面對戰後世代尋求「二二八事件」的「歷史記憶」的同時，也就牽動到殖民地時期「歷史記憶」的形成。而當殖民地時期與戰後這兩個「時代」的差異，被認識為「進步／台灣vs落後／中國」的一種文化論述式的比較時，前述充滿國民黨官方色彩的抗日「歷史記憶」自然迅速瓦解。或者說，抗日「歷史記憶」在面臨這個崩解的時刻，實際擁有中日戰爭經驗的「個人記憶」必須快速地重新匯集，進而以「集體記憶」的型態繼續支撐下去。

就在進入1990年代以後的台灣，「族群」一詞開始被普遍使用，有些現象也被注意到可以用族群問題或族群爭議的概念來描述²⁴⁾。由於繼續以抗日「集體記憶」支撐抗日「歷史記憶」的主要群體，其成員多數為1945年以前在中國本土有抗戰經驗、並在1949年以後來到台灣者，在族群想像的劃分架構裡，就沿襲戰後初期「外省人」的稱呼而成為「外省族群」。相對的，擁有殖民地「集體記憶」並在1980年代末期突然建構出一套殖民地「歷史記憶」的群體，就被劃分為「本省族群」。而基本上因為1992年後民主體制開始實施，媒體管制的開放後也同時是大眾媒體高度依循資本主義原則從事

2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口述歷史編輯委員會《口述歷史 第3期 二二八事件專號》、《口述歷史 第4期 二二八事件專號》、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92、1993年。

24) 王甫昌《當代台灣社會的族群想像》、台北：群學出版、2003年、3頁。

競爭的開始，就讓不限上述兩種族群的各種記憶都有可能找到匯集記憶的「場所」，各個族群也就開始擁有以族群為單位的「集體記憶」。更進一步，根據各個族群所處的政治、經濟、社會上的位置，各族群也大致從族群的位置和觀點來構成自我族群的「歷史記憶」。至此以降，台灣所見到的各種「歷史記憶」間時而呈現相互對立、時而呈現相互建構的關係，成為一種既多元又多重對立的景象。

IV. 結語—隱喻的殖民地「歷史記憶」

當今台灣的殖民地時期「個人記憶」與「集體記憶」，已經隨著有殖民地經驗的個人及其所屬群體的凋零而逐漸消逝。但戰後至今經過政治、社會等制度或意識型態操作或轉化過的某些「歷史記憶」，卻會越過世代繼續傳遞，或者會隨著將來的政治、社會等變化而持續演變。如同P. Ricoeur所言，「歷史與虛構(fiction)的交叉會賦予〈歷史的具體化〉一種隱喻性的指示性格；而轉化成歷史的記憶其隱喻的效果即會產生出許多的〈類推〉」²⁵⁾。

1989年對戰後台灣的殖民地「歷史記憶」產生影響的《悲情城市》，應該是因為「歷史與虛構的交叉」而帶有所謂「隱喻性的指示性格」，才促使台灣社會對殖民地經驗進行深入挖掘。但是另一方面，《悲情城市》也使殖民地歷史經驗和一些具有文化論述性質的「集體記憶」發生關係，甚至引發出某種具有隱喻意味的「歷史記憶」。而2008年所上映的《海角七號》，已經不僅只是「歷史與虛構的交叉」，甚至是一個巧妙地運用了這些殖民地「歷史記憶」所類推出來的文本。既然如此具有「類推」的性格，就提供了人們對殖民地「歷史記憶」有更多的論述空間，也使殖民地「歷史記憶」富有更大的隱喻性。

至於《海角七號》所牽動的隱喻的「歷史記憶」指向何方，似乎是可以依照各種政治、社會上的位置或觀念的不同，而得到許多不同的論述。因此，做為一種把殖民地歷史經驗不斷化為隱喻的「歷史記憶」，已經脫離殖民地歷史經驗而逕自演變，也自行類推出更多種多樣的「歷史記憶」。《海角七號》的賣座，一方面代表著隱喻的「歷史記憶」會不斷的繼續演變下去，一方面也代表著台灣社會已經離殖民地歷史經驗愈來愈遠。

此外，本論文雖然主張「大眾文化」可以成為「個人記憶」與「集合記憶」間的「通路」，但對電影以外的探討限於現階段的能力問題未能納入。實際上，與電影共同營造出「大眾文化」的大眾媒體種類甚多，其中依靠唱片而傳播的歌謠亦非常重要。因為記錄聲音的唱片所能傳遞出的「肉聲」，對人們「記憶」過去的功能極其強大，似乎更具有喚起「時代感」、甚至是「歷史感」的效果。更進一步，將來或許還需要納入比較觀點，以將不同殖民地的狀況列入考慮，才能多方理解戰後台灣社會「歷史記憶」其演變的特殊性與一般性。

25) Paul Ricoeur(著)、久米博(譯)《時間と物語 第1卷 歴史と物語》、東京：新曜社、2004年。

식민지 역사 경험 속의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

—전후 대만 「역사 기억」의 구축과 변화—

李 承 機 (國立成功大學校)

〈목 차〉

- I. ‘해각칠호’가 불러 일으킨 「기억」
- II. 「피압박」의 ‘집단 기억’에서 항일의 ‘역사 기억’으로
- III. 전후 생성된 ‘집단 기억’에서 다원 및 대립의 ‘역사 기억’으로
- IV. 글을 마치며- 은유적인 식민지 ‘역사 기억’

I. ‘해각칠호’가 불러 일으킨 「기억」

2008년 8월 말 대만 영화 시장에서 ‘해각칠호(海角七號)’라는 제목의 대만 영화가 상영되었다. 상영 첫 날부터 10월 말까지 박스오피스는 4억 5천만 TWD(한화 약 198억 원·역자주)를 기록해, 과거 대만 영화 흥행 기록을 갱신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의 대만 관객 동원 기록까지 넘어서면서, 1990년 이후 관객 동원 기록 2위를 차지하였다.(1위는 1997년 ‘타이타닉’) 이 영화의 스토리는 두 쌍의 대만인과 일본인의 국경을 넘어서 사랑 이야기가 교차하는 구조로서, 그 가운데 한 쌍의 시대적 배경은 지금의 대만이고, 다른 한 쌍은 1945년 대만에 있던 일본인의 본국 귀환을 전후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였다. 국경을 넘어서 두 쌍의 연인들의 사랑이 교차되는 영화의 서사 구조는 마치 이 영화가 서로 다른 시대를 대비시키려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가진처럼 보였지만, 1945년 이전 ‘일본시대(日本時代)’로 불리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의 대만의 역사 경험(혹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미지’)을 건드린 데다가 성공적인 흥행으로 관람 열풍이 일면서, 당시 이를 둘러 싸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해각칠호’가 보여주는 ‘일본’의 이미지를 대만이 일본의 영향을 끊어내지 못한 증거로 보면서, 심지어 대만의 전후 문화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증거로 보기도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1945년 이후의 ‘식민VS피식민’ 관점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만의 피식민지 역사 속의 ‘항일’ 경험을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으로서, 식민지가 식민지 지배를 탈피한 이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포스트식민’ 의식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관점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포스트식민’ 의식과 비교할 때 ‘해각칠호’에서 촉발된 수많은 토론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식민지 시대 대만인과 일본인의 개인 관계가 자주 화제에 올랐다는 점으로, 대만인과 일본인의 연애 스토리들이 인터넷에 퍼졌고 심지어는 신문이나 TV 보도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개인이 실제 경험한

연애 스토리로 ‘해각칠호’ 라는 허구의 스토리와 비교 리스트까지 만들어진, ‘해각칠호판 인생 스토리[海角七號真實人生版]’ 라는 보도 기사였다.¹⁾

이 기사가 전국 규모의 신문에 실리게 된 배경에는 ‘해각칠호’ 라는 영화 한 편으로 일어난 사회 현상 가운데 식민지 시대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따라 이러한 ‘개인 기억’ 과 대만 사회의 ‘집단 기억’ 이 연결 고리를 형성하여 ‘역사 기억’ 속으로 투사되면서, 식민지 당시 대만의 역사 경험과 상호 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대만인의 ‘개인 기억’ 과 전후 대만 사회의 ‘집단 기억’ 이 1945년 이전의 식민지 역사 경험과 맺는 관계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역사 기억’ 이 전후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 기억’ 과 ‘역사 기억’ 의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상호 충돌하는 기묘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 기억’ 과 ‘집단 기억’ 의 관계에 대해, 본고는 모리슈 알바슈(M. Halbwachs)의 사회 심리학 이론을 참고한다. 이에 따라 개인 경험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개인의 기억을 ‘개인 기억’ 이라고 부르고, 어떤 집단이나 군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모종의 공통된 생각과 사회 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감정과 시각에 기반해 만들어져 공동의 것으로 인정되는 기억을 ‘집단 기억’ 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본래 개인의 기억과 타인의 기억 자체는 완전한 합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개인 기억’ 의 집합체로서의 ‘집단 기억’ 과 개별 ‘개인 기억’ 사이에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개인의 기억이 그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개인 기억’ 은 확인을 받는 동시에 일종의 ‘재구성’ 되는 과정으로 변질되기도 한다.²⁾ 이러한 ‘재구성’ 과정 속에서 ‘개인 기억’ 과 ‘집단 기억’ 사이에는 사회 환경 속에 존재하면서 ‘통로’ 로서 의미를 갖는 모종의 ‘입구’ 를 필요로 하게 되며, 양자가 상호 교차하여 수렴되는 ‘장소’ 가 만들어지게 된다.³⁾

Halbwachs는 ‘개인 기억’ 과 ‘집단 기억’ 양자 사이에 ‘외관상 대립’ 되는 ‘침묵한 대비’ 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양자를 ‘내부-외부’ , ‘개인의 기억사회의 기억’ 또는 ‘자전적 기억역사적 기억’ 으로 구분하였지만, 개별 개인은 이 두 가지 기억에 동시에 참여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이항 대립으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집단 기억’ 을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억’ 또는 ‘역사 기억’ 으로 등치시키는 이유는, “개인이 살아낸 역사가 일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과거

1) 海角七號 vs. 島崎藤行之台日戀



蘇孟娟 기자, '90세 일본 국적 교사가 바다 건너 '여자 친구' 를 찾아 온 63년(9旬日籍老師 跨海尋「友子」63年)'. 自由時報電子報, 2008.10.29(<http://www.libertytimes.com.tw/2008/new/oct/29/today-so1.htm>)

2) Maurice Halbwachs(저), 小関藤一郎(역), 『集合的記憶(La memoire collective)』, 京都: 行路社, 1989년, 7~16쪽.

3) Maurice Halbwachs, 전거서 『集合的記憶』, 37~42쪽.

를 요약시켜 만든 도식(圖式)과 같은 형태로 드러내도록” 만든 다음 다시 ‘개인 기억’을 보완하기 때문이다.⁴⁾

하지만 아날 학파 제3세대 학자인 고프(J. Le Goff)의 역사와 기억에 관한 이론을 정리해 보면, 비록 “기억은 사회적인 기능에 따라 특징을 부여받는다”는 관점에서는 Halbwachs와 그다지 차이가 없지만, 그는 ‘민족이나 국가의 집단적인 기억의 결핍 또는 소멸은 집단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의 기억은 권력을 둘러싸고 사회 제 세력이 투쟁할 때 중요한 무기가 되며, 한 사건을 망각하거나 기억하도록 지배하는 방식은 역사를 지배하는 사회 계급, 집단,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⁵⁾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Le Goff는 ‘역사’와 기억 간에 일종의 숨겨진 조작 구조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참고해 본고는 ‘집단 기억’을 그대로 ‘역사 기억’으로 등치시키지 않고 단지 ‘개인 기억’의 집합체로만 설정하고, 역사와 관련된 인식 또는 의식으로 조작되거나 또는 전화된 ‘집단 기억’만을 일종의 ‘역사 기억’으로 본다. 다시 말해,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은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이 사라지면서 점차 소멸하지만, 국가나 사회와 같은 제도 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축된 ‘역사 기억’이 대대로 전승되는 동시에 유사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본고는 주로 영화라는 대중 매체에 의해 형성되는 대중 문화의 발전 궤적을 따라가면서, 1950년대 이후 대만의 대중 문화를 전후 대만 사회의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이 서로 교차되는 ‘통로’ 또는 ‘장소’로 보고, 이 양자와 1945년 이전의 식민지 경험이 맺는 관계와 거처간 일련의 정치 및 사회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집단 기억’이 어떻게 조작되어 정치 및 사회 속에서 ‘역사 기억’을 형성하는가에 주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후 대만 사회에서 관찰되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 기억’이 먼저 ‘피압박’의 ‘집단 기억’에서 항일의 ‘역사 기억’으로, 다시 전후 생성된 ‘집단 기억’에서 여러 주체가 주도권을 다투는 ‘역사 기억’으로, 어떠한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다원적인 동시에 대립하는 현재의 모습을 이루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II. 「피압박」의 ‘집단 기억’에서 항일의 ‘역사 기억’으로

식민지 시대 대만에서 영화는 일찍부터 상영되었다. 1929년 유성 영화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매체로서, TV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영화가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잡았다. 미사와 마미꼬(三澤眞美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영화는 일찍이 1920년대 중반 대만에서 연극을 대신해 ‘오락계의 정상’에 도달하였다.⁶⁾ 하지만 식민지 통치 시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만 본토 자본과 기술로 제작 또는 창작된 영화는 소

4) Maurice Halbwachs, 전게서 『集合的記憶』, 45~48쪽.

5) Jacques Le Goff(저), 立川孝一(역), 『歴史と記憶(Histoire et memoire)』, 東京:法政大学出版局, 1999년, 2, 93쪽.

6) 三澤眞美惠, 『殖民地下的「銀幕」－台灣總督府電影政策之研究(1895-1942)』, 台北:前衛出版社, 2002년, 286~290쪽.

수였다. 특히 대만 총독부 관련 홍보 영화 및 뉴스 영화를 제외하면, 대만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거의 극소수였고, 본토 자본으로 제작 상영된 상업 영화는 말할 것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 통치 하에서 식민지 대만의 영화 시장은 이윤 추구를 위해 일본 본국 자본이 진출하는 공간이자 서구 할리우드 영화 시장의 최말단일 뿐이었다. 1930년대 말 전쟁 시대로 접어든 이후, 일본 본토에서 ‘영화 통제(映畫統制)’를 시작하면서 대만의 영화 시장에서도 영화는 국가 동원 및 사상 통제 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소위 ‘국책 영화’와 기타 인기 있는 일제 오락 영화가 영화 시장을 거의 독점하였다.⁷⁾

전쟁 시대 ‘국책 영화’든 일제 오락 영화든, 시나리오 구조나 코드는 대만 본토와 별다른 상관성이 없었다. 비록 대만 총독부의 정책적 협조 아래 약간의 대만 코드를 포함한 ‘국책 영화’도 있기는 했지만, 이는 홍보의 각도에서 평가해야 한다. 전후부터 1950년대 중반기의 대만 영화 시장은 기본적으로 홍콩 또는 상해 영화가 휩쓸었다. 대만 자체 제작 영화는 소수의 홍보물밖에 없었으며, “은막에서 대만 영화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가끔 은막에 선보인 영화조차 구색맞추기 정도로 화제에 오르지도 못 했다.” 하지만 1920년대 부흥한 대만 본토 가자희(歌仔戲: 희곡극역자주)는 대만 민중과 호응하는 기본 구조와 코드를 갖춘 나름의 공연팀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가자희는 주로 중국이나 한민족 전통의 역사 이야기로, 일부 대만 민간 전설에 뿌리를 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1954년 대만에서 자체 제작되어 돌풍을 일으킨 ‘정통 대만어 영화’는 이러한 ‘가자희 영화’의 형식을 빌어 시장의 문을 두들겨 큰 성공을 거두었다.⁸⁾

야오진펑(廖金鳳)은 가자희에서 영화 문화로 이행하는 대만어 영화의 내용적 변화와 그 관계의 복잡한 확장을, 식민지 시대에서 국민당 정부 통치 시대로 넘어오면서 나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또한 1955년부터 1972년까지의 대만어 영화를 일종의 재현 시스템(representation system)으로 보는 동시에 그 ‘문화 상상의 함의’가 “다중적 기술(記述)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드러나며 또한 역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떠돈다. 대만어 영화의 영화적 실천은 세계 영화 문화, 본토 영화 문화 나아가 대만의 역사 경험과 생활 문화의 다양한 기술에 기대어 있다.”⁹⁾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그가 지적한 ‘역사 상황의 변화’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말한다. 그리고 ‘대만의 역사 경험’은 1950년대라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연히 1945년 이전의 식민지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를 확장시켜 보면,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전후 대만인이 식민지 시대와 전후를 상이한 두 개의 ‘시대’로 나누었으며, 이렇게 둘로 나눌 때 비로소 당시 대만 사회가 가진 ‘시대감(時代感)’에 부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감’이 전후 대만인으로 하여금 식민지 시대를 하나의 완결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시대’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개인 기억’ 사이에 다소의 이질적인 추억이 존재했을 지라도 식민지 시대를 하나의 ‘완결체’로 인식하도록 하는 ‘시대감’이 ‘개인

7) 전쟁 당시의 대만 영화 시장에 관한 연구 논문이 많지 않지만, 三澤真美恵의 『殖民地下的「銀幕」』(전게서)은 일부 참조할 만하다. 전쟁 당시 일본의 ‘영화 통제’와 ‘국책 영화’의 ‘좌절’ 및 오락 영화의 유행에 대해서는, 古川隆久의 『戦時下の日本映画一人々は国策映画を観たか』(東京: 吉川弘文館, 2003년)를 참조할 수 있다.

8) 盧非易, 『台灣電影: 政治, 經濟, 美學 1949~1994』, 台北: 遠流出版, 1998년, 61~67쪽.

9) 廖金鳳, 『消逝的景像—台語片的電影再現與文化認同』, 台北: 遠流出版, 2001년, 18~21쪽.

기억'을 끊임없이 연결시킴으로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일종의 완결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기억'의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예룡옌(葉龍彦)의 저서 『춘화몽로-정통 대만어 영화의 흥망 기록(春花夢露—正宗台語電影興衰錄)』에 서문을 쓴 천완이(陳萬益)은 1957년에 출판된 문헌을 인용하여, 전쟁 시대 '황민화 운동' 및 전후 국민당 정부의 '고압 통치'를 거치면서 "오랫 동안 병어리 노릇을 해야 했던", 식민지 시대 문학 및 문화 운동에 종사했던 전전(戰前) 대만 지식인들에게 있어 "50년대에 부흥한 정통 대만어 영화가 그들의 열정과 이상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심지어 이를 "대만의 문예 부흥 시기"라고 칭했다.¹⁰⁾ 다시 말해, 식민지 시대의 대만 지식인들이 전후(戰後) 1950년대에 '정통 대만어 영화'에 '문예 부흥'과 같은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들의 눈 앞에 대만 스스로 제작한 대만어 영화가 시장을 석권하여 대중 문화의 주류가 되는 광경이 펼쳐지자, 이것이 식민지 시대 대만 본토 영화의 '황폐함'과 대비되면서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천완이가 인용한 왕바이옌(王白淵)의 글에서는 심지어 식민지 시대의 '대만어 사용 금지'라는 '개인 기억'이 언급되고 있어, 대만어 영화의 부흥에 상대적으로 식민지 시대 경험 가운데 '피압박' 부분이 일종의 기억으로 환기되고, 다시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이 상호 교차하는 '정통 대만어 영화'라는 '통로'를 통해 식민지 경험을 가진 대만인의 '개인 기억'이 '피지배' 등과 같은 식민지 시대에 대한 '집단 기억'으로 결집되도록 만들었음을 드러낸다. 예룡옌은 전후 1950년대 중반기 부흥하여 1970년대 중반기까지 지속된 대만어 영화 열풍의 '거시적인 시대적 환경'과 대만인이 "국민당의 고압 통치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일본 제국 주주의 식민지 통치 당시와 유사했다"면서, 이는 대만어가 식민지 시대 이후 줄곧 억압당한 상황과 관련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¹⁾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살펴볼 문제는 천완이, 야오진핑, 예룡옌과 같은 현대 연구자들이 모두 '정통 대만어 영화' 부흥을 촉발시킨 또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전후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서 실시한 '고압 통치'로서, 도대체 식민지 시대에 대한 대만 사회의 '집단 기억'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었을까? 1945년 전후 '대일본 제국'의 와해에 따라 식민지 대만이 해방되어 국민당이 주도하는 중화민국 체제에 신속하게 편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식민지 시대에 대한 대만 사회의 '집단 기억'이 이에 따라 '역사 기억'으로 전화(轉化)되어 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전후 대만을 통치했던 국민당 정부는 '중국' 또는 '중화'의 회복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하였으므로, '일본적인 것의 청산(去日本化)'이 결국 정부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여기에 물론 본래 정의 내리기 극히 까다로운 '문화'가 포함되었고, 또한 정치 권력이 필요로 하는 조작의 시각에서 해석되었다.¹²⁾ 이러한 시각으로 식민지 시대 대만의 문화 발전 과정을 인식한다면, 당시 대만 '문화'를 '일본적(日本的) VS 비일본적(非日本的)'과 같은 단순한 대립

10) 陳萬益, 「台語片的啟示」, 葉龍彦『春花夢露』(전게서) 수록, 3~5쪽. 이 밖에 천완이가 인용한 문헌은 1957년 출판된 『影劇內幕』으로, 여기에 식민지 시기 문단에서 활약했던 王白淵, 張文環, 陳豪 세 사람의 대만 지식인이 포함되어 있다.

11) 葉龍彦, 『春花夢露—正宗台語電影興衰錄』, 台北: 博揚文化, 1999년, 43~44쪽.

12) 전후 초기 대만의 정치 상황과 문화적인 '구분' 및 '차이'로 인해 일어난 대규모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何義麟『二·二八事件—「台湾人」形成のエスノポリティクス』(東京: 東京大学出版会, 2003년)을 참고할 수 있다.

쌍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1947년의 ‘228사건(二二八事件)’과 그 후에 ‘백색 공포(白色恐怖)’ 및 계엄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이원대립항으로 ‘문화’를 해석하는 권력이 더욱 공고하게 국민당 정부의 손아귀에 장악되었다. 식민지 시대부터 연장된 대만 ‘문화’ 전반을 ‘일본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매장 또는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부 대만의 문화 코드를 ‘비일본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중국적’ 또는 ‘중화적’인 것으로 연결짓는다면, ‘비일본적’인 부분만은 남겨져 보존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상술한 논리 체계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결국 문화 해석권 쟁탈을 위한 도구 또는 방법에 불과하며, 전술한 대만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소위 ‘고압 통치’ 역시 이데올로기적인 속박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시 ‘정통 대만어 영화’가 대중 문화의 주류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중국적’ 또는 ‘중화적’인 것과의 접점이 필요했다. 실제로 중일전쟁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대만어 영화는 “예외 없이 일본 강점기 및 항일 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긴밀하게 엮이면서 재현되었다.” 야오진핑은 대만어 영화가 드러내고 있는 민족 의식과 역사 인식을 고찰하면서 1960년대 중반기 이후 대만어 영화는 “중국 또는 대만과 일본의 대립 상태를 뚜렷하게 보여주었고” 심지어 “일제강점기의 생활상을 그릴 때 중국의 항전 경험을 영화의 스토리 구조에 편입시켜 강조하였다.”¹³⁾ 근대 역사 또는 사회적 사건과 관련해 대만어 영화는 또한 가자회와는 구별되는 문화적 함의를 새롭게 개척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일본’으로 ‘중원/변방’을 대체하는 것으로, ‘충신/역적’ 역시 ‘잔인한 일본인/고난의 중국인’으로 바뀌었다.¹⁴⁾

정리해 보면, 대만 대중 문화의 주류가 식민지 시대 대만 사회가 익숙하게 여겼던 희극적 기초 구조와 문화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가자회에서, 전후 ‘가자회 영화’에서 시작된 ‘정통 대만어 영화’로 옮겨오는 과정이 곧, ‘중국적 항전 경험’을 ‘역사 맥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삼든 아니든 ‘역사 맥락 변화’에 따라 문화 기술에 변화가 일어났든 관계 없이, 식민지 시대 대만인의 ‘피압박’ ‘집단 기억’을 중국의 항일 전쟁 경험 속으로 연장시킴으로써 식민지 시대에 대한 대만 사회의 ‘집단 기억’을 중국이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던 ‘역사 기억’으로 조작 또는 전화시키는 기회가 된 것이다.

1970년대 초 ‘정통 대만어 영화’의 열풍이 사라진 이후 영화 시장에서 이의 뒤를 이어 등장한 중국어 영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러브 스토리를 주요 서사 구조로 하는 ‘애정 영화(文藝愛情片)’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항일 전쟁을 소재로 하는 ‘애국 정치 홍보물(愛國政宣片)’이었다. ‘애정 영화’에는 당연히 1970년대 이후 대만의 도시 발전, 경제 성장, 사회 변천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락적인 의미가 훨씬 컸다. ‘애국 정치 홍보물’이 인기를 끈 배경에는 당시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점차 약화되면서(특히 1971년 ‘대만과 일본의 국교 단절’의 영향이 컸다) 국민당 정부가 ‘외교적 곤경’에 빠졌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정치 상황이 작용했다. 이에 대해 루페이이(盧非易)은 이러한 영화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1974년 상영된 ‘영열천추(英烈千秋)’가 흥행하자 국방부와 기타 정부 홍보 기관에서도 ‘관례적으로 협조하였

13) 廖金鳳, 전게서 『消逝的影像』, 131, 151~153쪽.

14) 廖金鳳, 전게서 『消逝的影像』, 92쪽.

다' 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이미지가 실추했던 1970년대 영화들이 하나같이 일본에 맞서 싸운 중국의 경험에서 소재를 찾은 것은 “과거 역사에서 승리의 기억을 찾아 현실의 좌절을 잊으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애국 정치 홍보물’ 은 위기에 직면한 국민당 정부의 표준 대응 모델과 같았다.¹⁵⁾

따라서 식민지 시대에 대한 대만 사회의 ‘집단 기억’ 에 대해, 초기 ‘정통 대만어 영화’ 가 중국의 공동 항일이라는 ‘역사 기억’ 으로 전화할 기회를 이미 제공했다면, ‘애국 정치 홍보물’ 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 영화의 ‘일본적인 것의 청산’ 은 대만의 식민 경험을 지워버리는 것”¹⁶⁾이었다는 야오진핑의 직접적인 지적과 같이, 일종의 ‘중국화’ 된 항일 ‘역사 기억’ 이 식민지 시대에 대한 ‘집단 기억’ 과 거의 동일시되어 버렸다.

III. 전후 생성된 ‘집단 기억’에서 다원 및 대립의 ‘역사 기억’으로

1970년대 이후 일련의 국제적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1980년대를 전후해 대만 국내 정치 사회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에 이미 지식인 커뮤니티의 ‘본토 성찰 운동’ 이 일어났으며, 1977년이 되자 이후 문예 사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향토 문학 논쟁’ 이 시작되었다. 이 논쟁의 와중에서 여러 복잡한 입장들이 분열과 재구축을 반복적하면서 1983년의 ‘대만 의식 논쟁’ 으로 이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가장 주요한 입장 차이가 소위 ‘중국 의식’ 과 ‘대만 의식’ 의 대립으로 뚜렷하게 구분 가능해졌다.¹⁷⁾

하지만 ‘향토 문학 논쟁’ 이 진행과 함께 모종의 ‘향토 의식’ 과 ‘본토 의식’ 의 실천이 이미 시작된 문학계와 같은 다른 문화 영역과 비교할 때, 대만 영화 시장은 “가장 나중에서야 인식한” 셈이다. 루페이이는 이를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와 자본가의 손에 장악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영화의 “강력한 상업적 본질” 때문에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사조가 비켜가는 결과” 를 낳았다고 설명하였다.¹⁸⁾ 1982년에서야 비로소 ‘향토 문학’ 에서 소재를 취한 첫 영화가 나타났지만 1986년에 ‘대만 뉴웨이브 영화’ 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향토주의와 사실주의의 실천” 으로 인식된 새로운 경향은, 비록 “자각적인 본토화나 향토 의식적 경향은 없었지만” 결국은 “개인의 성장 경험을 주로 반영하면서 그 성장 경험에 대만 경험이 수반되면서 본토성을 드러내었다.”¹⁹⁾

주로 전후 대만에서 성장하면서 겪은 감독의 ‘개인 기억’ 을 드러낸 ‘대만 뉴웨이브 영화’ 는 관객들의 공명으로 흥행 면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전후 대만 사회가 공동으로 겪은 성장 경험이 ‘집단 기억’ 으로 모여드는 ‘통로’ 를 열었다. 대부분 전후 대만에서 성장한 ‘대만 뉴웨이브 영화’ 의 주요 제작진이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건드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15) 盧非易, 전게서 『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 181~183, 222쪽.

16) 廖金鳳, 전게서 『消逝的影像』, 193쪽.

17) ‘향토 문학 논쟁’ 에 대해 대만 문화 국족주의(國族主義) 발생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서로는 A-chin Hsiau(蕭阿勤), *Contemporary Taiwanese Cultural Nationalism*, Routledge, 2001를 참고할 수 있다.

18) 盧非易, 전게서 『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 227쪽.

19) 盧非易, 전게서 『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 277, 280쪽.

일단 전후 대만 사회에서 자라난 ‘집단 기억’이 형성되자, 이는 전후 세대의 개인 성장 경험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내고, 강화된 개별적인 ‘개인 기억’이 다시 지속적으로 ‘집단 기억’과 연결 고리를 형성하면서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 사이에 지속적인 상호 ‘재구성’을 촉진하였다. 즉 1980년대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의 상호 영향을 통해 성장 경험을 되돌아 보게 된 전후 세대는 일종의 전후 대만의 ‘시대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1980년대 이전의 전후 대만과 1980년대 이후를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전후 세대에게는 식민지 시대 대만의 역사 경험이 유년기의 극히 적은 일부의 ‘개인 기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전후 성장하면서 경험한 한 ‘시대’를 통해 다시 식민지 경험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식민지 경험을 가진 세대의 ‘개인 기억’에 대부분 의존하거나, 또는 전술한 1970년대에 정형화된 항일 ‘역사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전후 세대의 대만 식민지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도일 수 밖에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토화 또는 형토의식적 경향’과 항일 ‘역사 기억’을 대비시켜 보면, 자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시대’까지 끼어 있어 자신이 살고 있는 1980년대로부터 더욱 요원하게 느껴지는 식민지 ‘시대’를 바라볼 때 그들은, 모종의 신비감을 가지거나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일종의 미묘한 ‘금기’처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대만 뉴웨이브 영화’의 붐이 일면서, ‘애국 정치 홍보물’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동시에 순수한 ‘애정 영화’ 역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영화 시장에는 ‘대만 뉴웨이브 영화’ 외에 기존의 ‘타입’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갖가지 상업 영화가 번성했다. 이 시기를 ‘영화 정치 구조의 약화’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당시 민주화의 충격 속에서 국민당 정권이 1986년 계엄 해제를 선포하게 되자, 대만 영화는 기존의 영화 검열 제도에 의해 설정된 갖가지 금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²⁰⁾ 이 가운데 ‘대만 뉴웨이브 영화’의 연장선인 1989년의 ‘비정성시(悲情城市)’는 1947년 일어난 ‘228사건’의 ‘금기’에 도전하였다. 이 영화는 TV와 비디오로 인해 날로 위축되어 가던 영화 시장에서 놀라운 흥행 성적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지식인 커뮤니티와 사회에서 ‘역사’와 ‘재현’에 관한 일련의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1980년대 초 대만 사회에 이미 ‘228 금기’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배경은 민주화 요구와 전술한 ‘중국 의식’과 ‘대만 의식’의 대립이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비정성시’ 상영 1년전 공개 출판된 『고단한 60년-228사건 27부대장 중이런 회고록(辛酸六十年—二二八事件二七部隊部隊長鍾逸人回憶錄)』은 사건 발생 당시 무장 부대를 조직하여 국민당 군대와 대항했던 중요 당사자의 기억을 공개하여 ‘금기’에 도전하는 효과를 노렸다. 이 책에 서문을 쓴 문학과 세 명의 학자들은 “함께 역사를 쓰자”, “진상의 회복”, “이 땅의 역사를 소중히 아끼자”, “그 시대를 위한 산증인”²¹⁾과 같은 표현으로 역사 해

20) 盧非易, 전제서 『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 297, 280쪽. 이 밖에도 이러한 기존의 ‘금기’는 윤리 도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재, 중국 영화 및 중국 관련 정치 소재, 심지어 중국의 풍경 등까지 포함한다.

21) 鍾逸人, 『辛酸六十年 二二八事件二七部隊部隊長鍾逸人回憶錄(上)』, 台北：前衛出版社, 1993년 증보신판(1988년 초판), 「序一」~「序四」. 이 밖에 서문을 쓴 네 명은 각각 李喬, 陳芳明, 張炎憲, 李筱峰이다.

석권 쟁탈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1986년 국민당 정부의 계엄 해제를 전후하여 대만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 '228사건'에 관한 '개인 기억'은 전술한 항일 '역사 기억'에도 전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허구 텍스트로서 대중 문화 영역에 '비정성시'가 출현하면 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구도’로 저자 자신이 인식하는 역사(또는 기억하는 과거)를 꿈속의 기억처럼 끊임 없이 섬멸하는 어지러운 그림자 속에 넣어, 과거의 역사를 훑쳐보는 듯한 자리에 관객들을 초대”²²⁾하는 순간, '228사건'이 가진 '금기적 성격'은 사라지고, 이에 유발된 '228사건'에 관한 '개인 기억'이 같은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비정성시'라는 '통로'를 통해 대만 사회에서 '228사건'과 관련된 '집단 기억'이 순식간에 형성된 것이다. 이 '집단 기억'은 이 때부터 항일 '역사 기억'을 전복시키는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후 대만 사회에 갖가지 '다원/대립'의 '역사 기억'이 점차 확산되는 출발 신호가 되었다.

'228사건'에 관한 '집단 기억'이 그 전의 항일 '역사 기억'을 신속하게 붕괴시키고 그를 대체하게 된 것은, 그 '집단 기억'이 식민지 시대와 전후 대만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이정표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진상'과 '역사'를 추구하게 되면서, 식민지 시대와 전후라는 두 상이한 '시대'의 비교 속에서 '228사건'의 발생 원인을 찾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식민지를 경험한 대만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다. 전후 성장하면서 '집단 기억'을 경험을 가진 전후 세대는, 대만 역사 경험 과정에서 '본토 의식' 심지어 '대만 의식'의 근원을 찾으려고 할수록 항일과는 구별되는 '역사 기억'을 필요로 했다. 이를 통해 자신들에게는 거의 암묵이나 마찬가지로 '228사건'과 경험해보지 못한 식민지 '시대'를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 또는 '228사건' 속에 도대체 어떠한 '본토 의식' 또는 '대만 의식'이 있는가는 본고의 관심이 아니지만, '228사건'과 관련된 식민지 시대 '역사 기억'이 필요하다면, 식민지 경험을 가진 '개인 기억'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1990년 이후 식민지 경험자가 자신의 '회고록'을 공개 출판하는 현상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통해 그러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커졌음을 관찰할 수 있다. 대만 학술회의 최고 지도자격인 중앙연구원조차 산하 근대사연구소에서 1991년 초에 간행물『구술역사(口述歷史)』에서 '228사건 특집호'를 편성하기로 결정했을 정도였다. 두 회에 걸친 '특집호'에서는 1989년 이후의 인터뷰(대부분 인터뷰는 1991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를 기반으로 모두 75 편의 '인터뷰 기록'²³⁾을 수록하였다. 여기서 드러난 갖가지 '개인 기억'의 거의 공통적인 시각은 바로, '228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전후 대만을 접수한 국민당 정부와 군대의 극심한 부패를 직접 지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식민지 시대 대만의 '진보성'와 전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온 통치자들의 '낙후성'의 대립과 갈등에서 찾는 일종의 문화 '변별' 담론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기에 '228사건'과 같은 '개인 기억'이 막혔던 물꼬가 터지듯이 대만 사회에 흘러 넘치면서, 식민지 시대의 '개인 기억' 역시 '228사건'의 '부산물'처럼

22) 盧非易, 전제서『台灣電影：政治，經濟，美學』, 305쪽.

23)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근대사연구소(近代史研究所) 구술역사편집위원회(口述歷史編輯委員會),『口述歷史 第3期 二二八事件專號』,『口述歷史 第4期 二二八事件專號』,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2, 1993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비정성시’는 ‘228사건’에 관한 ‘개인 기억’이 ‘집단 기억’으로 모여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으며, 동시에 식민지 시대의 갖가지 ‘개인 기억’ 역시 이를 빌어 식민지 시대에 관한 ‘집단 기억’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두 현상이 마치 쌍둥이처럼 동시에 나타나면서, 식민지 시대와 전후라는 두 ‘시대’의 차이 비교가 인식론적으로 일종의 ‘정상’적 현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 기억’이 모여 형성된 두 가지 ‘집단 기억’이 서로 끊임없이 ‘재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228사건’의 ‘집단 기억’을 사건 자체와 유리되게 만들었다. ‘228사건’에 대한 ‘역사 기억’을 찾으려는 전후 세대를 만나면서, 식민지 시대 ‘역사 기억’의 형성이 촉발된 것이다. 식민지 시대와 전후라는 두 ‘시대’의 차이가 ‘진보/대만VS낙후/중국’의 비교라는 일종의 문화 담론이 되자, 국민당의 정책적 색채가 농후했던 전술한 항일 ‘역사 기억’은 자연스럽게 재빨리 와해되었다. 이는 항일 ‘역사 기억’이 붕괴에 직면하자, 실제로 중일 전쟁 경험을 가진 ‘개인 기억’이 재빨리 모여들면서 ‘집단 기억’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대만에서는, ‘종족(族群)’이라는 어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일부 현상들 역시 종족 문제 또는 종족 분쟁의 개념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게 되었다.²⁴⁾ 항일 ‘집단 기억’으로 항일 ‘역사 기억’을 지속적으로 지탱했던 그룹의 구성원은 대부분 1945년 이전에 중국 본토에서 항전 경험을 하고 1949년 이후 대만에 온 사람들로서, 전후 초기의 ‘외성인(外省人)’이라는 호칭에 따라 이러한 종족 분류 구조 속에서 ‘외성족(外省族群)’을 형성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식민지 ‘집단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1980년대 말 갑자기 나뉘는 식민지 ‘역사 기억’을 형성한 그룹은 ‘본성족(本省族群)’으로 분류되었다. 1992년 이후 민주화가 시작되고 통제되었던 언론이 개방되면서 대중 매체가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경쟁을 시작하자, 상술한 두 그룹은 다양한 기억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었고, 각 그룹은 종족을 단위로 하는 ‘집단 기억’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각자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대체로 종족의 위치와 관점에서 자기 종족의 ‘역사 기억’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대만에서는 각종 ‘역사 기억’이 서로 대립했다가 다시 하나의 ‘역사 기억’을 형성하는 등, 다원적인 동시에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IV. 글을 마치며- 은유적인 식민지 ‘역사 기억’

현대 대만의 식민지 시대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은 이미 식민지를 경험한 개인과 그 소속 그룹이 사라지면서 점차 소멸하고 있다. 하지만 전후부터 지금까지 정치, 경제 등 제도나 이데올로기의 조작 또는 전화를 거친 어떤 ‘역사 기억’이 세대를 넘어 계속 전승되었으며, 아마 앞으로 정치, 사회 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리코르(P. Ricoeur)의 발언처럼, “역사와 허구(fiction)의 교차는 ‘역사의 구체화’에 일종의 은유적 지시의 성격을 부여하고, 역사의 기억으로 전화된 그 은유의 효과는 곧 수많은 ‘유추’를 낳게 된다.”²⁵⁾

24) 王甫昌, 『當代台灣社會的族群想像』, 台北: 群學出版, 2003년, 3쪽.

25) Paul Ricoeur(저), 久米博(역) 『時間と物語 第1卷 歴史と物語』, 東京: 新曜社, 2004년.

1989년 전후 대만의 식민지 ‘역사 기억’에 영향을 미친 ‘비정성시’는 ‘역사와 허구의 교차’이기 때문에 소위 ‘은유적 지시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대만 사회가 식민지 경험을 깊이 있게 파헤치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또 한 편, ‘비정성시’는 식민지 역사 경험과 일련의 문화 담론의 성격을 가진 ‘집단 기억’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나아가 은유적 의미를 가진 모종의 ‘역사 기억’까지 촉발시켰다. 2008년에 상영된 ‘해각칠호’는 단지 ‘역사와 허구의 교차’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식민지 ‘역사 기억’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유추해 낸 텍스트이다. 이렇게 ‘유추’의 성격으로 인해 ‘해각칠호’는 식민지 ‘역사 기억’에 대한 더 많은 기술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민지 ‘역사 기억’의 은유성까지 강화하였다.

‘해각칠호’에 의해 촉발된 은유적 ‘역사 기억’이 과연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에 대해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위치 또는 관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듯하다. 따라서 식민지 역사 경험에서 끊임 없이 은유화된 일종의 ‘역사 기억’이 이미 식민지 역사 경험을 벗어나 변화하면서 갖가지 다양한 ‘역사 기억’을 스스로 유추해 내고 있다. ‘해각칠호’의 흥행은 은유된 ‘역사 기억’의 끊임없는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대만 사회가 이미 역사 경험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표징이기도 하다.

본고는 비록 ‘대중 문화’가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 사이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화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으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못 하였다. 실제로 영화와 함께 ‘대중 문화’를 만들어 내는 대중 매체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 가운데 음반에 의존해 전파되는 가요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음성을 기록하는 음반으로 전달하는 ‘육성(肉聲)’이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해 내도록 하는 기능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시대감’ 심지어 ‘역사감(歷史感)’까지 환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앞으로 비교의 관점을 보완하여, 서로 다른 식민지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전후 대만 사회의 ‘역사 기억’과 그 변화의 특수성 및 일반성을 보다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in
Colonial Historical Experience:
The Formation and Evolvment of “Historical Memory” in Postwar Taiwan**

LI Chengchi

I. The memory evoked by *Cape No. 7*

A Taiwanese domestic film titled *Cape No. 7* took a hit at the end of August, 2008, becoming the top seller in domestic film market recently. The overall box office of first domestic release was up over four hundred and fifty million NTD by the end of October, which not only sets records for Taiwanese domestic films but also breaks the records of most of Hollywood films' box office in Taiwan. Rewriting the Taiwanese film history, *Cape No. 7* becomes the second grossing film in Taiwan since the box office report was taken down from 1990 on (the highest grossing film in Taiwan is *Titanic* in 1997). The main plot of *Cape No. 7* is grounded on two transnational love stories between Taiwan and Japan in different ages. One of backgrounds is set in contemporary Taiwan and the other is set around 1945, the time when those Japan people in Taiwan are sent back to their homeland. It seems that the interwoven plotting of these two cross-national love stories tends to show the great contrast between two different ages. However, on the one hand, because part of the story is concerned with historical colonial experience of Taiwan by the Japanese before 1945, and on the other, the film exactly leads a movie watching hot and attracts a number of audiences' attention; thus, *Cape No. 7* opens up a discursive space.

The most critical discussion is that some of critics regard the image of Japan in the film as the proof of Taiwan's inability to cut off the influences from Japan. Some even think that postwar Taiwan's culture development is still influenced extremely by Japanese culture. This perspective, basically, is a continuance of “colonizer vs. colonized” view after 1945 and is further considered by critics that the “anti-Japanese” experience in Taiwan's colonial history should be repeatedly intensified. Such discussion, generally speaking, centers on the post-colonial thinking—an idea which the colonized countries commonly possess after liberating from the domination of colonizers. Compared with this post-colonial notion, however, there is another interesting phenomenon in a number of opinions on *Cape No. 7*. That is, many personal affairs which happen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mentioned in a series of discussions. Not only some love stories between Taiwanese and Japanese are posted on Internet but also reported broadly by newspaper and TV. Among these discussions, the most special case is an actual experience called “A Real Version of *Cape No. 7*,” compared with the fictional love story *Cape No. 7*.

The reason why this “A Real Version of *Cape No. 7* real version” can be popularly issued by

newspaper is because the social phenomenon aroused by the film has a great effect on evoking an individual's memory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on bringing up a connection between "personal memory" with "collective memory" of Taiwanese society. Furthermore,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will lead people to project their own memory onto "historical memory" and thus interact with "historical experience" of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firstly how postwar Taiwanese's "personal memory" and the "collective memory" of Taiwanese society relate to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Japanese colonial period before 1945. Secondly, I will focus on how "historical memory," produc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y, changed after war to illustrate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Concerning with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I draw on M. Halbwachs's socio-psychological analysis, taking the memories produced by personal remembrance as "personal memory" and regarding the affections and perspectives sustained by group members out of a common notion or social relation as "collective memory." However, because each individual's memory is impossible to be equivalent to the other's, the "collective memory" which serves as a collection of various "personal memory" is thus contrary to "personal memory." Personal memory, therefore, has to be confirmed repeatedly by its own group or society, and this confirmation forms a "re-construction" process of memory. In this process of "re-construction," an "entry element," functioning as a "route," is needed between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in its social condition, for it can create a "space" for the interaction of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y.

Halbwachs further points out that there is an "intensive contrast" between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out of their "outward opposition". Although this contrast distinguishes the personal-collective memory into "inside-outside," "personal-social memory," or "biological-historical memory," Halbwachs contends that each individual takes participate in these two types of memories at the same time. Applying this dichotomy, in Halbwachs's view, "collective memory" is directly equivalent to "social memory" or "historical memory" and which is because Halbwachs says that "personal life is a part of history" and "the past should be represented diagrammatically to help out the personal memory."

J. Le Goff, an important scholar of French Annals School, whose insight on history and memory—"memory is featured by social contexts" is not greatly different from Halbwachs' idea. However, because "a race or a nation whose lacking of collective memory will impose an awful confusion on the collective identity. Collective memory hence becomes an important weapon for each social force to struggle for the power. Coping with the concept of forgetting and memory, nonetheless, is vital for the social class, institution and individual to dominate history." In other words, Le Goff clearly indicates that there is an operative force between "history" and memory. By reading Le Goff's notion, in my article, on the one hand, I will simply take "collective memory" as an aggregate of "personal memory" instead of taking it as "historical memory." On the other hand, I regard the "collective memory" as a kind of "historical memory" only when it gets involved with and manipulated or transformed by

historical-related recognition. That is,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will gradually vanish when the individual and its belonging group fade away. However, although “historical memory”—constructed by the institution or ideology such as the nation and society—is possible to be changed or twisted, it still has the possibility to be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Through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pop culture, especially the production of film, I take the pop culture, from 1950s to present, as a “route” or “space” in which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interact in Taiwanese society after war. Otherwise, I aim to illustrate how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y related to Taiwan’s colonial experience before 1945 through a series of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Last, I will further elaborate how “collective memory” is operated and how it becomes “historical memory” in terms of social-political formulation. Through these explorations, I propose to administrate that it is through a variety of transformations that Taiwan nowadays builds its multiple and contrast features by mapping out the “historical memory” of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aiwanese society after war, which is from the oppressed “collective memory” to anti-Japanese “historical memory” and from postwar growing “collective memory” to pluralistic opposite “historical memory.”

II. From oppressed “collective memory” to anti-Japanese “historical memory”

In Taiwan, the film-running started early in Japanese colonial period. In 1929, the actualization of film technology of talkie film made the film the most widespread mass media at the time before television was broadly available. However,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were few films produced by Taiwan people, let alone the production of commercial films with local fund. In the later 1930, the war period, Taiwan’s film market, along with Japanese “Wartime Film Policy,” was controlled by national and ideological system. With other entertaining films made in Japan, “National Policy Films” occupied the whole film market.

Neither the “National Policy Films” of the war period nor the entertaining film made in Japan, the elements and symbols of film had nothing concerning with Taiwanese culture. From postwar period to the middle of 1950, most of films were produced by Hong Kong and Shanghai corporations, Taiwan-made films were an absence on the big screen. However, Taiwanese Folk Opera (歌仔戲), sprang up in 1920s, had already built a set of familiar symbols which Taiwanese audiences can easily understand, including the historical stories of China and the Han people and some folk legends of Taiwan. Therefore, in 1954, the “Taiwanese Film” (the using language in film is Taiwanese) was popular and initiated the market in the form of “Taiwanese Folk Opera Film.”

According to Liao Jin-Fong, the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ymbols in Taiwanese film—from Taiwanese Folk Opera to film culture—are complicated, associating with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elements...etc. when the ruling power in Taiwan is transferred from Japanese colonial period into KMT regime. As Liao puts it, the Taiwanese film from 1955 to 1972 is considered a representation system, whose “content of culture imagination is represented in multiple discourses and is varied with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context. The actualization of Taiwanese film is dependent on international

film culture, national film culture and Taiwanese historical experience and living culture." The "reformulation of historical environment" is absolutely related to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phenomena and "Taiwanese historical experience" is associated with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fore 1945. For those Taiwan people who had experience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will distinguish the time into two different ages—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fter war period.

This distinction of ages will force postwar Taiwanese tak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whole age. No matter how many particular memories an individual possess, the "sense of age"—by regard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whole— will enforce each "personal memory" to assemble with another continuously and thus produce a "collective memory" towar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his article, Chen Wan-Yi points out tha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fore war Taiwanese intellectuals' passion and ideal were evoked by the prosperity of Taiwanese film in 1950s. They even considered 1950s an age of "Taiwan Renaissance." In other words, these intellectuals' memory of Japanese colonial period is stirred when they find that Taiwan-made films hit the market and becomes the mainstream of pop culture. In Wang Bai-Yuan's article, he even mentions that the "personal memory" of "Taiwanese prohibi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bviously, Taiwan people's experience of being repressed by Japanese is evoked as a "personal memory" and through the space—the Taiwanese film—where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interact, leading those Taiwanese who have the colonial experience to collect their "personal memory" into a "collective memory" towar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ccording to Ye Lung-Yen's perspective, as a contemporary researcher he claims that the Taiwanese film trend lasts from the mid-1950s to mid-1970s, however, the aura of the whole age is identical, that is, the Japanese dominating power is similar to KMT ruling power in Taiwan, in other words, Taiwanese is prohibited even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Yet, the core question is that Chen Wan-Yi, Liao Jin-Fong, and Ye Lung-Yen, all think that KMT's ruling power in Taiwan is the reason which enforces the development of "Taiwanese film;" however, how does it relate to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f concerning with the destruction of "Imperial Japan" after war in 1945 and Taiwan's consolidation by KMT into Republic of China after its liberation, we will discover that it is through a process of development that the "collective memory" of Taiwanese society towar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ecomes the "historical memory."

Due to the KMT regime takes "returning to China" as the core idea of their ruling strategy in Taiwan, "de-Japanization" immediately becomes the basic idea of their official policy. The idea of "culture" is also manipulated by KMT in terms of political power. However, such view of realizing Taiwanese culture developmen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ll easily lead our understanding of Taiwanese culture into a dichotomous thinking of "Japanese vs. Non-Japanese." Moreover, it also strengthens the ruling power of KMT regime in Taiwan by elucidating the meaning of "culture" from the angle of binary opposition, especially after "228 Incident," the "White Terror," and the "Period of Martial Law." If we say the culture, derived from and influenced by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aiwan is completely "Japanese," the cultural heritage will possibly be eliminated by the regime. Only when we

consider some of cultural semiotics in Taiwan “non-Japanese” and “Chinese” can certain part of “non-Japanese” culture preserved.

Accordingly, this distinction of cultural heritage is an official strategy of struggling for the dominative power. During the time when “Taiwanese film” is a mainstream of pop culture, it is inevitable for the film topic to be concerned with the concept of “China” or “Chinese.” Many of Taiwanese film centered on the China-Japan war is closely concerned with th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war.” After the mid-1960s, as Liao observes, the Taiwanese film “apparently represents the opposing positions between China/Taiwan and Japan” and even “takes Chinese’s war experience in the China-Japan war into the story when depicting people’s life in Japanese colonial period.”

Generally speaking, the mainstream of pop culture in Taiwan evolves from Taiwanese Folk Opera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postwar “Taiwanese Folk Opera Film,” a starting point of “Taiwanese film” production.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film types, the transformation of film topics is perhaps a strategy to identify with the “reformulation of historical environment.” However, if we associate Taiwan people’s “collective memory” of being oppressed by Japanese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China-Japan war, then, Taiwan people’s “collective memory” is able to be operated and transformed into a “historical memory” that related to the China-Japan war happened in mainland China.

In the early 1970s, the “Mandarin Film” took the place of “Taiwanese Film” in the film market and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Literary Romance Film” and the other is “Patriotic Policy Film,” focusing on the China-Japan war topic. Although “Literary Romance Film” also deals with the topic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1970s’ Taiwan, it still tends to entertain people. As for “Patriotic Policy Film”, it became popular at that time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position of Taiwan is shattered especially when Japan decides to break its diplomatic relation with Taiwan. Therefore, “Patriotic Policy Film”, as a contemporary researcher Lu Fei-Yi puts it, was enthusiastically supported by KMT regime, especially after the film “The Everlasting Glory” successfully published in 1974. Due to the late 1970s’ collapse of nationalism of China, Taiwan image and international position, in Lu’s words, the policy film whose topic is based on the China-Japan war actually aims to “look for the memory of victory in the past history to decrease the frustration in reality.” Moreover, the “Patriotic Policy Film” also becomes KMT regime’s tool of responding the national crisis at that age.

Through the early “Taiwanese Film,” as a “space”, Taiwan’s “collective memor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s able to be transformed into the “historical memory” of the China-Japan war. After the rising of “Patriotic Policy Film”, as Liao puts it, “Taiwan’s colonial experience is apparently eliminated through the de-Japanization of policy film.” The “historical memory” of resisting the Japanese in terms of Chinese people is almost equivalent to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II. From a postwar growing “collective memory” to a pluralistic opposite “historical memory”

Around 1980, succeeding the effects of serial international incidents from 1970s, the political and social state in Taiwan is in a quirky and volatile atmosphere. In the intellectual community, "debate over Taiwan Hsiang-Tu Literature" (Hsiang-Tu means rural or native) starts from 1977 and profoundly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ideological trend afterward. In the debate, various complicated standpoints repetitiously separate and reconstruct. Not until the "debate over Taiwan consciousness" in 1983, the main divergence of standpoint c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as the opposition between the so-called "China consciousness" and "Taiwan consciousness."

Compared with literature circle and other cultural fields who had already started practicing certain "consciousness of Hsiang-Tu" or "consciousness of locality" during "debate over Taiwan Hsiang-Tu Literature," movie market in Taiwan is "the last one sensing it." Lu Fei-Yi imputes this phenomenon to that movie is controlled by country and capitalists. However, it can't avoid the trend of challenging conservative status quo because of its powerful commercial essence. Although the first movie adopted from "Hsiang-Tu literature" doesn't appear until 1982, the fad named "Taiwan New Film" 1986 is regarded as intending to practice locality and realism. Even though it doesn't purposely reveal an intention of localization or consciousness of Hsiang-Tu, it reflects more personal growth experience in accord with Taiwan experience and reflects locality from it.

"Taiwan New Film" mainly aims to present the "personal memory" of producer's growth in postwar Taiwan. After grasping audience's attention and success in box office, it opens up a "route" which leads to "collective memory" aggregated by communal growth experience in Taiwan society. The main producers of "Taiwan New Film" grow in the postwar Taiwan, and it's rarely possible for them to contact with historical experience in colony. Nevertheless, after "collective memory" of society growth in postwar Taiwan is formed, it would incessantly "summon" personal growth experience in these postwar generations, intensify individual "personal memory" and then connect to "collective memory." That is, it results the continuous inter-re-construction of these "personal memories" and "collective memory." With speedy economic growth and social change in 1980s, there is a "sense of age" emerging in postwar Taiwan while postwar generation retrospects to his/her growth experiences by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This "sense of age" also separates postwar Taiwan into two phases: before 1980s and after 1980s.

To postwar generation, Taiwan historical experience in colony period partly exists in rare "personal memory" of their infancy. Thus, to observe experience in colony through their "age" of postwar growth experience, postwar generation could only depend on "personal memories" whose generation does bear colonial experience, or, depend on anti-Japanese "historical memories" shaped during 1950s to 1970s. I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if we attempt to illustrate postwar generation's general recognition of colonial experience in Taiwan. But, if we parallel their "inclination toward localization and Hsiang-Tu consciousness," to postwar generation who look from 1980s and observe an "age" before an "age" of their growth experience, colonial experience in Taiwan should be filled with mysteries and become a "taboo" for political reasons.

While “Taiwan New Film” rises, not only “Patriotic Policy Film” loses its vantage, but also “Literary Romance film” faces its end. In the film market, besides “Taiwan New Film,” there are various commercial films which can’t be categorized into any already-existed “genre.” If we regard this period as “slack of political structure in film,” the fact—KMT cannot help but repealed Martial Law in 1986 under the pressure of democratization wave—could be regarded as the beginning of challenges against film censorship system provoked by Taiwan films. Among those challenges, *A City of Sadness* released in 1989 succeeded “Taiwan New Film” movement. Owing to its challenge toward taboo of “228 Incident” happened in 1947, *A City of Sadness* not just became a high-grossing film in the gradually decreased film market (influenced by the appearance of television and video tape), but also evoked a serial discussion about the problem of “history” and “representation” among intellectuals and society.

In the beginning of 1980s, with the demand of democratization and the opposition between “China consciousness” and “Taiwan consciousness,” the atmosphere of challenging “228 taboo” was faintly emerging in Taiwan society. In *Bitter 60 years: Memoir of Captain of 27 Troop in 228 Incident*, Chuang Yi-Zen published one year earlier than *A City of Sadness* in theaters, memories of important persons involved in organizing military troops and fighting against KMT army during 228 incident was purposely exposed for the effect of challenging taboo. Through prefaces named “Let’s Write History,” “Restoration of Truth,” “Cherish History of this Land” and “Being the Living Testimony for that Age,” one writer and three scholars represent the struggle for the righteousness of interpreting history. In other words, around the repeal of Martial Law in 1986, the related “personal memories” of “228 Incident” started to spread in Taiwan society and contained the possibility of challenging anti-Japanese “historical memory.”

A City of Sadness manifests history known by author (or memory in past) in a memory-like dream with flashing lights and shadows, and, with the alienated frame composition, it also provides audience an ambiguous position peeping the historical past. While this fictional text grounded upon “228 Incident” appeared in the pop culture field, the “taboo property” carried by “228 Incident” was suddenly broken. At the same time, “personal memories” provoked and related to “228 Incident” would constantly converge in the same direction: through the “route” named *A City of Sadness*, “collective memory” was rapidly formed by related “228 Incident” experience in Taiwan society. From this moment, this “collective memory” had filled with subversive energy of anti-Japanese “historical memory.” It was also the beginning which imbues afterward Taiwan society with “multiple/opposite” “historical memory.”

As for the reason why “collective memory” of “228 Incident” quickly breaks previous anti-Japan “historical memory,” not only because this “collective memory” is not sufficient enough to mark ou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lonized and the postwar Taiwan; but also because the drive toward “truth” and “history” attributes the cause of “228 Incident” to the comparison of two different ages: colonial and postwar periods. This attitude is taken for granted for Taiwanese with colonial experiences; however, to the postwar generation with “collective memory” of postwar growth experience, the more they wish to find out the origin of “local consciousness” and even “Taiwan consciousness,” the more they need

certain "historical memory," which is different from anti-Japanese one, for helping them to understand both ambiguous "228 Incident" and their inexperienced colonial "age."

To analyze what kind of "local consciousness" or "Taiwan consciousness" are involved in the colonized period or during "228 Incident" is not the aim of this paper; however, since certain "historical memory" of colonial experience which relates to "228 Incident" is needed, "personal memory" of colonial experience is needed. That is, from the increase of "memoir" publication since 1990, we could observe that this need is also incessantly increasing. In addition, Institute of Modern History in Academic Sinica (the highest institution of academic field in Taiwan) decided to edit "Special Issue of the 228 Incident" in regularly-published *Oral History* journal. In two "Special Issues," there are totally 75 "interview records" based on the interviews made after 1989 (most of the interview time are made after 1991). The commonest perspective among those varied "personal memories" is their concrete accusations: they blame KMT government, which took over Taiwan then, and its corrupted troops for causing "228 Incident." Furthermore, this accusation becomes "identification" in the realm of cultural discourse; that is, the accusation of incident's "real cause" falls into a dichotomous paradox: the "progress" in colonized Taiwan and the "regress" of postwar governor from China.

Thus, like "personal memories" of "228 Incident" pervading Taiwan society as undercurrents since mid-1980s, "personal memories" in the colonized age would fluctuate as by-products while discussing "228 Incident." Namely, with its appearance, *A City of Sadness* provides a "space" where "personal memories" related to "228 Incident" could be aggregated as "collective memory;" simultaneously, these varied "personal memories" in colonized age have also gathered together to form a certain "collective memory" of the colonized era. Both sets of memory emerge correspondingly as twins. This phenomenon shows that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ges," the colonized and the postwar, is an epistemological "normal state" on one hand. It also makes two sets of "personal memory" incessantly reconstruct its "collective memory" and forces "collective memory" of "228 Incident" departed from incident itself. Therefore, while postwar generation seeks for "historical memory" of "228 Incident," they would also simultaneously influence the formation of "historical memory" of colonized age. Then whereas the difference between colonized and postwar age is regarded as a cultural discursive comparison between "progressive/Taiwan" and "regressive/China," the fore-mentioned anti-Japanese "historical memory" with KMT official color thus collapses naturally and rapidly. Or one can say that while the anti-Japanese "historical memory" facing this collapsing moment, "personal memories" with practical China-Japan war experience must be rapidly collected and sustain itself in the form of "collective memory."

In Taiwan, right after the 1990s, the word "ethnic group" began to be used popularly; some phenomena were paid heed and could be depicted by the concept of ethnic group problems or ethnic group issues. Since most members of those major groups—which continued to support the anti-Japanese "historical memory" with anti-Japanese "collective memory"—are those who gained war-experience in Mainland China before 1945 and came to Taiwan after 1949, in the differentiation-structure of ethnic imagination, they are called as "Mainlander ethnic group" following the name used after the early

post-war period—"mainlanders." Comparatively, the group—which bears "collective memory" in colony and abruptly constructs "historical memory" of colony around the end of 1980s—are attribute to "Islander ethnic group." Basically, because of adopting democratic system and abolishing media censorship after 1992, the mass media started to compete and follow the principle of capitalism. That is, not just for the fore-mentioned two ethnic groups, any kind of memory could possibly discover a "space" for aggregating memories. So, each ethnic group started to own its "collective memory." Besides, in accord with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each ethnic group takes, each of them would form its "historical memory" from its position and perspective. Since then, in Taiwan, multiple "historical memories" sometimes opposite each other and sometimes mutually construct one another. This relationship among "historical memories" forms a multiple and pluralistic opposite landscape.

IV. Conclusion: the metaphorical "historical memory" of colony

With the decrease of the individual and his/her group who carries the colonized experience, the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of colonized Taiwan gradually faded away. But, from post-war period to present, undergoing institutional or stereotypical manipulations or transformations in political and social area, some "historical memory" would be continuously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or incessantly evolve in accord with upcoming political, social changes. As P. Ricoeur proclaims, the intersection of history and fiction would infuse a metaphorically indicative characteristic into the concretization of history; the memory that transforms into histories, with its metaphorical effects, would produce various analogy.

Owing to its "intersection of history and fiction," *A City of Sadness* in 1989, which influences post-war colonial "historical memory" in Taiwan, carries with the so-called "metaphorically indicative characteristic" and prompts Taiwan society to investigate the colony-experience more in depth. On the other hand, *A City of Sadness* also makes historical experience in colony related to some "collective memories" bearing cultural discursive property, and even arouses certain "historical memories" containing metaphorical sense. However, *Cape No.7* released in 2008 is not only an "intersection of history and fiction," but also a text analogized from ingenious manipulations of these "historical memories" in colony. Since it contains such an "analogical" characteristic, it provides people more discursive spaces toward "historical memories" in colony and infuses more abundant metaphorical property into "historical memories" in colony.

Corresponding to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positions or notions, the implication of metaphorical "historical memories" evoked by *Cape No.7* would be variously different discourses. Thus, as a "historical memory" which constantly transforms historical experiences in colony into metaphors, it had departed from historical experience in colony, evolved independently and analogized much more multiple "historical memories." The success of *Cape No.7* represents the metaphorical "historical memory" would incessantly continue evolving on one hand; it also represents Taiwan society gradually distances itself from historical experience in colony farther and farther.

Besides, although this paper proclaims that "pop culture" could become a "route" between "personal memory" and "collective memory," the discussion except movie can't be included in for the present inability. To tell the truth,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mass media which co-construct "pop culture." Among them, songs spread through records are also quite important. Because "incarnated voice," (留聲) passed down by the records which preserve voice, powerfully functions while people "memorize" past, it seemingly possesses stronger effects of provoking "sense of age" and even "sense of history." To take a further step, if we take situations in different colonies into consideration, subsuming the comparison viewpoint would make us realize the particularity and generality of "historical memory" evolvement in postwar Taiwan society from more perspectives.

• Panel 1-2 아시아(Asia)主義의 連鎖

Moderator 後藤乾一 (GOTO Kenichi, 早稻田大)

Panelist-1 松浦正孝 (MATSUURA Masataka, 北海道大)
: 「小日本主義」, 「民間財界主義」, 「大亞細亞主義」
- 近代日本におけるアジア主義の三つの可能性
(‘소일본주의’, ‘민간재계주의’, ‘대아시아주의’)
- 근대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주의의 세 가지 가능성)

Panelist-2 羅京洙 (RHA Kyungsoo, 早稻田大)
: 朝鮮知識人 柳泰慶과 잡지 『亞細亞公論』

Panelist-3 紀旭峰 (CHI Hsufeng, 早稻田大)
: 大正期在京台灣人留學生とアジア
- 『亞細亞公論』を手がかりとして
(다이쇼(大正)시대 재경 타이완인 유학생과 아시아
- 『아세아 공론』을 토대로)

Panelist-4 金炅一 (KIM Keongil, 韓國學中央研究院)
: 日本의 아시아(Asia)主義와 東아시아(Asia)

Discussant 吳瑛燮 (OH Youngsob, 延世大)
河世鳳 (HA Saebong, 釜山海洋大)

「小日本主義」、「民間財界主義」、 「大亞細亞主義」

－ 近代日本におけるアジア主義の三つの可能性 －

■ 松浦正孝（北海道大蔵校） ■

「小日本主義」、「民間財界主義」、「大亜細亜主義」

－ 近代日本におけるアジア主義の三つの可能性 －

松浦正孝（北海道大蔵校）

〈目 次〉

- I. はじめに
- II. 「小日本主義」－旧外交」的な三浦鍔太郎から「新外交」的な石橋湛山へ－
- III. 「大日本主義」から「大亜細亜主義」へ－宇都宮太郎と松井石根・大亜細亜協会－
- IV. 「民間財界主義」
- V. おわりに

I. はじめに

第一次世界大戦以降の「新外交」時代以降において、日本を中心に存在したアジア主義の可能性を考えると、筆者の整理では、主に三つの可能性が影響力あるものとして考えられる。但し、本報告では、今回の会議の共通テーマが「東アジア知識交流と歴史記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で日本のアジア主義を論ずる際に必ずといって良いほど言及されてきた、「京都学派」や三木清など、思想史研究者が重視してきた知識人をほとんど扱わない。むしろ、軍人やジャーナリスト、財界人といった、当時の日本社会においてかなり高い程度の知識・教養を持ち、同時に現実社会に対する実際の影響力を持った人々を扱う。それは、一つには、筆者が現実の政治史における影響力を重視すると共に、これまで、日本思想史が重視してきた、実際の政治的影響力に疑問のあるこれら思想史家たちの思想自体を議論することに、興味を覚えないからでもある。しかし、本稿で扱う人物は、当時の日本帝国やアジア秩序が如何にあるべきか、という秩序観やイデオロギーを持っていた教養人であり、広い意味では「知識人」と呼べ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また、彼らの間では、様々な形の「歴史記憶」が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その点でも、本稿が、今回の会議のテーマに対して、何らかのお役に立つことを希望するものである。

II. 「小日本主義」－旧外交」的な三浦鍔太郎から「新外交」的な石橋湛山へ－

さて、まず第一に、日本では有名な「小日本主義」について、簡単に説明していきたい。周知のように、評論家石橋湛山は、第一次世界大戦後のワシントン会議に際し、「帝国の時代」の終焉を見据え、「一切を棄つるの覚悟¹⁾」の下に、「満洲を放棄し朝鮮台湾に独立を許し其の他支那に樹立している幾多の経済的特権、武装的足掛かりを捨ててしまえ、そして此等弱小諸国と共に

1) 「一切を棄つるの覚悟」(松尾尊 * [公の下に凡] 編『石橋湛山評論集』岩波書店、一九八四年)。

生きよ」と呼びかけ、日中提携を論じた²⁾。石橋の立場は、一つの理想主義ではあるが、経済的リベラリズムに立脚したアジア主義の一類型とすることができよう。石橋は、一九二一(大正一〇)年、次のようにすら述べている。

「朝鮮・台湾・樺太・満州という如き、わずかばかりの土地を棄つることにより広大な支那の全土を我が友とし、進んで東洋の全体、否、世界の弱小国全体を我が道徳的支持者とすることは、いかばかりの利益であるか計り知れない。もしその時においてなお、米が横暴であり、あるいは英国が驕慢であって、東洋の諸民族ないしは世界の弱小国民を虐ぐるが如きことあらば、我が国は宜しくその虐げらるる者の盟主となって、英米を膺懲すべし。この場合においては、区々たる平常の軍備の如きは問題ではない。戦法の極意は人の和にある。驕慢なる一、二の国が、いかに大なる軍備を擁するとも、自由解放の世界的盟主として、背後に東洋ないし全世界の心からの支持を有する我が国は、断じてその戦に破ることはない。もし我が国にして、今後戦争をする機会があるとすれば、その戦争はまさにかくの如き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³⁾」

注目すべきことに、石橋は、「アジア解放のための戦争」をすら呼びかけている。大学卒業後一年間生活した軍隊において、一生を下士として兵卒の教育に捧げて良いと考えた湛山⁴⁾は、もちろん非戦平和主義者ではなかった。湛山の「アジア主義」は、『東洋経済新報』歴代の主幹であった植松考昭、三浦鍔太郎らの主張をさらに発展させ、リベラリズムと湛山なりの現実的な功利的・経済合理主義の理論とに基づいた主張であった⁵⁾。英国流の自由貿易・工商立国主義に立脚した湛山は、資源に乏しく領土が狭小で過剰な人口を抱える日本が、植民地を持つことは経済的に不利益であるだけでなく、植民地を持つことによって軍事拡張競争を生み、戦争の危険を招くことになると述べて、軍備撤廃論を唱えた。しかし、有力野党憲政会の総裁加藤高明は、同年九月の憲政会北陸大会の演説において、「もしかくの如くんば、日本は何のために支那と戦い、露西亜と戦ったのであるか、また日本のみ、これを還したりとするも、その他の諸国は果して如何。」云々とした議論を批判し、時の首相原敬もまた同様の意見であった。軍縮論者で「憲政の神様」と呼ばれた尾崎行雄も、湛山に向かって直接、「壮丁百万の血をそそぎ、二〇億の国費を費やした満州を、今日放棄するというのがごときことは祖先に対して申しわけない」と述べた。湛山自身、「当時においては、こんな議論は一平和主義者の空論にすぎず、一般には受け付けられなかった」と回顧している⁶⁾。

ワシントン会議に際してのこのような湛山の主張の源流は、湛山の上司であった三浦鍔太郎が第一次世界大戦前夜、それまで朝鮮植民地化や満州確保も含め政府の施策を擁護していた『東洋経済新報』を、帝国主義批判へと転換したことに遡る。特に、一九一三(大正二)年一月五日号から三月一五日号にかけて七回にわけて連載した「満州放棄か軍備拡張か」、及び同年四月一五日号から六月一五日号にかけて六回で連載した「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が、その中心である。三浦は、『東洋経済新報』誌上では、植民地朝鮮の放棄は論じていないが、同年、雑誌『第三帝国』一十一月一〇日号に掲載した「減税の絶叫」において、三浦は大陸拡張論を批判し、将来にお

2) 増田弘『石橋湛山研究』(東洋経済新報社、一九九〇年)一〇五頁。

3) 「大日本主義の幻想」(松尾尊* [公の下に] 編『石橋湛山評論集』)一二一頁。

4) 「昭和一二年の年頭に当り社員諸君に希望す」(石橋湛山全集編纂委員会編『石橋湛山全集』第一〇巻、東洋経済新報社、一九七二年)五一四頁。

5) 増田弘『石橋湛山研究』(東洋経済新報社、一九九〇年)、姜克実『石橋湛山の思想史的研究』(早稲田大学出版部、一九九二年)、増田弘『石橋湛山』(中央公論社、一九九五年)を参照。

6) 石橋湛山著『湛山回想』(岩波書店、一九八五年)二一一~二一二頁

ける植民地朝鮮の放棄にまで言及していた。

「日露戦争の結果日本は満鉄を得た、遼東半島を租借した、朝鮮を合併した、外観、威すこぶる調うたわけだが、それがために我が国とこれ等の地方との貿易がどれだけ増したか、統計の上では約二倍の増額を示しているが、これ実は我が国が朝鮮満州経営のために年々数千万金を投じている、その金が貿易額の増加となって表れたものが多い。しからば満鮮を我が領土もしくは勢力範囲に収めたということは徒に国家の財政を膨張せしめたのみで獲るところは費やすところの十分の一にも当らない。それでも日本が今後永久に朝鮮満州を占領してこれを日本の国民生活に利する見込みがあれば幾分忍ぶべしとするも、鮮人は依然として鮮人、彼等を日本の軍隊に容れ、彼等を帝国議会で議員として迎えることは狭量なる日本人の忍ぶ能はざるところであろう。朝鮮には結局自治を許し、満洲は結局支那に還すか、さもなくば露に領せらるる運命にある。……大陸拡張論者は常にいう、朝鮮は日本の心臓に向けられたピストルだから占らねばならぬ、朝鮮を守るためには満州が要ると、そんなら満州の保証にはシベリヤがいる、あに啻にバイカルのみならんや。ウラルを超えてピータースブルグまで行かねば徹底しないのだが、そこまで突っ込んだものもないようだ。ロシアが満洲に来て、朝鮮に来て、我が国にして国力の充実するあれば断じて国家の独立を侵される患いはない。7)」

当時、三浦が、本当に朝鮮独立まで考えていたのか、満州放棄論のためのレトリックと

してそこまで論を進めただけなのかは、不明である。同年初頭に三浦が発表した「満洲放棄か軍備拡張か」の要点は、日英同盟を継続することで「支那大陸の保全」を目指し、軍備膨張による破綻を防ぐことを主張すると共に、松尾尊*氏も指摘しているように、満州放棄を主張することになったからである。この論文での三浦の要旨は、つまるところ、下記の部分に尽きていると言えよう。

「それ我が国の陸上国防線を長春の北、鉄嶺線に置くことは、南満洲の掌握を必随条件とす。これ我が国において、将世界の人士が、満洲の名目上支那の一部なるにかかわらず、事実我が国の領土としてこれを公認せる所以にほかならず。この故に今日長春の北に描ける我が国防線を退けて、これを朝鮮の国境および旅順の要塞に描くことに改めんか、これすなわち事実上満洲放棄を意味するものなり。これ吾輩が本論の初めにおいて明白に宣言せるところにして、吾輩の満洲放棄論は要するに我が大陸防御戦を改めて、これを旅順と朝鮮の国境に描かんと欲するものにほかならず。8)」

朝鮮放棄論まで行くと、三浦の議論は当時の世論から突出する。しかし、松尾氏も指摘す

る通り9)、三浦は「海軍拡張の理由如何」(『東洋経済新報』一九一三年七月五日号・七月一五日号)冒頭でこう宣言している。

「近来、陸軍の拡張に関しては反対論が大分見えてきた。その直接の理由は財政の困難、到底これを許さずというにあるが、この論者は結局少なくとも満洲から蒙古ないし北支那に我が領土を延ばして行こうという大陸発展政策に反対するところまで行かねばならぬ。また現に明晰な頭脳の人々は、その社会的位地や、その他種々の関係から、明言こそせぬが、多くは満洲放棄を是認し、我が国防線を朝鮮国境に引き下げ、同時に陸軍現在の規模の縮小を希望する者も尠くない。而してこの陸軍拡張反対、ないし陸軍縮小論は、近来ますますその氣勢を高めようや

7) 松尾尊*編『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鍬太郎論説集>』(東洋経済新報社、一九九五年)一八八~一八九頁。

8) 三浦鍬太郎「満洲放棄か軍備拡張か」(同上書所収)一二〇~一二一頁。

9) 松尾尊*「解説・三浦鍬太郎小論」(同上書所収)四一二~四一三頁。

く一般の風潮を成しつつあるの観がある。¹⁰⁾

この引用に見られるように、財政窮乏や中国情勢などを理由に、植民地朝鮮国境までは撤退すべきであるという多くの賛同者を、三浦は、政財界を始めとする世論に得ていた。朝鮮の植民地領有までは確保しておいて、それ以上は拡張しないというのである。それならば、三浦は軍拡競争を憂慮する政財界に多くの支持を得ることができた。実際に、前年の一九一二(大正元)年一二月、第二次西園寺内閣は、陸軍の二個師団増設案を閣議で否決し、これを不満とする上原勇作陸相により単独辞職提出が行われたため、西園寺内閣は総辞職し、憲政擁護運動に始まる多様な勢力の改革要求を包含した大正政変の幕が切って落とされたのである¹¹⁾。そうした時代風潮の中で生まれた『第三帝国』は、この一三年に茅原華山らによって創刊され、「民本主義(反官僚主義)」や植民地放棄論・小日本主義を掲げた急進的自由主義の雑誌である。地方青年や朝鮮人学生らをも読者に持つこの雑誌で、三浦は、茅原と共に朝鮮放棄論を一度論じた¹²⁾。理想としての急進主義的植民地放棄論は『第三帝国』に、現実問題としての軍備拡張・大帝国化反対の満洲放棄論は、実業界をその読者層に想定した『東洋経済新報』にと、三浦はその執筆先を使い分けた¹³⁾。三浦は、その意味で、当時の政財界のある部分の利益・主張を代表する政治的リアリストであったと言えるべきかも知れない。

三浦の「満洲放棄か軍備拡張か」にせよ、「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にせよ、いずれもこれ以上の軍備拡張を否定し、植民地を拡大し続けていくことの経済的非合理性を、具体的な数字を以て強調するものであった。「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は言う。

「これを要するに、我が国が海外に領土を拡張してこの方、我が国民が直接間接に負担せる額、台湾のために一億六千七百三十二万円、朝鮮のために一億八千三百十六万円、関東州および南満鉄道のために六千二百十二万円、樺太のために四百六十万円、その総計実に四億一千六百六十七万円を費やす。これあに本国民の由々しき大負担、大犠牲にあらずして何ぞや。それ我が国は、上は国庫の空乏に苦しみ、借金財政に借金財政を重ね、下は人民国費の負担の重きに泣き、資本の欠乏を訴う。一方、二十億の外債(官民共計)を負いて、その利払いに上下額を蹙め、他方、物価の法外なる高騰のために、社会人心の不平はいよいよ鬱積しつつあり。かくのごとき際において、我が政府は四億万円の大資本を国民より搾取して植民経営に投下し、而してこれら植民地の人民の九割は朝鮮人、支那人にして、我が本国と毫も喜憂を頒ち、苦楽を共にするの感情あることなし。」

「我が国は領土膨張政策の追行の結果、すでに軍備の拡張のために十億円を投じ、植民地の経営のために、四億一千万円を投じ、しかもなお足りるとせずして、今後数年の間に、陸海軍の充実に五億、七億を投下せんとしつつあるなり。世人輒もすれば、二回の大戦によって、台湾を得、朝鮮を得、樺太を得、関東州を得、満洲二十万方マイルの領土を掌握することを得たりとして、大いに特異の色ありといえども、この領土膨張のために、過去において、十億円を軍備拡張費に投じ、四億二千万円を植民地経営に投じ、はたこれがために現に年額五千一百万円を負担し、而して今後いよいよ増加するも断じて減少するの見込みなきこの大犠牲の事実を

10) 三浦鍬太郎「海軍拡張の理由如何」(同上書所収)一七五頁。

11) 坂野潤治『大正政変』(ミネルヴァ書房、一九八二年)を参照。

12) 松尾尊*『大正デモクラシー』(岩波書店、二〇〇一年)第五章を参照。

13) 同上、九六から九七頁でも、こうした点は指摘されている。

見て、知らず、いかにこれを解釈せんとするか。そもそもこれらの診療殿我が国に与えたる経済的利益は果してこの大犠牲を償うに足るものあるか。¹⁴⁾

三浦はその後、台湾と内地、朝鮮と内地の間の移民や貿易の状況を検討し、その結果、いずれも格別の効果がないばかりか、新植民地経営のために年々莫大な支出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結論づけるのである。

こうして、三浦が『東洋経済新報』誌上で導き出したのが、満州放棄論であり、従前の朝鮮・台湾植民地国境まで撤退するという「小日本主義」の結論であった。現有の植民地である台湾・朝鮮までは守る、ということである。例えば、植民地台湾を放棄せよ、という議論は、当時の三浦の筆からは出てこない。「行き詰れる台湾とその開展策」(一九一六(大正五)年七月五日号から一〇月五日号まで九回連載)は、台湾総督府の招待で視察した結果書かれた論文である。表題から期待される植民地主義批判とは異なり、三浦は、このように述べ、さらに第四代の児玉源太郎総督就任後(民政長官は後藤新平)、植民地台湾の発展が如何に顕著であったかを強調する。

「しかしながら、誤解するなかれ、台湾は行き詰まりというも、領台以来今日までの施設経営が、ことごとく間違っている、失敗だということではない。また今後台湾の進歩望みなしというのでもない。勿論、今日に至る二十年間の施設の中には、間違ったこともなかったではなかった。けれども、この間に仕遂げた台湾の大発展が、大体において、その誤らざりしことを明証して居る。また台湾の富源は、単に農業の上においても、その利用の程度は今なおさぶる幼稚であるから、従って今後に残され居る発達之余地もなお相応に多大である。ただ余の『行き詰まり』といえるは、従来の経営方針は、すでにその方針の持ち得る本来の働きを仕尽し、今日の台湾はもはやこの上にその効果を望み得ない時期になったその事実を指すのである。¹⁵⁾

三浦の将来に向かっての提言は、台湾総督専制政治を廃止し、台湾本島人の自治を樹立して本島人を台湾の政治経済の主人公となすことに尽きる。「余は台湾を南支南洋貿易に利用する論者として何人の後にも落ちぬ積りである」が、台湾発展の方向性はそれだけでなく、農業一つとっても、灌漑排水設備・治水設備・道路橋梁を行い、本島人に施肥・種苗・農具などの改善など農業技術を教育すれば、優秀な本島人は自ら、「台湾の富力を今日の二倍にし三倍にすること、期して待ち得べきを信じて疑わぬ¹⁶⁾」。要するに、第一次世界大戦勃発前夜の三浦における小日本主義とは、「小軍備主義」であって帝国主義の枠内にあり、産業主義、自由主義、個人主義であったのである¹⁷⁾。

むしろ興味深いのは、徹底した経済主義をとるが故に、三浦が華人に対する競争意識や警戒心を隠そうとしていないことである。満州放棄論を主張するにあたり、三浦は、「まず第一に問わんと欲する所は、満洲の主人は遂に何人なりやということなり。」という問いを立てる。大陸発展論者であったならば、当然日本人がそうあるべきであると答えるであろう。然るに、三浦は、こう続ける。

14) 三浦鍬太郎「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一五八～一五九頁。

15) 「行き詰れる台湾とその開展策」(松尾尊*編『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鍬太郎論説集>』所収)二八九～二九〇頁。

16) 同上三二七頁。

17) 三浦鍬太郎「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一三六～一三七頁。

「しからばすなわちいかなるものが果たして善く満洲の富源を開拓し、利用し、而して満洲において最も善く繁殖し得る人種こそ、当然その主人たるべきなり。今この見地よりして觀察するに、最も多くこの資格を備うるもの誰ぞ。日本人か、ロシア人か、将た支那人か。これ実に我が国が満洲掌握、大陸發展策を採用するに当たって、最先に研究解決を要する根本要点なり。史を按ずるに、満洲は永く支那にも朝鮮にも、無論露国にも属せずして、三国間に介在せる一大間地として、蛮族の跋扈に委せられたる所なり。しかるに愛親覚羅氏満族より起って、支那を征服しこれに君臨して以来、満洲は全く名実共に支那の統治の下に歸せり。而して今日満洲に跋扈するは依然支那人にして、支那人実に満洲総人口の九割九分を占め、従って満洲の富源を開拓し、利用し、盛んに人口を増殖しつつあるはまた実に支那人にして、ロシア人にあらず、日本人にあらず。」

ロシアが東清鉄道を満洲に敷設し、ハルビンを建設し、旅順を經營するなど、巨額の資本を投下したにもかかわらず、結局商権を拡張したのは、本来不利なはずの華人であった。日露戦争後、日本が南満洲鉄道を継承し満洲經營や「満洲」確保のための陸軍拡張に年々巨費を投じて、日本人の満洲での経済活動は縮小する一方で、「農業に商業に、独り支那人の發展伸暢を見るあるのみ」と、三浦は喝破する。満洲を軍事的・政治的に日本が確保しようとしても、結局その経済的利益を得るのは華人であって、日本が国庫支出金をどれだけ注ぎ込んでも、華人が移住・増殖して反映するだけだというのである。

三浦は、こうした華人の旺盛な経済活動の例を、植民地台湾にも求める。

「台湾が我が領土に歸するや、大小の政治邦人の手によって行われ、渡台邦人は征服者として万事はるかに有利の位地を占めたるにかかわらず、今日までの経過の結果によれば、支那人種の人口の増殖盛んなるに反し、在台邦人は繁殖する能わず。また経済上においても、邦人は輒もすれば支那人に比して遜色を示し、なかんずく、商業のごときは支那人のために駆逐せられつつあり。しかして優渥なる保護に浴する砂糖会社を除けば、台湾は全然支那人種の台湾にして、我が国民は自費をもって支那人のために官吏の任を尽くし、巡査の役を務めつつあるというも、決して過言にあらず。」

三浦によれば、華人のためにこうした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は、日本の台湾統治のみではない。

「香港においてもまたしかり、英国が同地を占領して自由港とせるや、爾来、英人の勢力と文明の知識とは、同地の商権を一手に掌握するを得たりといえども、支那人は同地においても年々その商権を拡張し、近來に至りては、支那人が同地の商売の主人たらしとするの勢いありという。そのほか安南に、海峡植民地に、経済上の主人は仏人にあらず英人にあらず、実に支那人なりというにあらずや。かくて支那人の優秀は到る処の事実これを立証せざるなし。支那人は真に恐るべき人種といわざるべからざるなり。」

こうした華人観を持つが故にこそ、三浦は、人口の九割九分を華人が占める満洲を放棄すべきであると述べるのである¹⁸⁾。

しかしながら、先にも述べたとおり、三浦は植民地台湾を放棄せよとは決して述べず、

18) 三浦鎮太郎「満洲放棄か軍備拡張か」九五~九七頁。

第一次世界大戦中の一九一六年、それまでの台湾統治を高く評価し、今後は植民地統治の枠内で、最大限に台湾人に政治経済上の権能を付与す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第一次世界大戦前夜における三浦の議論は、あくまでも植民地としての台湾・朝鮮を保持し、これを日本帝国の版図における限度とした上で、それらの植民地経営の方法を最大限にまで自治領化し、彼らの経済的インフラストラクチュアを整え、発展する方向に止まった、というのが筆者の見解である。後藤乾一氏は、『亜細亜公論』復刻版の解説において、『亜細亜公論』第二号である一九二二年六月号が、三浦の書いた「朝鮮に自治を与ふるべし」と題する論文のために発売禁止・全冊没収の処分を受けたことを紹介し、さらに、問題となった幻の三浦論文を再現している¹⁹⁾。正に朝鮮独立宣言が発表された一九年の三・一独立運動のすぐ後に発表されただけに、当局によって厳しい処分を受けたことは、容易に理解できる。しかしながら、その前年七月月から八月にかけて、石橋湛山が『東洋経済新報』に発表した「一切を棄つるの覚悟」や「支那と提携して太平洋會議に臨むべし」、「大日本主義の幻想」は、当局によるそうした出版禁止処分にあわなかった。処分の重さの相違の原因として、『亜細亜公論』が在日朝鮮人である柳泰慶を創立者・社長と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あったであろう。しかしもう一つには、石橋の主張が、主に、ワシントン會議において、中国と提携して、英米と対抗すべきことを論じる、という姿勢をとっていたことも、大きかった。湛山の背景には、一九年のパリ講和會議における日本提案の人種差別撤廃法案の否決や、二〇年の米国における第二次排日土地法の成立など二四年の排日移民法へと向かう潮流に対する、日本国民の間の人種的反感が控えていたためである。湛山は、その意味において、反人種差別的であり反西洋帝國主義的であり、華人に対する警戒を強く持っていた三浦よりもさらにアジア主義的であり、同時に理想主義的であったと言えよう。そしてそれ故に、恐らく、湛山は、あれだけ大胆な提言をなしたのであろう。

中国・インドを含む世界の有色民族国の弱小国と共に生きよ、と呼びかけた「一切を棄つるの覚悟」に続き、『東洋経済新報』一九二一年七月三〇日号「社説」で、湛山は、「大日本主義の幻想」(一)と共に、「支那と提携して太平洋會議に臨むべし」を書いた。そこで、湛山は、このように述べている。

「我が国が支那と共に、支那の治外法権の撤廃、関税改正問題、人種平等待遇問題等を携えて、太平洋會議に臨むなら、其結果は問う迄もなく、該會議が我国の為に開かれた程、有利なものに好転するに相違ない。

邦人は、太平洋會議を見て、英国と米国とがグルになって、我国イジめの魂胆で出来たのだと齒がみする。吾輩も英米両国にそうした意志の横わり居るを思う。我国は支那に対して、前言した如く、侵略的態度に出た。革命乱に乗じては漢口に兵營を建て、欧州大戦争には、二十一個条の要求をつき付け、或は金を貸付けては特権を取り、英国が生死の大戦に全力を傾けて支那を留守にした際、日本は此時なりと虚につけ込んで、傍若無人に振舞うた。英人は今に見よ戦争が済んだならと戦時中不快を忍んで来た。又米国は大戦前から極東政策に熱中し、其政策遂行上、差当っての第一の邪魔者は我国であ

19) 後藤乾一「日本現代史研究と『亜細亜公論』」(後藤乾一・紀旭峰・羅京洙編集解題『亜細亜公論・大東公論』龍溪書舎、二〇〇八年)。

る。英国がグルになって、支那を誘い、日本を袋叩きにしようと、其機会を待ち、或は作りつつあったことは、既に吾輩の幾度か警告した所である。去り乍ら、若し我国が早く悔い改め、今日迄、帝国主義的政策に依て得た一切を棄て、そして支那と提携して進むなら、英米から袋叩きにさるべき理由は消失すると同時に、局面は一転して、印度を領有し、白人濠州を作り、メキシコを圧迫し、有色人種を虐げ、菲律賓やグアムを武装して極東を脅威している英米が、遂に詮議せられる位地に立たねばならぬ。始め太平洋会議は邦人の憤慨する如く、日本イジめの意志で出来たとしても、日本の出様一つで、却って英米を自縄自縛に陥らしむることにもなし得る。而して如斯局面を好転せしむる鍵は、一に我国が支那と提携し得るや否やにある。

我政府には、斯うした大局の見えるものが、一人もないと見えて、この大覚悟の必要には一向に思も及ばず、依然として支那を袖にして、英国に縋り米国と諒解を得ようとしている。何たる事大主義の陋態だろう。この遣口で太平洋会議に臨むなら、いう迄もなく巴里会議の二の舞で、又々日支が取組合の茶番(英米から見て)、或は大悲劇(我国から見て)を演ずる他はない。そして其大詰は、英米が出て来て、『此の悪党が』というて日本の頭を打ち、『この勇敢なる青年よ』というて支那の頭を撫でるであろう。そして日支両国とも有色人種として永く白人から虐げられるのが落ちである。[傍線部松浦]

吾輩は巴里会議開催の際、我国は宜しく外政上の伝統を擲ち、歴史的の一切の行懸を捨て、弱小国、即ち謂う所の虐げられている有色人種を代表して、其の解放の旗印を真額に翳してこの世界改造の大会議に臨むべし、と勧めた。併し当局にはこの覚悟なくして遂に支那の反噬なる悲劇を引起した。当時吾輩は千秋一会の大機を、かくして宜しく逸去し了ったと、頓足して痛嘆したのであった。然るに天尚お我国を棄てず、今回の太平洋会議は、再び我国に大悔悟の機会を与えて呉れた。併し若し此度を失えば、恐らく三度はなかろう。而かも我政府人なし、又々此大機を空逸し了りそうなのを、如何にも惜しまれてならぬ。²⁰⁾

三浦は、一九二四(大正一三)年一二月東洋経済新報社の主幹の座を、翌年一月には代表取締役・専務取締役の座を、五〇歳で石橋湛山に譲った。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東洋経済新報』には、大正年間、三浦主幹の下、野崎龍七、高橋亀吉、石橋湛山という「三羽鳥」と呼ばれた人材があった。三浦が後継者として、三人のうち最年少の湛山を選ぶのと前後して、野崎は二一年ライバル社であるダイヤモンド社へと移って三九(昭和一四)年にその社長となり、高橋は二六年独立して高橋経済研究所を創立し、戦後に至るまで一二〇余冊にわたる経済分析の専門書を出版した²¹⁾。そして、『東洋経済新報』に残った石橋が理念主義的なりべラリズムを推進していくのと対照的に、高橋は、政府系のシンクタンク主宰者として、一九三三年のカナダ、そして三六年の北米ヨセミテにおける太平洋問題調査会議でソーシャル・ダンピング論を中心とした経済摩擦問

20) 「支那と提携して太平洋会議に望むべし」(石橋湛山『石橋湛山全集』第四卷(東洋経済新報社、一九七一年))三二~三四頁。なお、石橋がパリ講和会議の際に、有色人種のため国策の大転換をせよ、と主張したというのは、同巻の注解によれば、「人種の差別撤廃要求の前に」(一九一九(大正八)年二月一五日号「社説」)、「国際連盟の中心事業」(同年二月五日号「社説」)(いずれも、『石橋湛山全集』第三卷(同、一九七一年)所収)である。

21) 高橋亀吉については、『証券研究』八九号(一九八九年)「高橋亀吉研究」のほか、鳥羽欽一郎『生涯現役』(東洋経済新報社、一九九二年)などを参照。

題を日本側代表として論駁し²²⁾、「満洲国」財務部・經濟部、朝鮮総督府、台湾総督府などの依頼による視察・調査を行い、天津軍による華北侵略に通貨問題などで加担し²³⁾、戦時経済下の商工省中央物価委員会委員など²⁴⁾各種政府委員会の委員として、帝国政府及び植民地当局や軍部を擁護する立場で活躍した²⁵⁾。三浦は、第一次世界大戦中から政治関係の社説を石橋に委ねるようになり、代表権を石橋に譲った後も、取締役として石橋を側面から支え続けた²⁶⁾。しかしながら、これまでに説いてきたように、三浦と石橋との間には、実は、同じ経済本位の議論にしても、華商・華人に対する態度の違いがあり、また、植民地台湾に対する態度の違いがあった。三浦の議論は、日本の財界穏健派という背景から必ずしも大きく逸脱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ように思われる²⁷⁾。石橋は、アジア主義や日中提携を最優先に掲げる点において、三浦を、あるいは時代を、大きく超えていた。三浦の下から、その後の日本による東亜新秩序擁護の旗手としての高橋亀吉が袂を分かったのは、必ずしも不思議ではなかったのである。また、三浦鍬太郎と石橋湛山との「小日本主義」には、経済合理主義に裏付けられたリベリズムがあったことは事実であるが、両者の間には、より現実主義的で「旧外交」的な残滓を残す三浦と、より理想的・道義的で第一次世界大戦において「民主主義」国側が強調した「民族自決」原則に強い影響を受けた「新外交」な石橋、という形で、あくまでも相対的ながら、「小日本主義」の相違があった。三浦の「小日本主義」には、やはり英国の「小日本主義」からの敷衍という側面を強く見て取れるのである²⁸⁾。

このような意味において、「支那と提携して太平洋會議に臨むべし」の論文の引用部のうち、筆者が傍線を引いた部分は、重要である。湛山がこの引用部分の最後で述べたように、日本が太平洋會議において三回目の機会を逸し、中国侵略を進めた結果として、満州事変が起こった。三浦と石橋とが主張した満州放棄の対極として起こった満州事変を議題として、日本は中国と、国際連盟の場において、英米を含む西洋諸国の目前で争い、日本の満州撤兵を勧告する決議案が圧倒的多数で可決され、日本が連盟脱退を余儀なくされる、という事態が一一年半後に現出するからである。松尾尊*氏や湛山研究家姜克実氏の指摘するとおり、湛山もまた、満州事変後は満州事変や「満洲国」成立という既成事実を追認し、それ以後は、その上で、日中戦争の全面戦争化や三国軍事同盟には反対の論陣を張るようになった²⁹⁾。湛山は、理想的・理想主義的な植民地放棄論から一時撤退し、後に紹介する財界穏健派と同じ親英派の立場から帝国拡張論者を批判するという、新たな防衛線を築いたのであった。石橋が満州事変を追認したことを明確に認めないの

22) 酒井哲哉「東亜新秩序の政治経済学」(『国際政治』九七号、一九九一年)。

23) 松浦正孝『財界の政治経済史』(東京大学出版会、二〇〇二年)第五章を参照。

24) 同『日中戦争期における経済と政治』(東京大学出版会、一九九五年)第三章第二節を参照。

25) 鳥羽欽一郎『生涯現役』第六章。

26) 松尾尊*「解説・三浦鍬太郎小論」四一四~四一八頁。

27) 日中戦争が勃発して後、三浦が解決策として示したのは、「真の对手は英国」と、当時の反英の風潮をスローガンに掲げつつ、実のところは、法幣を中心とする中国における最大の経済権益を有する現実主義的な帝国主義国である英国と手を握り、「英国と戦をして居るのだ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認識して、今はその英国との戦いは中止すべきであるという徹底した覚悟がなければならぬ」、「結局真の意味の競争相手は英国だが、相携えて極東の国際秩序を両国の手で維持する」(「支那事変処理の方針」(一九三九(昭和十四)年二月一六日新経済体制協会講演、松尾尊*編『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鍬太郎論説集>』所収))三六〇~三六一頁)という、池田成彬ら財界の「親英派」が主張していた路線であった。

28) 三浦鍬太郎「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

29) 松尾尊*編『石橋湛山評論集』「解説」、姜克実『石橋湛山の思想史的研究』第七章。

は、歴史家として誠実でないばかりか、満州事変及び五・一五事件(一九三二年)以後の政治・外交環境の激変、言論の自由をめぐる変化を、正確に理解していないことを意味すると、筆者は考える。

なお、石橋湛山は、一九四六(昭和二一)年四月、戦後初めての総選挙に自由党から出馬した。準備不足のため落選した湛山であったが、米国占領軍の強い意向で成立した第一次吉田内閣に、落選中の身でありながら大蔵大臣として入閣し、積極財政を推進した。しかし石橋は、占領軍の使う終戦処理費が巨額であると反対すると共に、積極財政によって占領軍と対立し、四七年総選挙では当選したにもかかわらず、GHQによって公職追放された。その後、石橋は朝鮮戦争に際して強く米国を批判し、その後日中貿易促進論を唱えた。公職追放を五一年に解除され、五四年鳩山内閣成立と共に通産大臣となった石橋は、中ソ両国との関係改善を推進しようとした。鳩山が五六年日ソ国交回復実現を機に辞任すると、後任の自民党総裁として石橋が選ばれ、彼は首相として、積極経済政策や世界平和実現を柱とする新政策を発表した。ところが、その後政権基盤を強化するために行った衆院解散・総選挙による選挙運動の中で、石橋は過労と風邪のため脳血栓に倒れ、僅か二ヶ月で五七年二月、石橋内閣は退陣することとなった³⁰⁾のである。

さて、アジア主義の選択肢のうち、石橋の主張する植民地放棄・帝国主義的権益放棄を覚悟した対中提携が採られなかったとするならば、残るは、財界穏健派を基盤とした不完全な日中提携のアジア主義と、西洋帝国主義からのアジア解放を前面に押し出した対決的なアジア主義が残ることになる。まずは、後者から説明することとしたい。

Ⅲ. 「大日本主義」から「大亜細亜主義」へ—宇都宮太郎と松井石根・大亜細亜協会—

三浦鍔太郎が「満洲掌握ないし大陸発展政策を強行せんと欲せば、我が国は必ず日英同盟を放棄するの覚悟なかるべからず。しかも日英同盟を破棄すれば、同時に我が大陸発展政策もその基礎を失わざるべからず。もし日英同盟以外にその基礎を求めんと欲せば、我が国は海軍の大々的拡張を断行せざるべからず。而して我が国はこの無謀の軍備のために、まず自ら倒るるのほかなるべきなり。³¹⁾」と、大正政変に至る陸海軍軍拡競争のパラドクスを指摘していた時、これら満洲放棄論に猛然と反撃したのが、当時陸軍参謀本部第二部長(情報部長)であった宇都宮太郎陸軍少将である。

折しも三浦鍔太郎による「満洲放棄乎軍備拡張乎」が『東洋経済新報』に連載されていた一九一三(大正二)年一月、宇都宮は、中国・朝鮮への約二ヶ月にわたる視察旅行を行った。朝鮮に着いた一月一九日、宇都宮は、日記に次のように記した。

「警察署長、憲兵隊長代理等に迎へられ、多数の内地人と共に新築中の栈橋を進みし時の感想は、事物の一変と此多数内地人斯く続々入込みつゝある現況を見ては、多年の宿志今ぞ報て愉快言う可らず。願くは此実況を一日も早く今一步を進めて満洲蒙古に実現し度、此際、何物

30) 増田弘『石橋湛山』第五章~第六章。

31) 三浦鍔太郎「満洲放棄か軍備拡張か」一一三~一一四頁。

の痴漢ぞ、大陸政策を非難し、甚しきは笑談にも大陸の放棄を呼号するものぞ。謂ふ、彼等来て此実況を目睹且つは熟考し去れ。³²⁾

一月二二日に安東県を視察した折には、植林や耕作の可能性多きを見て、「朝鮮は前途必ず我一財産たるべき也。」との確信を深め³³⁾、満州に入った二三日には、朝鮮より岩肌の出た山を見つつも、「然れども大部分は尚植林し得べし。満州は決して棄べきものにあらず。」との感想を持っている³⁴⁾。その後、旅順、大連などを視察した後、棧橋増設中の大連港を見、満鉄本社で重役らと意見交換した宇都宮は、二八日、こう日記に書いている。

「それより満鉄本社に至り、満蒙の経済上より見ても愈々帝国に有益にして且つ必要なるの確信を深ふし、同時に此種試験所の事業の拡張せられ、諸種産業の案内者と為らざること、満蒙放棄論者、頑迷偏狭なる代議士や新聞記者等に現地を観光、此種試験の成績等を開示するの、彼等の啓蒙に尤も手短なるを感ず。³⁵⁾

一々宇都宮が闘志を燃やす「満蒙放棄論者」とは、三浦鍔太郎ら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ろう。一月三十一日、吉林省の中心である長春の殷賑ぶりに感銘を受けた宇都宮は、こう記す。

「都市の繁昌は勿論、兵略上、政略上尤も重要なる都会の一となるべきこと多言の要なし。併し夫れ以上余が心を刺激せしは、南満、中満至る所、将来施政の遺方一にては大発展の資質大なることにて、益々之を併呑するの、我自強自大以て自存せざる可らずと云ふ余が宿論の実現上、必要欠く可らざるの信念を固ふせり。³⁶⁾

宇都宮太郎は、旧佐賀藩出身であり、山県有朋、桂太郎、寺内正毅ら陸軍の主流長州藩閥と対立し、上原勇作前陸軍大臣を擁する薩摩閥・佐賀閥中心の「上原閥」の中心的存在であった。宇都宮ら「上原閥」は、陸軍主流派が、西洋列強による東漸を防御するため彼らとの協調政策を最優先し、日本の対アジア政策が人種的対立へと転化しないよう細心の注意を払いながら、満蒙権益の擁護を慎重に進めているのに批判的であった³⁷⁾。陸軍歩兵少佐時代の一九〇〇年四月、宇都宮は、「長州派を以て陸軍の要部を専占」したことに憤慨し、「薩長の消長は強て問ふ所にあらざるも、陸軍の要部に非戦主義者等の跋扈するは実に嘆ずべきなり。軍備拡張の大精神は誰か能く之を支持する者ぞ。」と日記に記して、「長州閥」の対西洋列強協調主義を罵倒しているほどである³⁸⁾。三浦鍔太郎や石橋湛山が中国統一論者であったのと対極的に、宇都宮は一貫して中国分割論者であった。

32) 宇都宮太郎関係資料研究会『日本陸軍と大陸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二巻(岩波書店、二〇〇七年)一八五頁。

33) 同上、一八七頁。

34) 同上、一八八頁。

35) 同上、一九〇頁。

36) 同上、一九二頁。

37) 宇都宮の桂首相の満蒙対策に対する批判的な意見については、同上一八一頁、一九一三年一月七日の項を参照。

38) 宇都宮太郎関係資料研究会編『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一巻、一九〇〇年四月二五日の項。

アジア主義者である宇都宮太郎は、かねて日清戦争後の参謀本部部員時代、台湾、朝鮮・華中・華南への長期出張後に提出した「秘 清韓旅行復命書」において、文明の扶植と東方諸民族の救済を果たし人種戦争に備えるために、清国を分割した上で日清韓同盟を結ぶのが上策であると説いていた³⁹⁾。そして、一九一一(明治四四)年一〇月、これを発展させた「対支那私見」を作成した。それによれば、キリスト教・白人種による帝国主義に対抗し、日本帝国を生存させる自強政策のために、まず、表面では清朝を、裏面では革命派を支援して、適当な時期に居中調停により中国を満漢二国家に分立させ、満洲を保護国化し南方政府とは同盟関係を結ぶのを上策とする。そして、もし西洋列強による中国瓜分が不可避の場合にはこれを抑制し、「平昔研究せる南北の諸地方」を獲得(そのうち北の日本分割地には満人、南には漢人の小朝廷を作り、他国分割地内の全人心を日本に収攬し我天皇に帰向⁴⁰⁾)すべきであると論じるものであった。この案は、腹心の武藤信義参謀本部第四課長⁴¹⁾と松井石根参謀本部支那班員に内示した上で、福島安正参謀次長を始めとする陸軍上層部や西園寺首相らにも示すこととされた⁴²⁾。そして宇都宮は、腹心の松井石根及び井戸川辰三を、三菱財閥の岩崎久弥から当時のお金で一〇万円の資金を貰い受け(後に五万円を返却)、この資金を孫文による国民革命支援や、満蒙独立工作、東南アジア工作などに運用させたのである。宇都宮は、これらの工作を通じて、中国を分割し、日本主導の形で南北政府の居中調停をして立憲君主国とする予定であったが、英国が主導する形勢となったため、南北講和を妨害しようとした。しかし結局、寺内正毅朝鮮総督ら長州閥陸軍幹部や第二次西園寺内閣の意向により、英国など西洋列強に追随することとなり、袁世凱・孫文の間で妥協が成立、清国皇帝は退位して清朝は滅亡した。宇都宮は、こうした動きに服従せざるを得ず、無念のうちに他日を期す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⁴³⁾。

その後も宇都宮は、満蒙権益を固めると共に、南方政府と満蒙とにより袁世凱を挟撃させて、満蒙は日本の手中に収め、本部は分立させるか南方政府に統一させ、他日日本が独力で支配できるようになるまで保全すべきであるという見通しの下に、南方政府を日本政府による「厳正中立」方針の範囲内で間接的に支援し、満蒙工作を続け、南洋事業にも関与している⁴⁴⁾。こうした宇都宮のアジア主義及び対中政策は、満洲事変後、宇都宮が後継者として期待した松井石根を中心とする大亜細亜協会によって、実に忠実に継承されていくのである。宇都宮はアジア主義者であったが、同時に三浦らの「小日本主義」と対立する「大日本主義」者の典型でもあった。

三浦鍬太郎は、一九一二(大正元)年一月から一二月にかけて『東洋経済新報』において連載していた「諸戦没後の英国と日露戦後の日本」で、こう論じている。

39) 同上、「解題」四五頁註17を参照。

40) 上記『宇都宮日記』に残された「対支那私見」は、上原勇作第一四師団長(宇都宮市)宛一〇月一九日付書簡にも記されているが、()内の部分がさらに加えられており、詳細なものとなっている(上原勇作関係文書研究会編『上原勇作関係文書』東京大学出版会、一九七六年、五五~五七頁)。

41) 佐賀閥。

42) 宇都宮太郎関係資料研究会『日本陸軍と大陸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一巻、一九一一年一〇月一五日の項。

43) 同上、一巻、一九一一年一〇月一五日の項から、同二巻、一九一二年一月二五日の項に至る記述や、一・二巻の解題を参照。

44) 同上、第二巻、一九一二年一月一七日から一九一三年四月九日の項までを参照。

「欧米人の中には、日本の戦争の結果、獲得物の大なりしことと、戦後常に軍備の大拡張を敢行せることとの事実を見て、日本国民は戦勝の獲物に甘酔し、戦争を有利なる商売と心得、遂に最も危険なる好戦国民たるの本性を露わし来れりとて、甚だしく我が国の勃興を嫌悪するもの尠ならず、この論固より欧米一部の偏見たるを免れずといえども、しかれども我が国民の多数が、従来の戦勝の結果に甘酔し、我が国勢発展の根本方針を領土拡張に定め、かくて帝国主義ようやく一世を支配せんとするの観あり。以為らく、大陸発展、支那分割。これ陸軍拡張の奥底に潜める目的なり。以為らく、領土を拡張せずんば、我が限りなき人口の増加をいかにして養うべき。吾人は人口の増殖を制限し、島国内に蟄居する小国民をもって満足する能わず。而して南洋諸島はまず第一に指を屈すべき我が国民発展の領土なり。もし避くべからずんば米国との戦争また決して辞するところにあらずと。これすなわち海軍拡張の背後に横たわれる結論なり。この領土拡張論ほど、戦勝の結果に甘酔して、未だ深くその弊害を自覚せざる国民の感情に投合するものあらず。これ実に今日のごとく軍備の大拡張を決行せしめたところの、最も有力なる理由たらずんばあらず。⁴⁵⁾」

ここで批判されている陸軍の拡張論こそ、宇都宮の構想であり、西洋列強の日本に対する猜疑心を警戒して軟弱であるとして宇都宮に批判されていたのが、当時の陸軍首脳部であった⁴⁶⁾。

朝鮮・満州の視察を終え、中国へと向かう前に、宇都宮は、二月八日、「近頃満蒙に於ける我地位を軽視するの愚説行はるるにより、之を矯め度」いとの意図から、「某紳士の言」なる一文を表し、後藤新平通信大臣や坂西利八郎大佐、伊集院彦吉在清国公使、青木宣純少将、佐藤安之助中佐らに見せた。満州放棄論などに対抗し、新聞や雑誌などの場でこれらへの反論を加えようと、その素地を作り始めたのである。そして、二月二四日に漢口から海軍方面に宛てて発したこれらの意見書に対して、三月九日、薩摩閥の山本権兵衛首相の意を承けた、その女婿でもある財部彪海軍次官が、「御来示ノ趣旨ハ大体ニ於テ賛成ナルモ、時期尚早シト認ムルニ付キ、此際実行ノコトハ、見合ハサレタシトノコトナリ。何レ詳細ハ拝眉ノ上ニ譲ル」という電報を返してきた。時の海軍の大立て者でもある首相が、自分の意見に少なくとも心中では同意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きたという、宇都宮にとっては望外の結果に、宇都宮は満足した⁴⁷⁾。新聞紙上や雑誌上を賑わす可能性のあった、「小日本主義」と「大日本主義」との論争は、ここに回避されたのである。

なお、宇都宮太郎のアジア主義において特に目立つのは、アジア人種通婚論や人種的連帯感(ヒトの移動)への強いこだわりである。太郎の子で、戦後自民党の代議士となった徳馬は、父について次のように回想している。

45) 松尾尊*編『大日本主義か小日本主義か<三浦鎮太郎論説集>』八四頁。

46) しかしながら、実際の政局は、宇都宮らの念願だった上原陸相を実現した第二次西園寺内閣が長期政権とならず、宇都宮も当初は望んでいた朝鮮配備のための二個師団増設をめぐり、当の上原陸相が山県・寺内らの長州閥と同調し「統帥権の干犯」に固執して西園寺首相と衝突し、同じ薩摩閥であるはずの海軍の画策などもあって、帷渥上奏による辞職へと突き進んでしまったのである。西園寺内閣の原敬内相らとの妥協の途を探っていた宇都宮は、これを「長閥」の陰謀によるものと見た(櫻井良樹「解題」(『宇都宮太郎関係資料研究会『日本陸軍と大陸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二巻))。陸軍藩閥と政友会との政軍関係における対立と、陸軍藩閥内の西洋列強に対する意見対立とは、別の次元にあり、前者が優越したことは、政友会と藩閥との提携(「一九〇〇年体制」)の崩壊の始まりであった(坂野潤治『大正政変』)。

47) 『宇都宮太郎関係資料研究会『日本陸軍と大陸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二巻』二〇九頁など。

「おやじと朝鮮との関係でどうしても忘れられない金應善という人がいた。頭のいい少年を弟のようにして育てたのだが、後に李王の武官長になった。伊藤博文の媒酌で日本美人と結婚し、酒のみで、さのさ節などうまかった。父の死後もたびたびたずねてくれて、酔うとおやじの思い出話をして泣くので、私の母は困っていた。

日本人は朝鮮人と結婚しろというのがおやじの持論で、ある日、子供の私をきちっとすわらせて、小さな本を朗読しろというから、声高らかに読んだところが、自分の書いた、日本人は朝鮮人と結婚しろという論文であった。母が傍にいて、そんなものを読ませるのはまだ早いと笑っていたが、おやじは大まじめで、おそらく将来、私の妻に朝鮮婦人をもらいたかったのだろう。⁴⁸⁾」

ちなみに、太郎が心より愛した長男徳馬は、父死去の翌年、陸軍幼年学校を中退した。そして旧制水戸高等学校に入学し、マルクス主義に感化され、京都帝大経済学部に進んでマルクス経済学者河上肇に師事する。その後検挙され、共産党に入党するが逮捕投獄され、獄中で転向し、釈放された徳馬は、株で得た資金をもとに製薬会社ミノファージェンを設立し、戦後は自由党・自民党の代議士として活躍することになる。その立場は、独自のアジア主義の立場から満蒙權益放棄論を唱え、父太郎によって厳しく批判された石橋湛山のリベラリズム、「小日本主義」と同一のものであった。政治的にも石橋湛山や三木武夫らの系統として、単独講和論、平和共存論を唱え、安保改定に反対し中国・ソ連・北朝鮮との友好を唱えると共に、『軍縮問題資料』を発行し、自民党左派の立場から軍縮を訴え続けた。徳馬には、左右の違いこそあれ、父太郎に関わるアジア主義的な歴史記憶が、終生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と言うことができよう。

なお、宇都宮太郎は、一八九六(明治二九)年より朝鮮人金應善を弟分宇都宮金吾とし、小学校から成城学校に通わせ士官候補生として養育し、韓国太子李垕の侍従武官としたが、当初自分の娘か親族と結婚させようとし、金が別の日本女性と親しくなるとその女性を一度自分の養女とした上で結婚させた。そして、日記に「先づ日韓人の雑婚を見たるは余が理想の一端を充したるものと謂ふべく、将来益々此種の婚姻の続出して両国の関係の改善に資せんことを切望す。」と記している⁴⁹⁾。

古代・中世以来の海域・国土の連続性という意識は、それがたとえフィクションに近い歴史記憶であったとしても、佐賀出身のアジア主義者である宇都宮にとって、ごく自然なものであった。近代の産物である国籍さえも自由に離脱し、アジアの民族は通婚し、国境を希薄化させ、亜細亜連邦(亜細亜連盟ではなく連邦である)へとまとめあげることがアジア主義の「志士」における一大事業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た。すでに、一九〇〇(明治三三年)参謀本部第三部員時代、宇都宮は、日記に次のように記している。

「一旦韓に帰化し、内部より韓国を開発誘導して身を以て日韓の連鎖となり、韓国を日本に引寄(合併、連邦、同盟何れにても漸次歩を進むるにあり。二十九年の清韓旅行復命書の目的)すること、第一には帝国を強大にし、第二には韓民を救ひ、第三にはアジア連邦の基礎として今日志士の為すべき一事業にはあらざる乎、熟考を要す。⁵⁰⁾」

48) 宇都宮徳馬「おやじ(37)宇都宮太郎 弱い者の見方」(『朝日ジャーナル』一九六四年六月一四日号)。

49) 宇都宮太郎日記研究会『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一巻、一九〇九年一月三十一日の項。

50) 宇都宮太郎日記研究会『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一巻、一九〇〇年五月一

先にも佐賀藩が朝鮮・大陸との深い関係についての認識を持ち続けたと述べたが、韓国太子李垠の後として選ばれた梨本宮方子の母方の祖父は、最後の佐賀藩主であった侯爵鍋島直大であり、こうした事情もこの婚姻の大きな背景となったと思われる⁵¹⁾。朝鮮軍司令官宇都宮太郎は旧主鍋島家に連なる婚儀に際し、日記にこう記している。

「本日は東京麻布御用邸に於て、李王世子李垠殿下と梨本宮方子女王殿下と芽出度御結婚、平生の理想実現、歡喜に堪へず。此上は一日も早く王子女御出生、御両家の御繁栄を加ふると同時に、内鮮の一致同化の益々真実ならんこと切望に堪へざる所なり。此御慶事の爲め、朝鮮人政治犯に対し恩赦を發布せられ、歡天喜地の人も少からざるべく、民心に影響する所も多大なるべし。又た兼ねて希望せし旧韓国武官を純然たる日本陸軍将校に任用し、叙位、叙勲の件も本日愈々公布せられ、本人共も歡喜に堪へざるものの如く、実に本懐の至なり。⁵²⁾

彼は、朝鮮ばかりではなく、中国との通婚・同化・統合をも願っていた。やはり朝鮮軍司令官時代、朝鮮人将兵を招いた宇都宮は、

「参謀長列席の処にて、余が年来の日鮮日支等の同化合同共存の精神を披瀝し、彼我共に肝胆相照し与に共に大に此主義(日鮮の真実なる同化、合同)之実現に努力せんことを勧説し、彼等も心の真底は分らざれども或程度までは共鳴せり。余は誠心誠意彼等鮮人を感化せん決心なり。⁵³⁾

と記している。宇都宮は、一九一九年三月、日支鮮合同・提携による共存共栄などの内容の年来の抱負をまとめた「本願」を作成し、印刷した『警世危言』などと共に、朝鮮人要人や後途を託す松井石根らに配布し⁵⁴⁾、帰任後の二一年には、朝鮮軍司令官在職中に死没した内鮮双方戦死者追福のために合同提携・共存共栄の趣旨を刻んだ石碑を朝鮮の地に建立した。

元来、宇都宮の出身地である佐賀(肥前)藩は、かつて秀吉の朝鮮出兵(文禄・慶長の役、壬辰倭乱・丁酉再乱。一五九二年~九三年、九七年~九八年)に、藩祖鍋島直茂が主君龍造寺氏の代わり到大将として参加し、加藤清正らと共に二番隊として積極的役割を果たしたところである。文禄の役の初期、直茂は肥前から高麗もしくは明への転封を強く願い、加藤清正から秀吉にその旨を取り次ぐよう強く依頼した。それは、直茂のみならず朝鮮出兵を機に鍋島の指揮下に入った旧龍造寺与力衆の願いでもあり、肥前の浦々の住民の多くが薩摩・肥後・博多・長門と共に「後期倭寇」として明に渡って生計を立てており、明ないし朝鮮への転封を歓迎する領民の意向を汲んでのものであった⁵⁵⁾。この事実は、中世以来の環シナ海域を跨いで中国・朝鮮・日本を自由に私貿

八日の項。

51) 方子の伯父直光映は韓国統監府から農事調査を依頼され、その荒蕪地購入に従事した(小田部雄次『李方子』六四・二四四頁)。また、李垠の妹徳恵と対馬の宗伯爵家との縁組み(同六五頁)も、佐賀鍋島家に連なる方子のそれと同様の意味を持っ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52) 宇都宮太郎関係資料研究会『日本陸軍と大陸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三卷、一九二〇年四月二八日の項。王子出産の際の日記は、同一九二一年八月一九日の項を参照。

53) 同上、一九一九年二月一二日の項。なお、二月一〇日には旧知の大阪在住者から、百済滅亡の際に日本に帰化した百済王族の末裔であるという系図を送られ、「日鮮同化の爲めには大に貴重すべき家柄也。将来一考を要す。」と記し、「日鮮同祖論」による同化・統合を推進しようと考えている。

54) 同上一九一九年三月九日・十一日・四月一六日・五月六日・八月二七日・一〇月二日、二〇年五月二八日・九月二日の項などを参照。

易や掠奪など「倭寇」として行った活動⁵⁶⁾や、朝鮮出兵に積極的な役割を果たしたことと共に、佐賀の人々に誇りを持って語り継がれ、連続した歴史記憶、あるいは自己認識として共有されていた。即ち、朝鮮軍司令官となった佐賀出身の宇都宮太郎は一九一八(大正七)年各地を視察する途中、会寧で会った佐賀出身の士官候補生らに対し、「直茂公の肥前を返上して威鏡に代封せられんことを太閤に請はれし故事」を告げて激励している⁵⁷⁾のである。

また、島津氏や鍋島氏が朝鮮出兵の際に連行した朝鮮人陶工や樟脳職人を薩摩や佐賀で陶磁器や樟脳の生産にあたらせた話は有名であり、しかも彼らは明治まで朝鮮姓を名乗り通し、保護されている⁵⁸⁾。薩摩藩・佐賀藩の人々にとって、朝鮮や大陸、そして朝鮮人は身近な存在であったのである。当時、近代国民国家が持っているような国境の概念はなかった。従って当然のことながら、秀吉にとって島津征服を以て「国内統一」が完成し、次に「海外派兵」に乗り出すという意識はなく、フロンティアを求めて、九州から連続的に琉球、朝鮮、「小琉球」(フィリピン)に服属を要求し、さらに明王朝を倒してこれに代わり、「日本王朝」を大陸に打ち立てるというシナリオは、連続したものであった。さらに北京に入り、後陽成天皇をここに移して中国皇帝とした後は、天竺(インド)征服に向かうため、寧波へと移動する計画であったという⁵⁹⁾。国境によって仕切られた近代国民国家が成立するまで、アジアの海も陸も、世界の地平までひとつながりとして考えられていたのである。秀吉の支配に代わった徳川家康が集権化推進に極めて慎重で、強大な旧族大名を最後まで追いつめることを避けたため、島津氏と鍋島氏は、主要な旧族大名のうち例外的に、関ヶ原以後もほとんど無傷で残ることができた⁶⁰⁾。そして、中世以来の社会構造や大陸・朝鮮認識が、特に薩摩・佐賀藩に幕末まで残り続けたのである。しかも、徳川政権初期まで、佐賀鍋島藩では、島津・松浦両氏と共に、中国やルソン・安南・シャムなどとの通商外交に意欲を見せ、長崎貿易を推進し、幕末には「蘭癖」で有名な第一〇代藩主直正が西洋文明を積極的に導入し、アヘン戦争に際しては、英国軍艦に石炭を売るために松浦郡で採炭事業を開始してそれを長崎で高価に売却して利益を得るなどし、その利益で軍制改革を含む「富国強兵」政策を推進したのである。島津氏同様、戦国時代以来の問題意識が継続していたとすることができよう。

近代日本のアジア主義を考える際、中世以来の日本とアジアとの関わりや日本の国内秩序との連続性や比較を考えることは、大きな助けとなるように思われる。歴史家網野善彦が日本列島を倒置した富山県作成の「環日本海諸国図」を用いて強調してきたように、日本海及び東シナ海は、日本列島、南西諸島とアジア大陸とに囲まれた「内海」であった。中世、そして近世初期まで、「倭寇」「倭人」は「日本人」と同一ではなかった。「倭人」は国家を越え国境に関わることなく、朝鮮半島・中国大陸・日本列島などにわたる海域を生活の場とした人間集団であり、アイヌはサハリンやアムール川(黒龍江)上流から北海道・東北地方北部にわたって活動した交易民であった。モンゴル帝国時代には、あるいは清の時代には、アムール河下流域・サハリン・北海道・東北地

55) 武野要子『藩貿易史の研究』(ミネルヴァ書房、一九七九年)一三六~一三八頁。

56) 村井章介『中世倭人伝』(岩波書店、一九九三年)。

57) 宇都宮太郎日記研究会『日本陸軍とアジア政策 陸軍大将宇都宮太郎日記』第三卷、一九一八年九月二一日の項。

58) 例えば、安宇植・橋川文三の対談「日本の近代化と西郷隆盛の思想」(『西郷隆盛全集第四巻 月報』大和書房、一九七八年)四頁の安の発言、小田部雄次『李方子』(ミネルヴァ書房、二〇〇七年)六四~六五・二四四~二四五頁を参照。

59) 中野等『戦争の日本史16 文禄・慶長の役』(吉川弘文館、二〇〇八年)一~五四頁。

60) 村上泰亮・公文俊平・佐藤誠三郎『文明としてのイエ社会』(中央公論社、)三九二頁。

方北部という広域にわたって、アイヌ・和人・山韃・ウイльтаなどが混交して「北の倭寇」などとして毛皮貿易などを行った⁶¹⁾。内田良平らが作った民族主義結社である黒龍会の名称は、黒龍江の向こうへと白人種を追いやりようとしたためとも、シベリアを渡り黒龍江付近に到達した内田がその景色に感動してつけたとも言われているが、彼らの「アジア」像が、アイヌを含むこの周辺の民族が混交し交易して暮らしていた時期のそれを「桃源郷」のようにイメージしていたことは容易に想像できる。「天下布武」を遂げた織豊政権期において「日本国」としての統一意識が強まり、秀吉による朝鮮出兵を経て徳川政権が「鎖国」を行うまで、日本海沿岸や九州地方の人々にとって、「アジアの海」は朝鮮・中国はもちろん、琉球・東南アジアへと連続する生活圏であり、日本は海によって仕切られた「島国」などではなかった⁶²⁾。

歴史家網野善彦は、単一民族神話に基づくナショナリズムを批判することで、日本史学界に強い衝撃を与え、逆に「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などの右派から攻撃されたりベラルな歴史家である。宇都宮太郎と徳馬とに見られるように、アジア主義が左右を超えて通底していることや、リベラリスト歴史家網野の学説と頭山満らのかつての民族主義者らの主張とが国民国家(国家主義)批判という点で似通っていることは、アジア主義に見られる興味深い点である。

なお、宇都宮太郎がその「大日本主義」の後継者として期待したのは、名古屋出身の松井石根であった。松井や彼を中心とする大亜細亜協会という「大東亜戦争」を主導していった汎アジア主義のイデオロギー・ネットワークの詳細については、紙幅の関係で別の機会に譲る⁶³⁾。彼は、宇都宮の「大日本主義」を「大亜細亜主義」へとさらに発展させた。その転機は、石橋湛山の「小日本主義」を戦略的に後退させた満州事変である。満州事変後、国際連盟で行われた日中間のそれをめぐる対立と、英米など西洋諸国の圧倒的な多数による「満洲国」否認と日本を批判するリットン調査書の決議であった。当時、陸軍を代表して軍縮会議の日本全権となっていた松井は、こうした連盟の現場を目撃して烈しい憤りを抱き、一九三二(昭和七)年二八月に日本陸軍全権の役目を捨てて帰国してしまった。そして、連盟の構成の欺瞞性について、あちこちで激しい批判を加えた。例えば、三三年二月に大阪毎日新聞社が主催した講演会で松井は、連盟による日本批判決議はかつての三国干渉の「数層倍の辱め」であり脱退は当然であると述べた。そして、世界は連盟外の米国・ソ連によって支配されており、連盟自体も、加盟国の英国が属国を併せて七票、仏国が小協商国を併せて五、六票、連盟外の米国・ソ連が五、六票の影響力を有し、「アジアの覇者たるわが帝国日本」が一票しか持っていないとの国際認識を示した。そして、中国のみならずインドシナ、ビルマ、印度、ペルシャ、トルコ等アジアの同胞と力を合わせ、「これらを率ゐて真の大アジアの建設」をし、真の世界平等・平和を実現すべきだと述べ、「大アジア主義に還れ」と叫んだ⁶⁴⁾のである。そして松井は、国際連盟に代わる亜細亜連盟を作るべく、「満洲国」

61) 佐々木史郎「北東アジアの河川、海上交通とその拠点」(歴史学研究会編『シリーズ 港町の世界史』第一巻、青木書店、二〇〇五年)、中村和之「アイヌの北方交易とアイヌ文化」(加藤雄三・大西秀之・佐々木史郎編『東アジア内海世界の交流史』(人文書院、二〇〇八年))。

62) 特に、網野善彦『日本の歴史00『日本』とは何か』(講談社、二〇〇〇年)を参照。

63) 松浦正孝『「大東亜戦争」はなぜ起きたのか——汎アジア主義の政治経済史』(名古屋大学出版会、二〇〇九年刊行予定)や、すでに刊行されている松浦正孝「日中戦争はなぜ南下したのか」一~三(『北大法学論集』五七巻一号~五八巻二号、二〇〇六・二〇〇七年)、松浦正孝「解説 雑誌『大亜細亜主義』と大亜細亜協会について」(後藤乾一・松浦正孝編集・解説『復刻版 大亜細亜主義』(龍溪書舎、二〇〇八年))を参照。

64) 「本社主催特別大講演会の松井大将の熱弁」『大阪毎日新聞』一九三三年二月二八日~三月五日付。

建国一周年目の一九三三年三月に、大亜細亜協會を同志と共に設立したのである。

大亜細亜協會設立の母体となったのは、三二年春、中谷武世法政大学教授、下中彌三郎平凡社社長の他、満川亀太郎、中山優、今中十一郎、清水董三、中平亮、宇治田直義、ラース・ビハーリー・ボース(インド人革命家)、コンデイ(安南の王族)らの学者・評論家らが、満洲国建国後のアジア問題を、アジア大陸全体の問題や遠く中東問題まで含めて、満洲事変問題より広い文脈で研究するために作った汎アジア学会である。これに、近衛文麿、広田弘毅(外務省待命中)らの政治家・外交官、末次信正(海軍第二艦隊長官)、菊池武夫(陸軍予備役中將・貴族院議員)、小畑敏四郎(参謀本部第三部長)、本間雅晴(兵器本廠付新聞班長)、樋口季一郎(東京警備参謀)、鈴木貞一(陸軍省軍務局支那班長)、石川信吾(海軍軍令部第二班第三課参謀)らの有力陸海軍人、村川堅固(東大文学部教授・西洋史)、矢野仁一(京大文学部名誉教授、東洋史)、平泉澄(東大文学部助教授・国史学)、鹿子木員信(九大法文学部長・哲学)、太田耕造(弁護士・国本社機関誌発行者)、徳富蘇峰らの知識人を加えて、大亜細亜協會が成立したのであった。

大亜細亜協會は、機関誌『大亜細亜主義』を三三年五月の創刊号から四二年四月の終刊号まで、九年間にわたり発行し続け、政治団体ではなく思想文化団体として、大アジア主義を啓蒙・宣伝すると共に、台湾・朝鮮・フィリピンといった海外や、大阪・福岡・金沢・京都・熊本・神戸などに支部を作り、仏教団体・軍隊・在郷軍人会・地方行政組織・町内会・商工業界・在外邦人・植民地などに浸透する、アジア主義というイデオロギーを広めるためのイデオロギー・ネットワークを作り上げた。大亜細亜主義というイデオロギーは、西洋帝国主義を批判し日本にアジアとの提携を呼びかけた孫文の中国における後継者らとの提携を目的として、形成されたものである。そして、日本帝国を「大東亜戦争」へと導く際に、反英運動を中心として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いった。

松井らの大亜細亜協會が、松井の直接の「師」であった宇都宮太郎の「大日本主義」から「大亜細亜主義」へと発展していったメルクマールとしては、世界大恐慌と「満洲国」成立後の世界において、国際連盟に代替すべき亜細亜連盟を目指したことのほかに、アジアを一つの実験場とする一大経済圏を作り、「共存共栄」を図る一大プロジェクトを作り上げようとしたことが挙げられる。まず、「満洲国」と日本、日本帝国の植民地である台湾・朝鮮などを新たな「日満支」ブロック、さらには「東亜新秩序」として新たな分業体制へと組み替え工業化を推進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海を「内海」とする一体的な経済ブロックを形成して世界でいち早く景気浮揚を実現した。そして、中国を侵略し、華北・華中・華南などに分治合作させる「中華連省自治国」として解体し、それと日本帝国、「満洲国」・蒙古自治国・新疆自治国・西藏自治国などとで、「亜細亜連盟」を形成しようとした。「満洲国」建国により、ソ連との戦争の危険は減少したとして、朝鮮・「満洲国」を一体とした兵站基地を建設した。宇垣一成総督期に始められた朝鮮北部・「満洲国」への朝鮮人の移住政策は、後に日中戦争長期化によって日本の労働力が不足した一九三九年以降、朝鮮人の日本における強制労働政策や、「大東亜戦争」期におけるインドネシアなどでの労務者動員政策の原型となる。華僑資本とアジア各地における天然資源とを利用して、台湾を拠点とする「南洋」進出を実現し、朝鮮人・中国人・アジア各地の現地人を労務者として行う一大公共事業によって、さらにアジアの経済発展と「共存共栄」、さらには西洋帝国主義国のアジアからの駆逐を図ろうとしたのである。

松井自身は、台湾軍司令官時代に、台湾を中心とした従来からの中国西南部との提携工作を進めると共に、「南洋」進出を目指す大亜細亜主義運動を推進した。その後、日中戦争の勃発に際

しては、上海派遣軍司令官及び中支那方面軍司令官として、上海上陸・首都南京の攻略などを指揮し、大亜細亞協会の理事などを務める同志の陸軍軍人らと協力しながら、反英主義・大亜細亞主義などを軸とする戦争遂行と中国占領地における傀儡政権建設を行った。松井が「南京大虐殺」や英国との関係悪化を理由に最高指揮官を解任された後も、大亜細亞協会役員・会員らは、興亜院を中心に、戦争遂行及び中国占領地における宣伝工作・宣撫工作进行を推進した。

こうした大亜細亞協会の大亜細亞主義というシナリオ作りに大きな力を貸したのが、母体となった汎アジア学会に居た岡岡十一郎ら知識人による「ツラン主義⁶⁵⁾」や亜細亞連盟論であり、また大亜細亞協会設立にあたって新たに参加し、西洋史を戦争・侵略と有色人種の搾取の歴史として描き、日本民族の優越性を説いた村川堅固東京帝大名誉教授⁶⁶⁾らの知識人であった。大亜細亞協会の会員の中には、京都帝大・神戸商大など関西の有力大学の教授陣も多く参加したが、多くは医学・農学・経済学などアジア開発と関わる実学系の教授らであり、いわゆる「京都学派」と呼ばれるポスト・モダンの知識人は参加していない。

これまで、大亜細亞協会は、政治結社としての活動よりも思想文化団体として、しかも政党・結社としてよりはイデオロギー・ネットワークとして、同協会をハブとする緩やかな浸透力・影響力によって、日本の政治を動かしたため、ファシズム論を含む、マルクス主義史学・ヨーロッパ政治理論・アメリカ政治理論などの西洋由来の「戦争犯罪」責任者探しの網の目からはこぼれ落ちてきた。また、東京国際軍事裁判においても、松井らの弁護人が大亜細亞主義に基づく西洋帝国主義批判を展開しようとしたが、占領軍はこれを全く無視し、「共同謀議」という戦争犯罪の枠組みで裁いた。このため、松井は、南京虐殺事件の最高責任者としての罪状でのみ死刑とされたのである。『大亜細亞主義』には、当時、政治的発言を封じられていた軍人を含む多くの大亜細亞協会会員らによる、極めて貴重な論文や諸情報が掲載されているが、この雑誌は二〇〇八年から復刻され始めたばかりで、本格的な研究は、まだ緒に就いたばかりである。しかし、近衛内閣による日中戦争の拡大、東亜新秩序宣言、一九三九年に昂揚し三国軍事同盟や大政翼賛会成立などを招いた大反英街頭運動、汪兆銘政権の擁立、そして「大東亜戦争」を主導した渦中に居たのは、まさしく彼らであった。

戦後になると、中谷武世・下中彌三郎らの元大亜細亞協会メンバーは、世界連邦運動を起こす一方、岸信介首相と共に東南アジア開発基金構想をアメリカの資金によって実現しようと試みた。また、自民党代議士であった中曽根康弘を擁し、宇都宮徳馬を含む左右各派の政治家・財界人らから成る日本アラブ協会を創設し、エジプトのナセル大統領に対し、アングロサクソンに対抗するため、鴨緑江ダム建設の実績のある日本の技術力・資金力によってアスワンハイダムを建設する構想を推進しようとした⁶⁷⁾。また、日本はアジアを解放するために「大東亜戦争」を戦ったのであり、搾取を目的とした西洋帝国主義とは違い「共存共栄」を目指したのであって、日本は侵略国家ではない、という、現在の日本に根強く残っている言説も、「大亜細亞主義」イデオロギーが、修正され作られた「歴史記憶」として生き延び続け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65) 「ツラン主義」は、ツラン民族、即ちウラル・アルタイ民族の独立運動を主張する運動で、フィンランド・ハンガリーから中央アジア、モンゴル・満州・朝鮮・日本人などが同一の民族であるとする。例えば、海野弘『陰謀と幻想の大アジア』(平凡社、二〇〇五年)第二章などを参照。

66) 村川堅固及び、その子堅太郎(戦後東京大学文学部教授)は、戦後においても、長くギリシア・ローマ史の権威として、学界における強い影響力を保ち続けた。

67) 中谷武世『アラブと日本』(原書房、一九八三年)を参照。

IV. 「民間財界主義」

さて、紙幅も尽きてきたので、戦前日本におけるアジア主義の第三の選択肢である「民間財界主義」について、簡単に紹介したい。三つのアジア主義の中では、いささか座りの悪い言葉であるが、これまで紹介してきた二つのものとは異なり、植民地を含む帝国や国民国家など現状・既存の国家を枠組みとした上で、民間財界を主体に、日本と中国とが中心となってアジアの平和秩序を維持していこうという立場である。元来、日本の財界は、徳川時代に日本が行ってきた貿易及び国内流通抑制政策である「鎖国」時代に、西洋諸国や華商などから取り残されてしまった経済活動を、制度及び勢力範囲などの面で急速に取り戻そうという、明治新政府の政策から始まった。

薩摩藩(現在の鹿児島県を中心とする地域を治めた大名島津氏の領地)は、「鎖国」政策に反対して琉球を拠点とする密貿易を行って徳川幕府と対立し、秘密裏に英国へ留学生を送ったが、その一人である初代文部大臣森有礼は、「欧米ノ商人ハ前途深ク畏ルニ足ラス、支那商人ハ前途日本ヲ痿弊スルノ状アリ」と懸念し、大阪に華商に対抗するための商業学校設立を訴えた⁶⁸⁾。そして、同じ薩摩藩からの留学生仲間であった商人五代友厚ら民間財界の力を借りて、大阪商業学校が設立されたのである。本稿で引用したように、明治・大正期に活躍した三浦鍊太郎らのエコノミストもまた、同様の危機感を持っていた。陸軍士官学校出身の荒尾精や根津一、岸田吟香らのアジア主義者もまた、同じ観点から、書籍・薬材商店である漢口楽善堂や日清貿易研究所、東亜同文書院などの、対アジア貿易振興・諜報などを目的とする修習機関を設立した。

一方、西洋経済の様々な制度や概念を早急に日本に整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明治新政府の井上馨やその側近渋沢栄一、大隈重信に近い福沢諭吉らの慶應義塾関係者らは、初めは政府の財政経済担当者の立場から、続いて、政変による下野(井上・渋沢は一八七三(明治六年)、大隈重信や福沢系の官僚は一八八一(明治一四年)後は、民間財界を形成して、会社・銀行・保険を始めとする経済制度を日本に定着させ、多くの会社・企業を創立し、日本の資本主義制度を定着させた。渋沢らは、植民地朝鮮に第一国立銀行支店を開設し、一九〇二(明治三五)年には朝鮮経済開発のための朝鮮協会を設立し、朝鮮総督府と協力しながら朝鮮での経済制度整備や経済開発にあたった。中国に対しては、一九〇七(明治四〇)年に対中国投資会社の東亜興業、一四年(大正二)年四月には前年日中合弁会社として設立された中国興業を中日実業として改組し、一九二〇(大正九)年日中親善のための日華実業協会を設立した。

もちろん、日本の対中国・朝鮮を含む対アジア経済政策において、政府や政府系金融機関、植民地当局や軍部などが果たした役割は大きい、渋沢栄一を中心として形成されていった民間財界が、アジア主義において果たした影響も非常に大きいのである。そこには、経済分野における華商の圧倒的な影響力を前に、華商などに対抗し日本側通商力の覇権を確立していこうとするアジアに対する侵略的な側面と、中国などとの提携なしには日本の経済発展はないという友好的な側面との、両面があり、しばしばその両面は切り離し難かった。

時代は降り、満州事変後しばらく経った一九三五(昭和一〇)年半ばになると、満州事変で断絶状態に近くなった日中貿易も復調し始め、中国側が経済提携に前向きな動きを示し始めた。日本側でも、大阪商工会議所が中心になって、外務省の後援を得ながら日支経済連絡委員会設置の準備を進めた。こうした結果、三五年一〇月も蒋介石らのイニシアチヴによって、呉鼎昌中国塩業

68) 籠谷直人『アジア国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名古屋大学出版会、二〇〇〇年)一一~一二・八四頁。

銀行総経理を団長とする中華民国赴日経済考察団が組織され、来日する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呉団長は、紡績や雑貨など、日中間で問題となっている問題について広く意見を交換し、産業別に日中経済提携の可能性を模索する意向を明らかにしていた。考察団は、日本の銀行業界や商工会議所などの経済団体と交流したほか、紡績工場・電線工場などを視察して親善を深め、その結果、中国側の提案により、経済提携・貿易促進を図るため、中国側に中日貿易協会(会長は周作民金城銀行総経理)、日本側に日中貿易協会(会長は兒玉謙次横浜正金銀行頭取)が常設されることとなった⁶⁹⁾。

その後一九三五年一月四日、中華民国は英国の派遣したサー・フレデリック・リース＝ロス(Sir Frederic Lieth-Ross)の助言を得ながら、通貨制度改革を断行した。銀を中心とするそれまでの不安定な通貨制度から、ポンドとリンクした法定通貨(法幣)へと切り替えるこの改革について、日本の経済界では、軍部や「満洲国」の華北分離への意向を受けてこの行く末を悲観する観測をなし、法幣に反対する「御用学者」高橋亀吉と、財界穏健派を代表する東亜興業株式会社常務で明治大学商学部教授(外国為替論・支那為替論)の内田勝司とが、激論を交わした。軍部や、強硬なアジア主義者である外交官須磨弥吉郎南京総領事⁷⁰⁾は英国の援助を受けたこの幣制改革案に強く反対し、中国による自力での幣制改革を希望していた高橋是清蔵相もまた、日本への協力を求める英国側の要請を断り、中国は英国の援助を受ける形で、改革を断行した⁷¹⁾。中国の幣制改革が、世間における悲観論を裏切り成功する中で、出来軍部である支那駐屯軍(天津軍)の中でもこれに焦慮を覚え、華北現地での新通貨工作(高橋亀吉がこれに協力)、密貿易といった、経済的・非軍事的手段による対抗措置をとり始めた。一方、日本の銀行・商業資本を中心とする財界および、蒋介石や孔祥熙などの南京政府と中国実業界との間で、再び「経済を経済人の手に」という形で民間財界主導の経済提携を推進し、それによって出先軍部を抑えようとする動きが起こってきたのである。日本側でその中心となったのは、陸軍出身の林銑十郎内閣で大蔵大臣兼拓務大臣を務めた、財界出身の結城豊太郎前日本興業銀行総裁であった。

林銑十郎は、満州事変の際に、朝鮮軍司令官として、天皇の「奉勅命令」を待たず、日本本国の統帥部の許可を得ぬままに、関東軍の石原莞爾らを助けるため、独断で越境出兵した「越境將軍」として有名である。また、軍部を抑えるため、政友会・民政党の協力を基盤として陸軍出身の宇垣一成が組閣しようとして失敗した後に成立した、既成政党などの支持を持たない、政治基盤の脆弱な内閣であった。しかし、実際には、日本においてタカ派と見なされている政治家が実際に政権に就けば親アジア政策を取ろうとしたり、自衛隊を違憲としてきた社会党党首が首相になればその立場を一八〇度転換させたりする例に見られるように、林内閣もまた、実質三ヶ月の短い政治生命の中で、結城大蔵大臣と外務省出身の佐藤尚武外務大臣とのコンビにより、華北分離工作を中止し、冀東密貿易を抑制させようとしたり、蒋介石政権による中国統一を認め文化経済を中心に日中国交調整を図ろうとした、極めて対中有和的な政策を試行した。もし実現していたならば、それは単なる歴史の一エピソードを超えたものとなったであろう。そして、こうした林内閣による政策転換の裏には、経済界の中でも穏健派を中心とした財界と、外務省内の穏健派があった。

69) 以下の日本財界による日中戦争回避の動きと、戦争収拾工作については、松浦正孝『財界の政治経済史』(東京大学出版会、二〇〇二年)第五章を参照。

70) 須磨未千秋編『須磨弥吉郎外交秘録』(創元社、一九八八年)七六~七八頁。

71) 松浦正孝「再考・日中戦争前夜」(『国際政治』一二二号、一九九九年)を参照。

三五年一〇月に来日した中華民国赴日經濟考察団に対する答礼として、財界では、兒玉謙次横浜正金銀行頭取を団長として、三七(昭和一二)年四月、今度は日本側が中国を訪問する実業団を組織した。実に、蘆溝橋事件が起こる三ヶ月前のことである。兒玉訪中国の最大の目的は、日中間の疎隔した意思を通じさせるため、両者が遠慮なく意見を交換することにより、「今後何事ニ付ケテモ話シ合ヒヲナシ得ル糸口」を付けることにあった。そのため、訪問先では、一般問題懇談会及び、砂糖問題懇談会、金融部懇談会、綿業問題懇談会などの個別部会が開かれ、両者の間では、烈しい議論の応酬もしばしばなされたが、概ねその目的は果たされた。軍人が本業を離れて経済に口出しをするのを防ぐため、経済は経済人の間で行い、国交を文化と経済の両面で改善していくべきである、といったような意見が出され、結局両者は、日本側が冀東密貿易を防止するよう努力し、中国側が排日的と見られる高率関税を調整することで合意した。そして特に、兒玉団長(日中貿易協会会長)と周作民中日貿易協会会長とが、将来重要問題が起こった際には、この訪問団実現にも奔走した船津辰一郎在華紡績同業会理事を通じて、正金銀行の暗号通信を「ホット・ライン」として利用することも取り決められた。日中戦争勃発直後すぐに、船津辰一郎によって日中和平工作が模索されたのには、こうした伏線があったのである。また、一九三八(昭和一三)年夏に第一次近衛内閣が大改造され、三井銀行出身で財界の代表である池田成彬を大蔵大臣兼商工大臣とし、池田の盟友宇垣一成を外務大臣として、英国を仲介とする日中和平工作が行われた⁷²⁾のも、こうした動きの延長線上にあった。

兒玉実業訪問団には、もう一つの重要な任務があった。それは、この訪問団を佐藤尚武外相と共に支えた結城豊太郎蔵相から、孔祥熙行政院副院長及び王寵惠外交部長に宛てた、民間財界を中心とした経済提携による日中関係打開への強いメッセージの伝達であった。このメッセージを伝えたのが、訪問団最年少で結城の女婿であった大日本製糖社長藤山愛一郎である。藤山の伝えた結城のメッセージとは、大蔵省を中心とする日本政府は、中国政府との暗黙の了解を前提とした日中経済提携によって、天津軍・関東軍の少壮軍人を段階的に統制し、日中間の危機を打開したいと希望してい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日本政府は軍部に軍拡予算を認める代わりに、肅軍と政治外交に対する不干渉とを約束させる所存である。その際、敢えて華北に関する政治問題に触れずに経済提携の実績を作って軍部を抑制することで、冀東・冀察政権や冀東密貿易を解消し、中国は統一を促進し、日本は中国への正当な貿易発展により日中間の友好関係を促進する⁷³⁾。藤山の伝えた日中民間財界による経済提携は、両国内での財界・業界内部での生産自主統制・輸出自主規制を前提としたものであって、結城豊太郎ら当時の財界主流が推進していた方針でもあった。これに対し、日印会商や日蘭会商などを通じて、津田信吾鐘紡社長ら大阪産業界の対英強硬論が対立し、彼らは大亜細亜協会などに入って、英国や中国などに対して強硬な態度を取るよう、政府に圧力をかけていたのである。

結局のところ、民間財界を中心とした日中経済提携や戦争抑止の努力は、実を結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藤山愛一郎は、戦後、公職追放が解除された後、経済同友会代表、日本航空会長、日本商工会議所会頭として財界に復帰した。そして、蒋介石に対して、一九五二(昭和二七)年四月三〇日、次のような手紙を書いた。

72) 松浦正孝『日中戦争期における経済と政治』(東京大学出版会、一九九五年)。

73) 「孔副院長会晤日本經濟視察団員大日本製糖社長藤山愛一郎記録抄件」「部長会晤日本經濟視察団員大日本製糖社長藤山愛一郎談話記録」(いずれも、『關於改善中日關係』七冊所収、中華民国檔案資訊処、台北)。

「蔣總統閣下、私は今閣下にお目にかゝつた時の事を思い出さざるを得ません。一九三七年の春三月私共日本の実業家はなんとかして両国の意思の疎通を計りたいと一団となつて南京にお伺い致しました。その時私は父〔製糖会社を經營していた雷太のこと——松浦註〕と總統閣下との友誼の為にたゞ一人御面会出来る機会を持つ事も出来色々御意見をうけたまわつたのでありますが、殊に一行全部をお茶に御招き頂いた其の席での總統閣下の御挨拶をいまでもつて忘れる事が出来ません。閣下は申されました、『あなた方日本の実業家に申し上げたい事は、あなた方日本の実業家の尊敬する大先輩であつた洪澤榮一子爵は、論語の信奉者であられるが其の論語の中に「自らの欲せざることを他人に強いてはならない」と言う言葉がある。あなた方日本の実業家はどうかあなた方の尊敬する洪澤子爵の信奉する論語のこの意味を充分理解して貰いたい』と言う含蓄のある挨拶をなされたのでありました。当時の日本は、ことごとく中国に対して日本自らが受けたら必ず怒るにちがいないことを中国に平気でおしつけて居つたのであります。お別れして帰国してから僅かに三ヶ月目に、遂に不幸の戦争が始まつたのであります。それをさげさせる力の無かつたことをいまでもつて恥しく考えて居ります。私は其旅で總統閣下始め政府の要人の方々にお目にかゝりましたが同時に、二十から三十の各界の青年層の人達と南京でも上海でも数回会合をして若い中国の青年の方々が見面に中国を近代国家に作り上げて行く努力とその意欲に燃えて居られるのにも驚きもし感心すると同時に私達日本人もその青年の気持ちを真面目に同感して協力してゆかねばならないと痛切に感じたのであります。そこで出来る限り日本人に其新しい中国のことを知らせる事が私共の重要な責任だと思いましたが、その暇もなく戦争が始つたのであります。当時迄は、我が国の実業家の中にも中国が近代国家として成長する事は日本の産業の競争者を作るだけに過ぎないので中国は相変らず近代化しない農業原料国だけに閉じこめて置く方が良いという様な狭い見解の人も少くはなかつたのであります。中国が近代国家になり近代的産業も起り中国人の生活水準が高められるそのことが日本の産業にも良き影響を与えると言う事を思わなかつたのであります。この事は現在に於ても単に中国のみならず東南アジアの民族的解放による近代新国家建設の途上にある諸国家に対しても同じ事が起こり得るのであつてその点私共は今後充分戒心してゆかなければならない点だと思ふのであります。今から考えますればもし日本が過去に於て取つた様な精神と行動と全く反対な考え方で中国と協力して居つたならば今日中国は立派な近代国家に出来上つて居つたかと想像されます。そしてソビエットロシア的の中共政權の如きが中国本土を支配することもなかつたかと思われると残念でたまりません。⁷⁴⁾」

当時、藤山の周囲には、かつて日本商工会議所会頭として大きな影響力を持っていた父藤山雷太のように、「財界世話業」になれという声も強かったが、藤山自身は、「かつての郷誠之助さんとか井坂孝さんのような財界世話業というものは、今日の財界ではもはや成り立つ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ために政治に関わろうという気持ちを持っていなかった。しかし親しい岸信介から外相就任を要請された時、閣内に入らず政治に介入する白洲次郎らの吉田茂に対する「側近政治」の弊害を批判してきた経緯や、生まれながらに恵まれた境遇にあったことへの反省から、藤山は「泥まみれ」になる覚悟をした。日本側民間財界代表の訪中使節団に加わりながら、日中戦争を阻止す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反省や中国への贖罪感も大きかった。また、藤山が私淑する従姉妹の池田成彬から、政治家になるなどということを考えたこともなかった藤山に対し、「藤山君、こんど衆議院出ないか」「財界人がみんな出なければウソだ。今までのように政治は軍人に任せ

74) 「蒋介石總統への手紙」(藤原銀次郎・小林一三・藤山愛一郎『現代随想全集』第三二巻(創元社、一九五四年))三八六~三八七頁。

といちゃいけないんだから、財界人も政治にでるべきだ」と言われたことも、藤山が政治に直接関わるようになった大きな転機であった⁷⁵⁾。藤山は、こう述べている。

「ご承知のとおり、池田さんという人は三井の総帥でありましたし、あまり政治に関心を持っておられない方でありましたが、戦争中、池田さんが戦争をやめることのために努力をされた。私もそのお使いをしたわけですが、そして日本経済はそんな無茶な戦争をやったらもつものじゃないという考え方でございます。それが身にしみて感じておられたのでしょう、財界人が出て大いにやらなければ政治がだめなんだ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た。そのご勧誘があって私はお断りしたんですが、当時、いろんな財界の方が衆議院と参議院に出ておられます。財界人のなかにもそういう意味でやはりこの終戦を迎えた方がある。

そういうことで、私が身をもって知ったことを申し上げるわけですが、問題がいろいろある戦争をやった。当時財界におりまして、いくぶんかでもそういう経緯を知っている私にすれば、無謀な戦争であったという考えはどうしても拭い去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が結局、今日の状態になって、私が政治に入ってみようかということ、また日中関係も正常化してできるだけ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考えた原因です。⁷⁶⁾」

藤山愛一郎は、一九五七(昭和二二)年、東条内閣倒閣運動以来つきあいのあった岸信介の勧めにより、財界出身の外相となって「経済外交」を推進し、翌年には衆院選挙にも出馬した⁷⁷⁾。特に日中友好には力を入れ、度々訪中し、一九七三(昭和四八)年日中友好議員連盟会長になっている⁷⁸⁾。また、政界入りする以前の一九五五(昭和三〇)年には自ら希望してバンドンで開かれた第一回アジア・アフリカ会議に出席し、帰国後は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との賠償問題早期解決を各方面に訴えかけ、五六年春にはフィリピンとの賠償交渉を自ら手がけることとなった⁷⁹⁾。目の損得にとらわれず、植民地から解放された東南アジア・アフリカ(いわゆるA・Aグループ)の経済建設を助けることを日本の経済外交の目標とすべきであると考えた藤山もまた、民間財界を軸足とした、もう一つのアジア主義のありかたであったと言って良いであろう⁸⁰⁾。理想主義的な藤山の考え方は、アジア主義という点において、戦前・戦時には大亜細亜協会理事として活躍し、対フィリピン賠償に活躍した村田省蔵大阪商船社長や、岸信介らと共通する面があり、中国・東南アジアなどでの現実的な経済権益を期待する経済人らとも重なるところがあった。しかし、中国に対する贖罪意識などから、戦後の経済外交を支えていった財界人らには、藤山と心情において通ずる人々もあったと思われる。

藤山は、岸内閣総辞職以後、六〇年・六四年・六六年と、三度自民党総裁選に出馬した。藤山派を組織し、その政治資金には、ほとんど私有の株、土地、本邸、絵画などを売り払った。その結果、「井戸堀」を体現し、私財を傾け尽くした派閥は、次第に切り崩され、やせ細り、「絹のハンケチを雑巾に使った」と言われた。彼が政治に注ぎ込んだ私財は、数百億円に相当するという⁸¹⁾。

75) 藤山愛一郎『政治わが道』(朝日新聞社、一九七六年)二七~四〇・一六六~一八〇頁なども参照。

76) 藤山愛一郎「戦時下の財界の動き」(赤松貞雄他著『語りつぐ昭和史——激動の半世紀』第四卷(朝日新聞社、一九七六年))七六~七七頁。

77) 藤山愛一郎『日本の百人全集I 私の行き方』(学風書院、一九五九年)一五二~一七四頁。

78) 藤山愛一郎『政治 わが道』一九七~二三〇頁。

79) 同上、四九~五五頁。

80) 藤山愛一郎『社長室にて』(学風書院、一九五八年)の『「ハンケチを雑巾に使うな」と言われて』一五~二七頁、「まずアジアから」二四七~二四九頁などを参照。

V. おわりに

以上、一九一〇年代から一九四〇年代にかけての日本を中心に、「小日本主義」、「大亜細亜主義」、「民間財界主義」という異なる三つのアジア主義のタイプを、筆者なりに整理してみた。前二者は、三浦鎮太郎から石橋湛山、宇都宮太郎から松井石根へと、第一次世界大戦や満州事変を境に、少しずつ立場を変えており、第一次大戦以前は「小日本主義」対「大日本主義」、満州事変以後は、「大亜細亜主義」対「民間財界主義(親英派。石橋らも合流)」という対立図式が、中心を占めた。戦後は米国を批判しアジア・アフリカに第一の関心を表明した藤山愛一郎も、戦前は多くの財界メンバー同様、植民地支配を前提とし、英仏米など西洋諸国との協調をまず優先していたと思われる。戦後には、これら三つすべての立場が、中谷武世や下中彌三郎らの旧大亜細亜協会メンバーを中心に、宇都宮徳馬、三木武夫、中曽根康弘、岸信介、藤山愛一郎らをまとめ、一つの動きとして結集する興味深い側面も見られる。これらについては、筆者の次の課題とした。戦後、アジア主義がどのような形で日本の政治経済の構造に埋め込まれ、どのような形で再生・変形していったのかは、実はほとんどなされていない作業だからである。

最後に、これら三つのそれぞれのタイプが実現していたら、どのような形で戦後日本の歴史認識が形成されていったかについて、空想してみることをお許し頂きたい。まず、現実的な可能性はほとんどなかったが、石橋湛山の「小日本主義」が実現していたとしたら、日本は、朝鮮、台湾などの植民地を独立させ、中国やアジア・アフリカの諸勢力とも協調する、理想主義的な「アジア共同体」が成立していたであろう。米国やソ連の動きがどのようなようになったかは想像し難いが、英仏など帝国主義諸国との対立を招いたと同時に、世界各地で様々な変動を引き起こし、現在の世界とは全く異なる形の世界を形成したことが想像される。日本は、多くの国々から尊敬される、貿易立国の「とてつもない国」となり、世界各地から留学生が押し寄せるモラル・パワーとなったであろう。次に、池田成彬や藤山愛一郎らの民間財界による、英国など西洋帝国主義国との協調・了解を前提とした、中国という市場のグローバル・ガバナンスが成立していた場合である。彼ら民間財界は、台湾の製糖会社にも関わっていた藤山を含めて、植民地支配を前提としていたから、日中戦争を回避していたとしても、戦後、英仏米などが経験したような脱植民地化の過程を、身を以て体験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あろう。植民地独立戦争やテロの頻発などを通じて、帝国解体の過程と直面するという厳しい過程をアジアにおいて経験していったと思われる。そして、近代日本が実際に辿ることになったのは、「大亜細亜主義」の選択肢に最も近い道であった。日本は、「大東亜戦争」によって英米蘭各国を含む「連合国」と交戦して敗れ、戦争末期には、原爆投下・大空襲・ソ連による満州侵攻などの被害者体験を経験すると共に、植民地一切を喪失し、戦後はそのまま冷戦体制に移行した。このため、植民地責任・戦争責任はほとんどの人々に忘れられ、米国に対する被害者意識と「大亜細亜主義の夢」とが強く残った。

こうしたプロセスを、まず日本国内で理解し、共有していくことが、アジア主義の歴史について東アジアの研究者の間で議論することと共に、現在、最も重要な課題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そして、そのことは、恐らく、そう容易いことではない。

‘소일본주의(小日本主義)’, ‘민간재계주의(民間財界主義)’, ‘대아세아주의(大亞細亞主義)’

— 근대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주의의 세 가지 가능성 —

松浦正孝 (北海道大學校)

〈목 차〉

- I. 머리말
- II. 신사참배 강요의 배경-제국의 의례적 통합
- III.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중등학교 측의 대응
- IV. 학교 폐쇄와 조선인들 내의 분열
- V. 맺음말

I. 머리말

1차 대전 이후 ‘신 외교’ 시대 이후에 일본을 중심으로 존재한 아시아주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필자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주로 세 가지 가능성이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단 본고에서는 이번 회의의 공통주제가 ‘동아시아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논할 때 어김없이 언급되어 왔던 ‘교토(京都)학파’ 나 미키 기요시(三木清) 등 사상사 연구자가 중시해 온 지식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군인이나 저널리스트, 재계인 같은 당시 일본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교양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사회에 대한 실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다룬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필자가 현실 정치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중시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일본사상사가 중시해 왔지만 실제 정치적 영향력에 의문이 있는 이들 사상사가들의 사상 자체를 논의하는 데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인물은 당시 일본 제국이나 아시아질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서관이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교양인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인’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 기억’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점에서도 본고가 이번 회의의 주제에 대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소일본주의’-‘구외교’적인 미우라 테쓰타로(三浦鑲太郎)에서 ‘신외교’적인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으로 -

우선 먼저 일본에서 유명한 ‘소일본주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평론가 이시바시 단잔은 1차대전 이후 개최된 워싱턴회의에 즈음하여 ‘제국의 시대’의 종언을 내다보고 ‘일체 버릴 각오¹⁾’ 하에 “만주를 포기하고 조선 대만의 독립을 허용하고 기타 지나(支那)에 수립한 수많은 경제적 특권, 무장의 거점을 버리라. 그리고 이들 약소국가와 더불어 살라.”고 호소하며 중일 제휴를 논했다.²⁾ 이시바시의 입장은 하나의 이상주의지만, 경제적 리버럴리즘(liberalism)에 입각한 아시아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시바시는 1921년(다이쇼 10) 다음과 같은 말까지 하고 있다.

“조선·대만·사할린·만주처럼 얼마 안 되는 땅을 버림으로써 광활한 지나 전역을 친구로 만들고 나아가 동양 전역, 아니, 세계의 약소국 전체를 나의 도덕적 지지자로 만드는 것은 얼마만큼 이익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만일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횡포하고 또는 영국이 교만하고, 동양의 여러 민족 내지 세계의 약소국민을 확대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모름지기 그 확대 받는 자의 맹주가 되어 영·미를 응징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소한 평상적인 군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전법(戰法)의 비법은 인화(人和)에 있다. 교만한 한 두 개 나라가 아무리 엄청난 군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 해방의 세계적 맹주로서 배후에서 동양 내지 전세계로부터 진심으로 지지를 받는 우리나라가 기필코 그 전투에서 지는 일은 없다. 만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전쟁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된다.”³⁾

주목할 만하게도 이시바시는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까지 호소하고 있다. 대학졸업 후 1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하사(下士)로서 평생을 병사교육을 위해 바쳐도 좋다고 생각한 단잔⁴⁾은 물론 반전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단잔의 ‘아시아주의’는 『동양경제신보(東洋經濟新報)』역대 주간(主幹)이었던 우에마쓰(植松考昭), 미우라 테쓰타로(三浦鑲太郎) 등의 주장을 한층 발전시켜 리버럴리즘과 단잔 나름의 현실적인 공리적·경제합리주의의 이론에 기초한 주장이었다.⁵⁾ 영국식 자유무역·공상입국주의에 입각한 단잔은 자원이 빈약하고 영토가 협소해 인구 과잉 상태에 있는 일본이 식민지를 갖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를 보유함으로써 군비확장경쟁을 가져오고 전쟁을 낳아 전쟁의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며 군비철폐론을 주창했다. 그러나 유력 야당 헌정회(憲政會)의 총재가토 다카야키(加藤高明)는 같은 해 9월 헌정회 호쿠리쿠(北陸)대회의 연설에서 “만일 이와 같다면 일본은 무엇을 위해 지나와 전쟁을 벌이고 러시아와 싸운 것인가. 또 일본만 이것

1) 「일체를 버릴 각오」(마쓰오 다카요시(松尾尊彦) 編 『이시바시 단잔 평론집』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1984년).

2) 마스다 히로시(増田弘) 『이시바시 단잔 연구』(동양경제신보사, 1990년) 105쪽.

3) 「대일본주의의 환상」(마쓰오 다카요시 『이시바시 단잔 평론집』) 121쪽.

4) 「쇼와 12년 연두에 사원 제군에게 희망한다」(이시바시 단잔 전집편찬위원회 편 『이시바시 단잔전집』 제10권, 동양경제신보사, 1972년) 514쪽.

5) 마스다 히로시(増田弘) 『이시바시 단잔연구』(동양경제신보사, 1990년), 강극실(姜克実) 『이시바시 단잔의 사상사적 연구』(와세다대학출판부, 1992년), 마스다 히로시 『이시바시 단잔』(주오코론샤, 1995년)를 참조.

을 되돌려준다 해도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떠한가?” 운운하며 이러한 논의를 비판했는데, 당시 총리 하라 다카시(原敬)도 또한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군축논자로서 ‘헌정의 신’으로 불렸던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도 단란을 향해 직접 “장정 100만의 피를 흘려 20억의 국고를 낭비한 만주를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은 조상에 대해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서술했다. 단란 스스로 “당시에는 이런 논의는 일개 평화주의자의 공론에 불과했으며, 일반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회고하고 있다.⁶⁾

워싱턴회의에 즈음하여 단란이 이렇게 주장한 원류는 그의 상사였던 미우라 테쓰타로가 1차대전 전야에 그 때까지 조선 식민지화와 만주 확보를 포함해 정부의 시책을 옹호하던 『동양경제신보』를 제국주의 비판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특히 1913(다이쇼2년)년 1월 5일자부터 3월 15일자에 걸쳐 7차례에 나누어 연재한 ‘만주 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 및 동년 4월 15일에서 6월 15일자에 걸쳐서 6회를 연재한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가 그 중심이다. 미우라는 『동양경제신보』 지상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포기를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년 잡지 『제3제국』 11월 10일호에 게재한 ‘감세의 절규’에서 대륙확장론을 비판하고 미래에 식민지 조선을 포기하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남만주철도를 손에 넣었고 요동반도를 조차(租借)했으며, 조선을 합병했다. 외관과 위용이 대단하게 갖춰졌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와 이들 지방과의 무역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통계 상으로는 약 2배의 증액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조선·만주 경영을 위해 해마다 수 천 만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 돈이 교역액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 많다. 그렇다면 만주와 조선을 우리 영토 혹은 세력범위에 집어 넣었다는 것은 쓸데없이 국가의 재정을 팽창시켰을 뿐 얻은 것은 낭비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도 일본이 향후에 영구히 조선 만주를 점령하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이득이 될 전망이 있다면 다소 견뎌야 한다 하더라도 조선인은 여전히 조선인, 그들을 일본의 군대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제국의회에 의원으로 맞이하는 것은 도량이 좁은 일본인이 견뎌낼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에는 결국 자치를 허용하고, 만주는 결국 지나에 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에 지배 당할 운명이다. ……대륙확장론자는 항상 말한다. 조선은 일본의 심장에 겨누어진 권총이기 때문에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만주가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만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베리아가 있다, 어찌 바이칼뿐이랴! 우랄을 넘어 피터스부르크까지 가지 않으면 철저한 사고도 아닌데, 그 정도의 깊이도 없는 듯하다. 러시아가 만주에 오든 조선에 오든 우리나라의 국력이 충실하다면 반드시 국가의 독립을 침해 당할 염려는 없다.’⁷⁾

당시 미우라가 정말로 조선독립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만주포기론을 위한 수사(레토릭)로서 그 수준까지 논의를 진전시켰을 뿐인지는 불분명하다. 동년 초에 미우라가 발표한 ‘만주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의 요점은 영·일동맹을 지속시킴으로써 ‘지나대륙의 보전’을 노리고, 군비팽창에 따른 파탄 방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마쓰오 다카요시 씨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주포기를 주장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미우라의 요지는 결국 아래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시바시 단란 著 『단란 회상』 (이와나미쇼텐, 1985년) 211~212쪽

7) 마쓰오 다카요시 編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미우라 테쓰타로 논설집>』 (동양경제신보사, 1995년) 188~189쪽.

“우리나라의 육상방방선을 창춘(長春) 북쪽, 철령(鐵嶺)선에 두는 것은 남만주의 장악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이것이 만주가 명목 상 지나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이 사실 상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이것을 공인하게 만드는 까닭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창춘(長春) 북부에 위치한 우리의 국방선을 뒤로 물려 조선의 국경 및 뤼순(旅順)의 요새를 국방선으로 바꾸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사실상 만주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 본인이 본론의 초반부에서 명백히 선언하고 있으며, 본인의 만주포기론은 요컨대 우리 대륙방어선을 수정해 이를 뤼순과 조선 국경에 두기를 바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⁸⁾

조선포기론까지 가면 미우라의 논의는 당시의 여론에서 돌출되어 있다. 그러나 마쓰오 씨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⁹⁾ 미우라는 ‘해군확장의 이유 여하’ (『동양경제신보』1913년 7월 5일자·7월 15일자)서두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근래 육군의 확장에 관해서는 반대론이 제법 가시화되어 왔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재정 곤란, 도저히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이런 논자들은 결국 적어도 만주에서 몽고 내지 북(北)지나로 우리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자는 대륙발전정책에 반대하는 선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실제로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들은 그 사회적 지위나 기타 여러 관계로 인해 분명히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만주포기를 시인하고 우리 국방선을 조선국경으로 끌어내리는 동시에 육군의 현재 규모 축소를 바라는 자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이 육군확장 반대 내지 육군축소론은 근래 점점 더 그 기세가 커져 차츰 일반적인 풍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¹⁰⁾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궁핍이나 중국정세 등을 이유로 식민지 조선국경까지는 철수해야 한다는 많은 찬동자를, 미우라는 정재계를 비롯한 여론에서 얻었다. 조선의 식민지 영유까지는 확보해 두고 그 이상은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우라는 군비확장 경쟁을 우려하는 정·재계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전년 1912(다이쇼 원년)년 12월 제2차 사이온지(西園寺)내각은 육군 2개 사단의 증설안을 각의에서 부결시켰고, 이에 불만을 품은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육군대신이 단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이온지 내각은 총사퇴하고 헌정옹호운동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세력의 개혁요구를 포함한 다이쇼정변(大正政變)의 막이 오르게 된 것이다.¹¹⁾ 그런 시대적 풍조 속에서 탄생한 『제3제국』은 13년에 가야하라 가잔(茅原華山) 등에 의해 창간된 ‘민주주의(반관료주의)’와 식민지포기론·소일본주의를 내세운 급진적 성향의 자유주의 잡지이다. 지방청년이나 조선인 학생 독자도 확보하고 있던 이 잡지에서 미우라는 가야하라와 함께 조선포기론을 한 번 논한 적이 있다.¹²⁾ 이상(理想)으로서의 급진주의적 식민지포기론은 『제3제국』에, 현실적인 문제로서 군비확장·대제국화를 반대하는 만주포기론은 실업계를 독자층으로 가정한 『동양경제신보』에 미우라는 각각 그 집필대상을 구별했다.¹³⁾ 미우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정·재계의 어떤 부분의 이익·주장을 대표하는 정치적 리얼리스트였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8) 미우라 테쓰타로 「만주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 (위의 책에 수록) 120~121쪽.

9) 마쓰오 다카요시 「해설·미우라 테쓰타로 소론(小論)」 (위의 책에 수록) 412~413쪽.

10) 미우라 테쓰타로 「해군확장의 이유 여하」 (위의 책에 수록) 175쪽.

11) 반노 준지(坂野潤治) 『다이쇼정변』 (미네르바쇼보, 1982년)을 참조.

12) 마쓰오 다카요시 『다이쇼(大正)데모크라시』 (이와나미쇼텐, 2001년) 제5장 참조.

13) 위의 96에서 97쪽에서도 이런 점이 지적되어 있다.

미우라의 ‘만주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 이든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 이든 모두 더 이상의 군비확장을 부정하고 식민지 확대의 경제적 비합리성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강조하는 것이었다.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 는 말한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해외에 영토를 확장한 이래 우리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대만에 1억 6732만 엔, 조선에 1억 8316만 엔, 관동주(關東州) 및 남만주철도에 6212만 엔, 사할린에 460만 엔, 모두 합해 무려 4억 1667만 엔을 쏟아 붓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국민에게 중대하고 엄청난 부담, 큰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랴? 우리나라는 위로는 국고의 궁핍에 허덕이고, 차입재정에 차입재정을 거듭해 아래로는 인민이 국비부담의 무게에 울고, 자본 결핍을 호소한다. 한편 20억의 외채(관민 공동계산)를 지고, 그 이자 지불에 허덕이는 한편 과도한 물가 급등으로 인해 사회 인심의 불평이 점점 마음속에 쌓이게 된 상태다. 이러한 때에 우리 정부는 4억만 엔의 큰 자본을 국민으로부터 착취해서 식민경영에 투자하였지만, 이들 식민지 인민의 90%는 조선인, 지나인이다. 이들에게 우리 본국과 추호도 기쁨과 걱정을 나누고 고락을 함께 하는 감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영토팽창정책을 추종한 결과 이미 군비확장을 위해서 10억 엔을 들였고,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4억 1,000만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며 향후 수 년 동안 육·해군 확충에 5억, 7억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세상사람들은 흔히 두 차례의 대전투로 인해 대만을 얻고, 조선을 얻고, 사할린을 얻고, 관동주를 얻고, 20만 평방 마일의 만주 영토를 장악했다는 이유로 크게 특이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영토팽창을 위해 과거에 10억 엔을 군비확장비로 투입하고 4억 2000만엔을 식민지 경영에 투입하고, 또한 이를 위해 실제로 연간 5100만엔을 부담하고 이리 하여 향후 점점 증가는 해도 결코 감소할 전망이 없는 이 엄청난 희생을 보고, 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려 하는가? 애초에 이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은 과연 이런 큰 희생을 보상할만한 것인가?”¹⁴⁾

미우라는 그 후 대만과 내지(内地), 조선과 내지 사이의 이민과 무역 상황을 검토한 결과 모두 특별한 효과가 없을 뿐더러 신식민지경영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미우라가 『동양경제신보』지상에서 도출해 낸 것이 만주포기론이며, 종전의 조선·대만 식민지 국경까지 철수한다는 ‘소일본주의’ 의 결론이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인 대만·조선까지는 지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민지 대만을 포기하라는 논의는 당시 미우라의 붓끝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벽에 부딪친 대만과 그 전개대책’ (1916(다이쇼5년)년 7월 5일자에서 10월 5일자까지 9회 연재)은 대만총독부의 초대로 시찰한 결과 쓰여진 논문이다. 표제에서 기대되는 식민지주의 비판과는 달리 미우라는 이와 같이 서술하고 나아가 제4대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 총독 취임 후(민정장관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식민지 대만의 발전이 얼마나 현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라. 대만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는 주장이 대만 점령 이래 오늘날까지의 시설경영이 모조리 잘못되었다, 실패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향후 대만의 진보가

14) 미우라 테쓰타로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 158~159쪽.

망성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물론 오늘날까지 20년간 건설된 시설 속에는 잘못된 것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달성한 대만의 대발전이 대체로 그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 대만의 부(富)의 근원은 단순히 농업 상에 있어서도 그 이용의 정도가 여전히 매우 유치한 수준이기 때문에 따라서 향후 남아 있는 발달의 여지도 또한 그에 상응하여 매우 크다. 다만 내가 말하는 『벽에 부딪혔다』라고 한 것은, 종래의 경영방침은 이미 그 방침이 갖는 본래의 역할을 다해, 오늘날의 대만은 이미 그 위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¹⁵⁾

미우라의 미래에 대한 제언은 대만총독 전제정치를 폐지하고, 대만 본도 출신의 자치를 수립하여 본도인을 대만의 정치경제의 주역으로 한다는 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는 대만을 남지(南支: 중국 남부) 남양(南洋: 일본 남쪽,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무역에 이용하자는 논리에서 타인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만 발전의 방향성은 그뿐만 아니라 농업 하나만 보더라도 관개배수설비·치수설비·도로교량을 갖추고, 본도인에게 시비(施肥)·종묘·농기구 등의 개선 등 농업기술을 교육하면 우수한 본도인은 스스로 “대만의 재력을 오늘날의 두 배로 늘리고 세 배로 늘리는 것을 기약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¹⁶⁾. 요컨대 1차대전 발발 전야의 미우라에게 있어서 소일본주의란 ‘소군비주의’로서 제국주의의 범위 내에 있으며 산업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였던 것이다.¹⁷⁾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철저한 경제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미우라가 중국인에 대한 경쟁 의식이나 경계심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주포기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미우라는 “우선 먼저 문제 삼기를 바라는 부분은 만주의 주인이 몇 명이냐는 것이다.” 라는 질문을 앞세운다. 대륙발전론자라면 당연히 일본인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우라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잘 만주의 부(富)의 근원을 개척하고, 이용하고, 그리하여 만주에서 가장 잘 번식할 수 있는 인종인가, 그야말로 당연히 그 주인이라 할만하다. 지금 이 견지에서 관찰하건대 가장 많이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일본인인가 러시아인인가, 아니면 지나인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만주장악, 대륙발전대책을 채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연구·해결이 필요한 근본 요점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만주는 오래도록 지나나 조선에는 물론 러시아에도 속하지 않고 3국간에 끼어 있는 요충지로서 야만족의 발호를 그대로 방치한 곳이다. 그런데도 애신각라씨(愛親覺羅氏) 만주민족에서 일어나 지나를 정복하고 이에 군림한 이래 만주는 명실공히 지나의 통치 하에 귀속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 만주에 발호하는 것은 여전히 지나인이며, 지나인은 실로 만주 총인구의 99%를 차지하고, 따라서 만주의 부의 근원을 개척하고 이용하고, 왕성하게 인구를 증식시켜 나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지나인이자 러시아인도 일본인도 아니다.”

15) 「벽에 부딪친 대만과 그 전개대책」(마쓰오 다카요시 編『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 <미우라 테쓰타로 논설집>』수록) 289~290쪽.

16) 위의 327쪽.

17) 미우라 테쓰타로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 136~137쪽.

러시아가 동청철도(東清鐵道: 하얼빈철도)를 만주에 부설하여 하얼빈을 건설하고, 뤼순을 경영하는 등 거액의 자본을 투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권을 확장한 것은 본래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화교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남만주철도를 계승하여 만주 경영과 ‘만주’ 확보를 위한 육군 확장에 해마다 거액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만주에서의 경제 활동은 축소 일로를 걸어 ‘농업·상업 분야에서 홀로 지나인의 발전 신장을 볼 뿐’ 이라고 미우라는 갈파한다. 만주를 군사적·정치적으로 일본이 확보하려 해도 결국 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인이고 일본이 국고지출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화교가 이주·증식하여 번영할 뿐이라는 것이다.

미우라는 이러한 중국인의 왕성한 경제활동의 예를 식민지 대만에서도 찾는다.

“대만이 우리 영토에 귀속되자 크고 작은 정치 우리 일본인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대만에 건너간 일본인은 정복자로서 만사에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지나종(支那種)인구의 증식이 왕성한데 반해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번식이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 상에 있어서도 지나인은 자칫하면 지나인에 비해 뒤떨어지고, 그 중에서도 상업 같은 것은 지나인으로 인해 구축(驅逐)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극진한 보호의 혜택을 입은 설탕회사를 제외하면 대만은 완전히 지나인종의 대만으로서 우리 국민은 자비를 들어 지나인을 위해서 관리(官吏)의 소임을 다하고, 순사(巡査)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미우라에 따르면 중국인을 위해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대만 통치뿐만이 아니다.

“홍콩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영국이 이곳을 점령하여 자유항으로 만든 이후 영국인의 세력과 문명 지식은 이곳의 상권을 독점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나인은 이곳에서도 해마다 그 상권을 확장하여 근래에 이르러서는 지나인이 이곳 상권의 주인이 되려는 기세가 있다고 한다. 그밖에 안남(安南: 베트남)의 해협식민지의 경제 상의 주인은 프랑스인도 영국인도 아닌 바로 지나인이다. 이리하여 지나인의 우수성은 가는 곳마다 이를 입증하지 않는 일이 없다. 지나인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인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화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우라는 화교가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만주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⁸⁾

그렇지만 앞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미우라는 식민지 대만을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고, 1차대전 중인 1916년, 그 때까지의 대만통치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는 식민지통치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만인에게 정치경제 상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차대전 전야의 미우라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식민지로서의 대만·조선을 유지하여 이것을 일본제국 판도의 한도로 삼은 뒤에 그들 식민지경영의 방법을 최대한 자치령화하여 그들의 경제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발전하는 방향에 머물렀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고토 겐이치(後藤 乾一)씨는 『아세아공론(亞細亞公論)』복각판의 해설에서 『아세아공론』 제2호인 1922년 6월호가, 미우라가 쓴 ‘조선에 자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문 때문에 발매금지·전책물

18) 미우라 테쓰타로 「만주 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 95~97쪽.

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나아가 문제가 된 전설적인 미우라의 논문을 재현하고 있다.¹⁹⁾ 바야흐로 조선독립선언이 발표된 19년의 3·1독립운동의 직후에 발표된 만큼 당국에 의해 엄중한 처분을 받았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이시바시 단잔이 『동양경제신보』에 발표한 ‘일체를 버릴 각오’ 나 ‘지나와 제후하여 태평양회의에 임해야 한다’ ‘대일본주의의 환상’은 당국에 의해 출판금지 처분을 당하지 않았다. 처분의 경중이 상이한 원인으로서 『아세아공론』이 재일조선인인 유태경(柳泰慶)을 창립자·사장으로 했었다는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로는 이시바시의 주장이 주로 워싱턴회의에서 중국과 제후하여 영미(英米)와 대항해야 한다는 것을 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도 크게 작용했다. 단잔의 배경에는 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이 제안한 인종차별철폐법안의 부결과 20년 미국에서 제2차 배일토지법(排日土地 : 캘리포니아주 외국인토지법)의 성립 등 24년의 배일이민법(排日移民法)으로 향하는 조류에 대한 일본 국민 사이의 인종적 반감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단잔은 그런 의미에서 반인종차별적이며 반서양제국주의적이며, 화교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갖고 있던 미우라보다 더 아시아주의적이며, 동시에 이상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단잔은 아마도 그만큼 대담한 제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인도를 포함한 세계의 유색민족국가의 약소국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창한 ‘일체를 버릴 각오’에 이어 『동양경제신보』1921년 7월 30일자 ‘사설’에서 단잔은 ‘대일본주의의 환상’ (1)과 더불어 ‘지나와 제후하여 태평양회의에 임해야 한다’고 썼다. 거기에서 단잔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나와 함께 지나의 치외법권의 철폐, 관세개정 문제, 인종평등대우 문제를 가지고 태평양회의에 임한다면 그 결과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회의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렸을 정도로 유리하게 호전될 것임에 틀림없다.

일본인은 태평양회의를 보고 영국과 미국이 한패가 되어 우리나라를 괴롭히려는 꿈꾸이로 만들어졌는가 하고 이를 간다. 본인도 영·미 양국에 그런 의사가 가로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나에 대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침략적인 태도로 나왔다. 혁명란에 편승해서 우한(武漢)에 병영을 건설하고 유럽대전쟁에는 21개조의 요구를 들이대거나 혹은 돈을 빌려주고는 특권을 취하고, 영국이 생사가 걸린 대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나를 비워 두었을 때 일본은 이때다 하며 허를 찔러 방약무인한 행동을 했다. 영국인은 두고 보라, 전쟁이 끝났다면 하면서 전시 중의 불쾌함을 감추고 왔다. 또 미국은 대전 이전부터 극동정책에 열중해 왔는데, 그 정책수행 상 첫 번째 휘방꾼은 우리나라이다. 영국이 한패가 되어 지나를 유혹하고, 일본에게 본패를 보여 주기 위해 기회를 기다리거나 만든다고 것은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라가 빨리 회개하고 오늘날까지 제국주의적 정책을 통해 얻은 일체를 버리고 그리고 지나와 제후하여 나아간다면 영미로부터 못매질을 당할 이유가 없어지는 동시에 국면이 일변하여 인도를 영유하고 백인 호주를 만들고 멕시코를 압박하고 유색인종을 확대하고, 필리핀이나 캄을 무장하여 극동을 위협하고 있는 영·미가 드디어 문초를 당할 위치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당초 태

19) 고토 겐이치 「일본헌대사 연구와 『아시아공론』」 (고토 겐이치·기옥봉(紀旭峰)·나경수(羅京洙) 편집 해제(編集解題) 『아시아공론·대동(大東)공론』 류케이쇼샤(龍溪書舍), 2008년).

평양회의는 일본인이 분개하는 바와 같이 일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열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태도 하나로 오히려 영·미를 자승자박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런 국면을 호전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우리나라가 지나와 제휴할 수 있는가 여부에 있다.

우리 정부에는 이런 대세를 간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각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지나를 소홀히 하면서 영국에 매달리고 미국에 양해를 구하려 하고 있다. 이 무슨 사대주의의 추태란 말인가! 이런 태도로 태평양회의에 임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파리회의의 전철을 밟는 꼴이며, 다시금 일본과 지나가 맞붙어 싸우는, 속이 뻘뻘 들여다 보이는 행동(영·미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엄청난 비극(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에는 영·미가 나와서 『이 악당이!』라고 말하며 일본의 머리를 때리고, 『이 용감한 청년이여!』라고 말하며 지나의 머리를 쓰다듬을 것이다. 결국 일본과 지나 양국 모두 유색인종으로서 오랫동안 백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밑줄 마쓰우라]

본인은 파리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는 좋은 외정(外政) 상의 전통을 내팽개치고, 역사적인 일체의 과정을 버리고, 약소국 즉 이른바 학대 받는 유색인종을 대표하여 그 해방의 기치를 머리 위로 치켜 올리고 이 세계를 개조하는 대회에 임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각오 없이 결국 지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비극을 일으켰다. 당시 본인은 천 년에 한 번 오는 큰 기회를 이렇게 해서 놓쳐버렸다고 발을 구르며 통탄했었다. 그런데 하늘은 아직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번 태평양회의가 다시 우리나라에 큰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만일 이 기회를 잃는다면 필시 세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에 사람이 없어 또다시 이 큰 기회를 날려버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워 견딜 수 없다.”²⁰⁾

미우라는 1924(다이쇼 13)년 12월 동양경제신보사의 주간 자리를, 이듬해 1월에는 대표이사·전무이사의 자리를 50세에 이시바시 단잔에 넘겼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동양경제신보』에는 다이쇼(大正)년간 미우라 주간 하에서 노자키(野崎龍七), 다카하시 가메키치(高橋龜吉), 이시바시 단잔이라는 ‘삼총사’로 불린 인재가 있었다. 미우라가 후계자로서 세 명 중 최연소인 단잔을 선택한 시기를 전후해 노자키는 21년 경쟁사인 다이아몬드사로 회사를 옮겨 39(쇼와 14)년에 사장이 되고, 다카하시는 26년 독립해서 다카하시경제연구소를 설립해 전후에 이르기까지 120여권에 이르는 경제분석 전문서를 출판했다.²¹⁾ 그리고 『동양경제신보』에 남은 이시바시가 이념주의적인 리버럴리즘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카하시는 정부계 싱크탱크 주재자로서 1933년 캐나다, 그리고 36년 북미 요세미티에서 개최된 태평양문제조사회의에서 소셜덤핑(social dumping)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마찰 문제를 일본 측 대표로서 반박하고,²²⁾ ‘만주국’ 재무부·경제부,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등의 의뢰에

20) ‘지나와 제휴하여 태평양회의에 임해야 한다’ (이시바시 단잔 『이시바시 단잔 전집』 제4권(동양경제신보사, 1971년))32~34쪽. 또 이시바시가 파리강화조약 시에 유색인종을 위해 국책을 대전환하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이 책의 주해(注解)에 따르면 ‘인종적 차별철폐 요구 전에’ (1999(다이쇼 8)년 2월 15일호 ‘사설’), ‘국제연맹의 중심사업’ (1999년 2월 5일호 ‘사설’) (모두 『이시바시 단잔 전집』 제3권(1999년 1971년)수록)이다.

21) 다카하시 가메키치에 대해서는 『증권연구』89호(1989년) 「다카하시 가메키치 연구」 외에 도바 킨이치로(鳥羽欽一郎) 『생애 현역』 (동양경제신보사, 1992년) 등 참조.

22) 사카이 데쓰야(酒井哲哉) 「동아시아 신질서의 정치경제학」 (『국제정치』97호, 1991년).

따라 시찰·조사를 실시, 텐진(天津)군에 의한 화북(華北)침략에 있어서 통화문제 등에 참여했으며,²³⁾ 전시 경제 하에서 상공성(商工省) 중앙물가위원회 위원 등²⁴⁾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제국정부 및 식민지 당국과 군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활약했다.²⁵⁾ 미우라는 1차대전 때부터 정치관련 사설을 이시바시에게 맡기게 되면서 대표권을 이시바시에게 넘긴 뒤에도 이사로서 이시바시를 측면에서 도왔다.²⁶⁾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미우라와 이시바시와의 사이에는 실은 같은 경제 본위의 논의라도 화상(華商)·화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식민지 대만에 대한 태도에도 차이가 있었다. 미우라의 논의는 일본의 재계 온건파라는 배경에서 크게 이탈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⁷⁾ 이시바시는 아시아주의나 중·일제후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점에 있어서 미우라나 시대를 크게 뛰어넘은 것이었다. 미우라의 밑에서, 장래의 일본에 의한 동아시아 신질서 옹호의 기수로서 다카하시 가메키치가 결별한 것은 꼭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또 미우라 테쓰타로와 이시바시 단잔과의 ‘소일본주의’에는 경제합리주의에 뒷받침된 리버럴리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사이에는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구외교’적인 잔재를 남기는 미우라와 보다 이념적·도덕적이고 1차대전에서 ‘민주주의’ 국척이(國側)이 강조한 ‘민족자결’ 원칙에 강한 영향을 받은 ‘신외교’적인 이시바시라는 식으로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면서 ‘소일본주의’에 있어서 상이점이 있었다. 미우라의 ‘소일본주의’에서는 역시 영국의 ‘소일본주의’를 부연하고 있는 측면을 크게 느낄 수 있다.²⁸⁾

이 같은 의미에서 「지나와 제후하여 태평양회의에 임해야 한다」 논문 인용부 중에서 필자가 밑줄을 그은 부분은 중요하다. 단잔이 이 인용부분의 마지막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태평양회의에서 세 번째 기회를 놓치고, 중국침략을 추진한 결과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미우라와 이시바시가 주장한 만주포기의 대극(對極)으로서 일어난 만주사변을 의제로 일본은 중국과 국제연맹의 장에서 영·미를 포함한 서양 각국의 앞에서 논쟁을 벌이고, 일본의 만주 철군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자 일본이 연맹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11년 반 후에 벌어지기 때문이다. 마쓰오 다카요시 씨나 단잔 연구가 강극실(姜克實)씨가 지적하는 대로 단잔도 또한 만주사변 후에는 만주사변이나 ‘만주국’ 성립이라는 기정사실을 추인하고, 그 이후에는 그 상태에서 중일전쟁의 전면전화나 3국 군사동맹에는 반대의 논진(論陣)을 치게 되었다.²⁹⁾ 단잔은 이념적·이상주의적인 식민지포기론에

23) 마쓰우라 마사타카(松浦正孝) 『재계의 정치경제사』 (도쿄대학출판회, 2002년) 제5장 참조.

24) 同 『중일전쟁기의 경제와 정치』 (도쿄대학출판회, 1995년) 제3장 제2절 참조.

25) 도바 긴이치로 『생애 현역』 제6장.

26) 마쓰오 다카요시 「해설·미우라 테쓰타로 소론」 414~418쪽.

27)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미우라가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것은 ‘진정한 맞수는 영국’이라고 당시의 반영(反英)풍조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법정화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에서의 최대의 경제 권익을 보유한 현실주의적인 제국주의국인 영국과 손을 잡고 ‘영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지금은 그 영국과의 전쟁은 중지해야 한다는 철저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경쟁상대는 영국이지만, 서로 손을 잡고 극동의 국제질서를 양국의 손으로 유지한다’ (「지나사변(支那事變)의 처리 방침」 (1939(쇼와14)년 2월 16일 신경제체제협회 강연, 마쓰오 다카요시 編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미우라 테쓰타로 논설집>』 수록) 360~361쪽)이라는 이케다 시게아키(池田成彬) 등 재계의 ‘친영파(親英派)’가 주장하던 노선이었다.

28) 미우라 테쓰타로 「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

29) 마쓰오 다카요시 編 『이시바시 단잔 평론집』 「해설」, 강극실(姜克實) 『이시바시 단잔의 사상사적 연

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뒤에 소개하는 재계 온건파와 같은 친영파(親英派)의 입장에서 제국 확장론자를 비판한다는 새로운 방위선을 구축한 것이었다. 이시바시가 만주사변을 추진한 것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역사가로서 성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주사변 및 5·15사건(1932년)이후의 정치·외교환경의 급변,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 이시바시 단장은 1946(쇼와21)년 4월 전후(戰後) 최초의 총선에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다.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낙선했지만, 미국 점령군의 강한 의향으로 성립된 제1차 요시다(吉田)내각에 낙선했던 몸으로 대장대신(大藏大臣: 재무장관)으로 입각하여 적극재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시바시는 점령군이 사용하는 종전(終戰)처리비가 거액이라며 반대하는 동시에 적극재정으로 인해 점령군과 대립하여 47년 총선에서는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HQ에 의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 후 이시바시는 한국전쟁 시에 미국을 강력히 비판하고, 그 후 중·일무역촉진론을 주창했다. 공직추방이 51년 해제되어 54년 하토야마(鳩山)내각 구성과 더불어 통산대신(通産大臣: 통상산업장관)이 된 이시바시는 중·소 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려 했다. 하토야마가 56년 일·소 국교회복 실현을 계기로 취임하자 후임 자민당 총재로 이시바시가 선출되어 총리로서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세계평화 실현을 축으로 하는 신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후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중의원 해산·총선 선거운동 와중에 이시바시는 과로와 감기로 인해 뇌혈전으로 쓰러진 지 불과 2개월만인 57년 2월 이시바시 내각은 퇴진하게 되었다.³⁰⁾

그런데 아시아주의의 대안 중에서 이시바시가 주장하는 식민지포기·제국주의적 권익포기를 각오한 대중국 제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남는 것은 재계 온건파를 기반으로 한 불완전한 일·중제휴의 아시아주의와 서양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 해방을 전면에 내세운 대결적인 아시아주의가 남게 된다. 일단 후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

III. ‘대일본주의’에서 ‘대아세아주의’로 –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대아세아협회 –

미우라 테쓰타로가 “만주 장악 내지 대륙발전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영·일동맹을 포기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더구나 영·일동맹을 포기하면 동시에 우리 대륙발전정책도 그 기초를 잃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영·일동맹 이외에서 그 기초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는 해군의 대대적 확장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이 무모한 군비를 위해 우선 스스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³¹⁾고 다이쇼정변에 이르는 육해군 군비확장경쟁의 역설을 지적하고 있을 때 이들 만주포기론에 맹렬히 반격을 가한 것이 당시 육군참모본부 제2부장(정보부장)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 육군소장이다.

구』 제7장.

30) 마스다 히로시(増田弘) 『이시바시 단장』 제5장~제6장.

31) 미우라 테쓰타로 「만주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 113~114쪽.

때마침 미우라 테쓰타로의 ‘만주포기인가 군비확장인가(滿洲放棄乎軍備擴張乎)’가 ‘동양경제신보’에 연재되고 있던 1913(다이쇼2)년 1월 우쓰노미야는 중국·조선으로 약 2개월에 걸친 시찰여행을 떠났다. 조선에 도착한 1월 19일 우쓰노미야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경찰서장, 헌병대장 대리 등이 맞아주는 가운데 다수의 내지인(内地人)과 함께 신축중인 부두를 시찰했을 때의 소감은 일변한 상황과 다수의 내지인이 이렇게 잇따라 사람으로 붐비는 상황을 보니 다년간의 숙원이 이제야 결실을 맺어 유쾌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바라건대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한 걸음씩 진전시켜 만주 몽고에 실현시키기를 바란다. 그 때가 되면 이 무슨 어리석은 바보인가, 대륙정책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스갯소리로 까지 대륙 포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자들이여. 말하건대 그들이 직접 와서 이 상황을 목도하고 한편으로 철저히 숙고하고 가라.”³²⁾

1월 22일 안동현(安東縣)을 시찰했을 때는 조림이나 경작의 가능성이 큰 것을 보고 “조선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의 으뜸가는 재산이 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으며,³³⁾ 만주에 들어간 23일에는 조선보다 바위 표면이 드러난 산을 보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조림이 가능하다. 만주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소감을 표명했다.³⁴⁾ 그 후 뤼순, 다롄(大連) 등을 시찰한 후 부두 증설중인 다롄항을 보고, 남만주철도 본사에서 중역들과 의견교환을 한 우쓰노미야는 28일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다.

“그 길로 남만주철도 본사에 도착해, 만주·몽고의 경제상으로 보더라도 점점 제국에 유익하고 또한 필요함을 강하게 확신하는 동시에 이런 종류의 시험소사업을 확장시켜 다양한 산업의 안내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만주·몽고 포기론자, 완고하고 편협한 국회의원이나 신문기자 등에게 현지를 관광, 이런 시험 성적 등을 공개하는 것이 그들을 계몽하는 데 가장 손쉬운 길임을 느꼈다.”³⁵⁾

우쓰노미야가 일일이 투지를 불태우는 ‘만주·몽고 포기론자’란 미우라 테쓰타로 등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이다.

1월 31일 지린성(吉林省)의 중심인 창춘의 변화함에 감명을 받은 우쓰노미야는 이렇게 적고 있다.

‘도시의 변창은 물론 전략상, 정략상 가장 중요한 도시 중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이상 내 마음을 자극한 것은 남만(南滿), 중만(中滿)으로 가는 도중 앞으로 시정(施政)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큰 발전의 자질이 있어 더욱 이것을 병탄하는 것이 우리가 자강자대(自強自大)로 자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내 해묵은 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신념을 확고히 했다.’³⁶⁾

32) 우쓰노미야 타로 관련자료 연구회 『일본육군과 대륙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2권(이와나미쇼텐, 2007년)185쪽.

33) 위 187쪽.

34) 위 188쪽.

35) 위 190쪽.

우쓰노미야 타로는 사가번(佐賀藩)출신으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가쓰라 타로(桂太郎),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등 육군의 주류인 초슈번벌(長州藩閥)과 대립하여 우에하라 유사쿠(上原勇作) 전 육군대신을 옹립한 사쓰마벌(薩摩閥)·사가벌(佐賀閥) 중심의 '우에하라벌(上原閥)'의 핵심적인 존재였다. 우쓰노미야 등 '우에하라벌'은 육군 주류파가 서양 열강에 의한 동점(東漸)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과의 협조정책을 최우선하고, 일본의 대아시아정책이 인종적 대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만주·몽고 권익의 옹호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데 비판적이었다.³⁷⁾ 육군 보병소좌 시절인 1900년 4월 우쓰노미야는 '초슈파(長州派)가 육군의 핵심부를 독점'한 사실에 분개하여 "사쓰마 파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굳이 따질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육군 핵심부에 반전주의자 등이 발호하는 것은 실로 통탄할 만하다. 군비확장의 큰 정신은 이를 잘 지지하는 자에 있다."라고 일기에 적고, '초슈벌(長州閥)'의 대서양 열강 공조주의를 매도하고 있을 정도다.³⁸⁾ 미우라 테쓰타로와 이시바시 단잔이 중국통일론자였던 것과는 반대로 우쓰노미야는 일관되게 중국분열론자였다.

아시아주의자인 우쓰노미야 타로는 전부터 청일전쟁 후의 참모본부 부원 시절 대만, 조선·화중(華中)·화남(華南)에 장기출장을 다녀온 후에 제출한 「비(秘) 청·한(淸韓)여행 복명서(復命書)」에서 문명의 부식(扶植)과 동방의 모든 민족의 구제를 달성하여 인종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청국을 분열시킨 뒤에 일·청·한(日淸韓)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역설했다.³⁹⁾ 그리고 1911(메이지44)년 10월 이것을 발전시킨 '대 지나 사견(對支那私見)'을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백인종에 의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일본제국을 생존시키는 자강자대(自強自強)정책을 위해 우선 표면적으로는 청나라를, 뒤로는 혁명파를 지원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거중조정(居中調停: 중개)를 통해 중국을 만주와 중국 두 개의 국가로 분리시키고 만주를 보호국화하고 남방정부와는 동맹관계를 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만일 서양열강에 의한 중국의 과분(瓜分)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것을 억제하여 '이전부터 연구해 온 남북의 여러 지방'을 획득(그 중 북쪽의 일본분할지에는 만주인, 남쪽에는 한족의 소법정을 만들어 타국 분할지 내의 모든 민심을 일본 쪽으로 사로잡아 우리 천황에 귀향⁴⁰⁾시켜야 한다고 논하는 것이었다. 이 안(案)은 심복인 무토 노부요시(武藤信義) 참모본부 제4과장⁴¹⁾과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참모본부 지나반원에게 내시(內示)한 뒤에 후쿠시마 야스마사(福島安正) 참모차장을 비롯한 육군 상층부나 사이온지 총리 등에게도 제시되는 것으로 여겨졌다.⁴²⁾ 그리고 우쓰노미야는 심복인 마쓰이 이와네 및 이도가와(井戸川辰三)에게 미쓰비시재벌의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弥)에게서 당시 돈으로 10만 엔의 자금

36) 위 192쪽.

37) 가쓰라 총리의 만주 몽고 대책에 대한 우쓰노미야의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위의 181쪽, 1913년 1월 7일항 참조.

38) 우쓰노미야 타로 관련자료 연구회 編 『일본육군과 아시아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1권, 1900년 4월 25일항.

39) 위 「해제(解題)」 45쪽 주17 참조.

40) 상기 『우쓰노미야 일기』에 남겨진 '대 지나 사견(私見)'은 우에하라 유사쿠 제14사단장(宇都宮市)앞으로 보낸 10월 19일자 서한에도 적혀 있는데, ()안의 부분이 덧붙여져 있어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다(우에하라 유사쿠 관련문서연구회 編 『우에하라 유사쿠 관련문서』 도쿄대학출판회, 1976년, 55~56쪽).

41) 사가벌(佐賀閥)

42) 우쓰노미야 타로 관련자료연구회 『일본육군과 대륙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1권, 1911년 10월 15일항.

을 얻어(후에 5만 엔 반환), 이 자금을 쑨원(孫文)에 의한 국민혁명 지원이나 만주 몽고 독립공작, 동남아시아공작 등에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우쓰노미야는 이러한 공작을 통해 중국을 분할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로 남북정부의 거중조정을 통해 입헌군주국으로 만들 예정이었으나, 영국이 주도하는 형세가 되었기 때문에 남북강화(講和)를 방해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데라우치 마사타카 조선총독 등 초슈벌(長州閥) 육군간부와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의 의향에 따라 영국 등 서양열강을 추종하게 되었고, 위안스카이(袁世凱)·쑨원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청의 황제는 퇴위하고 청나라는 멸망했다. 우쓰노미야는 이러한 움직임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원통하게도 훗날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⁴³⁾

그 후에도 우쓰노미야는 만주·몽고의 권익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남방정부와 만주·몽고가 위안스카이를 협공하여 만주·몽고는 일본의 수중에 넣고, 본부는 분립시키거나 남방정부에 통일시켜 훗날 일본이 자력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전망 하에 남방정부를 일본정부에 의한 ‘엄정중립’ 방침의 범위 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만주·몽고 공작을 계속하여 남양사업(南洋事業)에도 관여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우쓰노미야의 아시아주의 및 대중정책은 만주사변 이후 우쓰노미야가 내심 후계자로 점 찍은 마쓰이 이와네를 중심으로 한 대아시아협회에 의해 실로 충실하게 계승되어 나간다. 우쓰노미야는 아시아주의자였지만, 동시에 미우라 등의 ‘소일본주의’와 대립하는 ‘대일본주의’자의 전형이기도 했다.

미우라 테쓰타로는 1912(다이쇼 원년)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동양경제신보’에서 연재하던 ‘모든 전몰 후의 영국과 러일전쟁 이후의 일본’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다.

‘구미인 중에는 일본의 전쟁 전리품이 크다는 점과 전후 항상 군비의 대확장을 감행한다는 사실을 보고 일본 국민은 전리품에 도취되어 전쟁을 유리한 장사라고 이해함으로써 결국 가장 위험한 호전적 국민이라는 본성을 드러내 왔다고 심히 우리나라의 발흥을 염오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 이 논거가 구미 일부의 편견임을 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다수가 종래의 전승 결과에 도취하여 우리나라 발전의 근본방침을 영토확장으로 정하고, 이리하여 제국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대륙발전, 지나 분할. 이것 역시 육군확장의 뒤에 숨어 있는 목적이다. 생각건대 영토를 확장하지 않으면 한없이 증가하는 인구를 어떻게 부양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인구증식을 제한하고 섬나라 내에 침거하는 소국민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리하여 남양군도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우리 국민 발전의 영토이다. 만일 피할 수 없다면 미국과의 전쟁 또한 결코 마다할 수 없다. 이것이 즉 해군확장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결론이다. 이 영토확장론만큼 전승의 결과에 도취하여 여전히 깊이 그 폐해를 자각하지 못하는 국민의 감정과 부합되는 것도 없다. 이것은 실로 오늘날과 같이 군비의 대확장을 결행하도록 만든 가장 유력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⁴⁵⁾

여기에서 비판 받고 있는 육군의 확장론이야말로 우쓰노미야의 구상이며 서양열강의 일본에 대한 시기심을 경계하여 연약하다며 우쓰노미야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이 당시의 육군

43) 위 1권, 1911년 10월 15일 항에서 同 2권, 1912년 11월 25일 항에 이르는 기술이나 1·2권 해제(解題) 참조.

44) 위 제2권, 1912년 12월 17일부터 1913년 4월 9일 항(項)까지 참조.

45) 마쓰오 다카요시 編『대일본주의인가 소일본주의인가<미우라 테쓰타로 논설집>』84쪽.

수뇌부였다.⁴⁶⁾

조선·만주 시찰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하기 전에 우쓰노미야는 2월 8일 「최근 만주·몽고에 있어서 우리의 지위를 경시하는 보잘것없는 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모(某) 신사의 말’이라는 글을 지어,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체신대신(逋信大臣)과 반자이 리하치로(坂西利八郎) 대좌(大佐),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 주 청국 공사, 아오키 노리즈미(青木宣純) 소장(少將), 사토 야스노스케(佐藤安之助) 중좌(中佐) 등에게 제시했다. 만주포기론 등에 대항하여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이들에 대한 반론을 가하기 위해 그 토대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2월 24일 우한(武漢)에서 해군 쪽에 보낸 이 의견서에 대해 3월 9일 사쓰마벌(薩摩閣)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樞兵衛) 총리의 뜻에 따라 그 사위이기도 한 다카라베 다카시(財部彪) 해군차관이 “보내주신 취지에는 대체로 찬성이지만,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차제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유보하고자 한다. 언젠가 상세한 내용은 만나 뵈었을 때로 미룬다.” 라는 전보를 보내 왔다. 그 당시 해군의 거물이기도 한 총리가 자신의 의견으로 적어도 마음 속에서는 동의하고 있음을 표명했다는, 우쓰노미야로서는 기대 이상의 결과에 만족했다.⁴⁷⁾ 신문지상이나 잡지를 떠들썩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던 ‘소일본주의’와 ‘대일본주의’의 논쟁은 이로 인해 회피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우쓰노미야 타로의 아시아주의에 있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 인종 통혼론(通婚論)이나 인종적 연대감(인적 이동)에 대한 강한 집착이다. 타로의 아들로 전후 자민당의 국회의원인 도쿠마(徳馬)는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아버지와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잊을 수 없는 김응선(金應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머리가 좋은 이 소년을 남동생처럼 키웠는데, 나중에 이왕(李王)의 무관장(武官長)이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중매로 일본미인과 결혼했으며, 주당에다가 ‘사노사부시’라는 노래를 잘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때때로 찾아와 술에 취하면 아버지와 추억에 대해 얘기하다 울어버려서 어머니가 난처해했다.

일본인은 조선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지론이라 어느 날 어린 나를 반듯이 앉히더니 작은 책을 낭독하라고 하기에 목청을 돋우어 읽었는데, 알고 보니 일본인은 조선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아버지가 쓰신 논문이었다.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그런 것을 읽히는 아직 이르다고 웃었는데도 아버지는 아주 진지했다. 아마도 미래에 내 아내를 조선인 여성으로 들이고 싶으셨을 것이다.”⁴⁸⁾

46) 그러나 실제 청국은 우쓰노미야 등의 염원이었던 우에하라 육군대신을 배출한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이 장기집권에 실패해 우쓰노미야도 당초에는 기대하던 조선 배치를 위한 2개사단 증설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우에하라 육군대신이 야마가타·데라우치 등의 초슈벌(長州閥)과 동조하여 ‘통수권의 간섭’을 고집하다가 사이온지 총리와 충돌, 같은 사쓰마벌(薩摩閥)인 해군의 획책 등도 있어 상주문(上奏文)으로 인해 사직으로 내몰리고 말았던 것이다. 사이온지 내각의 하라 다카시(原敬) 내무대신 등과의 타협할 길을 모색하고 있던 우쓰노미야는 이것을 ‘초슈벌’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사쿠라이 료쥬(櫻井良樹) ‘해제(解題)’(『우쓰노미야 타로 관련자료연구회 『일본육군과 대륙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2권』)). 육군 번벌과 정우회(政友會)의 정군(政軍)관계에 있어서의 대립과 육군 파벌 내의 서양열강에 대한 의견대립과는 다른 차원이며, 전자가 우월한 것은 정우회와 번벌과의 제휴(「1900년 체제」)의 붕괴의 시작이었다(반노 준지 『다이쇼 정변』).

47) 『우쓰노미야 타로 관련자료연구회 『일본육군과 대륙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2권 209쪽 등.

48) 우쓰노미야 도쿠마 「아버지(37) 우쓰노미야 타로 약자의 견해」(『아사히(朝日)저널』 1964년 6월14일호).

참고로 타로가 진심으로 사랑한 장남 도쿠마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듬해 육군유년학교를 중퇴했다. 그리고 구제(旧制) 미토고등학교(水戸高等学校)에 입학하여 마르크스주의에 감화를 받아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에 진학, 마르크스경제학자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를 사사한다. 이후 검거되어 공산당에 입당하는데 체포·투옥된 후 옥중에서 전향하여 석방된 도쿠마는 주식으로 모은 돈을 밑천으로 제약회사 미노파겐(Minophagen)을 설립, 전후에는 자유당·자민당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그의 입장은 독자적인 아시아주의의 입장에서 만주·몽고 권익포기론을 주창하여 아버지 타로의 신랄한 비판을 받은 이시바시 단잔의 리버럴리즘, ‘소일본주의’와 동일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이시바시 단잔이나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등의 계통으로 단독강화론, 평화공존론을 주창해 안보개정(安保改定)에 반대, 중국·소련·북한과의 우호를 주창하는 동시에 『군축문제자료』를 발행하여 자민당 좌파의 입장에서 군축을 호소해 나갔다. 도쿠마에게는 좌우의 차이는 있었지만 아버지 타로와 관련된 아시아주의적인 역사적 기억이 평생 커다란 역할을 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쓰노미야 타로는 1896(메이지29)년부터 조선인 김응선을 동생뻘인 우쓰노미야 긴고(宇都宮金吾)로 삼아 소학교에서 세이쵸학교(成城学校)를 보내 사관후보생으로 키워 한국 태자 이은(李垕)의 시종무관으로 삼았다. 당초 자신의 딸이나 친족과 결혼시키려고 했으나, 김응선이 다른 일본 여성과 가까워지자 그 여성을 일단 자신의 양녀로 삼은 뒤에 결혼시켰다. 그리고 일기에 ‘우선 일한 양국인의 잡혼(雜婚)을 본 것은 내가 이상(理想)의 일단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런 종류의 혼인이 속출하여 양국관계의 개선에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적고 있다.⁴⁹⁾

고대·중세 이래의 해역·국토의 연속성에 대한 의식은 그것이 설령 픽션에 가까운 역사 기억이었다 하더라도 사가(佐賀) 출신의 아시아주의자인 우쓰노미야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근대의 산물인 국적조차 자유롭게 벗어나 아시아의 민족은 통혼(通婚)하여 국경을 희박하게 만들고 아시아연방(아시아연맹이 아니라 연방)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시아주의의 ‘지사(志士)’에게 있어서의 일대 사업이라고 여겨졌다. 이미 1900(메이지33)년 참모본부 제3부원 시절 우쓰노미야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단 한국에 귀화해 내부에서 한국을 개발 유도하여 몸소 일한 양국의 가교가 되어 한국을 일본에 끌어당기는(합병, 연방, 동맹 그 모든 것이 점차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29년 청·한(淸韓)여행 복명서(復命書)의 목적) 것은 첫째로는 제국을 강대하게 만들고, 둘째로는 한국민을 구하고, 셋째로는 아시아연방의 기초로서 오늘날 지사(志士)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니므로 숙고를 요한다.’⁵⁰⁾

앞서도 사가번(佐賀藩)이 조선·대륙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가졌다고 서술했는데, 한국 태자 이은의 비(后)로 간택된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의 모친쪽 조부는 마지막 사가 번주(佐賀藩主)였던 후작 나베시마 나오히로(鍋島直大)이고, 이러한 사

49)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연구회 『일본육군과 아시아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1권, 1909년 1월 31일항.

50)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연구회 『일본육군과 아시아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1권, 1900년 5월 18일항.

정도 이 혼인의 커다란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⁵¹⁾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미야 타로는 옛 주인 나베시마(鍋島)가문으로 연결되는 혼례에 즈음하여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다.

‘오늘은 도쿄 아자부(麻布)에 있는 황실의 별장에서 이 왕세자 이은 전하와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전하의 경사스러운 결혼은 평생의 이상이 실현된 것으로서 환희를 감출 수 없다. 하루 빨리 왕자 왕녀를 출산, 양가의 번영과 동시에 내선(內鮮)의 일치·동화를 더욱 진실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끊이지 않는 바이다. 이 경사로 인해 조선인 정치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공포하여 환천희지(歡天喜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매우 클 것이다. 또한 진작부터 희망해 온 바와 같이 구(舊) 한국 무관을 순수한 일본육군장교로 임용하고, 서위(叙位), 서훈(叙勳)에 관한 건도 오늘 마침내 공포되어 나 또한 기쁨을 건딜 수 없으며 실로 소망을 성취했다.’⁵²⁾

그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통혼·동화·통합까지 바라고 있었다. 역시 조선군사령관 시절 조선인 장병을 초대한 우쓰노미야는

“참모장이 참석한 상황에서 내가 수년 이래 일·선/일·지(日鮮日支) 등의 동화·합동·공존의 정신을 피력하고, 그들과 함께 간담상조(肝胆相照)하며 함께 크게 이 주의(일본과 조선의 진실한 동화, 합동)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권설(勸說)했으며, 그들도 속마음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공감했다. 나는 성심성의 그들 선인(鮮人)을 감화시키려고 결심했다.”⁵³⁾

라고 적고 있다. 우쓰노미야는 1919년 3월 일·지·선(日支鮮)합동·제휴에 의한 공존공영 등의 내용이 담긴 오래된 포부를 정리한 ‘본원(本願)’을 작성하여, 인쇄한 『경세위원(警世危言)』등과 함께 조선인 요인과 뒷일을 부탁한 마쓰이 이와네 등에게 배포하였고,⁵⁴⁾ 귀임 후인 21년에는 조선군사령관 재직 중에 사망한 내선(內鮮) 양측의 전사자 추모를 위해 합동 제휴·공존공영의 취지를 새긴 석비를 조선 땅에 건립했다.

원래 우쓰노미야의 출신지인 사가(佐賀, 히젠(肥前))번은 일찍이 히데요시의 조선출병(임진왜란, 정유재란. 1592년~93년, 97년~98년)에 초대영주인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주군 류조지(龍造寺) 씨 대신 대장으로 참여하여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등과 함께 2진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곳이다. 임진왜란 초기 나오시게는 히젠(肥前)에서 고려 또는 명나라로 영지를 옮기는 전봉(轉封)을 강력히 청해, 가토 기요마사가 히데요시에게 그 뜻을 전하도록 간곡히 부탁했다. 그것은 나오시게뿐만 아니라 조선출병을 계기로 나베시마의 지

51) 이방자의 백부 直光映는 한국통감부에서 농사 조사를 의뢰 받아 황무지 구입에 종사했다(오타베 유지(小田部雄次) 『이방자(李方子)』 64·244쪽). 또한 이은의 여동생 덕혜(德惠)와 쓰시마의 종백작가(宗伯爵家)와의 혼인(同 65쪽)도 사가(佐賀) 나베시마(鍋島)가로 연결되는 방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2) 우쓰노미야 타로 관련자료연구회 『일본육군과 대륙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3권, 1920년 4월 28일항. 왕자출산 시의 일기는 1921년 8월 19일 항 참조.

53) 위 1919년 2월 12일항. 또 2월 10일에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백제 멸망 때 일본으로 귀화한 백제 왕족의 후예라는 계보가 보내져 ‘일선(日鮮)동화를 위해서 매우 귀중한 가문이다. 장래에 일고(一考)를 요한다.’ 라고 기록하고, ‘일조동조론(日鮮同祖論)’에 의한 동화·통합을 추진하려고 생각했다.

54) 위 1919년 3월 9일·11일·4월 16일·5월 6일·8월 27일·10월 2일, 20년 5월 28일·9월 21일항 등 참조.

휘 하에 들어간 구(舊) 류조지 하급무사들의 소원이기도 했고, 히젠 도처에 사는 주민 대부분이 사쓰마(薩摩)·히고(肥後)·하카타(博多)·나가토(長門)와 함께 ‘후기 왜구’로서 명나라에 건너가 생계를 꾸리고 있어 명 내지 조선으로 전봉을 환영하는 영민(領民)의 의향을 수용한 것이었다.⁵⁵⁾ 이 사실은 중세 이래 환지나(還支那)해역을 사이에 두고 중국·조선·일본을 자유롭게 사무역(私貿易)이나 약탈 등 ‘왜구’로서 행한 활동⁵⁶⁾이나 조선출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 더불어 사가(佐賀)인들에게 긍지로 구전되어 연속된 역사기억, 또는 자기인식으로서 공유되고 있었다. 즉 조선군사령관이 된 사가 출신의 우쓰노미야 타로는 1918(다이쇼7)년 각지를 시찰하는 도중 회령(會寧)에서 만난 사가 출신의 사관후보생들에게 “나오시게 공의 히젠을 반환하고 함경(咸鏡)을 대봉(代封)하도록 태합(太閤)에게 청했던 옛일”이 있음을 고하고 격려했다.⁵⁷⁾

또한 시마즈(島津)씨와 나베시마 씨가 조선출병 시에 연행한 조선인 도공과 장뇌 기술자에게 사쓰마(薩摩)와 사가에서 도자기와 장뇌를 생산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며, 더구나 그들은 메이지(明治)까지 조선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고, 보호를 받았다.⁵⁸⁾ 사쓰마번·사가번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선이나 대륙 그리고 조선인은 가까운 존재였던 것이다. 당시 근대 국민국가가 갖고 있는 국경의 개념은 없었다. 따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히데요시에게 있어서 시마즈 정복으로 ‘국내통일’이 완성되고, 다음 단계로 ‘해외파병’에 나선다는 의식은 없었으며, 개척자로서 규슈(九州)에서 연속적으로 류큐(琉球), 조선, ‘소류큐(小琉球)’(필리핀)에 복속을 요구하고, 나아가 명나라 왕조를 전복하고 그 대신 ‘일본왕조’를 대륙에 세운다는 시나리오의 연속적인 것이었다. 또 베이징으로 들어가 고요제이천황(後陽成天皇)을 이곳으로 옮겨 중국황제로 삼은 후에는 천축(인도)정복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 닝보(寧波)로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한다.⁵⁹⁾ 국경에 의해 구분된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기까지 아시아의 바다와 육지, 세계의 지평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집권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 강대한 구 다이묘(봉건영주)를 끝까지 몰아붙이기를 피했기 때문에 시마즈 씨와 나베시마 씨는 주요 다이묘 중에서 예외적으로 세키가하라(関ヶ原)전투 이후에도 거의 상처를 입지 않고 남을 수 있었다.⁶⁰⁾ 그리고 중세 이래의 사회구조나 대륙·조선에 대한 인식이 특히 사쓰마·사가번에서는 막부시대 말기까지 남아있었다. 더구나 도쿠가와 정권 초기까지 사가 나베시마번에서는 시마즈·마쓰우라 양씨와 함께 중국이나 필리핀의 Luzon·안남(베트남)·삼 등과의 통상외교에 의욕을 보여 나가사키(長崎)무역을 추진했다. 막부 말기에는

55) 다케노 요코(武野要子) 『번(藩)무역사의 연구』 (미네르바서방, 1979년) 136~138쪽.

56)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중세왜인전(中世倭人伝)』 (이와나미쇼텐, 1993년).

57)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연구회 『일본육군과 아시아정책 육군대장 우쓰노미야 타로 일기』 제3권, 1918년 9월 21일 항.

58) 예를 들면 안우식(安宇植)·하시카와 분조(橋川文三)의 대담「일본의 근대화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사상」(『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전집 제4권 월보(月報)』다이와쇼보(大和書房), 1978년)4쪽의 안우식의 발언, 오타베 유지(小田部雄次) 『이방자(李方子)』 (미네르바서방, 2007년)64~65·244~245쪽 참조.

59) 나카노 히토시(中野等) 『전쟁의 일본사16 임진왜란 정유재란』 (요시카와코분칸(吉川弘文館), 2008년)1~54쪽.

60) 무라카미 야스스케(村上泰亮)·구몬 순페이(公文俊平)·사토 세이자부로(佐藤誠三郎) 『문명으로서의 가문사회』 (주오코론샤(中央公論社)) 392쪽.

‘란벽(蘭癖, 네덜란드의 문물에 심취함)’으로 유명한 제10대 번주 나옴사(直正)가 서양문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아편전쟁 시에는 영국군함에 석탄을 팔기 위해 마쓰우라군(松浦郡)에서 채탄사업을 개시하여 그것을 나가사키에서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고, 그 이익으로 군제개혁(軍制改革)을 포함한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했다. 시마즈 씨와 마찬가지로 전국시대(戰國時代) 이후의 문제의식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생각할 때 중세 이래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나 일본의 국내질서와의 연속성과 비교를 생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가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가 도야마현(富山縣)에서 작성된 일본열도를 도치(倒置)되어 있는 ‘환일본해제국도(環日本海諸國図)’를 사용하여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동해 및 동지나해는 일본열도, 남서군도와 아시아대륙으로 둘러싸인 ‘내해(內海)’였다. 중세, 그리고 근세 초기까지 ‘왜구’ ‘왜인’은 ‘일본인’과 동일하지 않았다. ‘왜인’은 국가를 초월해 국경과 상관 없이 한반도·중국대륙·일본열도 등에 걸친 해역을 생활의 장으로 삼았던 집단이며, 아이누는 사할린이나 아무르강(흑룡강) 상류에서 북해도·도호쿠(東北)지방 북부에 걸쳐 활동한 교역민이었다. 몽고제국 시대에는 또는 청나라 시대에는 아무르강 하류·사할린·북해도·도호쿠지방 북부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아이누·화인(和人)·산단(山韃: 사할린)·Uilta 등이 뒤섞여 ‘북쪽의 왜구’로서 모피무역 등을 전개했다.⁶¹⁾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등이 만든 민족주의결사인 고쿠류카이(黒龍會)의 명칭은 흑룡강(黒龍江) 너머로 백인종을 쫓아내기 위해서 붙였다고도 하고, 시베리아를 건너 흑룡강 부근에 도달한 우치다가 그 경치에 감동해서 붙였다고도 하는데, 그들이 가졌던 ‘아시아’ 상(像)이 아이누를 포함한 이 주변의 민족이 뒤섞여 교역을 하고 생활하던 시기를 ‘도원향(桃源郷)’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천하로 웅비한다는 ‘천하포무(天下布武)’를 달성한 쇼쿠호(織豊: 아즈치 무로마치 시대) 정권기에 ‘일본국으로서의 통일 의식’이 강해지고,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 출병을 거쳐 도쿠가와(徳川) 정권이 ‘쇄국’을 실시할 때까지 일본해 연안이나 규슈(九州)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시아의 바다’는 조선·중국은 물론 류큐(琉球)·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생활권이며, 일본은 바다에 의해 나뉘어진 ‘섬나라’ 따위가 아니었다.⁶²⁾

역사가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는 단일민족신화에 근거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비판함으로써 일본 역사학계에 강한 충격을 던져, 반대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우파로부터 공격을 당한 리버럴한 역사가다. 우쓰노미야 타로와 도쿠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주의가 좌우를 넘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나 리버럴리스트(liberalist) 역사가 아미노의 학설과 도야마 미쓰루(頭山滿)등 과거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국민국가(국가주의) 비판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한 것은 아시아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다.

한편 우쓰노미야 타로가 그 ‘대일본주의’의 후계자로서 기대를 건 것은 나고야 출신의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였다. 마쓰이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대아시아협회라는 ‘대동아전쟁’

61) 사사키 시로(佐々木史郎) 「동북아시아의 하천, 해상교통과 그 거점」(역사학연구회 編 『시리즈 항구 도시의 세계사』 제1권, 아오키쇼텐, 2005년), 나카무라 카즈유키(中村和之) 「아이누의 북방교역과 아이누문화」(가토 유조(加藤雄三)·오니시 히데유키(大西秀之)·사사키 시로 編 『동아시아 내해(內海) 세계의 교류사』(진분쇼인, 2008년)).

62) 특히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 『일본의 역사〇〇 『일본』이란 무엇인가』(고단샤(講談社), 2000년) 참조.

을 주도해 나간 범아시아주의의 이데올로기·네트워크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 상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⁶³⁾ 그는 우쓰노미야의 '대일본주의'를 '대아시아주의'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 그 전기가 된 것은 이시바시 단잔의 '소일본주의'를 전략적으로 후퇴시킨 만주사변이다. 만주사변 후 국제연맹에서 이루어진 중·일간의 그것을 둘러싼 대립과 영·미등 서양제국의 압도적 다수에 의한 '만주국' 부인과 일본을 비판하는 리튼(Lytton) 조사서의 결의였다. 당시 육군을 대표해서 군축회의의 일본 전권대사를 맡았던 마쓰이(松井)는 이러한 연맹의 현장을 목격하고 격렬히 분개해 1932(쇼와7)년 2월에 일본 육군전권의 역할을 버리고 귀국해버렸다. 그리고 연맹 구성의 기만성에 대해 여기저기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예를 들면 33년2월에 오사카(大阪)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사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마쓰이는 연맹에 의한 일본 비판 결의는 과거의 3국 간섭에 비해 '몇 배의 치욕'이며 탈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계는 연맹이 아닌 미국·소련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연맹 자체도 가맹국인 영국이 속국을 합쳐서 7표, 프랑스가 소협상국을 합쳐서 5~6표, 연맹 외의 미국·소련이 5~6표의 영향력이 있고, '아시아의 패자(覇者)인 우리 제국 일본'이 한 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국제적 인식을 표명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버마, 인도, 페르시아, 터키 등 아시아의 동포와 손을 잡고 '이들을 이끌고 진정한 대아시아 건설'을 이룩해 진정한 세계평등·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아시아주의로 돌아가라'고 외친⁶⁴⁾ 것이다. 그리고 마쓰이는 국제연맹을 대신하는 아시아연맹을 만들기 위해 '만주국' 건국 1주년째인 1933년 3월 대아시아협회를 동지와 함께 설립했다.

대아시아협회 설립의 모체가 된 것은 32년 봄 나카타니 다케요(中谷武世) 호세이대학(法政大學) 교수, 시모나카 야사부로(下中彌三郎) 헤이본샤(平凡社) 사장 외에 미쓰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 나카야마 유우(中山優), 이마나카 주이치로(今中十一郎), 시미즈 도조(清水董三), 나카히라 아키라(中平亮), 우지타 나오토(宇治田直義), Rash Behari Bose(인도인 혁명가), 콘디(안남의 왕족)등의 학자·평론가들이 만주국 건국 이후의 아시아 문제를 아시아대륙 전체의 문제와 함께 멀리 중동문제까지 포함시키고, 만주사변 문제보다 넓은 맥락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범아시아학회다. 여기에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히로타 코키(廣田弘毅, 외무성 대기발령 중)등의 정치인·외교관, 스에쓰구 노부마사(末次信正, 해군 제2함대장관), 기쿠치 다케오(菊池武夫, 육군예비역중장·귀족원의원), 오바타 토시로(小畑敏四郎, 참모본부 제3부장), 혼마 마사하루(本間雅晴, 병기 본창부 신문 반장), 히구치 기이치로(樋口季一郎, 도쿄 경비참모), 스즈키 테이이치(鈴木貞一, 육군성 군무국 지나반장), 이시카와 신고(石川信吾, 해군군령부 제2반 제3과 참모) 등의 유력 육해군인, 무라카와 겐고(村川堅固, 도쿄대학 문학부 교수·서양사), 야노 진이치(矢野仁一, 교토대학 문학부 명예교수, 동양사),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 동경대학 문학부 조교수·국사학), 가노코기 카즈

63) 마쓰우라 마사타카 『‘대동아전쟁’은 왜 일어났는가——범아시아주의의 정치경제사』(나고야대학출판회, 2009년 간행 예정)와 이미 간행되어 있는 마쓰우라 마사타카 「일중전쟁은 왜 남하했는가」 1~3(『북해도대학 법학논집(北大法学論集)』 57권 1호~58권 2호, 2006·2007년), 마쓰우라 마사타카 「해설 잡지 『대아시아주의』와 대아시아협회에 대해」(고토 겐이치(後藤乾一)·마쓰우라 마사타카 편집·해설 『북각관 대아시아주의』(류케이쇼샤(龍溪書舍), 2008년)) 참조.

64) 「본사 주최 특별 대강연회의 마쓰이 대장의 열변」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1933년 2월 28일~3월 5일자.

노부(鹿子木員信, 규슈대학 법문학부장·철학), 오타 고조(太田耕造, 고쿠혼사(国本社) 기관지 발행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등의 지식인이 가세해 대아시아협회가 이루어졌다.

대아시아협회는 기관지 『대아시아주의』를 33년 5월 창간호부터 42년 4월의 종간호까지 9년간에 걸쳐 계속 발행했으며, 정치단체가 아니고 사상문화단체로서 대아시아주의를 계몽·선전하는 동시에 대만·조선·필리핀과 같은 해외와 오사카·후쿠오카·가나자와·교토·구마모토·고베 등에 지부를 만들어 불교단체·군대·재향군인회·지방행정조직·반상회·상공업계·재외교포·식민지 등에 침투하는, 아시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이데올로기·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대아시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서양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일본에 아시아와 제휴할 것을 호소한 쑨원의 중국 후계자들과의 제휴를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제국을 '대동아전쟁'으로 이끌 때에 반영(反英)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큰 역할을 해나갔다.

마쓰이 등의 대아시아협회가 마쓰이의 직접적인 '스승'이었던 우쓰노미야 타로의 '대일본주의'에서 '대아세아주의'로 발전해 나간 메르크말(Merkmal)로서는 세계대공황과 '만주국'성립 이후 세계에서 국제연맹을 대체할 아시아연맹을 목표로 한 것 외에 아시아를 하나의 실험장으로 하는 일대 경제권을 만들고, '공존공영'을 도모하는 일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려 한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만주국'과 일본, 일본 제국의 식민지인 대만·조선 등을 새로운 '일·만·지(日滿支)'블록, 나아가 '동아시아 신질서'로서 새로운 분업 체제로 재편하여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동해를 '내해'로 하는 일체화된 경제 블록을 형성해 세계적으로 발 빠르게 경기부양을 실현했다. 그리고 중국을 침략하고, 화북·화중·화남 등으로 분할통치·합작시키는 '중화연성 자치국(中華連省自治国)'으로 해체하고, 그것과 일본제국, '만주국'·몽고자치국·신장(新疆)자치국·시짱(西藏: 티베트)자치국 등으로 '아시아연맹'을 형성하고자 했다. '만주국' 건국으로 소련과의 전쟁 위협성은 감소했다는 이유로 조선·'만주국'을 일체화한 병참기지를 건설했다.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 시기에 시작된 조선 북부·'만주국'으로의 조선인 이주 정책은 후에 중일전쟁 장기화로 인해 일본의 노동력이 부족했던 1939년 이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강제 노동정책이나 '대동아전쟁'시기의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노무자 동원 정책의 원형이 된다. 화교 자본과 아시아 각지의 천연자원을 이용하고, 대만을 거점으로 하는 '남양' 진출을 실현시키며 조선인·중국인·아시아 각지의 현지인을 노무자로 삼아 벌이는 일대 공공 사업에 의해 더욱 더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공존공영', 나아가 아시아에서 서양제국주의국가의 구축(驅逐)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마쓰이 자신은 대만군 사령관 시절에 대만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중국 서남부와 제휴 공작을 진척시키는 동시에 '남양' 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아시아주의 운동을 추진했다. 그 후 중일전쟁 발발에 즈음해서는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및 중지나(中支那)방면 군사령관으로서 상하이 상륙·수도 난징 공략 등을 지휘하고, 대아시아협회의 이사 등을 맡은 육군군인들과 협력하면서 반영(反英)주의·등을 축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하고 중국 점령지에 괴뢰정권을 수립했다. 마쓰이가 '난징대 학살'이나 영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최고지휘관에서 해임 당한 이후에도 대아시아협회 임원·회원들은 고아인(興亞院)을 중심으로 전쟁 수행 및 중국 점령지에 있어서의 선전공작·선무(宣撫)공작을 추진했다.

이러한 대아시아협회의 대아시아주의라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 준 것이

모체가 된 범아시아학회의 이마오카 주이치로(今岡十一郎)등 지식인에 의한 ‘투란주의’⁶⁵⁾와 아시아연맹론이며, 또 대아시아협회 설립에 즈음하여 새로이 참가해 서양사를 전쟁·침략과 유색인종의 착취의 역사로서 묘사하고, 일본민족의 우월성을 역설한 무라카와 겐고(村川堅固, 도쿄제국대학 명예교수)⁶⁶⁾ 등의 지식인이었다. 대아시아협회 회원 중에는 교토제국대학·고베(神戸)상업대학 등 간사이(關西) 유력대학의 교수진도 많이 참가했지만, 대부분은 의학·농학·경제학 등 아시아 개발과 관련되는 실학 계통의 교수들이며, 소위 ‘교토(京都)학파’라고 불리던 포스트·모던 지식인은 참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아시아협회는, 정치결사로서의 활동보다 사상문화단체로서 더구나 정당·결사로서보다는 이데올로기·네트워크로서 이 협회를 거점으로 하는 완만한 침투력·영향력을 통해 일본의 정치를 움직였기 때문에 파시즘론을 포함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유럽 정치이론·미국 정치이론 등 서양에서 유래된 ‘전쟁범죄’ 책임자 색출을 위한 그물망에서 빠져나왔다. 또 도쿄국제군사재판에 있어서도 마쓰이 등의 변호인이 대아시아주의에 기초한 서양 제국주의 비판을 전개하려 했지만, 점령군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동모의’라는 전쟁범죄의 틀 내에서 심판했다. 이 때문에 마쓰이는 난징학살사건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죄상으로만 사형이 내려졌던 것이다. 『대아시아주의』에는 당시 정치적 발언이 봉쇄되어 있던 군인을 포함한 많은 대아시아협회 회원들에 의한 매우 귀중한 논문과 제반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만, 이 잡지는 2008년부터 복간되기 시작해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고노에(近衛)내각에 의한 중일전쟁의 확대, 동아시아 신질서선언, 1939년에 고양된 3국군사동맹과 다이세이요쿠산카이(大政翼賛會) 성립 등을 가져온 대반영(大反英)가두운동, 왕자오밍(汪兆銘)정권의 옹립, 그리고 ‘대동아전쟁’을 주도한 와중에 있던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전후가 되자 나카타니 다케요(中谷武世)·시모나카 야사부로(下中彌三郎) 등의 전(前) 대아시아협회 회원들은 세계연방운동을 일으키는 한편,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와 함께 동남아시아개발기금 구상을 미국의 자금을 이용해 실현하고자 시도했다. 또 자민당 국회의원이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를 옹립하고, 우쓰노미야 도쿠마(宇都宮徳馬)를 포함한 좌우 각파의 정치인·재계인들로 구성된 일본아랍협회를 창설하고, 이집트의 너셀(nacelle) 대통령에게, 압록강댐 건설실적이 있는 일본의 기술력·자금력을 동원해 앵글로색슨에 대항하기 위해 아스완 하이댐(Aswan High Dam)을 건설하는 구상을 제안해 추진하려고 했다.⁶⁷⁾ 또 일본은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해서 ‘대동아전쟁’을 벌인 것이며, 착취를 목적으로 한 서양 제국주의와는 달리 ‘공존공영’을 목표로 한 것이고 일본은 침략국가가 아니라는, 현재의 일본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언설(言舌)도 ‘대아시아주의’ 이데올로기가 수정되어 만들어진 ‘역사기억’으로서 계속해서 연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5) ‘투란주의’는 투란민족, 즉 우랄 알타이민족의 독립운동을 주장하는 운동으로서 핀란드·헝가리에서 중앙아시아, 몽고·만주·조선·일본인 등이 동일한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윤노 히로시(海野弘) 『음모와 환상의 대아시아』(헤이본샤(平凡社), 2005년)제2장 등 참조.

66) 무라카미 겐고(村川堅固) 및 그 아들 겐타로(堅太郎, 전후 도쿄대학 문학부 교수)는 전후에도 오랫동안 그리스 로마사의 권위자로서 학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67) 나카타니 다케요(中谷武世) 『아랍과 일본』(하라쇼보(原書房), 1983년)참조.

IV. ‘민간재계주의(民間財界主義)’

지면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차대전 이전에 일본에서의 아시아주의의 세 번째 대안이었던 ‘민간재계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세 개의 아시아주의 중에서는 약간 불안정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소개해 온 두 가지와 달리 식민지를 포함한 제국과 국민국가 등 현재·기존의 국가를 틀로 한 상태에서 민간재계를 주체로 일본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의 평화질서를 유지해 가자는 입장이다. 원래 일본의 재계는 도쿠가와 시대에 일본이 해왔던 무역 및 국내유통억제정책인 ‘쇄국’ 시대에 서양제국이나 화교 등에 비해 뒤떨어진 경제활동을 제도 및 세력범위 등의 면에서 급속히 되찾으려 하는 메이지(明治) 신정부의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사쓰마(薩摩)번(현재의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다스린 영주 시마즈 씨의 영지)은 ‘쇄국’ 정책에 반대해 류큐(琉球)를 거점으로 하는 밀무역으로 인해 도쿠가와(德川) 바쿠후(幕府)와 대립해 비밀리에 영국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그 중 한 사람인 초대 문교장관 모리 아리노리(森有礼)는 “구미(歐美)의 상인은 앞으로 두려워할 만하지만 지나(支那) 상인은 앞으로 일본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오사카에 화교에 대항하기 위한 상업학교 설립을 호소했다.⁶⁸⁾ 그리고 같은 사쓰마번 출신의 유학생동료였던 상인 고다이 도모아쓰(五代友厚) 등 민간재계의 힘을 빌려 오사카상업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본고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시기에 활약한 미우라 테쓰타로 등의 이코노미스트도 또한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아라오 세이(荒尾精)이나 네즈 하지메(根津一), 기시다 긴코(岸田吟香) 등의 아시아주의자도 같은 관점에서 서적·약재상점인 한커우야쿠젠도(漢口樂善堂)와 일청무역연구소(日淸貿易研究所), 동아동문서원(東亜同文書院) 등의 대아시아 무역 진흥·첩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습기관을 설립했다.

한편, 서양경제의 다양한 제도와 개념을 조속히 일본에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메이지 신정부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그 측근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에 가까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등 케이오기주쿠(慶應義塾)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정부의 재정경제담당자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정변에 의한 시모노(이노우에·시부사와는 1873(메이지6)년), 오쿠마 시게노부와 후쿠자와 계의 관료는 1881(메이지14)년) 이후에는 민간재계를 형성하고, 회사·은행·보험을 비롯한 경제제도를 일본에 정착시켜, 많은 회사·기업을 창립함으로써 일본의 자본 주의제도를 정착시켰다. 시부사와 등은 식민지 조선에 제1 국립은행 지점을 개설하고, 1902(메이지35)년에는 조선의 경제개발을 위한 조선협회를 설립해 조선총독부와 협력하면서 조선에서의 경제제도정비와 경제개발에 나섰다. 중국에 대해서는 1907(메이지40)년 대중국 투자회사인 동아흥업(東亜興業), 14년(다이쇼2)년 4월에는 전년도에 일중합작회사로서 설립된 중국흥업을 중일실업으로 재편하고, 1920(다이쇼9)년 일·중친선을 위한 일화실업협회(日華實業協會)를 설립했다.

물론 일본의 대중국·조선을 포함한 대아시아 경제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정부계 금융기관, 식민지당국과 군부 등이 수행한 역할은 크지만,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를 중심으

68) 가고타니 나오토(籠谷直人) 『아시아 국제 통상질서와 근대 일본』 (나고야대학출판회, 2000년) 11~12·84쪽.

로 해서 형성되어 나간 민간재계가 아시아주의에 미친 영향도 대단히 크다. 거기에는 경제 분야에서 화교가 행사하는 압도적인 영향력 앞에서 화교 등에 대항해 일본 측 통상의 패권을 확립해 나가려고 하는 아시아에 대한 침략적인 측면과, 중국 등과의 제휴 없이는 일본의 경제발전은 없다는 우호적인 측면의 양면이 있어 종종 그 양면은 떼어 놓기 어려웠다.

시대가 지나 만주사변 후 한참 지난 1935(쇼와10) 년 중반이 되면 만주사변으로 단절 상태에 가까워진 일·중무역도 회복되기 시작해 중국 측이 경제제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측에서도 오사카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외무성의 후원 하에 일·지(日支)경제연락위원회 설치·준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35년 10월도 장제스(蔣介石) 등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우딩창(吳鼎昌) 중국염업은행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민국 부일(赴日)경제고찰단이 조직되어 방일하게 되었다. 우 단장은 방적과 잡화 등 중·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널리 의견을 교환하고, 산업 별로 일중경제제휴의 가능성을 모색할 의향을 밝혔다. 고찰단은 일본의 은행업계와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와 교류했을 뿐 아니라 방직공장·전선공장 등을 시찰해 친선을 강화하고, 그 결과 중국측의 제안으로 경제제휴·무역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측에 중일무역협회(회장 주작민(周作民) 金城은행 총경리), 일본측에 일중무역협회(회장은 고다마 겐지(兒玉謙次) 요코하마정금(正金)은행 총재)가 상설되었다.⁶⁹⁾

그 후 1935 년11월 4일 중화민국은 영국이 파견한 Sir Frederic Lieth-Ross의 조언에 따라 통화제도개혁을 단행했다. 은을 중심으로 하는 그 때까지의 불안정한 통화제도에서 파운드와 연동한 법정통화(법폐)로 바꾸는 이 개혁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계에서는 군부와 ‘만주국’의 화북(華北)분리에 대한 의향에 따라 그 장래를 비관하는 관측을 내놓고 법폐에 반대하는 ‘어용 학자’ 다카하시 가메키치와 재계온건파를 대표하는 동아흥업주식회사 상무로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상학부 교수(외환론·지나외환론)의 우치다 가쓰시(内田勝司)가 격론을 주고받았다. 군부와 강경한 아시아주의자인 외교관 스마 야키치로(須磨彌吉郎) 난징 총영사⁷⁰⁾는 영국의 원조를 받은 이 화폐제도개혁안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중국의 자력으로 화폐제도개혁을 희망하고 있던 다카하시 고레키요(高橋是清) 재정장관도 일본의 협력을 요구하는 영국측의 요청을 거절해 중국은 영국의 원조를 받는 형태로 개혁을 단행했다.⁷¹⁾ 중국의 화폐제도개혁이 세상의 비관론을 뒤집고 성공을 거두는 가운데 지나주둔군(천진군)도 이에 초조함을 느끼고, 화북 현지에서의 새 통화공작(다카하시 가메키치가 이에 협력), 밀무역 같은 경제적·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의 은행·상업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 및, 장제스와 쿵상시(孔祥熙) 등의 난징정부와 중국 실업계 사이에서 다시 ‘경제를 경제인의 손에’라는 형태로 민간재계 주도의 경제제휴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군부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일본측에서 중심이 된 것은 육군출신의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내각에서 대장대신(재무상)겸 척무대신(拓務大臣)을 맡았던 재계 출신의 유우키 도요타로(結城豊太郎) 전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 총재였다.

69) 이하의 일본 재계에 의한 중일전쟁 회피의 움직임과 전쟁수습공작에 대해서는 마쓰우라 마사타카 『재계의 정치경제사』 (도쿄대학출판회, 2002년)제5장 참조.

70) 가코타니 나오토(籠谷直人) 『아시아 국제 통상질서와 근대 일본』 (나고야대학출판회, 2000년)11~12·84쪽.

71) 마쓰우리 마사타카 『재고(再考)·중일전쟁 전야』 (『국제정치』122호, 1999년) 참조.

하야시 센주로는 만주사변 즈음에 조선군 사령관으로서 천황의 ‘봉칙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 본국 통수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간토(關東)군의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 등을 돕기 위해 독단으로 월경(越境) 출병한 ‘월경 장군’으로 유명하다. 또 군부를 누르기 위해서 정우회(政友會)·민정당의 협력을 기반으로 육군 출신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조각에 실패한 이후 성립된 기성 정당 등의 지지를 받지 않은 정치기반이 취약한 내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에서 매파로 간주되는 정치인이 실제로 집권하면 친아시아정책을 취하려고 하거나, 자위대를 위헌으로 주장해 온 사회당 당수가 총리가 되면 그 입장이 180도 전환되는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하야시 내각도 또한 실질적으로 3개월이라는 짧은 정치생명 속에서 유우키 대장대신과 외무성 출신의 사토 나오타케(佐藤尚武) 외무대신과 콤비로 화북분리 공작을 중지하고, 기동(冀東)밀무역을 억제시키려 하거나 장제스 정권에 의한 중국 통일을 인정해 문화경제를 중심으로 일·중 국교조정을 도모하려 한 지극히 대중 유화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역사의 일개 에피소드를 뛰어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야시 내각에 의한 정책전환의 이면에는 경제계 내부에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한 재계와 외무성 내의 온건파가 있었다.

35년 10월에 방일한 중화민국 부일경제고찰단에 대한 답례로 재계에서는 고다마 겐지 요코하마정금은행 총장을 단장으로 37(쇼와12)년 4월 이번에는 일본측이 중국을 방문하는 실업단을 조직했다. 바로 노구교(蘆溝橋)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의 일이다. 고다마 방중단의 최대 목적은 중일 간의 소원해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양자가 거리낌 없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향후 무슨 일이 생기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드는 것에 있었다. 그 때문에 방문지에서 일반문제 간담회 및 설탕문제 간담회, 금융부 간담회, 면업(綿業)문제 간담회 등의 개별부회가 열려 양자 간에 격렬한 논의를 벌이며 반박하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대체로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군인이 본업을 떠나 경제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는 경제인 사이에서 하고, 문화와 경제 양면에서 국교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결국 양자는 일본측이 기동 밀무역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중국측이 배일적(排日的)으로 보이는 고율관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특히 고다마 단장(일중무역협회 회장)과 주작민 중일무역 협회 회장이 만약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방문단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를 썼던 후나쓰(船津辰一郎) 재중방적동업회 이사를 통해 정금은행(正金銀行)의 암호통신을 ‘핫 라인’으로 이용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중일 전쟁 발발 직후 곧 후나쓰에 의해 일중화평(和平)공작이 모색된 데는 이러한 복선이 있었던 것이다. 또 1938(쇼와13)년 여름 제1차 고노에(近衛)내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미쓰이 은행(三井銀行) 출신으로 재계 대표인 이케다 시게아키(池田成彬)를 대장대신 겸 상공대신으로 앉히고, 이케다의 맹우(盟友) 우가키 시게나리를 외무 대신으로 영국이 중개하는 일·중화평공작이 이루어진⁷²⁾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고다마 실업방문단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그것은 이 방문단을 사토 나오타케(佐藤尚武) 외무장관과 함께 보좌한 유우키 도요타로 대장대신이 공상희(孔祥熙) 행정원 부원장 및 왕충혜(王寵惠) 외교부장에게 보낸 민간재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제휴를 통해

72) 마쓰우라 마사타카 『중일전쟁기의 경제와 정치』 (도쿄대학출판회, 1995년).

일·중관계 타개를 위한 강한 메시지의 전달이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방문단 최연소로 유우키의 사위였던 대일본제당 사장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다. 후지야마가 전한 유우키의 메시지란 대장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암묵적인 이해를 전제로 한 일·중 경제제휴를 통해 천진군·간토군의 소장(少壯)군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중·일 간의 위기 타개를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군부에 군비확장 예산을 인정하는 대신 숙군(肅軍)과 정치외교에 대한 불간섭을 약속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이 때 군이 화북에 관한 정치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경제제휴의 실적을 만들어 군부를 억제함으로써 기동(冀東)·기찰(冀察)정권과 기동(冀東) 밀무역을 해소하고, 중국은 통일을 촉진하며,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정당한 무역 발전을 통해 중일 간의 우호관계를 촉진한다.⁷³⁾ 후지야마가 전한 일중 민간재계에 의한 경제제휴는 양국 내 재계·업계 내부에서의 생산 자율통제·수출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유우키 도요타로 등 당시의 재계 주류가 추진하던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일인(日印)협상과 일란(日蘭)협상 등을 통해 쓰다 신고(津田信吾) 가네보 사장 등 오사카산업계의 대영(對英) 강경론이 대립하자 그들이 대아시아협회 등에 들어가 영국이나 중국 등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민간재계를 중심으로 한 일중경제제휴와 전쟁 억지 노력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는 전후 공직추방이 해제된 후 경제동우회 대표, 일본항공 회장,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계에 복귀했다. 그리고, 장제스에게 1952(쇼와27)년 4월 30일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장 총통각하, 저는 지금 각하를 만나 뵈었을 때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7년 봄 3월 우리 일본의 실업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국의 의사 소통을 도모하고자 일치단결해 난징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나는 아버지 [제당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라이타(雷太)]를 말함——마쓰우라 주와 총통각하와의 우의로 인해 오직 유일하게 면회할 기회를 갖게 되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특히 일행 전원을 다도회에 초대해 주신 자리에서 하신 총통각하의 인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실업가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일본 실업가들이 존경하는 대선배였던 시부사와 에이이치 자작은 논어의 신봉자이시지만 그 논어 속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들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시부사와 자작이 신봉하는 논어의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함축적인 내용의 인사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에 일본이 당하게 되면 반드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중국에 태연히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국하고 나서 불과 3개월째에 결국은 불행스러운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게 만드는 힘이 없었음을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여행에서 총통각하를 비롯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동시에 2~30대의 각계 청년층과 난징과 상하이에서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젊은 중국의 청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중국을 근대국가로 만들어나가는 노력과 의욕에 불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는 동시에 우리 일본인도 그 청년들의 마음과 진지하게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73) 「孔副院長会晤日本經濟視察団員大日本製糖社長藤山愛一郎記録抄件」「部長会晤日本經濟視察団員大日本製糖社長藤山愛一郎談話記録」(모두 『關於改善中日關係』 7책 수록, 中華民國木當案資訊處, 타이페이).

된다고 통절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본인에게 그 새로운 중국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틈도 없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까지는 우리나라의 실업가 중에도 중국이 근대국가로서 성장한다면 일본 산업의 경쟁자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국은 여전히 근대화하지 않는 농업원료국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좁은 견해를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이 근대국가가 되어 근대적 산업이 일어나 중국인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것이 일본의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민족적 해방에 의한 근대 신국가건설 과정에 있는 제반 국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그 점에서 우리는 향후 충분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일본이 과거에 취했던 정신, 행동과 전혀 반대의 사고방식으로 중국과 협력했었다면 오늘날 중국은 훌륭한 근대국가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적 중공(中共)정권 같은 것이 중국 본토를 지배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⁷⁴⁾

당시 후지야마의 주위에는 일찍이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후지야마 라이타((藤山雷太)처럼 재계를 돕는 자리에 앉으라는 목소리도 강했지만, 후지야마 자신은 ‘과거 고 세이노스케(郷誠之助)씨라든가 이사카 다카시(井坂孝)씨처럼 재계를 돕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재계에서는 이미 성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절친한 키시 노부스케(岸信介)에게 외무장관 취임을 요청 받았을 때, 입각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한 시라스 지로(白洲次郎) 등 요시다 시게루에 대한 ‘측근정치’의 폐해를 비판해 온 전력과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아 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후지야마는 ‘진흙투성이’가 될 각오를 했다. 일본측 민간재계 대표의 방중 사절단에 참여했으면서도 중일전쟁을 저지할 수 없었던 데 대한 반성과 중국에 대한 속죄의 마음도 컸다. 또 정치인이 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던 후지야마가 사숙(私淑)하던 사촌 이케다 시게아키(池田成彬)에게 “후지야마 군, 이번에 중의원 출마 안하나?” “재계인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지금까지처럼 정치를 군인에게 맡겨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재계인도 정치에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것도 정치에 직접 관여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⁷⁵⁾ 후지야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케다 씨는 사람은 미쓰이의 총수였고, 그다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만, 전쟁 중에 이케다 씨는 전쟁 중단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나도 그 심부름꾼 역할을 했는데, 일본경제는 그런 터무니없는 전쟁을 하면 지탱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몸에 배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재계인이 나와서 대대적으로 벌이지 않으면 정치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권유를 받고 거절하기는 했지만, 당시 다양한 재계 출신들이 중의원과 참의원에 출마했었습니다. 재계인 중에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중전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몸소 알게 된 것을 말씀 드리는 셈입니다만, 여러 모로 문제가 있는 전쟁을

74) 가고타니 나오토 『아시아 국제 통상질서와 근대 일본』 (나고야대학출판회, 2000년) 11~12·84쪽.

75)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정치 나의 길』 (아사히신문사, 1976년) 27~40·166~180쪽 등도 참조.

했습니다. 당시 재계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경위를 알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무모한 전쟁이었다는 생각을 아무래도 씻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과 같은 상태가 되어 정치에 입신해 볼까, 또 일중관계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원인입니다.”⁷⁶⁾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는 1957(쇼와22)년 도조(東條)내각 도각(倒閣)운동 이래 교류가 있었던 키시 노부스케의 권유로 재계 출신 외무장관이 되어 ‘경제 외교’를 추진하고, 이듬해에는 중의원선거에도 출마했다.⁷⁷⁾ 특히 중일 우호에 주력해 종종 중국을 방문했으며, 1973(쇼와48)년 중일우호의원연맹 회장이 되었다.⁷⁸⁾ 또 정계에 들어가기 이전인 1955(쇼와30)년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반둥에서 열린 제1회·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했으며 귀국 후에는 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배상문제 조기해결을 각 방면에 호소하기 시작해, 56년 봄에는 필리핀과의 배상협상을 직접 다루게 되었다.⁷⁹⁾ 눈앞의 손익에 얽매이지 않고, 식민지에서 해방된 동남아시아·아프리카(소위 A·A그룹)의 경제건설을 돕는 것을 일본 경제·외교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후지야마도 또한 민간재계를 축으로 한 또 하나의 아시아주의를 견지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⁸⁰⁾ 이상주의적인 후지야마의 사고방식은 아시아주의라는 점에 있어서 2차대전 이전·전시(戰時)에는 대아시아협회 이사로서 활약해, 대 필리핀 배상 문제에서 활약한 무라타 쇼조(村田省藏) 오사카상선(大阪商船) 사장이나 키시 노부스케 등과 공통되는 면이 있어 중국·동남아시아 등에서의 현실적인 경제권익을 기대하는 경제인들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속죄 의식 등으로 전후의 경제외교를 지탱해 나간 재계인들에게는 후지야마와 심정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후지야마는 기시내각 총사퇴 이후 60년·64년·66년 세 번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다. 후지야마파를 조직하고, 정치자금에는 대부분 사유 주식, 토지, 저택, 그림 등을 전부 팔아치웠다. 그 결과 재산을 탕진했고 사재를 다 털게 만든 파벌은 점차 와해되어 형해화(形骸化)해 ‘비단 손수건을 걸레로 사용’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가 정치에 쏟아 부은 사재는 수백 억 엔에 상당한다고 한다.⁸¹⁾

V. 맺음말

이상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일본을 중심으로 ‘소일본주의’ ‘대아시아주의’ ‘민간재계주의’라는 다른 세 가지 아시아주의의 유형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전자 두 가

76) 후지야마 아이이치로「전시하의 재계의 움직임」(아카마쓰 사다오(赤松貞雄) 외 저 『전해 내려오는 쇼와사(昭和史)——격동의 반세기』 제4권(아사히신문사, 1976년))76~77쪽.

77)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일본의 100인 전집 I 나의 방식』(가쿠후쇼인, 1959년) 152~174쪽.

78)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정치 나의 길』 197~230쪽.

79) 위 49~55쪽.

80) 가고타니 나오토 『아시아 국제 통상질서와 근대 일본』(나고야대학출판회, 2000년) 11~12·84쪽.

81)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정치 나의 길』 232~250쪽.

지는 미우라 테쓰타로에서 이시바시 단잔, 우쓰노미야 다로에서 마쓰이 이와네로, 1차세계 대전과 만주사변을 경계로 조금씩 입장을 바꾸고 있으며, 1차대전 이전에는 ‘소일본주의’ 대 ‘대일본주의’, 만주사변 이후에는 ‘대아시아주의’ 대 ‘민간재계주의(친영파. 이시바시 등도 합류)’ 라는 대립구도가 중심을 차지했다. 전후에는 미국을 비판하고 아시아·아프리카에 제일 큰 관심을 표명했던 후지야마 아이이치로도 2차대전 이전에는 많은 재계 멤버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를 전제로 영·불·미 등 서양제국과의 협조를 우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후에는 이들 세 가지의 모든 입장이 나카타니 다케요와 시모나가 야사부로 등 구 대아시아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우쓰노미야 도쿠마, 미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 키시 노부스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등을 아울러 하나의 움직임으로 결집하는 흥미로운 측면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전후 아시아주의가 어떤 형태로 일본의 정치경제 구조에 편입되어 어떤 형태로 재생·변형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들 세 가지 각각의 유형이 실현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이 형성되어 갔을 것인지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한다. 우선 현실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이시바시 단잔의 ‘소일본주의’ 가 실현되었다면 일본은 조선, 대만 등의 식민지를 독립시켜 중국이나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세력과도 협조하는 이상주의적인 ‘공동체’ 가 성립했을 것이다. 미국이나 소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영·불 등 제국주의 국가와의 대립을 초래하는 동시에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변동을 일으켜 현재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세계를 형성했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일본은 많은 나라로부터 존경 받는 무역입국의 ‘대단한 나라’ 가 되어, 세계 각지에서 유학생이 몰려드는 모럴(moral)·파워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케다 시게아키(池田成彬)와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등 민간재계에 의한 영국 등 서양제국주의국가와의 협조·이해를 전제로 한 중국이라는 시장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성립되었을 경우다. 그들 민간재계는 대만의 제당회사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후지야마를 포함시켜 식민지 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일전쟁을 회피했다 하더라도 전후 영·불·미 등이 경험한 바와 같은 탈(脫)식민지화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이다. 식민지독립전쟁과 빈번한 테러 발생 등을 통해 제국해체의 과정에 직면하는 힘든 과정을 아시아에서 경험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근대일본이 실제로 겪게 된 것은 ‘대아시아주의’ 의 대안에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 일본은 ‘대동아전쟁’ 에 의해 영·미·네덜란드 각국을 포함한 ‘연합국’ 과의 교전에서 패하고 전쟁 말기에는 원폭투하·대공습·소련에 의한 만주침공 등의 피해자로서의 체험을 맛보는 동시에 일체의 식민지를 상실하고, 전후 그대로 냉전체제로 이행했다. 이 때문에 식민지책임·전쟁책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져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대아시아주의의 꿈’ 이 강하게 남았다.

이러한 과정을 우선 일본 국내에서 이해하고 공유해 나가는 것이, 아시아주의의 역사에 대해 동아시아 연구자 사이에서 논의하는 동시에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Abstract】

**“Small Japan Policy,” “Business-based Cooperative Policy,” and
“Pan-Asianism” : Three Possibilities of Modern Japanese Asianism**

MATSUURA Masataka

Introduc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following three possibilities of Asianism, an idea that was influential in Japan and its neighbouring countries, in the period of “new diplomacy” after WWI.

1. “Small Japan Principle” : Tetsutaro Miura’s(三浦鏡太郎) “Old Diplomacy” to Tanzan Ishibashi’s (石橋湛山) “New Diplomacy”

Firs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well-known “small Japan policy”. Tanzan Ishibashi, in the journal *Toyo Keizai Shimpō*, of which he was editor-in-chief, published an article “Issai wo Sutsuru no Kakugo [Prepared to Throw Away Everything1]” around the time of the post-WWI Washington Conference when he foresaw the end of the “age of the empire”. His claim was that Japan should coexist with the “small and weak countries” after renouncing its rights and interests in Manchuria and liberating its colonies such as Korea, Taiwan and Sakhalin. Ishibashi even stated that Japan would go to war to protect the small and weak countries in Asia or the world if Britain or the U.S. oppressed these countries. Moreover, Ishibashi, who grounded his claims on British-style of development based on industry and free trade, declared that not only was it economically disadvantageous for a small and overpopulated country like Japan with scarce resources to have colonies, but also that the possession of colonies itself brought about competition through military expansion and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outbreak of war; consequently the military in Japan should also be abolished. However, his argument did not gain any support from contemporary politicians and military officers, and Ishibashi himself recollected in his memoir that, “at the time, this kind of claim was regarded as no more than the armchair theorizing of one pacifist and was not supported in general.”¹⁾²⁾

Toyo Keizai Shimpō was a journal that supported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colonization of Korea and the securing of Japanese preponderance in Manchuria: however, immediately before WWI, Tetsutaro Miura who was Ishibashi’s superior, converted to criticizing Japanese Imperialism³⁾. Miura

1) Tanzan Ishibashi, *Tanzan Kaiso* [Memoirs of Tanzan] (Iwanami, 1985) pp. 211-2.

2) Tanzan Ishibashi, *Tanzan Kaiso* [Memoirs of Tanzan] (Iwanami, 1985) pp. 211-2.

3) Some of Miura’s articles include, “Manshu Houki ka Gumbi Kakucho ka [Renouncing Manchuria or Military Expansion],” a seven part series published between January 5th to March 15th in 1913, as well as “Dainihonshugi ka Shonihonshugi ka [Greater Japan or Small Japan],” a six part series

also published an article “Genzei no Zekkyo [Crying for Tax Reduction]” in the January 10th, 1913 edition of the journal *Dai San Teikoku* and criticized Japanese expansion on the Asian continent, calling for the quitting of Korea in the future⁴). *Dai San Teikoku* was a radical liberal journal that promoted the renunciation of colonialism and support for the small Japan policy promoted by Kazan Kayahara (茅原华山) in 1913, when anti-military sentiment was strong. In this particular journal, whose readers included young people in rural areas and Korean students, Miura together with Kayahara emphasized the quitting of the Korean colony⁵). However, in the *Toyo Keizai Shimpō*, whose readership consisted of entrepreneurs and financiers, although Miura claimed to prevent military expansion by “protecting the China continent” through the Anglo-Japanese alliance, he did not touch upon the issue of renouncing Korea⁶). Miura deliberately differentiated between the two journals, submitting more idealistic and radical articles renouncing colonialism to the *Dai San Teikoku*, while the articles he submitted to the *Toyo Keizai Shimpō*, whose readers included entrepreneurs concerned about the collapse of the economy due to military expansion, opposed imperialism and expansion in Manchuria⁷). In this sense, Miura was a political realist that represented certain interests and claims of the contemporary financial world.

Moreover, while one may expect an article titled “Ikizumareru Taiwan to sono Kaitensaku [Deadlock Taiwan and Breakthrough Measures]” to criticize imperialism, on the contrary, Miura st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of colonial Taiwan and emphasized the remarkable contribution that Gentaro Kodama (児玉源太郎), the fourth Governor General of Taiwan, and Shimpei Goto (後藤新平), the Head of Civilian Affairs, had made in the development of Taiwan⁸). Miura’s proposal for the future was to abolish despotic rule by the Governor-General, to support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and transferring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to develop Taiwanese self-government and promote the Taiwanese presence at the centr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colony. In other words, “small Japan policy” to Miura in the days before the outbreak of WWI was “small armament principle” within the framework of imperialism as well as industrialism, liberalism and individualism⁹). Miura called for the end of the Japanese presence in Manchuria while acknowledging Japanese rule of Taiwan and Korea.

What is particularly interesting is that in stressing the economy, Miura did not hide his sense of rivalry with and caution against the overseas Chinese. When calling for the quitting of Manchuria, he questioned “who ultimately rules over Manchuria?” According to Miura, it was neither the Russians nor the Japanese but overseas Chinese. Even if Japan tried to secure Manchuria militarily and politically, at

published between April 15th and June 15th of the same year. Refer to Takayoshi Matsuo (ed), *Dainihonshu ka Shonihonshugi ka: Miura Tetsutaro Ronsetsushu* [Greater Japan or Small Japan: Tetsutaro Miura Collection] (Toyo Keizai Shimpō, 1995).

4) Takayoshi Matsuo, *Dainihonshu ka Shonihonshugi ka: Miura Tetsutaro Ronsetsushu*, pp. 188-9.

5) Takayoshi Matsuo, *Taisho Democracy* (Iwanami, 2001) Chap. 5.

6) Takayoshi Matsuo, “Kaisetsu: Miura Tetsutaro Shoron [Commentary: Discussion on Tetsutaro Miura]” in Takayoshi Matsuo (ed), *Dainihonshu ka Shonihonshugi ka: Miura Tetsutaro Ronsetsushu*, pp. 412-3.

7) Ibid., pp. 96-7.

8) “Ikizumareru Taiwan to sono Kaitensaku [Deadlock Taiwan and Breakthrough Measures]” (1916) in Takayoshi Matsuo (ed), *Dainihonshu ka Shonihonshugi ka: Miura Tetsutaro Ronsetsushu*, pp. 289-90.

9) Tetsutaro Miura “Dainihonshugi ka Shonihonshugi ka” pp. 136-7.

the end it was the overseas Chinese or Chinese merchants that would prosper economically. He claimed the same for colonial Taiwan as well as British- or French-ruled Hong Kong, Vietnam and Malaya. Miura therefore argued tha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Japan should renounce Manchuria. However, Miura did not go as far as to declare renouncing colonial Taiwan or Korea, since he knew he would encounter significant opposition. Thus, of the two specters haunting post-Meiji Japan, namely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from Western imperialism and economic rivalry by Chinese merchants in Asia, the latter was more important for Miura.

On the other hand, for Tanzan Ishibashi, the successor to Miura, it was more important to counter the threat of Britain and the U.S. by collaborating with China. In the preface to the reprinted edition of *Ajia Koron* [Theory on Asia], Ken'ichi Gotoh (後藤乾一) mentions an anecdote on how the journal's June 1922 edition was prohibited from being published and was confiscated by the authorities due to Miura's article, "Chosen ni Jichi wo Atafuru beshi [Korea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autonomy]" and moreover, reproduced this very article by Miura¹⁰). It is understandable that this article came under strict scrutiny and received severe punishment by the authorities since it was published right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at called for Korean independence in 1919. However, Tanzan Ishibashi's articles such as "Issai wo Sutsuru no Kakugo," "Shina to Teikei shite Taiheiyo Kaigi ni Nozomu beshi [Japan should collaborate with China and attend the Pacific Conference]," and "Dainihonshugi no Genso [Illusion of the Greater Japan]" published in *Toyo Keizai Shimpo* did not receive similar punishment. One of the reasons why the punishment toward *Ajia Koron* was more strict was because the founder of the journal and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was a Korean Japanese named Yu Tae-Kyung (柳泰慶). However, I believe that a more significant reason is because Ishibashi's argument mainly emphasized this position to counter Britain and the U.S. by collaborating with China at the Washington Conference. Behind Ishibashi's claim was racial antipathy and nationalism among the Japanese people which was a result of the anxiety and frustration felt toward the rejection of the proposal to abolish racial discrimination proposed by Japan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in 1919,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alifornia Alien Land Law of 1920 in the U.S. tha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Immigration Act of 1924. In this sense, Ishibashi was anti-discriminatory and anti-Western as well as more idealistic and a stronger supporter of Asianism than Miura, who strongly cautioned against the overseas Chinese. This may be the reason why Ishibashi was able to get away with his bold and daring proposals.

After publishing "Issai wo Sutsuru no Kakugo", Tanzan Ishibashi also wrote an "editorial" titled "Shina to Teikei shite Taiheiyo Kaigi ni Nozomubeshi" in the July 30th, 1921 edition of *Toyo Keizai Shimpo*. In this article, Ishibashi criticize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implementing policies that conflicted with China, even though he had emphasized the liberation of people of colour during the Paris Peace Conference. He went further and wrote that if Japan chose not to join a partnership with Britain and the U.S. and also did not collaborate with China, then if Japan and China entered a future

10) Ken'ichi Gotoh, "Nihon Gendaishi Kenkyu to 'Ajia Koron' [Research on Contemporary History in Japan and 'Theory on Asia']" in Kenichi Gotoh, (eds) *Ajia Koron, Daito Koron* [Theory on Asia and Greater East Asia] (Ryukei Shosha, 2008).

conflict, Britain and the U.S. would discourage Japan but encourage China, and therefore both Japan and China would be oppressed by white people eternally¹¹⁾. This forecast by Ishibashi was proved accurate in the League of Nations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Miura chose Ishibashi, the youngest of the three most talented journalists at the Toyo Keizai Shimpo Company, as his successor. Kamekichi Takahashi (高橋亀吉), one of the two who did not get chosen, subsequently went freelance and created a pro-governmental and pro-military think-tank, becoming one of the foremost economists along with Ishibashi.

Tanzan Ishibashi withdrew his claim to quit Manchuria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but continued to criticize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Tripartite Pact between Japan, Italy and Germany from the position of the moderate faction of financiers and entrepreneurs. After the war, Ishibashi actively promoted the economy as finance minister in the first Shigeru Yoshida cabinet and while purged from public office due to opposition against U.S. occupation policy, he continued to criticize the U.S. during the Korean War. He also worked towards improving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while he served as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in the Hatoyama cabinet, and when he was voted President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1956 he declared new policies such as active economic policies and the realization of world peace. However, Ishibashi fell ill from extreme stress after he had dissolv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alled for a general election in order to reinforce the administration's foundations, therefore, Ishibashi's cabinet stepped down in less two months¹²⁾. Thus, Ishibashi's ideals never materialized and ended as dreams.

2. From "Greater Japan" to "Greater Asianism": Taro Utsunomiya (宇都宮太郎), Iwane Matsui (松井石根) and the Greater Asia Society

A major general of the Japanese Army, Taro Utsunomiya, who was also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of intelligence) fiercely objected to Tetsutaro Miura's claim to renounce Manchuria in 1913¹³⁾. He strongly stressed that Korea and Manchuria were significantly important to Japan. Utsunomiya was from the former Saga Clan which was not coopted into the mainstream Choshu Clan faction of the Army, represented by Aritomo Yamagata (山県有朋) and Taro Katsura (桂太郎), and with people from

11) "Shina to Tekei shite Taiheiyo Kaigi ni Nozomubeshi" (Tanzan Ishibashi, *Ishibashi Tanzan Zenshu* [Ishibashi Tanzan Collection] Vol. 4 (Toyo Keizai Shimpsha, 1971) pp. 32-4. Ishibashi's claim to implement policies for the people of colour during the Paris Peace Conference may be found in "Jinshuteki Sabetsu Teppai Yokyu no Mae ni [Before the Demand of Abolishing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Editorial" of Feb. 15th, 1919 edition) as well as "Kokusai Renmei no Chushin Jigyo [Main Projects of League of Nations]" (in the "editorial" of the Feb. 5th, 1919 edition) (Both can be found in *Ishibashi Tanzan Zenshu* Vol. 3 (Toyo Keizai Shimpsha, 1971).

12) Hiroshi Masuda, *Ishibashi Tanzan* (Chuo Koron, 1995) Chap. 5-6.

13) Utsunomiya Taro Kankei Shiryo Kenkyukai, *Nihon Rikugun to Tairiku Seisaku: Rikugun Taisho Utsunomiya Taro Nikki* [Japanese Army and Continental Policy: Army General Taro Utsunomiya's Journal] 3 Volumes (Iwanami, 2007) is one of the basic materials concerning Utsunomiya and this paper partly depends upon it.

the Satsuma Clan formed an opposition faction. This opposition faction including Utsunomiya criticized the mainstream of the Japanese Army because they prioritized cooperative policies with the West to defend themselves from the eastern advance of the Western powers, and also because they were circumspect about defending rights and interests in Manchuria and Mongolia while paying careful attention that Japan's policy toward Asia did not lead to racial opposition.

Moreover, while Tetsutaro Miura and Tanzan Ishibashi emphasized the unification of China, Utsunomiya consistently promoted a divided China. During the time he worked as a member of the General Staff Office after the Sino-Japanese War, Taro Utsunomiya, who also supported Asianism, in the "Shinkan Ryoko Fukumeisho [Classified: Report on the Journey to China and Korea]" that he submitted after a long trip to Taiwan, Korea, Central and Southern China proposed a Japan-China-Korea alliance after the division of China in order to prepare for racial war after instilling civilization and relieving the various ethnicities in the Eastern area¹⁴). Utsunomiya tried to divide China between the Kuomintang government in the south and the Qing Dynasty by supporting Sun Yat-sen's National Revolution using the funds provided by the Mitsubishi conglomerate through his right hand man Iwane Matsui after he became Assistant Chief of Staff. Although this project failed, he tried to realize "Greater Japan" by supporting the Manchurian and Mongolian Independence as well as the South Sea Project.

Taro Utsunomiya was enthusiastic about marriages between the Asian races, especially Japanese and Korean. Tokuma Utsunomiya (宇都宮徳馬), the eldest son of Taro Utsunomiya, who became a Marxist after his father's death and promoted disarmament as a leftist member of the postwar LDP, was unique for promoting disarmament and at the same time emphasizing good relations with China,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Tokuma recollects in an article about how his father was enthusiastic about marriage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en he was a child¹⁵). Taro Utsunomiya's Saga Clan (Oita Prefecture) had strong historical relations with Korea, and ha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oyotomi Hideyoshi's (豊臣秀吉) Korean Invasion (壬辰倭乱・丁酉再乱 1592-93, 1597-98). Utsunomiya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act that Naoshige Nabeshima (鍋島直茂), who founded the clan made a request to Hideyoshi to exchange Saga's territory with Hamgyeongdo (咸鏡道) in Korea if they won¹⁶). Nabeshima made this request because the people of the Saga Clan had deep rooted relations and were heavily involved in the secret trade with Korea, also referred to as "the Later Japanese pirates" (後期倭寇) composed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n the 16th century¹⁷). Moreover, the Saga Clan, together with the Satsuma Clan, had brought Korean ceramicists and camphor craftsmen to Japan by force, protected and allowed them to use their Korean names and made them a part of an important industry of the clan. This kind of historical memory strongly defined Utsunomiya as a supporter of Asianism.

14) Ibid., Vol. 1. Refer to footnote #17 of the "Bibliography" on p. 45.

15) Tokuma Utsunomiya "Oyaji (37) Utsunomiya Taro: Yowai mono no Mikata [Dad (37) Taro Utsunomiya: Perspective of the Weak]" (*Asahi Journal*, June 14th, 1964).

16) Utsunomiya Taro Nikki Kenkyukai, *Nihon Rikugun to Ajia Seisaku: Rikugun Taisho Utsunomiya Taro Nikki* (Vol. 3, Sept. 21, 1918).

17) Yoko Takeno, *Han Boueki shi no Kenkyu* [History of Trade of the Clan]" (Minerva, 1979) pp. 136-8.

Taro Utsunomiya had high expectations for Iwane Matsui as the successor of his “Greater Japan” policy. The reason why Matsui transformed from a “China hand,” a supporter of “Greater Japan” and then to a “Pan-Asianist” was because he was present at the League of Nations whe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Britain and the U.S. criticized Japan for opposing China during the Manchurian Incident, just as Tanzan Ishibashi had predicted. This had a great impact on Matsui and after he returned from the League of Nations in 1933, he created the Greater Asia Society, whose members included the private research fellows that studied Asia from the Pan Asia Society as well as military officials from the Army and the Marines, politicians and diplomats and so on. Moreover, he also proposed to create a League of Asian Nations that would take the place of the League of Nations dominated by the Western powers and published the journal *Dai Asia Shugi* (『大亚细亚主义』). He was successful in spreading and popularizing Pan Asianism by creating branches in Taiwan, Korea, China and various areas in Japan, by referring to the Greater Asia Society not as a political group but as a cultural and intellectual one, and by forming ideological networks with Buddhist groups, military, veterans association, local and regional administrative bodies, neighbourhood groups, academia, business world, overseas Japanese and the colonies.

Matsui proposed to collaborate with China by using “Pan Asianism” and at the same time to divide China as the “Chinese Federation” as well as create the “League of Asian Nations” including imperial Japan, “Manchukuo”, Mongolia, Xinjiang and Tibet. Moreover, he attempted to drive Western powers, particularly Britain, from Asia. by realizing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through major public works projects using resources and labour from Korea,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rearranging the division of labour in Asia, advancing south using overseas Chinese capital to resolve the Manchurian issue and constructing a military industrial area in “Manchukuo” and Korea¹⁸⁾. Ideas such as Turanism¹⁹⁾ by intellectuals such as Junichiro Imaoka (今岡十一郎) and professors at the Faculty of Letters at the University of Tokyo such as Kengo Murakawa (村川堅固) who specialized in European history provided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Matsui and his colleagues. The Greater Asia Society brought about the “Greater East Asia War” due to several reasons which include the expansion of the Sino-Japanese War during the Konoe administration, the East Asia New Order Declar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Wang Ching-wei (汪兆銘) administration and the anti-British demonstration in 1939 which led to the Tripartite P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mperial Rule Assistance Association (大政翼賛会) in 1940.

18) Masataka Matsuura, *Dai Toa Senso ha naze Okitanoka: Han Ajia Shugi no Seiji Keizai Shi* [How did the “Greater East Asia War” break out?: History of the Political Economy of Pan Asianism] (Nagoya University Press, forthcoming in 2009). Also refer to Masataka Matsuura, “Nichi Senso ha Naze Nanka shitanoaka1-3,” *Hokudai Hogaku Ronshu* [Hokkaido Law Review] (Vol. 57, No. 1 to Vol. 58, No. 2, 2006-2007) and Matsuura Masataka, “Kaisetsu: Zasshi ‘Dai Ajia Shugi’ to Dai Ajia Kyokai ni tsuite [Commentary on the Journal ‘Dai Ajia Shu’ and Great Asian Society]” in Kenichi Goto and Masataka Matsuura (eds), *Fukkokuban: Dai Ajia Shugi* [Reprinted Edition of Dai Ajia Shugi] (Ryukei Shosha, 2008).

19) “Turanism” is an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Turanian people or the collective inclusion of all people in the Ural Altaic group including people from Mongolia, Manchuria Korea and Japan, stretching from Finland and Hungary all the way to Central Asia. Refer to Chap. 2 of Hiroshi Umino, *Inbo to Genso no Dai Ajia* [The Conspiracy and Illusion of Pan Asia] (Heibonsha, 2005).

In the post-war period, former Housei University Professor such as Takeyo Nakatani (中谷武世) and the President of Heibonsha Yasaburo Shimonaka (下中弥三郎) continued to pursue the realization of "Pan Asianism" by involving themselves in the World Federalist Movement, as well as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damming on Yalu River and applying it to the South East Asian development fund by Prime Minister Nobusuke Kishi(岸信介) and the Aswan High Dam Plan in Egypt by Yasuhiro Nakasone (中曾根康弘).

3. Business-based Cooperative Policy

Out of the three forms of Asianism, the business-based cooperative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other two examined above, since the policy promoted the maintaining of the peaceful order in Asia within the existing national framework and current conditions of the nation states and empires, including colonies, through exchanges between members of the business world centred on Japan and China. The business world in Japan led by Eiichi Shibusawa(渋沢栄一) implemented a Western nation state framework and established a Western-style economic system in order to protect Japan's independence from Western imperialism. On the one hand, the business world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to obtain the rights and interests and to develop the economies of Korea and China to counter the influential Chinese merchant s²⁰), while on the other hand it made efforts to promot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ve policies.

From the middle of 1935, after the post-Manchurian Incident severing of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business started to recover and China slowly became more amenable towards economic cooperation. By the initiative of Chiang Kai-shek (蒋介石) and his colleagues in October 1935, an ROC Experts Mission led by Wu Ding-chang (吳鼎昌), the President of the Salt Industry Bank of China (中国塩業銀行), was dispatched to Japan to exchange opinions about issues that were important to Japan and China, such as spinning and household goods, examine possibilitie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for various industries, and to deepen relations between economic groups such as banks an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As a result, the China established the China Japan Trade Association (中日貿易協会) (President of this association was Zhou Zuo-min(周作民), the President of the Kinchen Bank) while the Japan established the Japan China Trade Association (日中貿易協会) (President was Kenji Kodama (児玉謙次), the President of Yokohama Specie Bank) to facilitate and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²¹) to facilitate and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After the reform of the monetary system in China in November 1935, the Japanese Tientsin Army (Kamekichi Takahashi, Tetsutaro Miura's student, was its brains trust) tried to destroy this reform effort

20) Naoto Kagotani, "*Ajia Kokusai Chitsujo to Kindai Nihon* [Modern Japan and the Asian International System] ", (Nagoya U.P., 2000), pp.11-12, 84

21) Refer to Chap. 5 in Masataka Matsuura, *Zaikai no Seiji Keizai shi* [History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usiness World] (University of Tokyo Press, 2002) for the initiatives to avoid the Sino-Japanese War and maneuvers to control the war by the Japanese business world.

through smuggling activities; therefore, members of the Japanese financial world, including banks and commercial capital, initiated efforts to control the Tientsin Army in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entrepreneurs and Chiang Kai-shek and Kong Xiang-xi (孔祥熙) of the Chinese government. This involved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guided by the private financial world under the premise of “the economy in the hands of economic people.” Tayotaro Yuuki (结城丰太郎), entrepreneu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Japan Industrial Bank who served as the Minister of Finance and of Colony in the Cabinet of Senjuro Hayashi (林銑十郎), played a central role on the Japanese side. In April 1937, a delegation of experts led by Kenji Kodama, President of the Yokohama Specie Bank, visited China in April 1937 to pay a return visit to the ROC Experts Mission to Japan. This was three months before the Marco Polo Bridge Incident.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he delegation was to resolve all issues through the honest exchange of opin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oth countries were able to build on their trust through honest and open exchange of opinions concerning sugar, finance, cotton as well as other general issues. Through these efforts, Japan was able to promise to prevent the smuggling activities, while China agreed to lower its exclusionary customs tariff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outcomes of the meeting was the agreement between Kodama (President of the Japan China Trade Association) and Zhou Zou-min (President of the China Japan Trade Association) to cooperate on important issues in the future with the help of Shinichiro Funatsu (船津辰一郎), (Director of the Japan Spinning Association in China (在华纺绩同业会)), through a “hotline” using the encrypted communication media of the Yokohama Specie Bank. This was one of the impetuses behind the Japan-China peace initiative proposed by Shinichiro Funatsu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As a resul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first Konoe cabinet in the summer of 1938, the former Managing Director of Mitsui Bank Shigeaki Ikeda (池田成彬) was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Finance and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his friend Kazushige Ugaki (宇垣一成) a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of Colony, and the Japan-China Peace Initiative, with Britain as mediator, was promoted by these two important figures and was clearly a product of the efforts of members of the business world²²⁾. They had no intention of surrendering Japanese rights and interests in the colonies or China; however, they made great efforts to avoid war in Asia.

The delegation led by Kodama delivered a strong message to the Deputy-Prime Minister of the Executive Yuan Kong Xiang-xi and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ang Chong-hui (王宠惠) sent by Minister of Finance Toyotaro Yuuki that both countries should restrain militancy and nationalism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led by members of the finance and business world, and promised a breakthrough in Sino-Japanese relations. The youngest member of the delegation, President of Dai Nippon Sugar Company, Aiichiro Fujiyama (藤山爱一郎), Toyotaro Yuuki’s son-in-law, was responsible for relaying the message to his Chinese counterpart²³⁾. The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members

22) Masataka Matsuura, *Nicchu Sensoki ni okeru Keizai to Seiji* [Politics and Economy during the Sino-Japanese War] (University of Tokyo Press, 1995).

23) “Kong fuyuanzhang hui wu riben jinji shichatuanyuan Dariben Zhitang shezhang Tengshan Aiyilang jilu chaojian [Records of the meeting between Prime Minister Kong and President of Dai nippon

of the financial and business world outlined by Fujiyama was promoted by the business mainstream such as Toyotaro Yuuki, and was based on the premise of self-regulation of exports and self-control of production within the business and industrial sectors of both countries. In opposition to this, during Japan's trade negotiations with India and the Netherlands there was a sudden rise in those who stressed hard line policies towards Britain in the industrial sector in Osaka, including the President of Kanebo Spinning Industry, Shingo Tsuda (津田信吾); these people later entered the Greater Asia Society to put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take a hard line against Britain and China.

In the end, however, the efforts by members of the financial and business world to facilita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and to prevent war failed. Aiichiro Fujiyama, who was later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n the Kishi Cabinet²⁴) and also became the President of the Dietmen's League for Japan-China Friendship²⁵) (日中友好议员连盟) in 1973, promoted "economic diplomacy²⁶)" that aimed to develop and build the economies in the former colonies in Southeast Asia and Africa (or the so called AA Group) and also facilitate friendship between Japan and China that took account the failed efforts to prevent the war and to support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Before entering the business world in 1955, returning from the Bandung Conference (First Asia Africa Conference) Fujiyama called for a prompt resolution of the war reparations issue with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nd later participated in and handled the reparations negotiation with the Philippines in the spring of 1956²⁷). After the mass resignation of the Kishi cabinet, Fujiyama ran for President of the LDP in 1960, 64 and 66 with high hopes and ideals, however, he lost the power struggle and all of his assets.

4. Conclusion

This paper has examined three completely different types of Asianism, "Small Japan Policy," "Pan-Asianism," and "Business-based Cooperative Policy," that were influential between 1910 and 1940 in East Asia. There was a time in the post-war period when all three Asianisms converged when former members of the Great Asia Society such as Takeyo Nakatani and Yasaburo Shimonaka tried to bring together and coordinate between Tokuma Utsunomiya, Takeo Miki (三木武夫), Yasuhiro Nakasone, Nobusuke Kishi and Aiichiro Fujiyama. The analysis on the role of intellectuals during this period remains a future theme and challenge.

Sugar Company, Aiichiro Fujiyama, member of the delegation from Japan]" and "Buchang hui wu riben jinji shichatuan yuan Dariben Zhitang shezhang Tengshan Aiyilang tanhua jilu [Records of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 and President of Dainippon Sugar Company, Aiichiro Fujiyama, member of the delegation from Japan]" both in *Guan wu gai xiang zhong ri guan xi* [Sino-Japanese Relations] Vol. 7 (Archives Sec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C, Taipei).

24) Aiichiro Fujiyama, *Seiji Wagamichi* [Politics, My Way] (Asahi Shimbun, 1976) pp. 27-40, pp. 166-180.

25) Ibid, pp. 197-230.

26) Refer to " 'Hankachi wo Zokin ni Tsukauna' to iwarete [I was told 'not to use a handkerchief as a rag']" pp. 15-27 and "Mazu Ajia kara [Asia First]" pp. 247-249 in Aiichiro Fujiyama, *Shachoshitsu nite* [In the President's Office] (Gakufu Shoin, 1958).

27) Aiichiro Fujiyama, *Seiji Wagamichi*, pp. 49-55.

朝鮮知識人 柳泰慶과
雑誌『亞細亞公論』

■ 羅 京 洙 (早稻田大學校) ■

조선지식인 유태경과 잡지 “아세아공론”

羅 京 洙 (早稻田大學校)

〈目 次〉

- I. 들어가며
- II. 유태경의 이동과 교류
- III. 국경을 초월한 “아세아공론”
- IV. “아세아공론”과 “대동공론”
- V. 나오며

I. 들어가며

본고¹⁾에서는 잡지 “아세아공론(亞細亞公論)”의 사장 겸 주필이었던 유태경(柳泰慶)이라는 인물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아세아공론사가 1922년 5월부터 23년 1월까지 총 9호를 발간한 월간지 “아세아공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태경의 활동상과 인물상을 파악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세아공론”과 마찬가지로 유태경이라는 인물은 대내외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아,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무명’의 조선청년이 전후 일본 총리대신을 지낸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을 비롯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를 풍미했던 기라성같은 ‘유명’ 인사들을 영세한 잡지의 필진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설’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유태경의 인물과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유태경이 어떠한 경력의 소유자이며, 왜 “아세아공론”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의 사상 ‘인류주의(人類主義)’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II. 유태경의 이동과 교류

그러면 먼저 조선 지식인 유태경은 어떤 인물일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정면으로 대항해 널리 알려진 김구나 이승만 등과 같은 저명한 민족지도자들과 달리, 유태경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역사담론의 “주변에 놓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그에

1) 본고는 後藤乾一・紀旭峰・羅京洙編 『20世紀日本のアジア関係重要研究資料第2部 定期刊行資料 第3期 復刻版 亞細亞公論・大東公論 全3卷』(龍溪書舍, 2008年)에 해제논문으로 실린 줄고 “朝鮮知識人柳泰慶と『亞細亞公論』—移動・交流・思想—”을 바탕으로 수정 및 가필한 것임을 밝히며, 유태경과 잡지 “아세아공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원문을 참고해 주기 바람.

대한 자세한 사료가 거의 없거나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국가보훈처 등에 소장된 일부 관련 자료들을 해당기관의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었으며, 특히나 유태경의 아내인 김태은(金泰恩)이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에 제출한 자필증언 및 증빙서류는 유태경의 행적을 그나마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²⁾. 입수한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족적을 “이동과 교류”의 관점에서 시대순으로 재구성해 보겠다.

유태경은 1892년 음력 8월 28일생으로, 생존한다면 116세가 된다. 출생지는 평안북도 영변이다. 그의 처인 김태은은 유태경이 일본유학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유태경이 1907년에 도쿄 소재 세이소쿠(正則) 중학교³⁾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이 때는 유태경이 15세 무렵이다. 소년 태경이 정확히 언제부터,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유학을 결심하고 도일하게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적어도 수년 이상의 기간을 도쿄에서 보냈다는 사실은 아주 의미심장한 함의를 갖는다. 유태경은 사장이면서도 “아세아공론”에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다. 그의 수준높은 일본어 구사능력은 당시 일본인 지식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는 역시나 소년기 도쿄 유학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유태경은 유창한 일본어 능력을 무기로 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일본 식자층은 물론, 대만이나 중국, 인도 등에서 도일해 온 다양한 아시아 지식인들과 폭넓게 “지적(知的)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의 이러한 지적 교류를 아세아공론사 경영과 필진확보를 위한 일종의 ‘네트워크’로 유태경은 최대한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태경은 이미 일본 유학시절부터 도쿄를 정치활동과 사상형성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아세아공론”이 식민지 제국주의의 한복판인 도쿄에서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 할 수 있겠다.

1912년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해 청도대학에 입학한다. 14년에는 일독전쟁이 발발, 일본이 독일의 조차지였던 청도를 공격하자 유태경은 북경으로 탈출해 북경대학으로 전학하게 된다. 18년부터는 만주로 이동해 거기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지만, 검거돼 옥고를 치르기도 한다. 1914년부터 18년까지의 제 1차 세계대전과 1919년의 3.1운동이라는 내외적인 격동기를 겪은 청년 태경에 있어 1910년대는 말그대로 파란만장한 삶 자체였을 것이다.

1920년에 출옥한 후에 그 활동무대를 도쿄로 옮기고, 드디어 아세아공론사의 사장에 취임해 “아세아공론”을 출간하게 된다. 그가 30세가 되는 해이다. 청년 태경은 23년에는 미국

- 2) 해당자료는 남편 유태경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 김태은이 1989년 6월에 제출한 것이다. 동 자료를 제출하기 2년 전인 1987년 6월 6일, MBC 문화방송에서는 유태경과 관련한 특집뉴스를 편성해 보도했다. 동 보도에 의하면, “80살이 되도록 아내 김태은은 남편의 조국 광복운동을 당연한 도리로 생각해 자랑 한 번 하지 않았으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를 찾을 때에도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손 한 명 없이 어렵게 사는 김태은은 주위의 권위로 남편의 유공자 인정 신청을 뒤늦게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입증자료부족”이라는 사유로 남편의 유공자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가 최근에 해당기관에 문의한 바, 아직까지도 유태경의 독립유공자 인정은 보류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자면, 금번 와세다대학 연구팀에 의해 ‘발굴’된 “아세아공론”은 유태경의 독립유공자 인정 재심사에 상당히 중요한 사료적 근거가 될 수 있겠다.
- 3) 당시, ‘세이소쿠(正則)’라는 이름을 쓴 도쿄 소재 중등교육기관은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현재의 正則学園高等学校의 전신인 正則英語學校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이시바시 탄잔 전 총리대신이 다녔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대신을 배출한 현재의 正則高等学校가 있다. 유태경이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추후 학적부 조사를 행할 필요가 있겠다.

으로 건너간다. 뉴욕주 소재 콜롬비아대학과 버지니아주 소재 베싸니대학(Bethany College)을 경유,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쉐스퀘하나대학(Susquehanna University)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역사학을 수학해 29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1930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온 유태경은 협성실업고의 이사가 된다. 31년에는 중화민국 동성구(하얼빈) 행정장관의 외교자문이 되기도 한다. 1932년 만주국 건국으로 인해 북경으로 망명, 38년에는 중경으로 탈주한다. 1944년에는 일본의 포로수용소내에서 조선청년들을 지도하는 일도 행한다.

해방 후의 46년에는 경상남도 울산군수에 취임, 49년에는 고학생들을 위한 육영사업도 전개한다. 아내 김태은이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자료 “독립유공자 평생이력서”에는, 유태경이 “6.25 전쟁 때 가출했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김태은의 다른 자필 증언자료에는 “남편을 여의고 슬펐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6.25 때”라는 것이 전쟁이 발발한 1950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기간인 1950년부터 53년의 어느 한 시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유태경이 행방불명되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1950년 당시, 그의 나이는 58세다. 현재로서는, 유태경의 생애와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까지다.

그의 아내인 김태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겠다. 1907년 6월 29일 출생한 그녀는 유태경과는 15살의 차이가 난다. 둘이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아세아공론”이 발간된 1922년, 김태은은 15살이라는 아직은 어린 나이였다. 유태경이 1938년에 중경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그녀도 동행했음을 알 수 있다. 김태은이 중경까지 이동하면서 남편과 겪은 갖은 고생을 비교적 소상히 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6.25 전쟁을 거쳐 그녀는 서울 소재의 풍문여자중고등학교에서 비상근강사로 일한다. 그러나, 그나마 박정희 정권이 비상근직을 없애는 바람에 8년간 일했던 직장을 잃었다고 그녀는 증언한다. 김태은은 “그저 남편을 따라 내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겸손해 했지만, 그녀가 쓴 자필증언자료의 문장력이나 한자 사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김태은은 당시로써는 상당한 여성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유태경의 약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커다란 특징은 그가 가졌던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이다. 아내 김태은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그의 신분증명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분증명서는 1945년 8월에 중경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등을 역임한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의 명의로 발급되었다. 이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유태경은 비교적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리라. 해방 후에는 국회의장까지도 역임한 신익희는 1913년에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해 유태경과는 도쿄에서 이미 알고 지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신분증명서에는 유태경이 “한국의 광복운동을 다년간에 걸쳐 행했다(從事韓國光復運動多年)”는 사실이 명기돼 있다.

중경시가 1945년 9월 30일에 유태경에게 발급한 당시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서도 “독립운동가 유태경”의 행적을 알 수 있다. 동 외국인등록증의 직업란에는 ‘광복운동자’로, 근무지란에는 ‘한국임시정부’로 명기돼 있다. 이 시기의 유태경은 1920년대의 유태경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다. 1922년대 초반에 발간된 “아세아공론”에 투영된 유태경의 모습은 물론 반제국주의나 반식민지주의를 주장은 하지만, 민족주의자나 독립운동가로서의 색깔은 그다지

내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1930년대, 40년대로 가면서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유태경의 ‘적극성’은 더욱 강해져 간다. 내외홍보사가 1949년에 발행한 “대한민국인사록(단기 4283년판)”에서도 유태경의 이러한 ‘모습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동 인사록의 발간사에는 “세계 도처에 망명하여 국가없는 민족의 설움을 한몸에 받아가며 끝없는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일각(一刻)을 잊지 않고 조국 광복에 모든 정력을 기울여 온 민족선배들의 애국정신! 그 정열! 해방 후, 반민집단의 음모, 책동, 테러 등 갖은 박해와 아울러 혼란기의 생활 고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자을 독립을 위하여 분투 헌신해 온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계각층의 애국동지들!”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나온다. 유태경도 그 선배와 동지 중의 한 명으로 동 인사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동 인사록에는 또한 유태경이 “중경의 중국군의 후원으로 김구 씨와는 공생공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⁴⁾고도 소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인물 요람의 인사록에 실릴 정도로 유태경은 1945년 해방 전후를 즈음해서는 ‘독립운동가’로서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후로 유태경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현재는 거의 “잊혀진 독립운동가”가 되고 말았다. 한편, 그의 아내 김태은에게도 동일한 증명서가 발급되었는데 그녀의 증명서에도 ‘광복운동’이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김태은이 남편의 내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상을 가지고 독립운동에도 일정한 역할과 공헌을 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태경에게 김태은은 사랑하는 ‘아내’임과 동시에 사상과 운동을 함께한 ‘동지’였던 셈이다.

전술한 약력사항을 바탕으로 유태경이 출생에서 사망(혹은 행방불명)까지 약 60년의 생애 동안 이동한 경로를 정리하자면, 조선, 도쿄, 청도, 북경, 만주, 동경, 미국, 서울, 하얼빈, 북경, 중경, 조선 등의 흐름이 되겠다. 그가 비교적 짧은 주기로 국경을 넘는 국제이동을 끊임없이 반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동한 곳도 조선, 일본, 중국, 미국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가와 지역이었다. 유태경은 이러한 국제이동을 경험하면서 식민지 지배하에 놓인 민족과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했을 것이다. 한편, 각지의 다양한 지식인들과 문화들을 접하면서 견문과 식견을 넓힘으로 인해 “국제파 유태경”의 면모를 갖추 수 있었을 것이다. 유태경의 국경을 넘는 이동과 민족을 초월한 교류는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유태경이 처한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 어느 정도 ‘강요당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동과 월경(越境)의 인생을 걸어온 유태경은 그야말로 “디아스포라 지식인”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그의 국제이동과 지식교류는 ‘민족주의’와 ‘인류주의’라는 다소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의 사상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빈번한 이동으로 온갖 고생을 해 초췌한 모습을 상상하기 쉽겠으나, 유태경은 풍부한 국제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아주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 전술한 유태경의 신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에는 그의 얼굴사진이 붙어 있다. 이 두 장의 사진은 관련자료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베일에 쌓인 유태경의 외모와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증명서와 등록증이 1945년에 발급된 점을 고려하면, 유태경이 50대 초반이었을 때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인상적인 것은, 유태경이 안

4) 동 인사록, 100쪽 참조.

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안경을 쓴 유태경의 모습은 지적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고 있으며, 그의 얼굴 또한 상당히 미남형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이다. 유태경이 식민지 시대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인텔리겐치아’였음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사진이다. 지(知)를 겸비한 그의 용모는 식민지 종주국 일본의 지식인은 물론, 당시 도쿄에 와 있던 아시아 출신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III. 국경을 초월한 “아세아공론”

여기서는 국제파 인텔리 유태경이 1922년 5월에 도쿄에서 발간한 월간지 “아세아공론”에 대해서 논하겠다. 동 잡지는 이듬해인 23년 1월 신년호를 끝으로 폐간된다. 창간에서 폐간에 이르는 9개월 동안, 총 9호 발간만으로 30세 조선청년의 야심찬 출판사업은 그 막을 내리고 만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하는 기사내용은 거의 매호마다 그 일부가 삭제될 당하는 등, “아세아공론”은 당시 일본 당국의 집요한 통제와 감시를 받는다. 일본당국은 “아세아공론”을 ‘불온잡지’로 간주하고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것이다. 아내 김태은의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유태경은 일본 당국의 사주를 받은 박춘금 일파에 의해 테러까지 당해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 당국에 의한 탄압은 “아세아공론”이 폐간에 이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유태경은 잡지가 폐간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의 도미는 결국에는 당국으로부터 강요당한 “유학을 빙자한 망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아세아공론”의 형식적 특징의 하나는 무엇보다도 편집상의 균형감각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도쿄라는 공간적 특수성이 엄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만이 아니라, 조선어, 그리고 중국어를 함께 사용한 대담한 편집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동 잡지의 표지에는 ‘重細重公論’, ‘THE ASIA REVIEW’, 그리고 ‘아세아공론’ 등 3개국어로 표기돼 있다. 게재된 글들도 유태경이 조선 청년임에도 조선과 관련된 기사들이 반드시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 집필진으로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과 사상도 비교적 다양한 편이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유태경과 동 잡지사의 뛰어난 사업수완이었다. 여타 유명잡지에 비하면 그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무명의 잡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광고들을 획득해 지면에 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역시나 사장 유태경의 인적 네트워크가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세아공론”의 권당 가격은 50센(錢)이었지만, 1922년의 창간호와 23년의 신년호는 각각 60센과 70센이라는 특별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잡지가 지향하는 사상과는 별개로, 영세한 잡지사로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 경영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아세아공론”의 내용을 보자. 동 잡지는 기본적으로 사상지의 성격이 강한 종합잡지로 간주할 수 있다. ‘인류주의’를 그 사상적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시아 제민족의 연대”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제1권의 제2호와 제3호 표지에는 ‘인류주의’라는 글자가 크게 명시돼 있다. 그리고, 지구의를 배경으로 사람과 사람이 악수하는 표지 디자인도 새겨, 잡지가 추구하는 사상과 성격을 알기쉽게 전달코자 했다. 제 1권 제 3호부터는 그러한 글

자와 디자인이 사라진다. 당시 동아일보의 신간 소개란에도 동 잡지에 대해서 “조선청년 유태경 씨가 주간으로 중국, 대만, 조선, 일본 등의 청년논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아시아 제민족의 각성을 촉구하고 약소민족의 해방을 추구한다”⁵⁾고 전하고 있다. “아세아공론”에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게재돼 있으나, 여기에서는 교육, 종교, 문학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 관련해 아시아공론사는 잡지 출판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 유학생은 물론, 대만이나 중국 등 여타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아세아공론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학생 관련 사업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동 잡지의 매호에는 “본사의 사업”이라는 유학생 관련 특별란을 두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1) 자비 유학생 기숙사의 설립, (2) 유학생의 고충을 위로하기 위한 운동회, 음악회, 강연회, 연설회, 전람회, 활동사진회 등의 개최, (3) 생활필수품의 실비제공 및 필요에 따라서 잡지 무료 배포, (4) 형사상의 문제나 건강, 천재지변 등으로 곤궁에 처한 경우에 대한 상담, (5) 유익한 도서출판 등 총 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내 아시아인 유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잡지 “아세아공론”의 내용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동 잡지에는 유학생 관련 내용들이 여럿 등장한다. 예를 들자면, 창간호에는 “一九二二年度在日本朝鮮留學生各學校卒業生一覽”⁶⁾이라는 통계자료가 게재돼 있다. 이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는 명기돼 있지 않지만, 졸업생들의 이름과 (소/중학교, 전문학교, 대학 등의) 출신학교명이 포함돼 있다. 총 87명의 졸업생 중에 여학생은 12명에 불과했다. 관비 유학생이 10명으로, 사비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학교와 대학 졸업생이 67명으로 소/중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많았다. 동 잡지 제1권 제6호에 실린 “留日本朝鮮學生統計表人員”⁷⁾이라는 자료에는 유학생들의 조선내 출신지까지도 명기돼 있으며, 1922년 현재 일본내 조선인 유학생은 2,235명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제2호와 제8호에는 각각 “一九二二年度中華民國留學生卒業生一覽表”와 “留日本民國學生人員”이라는 중국 유학생 통계자료도 게재, 조선인 유학생 규모와 비교할 수 있는 관점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본사의 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 아세아공론사는 당시 유학생들이 안고 있었던 생활상의 곤란이나 민족적 차별문제 등을 적확하게 파악,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아세아공론”의 지면을 통해서 행했다. 예를 들어, “東京女高師教授の教育差別”이라는 제목의 평론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원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⁸⁾.

御茶の水女子高等師範學校と言へば、日本の女子の、最高學府である。其の最高學府に斯くの如きことある事は實に怪しからんわけだ。實は同校には、民國及朝鮮留學生合せて十餘名

5) 동아일보, 1922년 7월 27일자.

6) “아세아공론” (창간호), 1922년 5월호, 117-119쪽.

7) “아세아공론” (제1권 제6호), 1922년 10월호, 24-35쪽.

8) “아세아공론” (창간호), 1922년 5월호, 133-134쪽.

も在學して居る。元來教育には国境なしで、民族的差別などの有らふ筈がないのに、同校某教授は、常に朝鮮及民國女子留學生に對して、何誰君と呼ぶ想だ。日本女子には「さん」で、留學生には君だ。(中略)某教授君、偏見と片意思からでなく、衷心から反省しては如何?又 慙んな事もある。留學女性が參考書の拜借を請ふと、「其れは出来ません、吾々同胞の日本人から先きに教育してやら無ければなりませんから」と言ふ風に種々輕蔑的態度を持するものがあるとか(後略)。遠く異郷の空に仿ふ知己なく、不便多い女性の爲にすら慙ふした悲哀を 姪ませるとは、…日本の識者諸君、御透徹なる深刻な御内省下さいませんか。日本否 世界人類生活の墮落はきくが、慙ふした神聖に非難の少なかるべき教育界に、この偏見を有するとは寒心に堪へぬではないか。

그렇다면 왜 아세아공론사는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관련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로 장소 문제를 우선 생각할 수 있겠다. “아세아공론” 뒷편의 출판정보를 보면, 제1권 제7호부터는 “東京牛込區早稲田鶴卷町二一四”로 그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아세아공론사가 제 7호가 발간될 즈음인 1922년 11월을 전후해 이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새로 이전한 쓰루마키초(鶴卷町)라는 곳으로부터 지척 거리에는 와세다대학(早稲田大学)이 있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과의 접촉이 상당히 용이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동 잡지의 필진 중에는 와세다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학문의 독립과 자유”를 표방하는 와세다대의 유학생은 물론, 대학 관계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연’을 맺을 수 있었으며, 동 대학을 유태경의 사상인 인류주의를 구현할 ‘장’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유태경 자신이 유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어린 시절, 도쿄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그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의 생활과 고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유태경은 “아세아공론” 제 1권 제 7호에 “朝鮮留學生の過去及現在”라는 논문을 기고하고 있다. 동 논문은 일본내 조선인 유학생의 유래, 한일합방 및 3.1운동 전후의 유학생 동정, 당시의 유학생 단체 및 기관지, 유학생들의 사상적 흐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치와 인명 등을 들어가며 자세히 논하고 있다. (일본 당국에 의해 삭제된 부분이 있지만) 약 10 페이지를 할애한 유태경의 동 논문은 그의 유학생에 대한 생각과 인식, 그리고 그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기 조선인 유학생 연구라는 차원에서도 유익한 자료가 아닐 수 없겠다.

둘째, 종교와 관련해 “아세아공론”의 매호에는 곳곳에 비둘기와 예수 얼굴을 형상화한 그림(삽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동 잡지의 사상적 배경인 인류주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하는 예수의 그림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예수 얼굴 그림은 필자로 하여금 “아세아공론”이 마치 종교지가 아닌지 하는 착각과 이질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종교와의 접점을 설명이라도 하듯, “아세아공론”에는 기독교 혹은 여타 종교 관계자들의 논고가 여러 편 포함돼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구세군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야마무로 군페이(山室軍平)는 “弱者の友としての基督”(제1권 제2호, 일부 삭제됨)이라는 글을 기고했으며, 기독교적 인도주의에 입각해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한 아베 이소오(安部磯雄)는 “現代思想と宗教”(제2권 제1호)라는 글을 남겼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관련 논문도 실렸다.

이회광(李晦光)은 “朝鮮佛教界の現状打破”(제1권 제3호)라는 글을 통해 현실사회와는 동떨어져 있는 조선 불교계의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제1권 제8호(1922년 12월호)에서는 “重細垂に於ける宗教問題”라는 특집란을 구성, 종교적 시점에서 당시의 아시아를 바라보고자 했다. 전술한 예수의 삽화가 도입부분에 삽입된 동 특집란에는 “印度における自治運動と宗教”(武田豊四郎), “宗教問題の趨歸と重細垂”(帆足理一郎), “現今の宗教問題と朝鮮の佛教”(鷺尾順敬), “朝鮮基督教の今昔”(崔夢齋) 등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모두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각의 종교가 아시아의 민중들에게 행해야 할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교사학자였던 와시오 준코(鷺尾順敬)의 논문은 당시의 “일본에는 종교다운 종교가 없다”며 일본(인)의 종교관을 비판하면서도, “조선에는 민중의 불교가 있다”면서 조선(인)의 종교를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교와 분석은 아주 흥미를 끈다. 마지막의 최몽제 논문에서는 조선내 기독교 교회의 기원, 박해의 역사, 관련 인물, 그리고 기독교 각파 및 신도수를 포함한 통계자료가 자세히 언급돼 있어 당시의 종교연구에 있어 그 자료적 희소가치가 상당하다. 와시오 논문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⁹⁾.

宗教は日本國民であると云ふだけでは領解せられない。實際吾等は日本の國民である。それと同時に世界の人類である。佛教で言へば、法界それと同時に世界の人類である。佛教で言へば法界の衆生である。(中略)今日の日本人の精神生活はここに及んでゐない。明治以來今日まで日本の國民であると云ふことは教育もせられ、訓練もせられてゐる。が世界の人類であることは忘却せられてゐる。その結果我が國民は國民としては成功してゐるであらう、併し一面に世界の人類としては失敗してゐるものであると言へる。實際その事實がある。この國民としては成功してゐるが、人類として失敗してゐると云ふことは、極めて奇態千萬な事實である。國民即ち人類でなければならぬ。國民の向上が、即ち人類の向上でなければならぬ。併し日本の國民であることを自覺するばかりで世界の人類であることを自覺しないならば、即ち廣大無邊なる宇宙間の群生の一人であることを自覺せないならば人類として失敗である。國民として成功しても、人類として失敗であるならば、その成功は畢竟無意義である。成功と思はるゝものは失敗である。之が今日の日本人に領解出来るか、如何であらう。これだから宗教問題は根本問題でなければならぬと云ふのである。

유태경이 종교를 가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의 여지가 있겠다. 그러나, 그가 “아세아공론”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인류주의는 기독교적 박애주의와 상당 부분 일맥상통한다. 이를 감안하자면, 유태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유태경이 종교와 사상의 밀접한 상관성에 착안, 기독교의 박애주의에 자신의 인류주의 사상을 오버랩시킴으로 인해 잡지 “아세아공론”을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인 잡지(“borderless journal”)로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문학과 관련해 “아세아공론”에는 논문과 평론만이 아니라, 잡지의 후반부에는 만드

9) “아세아공론”(제1권 제7호), 1922년 12월호, 13쪽.

시 몇 편의 문학작품도 게재하는 등 일종의 문예지 역할도 하고 있다. 장르에 있어서도 단편소설, 시, 번역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유태경 자신도 문학청년이었다. 수천(壽泉)이라는 펜네임을 사용, 수차례에 걸쳐 중국 청대의 괴담소설인 “聊齋志異”을 일본어로 번역해 기고하고 있다. 수천의 문학적 재능은 물론, 그 중국어 능력 또한 일본어만큼이나 뛰어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세아공론”에 문학작품을 비교적 많이 기고했던 인사로서는 수천 이외에, 사카모토 테츠로(坂本哲郎), 노세 이와키치(能勢岩吉), 다카쓰지 히데노부(高辻秀宣), 김희명(金熙明) 등을 들 수 있겠다. “아세아공론”에 실린 문학작품들의 대체적인 흐름은 1920년대 당시 유행했던 사회주의 사상과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아 반제국주의 및 반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계층에는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들도 있다. 제1권 제3호(1922년 7월호)에 실린 노세의 “大同江夜話”라는 작품이 바로 그렇다. 한 일본인 남성이 평양에서 조선인 여성과 하룻밤을 지내는 체험담을 그린 작품으로, 이 남성은 당시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편견을 가진 ‘내지인(内地人)’이었다¹⁰⁾.

私の足は、紅い軒燈の下を歩いてゐた。そこは日本人の娼妓ばかりを置いてある貸座敷ばかりであつた。従つてこゝに足をとゞめたり、出たり這入つたりしてゐる者は、多くは内地人であつた。だが時たまには、クラシックな、黒い冠をかむつた朝鮮人などの姿も、そこに見えた。朝鮮人としては、自分たちよりも優れた文明を有つてゐる日本人の體を、たとへ一晩でも自由にすることが、彼等に取つての、此の上も無い誇りのやうであつた。

그러나, 그 조선인 여성의 비참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서 남성은 많은 것을 깨닫고 바로 평양을 떠난다. 남성은 “그 조선인 여성의 아버지는 일본의 광산 노동자로 끌려가 지옥같은 감옥방에 갇혀서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녀의 오빠는 독립운동가로서 해외에 망명중이다. 홀로 남겨진 그 여성은 이러한 환락가에서 몸을 파는 생활을 하고 있다”¹¹⁾고 전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처해 있던 당시 조선의 디아스포라(이산) 가족의 비참한 ‘풍경’을 내지인의 눈으로 묘사한 문학성 높은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문학과 관련해 김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다. 김희명은 “아세아공론”에 ‘詩調’ (제1권 제6호, 1922년 10월호)와 ‘平壤感別曲’ (제2호 제1호, 1923년 신년호)이라는 두 작품을 기고했다. 이들은 조선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번역작품이기는 하지만, 이 두 작품은 김희명이 일본에 와서 발표한 처녀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경수(朴庚守)의 연구에 의하면¹²⁾, 김희명은 1917년에 도일한다. 1922년부터 27년까지 일본대학(日本大学) 전문부 사회과에서 수학, 재학시에는 사회과학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영향을 받는다. 1928년 중반, 도쿄부(東京府)의 촉탁직원으로 취직한 후로는 사회사업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 기존의 급진적 프로레타리아 문학활동은 전개하지 않게 된다. 도쿄부에서의 경력은 차후 ‘가네미쓰 시로(金光史朗)’로 창씨개명하는 김희명이 친일파로

10) “아세아공론” (제1권 제3호), 1922년 7월호, 74쪽.

11) “아세아공론” (제1권 제3호), 1922년 7월호, 82-82쪽.

12) 박경수 ‘일제하 제일 문학인 김희명(金熙明)의 반제국주의 문학운동 연구-그의 시와 문학평론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회편 “일본어문학” 제 37집, 2007년 5월, 295-298쪽.

낙인 찍히는 계기가 된다. 김희명의 초기작품에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 자포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로 접어들면서 역사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인해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세아공론” 창간 당시 30세였던 유태경은 김희명보다 11살이나 나이가 많다. 인류주의를 내세운 온건파 사장 유태경은, 같은 조선에서 현해탄을 건너온 젊은 문학청년 김희명의 반제국주의에 바탕을 둔 급진적 문학성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IV. “아세아공론”과 “대동공론”

전술한 것처럼 “아세아공론”은 1923년 신년호를 끝으로 폐간된다. 그러나, “아세아공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 1923년 7월 1일, “대동공론(大東公論)”이라는 잡지가 같은 도쿄에서 창간된다. 필자는 이 “대동공론”이 “아세아공론”을 개제(改題)한 후속지라는 정보¹³⁾를 바탕으로 동 잡지의 입수를 시도했다. 다행히도, 도쿄 소재 재단법인 오오야 소이치 분코(大宅壯一文庫)가 “대동공론”의 창간호만을 소장하고 있었다. “대동공론” 창간호는 그 전반적인 편집 스타일이 놀라울 정도로 “아세아공론”과 흡사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먼저, 잡지의 형식면이다. 동 잡지의 표지에는 ‘大東公論’이라는 표제와 함께 ‘THE ORIENT REVIEW’라는 영문 타이틀, 그리고 ‘社會主義者檢舉批判號’라는 다소 과격한 특집란 제목이 명기돼 있다. “아세아공론”의 ‘아세아’가 ‘대동’으로, ‘THE ASIA REVIEW’의 ‘ASIA’가 ‘ORIENT’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아세아공론”은 ‘인류주의’를 그 슬로건으로 표방한 반면, “대동공론”은 권두언에서 “인류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광고란도 두 잡지는 거의 동일했다. “아세아공론”에 게재되었던 조선은행이나 조선식산은행, 대만은행 등과 같은 이름있는 기업들의 광고가 “대동공론”에도 그대로 실린다. 단, “아세아공론”에 빈번하게 등장했던 예수의 얼굴은 “대동공론” 창간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세아공론사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유학생 관련 사업도 대동공론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대동공론사는 사내에 고학생 직업소개부와 안내부를 두면서까지 유학생들의 직업 상담과 기숙사 소개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두 잡지의 다른 점이라면 그 주소가 와세다대 근처에서 “東京市四谷區新宿二ノ七五”로 변하며, 발행인도 김광현(金光鉉)에서 임한수(林漢洙)로 바뀐 정도였다.

다음은 잡지의 내용면이다. “아세아공론”의 필진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여럿 “대동공론”(창간호)의 필진으로 재차 등장하고 있다. 사카모토 테츠로, 니이 이타루(新居格)、후세 타쓰지(布施辰治)、김희명, 김금호(金琴湖), 다카쓰지 히데노부 등이 그들이다. “아세아공론” 폐간 후 6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거치고 “대동공론”이 탄생하지만, 기존의 집필진과의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일본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받기는 “대동공론”도 마찬가지였다. 동 잡지 창간호의 일부 내용이 삭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동공론” 창간호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3 : 재일본한국인민족운동자료집” 1978년, 25-27쪽.

에는 라스 비하리 보스(Rash Behari Bose)의 논고 “印度の現状と使命”도 실려 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하다. 보스의 글은 “아세아공론”에도 네 번 등장한다. 하지만 기존의 보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에는 “아세아공론”과 “대동공론”에 실린 보스의 글들이 소개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두 잡지가 상당히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아세아공론”을 창간한 유태경은 “대동공론”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미국으로 유학/망명을 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동공론”의 창간호만을 발굴/분석해 동 잡지가 “아세아공론”과 동일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남는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편집상의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감안했을 때, “대동공론”은 “아세아공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겠다.

V. 나오며

지금까지 학문적 관심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세아공론”의 사장 겸 주필인 유태경이라는 인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이로 인해, ‘무명’의 유태경에 대한 인물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며, 모두에서 언급한 “흥미로운 역설”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첫째, 조선 지식인 유태경은 사상가이면서도 교육자, 문학가, 번역가, 경영자, 정치가, 연구자, 언론인 등의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인물이었다. 둘째, “아세아공론”에 투영된 유태경의 사상 ‘인류주의’는 잡지 전체의 문맥과 그의 활동상을 참작한다면, 당시 일본제국이 그 질서 재편의 중심에 있기를 바랬던 ‘아시아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의 사상논리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셋째, 유태경은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국제적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인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는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도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강해지는 다소의 사상적 ‘전향’을 시도했다.

혈기왕성한 조선청년 지식인의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미디어’를 통한 사상운동은 일본당국의 방해로 인해 ‘불완전연소’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청년 태경의 관념과 행위, 사상과 실천은 생의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본다. 본고가 “동아시아 지식교류와 역사기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유태경과 “아세아공론”을 재평가하는 연구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Abstract】

The Korean Scholar Tai-Kyoung Lew and The Asia Review

RHA Kyungsoo

1. Introduction

This paper focuses on Tai-Kyoung Lew who was president and editor-in-chief of *The Asia Review*, a monthly journal published from May 1922 to January 1923. In order to comprehend this journal,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Tai-Kyoung Lew's life and philosophy. Until recently Tai-Kyoung Lew as well as *The Asia Review* were almost completely unknown. Despite the fact that Tai-Kyoung Lew and his journal were almost unknown, it is a most "interesting paradox" that famous individuals such as Tanzan Ishibashi contributed to *The Asia Review* at the time of Taisho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olve this 'paradox'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ai-Kyoung Lew to understand his philosophy and his reason for establishing the journal.

In contrast to many prominent independence leaders strongly opposed to Japanese colonialism such as Syngman Lhee and Gu Kim, Tai-Kyoung Lew remained completely unknown until only recently. There is a dearth of information and basic documents concerning Tai-Kyoung Lew and *The Asia Review*. I was fortunate, however, to be able to acquire testimonial documents written by his wife, Tae-Earn Kim, from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Korea. This document was most informative regarding his accomplishments. Based on his wife's documents, in this paper I endeavor to discuss Tai-Kyoung Lew's activities and philosophy in chronological order.

2. Background of Tai-Kyoung Lew

Tai-Kyoung Lew was born on August 28, 1892 in North Pyongan Province in Korea, and graduated from Seisoku Middle School in Tokyo in 1907. When and how he came to Japan remains unknown, but the fact that he studied in Japan for over 3 years is of considerable importance. Thanks to this experience, his command of the Japanese language was almost similar to that of Japanese intellectuals. Owing to Tai-Kyoung Lew's fluency in the Japanese language, he was fully competent to associate with Japanese intellectuals as well as Asian intellectuals in Japan at the time of Taisho Democracy. He made use of this intellectual network to publish *The Asia Review*. We can surmise that from his youth Tai-Kyoung Lew considered the imperial capital Tokyo as the ideal location for his political activities and for the formation of his philosophy. It is no coincidence, therefore, that *The Asia Review* was established in Tokyo, the center of imperial Japan.

In 1912 Tai-Kyoung Lew went to China to establish his activities and entered Qingdao University. During the Japanese-German War, he escaped and went to Peking where he entered Peking University.

In 1918 he moved to Manchuria to develop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for which, unfortunately, he was imprisoned. In the 10 years between 1910~1920 he experienced many hardships including World War I as well as the turmoil on the Korean peninsula.

Tai-Kyoung Lew returned to Tokyo upon his release from prison in 1920. In 1922 at the age of 30 he became president and editor-in-chief of *The Asia Review*. The following year he went to America where he studied at Columbia University and Bethany College. He earned his Master of Arts at Susquehanna University. In 1930 he returned to Korea after which he went to Peking in 1932 and to Chongqing in 1938.

Following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he became president of Ulsan County in South Kyongsang Province in Korea. There are conflicting reports claiming that he either became missing or died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The above concludes all available information to date on Tai-Kyoung Lew.

From the documents we can surmise that Tai-Kyoung Lew actively develope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1930s. However, during the publication of *The Asia Review* between 1922~1923 Tai-Kyoung Lew did not stand out as a dominant figure in support of Korean independence. It appears that he became actively involv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1930s and 40s. About 1945, he became known to a certain extent as an "independence leader." After that his existence has become increasingly vague.

From the above examination of Tai-Kyoung Lew's life we can see that over a short span of time he migrated to various locations such as Japan, China, and America. Throughout these migration experiences the condition of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as well as the future of Korea always remained foremost in his mind. His knowledge was deepened and broadened through his various migrations which made him internationally minded. While such migrations were according to his will, most were the result of being forced by time and tide. In this respect, Tai-Kyoung Lew is a typical example of "intellectual diaspora." His international migration contributed greatly to the formation of his philosophy which vacillated between nationalism and cosmopolitanism.

As I mentioned above, *The Asia Review* was only published in 9 volumes from May 1922 to January 1923. However, *The Asia Review* became subject to strict censorship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For example, articles in almost every volume concerning anti-colonialism were invariably eliminated.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ed both Tai-Kyoung Lew and *The Asia Review* with suspicion. Such press censorship is the decisive reason for the discontinuation of the journal. Tai-Kyoung Lew's wife testifies to the extremity of the opposition. With the closing of the publication of *The Asia Review* Tai-Kyoung Lew left Japan for America. According to his wife, Tai-Kyoung Lew's study in America was in reality political asylum forced on him by the Japanese government.

Tai-Kyoung Lew developed a very sophisticated and scholarly appearance owing to his abundance of experiences abroad. This fact can be confirmed in the photos in both of his ID cards that were available at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Korea. These photographs are invaluable in revealing his image. As the IDs are dated in 1945,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hotos were taken sometime during

his 50s. The fact that he is wearing glasses gives him a scholarly appearance. Tai-Kyoung Lew's fine features make him appealing to others. Both photographs reveal that he was indeed a "sophisticated intellectual." Such a scholarly appearance also made him attractive to Japanese and Asian intellectuals.

3. *The Asia Review*: A 'Borderless' Journal

The favorable balance of the editing is the most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The Asia Review*. Despite the fact that *The Asia Review* was largely published in Japanese, depending on the content, some of the editing appeared in Korean and Chinese within the same journal. For example, the cover title, *The Asia Review*, appeared in three languages: Japanese, Korean, and English. Although Tai-Kyoung Lew was from Korea, most of the articles were dedicated to cosmopolitan or international issues, and not focused on the Korean Peninsula.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Asia Review* is its appeal to advertising. The journal carried advertisements of major enterprises such as the Bank of Chosun, the Bank of Taiwan, and Mitsukoshi Department Store. It is a paradox that such a small journal was so successful in attracting advertisements from such prominent enterprises. Tai-Kyoung Lew was able to take advantage of a wealth of connection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journal.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he contents of *The Asia Review*. This magazine is basically a philosophical journal focused on cosmopolitanism and the connectiveness of all Asian ethnic groups. The articles contained Korean-related issues concerning education, religion, and literature.

While the purpose of this publishing company was, of course, to publish *The Asia Review*, considerable effort was devoted to educational issues. In particular, the journal brought attention to Asian students who came to Japan from Korea, China, and Taiwan. All 9 issues of *The Asia Review* included a column dedicated to student activities and articles pertaining to student life. Several articles included detailed statistics concerning students from Korea and China. Some articles vividly described the ethnic discrimination and other difficulties in their student life in Japan.

The question arises, "why did the journal feature articles concerning education?" First, the location of the journal changed to a place near Waseda University making it very accessible to students and professors alike. Interestingly enough, many of the contributors were Waseda professors and Waseda graduates. Another thinkable reason is that Tai-Kyoung Lew was personally interested in Asian students due to his own experience as a "foreign student." No one was more qualified to understand the heart of the Asian students in Japan than Tai-Kyoung Lew. Tai-Kyoung Lew himself contributed an article entitled "The Past and Present of the Korean Student." This article vividly described the student organization and the changes in their philosophy. This article is valuable in understanding Tai-Kyoung Lew's thoughts and knowledge regarding the situation of foreign students in Japan.

All volumes of *The Asia Review* include so many illustrations of the dove and Jesus Christ that the journal gave the initial impression of being a religious magazine. It can be understood that as the dove symbolizes peace, *The Asia Review* has cosmopolitan appeal. Since *The Asia Review* is not a religious

journal, one may wonder why it included so many illustrations of Jesus Christ. Several articles discussing religious issues were contributed by Christian leaders. In addition to Christianity, some articles were also dedicated to Buddhism. *The Asia Review* criticized the Asian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n. The journal emphasized the role of each religion for Asian people during those tumultuous times.

Whether or not Tai-Kyoung Lew was a Christian remains unknown. His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was closely related to the benevolence of Jesus Christ. It was very probable that Tai-Kyoung Lew was influenced in some respect by Christianity. Through the overlapping of Christianity and his personal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we can surmise that it was Tai-Kyoung Lew's desire that *The Asia Review* be a 'borderless' magazine with international appeal.

In addition to political and international issues, *The Asia Review* also dedicated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journal to literature. *The Asia Review* was also regarded as a literary journal. The genre ranged from short essays and poems to translated works. Tai-Kyoung Lew translated Chinese novels into Japanese which also appeared in *The Asia Review*. The literary works introduced in *The Asia Review* were influenced by socialism and anarchism that were popular during the 1920s. Most of these works were anti-capitalistic as well as anti-imperialistic. Among the literary works, some were considered to be splendid pieces of literature.

4. *The Asia Review* and *The Orient Review*: A Comparison

As I mentioned above, *The Asia Review* was discontinued in January 1923. On July 1, 1923, however, the journal, *The Orient Review*, was published. This journal was, in fact, the 'rebirth' of *The Asia Review*. I was fortunate to be able to see the first volume of the original *The Orient Review*.

The editing style of this volume of *The Orient Review*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Asia Review*. With the change of 'Asia' to 'Orient,' the names of the journals are the same. While *The Asia Review* focused on 'cosmopolitanism,' *The Orient Review* emphasized "human happiness." Both journals carried the identical advertisements such as the Bank of Chosun and the Bank of Taiwan. Both journals sold for the same price. Moreover, although Jesus Christ was not pictured, the illustration of the dove appeared in *The Orient Review*. The interest shown in foreign students was also aggressively maintained in *The Orient Review*. I was only able to discover two changes. While *The Asia Review* was published near Waseda University (Tokyo), *The Orient Review* was published in Yotsuya (Tokyo). The president and editor-in-chief of *The Orient Review* was not Tai-Kyoung Lew.

Many of the contributors to *The Asia Review* such as Tetsuro Sakamoto, Itaru Nii and others likewise also contributed to *The Orient Review*. Despite the 6 month interval between the discontinuance of *The Asia Review*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rient Review*, the network of former contributors was almost completely maintained. The first volume of *The Orient Review* contained a contribution by Rash Behari Bose, entitled, "The Present and Obligation of India." Bose's articles had already appeared 4 times in *The Asia Review*. The fact that both journals printed articles by Bose was completely unknown to

research on Rash Behari Bose.

The Orient Review also received strict censorship from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Upon my perusal of the first volume of *The Orient Review*, I discovered portions that had been deliberately eliminated by opposers. However, although both journals are similar, Tai-Kyoung Lew never appeared in *The Orient Review*. It can be surmised that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Orient Review*, Tai-Kyoung Lew had already left Japan for America. While I was just able to review only one volume of *The Orient Review*, the similarities that I discovered in both journals are indeed worthy of continued investigation.

5. Conclusion

In the above, I analyzed a variety of aspects concerning Tai-Kyoung Lew as the president and editor-in-chief of *The Asia Review*. In summary I would like to discuss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e Korean scholar, Tai-Kyoung Lew has “many faces” such as philosopher, educator, writer, translator, politician, researcher, and journalist. Second, his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was the ‘theme’ of *The Asia Review*. Through the entire context of *The Asia Review* and his activities, it became evident that his philosophy contrasted greatly from the philosophy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ty Sphere, which placed Japan as the center of the new reorder of Asia. Third, pursuing the philosophy of cosmopolitanism, Tai-Kyoung Lew emerged as a patriot for the libe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Through *The Asia Review*, the philosophy and intellectual exchanges of the young avid scholar, Tai-Kyoung Lew, came out victorious over Japanese opposition.

In conclusion, I am looking to the contribution of a detailed research on Tai-Kyoung Lew and *The Asia Review*. Also I would be very happy if the opportunity of this paper becomes the first step in understanding the “interesting paradox” mentioned at the onset. Furthermore, I also hope that through this paper I have been successful in making a small contribution to “intellectual exchanges in East Asia.”

大正期在京台湾人留学生とアジア

－『亜細亜公論』を手がかりとして－

■ 紀 旭 峰 (서울大學校) ■

大正期在京台湾人留学生とアジア

－『亜細亜公論』を手がかりとして－

紀 旭 峰 (早稲田大 学校)

〈目 次〉

- I. はじめに
- II. 台湾人の「内地日本」留学
 - 1. 日本留学のはじまり
 - 2. 台湾人の「内地日本」高等教育機関への進学
 - 3. 専門部政治経済科への集中
- III. 専門部政治経済科と近代台湾の啓蒙運動
 - 1. 専門知識の獲得
 - 2. 啓蒙運動への参加
- IV. 『亜細亜公論』にみるアジア知識人の対話
 - 1. 中国人と台湾人執筆者について
 - 2. 「植民地台湾」知識人からみたアジア
- V. むすびに代えて「一国家」・「一民族」を越えたアジア知識人の連携

I. はじめに

本報告は、『亜細亜公論』("THE ASIA KUNGLUN")を通じて、大正期在京台湾人留学生¹⁾の「知の交流」と彼らのアジア観を考察することである。大正期の台湾人留学生を対象として検証する理由は大きく二つ挙げられる。第一に、当時の「内地日本高等教育機関」、とりわけ私立大学専門部は近代台湾の文化・政治・民族運動の担い手を多く輩出したのである。第二に、アジア知識人の「人の交流」・「知の対話」の一具現である『亜細亜公論』を通じて、当時在京台湾知識人のアジア観を垣間見ることが可能であるためである。

さて、明治期・昭和期に比べれば、大正期は15年という短期間であったため、明治期と昭和期をつなぐ過渡期というような見方もあるが、その反面、こうした過渡期があったからこそ、多様な思想が共存できたという解釈もできるであろう²⁾。大正デモクラシーの最盛期を迎えた日本では、自由主義思想のみならず、社会主義思想なども台頭し、さまざまな思想が咲き乱れる中、アジアの現在・将来をめぐることも頻繁に論じ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うした中、『東方時論』(1916(大正5)年9月創刊)と『亜細亜時論』(1917(大正6)年7月創刊)をはじめアジアを大きなテーマとして取り扱う機関誌も相次いで創刊された。

1) 1932(昭和7)年に、内地留学生在が「内地在学者」に改称されるまでは、「内地日本」に進学する台湾人は「留学生」として取り扱われていた。

2) 大正デモクラシーについて、信夫清三郎『大正デモクラシー史Ⅰ～Ⅲ』(日本評論社、1954年)、太田雅夫『増補大正デモクラシー研究—知識人の思想と運動』(新泉社、1990年)、三谷太一郎『新版大正デモクラシー論—吉野作造の時代』(東京大学出版会、1995年)などを参照されたい。

そして、1922(大正11)年5月にいままでに例のない、「一機関誌中に三言語が混在する」といった『亜細亜公論』が出現した。したがってこの雑誌は、「亜細亜各国名士淑女の意見を発表すると同時に掲載し且つ一般の政経、外交、教育、宗教、社会、労働、女子界、文芸、其他各種掲載」³⁾するという画期的な発想をもった朝鮮人柳⁴⁾の手によって創刊された総合月刊誌であった。(傍点は筆者)

そこで、蔡培火、林呈禄、王敏川、黄呈聰等在京台湾人は、一部の日本知識人、とりわけキリスト教系知識人の理解と協力を得て、機関誌『台湾青年』の発行および台湾議会設置請願運動の推進⁵⁾に取り組むと同時に、柳泰慶、鄭泰玉などの朝鮮人との連携を図った結果⁶⁾、『亜細亜公論』、『青年朝鮮』に論考を発表する機会を得ることができた。実のところ、『亜細亜公論』に寄稿した台湾人は少なかったが、執筆者の殆どは日本留学経験者であったことに加え、彼らの論説は「内台差別待遇の撤廃」にとどまらず、国際的排日をはじめアジア全体の問題にも目が向けられていた。

本報告では、大正期台湾人留学生、とりわけ台湾人の多くが在籍していた早稲田大学専門部政治経済科に着目しつつ、在京台湾人の「知の実践」・「人の交流」を考察し、あわせてアジアに対する彼らの見解についても論究したい。

Ⅱ. 台湾人の「内地日本」留学

1. 日本留学のはじまり

明治以来清国(以下、中国と記す)留学生が最初に来日したのが、朝鮮人の日本留学(1881(明治14)年)より、約15年遅れた1896(明治29)年4月であった⁷⁾。それまではアメリカ留学が主流であったが、日清戦争に日本が勝利したことによって、中国は西洋のやり方を取り入れた日本に留学生を送るようになった⁸⁾。その後、日本のアジアへの侵略が加速化した結果、中国からの留学生が次第に減少していくが、彼らの中国社会における活躍はなお続く⁹⁾。

3) 「社告」『亜細亜公論』第1巻創刊号、1922年。

4) 柳泰慶は、「本名で壽泉は雅号ですが同氏曾て民国北京に留学の時大陸的に彼の有名な亜太應別宮の所在地なる万寿山と玉泉山を見てその中文字を採って附けた」のである。「読者と記者」『亜細亜公論』第1巻第6号、1922年、63頁。

5) 『台湾青年』とは1920(大正9)年7月に創刊した新民会および台湾青年会の機関誌である。1922(大正11)年5月に、『台湾』(THE FORMOSA)に改題した。一方、台湾議会設置請願運動とは、1921(大正10)年1月から1934(昭和9)年2月まで、15回に亘る本島台湾政治運動である。台湾総督府警務局『台湾社会運動史』(復刻版)(初出:『台湾総督府警察沿革誌』第二編領台以後の治安状況 中巻、1939年)龍溪書舎、1973年、28~31頁、315~404頁。

6) 拙稿「大正期台湾人留学生寄宿舍高砂寮の設置過程」『日本歴史』第722号(7月号)、吉川弘文館、2008年、80頁。

7) 田中宏「日本留学の中国人」『歴史公論』4月号、雄山閣、1979年、133頁。また朝鮮人留学生について、次のような指摘がある。「ところが保護条約の締結を機として、留学生の意識はこうした単なる『開化』のための日本留学から、日本に学ぶ過程の中で、また日本留学で学んだものを通して、『反日』『抗日』に資するという方向へと大きく転換して来るのである」という。阿部洋『『解放』前韓国における日本留学』『韓』第5巻第12号、東京韓国研究院、1976年、30頁。

8) さねとうけいしゅう『中国留学生史談』第一書房、1981年、8頁。

9) 「こうして日本留学生の比重は次第に低下して行くのであるが、彼らの中国社会における活躍はなお続く。」上垣外憲一『日本留学と革命運動』東京大学出版会、1982年、213頁。

これに対して、1897(明治30)年に東京富士見学校五年生に編入した楊世英と東京盲啞学校の郭主恩が、おそらく最初の台湾人留学生であった。このように一見すると、中国人と台湾人の日本留学の始まりにはそれほど時間の差がなかったかのように思える。しかし、実際、「外国人」として来日する中国人に対し、法政大学の法政速成科、早稲田大学の清国留学生部、明治大学の経緯学堂などが次々と設置されたが、「植民地人」としての台湾人には、上記のような便宜がはかれなかった。また専門教育を求めて日本に留学する中国人が多かったことに対し、初期、台湾人の日本留学は小中学校が主流であった¹⁰⁾。

2. 台湾人の「内地日本」高等教育機関への進学

大正期半ばからは、早稲田大学などの高等教育機関への留学が次第に主流となり、台湾人の高等教育機関への留学生が小学校を凌ぎ、中学校に次いで2位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¹¹⁾。なぜこのような現象が生じたのだろうか。安部磯雄、平沼淑郎などの早稲田大学教員も指摘しているように、「台湾に高等教育機関は整備されていない」という、台湾人に対する教育差別が一因としてあげられるであろう。結局、台湾人がより高度な専門的知識を獲得する手段としては、日本留学に希望を託すほかに殆ど道はなかった。その意味で、朝鮮人留学生の状況と同じく総督府の教育差別政策による植民地台湾人青年の内地日本への留学を、「周辺から中心へ」といった帝國的な文化構造の一現象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¹²⁾。

しかし、1922(大正11)年前後の台湾における台湾人の一日賃金の平均は、台湾在住日本人(1.85円)のほぼ半額にあたる0.97円であったため¹³⁾、生活費のみで最低でも一ヶ月に25円は必要である留学の経済的負担は決して軽いものではなかった¹⁴⁾。

さて、1918(大正7)年12月6日、大学令が公布された。しかし、「新大学令に拠れば必ず中学を卒業した者でなければ入学を許さない、が台湾朝鮮は四年の中学で、五年のものはない。斯の如く新大学令は朝鮮台湾の学生の高等教育を受ける道を塞いで了った、如何なる政府の意向か知らぬが、中央政府は兎角台湾人が高等教育を受ける事を好まない傾向がある」¹⁵⁾という指摘のように、当時、台湾では、台湾人を対象とする中学校は4年制しかなかったため、高等教育機関への進学を希望する台湾人にとって、とりわけ学部への入学はますます難しくなる一方であった¹⁶⁾。そこ

10) 戦前台湾人・朝鮮人留学生の推移について、佐藤由美・渡部宗助「戦前の台湾・朝鮮留学生に関する統計資料について」『植民地教育体験の記憶』皓星社、2005年を参照されたい。

11) 台湾総督府民政部学務部『大正六年度台湾総督府学事第十六年報』1919年、16頁。

12) 日本植民地期朝鮮人の日本留学について、朴宣美は次のように指摘している。「植民地的近代化の過程をへる中で、『中心』と『周辺』という帝國的な文化構造が作り出した。」朴宣美『朝鮮女性の知の回遊 植民地文化支配と日本留学』山川出版社、2005年、4頁。

13) 1922(大正11)年において、台湾人の平均賃金は、家作大工が1.8円、左官が2円、雑役人が0.8円、鍛冶が1.3円、鋳物が1.2円、農作男が0.5円、貨物荷捌人が1.5円、漁夫が1.2円などの例がある。山川均「植民政策下の台湾」『山川均全集』第7巻、1966年、276~278頁。

14) 東京の下宿生活について、大生川志郎『最新東京苦学案内』(復刻版)近代日本青年期教育叢書・第IV期第6巻(初出:教成社、1921年)、日本図書センター、1992年、24~36頁を参照。また、当時、東京留学の費用について、早稲田大学出身の黄朝琴は年間約400~500円が必要だと語った。黄朝琴『朝琴回憶録—台湾政界者宿黄朝琴』龍文出版社(台北)、2001年、12頁。

15) 安部磯雄「台湾の教育問題に就て」『台湾青年』第1巻第4号、1920年、10頁。

16) 教育的差別について、呉三連口述・呉豊山記録『呉三連回憶録』自立晩報社文化出版部(台北)、1991年、34頁を参照されたい。

で、選択肢のひとつとして、多くの台湾人留學生がまず、内地日本の中学への編入を余儀なくされた。たとえば、黄朝琴は正則英語学校及び研数学館のような予備校に通い¹⁷⁾、その後、日本中学三年生に編入するという長い道程を経て、ようやく早稲田大学専門部政治経済科の入学にこぎ着けた¹⁸⁾。

以上のように、大学部への入学が困難である上に、官僚への選択肢がほとんどないという植民地台湾人知識青年の就職問題が加わるため、エリート官僚を養成する官立大学よりも、むしろ「法科の明治大学」と「政治経済科の早稲田大学」など、私立大学専門部への進学が多かった¹⁹⁾。

3. 専門部政治経済科への集中

以下では、『亜細亜公論』に論説を発表した早稲田大学の台湾人留學生を概観するが、「早稲田大学の外地学生・生徒数」（『早稲田大学百年史』第4巻）からは、1920年代半ばから戦後初期までの台湾人学生の推移をみることができ、1925(大正14)年以前の台湾人留學生の推移を把握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のため、本報告は、毎年年末の『早稲田学報』に掲載される「早稲田大学報告」の資料を駆使し、大正期における台湾人留學生の推移を整理したい。なお、アジア地域からの留學生の推移と比較するために、中国人と朝鮮人留學生などのデータも取り入れる。

[表1] にみるように、当時、同じく日本の植民地下に置かれた朝鮮からの留學生数はおよそ台湾人の3倍から4倍前後に達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台湾人留學生の推移は微増ながらほぼ横這いであった。

[表1] 大正期における早稲田大学アジア留學生の在學生推移

年度	地域	台 湾	朝 鮮	中 国	インド	トルコ
1912(大正元) 年		1	37	166	1	0
1913(大正2) 年		不明	不明	不明	不明	不明
1914(大正3) 年		9	50	168	0	1
1915(大正4) 年		12	40	180	2	1
1916(大正5) 年		13	48	188	2	1
1917(大正6) 年		21	61	200	2	1
1918(大正7) 年		19	69	205	0	0

17) 正則英語学校は、正則予備学校の姉妹校であり、専ら英語を教授した。これに対して、正則予備学校は主として理化学及び数学を教授した。藤井衡編『大正五年版新撰東京遊学案内』東京集文館、1916年、38頁。一方、研数学館は、1897(明治30)年に奥平浪太郎が創立した数学の私塾であった。

18) 黄朝琴『愛国愛郷—黄朝琴伝』近代中国雑誌社(台北)、1984年、4頁。

19) 「この弁護士試験合格者における明治大学の圧倒的な地位は一九二〇年前後、つまり大正中期末で続き、司法官とあわせて法曹界の人材をより多く輩出していったのである。」というように、当時弁護士試験合格者において明治大学法科が圧倒的割合を占めている。明治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明治大学百年史』第3巻、通史編Ⅰ、1992年、592~593頁。林呈祿の影響もあって、明治大学の台湾人留學生は法科への入学が多かった。明治大学百年史編纂委員会『明治大学百年史』第4巻、通史編Ⅱ、1994年、212頁。実際、明治大学法科出身の台湾人は、林呈祿のほか、郭廷献、謝介石、呂霊石、蔡式穀、蔡先於、羅萬俔、張龍池などがあげられる。台湾新民報社調査部編『台湾人士鑑』台湾新民報社、1934年を参照。

1919(大正8) 年	24	74	233	0	0
1920(大正9) 年	17	59	218	0	0
1921(大正10) 年	19	80	201	0	0
1922(大正11) 年	22	83	199	0	0
1923(大正12) 年	30	92	209	0	0
1924(大正13) 年	29	214	113	0	0
1925(大正14) 年	31	122	88	0	0
1926(大正15) 年	41	136	66	0	0

注) 附属高等学院、工手学校を含む。

出典：各年度「現在学生府県別表」、『早稲田学報』より、筆者作成

[表2]：早稲田大学台湾人卒業生一覧(大正期入学のみ)

卒業年度・学科	専 門 部	大 学	部	高等師範	合計
1915(大正4) 年	林時珍 黄毓材・鄭其芹	政治経済	商科	法学	3
1916(大正5) 年	劉明哲	政治経済	商科	法学	1
1917(大正6) 年	蔡國珍	政治経済	商科	法学	1
1918(大正7) 年					0
1919(大正8) 年		巫川(独法)	劉達麟		2
1920(大正9) 年	劉安紅	蕭秀球(英法)	李瑞雲・何春喜	林仲樹(電気工学)	5
1921(大正10) 年					0
1922(大正11) 年					0
1923(大正12) 年	王敏川・黄呈聰				4
	黃朝琴		呂盤石		
1924(大正13) 年	吳薇秋・劉鳳岐		林仲輝	蔡添丁	8
	林萬金・彭沐發		王金海		
	黃周				
1925(大正14) 年	張水泉・陳瑞圖		新制2名		4
1926(大正15) 年	呂世明・林呈旺	蔡美楚			5
	郭發・温成龍				
1927(昭和2) 年	許茂元	潘家和	徐先烈	吳丕松	4
1928(昭和3) 年	邱潤興 李金鐘	林以士(英法)	林澄藻(経済)	張秉蘭 陳東榮	8
		吳鏡澄(英法)	鄭續(経済)	(英文学)	
1929(昭和4) 年	施添福 葉啓仁・楊肇嘉	廖治義(英法)	鄭川(経済)		7
	鄭圍	郭朝鳳(英法)			

注) 1925(大正14)年新制大学部政治経済科の2名はいずれも資料上不明である。

出典：各年度『早稲田学報』より筆者作成

次に、台湾人卒業生ならびに出身学科(学部・専門部・高等師範のみ)についてだが、[表2]に示されるように、最初の台湾人卒業生は、おそらく1915(大正4)年の林時珍(専門部法律科)と黄毓材・鄭其芹(専門部政治経済科)の3人と考えられるだろう。その後、専門部政治経済科を中心に、台湾人留学生の数は少しずつ増加していく。というのも、当初、専門部の入学基準は学部より低く定められていたことに加え、「台湾に於いては国民教育のみならず、各方面の教育についてこの政治教育は殆ど考慮されていない」²⁰⁾という台湾教育の現状があったため、台湾人の専門部政治経済科への入学が顕著であった。

また当時、師範学校卒業生が専門部への入学は可能であるため、大正期において、台湾人留学

20) 王金海「台湾教育に関する私見」『台湾青年』第3巻第2号、1921年、39頁。

生が台湾總督府国語学校の卒業生に集中していた。例えば、黄呈聡(実業部農業科、1907年)、王敏川(元師範部乙科、1909年)、劉鳳岐(公学師範部乙科、1911年)、黄毓材(国語部、1911年)、鄭其芹・巫川(国語部、1912年)、彭木發(公学師範部乙科、1912年)、何春喜・劉達麟(国語部、1913年)、施添福(公学師範部乙科、1913年)、王金海・吳鏡澄(公学師範部乙科、1917年)などがあげられる²¹⁾。この現象を裏返すならば、当時、台湾人最高教育機関である台湾總督府国語学校の卒業生でなければ、直接内地日本の高等教育機関に入学しにくいという捉え方も可能であろう²²⁾。

III. 専門部政治経済科と近代台湾の啓蒙運動

「新式教育世代が生み出した社会エリートの中で、高等教育を受けた留学生の数が最も多い」²³⁾という指摘のように、専門部政治経済科出身の台湾人留学生の多くが卒業後、台湾社会の中堅として活躍した。実際、1934(昭和9)年に、立身出世の象徴として、刊行された『台湾人士鑑』をみても、専門部政治経済科出身の台湾人校友の職業が多様であ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²⁴⁾。しかし、本報告では、彼らの進路というよりも、むしろ『亜細亜公論』への投稿を通じて、政治経済科台湾人留学生の「知の実践」を検証したい²⁵⁾。

1. 専門知識の獲得

多言するまでもないが、学生の知識の獲得は、読書、講演会、サークル活動など、さまざまなルートを通じて構築す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最も基本的な土台作りは、おそらく学校での勉強にはかないだろう。例えば、「行政法各論」、「財政学」、「金融政策」、「商業政策」、「国際公法」、「国際私法」などの科目を登録した劉安紅の「選択課目届」²⁶⁾からは、台湾では、政治学、法学、社会学など、高度な専門的知識を習得する機会がない台湾人留学生にとって、政治経済学科の授業がいかに有益であったかは想像に難くない²⁷⁾。また後年、政治経済科出身の楊肇嘉は、安

21) 台湾總督府国語学校『台湾總督府国語学校一覽 自大正六年至大正七年』1917年、210~247頁。

22) 早稲田大学のほか、台湾總督府国語学校出身の台湾人留学生は次のような人物があげられる。明治大学の蔡式穀(元師範部乙科、1903年)、林呈祿(国語部、1908年)と東京高師の蔡培火(元師範部乙科、1910年)・張耀堂(公学師範部乙科、1914年)と黄土水(公学師範部乙科、1915年)などの例がある。

23) 吳文星『日抛時期台湾師範教育之研究』国立台湾師範大学歴史研究所(台北)、1983年、220~221頁。

24) 具体的に次のような人物が記されている。欧清石(弁護士)、吳衡秋(石油会社代理店経営・彰化街協議会員)、黄周(台湾新民報社上海支局長)、黄呈聡(台湾新民報社社会部長・線西信用販売購買利用組合長)、楊肇嘉(台湾新民報社取締役・台湾地方自治聯盟常務理事)、劉安紅(万巒庄長・高雄州青果同業組合代議員)、呂世明(彰化輕鉄株式会社専務取締役・街協議会員等)などがある。台湾新民報社調査部編、前掲書。

25) 『台湾』、『亜細亜公論』等雑誌へ継続的に投稿することに加え、翻訳および講演を通じて、台湾人留学生たちを「知の運搬者」として、捉えることも可能であろう。たとえば、王敏川などの留学生たちが「和文から漢文へ」という形をもって、『台湾青年』・『台湾』に掲載した日本人の寄稿を漢文に訳し、『台湾青年』・『台湾』に再掲載するという作業を繰り返していた。拙稿「大正期台湾人『内地留学生』と近代台湾—早稲田大学専門部政治経済科を中心として」『アジア太平洋研究科論集』16号、早稲田大学大学院アジア太平洋研究科、2008年、13頁。

26) 早稲田大学大学史資料センター所蔵「三号館旧蔵資料」・「C付属学校(旧制)・5専門部：[大正9年]撰択課目届(専門部政治経済科3年)」(5-08)。

27) 詳細について、前掲文「大正期台湾人『内地留学生』と近代台湾—早稲田大学専門部政治経済科を中心として」を参照。

部磯雄、高橋清吾、大山郁夫の講義について、「特に、政治学関連の授業に毎回必ず出席するに加え、時々政治学担当の教員の宿舍を訪れ、指導を受けた」²⁸⁾と回想している。この例からも政治経済科の履修科目が、かなり魅力的であ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だろう。

さて、『早稲田学報』の卒業生名簿によれば、王敏川、黄呈聰、黄朝琴の3人は共に、1923(大正12)年に、専門部政治経済科を卒業した同級生であった。そこから、逆算すると、彼らが入学したのは、おそらく1920(大正9)年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²⁹⁾。

[表3] 1920(大正9)年度早稲田大学専門部政治経済学科の科目配当一覧

学科・教員	学年	第一	学年	第二	学年	第三	学年
政治学		国家学原理	浮田和民	行政法汎論	副島義一	行政法各論	島村他三郎
		帝国憲法	副島義一	政治学史	高橋清吾	自治政策	高橋清吾
経済学・財政学		経済学原理	塩澤昌貞	貨幣及銀行	服部文四郎	鉄道政策	佐竹三吾
				農業政策	猪俣津南雄	商業政策	上田貞次郎
				工業政策及	塩澤昌貞	金融政策	服部文四郎
				社会政策		保険政策	栗津清亮
				財政学	小林丑三郎	財政学	小林丑三郎
史学		西洋史	本多浅治郎	近代史	本多浅治郎	近時外交史	信夫淳平
		*東洋思想史	遠藤隆吉	東洋近代史	松井等	支那現代外交史	青柳篤恒
				文明史	内ヶ崎作三郎		
				最近政治史	煙山専太郎		
地理学		地理学	志賀重昂				
文学・社会学				社会学	遠藤隆吉		
哲学		*哲学	杉森孝次郎				
法学		民法要論	牧野菊之助	民法要論	磯谷幸次郎	国際公法	中村進午
		刑法要論	岡田朝太郎			国際私法	松野祐裔
						商法要論	柳川勝二
簿記						簿記	神尾錠吉
外国語		英語	(吉田源次郎)	英語	(吉田源次郎)	英語	山崎貞
			山崎貞		帆足理一郎		勝俣銓吉郎
		日語	渡俊治	日語	渡俊治	日語	菊池三九郎
		*支那語		*支那語		*支那語	
論文及国会演習		論文	菊池三九郎	*国会演習		*国会演習	

注) ① 第二学年以後に於いては専攻の方針により学課の数を限定して選択必修せしむ、*印は随意科なり。

② 担当教員の空欄と()は、史料が不明のためである。

出典：「大正九年度学科配当表」 早稲田大学大学史資料センター所蔵「三号館旧蔵資料」・「自明治42年度至大正11年度」学科配当表 [綴] (25-05)と『早稲田大学百年史』第2巻より筆者作成

[表3] にみるように、当時、専門部政治経済科の必修科目は、「政治学」と「経済学」関連の専門科目のみならず、「史学」、「地理学」、「社会学」、「文学」、「法学」、「語学」など、さまざまな分野の講義も履修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れに加え、日本人学生と同様に、台湾人留学生も「国会演習」(前は「国会法演習」)³⁰⁾というユニークな科目を通して、近代議会制度をある程度、学ぶことができたと推測できよう。

28) 楊肇嘉『楊肇嘉回憶録』(上)三民書局(台北)、1967年、225頁。

29) 王敏川について、彼の入学は1919(大正8)年であったという説もあるが、検討の余地があると考えられる。

30) 「明治二十一年六月課程表」には、政治科第三年前期に「国会法」の講義が新設され、それと並んで同科第三年前、後期に隔週一回の「国会法演習」が置かれている。議会開設を二年後控えたこの時期にあって、学苑がこれらの科目を設置したことは、高田の強い主張に基づくものと考えられるが、学苑の特色を遺憾なく発揮した、まさに特筆すべき新機軸であったに違いない。『早稲田大学百年史』第1巻、1978年、770頁。

2. 啓蒙運動への参加

さて、朝鮮半島の三一独立運動、中国の五四運動などの民族運動から刺激をうけ、在京台湾人留学生は啓蒙運動団体を組織しはじめた。そこで、早稲田大学の台湾人が「瀛士会」という学内の台湾人学生サークル活動のみならず、「新民会」・『台湾青年』等在京台湾人の諸啓蒙運動にも意欲的に参加した³¹⁾。一方、当時朝鮮人の啓蒙文化運動は、「台湾人の運動より遥かに前進しつつあり、東京留学生の如き既に数個の団体を組織し、機関紙の刊行、思想の宣伝普及を行ひつつあ³²⁾ る」という状況のなかで、蔡培火、林呈禄、王敏川等台湾人は、在京朝鮮人との連携を図ろうと試みた。

具体的に、『亜細亜公論』より約三ヶ月早く誕生した『青年朝鮮』(1922(大正11)年2月15日創刊)の第1号に、台湾青年雑誌社のメンバーは、『台湾青年』誌に対する言論弾圧を糾弾する公開状「台湾青年の憤起」を寄稿している³³⁾。なお、この記事の内容の一部は、後に『亜細亜公論』創刊号にも掲載された(「台湾における言論圧迫を内地朝野諸に訴ふ」)。

「吾人は一昨年郷里の先輩と協力して帝都に於て台湾青年雑誌社を創立し、月刊雑誌台湾青年を同年七月より発行して今日に及んだのであるが、曾て同誌第一卷第三号にも発表した通り、台湾各地の下級官吏は同誌の発展を妨害すべく、不法にも該誌の購読者に対して極力監視を加へ、或は其の購読停止を勧告したり或は其の所持の雑誌を取り上げて、読者の増加を防止することに努めた。更に中央なる台湾総督府に於ては、其の特別なる台湾新聞紙規則に依つて同雑誌の取次所を台湾島内に設置し、而して取次所より既に内務省の検閲を通過したる雑誌を毎号改めて納本し其の検閲を受け、又雑誌を読者へ発送する際には何れも総督府の認定したる取次人の印鑑を雑誌に捺すべきと命じた。(後略)」

実際、『亜細亜公論』の執筆者をみればわかるが、台湾人留学生黄呈聰、王敏川のほか、同じ専門部政治経済科の朝鮮人李相壽(1923(大正12)年卒)と中国人湯鶴逸(1922(大正11)卒)・張昌言(1924(大正13)年卒)なども論説を発表した³⁴⁾。こうした『亜細亜公論』の例を通して、アジア留学生と日本知識人の間にはなんらかの交流と連携があったと推測できよう。とはいふものの、大正期において中国人や朝鮮人に比べ、台湾人留学生の数は、はるかに少なかった上に、啓蒙運動のスタートに関してもかなり遅れていた³⁵⁾。

31) しかし、早稲田大学学生を中心とする民人同盟会、早大一新会、建設者同盟会、早大文化会等組織の活動には、早稲田大学台湾人留学生が参加した記録は見当たらない。これに対し、明治大学在学の台湾人彭華英は建設者同盟の一員として名をつらねている。詳細について、建設者同盟会史刊委員会『建設者同盟の歴史~大正期のヴ・ナロード運動』日本社会党中央本部機関紙局、1979年と社会文庫編『大正期思想団体視察人報告』柏書房、1965年、40~41頁。

32) 台湾総督府警務局、前掲書、24頁。

33) 朴慶植編『朝鮮問題資料叢書第十二巻日本植民地下の在日朝鮮人の状況』アジア問題研究所、1990年、11頁。

34) 李相壽「日支交渉を論じて現代の強国の政策を弾劾す」(第1巻第2号)と湯鶴逸「求日本人の反省」・「西湖雜詩漢詩(漢詩)」(第1巻創刊号)、「排日」(第1巻第5号)・「論中華民國與高麗之關係」(第2巻第1号・漢文)と張昌言「日本政府当局の支労働者追放に就て日本官民諸士に忠告す」(第1巻第6号)などがある。

35) 「在京台湾人留学生の民族的覚醒と、実践運動への発展の傾向は、林獻堂、蔡惠如等の統制下に具体化し、東京青年学生を説き、大正八年末百余名を糾合し、啓蒙会なる名称を以て団体組織を遂げ、間もなく之を新民会と改称せり」という。台湾総督府警務局、前掲書、25~31頁。

IV. 『亜細亜公論』にみるアジア知識人の対話

『『亜細亜公論』は何にも亜細亜民族の団結とか統一とか、そんなケチ臭ひ考のものではない。人類主義の表徴の積りでこの題を選定したわけだ。人類の幸福は、各人の幸福の拡張だ。世界平和の必要なるが為には、どうしても吾々としては腐敗した亜細亜自身が、欧米人に遜色のない人格者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現状から考へると、どうしても第一歩として亜細亜人は覚醒を要する、さうして魚食魚たらん根性から脱れねばならぬ』と創刊号の『誌題』懸賞募集』に記されるように、『亜細亜公論』は、「人類主義・博愛精神をもって、アジア人を覚醒させる」ことを当面の目標として第一歩を踏み出した。

『台湾青年』といった在京台湾人主宰の機関誌と同様に、『亜細亜公論』創刊当時から、日本知識人が原稿の供給源として重要な役割を担った。中でも、早稲田大学関係者からの寄稿が目立っている³⁶⁾。その日本人執筆陣から明らかなように、安部磯雄、大山郁夫、杉森孝次郎、武田豊四郎、佐野学などの教員に加え、山室軍平、島田三郎などの早稲田大学出身者からの寄稿も多くみられる。と同時に、彼らの多くは、キリスト教会活動および社会運動に積極的に取り組んだ人物である³⁷⁾。しかし、紙幅のため、日本キリスト者とアジア留学生との連帯関係については、別稿に譲りたい。

1. 中国人と台湾人執筆者について

さて、無署名の寄稿を除いて、中国人と台湾人執筆者については次のよう人物があげられる。まず、中国人では、戴、傅立魚、湯鶴逸、張昌言、楊橐吾、胡中和、王了人、了人(王了人と同一人物の可能性が高い)、醉天生(ペンネーム)などである³⁸⁾。これに対して、台湾人執筆者は蔡培火と黄呈聰と王敏川など3人しかいなかった。

実際、明治期に日本に留学した戴季陶(日本大学専門部法科・1909(明治42)年中退)と傅立魚(明治大学・卒業年度不明)を除いては、大正期の日本留学経験者、とりわけ早稲田大学専門部政治経済科出身の執筆者が多かった。早稲田大学のほか、明治大学専門部政治経済科の胡中和(1921(大正10)年卒)、日本大学専門部政治科の王了人(1921(大正10)年卒)などがあげられる³⁹⁾。

なぜ、早稲田大学政治経済科の留学生が多く関与していたのだろうか。その理由のひとつは、留学時期と『亜細亜公論』の発行期間が重なっていたことである。もうひとつは、『亜細亜公論』と早稲田系知識人との深いつながりがあげられる。というのも、『亜細亜公論』創刊当初から、三浦鍊太郎、安部磯雄、大山郁夫をはじめとする早稲田系の日本人執筆者が多い上に、本社が早稲田鶴巻町(中目黒からの移転)にあった。こうした要因が、早稲田大学の留学生に、大きな役割を担う機会をもたらしたと思われる。

36) 『台湾青年』と『台湾』に寄稿した早稲田大学の教員について、拙稿「植村正久と台湾～近代日本キリスト者を通じて～」『問題と研究』第36巻第6号、2007年、142～144頁を参照されたい。

37) 「社会主義には、幸徳秋水の思想に見られるように志士仁人的、儒教精神をとりいれた場合や安部磯雄、島田三郎のようなキリスト教精神をとりいれた場合があるが、一種のヒューマニズムに立脚し、弱者救済に熱心であった点で、両者は共有点を持っている」という。遠藤興一『田川大吉郎』大空社、1998年、184頁。

38) 拙稿「『半植民地中国』・『植民地台湾』 知識人から見たアジア」後藤乾一・羅京洙・紀旭峰編集解題『20世紀日本のアジア関係重要研究資料 亜細亜公論・大東公論』全3巻、龍溪書舎、2008年。

39) 興亜院『日本留学中華民国人名調』1940年；周棉編『中国留学生大辞典』南京大学出版社(南京)、1999年。

2. 「植民地台湾」知識人からみたアジア

中国人・台湾人の寄稿を整理すると、主に三つの特徴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第一に、それぞれ国内情勢および国際趨勢を反映する内容が多い。第二に、政治経済学科出身の執筆者をはじめ、留学生の専門知識が論説に多くあらわれている。第三は、日本語と中国語両方の原稿があった。

そこで、「対等な国対国」の日中関係を求める「半植民地中国」知識人の論考が多かったに対して、当時日本植民地下におかれていた台湾人の寄稿は、主に「内台差別待遇」の撤廃を訴える内容に集中している。その意味では、当時の台湾人にとって、『亜細亜公論』は、内地日本人に「台湾総督府の統治政策」と「内台差別待遇の実態」を告発できる数少ない媒体のひとつであったことは間違いのないであろう。

しかしながら、蔡培火「極東の平和果して如何」(第1巻創刊号)、黄呈聰「台湾の経済的危機」(第1巻第3号)、王敏川「希望賢明政治家之出現(漢文)」(第2巻新年号)などの論説は、植民地台湾統治政策の改善を述べる半面、「国際的排日」、「アジア・モンロー主義」など、アジアの現在・将来をめぐる論じている。

さて、黄呈聰が発表した「台湾の経済的危機」と題する論文であるが、管見の限り、その内容は、1921(大正10)年に、総督府の検閲で全文削除の命令をうけた「台湾経済界の危機と其の救済」(『台湾青年』第3巻第5号、1921年)と「台湾経済界の危機と其の救済(承前)」(『台湾青年』第3巻第6号、1921年)に加筆したもの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黄呈聰はまず、植民地母国本位主義と植民地本位主義の優劣について、欧米の例を取り上げ、「及は吸収主義の為に多数の植民地を失ひ、残余の少数の植民地は却って毎年本国より逆に補助しつゝある状態である。英国は概して独立自給主義を採りたる為に補助金を免れ、母国と植民地は互に融合して繁栄しつゝあるは鑑とすべきである」と述べている。

ところで、同文は、『亜細亜公論』が敬遠してきた「アジア主義」について、「大亜細亜主義」を推進するためには、まず、征服者と被征服者を平等に扱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ている。

「要するに台湾の統治方針は徒らに一部の母国人の利権扶殖腐心して台湾人の経済状態を考察せず、農奴に化せられつゝあるは一視同仁の皇徳でないと思ふ。一時的の小利益の為に永遠の大利益を見ざるは決して帝国の大をなす所以ではない。新領土の統治は須く征服者の態度を去り、住民に対して、正義なるを要し、にして母国人に偏重せずの誠意あればこそ帝国の利益を永遠に確保する所以で亦以て大国民の襟度を列国に示すのである。も此れより出発しなければならぬと思ふ」

実際、黄呈聰が提唱した「万事公明正大」、「共存共栄主義」などの論調について、早稲田大学政治経済科教授安部磯雄は『次の時代』のなかでも、提起している。安部は、優勝劣敗を前提とする自由競争主義を批判し、「優勝劣敗と共存共栄との両立が不可能である」と主張する上で、共存共栄主義を実現するためには何よりもまず人類平等(四海同胞主義)を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ている⁴⁰⁾。この例からも、当時アジア知識人の間には何らかの「知の交流」・「知の連鎖」

40) 安部磯雄『次の時代』春陽堂、1927年(復刻版：安部磯雄著作集第5巻、学術出版会、2008年)56~73頁。
また、キリスト教精神に基づく安部磯雄の「平等主義四海兄弟主義」の詳細について、荻野富士夫「初

を有していたと推測できよう。

黄呈聰と同級生であった王敏川は、『希望賢明政治家之出現』と題する原稿を寄せた。王敏川は、台湾議会の設置、植民地言論集会の自由などを実現するためには、「党派を超越すること」、「党派を感化すること」、「党派に左右されないこと」といった三つのキーワードを提起した上で、有色人種と白色人種との地位平等を図るためには、朝鮮民族日本民族漢民族3者が協力し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賢明な政治家の出現を強く期待している。

一方、蔡培火「極東の平和果して如何」の論点は植民地台湾におかれたというよりも、むしろ、「日中」・「日朝」・「日台」という相互関係の推進にあったと考えてよい。蔡培火は、まず「日台」関係の相違点⁴¹⁾を分析し、朝鮮台湾に対する日本の差別政策の撤廃を呼びかけている。それから、極東の平和を実現するには、「日華相親」が不可欠な一要素であると主張する。実際、上記の論説が発表される前年、1921(大正10)年8月、蔡培火は「中日親善の要諦」(『台湾青年』第3巻第2号)と題した一論のなかで、日華親善の意義・必要・障碍・要諦について論じていた⁴²⁾。また、ヴェルサイユ講和会議とワシントン平和会議における日中両国の激しい抗争に対し、蔡培火は、「極東は極東人の極東である。極東の建設は極東人の手に依らねばならぬと同様に、其の破壊も極東人に依って行はるべき筈である」と語っている。

しかし、ここで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は、この「極東は極東人の極東である」という主張は、決してモンロー主義のような排外的な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というのは、蔡培火が「極東は極東人の極東である」という論調を打ち出した真意は、「極東に於ける一切の紛糾は、皆極東人自ら醸した罪業と信ずるものである。極東宜しく自ら進んで其の責を負ふべしして、決して他へ転嫁すべきでない」という「アジア人の自己反省」に由来する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この「極東は極東人の極東である」を彷彿させる論調は、1920(大正9)年蔡培火が発表した「我島と我等」(『台湾青年』第1巻第4号)にもみられる。「我島と我等」のなかで、蔡培火は、「台湾は日本帝国の台湾であると同時に、我等台湾人の台湾である」と訴えている。

今日からみれば、執筆者たちの論説は必ずしも完成度の高いものとはいえず、その論点についても検討の余地があると思われる。しかし、彼らの眼差しを通じて、当時の「植民地台湾」知識人の中国観、朝鮮観、日本観、アジア観を一瞥す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V. むすびに代えて「一国家」・「一民族」を越えたアジア知識人の連携

今日に至るまで、「東アジア」と「アジア」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視点から語られてきた。

期社会主義における安部磯雄の思想 峰島旭雄編集 『安部磯雄の研究』 早稲田大学社会科学研究所、1990年、56-57頁を参照。

41) 「日鮮は合邦である。國と國とを合意的形式に於いて併合したものであつて、其の理想は兩國人の共存共立にあるのであつた。臺灣と日本の關係は前者と相違して、合意的の結合ではなかつたけれど、何分其の地は海洋の孤島にして、其の人は多からず、而も臺灣人の身には寸鐵なくして、其の性は元來平和を好み、人種的憎惡の感を抱持しない」という。蔡培火「極東の平和果して如何」『亜細亜公論』創刊号、1922年、27頁。

42) 蔡培火は日中關係の改善について、次のように指摘している。「実に日本對朝鮮、台灣の問題は、日本對中國の問題の二大試金石であつて、中日の關係は、日鮮、日台の關係にその聯結の端緒を得べきである。」蔡培火『日本々國民に與ふ一植民地問題解決の基調一』台灣問題研究会、1928年、139頁。

とくに、日本の東アジア歴史研究においては、「戦後日本の学界における『東アジア』概念は、意識するとしないとにかかわらず、西嶋定生によって理論化された東アジア世界論の影響下にあると考えてよい」⁴³⁾ という指摘のように、西嶋の「東アジア世界論」が、ひとつの定説として重要視されてきた。一方、1960年代に、戦後日本のアジア主義研究ブームの火付け役を演じた竹内好は、岡倉天心、宮崎滔天、北一輝、孫文などのアジア論の比較を行った。近年、子安宣邦は、近代以降の東亜概念、東亜秩序の編成過程を検討しつつ、新たな「東亜」概念の再構成に取り組んでいる⁴⁴⁾。これに対して、山室信一は、「日本が知の結節環となったことは、そこにおいてアジア各地の人々が出会う機会を提供し、それによって思想連鎖とアジアについてのまとまりの意識を生み出すことになったことは重要な意味をもっている」⁴⁵⁾ という前提をもって、近代アジアにおける「知識人の連携」・「知識の連鎖」の実態を究明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に、アジアを捉え直すこれまでのさまざまな動きの中で、わずか9号をもって閉刊に追い込まれた『亜細亜公論』は、必ずしも成功を収めたとは言い難い。しかし「一国家」・「一民族」という枠組みをこえてアジア知識人に対話の場を提供し、さらには日清戦争後、異なる近代国民国家建設の過程を経てきた中国人と台湾人に、新たな出会いの場を与えたことについては注目すべきであろう。

終戦から、すでに63年を数えるが、従軍慰安婦問題、B C級戦犯、靖国神社合祀問題、領土問題をはじめ、多くのアジア人はいまなお植民地統治や大東亜戦争などが残した遺産に翻弄され続けている。とくに、異なった歴史記憶、歴史教育を有する日本、韓国、北朝鮮、中国、台湾など、東アジアの人々は、歴史をどう共有するかという難題を抱えている。このようにいまだ未解決のさまざまな歴史問題が、「見える壁」・「見えざる壁」としてわれわれの前に立ちはだかっている中で、より開かれたアジアを目指す上で、1920年代初頭に「人類主義・博愛精神」を掲げた『亜細亜公論』は、ひとつの方向を提供してく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付記] 調査に際しては、早稲田大学大学史資料センター、ならびに奥州市立斎藤實記念館から閲覧の便宜をはかって頂いた。末尾ながら記して謝意を申し述べたい。

43) 李成市「古代東アジア世界論再考—地域文化圏の形成を中心に—」『歴史評論』697号(5月号)、校倉書房、2008年、39頁。また、西嶋定生の「東アジア世界」と「漢字文化圏」について、西嶋定生著・李成市編『古代東アジアと日本』岩波書店、2000年を参照されたい。

44) 『「アジア」はどう語られてきたか—近代日本のオリエンタリズム—』(藤原書店、2003年)、『「近代の超克」とは何か』(青土社、2008年)などがある。

45) しかし、その後、「ヴェトナムやインドからの留学生や亡命者の離日と中国や朝鮮の留学生や亡命者の反日意識の高まりによって、日本を知の結節環とする時代は終わった。中国から日本への留学の熱潮も次第にさめていった。」山室信一『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基軸・連鎖・投企—』岩波書店、2001年、350~355頁。

다이쇼(大正)시대 在東京 臺灣人 留學生과 아시아

- 『아세아 공론』을 토대로 -

紀 旭 峰 (早稻田大學校)

〈목 차〉

- I. 머리말
- II. 대만인의 일본유학
 - 1. 일본유학의 시작
 - 2. 대만인의 일본내 고등 교육기관 진학
 - 3.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집중
- III. 전문부 정치경제과와 근대 타이완의 계몽운동
 - 1. 전문지식의 획득
 - 2. 계몽운동 참가
- IV. 『아세아 공론』을 통해 본 아시아 지식인의 대화
 - 1. 중국인과 대만인 집필자에 대해
 - 2. '식민지 타이완'의 지식인이 본 아시아
- V. 맺음말에 부쳐 '한 국가'와 '한 민족'을 초월한 아시아 지식인의 연계

I. 머리말

본 보고는 『아세아 공론』 ("THE ASIA KUNGLUN")을 통해 다이쇼(大正)시대 재경 대만인 유학생¹⁾의 '지적 교류'와 그들의 아시아관을 고찰한 것이다. 다이쇼시대의 대만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당시 '일본 국내 고등 교육기관', 특히 사립대학 전문부는 근대 타이완의 문화와 정치, 민족운동의 기수를 대거 배출했으며 둘째, 아시아 지식인의 '인적 교류'와 '지적 교류'를 구현한 『아세아 공론』을 통해 당시 재경 타이완 지식인의 아시아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이쇼시대는 메이지시대나 쇼와시대에 비해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메이지시대와 쇼와시대를 이어주는 과도기라는 견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이 공존할 수 있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²⁾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자유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도 대두

1) 1932(쇼와 7)년, 내지 유학생이 '내지 재학자'로 개칭되기 전까지 일본에 진학하는 대만인은 '유학생'으로 취급되었다.

2)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대해서는 시노부 세이자부로(信夫清三郎) 『다이쇼 데모크라시 역사 I~III』(일본평론사, 1954년), 오타 마사오(太田雅夫) 『증보 다이쇼 데모크라시 연구-지식인의 사상과 운동』(신센샤新泉社, 1990년), 미타니타 이치로(三谷太一郎) 『신판 다이쇼 데모크라시론-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시대』(도쿄대학 출판회, 1995년)등을 참조.

하는 등 다양한 사상이 꽃피웠고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동방 시론』(1916년 9월 창간)과 『아세아 시론』(1917년 7월 창간)을 비롯하여 아시아를 큰 주제로 삼는 기관지도 잇달아 창간되었다.

그리고 1922(다이쇼 11)년 5월, 하나의 기관지에 3개국 언어가 혼재하는 『아세아 공론』이 창간되었는데 이 잡지는 ‘한중일 3개 문체로 아세아 각국 지식인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도쿄에서 유학하는 각국 유학생들의 사정을 실었고 일반 정치경제, 외교, 교육, 종교, 사회, 노동, 여성계, 문예 등의 소식을 게재’³⁾ 한다는 획기적 발상을 한 조선인 유태경(柳泰慶)⁴⁾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종합 월간지였다.

한편 채배화(蔡培火), 림정록(林呈祿), 왕민천(王敏川), 황정충(黃呈聰) 등 재경 대만인들은 일부 일본지식인, 특히 기독교계 지식인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기관지 『타이완 청년』의 발행 및 타이완의회설치 청원운동을 추진⁵⁾하였고 유태경, 정태옥 등 조선인과 연계를 꾀한 결과,⁶⁾ 『아세아 공론』 및 『청년조선』에 논고를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아세아 공론』에 기고한 대만인은 많지 않았지만 집필자 대부분은 일본 유학 경험자였고 그들의 논설은 ‘타이완 내에서의 차별대우 철폐’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배일사상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의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본 보고에서는 다이쇼시대의 대만인 유학생, 특히 많은 대만인이 재적했던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주안점을 두면서 재경 대만인의 ‘지적 실천’과 ‘인적 교류’를 고찰하고 아울러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견해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만인의 일본유학

1. 일본유학의 시작

메이지시대 이후 청나라(이하, 중국으로 표기)유학생이 최초로 일본에 들어왔는데 이는 조선인의 일본유학(1881(메이지 14)년)보다 약 15년이나 늦은 1896(메이지 29)년 4월이었다.⁷⁾ 그

3) ‘사고(社告)’ 『아세아 공론』 제1권 창간호, 1922년.

4) 유태경(柳泰慶)의 아호인 수천(壽泉)은 북경 유학시절 아태응별궁(亞太應別宮)의 소재지인 만수산(萬壽山)과 옥천산(玉泉山)을 보고 가운데 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독자와 기자’ 『아세아 공론』 제1권 제6호, 1922년, 63쪽.

5) 『타이완 청년』은 1920(다이쇼 9)년 7월에 창간한 신민회 및 타이완 청년회의 기관지다. 1922(다이쇼 11)년 5월에 『타이완』(THE FORMOSA)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리고 타이완의회설치 청원운동이란 1921(다이쇼 10)년 1월부터 1934(쇼와 9)년 2월까지 15회에 걸쳐 이루어진 본토 타이완정치운동이다. 타이완 총독부 경무국 『타이완 사회 운동사』(복각판)(초출: 『타이완 총독부 경찰 연혁지』 제2편 타이완점령 이후의 치안상황 중권, 1939년) 류케이쇼사龍溪書舍, 1973년, 28~31쪽, 315~404쪽.

6) 줄고 ‘다이쇼시대 대만인 유학생 기숙사(高砂寮)의 설치과정’ 『일본역사』 제 722호(7월호), 요시카와코분칸吉川弘文館, 2008년, 80쪽.

7)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일본유학 중국인’ 『역사공론』 4월호, 4月号, 유잔카쿠雄山閣, 1979년, 133쪽. 또한 조선인 유학생에 대해 「보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유학생의 의식은 단순히 ‘개화’를 위한 일본 유학에서 일본 유학 과정을 통해 ‘반일’ ‘항일’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아베 히로시(阿部洋) ‘해방 전 한국에서의 일본유학’ 『韓』 제5권 제12호, 도쿄한국연구원, 1976년, 30쪽.

전까지는 미국유학이 주를 이루었으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중국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 유학생을 보내게 되었다.⁸⁾ 그 후,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 가속화된 결과, 중국 유학생이 점차 감소했지만 중국사회에서 일본 유학생들의 활약은 계속되었다.⁹⁾

1897(메이지 30)년에 도쿄 후지미(富士見)학교 5학년에 편입한 양세영(楊世英)과 도쿄 맹아학교의 정주은(鄭主恩)이 아마도 최초의 대만인 유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중국인과 대만인의 일본유학이 시작된 시기에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의 자격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호세法政대학의 호세속성과, 와세다대학의 청국유학생부, 메이지대학의 경위학당(經緯學堂) 등이 잇달아 설치되었던 반면, ‘식민지인’인 대만인에게는 위와 같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에 유학하는 중국인이 많았던 데 반해 초기 대만인의 일본유학은 초중학교가 대부분이었다.¹⁰⁾

2. 대만인의 일본내 고등 교육기관 진학

다이쇼시대 중반부터는 와세다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목표로 하는 유학이 점차 주를 이루게 되면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대만인 유학생이 중학교 진학생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¹¹⁾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아베 이소오, 히라누마 요시로(平沼淑郎)등 와세다대학 교수들의 지적처럼 ‘타이완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른바 대만인에 대한 교육차별을 한 가지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만인이 보다 질 높은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본유학에 희망을 거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인유학생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총독부의 교육 차별 정책으로 인해 식민지 타이완의 청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현상은 ‘주변에서 중심으로’라는 제국적 문화구조의 단면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²⁾

그러나 1922(다이쇼 11)년 전후 타이완에서의 대만인 1일 평균임금은 타이완에 주재하는 일본인(1.85엔)의 거의 절반수준인 0.97엔이었기 때문에¹³⁾ 최저 생활비만 한 달에 25엔이 필요한 유학의 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¹⁴⁾

8) 사네토 케이슈 『중국유학생사담』다이이치쇼보第一書房, 1981년, 8쪽.

9) ‘이리하여 일본 유학생의 비중은 점차 낮아졌으나 중국 사회에서 그들의 활약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가미가이토 켄이치(上垣外憲一) 『일본유학과 혁명운동』도쿄대학출판회, 1982년, 213쪽.

10) 전전(戰前) 대만인·조선인 유학생의 추이. 사토 유미(佐藤由美)·와타나베 소스케(渡部宗助) ‘전전(戰前) 타이완·조선유학생에 관한 통계자료에 대해’ 『식민지 교육 체험의 기억』코세이사皓星社, 2005년 참조.

11) 타이완총독부 민정부 학무부 『다이쇼 6년도 타이완 총독부 학사 제16년보』1919년, 16쪽.

12) 일본 식민지 시절 조선인의 일본유학에 대해 박선미(朴宣美)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식민지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제국적 문화구조가 창출되었다’ 박선미 『조선여성의 지식 회유, 식민지 문화지배와 일본유학』야마카와山川출판사, 2005년, 4쪽.

13) 1922(다이쇼 11)년, 대만인의 평균임금은 목수 1.8엔, 미장공2엔, 잡역부 0.8엔, 대장장이 1.3엔, 주물공1.2엔, 농부0.5엔, 화물처리인1.5엔, 어부1.2엔이었다.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식민정책하의 타이완’ 『야마카와 히토시 전집』 제7권, 1966년, 276~278쪽.

14) 도쿄의 하숙생활은 오우가와 시로(大生川志郎) 『최신 도쿄고학안내』(복각판) 근대일본청년기교육총서·제4기 제6권(초출: 교세이사敎成社, 1921년), 일본도서센터, 1992년, 24~36쪽 참조. 또한, 당시 도쿄유학비용에 대해 와세다대학 출신의 황조금(黃朝琴)은 연간 약 400~500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조금(黃朝琴) 『조금(朝琴)회고록-타이완정계원로 황조금』용문출판사(타이완), 2001년, 12쪽.

1918(다이쇼 7)년 12월 6일에는 대학령이 공포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대학령에 따르면 반드시 중학교를 졸업해야 입학할 수 있는데 타이완과 조선의 중학교는 5년제가 아니라 4년제다. 새로운 대학령은 조선과 타이완학생의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만인의 고등교육을 바라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¹⁵⁾는 지적처럼 당시 타이완에서는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가 4년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등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대만인에게 있어 특히 학부입학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다.¹⁶⁾ 그래서 대부분의 대만인 유학생들이 선택한 길은 우선 일본내 중학교에 편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황조금(黃朝琴)은 정규 영어학교나 연수학관(研數學館)과 같은 예비학교¹⁷⁾에 다닌 후 일본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는 긴 과정을 거쳐 드디어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¹⁸⁾

이상과 같이 대학 입학이 힘든데다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이 거의 전무한 식민지 타이완 지식청년의 취직문제까지 겹쳐 엘리트 관료를 양성하는 관립대학보다는 ‘법학과로 대표되는 메이지대학’과 ‘정치경제과로 대표되는 와세다대학’ 등 사립대학 전문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⁹⁾

3. 전문부 정치경제과에 집중

아래에서는 『아세아 공론』에 논설을 발표한 와세다대학의 대만인 유학생을 개관하였다. ‘와세다대학의 외지 학생 및 학생수’ (『와세다대학 백년사』 제4권)에서는 1920년대 중반부터 전후 초기까지 대만인 학생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1925(다이쇼 14)년 이전의 대만인 유학생 추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보고는 매년 연말에 『와세다학보』에 게재되는 ‘와세다대학 보고’의 자료를 통해 다이쇼시대 대만인 유학생의 추이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지역 유학생의 추이와 비교하기 위해 중국인과 조선인 유학생 등의 데이터도 이용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타이완처럼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여 있던 조선 유학생

15) 아베 이소오 ‘타이완의 교육문제에 대해’ 『타이완 청년』 제1권 제4호, 1920년, 10쪽.

16) 교육적 차별에 대해 오삼련(吳三連) 구술·오풍산(吳豐山)기록 『오삼련 회고록』 자립만보사自立晩報社문화출판부(타이완), 1991년, 34쪽 참조.

17) 정규영어학교는 정규예비학교의 자매교로 오로지 영어만을 가르쳤으며 정규예비학교는 주로 이화학 및 수학을 가르쳤다. 후지이 순(藤井衡)편집 『다이쇼 5년판 신찬 도쿄유학안내』 도쿄슈분칸東京集文館, 1916년, 38쪽. 한편 연수학관(研數學館)은 1897(메이지 30)년 오쿠다이라 나미타로(奥平浪太郎)가 세운 수학 사설교육기관이다.

18) 황조금(黃朝琴) 『애국애향-황조금전』 근대중국잡지사(타이완), 1984년, 4쪽.

19) ‘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메이지대학 출신자들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위는 1920년 전후, 즉 다이쇼 중기까지 이어지며 사법관과 함께 법조계 인재를 많이 배출하였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메이지대학 법학과 출신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했다. 메이지대학 백년사 편찬위원회 『메이지대학 백년사』 제3권, 통사편 I, 1992년, 592~593쪽. 그리고 림정록(林呈祿)의 영향을 받아 메이지대학 법학과에 입학하는 대만인 유학생이 많았다. 메이지대학 백년사 편찬위원회 『메이지대학 백년사』 제4권, 통사편 II, 1994년, 212쪽. 실제로 메이지대학 법과출신 대만인으로는 림정록(林呈祿) 외 광정헌(郭廷獻), 사개석(謝介石), 려영석(呂靈石), 채식곡(蔡式穀), 채선어(蔡先於), 라만거(羅萬俔), 장룡지(張龍池) 등이 있다. 타이완신민보사 조사부 『대만인사감』 타이완신민보사, 1934년 참조.

수는 대략적으로 대만인 유학생의 3배에서 4배 가량에 달한다. 이에 반해 대만인 유학생은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거의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다이쇼시대 와세다대학 아시아 유학생의 재학생 추이

연도	지역	대만	조선	중국	인도	터키		
1912(다이쇼 원년) 년		1	37	166	1	0		
1913(다이쇼2) 년		불명확	불명확	불명확	불명확	불명확		
1914(다이쇼3) 년		9	50	168	0	1		
1915(다이쇼4) 년		12	40	180	2	1		
1916(다이쇼5) 년		13	48	188	2	1		
1917(다이쇼6) 년		21	61	200	2	1		
1918(다이쇼7) 년		19	69	205	0	0		
1919(다이쇼8) 년		24	74	233	0	0		
1920(다이쇼9) 년		17	59	218	0	0		
1921(다이쇼10) 년		19	80	201	0	0		
1922(다이쇼11) 년		22	83	199	0	0		
1923(다이쇼12) 년		30	92	209	0	0		
1924(다이쇼13) 년		29	214	113	0	0		
1925(다이쇼14) 년		31	122	88	0	0		
1926(다이쇼15) 년		41	136	66	0	0		

주) 부속고등학교원, 공과계열학교 포함.

출전: 각 년도 '현재 학생의 부현별 도표' 『와세다학보』발췌, 필자 작성.

[표 2] 와세다대학 대만인 졸업생 일람 (다이쇼시대 입학만 해당)

졸업연도	전	문	학	대	학		부	고등사범	합계
학과	법률	정치경제	상과	법학	상학	정치경제	이공	문학	국어한문
1915 (다이쇼4)년	림시진(林時珍)	황육재(黃毓材) · 정기근(鄭其芹)							3
1916 (다이쇼5)년		류명철(劉明哲)							1
1917 (다이쇼6)년		채국진(蔡國珍)							1
1918 (다이쇼7)년									0
1919 (다이쇼8)년				무천(吳田) (독일법)	류달린(劉達麟)				2
1920 (다이쇼9)년		류안홍(劉安紅)		소수구(蕭秀球) (영국법)	리서운(李瑞雲) · 림중수(林仲樹) (전기공학)				5
1921 (다이쇼10)년									0
1922 (다이쇼11)년									0
1923 (다이쇼12)년		왕민천(王敏田) · 황정충(黃正忠)							4
		황조금(黃朝鎭)			려반석(呂盤石)				
1924 (다이쇼13)년		오형추(吳瓊秋) · 류봉기(劉鳳岐)			림중희(林仲熙)			채점정(蔡點正)	8
		림만금(林萬金) · 팽목발(彭沐發)			왕금해(王金海)				
		황주(黃周)							
1925 (다이쇼14)년		장수천(張水泉) · 진서도(陳瑞圖)			新制2名				4
1926 (다이쇼15)년		려세명(呂世明) · 림(蔡美楚)							5
		곽발(郭發) · 온성용(溫成龍)							
1927 (쇼와2)년	허무원(許茂元)		반가화(潘家河)		서선렬(徐先烈)	오비송(吳丕松)			4
1928 (쇼와3)년	구요홍(丘玉洪) · 이금중(李金鐘)			림이사(林以士) (영국법)	림정조(林登巢) (경제)		장동란(張東蘭) (영문학)	진동영(陳東映)	8
				오경징(吳鏡徵) (영국법)	정숙(鄭續) (경제)				
1929 (쇼와4)년	시침복(施愼復) · 엄계인(嚴啓仁), 양조가(楊朝嘉)			료치의(廖治義) (영국법)	정천(鄭天) (경제)				7
		정위(鄭璣)		곽조봉(郭朝鳳) (영국법)					

주) 1925(다이쇼14)년의 신제(新制)대학부 정치경제과 2명 모두 자료상 명확하지 않음.

출전: 각 년도 『와세다학보』, 필자 작성.

다음은 대만인 졸업생 및 출신학과(학부, 전문부, 고등사범만 해당)에 대한 내용이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초의 대만인 졸업생은 1915(다이쇼4)년 림시진(林時珍, 전문부 법률과)과 황육재(黃毓材) · 정기근(鄭其芹, 전문부 정치경제과)등 3명이다. 그 후, 전

문부 정치경제과를 중심으로 대만인 유학생수는 조금씩 증가했다. 이는 당초 전문부의 입학기준이 학부보다 까다롭지 않았던 데다 ‘타이완에서는 국민교육뿐만 아니라 각 방면의 교육에 있어 정치교육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²⁰⁾는 타이완교육의 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대만인의 전문부 정치경제과 입학은 눈에 띄는 현상이었다.

또한, 당시 사범학교 졸업생은 전문부에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이쇼시대의 대만인 유학생은 타이완총독부 국어학교의 졸업생에 집중되었다. 예를 들면 황정충(黃呈聰, 실업부 농업과, 1907년), 왕민천(王敏川, 원사범부 을과, 1909년), 류봉기(劉鳳岐, 공학사범부 을과, 1911년), 황육재(黃毓材, 국어부, 1911년), 정기근(鄭其芹)·무천(巫川, 국어부, 1912년), 팽목발(彭木發, 공학사범부 을과, 1912년), 하춘희(何春喜)·류달린(劉達麟, 국어부, 1913년), 시첨복(施添福, 공학사범부 을과, 1913년), 왕김해(王金海)·오경징(吳鏡澄, 공학사범부 을과, 1917년) 등이 있다.²¹⁾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당시 대만인 최고 교육기관인 타이완 총독부 국어학교의 졸업생이 아니면 직접 일본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²²⁾

III. 전문부 정치경제과와 근대 타이완의 계몽운동

‘신식 교육세대가 만들어 낸 사회 엘리트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의 수가 가장 많다’²³⁾는 지적처럼 전문부 정치경제과 출신의 대만인 유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타이완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실제로 1934(쇼와 9)년, 입신출세의 상징으로 간행된 『대만인사감』을 보더라도 전문부 정치경제과 출신 대만인의 직업이 다양함을 엿볼 수 있다.²⁴⁾ 그러나 본 보고에서는 그들의 진로보다는 오히려 『아세아 공론』 투고를 통해 정치경제과 대만인 유학생의 ‘지적 실천’을 검증하고자 한다.²⁵⁾

20) 왕김해 ‘타이완 교육에 관한 사건’ 『타이완 청년』 제3권 제2호, 1921년, 39쪽

21) 타이완 총독부 국어학교 『타이완 총독부 국어학교 일람, 다이쇼6년~다이쇼7년』 1917년, 210~247쪽.

22) 와세다대학 외에 타이완 총독부 국어학교 출신의 대만인 유학생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 있다. 메이지대학의 채식곡(蔡式穀, 원사범부 을과, 1903년), 림정록(林呈祿, 국어부, 1908년)과 도쿄고등사범의 채배화(蔡培火, 원사범부 을과, 1910년), 장요당(張耀堂, 공학사범부 을과, 1914년), 황토수(黃土水, 공학사범부 을과, 1915년).

23) 오문성(吳文星) 『일제 점령기 타이완 사범교육에 관한 연구』 국립사범대학역사연구소(타이완), 1983년, 220~221쪽.

24)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물이 기재되어 있다. 구청석(歐淸石, 변호사), 오형추(吳衡秋, 석유회사 대리점 경영/창화길(彰化街)협의회원), 황주(黃周, 타이완신민보사 상하이 지국장), 황정충(黃呈聰, 타이완신민보사 사회부장/선서(線西)신용판매구매이용조합장), 양조가(楊肇嘉, 타이완신민보사 이사/타이완지방자치연맹 상무이사), 류안홍(劉安紅, 만만장장(萬巒庄長)/다카오주(高雄州)청과동업조합 대의원), 려세명(呂世明, 창화(彰化)경철 주식회사 전무이사/창화길협의회원) 등이 있다. 타이완신민보사 조사부.

25) 『타이완』, 『아세아 공론』등 잡지에 지속적으로 투고함과 동시에 번역 및 강연을 하는 대만인 유학생들을 ‘지식의 운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왕민천(王敏川)과 같은 유학생들은 『타이완 청년』과 『타이완』에 게재된 일본인의 기고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다시 『타이완 청년』과 『타이완』에 기고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줄고 ‘다이쇼시대 대만인의 『일본내 유학생』과 근대 타이완-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연구과 논집』 16호, 와세다대학 대학원 아시아태평양 연구과, 2008년, 13쪽.

1. 전문지식의 획득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학생의 지식 획득은 독서, 강연회, 서클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학교공부에 의해 마련될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법 각론, 재정학, 금융정책, 상업정책, 국제사법 등의 과목을 신청한 류안홍(劉安紅)의 ‘선택과목 신청’²⁶⁾을 통해 타이완에서는 정치학, 법학, 사회학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없는 대만인 유학생에게 있어서 정치경제학과와 수업이 얼마나 유익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²⁷⁾ 또한 후일 정치경제과 출신의 양조가(楊肇嘉)는 아베 이소오, 다카하시 세이고(高橋清吾),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의 강의에 대해 ‘특히 정치학관련 수업은 항상 출석했고 가끔 정치학 담당 교사의 숙소를 방문하여 지도를 받았다’²⁸⁾고 회상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정치경제과의 이수과목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와세다학보』의 졸업생명부에 따르면 왕민천(王敏川), 황정충(黃呈聰), 황조금(黃朝琴)은 1923(다이쇼12)년,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졸업한 동급생이었는데 거꾸로 계산했을 때 그들이 입학한 해는 1920(다이쇼9)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⁹⁾

[표 3] 1920(다이쇼9)년도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학과와 과목배당 일람

학과·교원	학년	제1	학년	제2	학년	제3	학년
정치학		국가학원리	우키타 카즈타미(宇木田 一太)	행정법각론	소에지마 기이치(小池 吉一)	행정법각론	시마무라 타시
		제국헌법	소에지마 기이치(小池 吉一)	정치학사	다카하시 세이고(高橋 清吾)	자치정책	다카하시 세이
경제학·재정학		경제학원리	시오자와 마사사다(塩澤 正定)	화폐 및 은행	하토리 분시로(服部 文四郎)	철도정책	사타케 산고(佐々木 山五郎)
				농업정책	이노마타 츠나오(伊野田 綱生)	상업정책	우에다 테이지(上田 泰二)
				공업정책 및	시오자와 마사사다(塩澤 正定)	금융정책	하토리 분시로(服部 文四郎)
				사회정책		보험정책	구리츠 세이로(栗 清良)
				재정학	고바야시 우시사(高橋 武志)	재정학	고바야시 우시
사학		서양사	혼다 아사지로(本 郷 朝子)	근대사	혼다 아사지로(本 郷 朝子)	근대외교사	시노부 준페이(篠 本 俊平)
		*동양사상사	엔도 류키치(遠藤 隆吉)	동양근대사	마츠이 히토시(松 本 兵吾)	중국현대외교사	아오야기 아츠(小 野 阿 吉)
				文明史	우치가사키 사쿠사부로(内ヶ崎 三郎)		
				최근정치사	게무야마 센터로(煙山 專太郎)		
지리학		지리학	시가 시게타카(志賀 重昂)				
문학·사회학				사회학	엔도 류키치(遠藤 隆吉)		
철학		*철학	스기모리 코지로(杉森 孝次郎)				
법학		민법요론	마키노 키쿠노스케(牧野 信輔)	민법요론	이소야 코지로(磯 谷 公三郎)	국제공법	나카무라 신고(中村 新吾)
		형법요론	오카다 아사타로(岡田 朝太郎)			국제사법	마츠노 스케미(松野 雪見)
						상법요론	야나가와 가츠(柳 川 嘉之)
부기						부기	가미오 쇼요키(加茂 洋之)
외국어		영어	(요시다 겐지로(吉田 健二))	영어	(요시다 겐지로(吉田 健二))	영어	야마자키 미시(山崎 美知)
			야마자키 미사오(山崎 貞)		호아시 리이치로(帆 足 理一郎)		가츠마타 센키(加賀 辰)
		일어	와타리 슌지(渡 俊)	일어	와타리 슌지(渡 俊)	일어	기쿠치 산쿠로(菊 山 幸郎)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논문 및 국회연습		논문	기쿠치 산쿠로(菊 山 幸郎)	*국회연습		*국회연습	

주) ① 제2학년 이후에는 전공방침에 따라 학과수를 한정하여 선택 필수로 함. *표시는 선택사항.

② 담당교사 공란과 ()는 사료가 불명확하기 때문임.

출전: ‘다이쇼 9년도 학과배당표’ 와세다대학 대학원사 자료센터 소장「3호관 구장(旧蔵)자료」·「[메이지42년도~다이쇼11년도]학과배당표」(25-05)와 『와세다대학 백년사』 제2권에서 발췌하여 필자작성.

26) 와세다대학 대학사자료센터 소장 ‘3호관 구장(旧蔵)자료’ C부속학교(구제)·5전문부:다이쇼9년선택과목신고(전문부 정치경제과 3학년) (5-08).

27) 자세한 내용은 앞에 게재한 ‘다이쇼시대 대만인의 『일본내 유학생』과 근대 타이완-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를 중심으로’ 참조.

28) 양조가(楊肇嘉) 『양조가 회고록』(상)삼민서방(三民書局, 타이완), 1967년, 225쪽.

29) 왕민천(王敏川)이 1919(다이쇼8년)년에 입학했다는 설도 있으나 검토할 여지가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전문부 정치경제과는 정치학과 경제학에 관련된 전문 과목 뿐만 아니라 사학, 지리학, 사회학, 문학, 법학, 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도 이수해야 했다. 게다가 일본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대만인 유학생도 ‘국회연습(이전에는 국회법연습)’³⁰⁾이라는 독특한 과목을 통해 근대의회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계몽운동 참가

그런데, 한반도의 3·1독립운동과 중국의 5·4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의 자극을 받아, 재경 대만인 유학생들은 계몽운동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와세다대학의 대만인들은 ‘영사회(瀛土會)’라는 학내 대만인 학생 서클 활동뿐만 아니라, ‘신민회’·『타이완 청년』등, 재경 대만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계몽운동에도 의욕적으로 참가했다.³¹⁾ 한편, 당시 조선인의 계몽 문화운동은 ‘대만인의 그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도쿄 유학생들은 이미 여러 단체를 조직하여 기관지를 간행하고 사상을 선전 보급하는’³²⁾ 상황하에서, 채배화(蔡培火), 임정록(林呈祿), 왕민천(王敏川)등, 대만인은 재경조선인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아세아 공론』보다 약3개월 빨리 탄생한 타이완 청년 잡지사 구성원들은 『청년 조선』(1922(다이쇼11)년 2월 15일 창간) 제1호에 『타이완 청년』지에 대한 언론 탄압을 규탄하는 공개장인 ‘타이완 청년의 분기’를 기고하고 있다.³³⁾ 또한 이 기사의 내용 중 일부는 훗날 『아세아 공론』 창간호에도 게재되었다(‘타이완 내에서의 언론 탄압을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함’).

‘우리는 재작년 고향 선배들과 협력하여 천황이 사는 황도에서 타이완 청년 잡지사를 창립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 월간지 타이완 청년을 발행하기 시작,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과거 같은 잡지 제1권 제3호에도 발표한 것처럼 타이완 각지의 하급 관리는 이 잡지의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잡지의 구독자를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구독 정지를 권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잡지를 압수하는 등, 독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게다가 그 중심이 되는 타이완 총독부는 특수한 타이완 신문지 규칙에 의거

30) ‘메이지 21년 6월의 과정표에 따르면 정치과 제3학년 1학기에 국회법 강의를 신설되었고 이와 함께 정치과 제3학년 1학과 2학기에 격주로 1회 국회법 연습이 있었다. 2년 후 의회 개설을 앞두고 있던 이 시기에 관련 과목을 개설했던 일은 다카다교수의 강력한 주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학교의 특색을 유감없이 발휘한 참으로 특별할만한 새로운 기축이었음에 틀림없다’ 와세다대학 대학원사 편집소 『와세다대학 백년사』 제1권, 1978년, 770쪽.

31) 하지만 와세다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민인동맹회, 와대일신회, 건설자동맹회, 와대문화회 등 조직 활동에는 와세다대학 대만인 유학생이 참가했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메이지 대학에 재학하는 대만인 팽화영(彭華英)은 건설자동맹의 일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상세한 것은 건설자동맹회사간위원회 『건설자동맹의 역사~다이쇼기의 브나로드(민중 속으로)운동』 일본사회당 중앙본부기관지국, 1979년과 사회문고편 『다이쇼기 사상단체 시찰인 보고』가시와쇼보柏書房, 1965년, 40~41쪽.

32) 타이완 총독부 경무국, 앞의 책, 24쪽.

33) 박경식(朴慶植)편 『조선문제 자료총서 제십이권 일본 식민지하의 재일조선인의 상황』아시아문제연구소, 1990년 11쪽.

하여 우리 잡지 보급소를 타이완 도내에 마련하였다. 이리하여 보급소에서 미리 내무성의 검열을 통과한 잡지를 매 호 새로이 납품하고 검열을 받거나 또한, 잡지를 독자에게 발송할 때는 모든 잡지에 총독부가 인정한 보급인의 인감을 찍도록 명령했다. (후략)

실제로 『아세아 공론』의 집필자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만인 유학생 황정충, 왕민천 외에, 같은 전문부 정치경제과인 조선인 이상수(李相壽)(1923(다이쇼12)년 졸업)과 중국인 탕학일(湯鶴逸)(1922(다이쇼11)년 졸업)·장창언(張昌言)(1924(다이쇼13)년 졸업)등도 논설을 발표했다.³⁴⁾ 이러한 『아세아 공론』의 예를 통해, 아시아 유학생과 일본 지식인 사이에는 어떤 교류와 연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이쇼기에 중국인이나 조선인에 비해 타이완 유학생의 수는 훨씬 적었으며 계몽 운동도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³⁵⁾

IV. 『아세아 공론』에 나타난 아시아 지식인의 대화

『아세아 공론』은 아세아 민족의 단결이나 통일과 같은 협소하고 고리타분한 성격의 것이 전혀 아니다. 인류주의의 표징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선정했다. 인류의 행복은 개개인의 행복이 확장된 형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부패한 우리 아세아 자신이 구미인과 비교해 손색없는 인격자가 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 첫걸음으로 우리 아세아인들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어식어(魚食魚) 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창간호, 『제목』 현상모집 에 쓰여 있듯이 『아세아 공론』은 '인류주의와 박애정신을 가지고 아시아인을 각성시키는 것' 을 당면 목표로 삼고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타이완 청년』이라는 재경 대만인이 주재하는 기관지와 마찬가지로 『아세아 공론』 창간 당시부터 일본 지식인들은 원고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 중에서도 와세다대학 관계자들의 원고가 눈에 띈다.³⁶⁾ 그 일본인 집필진 중에는 아베 이소오,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 스기모리 고지로(杉森孝次郎), 다케다 도요시로(武田豊四郎), 사노 마나부(佐野学)등의 교원과 더불어, 야마무로 군페(山室軍平),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 등의 와세다대학 출신의 기고도 다수 있었다. 동시에 그들 중 대부분은 기독교 활동 및 사회 운동에 적극적인 인물이었다.³⁷⁾ 하지만 지면상의 문제로 일본 기독교 교인과 아시아 유학생

34) 이상수(李相壽) '중일 교섭을 논함으로써 현대 강국의 정책을 탄핵한다' (제1권 제2호)와 탕학일(湯鶴逸) '일본인의 반성을 요구함(求日本人之反省)' · '서호잡시막시(西湖雜詩莫詩)(한시)' (제1권 창간호), '배일(排日)' (제1권 제5호) · '논 중화민국과 고려의 관계(論中華民國與高麗之關係)' (제2권 제1호 · 한문)과 장창언(張昌言) '일본 정부 당국의 중국 노동자 추방에 대해 일본 관민에 충고함' (제1권 제6호)등이 있다.

35) '재경 대만인 유학생의 민족적 각성과 실천 운동으로 발전하는 경향은 임헌당(林獻堂), 채혜여(蔡惠如) 등의 통제하에 구체화되었고, 도쿄청년학생을 설득하여 다이쇼 8년말 100여명을 규합하여 계몽회라는 명칭으로 단체 조직을 구성하는 데 성공, 곧이어 이를 신민회라 개칭하였음' 이라 하고 있다. 타이완 총독부 경무국, 앞의 책, 25~31쪽.

36) 『타이완 청년』과 『타이완』에 기고한 와세다대학의 교원에 대해, 줄고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와 타이완 ~1근대 일본 기독교인을 통해~ 『문제와 연구』 제 36권 제6호, 2007년, 142~144쪽을 참조하기 바람.

과의 연대 관계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 중국인과 대만인 집필자에 대해

서명이 없는 기고를 제외하고 중국인과 타이완 집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물을 들 수 있다. 우선, 중국인 중에서는 대계도(戴季陶((天仇)), 다이완센, 호는 텐초우), 부립어(傅立魚), 탕학일(湯鶴逸), 장창언(張昌言), 양탁오(楊橐吾), 호중화(胡中和), 왕료인(王了人), 료인(了人)(왕료인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 취천생(醉天生, 필명)등이다.³⁷⁾ 이에 반해 대만인 집필자는 채배화(蔡培火)와 황정충(黃呈聰), 왕민천(王敏川) 등 3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메이지기에 일본에서 유학했던 대계도(戴季陶, 니혼대학 전문부 법과·1909(메이지42)년 중퇴)와 부립어(傅立魚, 메이지대학·졸업년도 불명)를 제외하고는 다이쇼기의 일본 유학 경험자, 특히 와세다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 출신 집필자가 많았다. 와세다대학 외에 메이지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의 호중화(胡中和, 1921(다이쇼10)년 졸업), 니혼대학 전문부 정치과의 왕료인(王了人, 1921(다이쇼10)년 졸업)등을 들 수 있다.³⁸⁾

그런데 왜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 유학생들이 많이 관여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유학 시기와 『아세아 공론』의 발행 기간이 일치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아세아 공론』과 와세다계 지식인과의 깊은 연관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아세아 공론』 창간 당시부터 미우라 데츠타로(三浦鑣太郎), 아베 이소, 오야마 이쿠오를 위시한 와세다계 일본인 집필진이 많았던 데다 본사가 와세다 쓰루마키초(早稻田鶴巻町, 나카메구로에서 이전)에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와세다대학 유학생에게 큰 역할을 짊어질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 '식민지 타이완'의 지식인이 본 아시아

중국인과 대만인의 기고를 정리해 보면 주로 3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각 각 국내 정세 및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 둘째, 논설에는 정치 경제학과 출신 집필자를 비롯해 유학생의 전문 지식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점. 셋째, 일본어와 중국어 등 양국어의 원고가 존재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대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의 중일 관계를 요구하는 '반식민지 중국' 지식인의 논고가 많았던 데 반해, 당시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여있던 대만인의 기고는 주로, '타이완 내 차별 대우'의 철폐를 호소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당시의 대만인에

37) '사회주의에는 고토쿠 슈스케(幸徳秋水)의 사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사인인志士仁人적이며 유교정신을 도입한 경우나 아베 이소오(安部磯雄),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처럼 기독교 정신을 도입한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휴머니즘에 입각하여 약자를 구제하는데 열심이었던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엔도 고이치(遠藤興一) 『다가와 다이키치로(田川大吉郎)』오조라샤大空社, 1998년, 184쪽.

38) 줄고 『반식민지 중국』·『식민지 타이완』지식인이 본 아시아' 고토 겐이치(後藤乾一)·나경수(羅京洙)·기욱봉(紀旭峰) 편집 해제 『20세기 일본의 아시아 관계 중요 연구 자료 아세아 공론·대동공론』전3권, 류케이쇼샤(龍溪書舎), 2008년.

39) 흥아원(興亞院) 『일본유학 중화민국인명 조사』 1940년; 주면(周棉)편 『중국 유학생 대사전』 난징대학출판사(난징), 1999년.

게 『아세아 공론』은 일본인에게 ‘타이완 총독부의 통치 정책’ 과 ‘타이완 내 차별 대우의 실태’ 를 고발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매체 중 하나였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채배화 ‘극동의 평화 과연 가능할까’ (제1권 창간호), 황정충 ‘타이완의 경제적 위기’ (제1권 제3호), 왕민천 ‘희망 현명 정치가의 출현(한문)’ (제2권 신년호)등의 논설은, 식민지 타이완 통치 정책의 개선을 논하는 한편, ‘국제적 배일’, ‘아시아·먼로 주의’ 등,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평도 있다.

그렇다면 황정충이 발표한 ‘타이완의 경제적 위기’ 라는 제목의 논문은 좁은 식견으로 판단해 보건데, 그 내용이 1921(다이쇼10)년에 총독부의 검열로 인해 전문 삭제 명령이 내려진 ‘타이완 경제계의 위기와 그 구제’ (『타이완 청년』 제3권 제5호, 1921년)와 ‘타이완 경제계의 위기와 그 구제(승전)’ (『타이완 청년』 제3권 제6호, 1921년)에 가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황정충은 우선, 식민지 모국 본위 주의와 식민지 본위 주의의 우열에 대해 구미의 예를 들어,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흡수주의 때문에 다수의 식민지를 잃었고, 남은 소수의 식민지는 오히려 거꾸로 본국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다. 영국은 대체적으로 독립 자급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부담을 면하고 있고, 모국과 식민지가 서로 융합하여 번영하고 있는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아세아 공론』이 경원시해 온 ‘아시아주의’ 에 대해 ‘대아세아주의’ 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타이완의 통치 방침은 쓸데없이 일부 모국인의 이권을 위해 부심하며 대만인의 경제 상태를 고찰하지 않고 농노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덕이 아니라 본다. 일시적인 작은 이익을 위해 영원한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결코 제국의 번영을 위함이 아니다. 새로운 영토에 대한 통치는 당연히 정복자의 태도를 버리고 주민에 대해, 정의로우며 만사공명정대하게 모국인에게 편중하지 않고, 공존공영주의의 성의가 있어야만 제국의 이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까닭이며 또한 이로써 대국민의 금도襟度を 여러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아세아주의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황정충이 제창한 ‘만사공명정대’, ‘공존공영주의’ 등의 논조에 대해,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 교수인 아베 이소오는 『다음 시대次の時代』에서도 제기하고 있다. 아베 교수는 우승열패優勝劣敗를 전제로 하는 자유경쟁주의를 비판하고, ‘우승열패와 공존공영의 양립은 불가능하다’ 고 주장하며, 공존공영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인류평등(사해동포주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⁴⁰⁾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지적 교류’ 와 ‘지적 연결 고리’ 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황정충과 동급생이었던 왕민천은 『희망 현명 정치가의 출현』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기고했다.

왕민천은 타이완 의회의 설치, 식민지 언론 집회의 자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40) 아베 이소오 『다음 시대』순요도春陽堂, 1927년(복각판: 아베 이소오 저작 전집 5권, 학술 출판회, 2008년)56~73쪽. 또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아베 이소오의 ‘평등주의 사해형제주의’ 의 상세에 대해, 오기노 후지오(荻野富士夫) 초기 사회주의에서의 아베 이소오의 사상’ 미네시마 히데오(峰島旭雄) 편집 『아베 이소오에 관한 연구』 와세다대학 사회과학 연구소, 1990년, 56~57쪽 참조.

초월할 것', '당파를 감화시킬 것', '당파에 좌우되지 말 것'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기했고, 유색인종과 백색인종간의 지위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족, 일본민족, 한민족 3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현명한 정치가의 출현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한편, 채배화의 '극동의 평화 과연 가능할까'의 논점은 식민지 타이완에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일본', '조선과 일본', '타이완과 일본'이라는 상호 관계를 추진하는데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채배화는 우선, '조선과 일본'과 '타이완과 일본' 관계의 상이점⁴¹⁾을 분석하고,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차별 정책 철폐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극동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화민국의 친선'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위의 논설이 발표되기 전년인 1921(다이쇼10)년 8월, 채배화는 '중일 친선의 핵심' (『타이완 청년』 제3권 제2호)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중화민국과 일본의 친선의 의의·필요·장래·핵심에 대해 논하고 있다.⁴²⁾ 또한, 베르사유 조약과 워싱턴 평화 회의에서 있었던 격렬한 중일 항쟁에 대해 채배화는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다. 극동 건설은 극동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동시에 그 파괴 역시 극동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다'라는 주장은 결코 먼로주의적인 배외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채배화가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다'라는 논조를 내세운 진의는 '극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규는 모두 극동인 자신이 만들어낸 죄업이라 믿는 것이다. 극동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결코 타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시아인의 자기 반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극동은 극동인의 극동이다'를 방불케 하는 논조는 1920(다이쇼9)년 채배화가 발표한 '우리 섬과 우리들' (『타이완 청년』 제1권 제4호)에서도 엿보인다. '우리 섬과 우리들'에서 채배화는 '타이완은 일본 제국의 타이완임과 동시에 우리 대만인들의 타이완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집필자들의 논설이 완성도가 높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그 논점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을 통해 당시의 '식민지 타이완' 지식인의 중국관, 조선관, 일본관, 아시아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에 부쳐 '한 국가'와 '한 민족'을 초월한 아시아 지식인의 연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와 '아시아'는 다양한 시점에서 얘기되어 왔다.

41) '조선과 일본은 합병이다. 나라와 나라를 합리적 형식에 따라 합병한 것이며, 그 이상은 양국 국민의 공존공립에 있었다.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는 조선과 일본의 그것과는 달리 합리적인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땅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이었고, 인구는 많지 않았으며, 게다가 타이완 사람들은 무기도 없었고 그 기질은 원래 평화를 사랑하며 인종적 증오의 감정이 없다'고 하고 있다. 채배화 '극동의 평화 과연 가능할까' 『아세아 공론』 창간호, 1922년, 27쪽.

42) 채배화는 중일관계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실로 일본 대 조선, 타이완의 문제는 일본 대 중국 문제의 양대 시금석이며, 중일 관계는 조선과 일본,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에서 그 연결의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채배화 『일본국 국민에게 보내는 글—식민지 문제 해결의 기초—』 타이완 문제 연구회, 1928년, 139쪽.

특히, 일본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전후 일본 학계가 갖고 있던 『동아시아』 개념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에 의해 이론화된 동아시아 세계론의 영향하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⁴³⁾는 지적처럼,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 이 하나의 정설로 여겨지며 중요시되어 왔다. 한편, 1960년대에 전후 일본의 아시아주의 연구 열풍의 도화선 역할을 한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미야자키 도텐(宮崎滔天), 기타 잇키(北一輝), 쑨원(孫文) 등의 아시아론을 비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는 근대 이후의 동아시아 개념과 동아시아 질서의 편성 과정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을 재구성하는데 힘쓰고 있다.⁴⁴⁾ 이에 대해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는 ‘일본이 지(知)의 연결고리가 된 것은, 자국에서 아시아 각지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사상이 전파되며 아시아에 대한 단결 의식을 창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⁴⁵⁾고 전제함으로써 근대 아시아의 ‘지식인의 연계’와 ‘지식의 전파’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시아를 다시 살펴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겨우 9호를 끝으로 폐간을 맞은 『아세아 공론』을 두고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국가’와 ‘한 민족’이라는 틀을 넘어 아시아 지식인에게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나가서는 청일전쟁 후, 서로 다른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의 과정을 거처온 중국인과 대만인에게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이미 63년이 지났으나 종군위안부 문제, BC급 전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영토 문제를 비롯해 많은 아시아인은 아직도 식민지 통치나 대동아 전쟁 등이 남긴 유산에 농락 당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역사에 대한 기억, 역사 교육 문제가 있는 일본과 한국, 북한, 중국, 타이완 등 동아시아인들은 역사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 문제가 ‘보이는 벽’, ‘보이지 않는 벽’의 형태로 우리들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가운데, 1920년대 초반에 보다 열린 아시아를 지향하며 ‘인류주의·박애정신’을 내걸었던 『아세아 공론』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추가] 조사를 위한 열람을 허락해 주신 와세다대학 대학사자료센터, 및 오슈 시립 사이트 마코토 기념관(奥州市立斎藤實記念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43) 이성시(李成市) ‘고대 동아시아세계론 재고—지역 문화권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 논평』 697호(5월호), 아제쿠라쇼보校倉書房, 2008년, 39쪽. 또한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동아시아 세계’와 ‘한자문화권’에 대해, 니시지마 사다오저·이성시 편 『고대 동아시아와 일본』 이와나미쇼텐, 2000년을 참조하기 바람.

44) 『‘아시아’는 어떻게 얘기되어 왔나—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후지와라쇼텐, 2003년), 『‘근대의 극복’이란 무엇인가』 (세이도샤(靑土社), 2008년)등이 있다.

45) 하지만 그 후, ‘베트남이나 인도로부터 온 유학생이나 망명자의 일본 이탈과 중국과 조선 유학생이나 망명자의 반일 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이 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일본을 찾는 중국 유학생의 열기도 차츰 식어갔다.’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사상 과제로서의 아시아—기축·파급·투기投企—』 이와나미쇼텐, 2001년, 350~355쪽.

【Abstract】

Asia and the Taiwanese Overseas Students Living in Tokyo During the Taisho Era – Using "*The Asia Kunglun* " as a Guide –

CHI Hsufeng

This report discusses the intellectual exchanges of Taiwanese overseas students living in Tokyo during the Taisho era and their views on Asia through the "*The Asia Kunglun*".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examining Taiwanese overseas students from the Taisho era. First, th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Japan from that time, particularly specialty departments at private universities, produced many leaders of modern Taiwan's enlightenment movement. Second, "*The Asia Kunglun*" embodied the personal exchanges and dialogues that took place between Asian intellectuals, providing a glimpse as to how Taiwanese intellectuals living in Tokyo at the time viewed Asia.

Because the Taisho era only lasted for a relatively brief 15 years, it is often viewed as a transitional period bridging the longer Meiji and Showa eras. On the other hand, many believe that it was only because of this transitional period that various ideologies were able to coexist. As the golden age of Taisho Democracy reached its peak, Japan witnessed a profusion of ideologies that saw the rise of not only liberalism, but also socialism. Asia's present and future were continually discussed and it was amidst this debate that "*The Asia Kunglun*", an unprecedented journal that was published in 3 languages, first appeared in May 1922.

As a result of their collaboration with Koreans such as Ryu Tae Kyoung(柳泰慶) and Jung Tae Ok(鄭泰玉), Taiwanese in Tokyo, such as Cai Pei huo(蔡培火) and Huang Cheng cong(黃呈聰), gained the opportunity to publish their ideas in "*The Asia Kunglun*" and "*The Young Korea*". While the number of Taiwanese contributors to "*The Asia Kunglun*" was actually relatively small, almost all of them had been overseas students in Japan. Their articles focused not only on eliminating discrimination in Taiwan, but also on Asia-wide issues, including "International Japanophobia" and "Asia and the Monroe Doctrine".

In fact, much like "*The Tai Oan Chheng Lian*", a journal published by Taiwanese living in Tokyo, from the first issue it was Japanese intellectuals who provided much of the material for "*The Asia Kunglun*". Many of the contributions came from writers affiliated with Waseda University. As is evident by looking at the Japanese writers, there were numerous contributions from Waseda University graduates, such as Gunpei Yamamuro(山室軍平), and Saburo Shimada(島田三郎), as well as from teachers like Iso Abe(安部磯雄), and Ikuo Oyama(大山郁夫). From these examples, we can assume there was some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Asian intellectuals at the time.

To this day, East Asia and Asia have been talked about from various points of view. In the 1960s, Yoshimi Takeuchi(竹内好), who instigated the postwar Japan's Asianism studies boom, retrospectively

interpreted the debate on Asia held by prewar intellectuals such as Tenshin Okakura(岡仓天心), Tōten Miyazaki(宫崎滔天), and Ikki Kita(北一辉). In recent years, Nobukuni Koyasu(子安宣邦) has been reconstructing a new concept of East Asia, while looking at modern concepts of East Asia and its ordering. At the same time, Shinichi Yamamuro(山室信一) has been investigating intellectual collaborations and the progression of knowledge in modern Asia. Thus, it is hard to say that “*The Asia Kunglun*”, which was forced to cease publication after a mere 9 issues, was necessarily a success amongst these various re-examinations of Asia. “*The Asia Kunglun*”, however, is remarkable for going beyond the “one country, one people” framework and providing a forum for Asian intellectuals.

While it is already 63 years since the end of WWII, many Asians are still troubled by the legacy of colonial rule and the Greater East Asia War. This legacy includes such issues as the problem of wartime comfort women, the enshrining of convicted war criminals at Yasukuni Shrine, and territorial disputes. For East Asians, it is particularly difficult to share a common history when Japan, the two Koreas, China, and Taiwan, all have differing historical memories and teach different accounts of history in their classrooms. Perhaps “*The Asia Kunglun*”, which championed humanity in its attempt to create a more open Asia in the early 1920s, can provide direction for confronting these various unresolved historical issues that stand before us as both visible and invisible barriers.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동아시아

■ 金 炅 一 (韓國學中央研究院) ■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동아시아

金 昶 一 (韓國學中央研究院)

〈목 차〉

- I. 아시아주의의 의미와 정의
- II. 아시아주의와 서구
- III. 아시아주의의 등장과 발전: 1860년 - 1910년대
- IV. 아시아주의의 쇠락과 굴절: 1920년대
- V. 아시아주의의 재등장: 1930년대 - 1945년
- VI. 아시아주의의 현재와 역사적 교훈

I. 아시아주의의 의미와 정의

아시아주의, 또는 그와 유사한 의미에서의 대아시아주의, 범아시아주의라는 용어의 기원이나 정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다. 기원의 문제만 하더라도 논자에 따라서는 그것은 “근대 이전, 적어도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까지 거슬러 올라” 가야 한다는 입장¹⁾이 있는가 하면, 아시아주의가 “명치 말까지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명칭은 대정(大正) 무렵에 출현한 것”²⁾이라고 하여 1910년대로 다소 늦게 잡는 경우도 있다.

아시아주의의 정의에 관하여도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의들³⁾에서 보듯이 아시아주의가 지니는 연대와 침략의 양면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에서

* 이 글은 김정일·강창일,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 1870-1945년의 일본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8호, 2000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伊東昭雄, 1990 『アジアと近代日本』 社會評論社, 7쪽.

2) 趙軍, 1997 『大アジア主義と中國』 亞紀書房, 34쪽.

3) 최근 발간된 『日本國史大事典』(1993, 平凡社)에서는, “구미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단결을 도모하려고 하는 주장. 범아시아주의 등과 거의 동의로 쓰여 지고 있다. 명치 초기의 민권론과 국권론, 구화주의와 국수주의의 대립은 일본의 팽창주의가 만들어 낸 것이고 이 풍조 속에서 아시아주의는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었던 아시아주의도, 자유민권의 쇠퇴, 국가기구의 정비, 청이나 러시아에 대한 군비 확장의 과정에서 점차 아시아에 대한 침략으로 수렴되어 갔다. [중략] 그리고 그 이후 아시아주의는 천황주의와 함께 많은 우익단체에 맡겨져 후에는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의 사상과 결부되어 가게 된다(橋川文三 집필)”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초기의 정의로서는 “구미 열강의 아시아침략에 저항하기 위하여 아시아 제 민족은 일본을 맹주로 하여 단결하라는 주장”으로 “아시아 제 민족과의 연대를 호소하였지만 사실은 점차 명치정부의 대륙침략정책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다”거나, 또는 “패전까지의 근대 일본에 일관되게 보여지는 대외 태도의 한 경향”으로 “중국 등 아시아 제국과 연대하여 서양열강의 압력에 대항하고 그 억압으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려고 하는 주장을 내걸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열강의 아시아 침출(侵出)에 선제(先制)하여 혹은 그것에 대신하여 일본을 아시아에 침출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점에 최대의 특징이 있다”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野原四郎이 집필한 『亞細亞歴史事典』(1959-62, 平凡社), 후자는 植手通有가 집필한 『平凡社大百科事典』 제1권(1984, 平凡社)의 아시아주의의 항목이다.

지적되어 왔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연대라는 측면에 엄격하게 한정하여 이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자가 있는가 하면⁴⁾, 일본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특징들 중의 하나로서 아시아주의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⁵⁾.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아시아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 아시아주의는 연대와 침략, 저항과 타협, 수구와 개혁, 민권론과 국권론, 구화주의와 국수주의, 아시아와 유럽(구미), 또는 고립과 개방 등과 같이 상호 대립적인 경향들 중의 어느 하나를 대표하면서도 이들 대립된 양자를 동시에 포괄하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져 왔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주의는 예컨대 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와 같이 어느 정도의 공통의 이해의 폭이 있는 보편 개념과는 달리 특수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명칭 또한 다양하게 불려 왔다는 점이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⁶⁾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다케우치 요시미는 ‘심정과 논리’의 두 차원으로 아시아주의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아시아주의는 확고한 사상체계”가 아니며 “오히려 다종다양한 유파, 또는 추세를 포용하는 사상적 복합체”로서 “민주주의, 민족주의, 소비니즘, 군국주의 등과 같은 사상이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성격”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주의의 이해에서 가장 요체가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⁷⁾

II. 아시아주의와 서구

19세기 중·후반 이후 서구의 침략에 의해 아시아가 스스로를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시아주의의 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시아주의는 근대 세계체제의 성립 및 팽창과 더불어 일어난 현상으로서, 서구에 대한 아시아의 고유한 반응과 대응 형태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아시아주의의 개념에 따른 다의성과 복잡성은 ‘문명개화’를 통해 서구의 근대화를 달성한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침략 정책을 채택하였던 사실에서 비롯된다.

4) 예컨대 일찍이 1960년대 초에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아시아주의가 “침략주의와 연대의식의 미묘한 분리와 결합”에서 성립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대의 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공통성”이 “최소한으로 규정된 아시아주의의 속성”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었다(竹内好, 1963 『現代日本思想大系—アジア主義』 筑摩書房, 14쪽, 22쪽).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연대에서 침략으로의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주의가 “사상으로서 유효한 것은 청일전쟁까지의 30년 정도”라고 하여 연대의 측면에 주목하여 아시아주의를 시기적으로 한정하는 경우(伊東昭雄, 1990 『アジアと近代日本』 社會評論社, 286쪽)도 있다. 진보적이며 친중국적인 다케우치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연대론적 평가는 당시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 일본의 조선사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우익적인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아시아주의 재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등 종래 우익의 대외침략 사상으로 규정된 아시아주의 연구에 새로운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특징으로서 가족주의, 농본주의와 아울러 아시아주의를 들면서, 일본의 대륙발진 이데올로기에는 시종일관 동아시아해방이라는 측면이 붙어 다닌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김석근 옮김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95-6쪽) 참조.

6) 竹内好, 앞의 책, 7-8쪽.

7) 趙軍, 앞의 책, 38-44쪽.

일본은 근대화를 통해 단순히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아시아를 보는 시각까지도 받아 들였다. 즉 아시아를 하나의 전체로 보는 시각은 아시아의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도 일찍이 일본에서 확립되었던 것이며, 아시아주의에 대한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논의의 대부분은 일본의 그것에 대한 대응 혹은 비판으로 생겨났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주의는 근대 일본의 역사와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아시아주의가 일찍이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사고에 입각해 있었다고 할 때, 그러한 시각이 궁극적으로 아시아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구를 지향한 것이었다는 인식은 일본에서 아시아주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근대 일본의 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사상의 문제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주의의 문제”⁸⁾ 라는 지적이 타당하다고는 하더라도, 일본에서 아시아주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보다는 오히려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발전되어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일본에서 아시아주의는 아시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의 형성과 발전을 추동해 온 요인으로 서구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III. 아시아주의의 등장과 발전: 1860년 - 1910년대

실제로 일본에서 아시아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1850-60년대에 일본을 아시아의 일원으로 파악하면서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회복하자거나 또는 아시아의 연대를 주창하는 아시아주의의 초기 형태가 출현한 것은 1860년의 난징(南京)함락을 전후로 구미 열강의 아시아에 대한 위협이 가시화 되었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⁹⁾.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아시아 대륙에 대한 침략의 발판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던 1876년 조선에 대한 강제적 개국은,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유럽에 전란이 심화되었던 1870년대에 서구의 아시아에 대한 침략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던 사정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다시 1880년대 이후에는 서구 제국의 아시아 침략이 격렬해지는 것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아시아주의의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타루이 토기치(樽井藤吉)가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를 연방제도에 의해 결합하는 것이 “동아의 대국을 안정시키는 최상책” 이라고 주장하였던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의 초고를 완성하였던 것은 1885년이며, 같은 해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아시아주의와는 대극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과 표리를 이루면서 미묘하게 관련되는” 유명한 「탈아론(脫亞論)」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890년대에 들어와 동양의 패권전쟁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대

8) 伊東昭雄, 앞의 책, 285쪽.

9) 물론 그 안에는 민권론과 국권론, 또는 아시아의 연대에 대한 지향과 팽창주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 다양한 흐름들이 초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예컨대 西郷隆盛 등이 제창한 정한론(征韓論)이나 橋本左内, 吉田松陰의 해외진출 구상이 국권주의나 팽창주의에 속한다고 한다면, 平野國臣, 佐藤信淵 등이 주장한 일청제후론이나 자유민권운동시대 植木枝盛, 板垣退助 등의 萬國共議政府設은 후자의 아시아 연대로 분류할 수 있는 흐름을 대표한다(趙軍, 앞의 책, 28-30쪽 참조).

아시아론은 새롭게 전개된다.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국가 독립에 대한 위기의식이 해소 내지 공동화 되고 비서구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대만을 식민지로 영유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더 나아가 일본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중화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것을 계기로 중국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 때 아시아주의적인 주장과 언설이 활발히 공개적으로 나타나 하나의 사상적인 풍조를 이루게 된다. 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사유하는 배경의 질적인 전환이었다. 곧 국가독립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배태된 아시아 연대론적인 아시아론이 이때에 와서는 아시아패권론, 아시아 맹주론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노 아츠마로(近衛篤磨)에 의해 1898년 동아동문회가 결성되어, 서구 열강에 의한 중국 분할에 대하여 ‘중국보전론’을 주장하면서 인종동맹론적 성격을 띤 동양면로주의가 주창되었다. 조선, 만주, 시베리아에서 활동하는 대륙 낭인들은 1901년 흑룡회라는 우익단체를 만들어 혈통주의에 입각한 ‘동이족 통합론’을 주창하는가 하면, 미술사가이자 평론가인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은 독자의 문명사관에 입각하여 인도까지도 아시아의 범주로 확장시켜 ‘아시아는 하나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였다(1902).

이 시기 일본은 한편으로는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서구적 의미에서의 근대화를 완성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1894년 청일전쟁과 이어서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서구 열강과 나란히 비서구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였다. 서구화로의 추동이 일본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뒷받침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명개화론과 같은 서구주의의 대세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제국주의 국가로서 자신감을 획득한 일본의 자기정체성(self-identity) 확립이라는 차원에서의 아시아주의에 대한 의미부여는 이러한 점에서 보면 188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나아가서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청일강화조약)에 뒤이은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에 의한 요동반도의 반환(이른바 삼국간섭에 의한 “영토할양(割讓)”)이나 1897년 말 독일에 의한 자오주(膠州)만 점령과 조차조약에 의한 합법화, 그리고 1907년 미국에서 일본인이민제한법에 의한 일본인 이민배척의 합법화¹¹⁾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아시아주의적 지향을 더욱 강화하는 외적 요인들로 작용하였다.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을 상대로 한 일련의 군사적 승리에 의해 강화되었던 조선이나 중국에 대한 우월감(또는 모멸감)은 서구 제국에 의

10) 이러한 맥락에서 다케우치 요시미는 군부이건 외무성이건 일본의 관료에 구미파와 아시아파의 차별이 형성된 것은 이 무렵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선후관계를 따져 보면 아시아파가 있고 구미파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자는 후자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나중에 태어났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구화(歐化)주의가 그에 대한 반동으로 아시아주의를 낳았던 모태의 하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竹內好, 앞의 책, 23쪽).

11) 미국에서 일본인이민배척운동은 1900년 무렵부터 조직적으로 되어 왔다고 말해 지고 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인 학동 격리문제가 일어나고 이후 1913년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시민이 될 수 없는 외국인의 토지소유와 3년 이상의 토지임대를 인정하지 않는 토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에는 워싱턴주, 1921-22년에는 서북부 11개주에서 동일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24년에는 그전부터 금지하여 왔던 일본인 이외의 아시아인에서 나아가 일본인의 이민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신이민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였다(若槻泰雄, 1972 『排日の歴史』 中公新書, 55-56쪽; 古屋哲夫, 1996 『アジア主義とその周辺』 古屋哲夫 編,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緑陰書房, 91쪽; 大塚建洋, 1998 『大川周明のアジア観』 岡本幸治 編著, 『近代日本のアジア観』 ミネルヴァ書房, 213쪽; Bruce Cumings, 1997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438쪽).

한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심각한 자기모순에 직면하였으며,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통하여 손상된 자존심을 보상받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서구 열강의 아시아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사명의식을 강화하여 가는 한편, 조선이나 중국에 대한 무시와 모멸감에 비례하여 아시아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정당화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주의는 연대와 침략의 두 측면에서 점차 후자의 측면을 노골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유럽열강이 아시아에 개입할 여지를 좁힘으로써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었다¹²⁾. 제1차 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일본이 류순(旅順)과 따렌(大連)의 조차 기한 연장, 산둥성에서의 독일 이권 양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21개 요구안을 중국에 강요하였던 것을 단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¹³⁾.

IV. 아시아주의의 쇠락과 굴절: 1920년대

제1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일본에서 아시아주의는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혁명이 발발하여 짜르 체제가 붕괴되고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는 가운데, 약소민족 사이에서는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 독립의 기운이 고조되어 갔다. 제국주의 일본 내부에서도 민주화의 움직임이 고양되고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적인 진보적 사상이 크게 전파되는 가운데 이른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를 맞이하였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계대전의 충격으로 유럽 중심의 국제 정치의 자명성이 상실되었으며 식민지에서 민족운동의 고양은 민족자결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사조를 낳았다. 아시아와 관련해서는 구미 제국에서 대아시아정책의 오류를 반성·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는 한편 돌출적인 일본의 대중국 침략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되었다. 1920년에 국제연맹이 창설되고 1922년 중국의 주권존중, 문호개방, 기회균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워싱턴조약)이 조인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조와 아울러 중국(만주)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서구 제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신이 구상,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좌절을 경험하였다. 예컨대 제1차 대전이 종결될 무렵 일본이 제시하였던 지역적·국지적 연맹체 구상은 “원칙적으로 지역주의를 부정” 한다는 국제연맹규약에 의해 거부되었다¹⁴⁾. 이러한 맥락에서 파리

12)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서는 그때까지의 목표였던 조선지배를 실현하였다는 만족감이 확산되는 한편 다음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북진(滿蒙經略主義)과 남진(北捨南進主義)의 대립이 있었는데, 서구 열강과의 관계를 고려한 이러한 양자택일의 의론은 제1차 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자취를 감추고 그 아래에서 축적되어 온 “아시아의 맹주”, “동양평화의 담당자”라는 의식이 표면으로 분출하였다는 지적은 경청할만 하다(古屋哲夫, 앞의 책, 59-62쪽).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의 강한 저항을 예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21개 요구가 중국에 얼마나 크나큰 충격을 주었는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근대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주요한 계기를 이루었으며, 그것이 1924년의 국공합작과 이듬해 1925년의 이른바 5.30운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서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古屋哲夫, 앞의 책, 63-64쪽, 95쪽).

14) 대표적인 사례로는 浮田和民이 주장한 신아시아주의를 들 수 있다. 그는 徳富蘇峰의 아시아먼로주의와 같은 폐쇄적 지역질서의 구상에 내포된 인종적 관점에 비판적이었다. “아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강화회의를 회고하면서 일본이 “세계의 대세에서 낙오하고 동양에서는 오늘날까지 굳게 지켜온 특수한 지위를 잃고 고영락연(孤影輦然)하게 동양의 일각(一角)에 고립하기에 이르렀다”는 자탄이 나왔던 것이다¹⁵⁾.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배경으로 전체주의를 본질로 하는 아시아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20년대에 아시아 문제는 별로 쟁점화되지 않고 우익의 주류는 국내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일본적 아이덴티티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수주의적인 우익사상이 반동으로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일부 우익 세력이 중국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주의를 논하기도 하였지만, 경제적 분야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나 특히 동남아 지역에 대한 경제불력권 이론이 제기되고 실제로 이 지역에 진출하는 사례들이 늘어갔다.

V. 아시아주의의 재등장: 1930년대-1945년

일본의 팽창·침략주의에 대한 서구 제국의 의혹과 견제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는 한편, 워싱턴군축회의나 미국에서 이민법안의 통과 등은 일본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켰다.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은 세계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에 의하여 가중되었으며, 농촌의 피폐와 정당정치의 난맥상 등을 배경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파시즘 체제가 서서히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아시아주의의 고양은 1930년대에 들어와 다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워싱턴회의를 거쳐 만주사변에 이르는 이른바 베르사이유 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만주사변을 거쳐 중일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보다 글로벌한 구상”¹⁶⁾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며, 이 구상의 중심에 아시아가

민족은 인종의 異同에 불구하고 아시아인이라고 해석” 하는 인식 위에서 서구 제국에 의한 새로운 식민지화에는 반대하면서도 구미와의 대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시아주의를 제창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연맹과 같이 “직접적으로 세계적 평화대동맹의 출현을 바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 “우선 구라파, 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3대륙에 부분적 평화대동맹을 성립” 시킴으로써 “아시아에 관한 문제는 이후 일본이 주장하여 범아세아회의를 개최하고, 미국도 아시아도 각각 자기 내부의 문제에 관하여는 자주독립을 確守”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일본은 동양평화의 “후견인”, “보호자”로서 만주에서의 정치적 권력 대신 중국 전역에서의 경제 이익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古屋哲夫, 앞의 책, 79-81쪽; 平石直昭, 1998 『近代日本の國際秩序觀とアジア主義』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20世紀システム1 構想と形成』 東京大學出版會, 193-5쪽). 그의 신아시아주의는 기존의 조약한 인종주의적 논의에 비해 진전된 측면이 있었고, 주권 국가와 국제연맹을 대개하는 지역결합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패권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대세를 이루었던 세계 기구의 구상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15)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은 산둥반도의 독일이권의 계승, 적도 이북의 독일령 남태평양제도의 영유와 더불어 국제연맹규약에 인종적 차별대우철폐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산둥문 제만이 중국의 찬성을 얻었을 뿐, 일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전술했듯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인이민배척운동이 재연하였다(古屋哲夫, 앞의 책, 91쪽 및 岡本幸治, 1998 『近代日本のアジア觀』 ミネルヴァ書房, 213쪽 참조).

16) 伊藤のぞみ, 1998 『昭和研究会における東亞協同體の形成』, 岡本幸治 編著 『近代日本のアジア觀』. ミネルヴァ書房, 228쪽.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맥락에서 군부와 관료, 정치인들의 주도하에 다수의 정책연구단체들이 조직되었던 것에서 보듯이¹⁸⁾ 중일 전쟁 이후 아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적 조치들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20-30년대의 아시아주의는 공격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군인이나 일반사회에 그 영향력이 점차 파급되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¹⁹⁾ 1931년의 만주사변에 이어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면서 일본은 9개국 조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 아시아주의는 파시즘 체제 아래에서 전체주의적인 퇴역성과 반동성을 가지고 우익이 전유하는 대외 사상으로 자리 잡아 갔다. 다케우치 요시미의 논의에 따르면 일본에서 우익인 현양사(玄洋社)와 흑룡회(黑龍會) 계열에서 아시아주의를 선취한 가운데 1910년대에 좌우가 분리되고 이어서 1920년대 후반에 걸쳐 좌우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아시아주의는 침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아시아주의가 우익에 의해 독점되면서 좌익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여기에 대치시키는 포진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²⁰⁾.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전후 대거 아시아로 복귀, 쇄도하려는 구미 세력에 대한 대항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잊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아시아주의가 재등장하였다.²¹⁾

1931년 만주침략을 시작으로 하는 중국침략을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1930년대 중반에 이미 ‘황도’ ‘황국’ ‘팔굉일우(八紘一宇)’ 등을 내세운 황도주의론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시아주의가 다시 분출하여 메이지 시대의 아시아주의론이 재조명되었다. 아시아주의에

17)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시아에서도 중국 문제가 가장 중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문제는 1910년대 이래 아시아주의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小寺謙吉, 앞의 책, 1271쪽), 1940년대에 남방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아시아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오가와는 “지나사변이 처리되지 않는 한 미국과 영국의 항전력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대동아전쟁은 결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大川周明, 1943 『大東亞秩序建設』 第一書房, 70쪽), 스미노야는 “지나사변을 해결하는 것은 동아공영권을 확립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고, 동아공영권의 확립은 동시에 지나사변의 철저한 처리를 의미한다고 하는 함수관계로 되었다”고 주장하였다(住谷悦二, 1942 『大東亞共榮圈植民論』 生活社, 15쪽). 최근의 한 논자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대동아공영권 사상에서 숨겨진 의문의 주제는 “지나이고 지나사변”이었으며, 여기서 “‘지나’란 근대국가 일본에 자기의 입장을 동정(同定)한 지식인의 치부이고 그들의 언설의 위장을 폭로하고 마는 현실”이었던 것이다(子安宣邦, 1994 『日本の近代と近代化論 - 戦争と近代日本の知識人』 『現代思想15 脱西歐の思想』 岩波書店, 146쪽).

18) 예를 들면 中支那方面 軍司令官 겸 상해 파견 군사령관으로 활동하다가 전후 남경대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A급 전범으로 교수형의 판결을 받았던 松井石根은 1933년 3월에 “大亞細亞協會”(그 전신은 “汎亞細亞學會”)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1936년 近衛文麿가 조직한 昭和研究会는 이른바 동아협동체론을 기조로 하는 동아신질서론을 제창하였으며, 石原莞爾은 만주사변 직후부터 “동아연맹”의 구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른바 近衛聲明 이후 “동아연맹협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아협동체론이나 동아연맹론을 둘러싼 논의는 1939년-1940년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1940년 대동아공영권의 제창으로 수렴되어 갔다(伊東昭雄, 앞의 책, 251-2쪽; 趙軍, 앞의 책, 294쪽; 伊藤のぞみ, 앞의 책, 227쪽 이하).

19) 平石直昭, 앞의 책, 197-8쪽.

20) 앞서서도 말했듯이 아시아주의에 대한 그의 정의는 연대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비침략적” 아시아주의는 이 시기 이후 다만 심정으로만 남고 사상으로 승화하지 못한 가운데, 침략적 아시아주의가 그것의 논리를 더욱 강화해 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竹内好, 앞의 책, 49-52쪽 참조).

21) 古屋哲夫, 앞의 책, 88-91쪽.

황도주의가 접목되면서 아시아주의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화되어 갔던 것이다. 토자카 준(戸坂潤)이 아시아주의를 반동사상이라고 규정한 후, “일본주의는 동양주의 혹은 아세아주의로까지 발전한다. 더욱이 그것은 단순한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일본주의의 발전으로서 아시아주의, 이른바 일본아시아주의이다”라고 그 기만성을 폭로하였던 것도 이때였다²²⁾.

일본 파시즘 체제는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어 전쟁자원이 고갈되자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그 난국을 돌파하고자 하였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침략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침략전쟁을 합리화 혹은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곧 아시아민족해방론이고 대동아공영권론이었다. 동남아지역에 대한 민족적인 그리고 문명적인 근친성이나 일체성을 확립하기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서 ‘팔괘일우(八紘一宇)’라는 종교적 차원의 황도주의를 내세워 종래 아시아주의의 외연을 확대하여 대동아공영권론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고도의 관념적 작위로서 만들어진 대동아공영권의 범위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동북아 지역에도 ‘남방’ 지역 더 나아가 인도 및 호주까지로 확장되었다. 또한 종래 아시아주의는 민간인들에 의해 선창되어 나중에 이것이 국가권력에 의해 채택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일본 정부와 군부가 정책론으로 급조하여 국책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대적인 여론조작과 교육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세뇌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서구 열강으로부터 같은 아시아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대동아공영권론자들의 주장이 비록 일시적으로 동남아 여러 민족뿐만이 아니라 조선이나 대만의 식민지 피지배민의 일부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은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성격을 감추기 위한 허울 좋은 명목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남방에 대한 자원 약탈을 위한 전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관념적인 작위로 급조된 것으로서, 일본과 서구 제국과의 인종전쟁이라는 착각을 강요했던 ‘의사 인종전쟁론’이었다. 대동아공영권론은 아시아주의의 본질인 혈통주의와 인종주의가 희석화되고 문명적인 근친성마저 구축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나아가서 사상적인 영위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의 정책론으로서 제기되었다.

VI. 아시아주의의 현재와 역사적 교훈

1945년의 종전과 일제의 패망으로 아시아주의는 파시즘의 이론 혹은 초국가주의의 반동적인 사상으로 지탄받았다. 수면 하에서 우익의 주의·주장으로 치부될 따름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후 복구에 성공하고 경제 부흥의 길에 들어서면서 1960년대에 이르

22) 戸坂潤, 1977(1935) 『日本イデオロギ論』 岩波文庫. 참조. 조선과 중국에서는 이미 그 사상의 허구성과 기만성이 지적된 바가 있다. 예를 들면, 申采浩는 1908년에 이미 일본이 인종전쟁의 시대라고 하면서 동양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일본의 조선침략 더 나아가 동양침략의 속셈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與友人絶交書』1908; 『東洋主義에 對한 批評』1909;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편, 1982, 『(改訂版)丹齋申采浩全集』下 螢雪出版社, 소수). 중국에서도 李大釗가 1918년 이래 줄곧 대아세아주의는 “中國併呑主義의 隱語”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왔다(『대아시아주의와 신아시아주의』 『국민잡지』, 1919). 이 글들의 일부는 최원식·백영서 편, 1997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에 소개되어 있다.

러 재평가의 움직임이 일었다. 다케우치 요시미의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그 후 반미자 주노선의 우익, 친미반공 노선의 우익뿐만이 아니라 교조주의적 사회주의 노선에 비판하는 ‘신좌익’이나 황국 관료출신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도 아시아주의적인 언설이 종종 발설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개방화, 소련의 붕괴로 인한 동서냉전체제의 해소와 같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아시아 지역주의가 대두하고 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주의는 요컨대 정치대국 중국과 경제대국 일본이 합심하여 아시아의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주의적 이론에는 물론 다양한 변종들과 흐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일종의 아시아 패권주의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론에서 보듯이 배경과 의도는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한국의 학계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주제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일본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최근의 논의는 1)1860, 70년대의 아시아론, 2)청일전쟁과 러일 전쟁기의 아시아주의론, 3)1930년대 이후 전시 파시즘 아래에서의 대동아공영권론에 이은, 이른바 제4의 파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논의는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치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아가서 근대 문명의 위기적 현재화 속에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문명론적 모색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것이 감각적인 인종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다분히 일국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광역 지역주의로 채색, 가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정치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이 전통적인 중화주의를 해소하지 않은 채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권주의일 수가 있다. 과거 아시아주의의 반동성을 직시하지 않고 또한 아시아 침략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일국 이기주의를 강고하게 유지하면서 아시아주의를 주창한다는 것은 대동아공영권론의 현재적 표출일 수가 있다. 지난 100년의 동아시아 역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동아시아론이 이들 강대국의 침략성을 합리화·정당화시켜주는 이론의 일부로 이끌릴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참고문헌〉

- 申采浩, 「東洋主義에 對한 批評」, 1909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申采浩, 「與友人絶交書」, 1908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岡倉天心, 『東洋の理想』, 1902 (竹内好 編, 1963 所收).
- 古屋哲夫, 「アジア主義とその周邊」, 古屋哲夫 編,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緑陰書房, 1996.

- 橋川文三, 「アジア主義」, 『日本國史大事典』, 平凡社, 1993.
- 大川周明, 『大東亞秩序建設』, 第一書房, 1943.
- 大塚建洋, 「大川周明のアジア觀」, 岡本幸治 編著, 『近代日本のアジア觀』, ミネルヴァ書房, 1998.
- 小寺謙吉, 「大亞細亞主義論(上・下)」, 寶文館, 1916.
- 植手通有, 「アジア主義」, 『平凡社大百科事典』 제1권, 平凡社, 1984.
- 野原四郎, 「アジア主義」, 『亞細亞歴史事典』, 平凡社, 1959-62.
- 若槻泰雄, 『排日の歴史』, 中公新書, 1972.
- 李大釗, 「大亞細亞主義與新亞細亞主義」, 『國民雜誌』, 1919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伊東昭雄, 『アジアと近代日本』 社會評論社, 1990.
- 伊藤のぞみ, 「昭和研究會における東亞協同體の形成」, 岡本幸治 編著 『近代日本のアジア觀』, ミネルヴァ書房, 1998.
- 子安宣邦, 「日本の近代と近代化論 - 戦争と近代日本の知識人」, 『現代思想15 脱西歐の思想』 岩波書店, 1994.
- 趙軍, 『大アジア主義と中國』 亞紀書房, 1997.
- 住谷悦二, 『大東亞共榮圈植民論』 生活社, 1942.
- 竹内好 編, 『現代日本思想大系-アジア主義』, 筑摩書房, 1963.
- 樽井藤吉, 『大東合併論』, 1893 (竹内好 編, 1963 所收).
- 平石直昭, 「近代日本の國際秩序觀とアジア主義」,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20世紀システム1 構想と形成』, 東京大學出版會, 1998.
- 戸坂潤, 『日本イデオロギ論』, 岩波文庫, 1977(1935).
-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未來社, 1964 (김석근 옮김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 Bruce Cumings,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Abstract】

Japanese Asianism and East Asia*

KIM Keongil

The Meaning and Definition of Asianism

There have been diverse opinions on the origin or definition of the term "Asianism" or "Greater Asianism" and "Pan-Asianism" in a similar sense. In terms of its origin, some argue that it goes back to the pre-modern era, while others consider its origin to be in the 1910s, which is rather belated.

There are also diverse opinions on the definition of Asianism. As indicated by its definitions from lexical meanings, a number of researches have pointed out the duality of Asianism—solidarity and aggression. However, some researchers strictly apply this concept to the solidarity aspect, while others understand Asianism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fascist ideology. Even though Asianism in China and Korea is put aside from this discussion, in the case of Japan, Asianism has been characterized by contradictory and complex features which represent either of the mutually conflicting tendencies, including solidarity vs. aggression, protest vs. compromise, conservatism vs. reform, civil rights vs. state power, Westernization vs. nationalism, Asia vs. Europe (Europe and American), isolation vs. opening, and the same time encompasses the pairs simultaneously.

In this sense, it has been pinpointed from early years that, unlike universal concepts such as democracy and socialism that have a common understanding to some degree, Asianism is not only a special concept with multiple meanings, but also its name has been understood differently. And in this sense, Yoshimi Takeuchi attempted to distinguish Asianism on two dimensions of "feelings and logic." According to recent studies, "Asianism is not a firm thought system," but rather an "ideological complex that embraces various schools of thought and trends."

Asianism and the West

The fact that Asia came to perceive itself as a single entity due to Western aggression since the mid-to-late 19th century bears great significance in the birth of Asianism. As a phenomenon that developed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and expansion of the modern world system, Asianism can be understood as one of Asia's unique reactions and responses to the West. The multiple meanings and complexity of the notion of Asianism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Japan, which had achieved Western modernization through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adopted a policy of aggression against other countries in Asia, like Western imperialist countries.

1) This article is a summary of "Asianism in East Asia: The Case of Japan in 1870-1945" by Kim Gyeong-il and Kang Chang-il, *History Research*, No. 8, 2000.

Japan not merely adopted Western civilization through modernization, but also adopted the West's perspectives to view Asia. In other words, the notion of viewing Asia as an entirety was established in Japan earlier than any other country in Asia, and most discussions on Asianism in Korea and Japan were a counterreaction or criticism against that of Japan. In this vein, it can be said that Asianism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modern history of Japan.

If Japanese Asianism was based on viewing Asia as a single entity, the recognition that this perspective was ultimately geared toward the West, rather than Asia itself, is an important aspect in understanding Asianism in Japan. This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it was highly noticeable that Asianism in Japan evolved through its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rather than its relationship with Asian countries. Given this, Asianism in Japan cannot be understood properly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West as a factor that drove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Asianism, going beyond the dimension of Asia.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Asianism: 1860s– 1910s

When the history of Asianism in Japan is examined, this is clearly manifested. The emergence of an early form of Asianism that understood Japan as a member of Asia and called for restoration of Asia's order of the past or solidarity of Asia in the 1850s-1860s is closely related to the situation where threats by Western powers against Asia became visible around the fall of Nanking in 1860. By contrast, Japan's forceful opening up of the Joseon Dynasty in 1876, which served as the first springboard for Japan's aggression into the Asian continent, is difficult to explain without mentioning the then situation where the West's aggression into Asia was relatively loose in the 1870s when wars and conflict deepened in Europe, mainly in the Balkans. Again since the 1880s when the Western imperial powers' aggression into Asia intensified, it was observed that calls for Asianism were vigorously raised in Japan.

In the 1890s, when Japan won the First Sino-Japanese War, which was a war to determine hegemony of Asia, Pan-Asianism took a new turn. With its victory in the war, a sense of crisis over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was resolved in Japan, which became the only imperial power among non-Western countries that took possession of Taiwan as a colony. Furthermore,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omplet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Sino-centrism, Japan set a national for itself to replace China as the regional power, and Asianistic arguments and discourses were publicly discussed, forming an ideological trend. It was a qualitative shift in the background that considered Asia as a single unit. Asian thought calling for Asia's solidarity conceived from the sense of crisis over national independence emerged as Asian hegemony or Asian domination at this time.

During this time, Japan completed modernization in the Western sense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at the same time emerged as the sole non-Western imperial power, along with Western powers, on the world stage through its victory in the 1894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s in 1904. Although the general trend of Westernization such as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theory was admitted in that the drive toward Westernization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Japan's rapid growth, it was in the 1880s when Japan started to interpret Asianism in terms of establishing self-identity of Japan that acquired confidence as an imperial power.

Furthermore, a series of incidents, including the return of the Liaodong peninsula, which had been ceded to Japan following the Treaty of Shimonoseki in 1895, under pressure of Germany, France, and Russia (the so-called "ceding territory" by interference of the three countries); Germany's occupation of the Jiaozhou Bay in late 1897 and its legalization through a lease treaty, and legalization of curtailing Japanese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Japanese immigration restriction act in 1907, acted as external elements that further intensified Japan's Asianistic pursuit. Japan's sense of superiority (or a sense of disdain, which had been reinforced by a series of military victories over such powers as China and Russia, faced serious self-contradiction due to these incidents and Japan tried to compensate for its dented pride through imperialistic aggressions against Asia.

As examined above, Japan emphasized Western powers' threats to Asia and reinforced its sense of mission as a "dominant power of Asia," while justifying the use of force against Asia in proportion with disregard and contempt toward Joseon and China. Accordingly, among the two aspects of solidarity and aggression of Asianism, the latter became more obvious. Moreover, the outbreak of World War I narrowed the possibility for Western powers to intervene in Asia, thereby relatively facilitating Japan's imperial expansionism in Japan.

Decline and Refraction of Asianism: 1920s

With the end of World War I, Asianism in Japan took on a new trend. The end of World War I and the outbreak of the Russian Revolution led to the collapse of the Tsar regime and the proclamation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by U.S. President Woodrow Wilson. Against this backdrop, the mood for national independence based on nationalism escalated among peoples of small and weak powers. Within Imperial Japan, the movement of democratization was espoused and liberal ideologies such as communism and anarchism were widely disseminated, heralding the era of the liberal movement of Taisho Democracy in Japan.

From international viewpoints,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challenge posed by Europe-centered international politics due to the shock of the World War, while the growth of nationalist movements in colonies resulted in the trend that recognized the legitimacy of national self-determinism. Concerning Asia, movements emerged in the West to reflect on and review errors of Asia policy, while suspicions regarding Japan's unexpected aggression against China were reinforced. The League of Nations was founded in 1920 and the so-called Nine-Power Treaty of 1922 on China (The Washington Treaty) was signed, which included respect for China's sovereignty, opening up, and equal opportunity. Along with the new trends, these developments also reflected Western powers' intention to counter Japan's aggression against China (Manchuria).

Against this backdrop, Asianism, whose essence is totalitarianism, lost ground. In this context, the Asian issue was not raised much in the 1920s and the right-wing mainstream turned their eyes to

domestic issues.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was the crisis situation of Japanese identity, nationalistic rightist ideology emerged as a counterreaction. Although some right-wing forces discussed Asianism mainly in the context of Chinese issues, interest in Asia in economic areas was greatly boosted and the economic bloc theory in Southeast Asia was raised, and there were actually an increasing number of such cases that were advancing into the region.

Re-emergence of Asianism: 1930s–1945

The West's suspicions and countering on Japan's aggressions continued to the 1920s, while the Washington Disarmament Conference and passage of the immigration act in the United States greatly damaged the pride of Japan. Dissatisfaction on the government's foreign policy was exacerbated by economic woes due to the world economic crisis. Amid impoverished rural areas and chaos of party politics, the fascist system gradually emerged in Japan.

In this context, Japan's interest in Asia and the enhancement of Asianism showed a tendency of reinforcement again in the 1930s. Interest in Asia, which had been relatively neglected under the Versailles regime ranging from the Washington Conference to the Manchurian Incident, emerged as the focal point of interest when the Manchurian Incident escalated into the Sino-Japanese War. From the position of Japan, the need for a "more global paradigm" was raised and Asia was at the heart of this initiative.

Against this backdrop, Asianism in the 1920s-1930s further reinforced its aggressive nature. Accordingly, its influence on soldiers and general society was disseminated and Asianism became more concretized through political actions. As it withdrew from the League of Nations in 1933, following the Manchurian Incident, Japan sought an alternative in new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would replace the Nine-Power Treaty.

At this time, Asianism came to be established as a foreign policy ideology monopolized by rightists with totalitarian retrogression and reactionary characteristics under the fascist regime. Generally speaking, it may be understood as a protest against the Western powers which attempted to return and rushed to Asia en masse, and in this context Asianism, which appeared to have been forgotten, re-emerged.

As the Sino-Japanese War was prolonged and war resources were exhausted, the Japanese fascist regime provoked the Pacific War to break the difficult deadlock. Aggressive war against the Southeast Asian region started. The logic to rationalize or justify this aggressive war was the theory of liberating Asian peoples and the theory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It was not a simple matter to establish nationalistic or civilizational affinity or unity with the Southeast Asian region. By adding Japanese Emperor-based nationalism of religious dimension, Japan expanded the appearance of the existing Asianism, thereby creating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 scope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hich was created as a highly conceptual artificiality, was expanded to include the "southern" regions, India, and Australia, in addition to Northeast Asia, to

rationalize and justify Japan's aggression against Southeast Asia. Moreover, Asianism in the past showed a tendency of being proclaimed by private people and then later adopted by state authorities. However,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hurriedly improvised Asianism as a policy theory and decided it as a state policy and ideologically brainwashed it through large-scale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and education.

Although the contention by those who advocated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at the war was designed to liberate the same Asian people from Western powers temporarily appealed to some of the ruled peoples in Japan's colonies including Joseon and Taiwan, it was no more than seemingly good name to conceal its deceiving and hypocritical characteristics. It was hurriedly created as an ideological artificiality to justify and rationalize a war to loot resources in the southern region. It was a "quasi-racial war theory" that promoted the misconception that it was a racial war between Japan and Western empires.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diluted *jus sanguinis* and racism, which were the essence of Asianism, and failed to establish civilizational affinity. Furthermore, it did not start as ideological management, but was rather raised as an expedient policy theory.

The Present Status of Asianism and Its Historical Lessons

With the end of the War and defeat of Japan in 1945, Asianism was criticized as a Fascist theory or reactionary ideology of Supernationalism. However, when Japan successfully reconstructed the country after the war soon and entered the path of economic revival, there was a movement to reevaluate Asianism in the 1960s, and a case in point was Yoshimi Takeuchi. Since then, Asianistic remarks were often made not only by rightists of anti-American independence movements and pro-American, anti-Communist movements, but also by "new leftists" who criticized doctrinist socialist movements and social leaders from imperial government officials.

Amid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late 1980s, including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China's opening, the dissolution of the East-West Cold War regime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sian regionalism has been emerging. The Asia regionalism, which is being raised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China, is to promote unity of Asia led by China, a political power, and Japan, an economic power, working together. It is true that there are diverse varieties and trends in such Asianistic theories, yet what one needs to pay attention to is that they are being discussed on the dimension of a kind of Asian hegemony. Moreover, as indicated by the East Asia theory, although the background and intentions differ, this issu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pular themes in Korea's academia.

When the focus is placed on Japan, recent discussions are mainly about 1) Asianism in the 1860s and 1870s 2) Asianism during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and 3) Asianism following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under the wartime Fascism since the 1930s, which is the so-called the "4th wave height." These discussions sometimes take the form of political theories raised in the process where the central axis of international order is being pluralized and are

sometimes raised as civilizational pursuit to resolve environmental issues in the crisis of modern civilization.

The problem is that this Asiaism is based on sentimental racism and is colored and disguised as wide-area regionalism, although it is based on the selfish interests of one country in large measure. If China, which is trying to become a new political power, calls for Asianism without resolving its traditional Sino-centrism, it may amount to a new form of hegemony. If Japan proclaims Asianism, while it fails to see squarely the reactionary nature of Asianism shown in the past and strongly maintains one-country selfishism without self-introspection over aggression on Asia, it may be the present form of expression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e history of East Asia over the past century offers a lesson that, whether it be intentional or not, East Asian discourses may be subject to become part of theories that rationalize and justify aggression of these powers.

• Panel 2-1 새로운 동아시아사 歷史敍述의 可能性

Moderator 荒井信一 (ARAI Shinichi, 茨城大)

Panelist-1 姜義華 (JIANG Yihua, 復旦大)

: 當代中國史學：從帝王之學走向普遍性的人學
(당대중국사학: 帝王之學에서 普遍的 人學을 향하여)

Panelist-2 章清 (ZHANG Qing, 復旦大)

: 晚清中國闡述“亞洲”所延續的“歷史記憶”
- 兼論作爲“他者”的日本與朝鮮
(청나라 말기 중국의 ‘아시아’ 담론에서 연장된 ‘역사의 기억’
- ‘타자’로서의 일본과 조선에 관한 담론까지 포함하여)

Panelist-3 齋藤一晴 (SAITO Kazuharu, 明治大)

: 歷史對話論 - 日中韓共通歷史教材開發の成果と課題を例に
(역사대화론
-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개발의 성과와 과제를 사례로 -)

Panelist-4 王新生 (WANG Xinsheng, 北京大)

: 近10年中國學術界對近代中日關係史研究綜述
(최근 10년 중국 학술회의 근대 중일관계사 연구 종합서술)

Panelist-5 金正仁 (KIM Jeongin, 春川敎大)

: ‘동아시아사’ 敎育을 爲한 省察

Discussant 柳鏞泰 (YU Yongtae, 서울大)

文明基 (MOON Myungki, 仁荷大)

当代中国史学：从帝王之学走向 普遍性的人学

■ 姜 義 華（復旦大學校） ■

当代中国史学：从帝王之学走向普遍性的人学

姜 義 華 (復旦大學校)

中国当代史学，指的是改革开放以来的中国史学。这30年来中国史学最根本的变化，可以说，就是从帝王之学一步步走向普遍性的人学。

主要讨论四个问题。第一，30年来中国历史学发生了一场真正意义上的革命，过去很多人喜欢讲史学危机，其实所涉及的就是怎么看这30年来中国史学的发展；第二，历史学作为普遍性人学的主要表现；第三，在中国史学的这一转型中所发生的一系列思想冲突；第四，史学成为普遍性的人学未来的一点展望。

I

30年来，中国历史学发生了一场真正意义上的革命。

史学革命谈了好多次了。梁启超在20世纪初的时候讲史学革命；文化大革命开始的时候，戚本禹的一篇文章也谈史学革命。但是，中国历史学在很长一段时间是帝王之学这一点没有改变。历史学是人学，研究的是人，但是在很长一段时间中，历史学关注的主要还是帝王将相和统治者。一般的人，芸芸众生通常都处于历史学考察对象之外。梁启超在20世纪初讲，中国的二十四史是帝王将相的家谱，是帝王将相的谱系之学。实际上，过去的中国传统史学，从《春秋》所谓“笔则笔，削则削”，到《史记》所谓“究天人之际，通古今之变”，一直到司马光的《资治通鉴》，史学最重要的功能就是为统治者执政提供思想资源，是名副其实的佐政之学，资治之学，是帮助统治者吸取历史上的统治经验，来维系自身统治的这样一种学问。二十四史这类正史，就是这样一种统治者的统治学说。中国传统文化中，中国传统思想中，正史是最具有实践性或操作性的学说。20世纪，从梁启超讲史学革命，到毛泽东提出“要把颠倒的历史重新颠倒过来”，要把历史的主角从帝王将相换成奴隶，换成农民战争的领袖，要用奴隶创造历史来取代英雄创造历史，都是要改变传统的帝王之学。但实际上常常只是用形式变换了的另一种帝王之学来取代传统的帝王之学。因为当时史学核心的任务是为夺取政权以及巩固政权服务，为了这样的一个目的，进行所谓对过去历史的颠覆和对中国古代历史以及近代历史的重建。近30年来中国史学最深刻的变化，最根本的、最核心的一点，就是开始把历史学从传统的帝王之学、从为夺取政权、巩固政权服务的学问转变为一个具有现代意义的、或者说最具有现代性的普遍性的人学。正是因为这样一场转变，中国史学发生了一场真正革命性的变化。

30年来，历史学走向普遍性的人学，主要表现在这样两个方面。第一，对传统的历史学所关注的帝王将相、英雄豪杰，开始逐步地让他们一个个从天上、从神坛上走下来，来到地上，来到人间，还原为有血有肉有感情有欲望的活生生的真实的人。把历史人物从神化、或者妖魔化，转变到人化，让他们真正地还原为普通的人、活生生的人，以此所取代以往的帝王之学。30年来，中国史学所发生的这一变化，最初是从毛泽东从神坛走下来开始的。让在中国政治舞台上，在中国政治意识形态中间，那么长时间占据绝对支配地位的这样一位历史人物，从神坛上走下来，对整个历史研究起了一个非常大的思想解放的作用。大量的历史人物，原来或者被妖魔化的，或者被神化的，由此都开始

在历史研究中还原其本来面目。像对陈独秀以及“五四”新文化运动中另一个总司令胡适,对以胡适为代表的整个现代中国的自由主义这个群体,对被视作所谓文化保守主义者的大量的历史人物,对曾被历史研究所遗忘的一些人,都得到较为实事求是的研究。从梁漱溟到陈寅恪,从辜鸿铭、杜亚泉到熊十力、马一浮等等,一时都成为研究的热点。相反的,历史上的农民战争,长时间被我们神化了的,现在也开始恢复他们的本来面貌。比如太平天国、洪秀全,中国历史上的农民战争的最高代表,特别是在天京(南京)政权建立后的真实的状况,也不再曲意迴护。这些年在这方面有大量的研究成果,帮助我们恢复历史的本来面貌,恢复应有的历史记忆。

30年来,我们在抹去大家所关注的众多重要人物身上被神化的色彩和被妖魔化的色彩方面,作了大量的非常有成效的工作,这有助于恢复历史的本来面貌,使得已经被我们从历史记忆中间抹去的很多人的真面目重新呈现在人们面前。

II

历史学走向普遍性的人学,最主要的表现是历史学把自己关注的重点,从原先为帝王为、统治者服务,到后来为巩固无产阶级专政、巩固中国共产党执政地位服务,转向认识人本身,了解人的本质究竟是什么,人存在的价值是什么,人从哪里来,往哪里去,人究竟怎么样生产,怎么样生活。了解我们人类保有、传承、变革和创造了哪些东西,是根据那些条件,经由什么样的路线。明辨人怎样才能实现自身的价值,人怎样才能超越现有的状况,走向未来。一句话,我们把历史学研究关注的重点,越来越多地转向认识人类自身,认识整个人类社会。这使得历史学者关注的对象、研究的领域比先前无比扩大了。

首先,人们把人的自然性或自然的人,又重新放在史学的研究对象之内。诸如人口史,多年来,由于反对马尔萨斯的人口论,结果,把人口史研究基本上丢掉了。这些年来人口史成为一个新的热点,大量的研究成果出版。体质人类学的研究,过去纯粹是自然科学的研究。在新出版的《李济文集》中,收入李济的博士论文,他最先从体质人类学的角度研究中国人。现在有条件进行更大规模的的社会调查,搜集更多更完整的数据,来深化这样的研究工作。最近通过广泛开展的基因调查和基因研究,研究中国人种来源,研究南岛的人种来源,都很有成效。人的健康与疾病,人和自然的生态关系,生态史,环境史,包括自然灾害史、气候史,流行病史,现在都很热。汶川大地震,使人们关注起复旦大学历史地理研究所编的中国地震历史地图(三卷本)。人的自然性,人与自然的关系,过去在讲阶级斗争的年代,在以阶级斗争为纲的年代,统统被放在历史研究视野之外。斯大林当年在《辩证唯物主义与历史唯物主义》中间讲过,自然环境的变化,地理环境的变化,对人类社会的影响很小。毛泽东当年也是坚持这样一个观点。所以很长一段时间,历史研究把这一部分,即人的自然性研究,放弃了。现在重新回过头来,发现这些问题极其重要,不能忽略。

当然,关注最多的还是人的社会性。人之所以作为人,最主要的特征当然是因为人具有社会性,人是一个社会的存在。但是我们过去谈人的社会存在只讲阶级关系,阶级的存在,现在才关注到人的社会性多方面、多层次的丰富内容。人处在各种社会联系、社会网络、社会关系中。马克思当年就强调人的本质是社会关系的总和,现在我们可以看到,人的本质上就体现在各种社会联系、社会网络、社会关系、社会活动中。上海图书馆有中国最大的家谱收藏,这些年来对血缘网络,包括家族史、家庭史、婚姻史等等的研究超过了过去任何时候。地缘网络,地缘关系,表现于地方史、地

区史、包括同乡史、会馆史等等的兴盛，各种不同类型的城市史、乡村史、区域史，很多也都体现了地缘网络。历史上的权势网络的演变更受到前所未有的关注。社区的研究、社团的研究、各种社会群体的研究、阶级和阶层的研究、国家的研究、政党的研究、民族的研究，等等，一直到黑社会、帮会等的研究，都使得人们对人的社会性多层次的、多元的内涵，有了比过去更完整、更丰富的认识，不再把那么复杂的问题简单化。

第三，人们开始更多地关注人的思维性。人是能够思维的动物，人们知识的积累和传输，知识结构和学科构成的演进，人们各式各样的观念怎么形成怎么演变，人们思维方式和观念体系的变化，人们的宗教、信仰，日常的思维、日常的风俗习惯等等怎么改变，这些都成为近些年来一个又一个新的研究热点。比如，人们用了几十年的“封建社会”这个概念，“封建”这个概念，究竟是怎么回事，这个概念是怎么来的，又如，“革命”这个概念，是怎么来的，怎么演变的，最近已经出了好几本著作。这些都属于观念史的研究。

实际上，这些年来，人们对中国古代一些观念和知识体系怎么形成、怎么演变，世界各个国家、各个国家人民，他们的核心观念是怎么形成、怎么演变的，近代的西方、近代的东洋，包括日本这些国家，一些观念怎么形成、怎么演变的，中国近代以来，这些知识、这些观念怎么形成、怎么演变的，都给予极大的关注。因为多少年来，人们都把这些东西都看成是不需要去讨论、不需要去研究的既定前提。现在发现，原来这些观念的形成，都有一个特定的条件。如果我们把它一旦看成是不需要再去讨论、不需要再去检讨，不需要在这个基础上再向前，而它原来的基础、它的出发点本身就有问题，从这里引申出来一系列的知识、观念，就会走向严重偏向的一条路径上去。所以，回过头来，有必要重新研究知识的历史、观念的历史、宗教的历史、信仰的历史，把知识的传输，知识的积累，知识结构的形成和改变，作为重新认识我们人自身，重新认识我们人自身的思维性、思维特征、思维方式的演进一个必不可少的重要组成部分。

在认识人自身方面，人们还越来越关注到人的物质生活或物质生产、物质消费。人之所以成为人，既有生产的历史，也有生活的历史。不同的社会成员，他们的生活方式、消费方式有很大很大的差别。多少年来，没有认真地研究过人们的生活，研究过人们的消费。因为过去只讲生产关系，只讲阶级斗争，生产关系主要又讲剥削、压迫，把人们生活的这一大块内容，基本上遗忘了，抹去了。社会生活，方方面面太多，要研究各种不同层次，各个不同方面。现在大家关注的全球的粮食问题，1949年以来，人们的粮食供应，粮食生产，粮食消费的状况，现在已成为研究的热点。粮食的生产、粮食的运输转出、粮食的供应、粮食的消费、粮食的各个品种等等，虽然它只是生活中的一个很小部分，但是它揭示了一个整个社会发展的状况。

与此同时，人们的精神生活，人们的精神生产和消费状况，也为人们所关注。历史研究更多地转向人的知、情、意，转向人性的最根本方面。这次汶川大地震，牵动了全国所有人的心。最重要的什么？我觉得是人们最根本的、人性中间善良的那部分——人的知性、人的情感、人的意志，平常潜藏的那部分，一下子都迸发出来。大众的、普通人的知性和理性发展的状况，人们的感情和审美的演变状况，人们的意志和心理的发展状况，过去我们历史学关心得太少。人们精神生活，特别是大众的、日常的精神生活，成为人们现在研究一个新的亮点。历史人类学的研究和调查，包括文献的调查，大量口述资料、人们日常生活中间遗留下来的各种实物资料的汇集，为历史研究打开一大片新天地。

过去只讲阶级性的时候，很少讲到人性，但是其实一直不能回避人的性善、性恶的问题，人身上的人性和所保留着的兽性或动物性的关系问题。过去在历史研究中间，很少真正关注最普通的民众精神生活状态，实际上，历史是无比丰富的。特别是现在历史学和人类学、社会学研究结合起来，

对大量的保留在民间的种种文献的、实物的、口述的资料重新进行研究，使得我们对人自身的认识发生很大的改变。历史不再由几个英雄人物、帝王将相、领袖人物所主宰。每一个活生生的人在历史上都有不可取代的地位。历史是所有的人共同去创造的，人的生命的价值、人的存在意义也正在这里。离开了最基层的、最普通的民众，历史就会变得不可理解。自从年鉴学派以来，人们开始关注到社会最基层的方面。尽管我们讲了多少年的历史唯物主义，实际上我们关注的重点还是几个领袖人物、伟大人物。近30年的历史研究，发生了一个根本性的变化。长时间内被我们所忽视的、最普通的大众，他们的思想、他们的生活、他们的社会性、他们的思维性，他们的物质生活和精神生活，都进入到历史视野，这使得整个历史学具有比先前远为广大的研究空间，也使得研究方法更为多样。这是30年来中国历史学发生一场真正意义上的、革命性的变化最主要的方面。

III

历史学的着一转型，并没有最终完成，现在还在继续之中。这一转型更不是一帆风顺。30年来，历史学界，思想上的冲突、学术上的冲突，一直没有终止过。它主要环绕以下几个问题展开：

第一，在史学研究中间，继续保持一家独尊的局面，还是真正形成百家争鸣的局面，实际上存在着非常大的分歧。30年来，历史学与人类学、社会学、经济学、政治学、教育学、心理学，包含自然科学等等跨学科研究的大量展开，推动了百家争鸣大格局的形成。我们坚持马克思主义。但什么是马克思主义？实际上很多自以为坚持马克思主义的人，从没有认真系统研读过马克思本人的著作。人们对马克思的理解，长时期是根据斯大林和《联共[布]党史教程》的解释。很多人用《联共[布]党史教程》和斯大林对马克思解释来代替马克思本人的著作和思想。长时间我们只认苏联一家，后来变成只有毛泽东本人的解释才是马克思主义，其他都不是。但是世界上有多少马克思主义流派？1985年中国社会科学院院长胡绳提到，要百家争鸣，马克思主义者从非马克思主义者，甚至反马克思主义者那里也可以得到有益的东西，因为非马克思主义、反马克思主义在历史研究中间也有它自己可能接近真理的地方，也可能有某些真理的颗粒。胡绳这个话在一些人眼中间直是大逆不道。但这其实是一个最普通、最基本的道理。要不然，马克思主义怎么产生呢？马克思本人能够直接从大量的非马克思主义、甚至反马克思主义的观念中间吸取营养，后来的马克思主义者为什么就不能了呢？至今还是有一些人，总想继续垄断对马克思主义的解释，继续维系或者重建独尊一家的局面，实际上就是独尊他们自己，想继续用一颗脑袋代替13亿颗脑袋，由一批不动脑子，更不懂什么是真正的历史科学的人来垄断对历史的解释。哪一个历史学家敢说，我的见解就是历史的定论？新资料不断出现，新方法不断运用，人们总是在不断地研究，不断地进行争论，而历史本身的发展，则会在自己演进的过程中间把先前潜藏着的许多方面逐步地显示出来。一个历史学家，无论水平多高，也不可能垄断对历史的解释。这个背后的问题，其实还是历史研究应当将尊重历史真实放在第一位，或是将尊重某一种观点，或是某一个历史学家对历史的解释和垄断放在第一位。

第二，许多非理性的许多禁区的设定。大家熟悉的，文革史，涉及文革的历史，现在仍然基本是禁区。我们还有其他很多禁区，这些禁区的背后是什么呢？就怕讲我们过去那些地方做的不好，做错了。好话，现在都可以讲，但是要认真的检讨，认真的反思，很多人就担心害怕。害怕什么呢？坏事讲多了，错误讲多了，会有损我们党的形象，有损我们党的领袖的形象，有损我们执政合法性基础的建立和巩固。由于禁区的存在，我们有可能又造成新的历史记忆的丧失。但实际上，这实际上是一

种非理性主义的做法。我们已经进入互联网时代。在这样一个网络时代，信息量是这么大，传播是这么快，尤其是国内外大量档案的公布以及许多新方法的使用，国内外学术交流这么广泛、这么频繁、这么深入，继续用这样一种设置禁区的办法，其实是掩耳盗铃、自欺欺人，让禁区变成自我封闭、自我欺骗、自我蒙昧，我以为，这才是真正危及自己执政的合法性基础。说实在话，越是具有开放的心态，不仅越对历史研究，对历史学的发展有益，对执政者来说，也越会使自己的执政牢固地确立在理性的基础上，确立在最广泛的人性基础上，确立在实事求是的科学基础上。

第三，所谓本土化和西方化的问题。30年来中国从传统的农耕文明向现代文明的转变，走的正是中国自己的路。我们曾经想照搬苏联模式，走不通。在农业现代化发展道路上，对于加拿大模式、日本模式、美国模式，甚至罗马尼亚模式，我们都去考察过，后来发现都不行，中国还得走自己的路。在历史研究中间同样。很多人担心我们是不是全盘西化了？西方化是不是一个最大的问题？30年来，我们的改革开放，打开了中国的大门，同外部世界有了频繁的接触，开始了平等的对话，也对普世价值有了更大程度上的认同。国外史学研究新的方法、新的流派，他们的新的历史观点，使得我们眼界大开，现代主义、后现代主义的许多思考，都使得我们对先前历史是怎么走过来的，能够重新加以思考。正是因为这样，30年来我们史学界思想特别活跃，研究成果特别多样，这并不是全盘西化，而是我们的历史学真正走出了自我封闭的状态。不这样，我们就不可能把传统的帝王之学真正转变为普遍性的人学。很多人把本土化和西方化对立起来。其实，只有在中西文化的交融之间，在频繁的接触碰撞争论中间，才能开拓我们的视野，把我们的思想进一步解放出来，创造出符合中国国情的新时代的中国新文化。历史学要成为一个普遍性的人学，需要一个全面的转型，一个全新的创造。这只有在中华文明的继承和发展，在同世界各种文明广泛的对话与交流、以及我们自身深刻的反思与再创造中间才能实现。

第四，在史学研究与转型中间，我们政治权力的全能化对史学研究、史学转型还有很大影响，这又引发一系列冲突。这里面最突出的是对人文科学、社会科学、包括我们历史研究，都引进量化的考核体系，用这套东西来制约、检查我们整个的历史研究。这当然在相当程度上也推动了我们的研究，因为量化意味着必须要出成果。但是，被扰乱了的是学风。其次，历史研究和政绩、形象联系到一起，搞了很多工程。学术工程化有好处，可以集中很大一部分钱，来做很多原来做不了的事情。但是工程化也有很多不利的地方，比规模，赶进度，劳民伤财，华而不实。再次，就是经费配置，我们的“学而优则仕”、官本位，有利于那些有一定地位的史学人才获得很丰厚的研究经费，不利于那些在史学研究中间可能会作出突出成绩，愿意沉潜下来做研究、而不愿意申请项目、不愿意受这样那样的管制、不愿意填写大量的表格的研究者。但是，确确实实，史学研究最需要的正是有一大批这样长期默默进行耕耘的学者。

IV

中国史学成为普遍性人学未来的的展望。

尽管如前所述，30年来我们的史学研究有了很大的进步，也存在很多困难，争论也是不断，还有很多的障碍，但总的趋向，可以说，历史学研究中，史学成为普遍性的人学，这一趋向已很难逆转。江泽民在2001年在中国共产党建党80周年时已经明确地把马克思当年一再坚持的“每个人自由而全面的发展”作为我们核心的价值、核心的目标重新提了出来。这是多少年来，从苏联共产党到中国共

产党都不敢提的,叫“每个人”,而且是全面而自由的发展。这一届中共中央倡导科学发展观,一再强调“以人为本”。这次汶川大地震,真正彰显了什么是“以人为本”。温家宝总理提出来,要不惜一切代价,能挽救每一个人的生命。把中国普通人的生命,一下放到这么高的地位,确实彰显了生命的价值,人性的价值。“以人为本”,真正是把普通的老百姓当成历史的主体,当成社会的主体。当然,我们要真正达到这一目标,还有很长的路要走。但是在这样一个危难时刻,人的价值,得到这样大的彰显,就使得我们让历史学成为普遍性的人学有了一个比较好的成长环境。

现在,中国已经进入了一个人们直接与世界相联系的广大网络中,中国已经没有办法重新封闭自己。信息时代、网络时代最大的一个特点,就是让芸芸众生,他们的主体性能得到方便呈现。网络时代,最普通的人也可以在网络上发表自己的意见,可以表达自己的意思。一个脑袋左右所有人脑袋的时代已经过去了,历史不再是一两个人可以主宰的了。人民、最普通的老百姓作为历史的主体,在中国已经开始了。尽管前面要走的路还很长,从这个角度讲,我认为历史学作为普遍性的人学,它的未来应该是光明的。

당대중국사학: 帝王之學에서 普遍的 人學을 향하여

姜 義 華 (復旦大學校)

중국 당대사학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사학을 가리킨다. 이 30년 동안 중국사학의 가장 근본적 변화는 帝王之學에서 점점 보편적 人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로 4개의 문제를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30년 동안 중국 역사학은 진정한 의의에서 혁명이 발생했다. 과거 수많은 이들이 사학 위기를 말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언급되었던 것은 이 30년 동안 중국 사학의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둘째, 역사학을 보편적 人學의 주요 표현으로 간주한다. 셋째, 중국 사학의 변화 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상 충돌. 넷째, 사학이 보편적 人學 미래의 한 전망이 되는 것.

I

30년 동안 중국 역사학에는 진정한 의의에서 혁명이 발생했다.

사학 혁명은 여러 차례 이야기되었었다. 량치차오(梁啓超)가 20세기 초에 사학 혁명을 이야기했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될 때, 치번위(戚本禹)도 사학혁명을 논했다. 그러나 중국 역사학은 매우 오랫동안 帝王之學이란 점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역사학은 人學, 인간을 연구하는 것인데, 매우 오랫동안 역사학이 주로 관심 가졌던 것은 왕후장상과 통치자였다. 일반인, 많은 중생은 통상 모두 역사학 고찰 대상의 밖에 있었다. 량치차오는 20세기 초에 중국의 24사는 왕후장상의 家普이고 그 계보학이라고 했다. 실제로 과거 중국 전통사학은 『春秋』의 소위 “筆則筆, 削則削”에서 『史記』의 소위 “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계속해서 쓰마광(司馬光)의 『自治通鑑』에 이르기까지, 사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통치자의 집정을 위해 사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佐政之學, 自治之學이었으며, 통치자가 역사상의 통치 경험을 흡수하는 것을 도와서 자신의 통치를 수호하는 그러한 종류의 학문이었다. 24사류의 正史는 곧 이렇듯 일종의 통치자의 통치학설이다. 중국 전통 문화와 중국 전통 사상에서 正史는 가장 실천성이나 실용성을 지닌 학설이다. 20세기에 량치차오가 사학혁명을 말했던 것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뒤바뀐 역사를 다시 뒤바꿔내자”고 제기해냈던 데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역을 왕후장상에서 노예로 바꾸고 농민전쟁의 지도자로 바꾸어, 노예로 써 역사를 창조하여 영웅이 창조한 역사를 대신하려 하는 것은 모두 전통적 帝王之學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늘 형식을 가지고서 변환된 또 다른 帝王之學으로써 전통적 帝王之學을 대신할 뿐이다. 왜냐면 당시 사학의 핵심적 임무는 정권을 빼앗고 정권을 공고히 하는 데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소위 과거 역사에 대한

전북과 중국 고대 역사 및 근대 역사에 대해 재건을 진행했다. 근 30년 동안 중국 사학에서 역사학을 전통적 帝王之學, 정권을 탈취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봉사하는 학문에서 근대적 의의 혹은 가장 근대성을 지닌 보편적 人學으로 변화시킨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인 본질적 전환이었다.

바로 이러한 전환 때문에, 중국 사학에 참으로 혁명적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다.

30년 동안 역사학이 보편적 人學을 향해 나아간 것은 주로 이러한 두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전통적 역사학이 관심 가졌던 왕후장상, 영웅호걸을 점차 하나 하나 천상, 신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지상으로 오게 하고 사람 사이로 오게 하여 피와 살이 있고 감정과 욕망을 가진 생동감 있는 진짜 인간으로 환원하기 시작했다. 역사 인물을 신격화하거나 요괴화 하는 것에서 인간화로 전환하여 그들을 진정으로 보편적 인간,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환원함으로써 이전의 帝王之學을 대신했다. 30년 동안, 중국 사학에 발생했던 이러한 변화의 그 최초는 마오쩌둥(毛澤東)을 神壇에서 내려오게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의 정치 무대와 중국 정치 의식형태의 중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절대적 지배 지위를 차지했던 이 역사 인물을 신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한 것은 전체 역사 연구에 대해 매우 커다란 사상 해방의 역할을 했다. 수많은 역사 인물이 요괴화되거나 신격화되었던 것이 이로부터 모두 역사 연구 중에 그 본래 면목으로 환원되기 시작했다. 천두슈(陳獨秀) 및 “5·4” 신문화운동의 또 다른 총사령관인 후스(胡適)에 대해서처럼, 후스를 대표로 한 전체 현대 중국의 자유주의 단체에 대해, 소위 문화보수주의자로 간주된 수많은 역사 인물에 대해, 일찍이 역사 연구에서 잊혀진 몇몇 사람들에 대해, 비교적 실사구시의 연구를 했다. 량수밍(梁漱明)에서 천인커(陳寅恪), 구홍밍(辜鴻銘), 두야취안(杜亞泉)에서 쑹스리(熊十力), 마이후(馬一浮) 등등까지 모두 일시에 연구의 쟁점이 되었다. 반대로 오랫동안 우리가 신격화했던 역사상의 농민전쟁은 이제 그들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太平天國, 홍슈취안(洪秀全)은 중국 역사상 농민 전쟁의 최고 대표였는데, 특히 텐진(天京(南京)) 정권 건립 후의 진상도 왜곡하지 않는다. 요 몇 년 이 방면에 성과가 매우 많았던 덕분에 우리가 역사의 본래 면모를 회복하고 합당한 역사기억을 회복하게 되었다.

30년 동안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중요 인물의 신상에서 신격화된 색채와 요괴화된 색채를 지워버리는 방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작업을 했는데, 이는 역사에서 본래 면모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이미 우리에게 의해 역사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진면목을 새롭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했다.

II

역사학이 보편적 人學을 향해 간 것은 역사학이 자신이 주목하던 중점을 본래 제왕, 통치자를 위해 일하는 것에서 후에 무산계급독재를 공고히 하고 중국 공산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봉사하는 데 이르러, 인간 자체를 인식하고 인간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인간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대관절 어

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우리 인류가 무엇을 보유하고 전승하고 변혁하며 창조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어떠한 노선을 경유했는가에 근거한다. 사람이 어떻게 비로소 자신을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고 어떻게 현존 상황을 초월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갔는가를 명확히 가린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역사학 연구에서 관심을 쏟는 중점을 갈수록 인류 자신을 이해하고 전체 인류 사회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꾼 것이다. 이는 역사학자가 관심을 쏟는 대상, 연구의 영역이 이전에 비할 수 없이 확대된 것이라 하겠다.

우선 인간의 자연성이나 자연적 인간을 다시 새로이 사학의 연구 대상 속에 두었다. 예를 들어 人口史는 오랫동안 맬더스의 인구론을 반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사 연구를 하지 않았다. 요 몇 년 사이에 인구사는 새로운 쟁점이 되고 연구 성과가 매우 많이 출판되었다. 체질인류학의 연구는 이전에는 오로지 자연과학 연구였다. 새로 출판된 『李濟文集』에는 리지(李濟)의 박사논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는 가장 먼저 체질인류학의 각도에서 중국인을 연구했었다. 현재 대규모 사회조사를 하고 수많은 완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러한 연구 작업을 할 조건이 갖춰졌다. 최근 광범위하게 전개된 유전자 조사와 유전자 연구를 통해 중국 인종의 근원을 연구하고 南島 인종의 근원을 연구한 것은 모두 매우 성과가 있었다. 사람의 건강과 질병, 사람과 자연의 생태 관계, 생태사, 환경사, 자연재해사, 기후사를 포함하여 전염병사가 현재 매우 유행중이다. 원촨(汶川)대지진으로 사람들이 復旦大學 歷史地理研究所가 편찬한 中國地震歷史地圖(3卷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의 자연성,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과거 계급투쟁을 말하던 시대, 계급투쟁을 大綱으로 하던 시대에는 모두 역사 연구 시야 밖에 두어졌었다. 스탈린은 당시 『辨證唯物主義與歷史唯物主義』에서 자연환경의 변화, 지리환경의 변화가 인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했다. 마오쩌둥도 당시 이러한 관점을 견지했다. 따라서 매우 오랫동안 역사 연구는 이 부분 즉 사람의 자연성 연구를 포기했던 것이다. 현재 다시 고개를 돌려 이들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등한할 수 없다.

물론 가장 관심을 쏟는 것은 여전히 사회사다. 사람이 사람이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연히 사람이 사회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겨우 계급관계, 계급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서야 인간의 사회성의 여러 방면과 그 층차의 풍부한 내용에 관심을 쏟게 되었다. 사람은 각종 사회연계, 사회네트워크, 사회관계에 처해있다. 마르크스는 당시 사람의 본질은 사회관계의 총화라고 강조했는데, 오늘날에도 그것이 사람의 본질상 각종 사회연계, 사회 네트워크, 사회관계, 사회 활동 중에 체현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하이도서관은 중국 최대의 家譜 수장처인데, 요 몇 년간 혈연 네트워크, 가족사, 가정사, 혼인사 등등의 연구를 포함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연구 성과가 풍부하다. 지연 네트워크, 지연 관계는 地方史, 地區史, 同鄉史, 會館史 등등이 흥성한 것을 포괄하여, 갖가지 다양한 유형의 도시사, 향촌사, 구역사도 모두 지연 네트워크를 체현했다. 역사상의 권세 네트워크의 변화는 전에 없이 주목을 받았다. 지역사회 연구, 결사단체 연구, 각종 사회 군체 연구, 계급과 계층 연구, 국가 연구, 정당 연구, 민족 연구 등등, 黑社會, 幫會 등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 사회성의 다층적, 다원적 내함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매우 완전하고 매우

풍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다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지 않게 되었다.

셋째, 사람의 사유성에 매우 관심을 쏟게 되었다. 사람은 사유할 수 있는 동물이고, 인간 지식의 누적과 전수, 지식 구조와 학과 구성의 변화, 사람들이 다종다양한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고, 사람들의 사유방식과 관념 체계의 변화, 인간의 종교, 신앙, 일상적 사유, 일상적 풍속 습관 등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요 몇 년 간 하나 하나 새로운 연구 쟁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몇 십년간 “봉건사회” 개념, “봉건”이란 개념을 사용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개념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또 예를 들어 “혁명”과 같은 개념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고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저작물들이 최근에 꽤 출판되어 나왔다. 이것들은 모두 지성사(觀念史) 연구에 속한다.

실제로 요즘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중국 고대의 여러 가지 관념과 지식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세계 각 국가, 각국 인민, 그들의 핵심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근대 서구, 근대 동양,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 여러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 중국 근대 이래 여러 가지 지식과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에 대해 모두 엄청난 관심을 쏟았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들 문제가 모두 토론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既定前提라고 간주했다. 이제는 원래 이들 관념이 모두 특정한 조건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우리가 일단 그것을 다시는 토론하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이 기초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이 그 원래의 기초, 출발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간주한다면, 여기에서 전의해낸 일련의 지식, 관념은 매우 편향적인 경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다시 고개를 돌려 지식의 역사, 관념의 역사, 종교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새롭게 연구하여, 지식의 전수, 지식의 누적, 지식 구조의 형성과 변화로써 우리 자신을 다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사유성, 사유 특징, 사유 방식의 진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중요 구성 부분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 자체를 연구하는 방면에서, 사람의 물질 생활이나 물질 생산, 물질 소비에 점점 더 관심을 쏟았다. 사람이 사람으로 된 이유는 생산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의 역사도 있다. 다른 사회 성원, 그들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에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오랫동안 인간의 생활과 소비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그저 생산관계, 계급 투쟁만을 말했고 생산관계는 또 주로 약탈, 억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인간 생활의 이 커다란 내용은 기본적으로 잊혀지고 삭제되어 버렸다. 사회생활은 그 분야가 매우 많아서, 각종 다양한 층차와 영역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지구적 식량 문제에서 1949년 이래 사람들의 식량 공급, 식량 생산, 식량 소비의 상황이 현재 이미 연구 쟁점이 되었다. 식량의 생산, 식량의 수송과 전출, 식량의 공급, 식량의 소비, 식량의 각개 품종 등등은 비록 생활의 작은 한 부분일지라도 전체 사회 발전의 상황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의 정신생활, 사람들의 정신 생산과 소비 상황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역사가 사람의 知, 情, 意로 관심을 많이 돌리면서, 人性의 가장 근본 방면으로 연구 방향을 전향했다. 이번에 원촨 대지진은 전국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고, 人性 가운데 선량한 그 부분—사람의 지성, 정감, 의지, 평상시에는 잠재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일시에 모두 터져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의, 일반인의 지성과 이성의 발전 상황, 사람들의 감정과 심미의 변화 상황, 사람들의 의지와 심리의 발전 상황에 대해, 과거 우리 역사학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람들의 정신생활, 특히 대중의 일상적 정신생활은 요즘 연구의 쟁점이 되었다. 역사 인류학의 연구와 조사, 문헌 조사를 포함하여 대량의 구술 자료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남겨져진 각종 실물자료를 수집한 것은 역사 연구에 신천지를 여는 것이 되었다.

과거 계급성만을 말하던 때, 人性에 대해선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性善, 性惡의 문제, 사람에게 人性과 함께 남아 있는 獸性이나 動物性的의 관계 문제도 계속해서 회피해서는 안된다. 지난 날 역사연구에서 가장 보편적 민중의 정신생활 상태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실제로 역사는 비할 바 없이 풍부하다. 특히 현재 역사학과 인류학, 사회학 연구가 결합하여 민간에 보존되어 있는 수많은 각종 문헌 자료, 실물 자료, 구술 자료에 새로운 연구를 진행한 것은 우리가 인간 자체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 매우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역사는 더 이상 몇몇 영웅적 인물, 왕후장상, 지도자에 의해 주재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 하나하나 마다 역사상 모두 대치될 수 없는 지위를 갖는다. 역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창조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 존재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하부의, 가장 보통의 민중을 벗어난다면, 역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아날학파 이래, 사람들은 사회의 최기층 방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역사유물주의를 이야기했을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관심은 가졌던 중점은 여전히 몇몇 지도자, 위대한 인물이었다. 근 30년의 역사연구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홀시되었던 가장 보통의 대중과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사회성, 그들의 사유성, 그리고 그들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모두 역사의 시야에 들어왔고, 이는 전체 역사학이 이전에 비해 매우 확대된 연구 공간을 갖추게 된 것이며 또 연구 방법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30년 동안 중국 역사학에 진정한 의의의 그리고 혁명적 변화가 발생했던 가장 주요 방면이다.

III

역사학의 전환은 결코 궁극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전환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30년 동안 역사학계에서는 사상상의 충돌, 학술상의 충돌이 계속해서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를 문제를 둘러싸고서 전개되었다.

첫째, 사학 연구 가운데, 한 학파가 계속 최고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면이든 아니면 진정으로 백가쟁명을 형성한 방면이든 실제로는 매우 커다란 갈래가 존재한다. 30년 동안 역사학은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교육학, 심리학, 자연과학 등등을 포함하여 학제간 연구를 대량으로 전개하여 백가쟁명이란 커다란 구조의 형성을 촉진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한다. 그런데 무엇이 마르크스주의인가? 실제로 스스로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태껏 마르크스 본인의 저작을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연구하진 않았다. 사람들의 마르크스에 대한 이해는 오랫동안 스탈린과 『取共(布)黨史教程』에 근거했

다. 매우 많은 이들이 『取共[荀]黨史教程』와 스탈린의 마르크스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 마르크스 본인의 저작과 사상을 대신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단지 소련 일파를 알았고, 뒤에는 다만 마오쩌둥 본인의 해석이 마르크스주의가 될 뿐이었고, 다른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세계에 몇 개의 마르크스주의 분파가 있는가? 1985년 중국사회과학원장 후성(胡繩)은 백가쟁명 하려면 마르크스주의자는 非마르크스주의, 심지어 反마르크스주의에서라도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비마르크스주의, 반마르크스주의가 역사 연구 중에서 스스로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어떤 진리의 알갱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후성의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의 눈에 실로 대역무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치다. 그렇지 않다면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생겼겠는가? 마르크스 본인이 직접 수많은 비마르크스주의, 심지어 반마르크주의 관념 안에서 양분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 훗날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왜 못하겠는가? 오늘에 이르러 몇몇 이들이 줄곧 마르크스주의 해석을 농단하려 하는데, 계속해서 한 학파만을 숭숭하고자 하거나 재건하려는 국면은 실제로는 그들 자신만을 숭상하는 것이고, 머리 하나로 13억의 머리를 대신하려는 것이며, 일군의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 무엇이 진정한 역사 과학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농단하는 것이다. 어느 역사학자가 나의 견해야말로 역사의 정론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자료가 계속 나타나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운용하며 연구자들이 줄곧 부단히 연구하고 논쟁을 진행하니, 역사 자신의 발전은 곧 자기 진보 과정 중에 이전에 감춰져 있던 수많은 영역을 차츰차츰 뚜렷이 나타내 보일 것이다. 어느 역사학자도 그 수준이 참으로 높은 것과 관계없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농단해서는 안된다. 이 배후의 문제는 사실 역사 연구가 역사의 진실을 존중하기를 웅당 일순위에 두는 것이거나 혹은 어느 한 관점을 존중하거나 어느 한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농단을 일순위에 두는 것이다.

둘째, 수많은 비이성적 금지구역의 설정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혁사, 문혁과 관련된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기본적으로 금지구역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금지구역이 있는데, 이들 금지구역의 배후는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과거에 잘하지 못한 부분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좋은 말은 지금 모두 할 수 있지만,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려는 것은 매우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겠는가? 잘못된 일을 많이 이야기하고 과오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우리 당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우리 집권의 합법적 기초의 건립과 공고함을 손상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금지구역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 기억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비이성주의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 시대에 들어섰다. 이러한 네트워크 시대에 정보의 양이 이렇게 많고 전파가 이렇게 빠르며, 특히 국내외에서 대량의 당안을 공포하고 수많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며, 국내외 학술 교류가 이렇게 광범하고 이렇게 빈번하며 이렇게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일종의 금지구역을 설치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며, 금지구역은 자기를 봉쇄하고 자기를 기만하며 자기를 몽매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이 도리어 진정으로 자기 집권의 합법적 기초에 위협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로 개방적 심태를 가질수록

역사 연구와 역사학의 발전에 대해 유익하게 되고, 집권자에 대해 말해자면 자신의 집권을 이성적 기초 위에서 확고하게 확립하고 가장 광범한 인성 기초 위에 확립하며 실사구시의 과학 기초 위에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위 본토화와 서구화의 문제. 30년 동안 중국은 전통적 농경문화에서 현대문명으로 변화했는데, 바로 중국 자신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소련 모델을 모방하려 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농업 현대화 발전의 길에서, 캐나다 모델, 일본 모델, 미국 모델, 심지어 루마니아 모델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고찰해보았는데, 훗날 모두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국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야 했다. 역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이들이 우리가 田盤西化를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걱정했다. 서구화는 최대의 문제인가 아닌가? 30년 동안 우리는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대문을 열었고 외부세계와 빈번히 접촉했으며 평등한 대화를 시작했고 세상 가치에 대해 매우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 국외 사학연구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유파, 그들의 새로운 관점은 우리의 눈을 크게 띄워줬고,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수많은 사유들 모두가 이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갔던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새롭게 사고할 수 있게 해줬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우리 사학계의 사상이 특히 활약하고 연구 성과가 특히 다양했던 것은 결코 전반서화가 아니라 역사학이 진정으로 자기 봉쇄의 상태에서 빠져나왔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통적 帝王之學을 보편적 人學으로 진정하게 변환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매우 많은 이들이 본토화와 서구화를 대립시켰다. 사실, 중서 문화의 교류 융합과 빈번한 접촉 충돌 논쟁 사이에서만 우리의 시야를 개척할 수 있고 우리의 사상을 진일보 해방시켜 중국 정세에 맞는 새 시대 중국의 신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다. 역사학이 보편적 人學이 되려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 이는 중화문명의 계승과 발전에서, 세계 각종 문명의 광범한 대화와 교류 및 우리들 자신의 진지한 반성과 재창조 안에서야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넷째, 사학연구와 전환 사이에서, 우리 정치권력의 전능화가 사학 연구, 사학 변화에 여전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이 다시 일련의 충돌을 일으켰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 역사 연구를 포괄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에 대해 모두 계량화된 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이를 가지고서 우리의 역사 연구 전체를 제약, 검사한 것이다. 이는 물론 연구를 상당히 촉진하기도 했는데, 계량화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학풍이다. 그 다음 역사연구와 치적, 형상이 함께 연결되어 수많은 공정을 했다. 학술 공정화는 좋은 것이 있는데 매우 크게 일부분선을 집중하여 원래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낸다. 그러나 공정화도 불리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규모를 견주고 진도를 다그치며 사람을 수고롭게 하면서 재능을 상하게 한다거나 화려하지만 내실은 없는 것이다. 다음은 바로 경비 배치 문제인데, 우리들의 “學而優則仕”, 관본위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학 인재가 연구 경비를 매우 풍부하게 획득하는 데 유리하지만, 사학 연구 중에 특출한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침잠하여 연구하길 원하여 과제를 신청하길 원치 않고 이런 저런 관의 제약을 받길 원치 않으며 대량의 양식에 써 넣는 걸 원치 않는 연구자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확실히 사학 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오랫동안 묵묵하게 노력한 일군의 학자들이다.

IV

중국 사학은 보편적 人學 미래의 전망이 된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우리 사학 연구는 크게 진보했을지라도 곤경도 매우 많았는데, 논쟁도 끊이질 않았고 또 장애도 매우 많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역사학연구에서 사학이 보편적 人學이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이미 뒤집기 어려워졌고 할 수 있다. 장쩌민(江澤民)은 2001년 중국공산당 건당 80주년 때 이미 명확하게, 마르크스tm가 당시 수차례 견지했던 “사람 하나하나가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의 핵심적 가치, 핵심적 목표가 됨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는 오랫동안 소련 공산당부터 중국 공산당까지 모두 감히 제기할 수 없었던 “사람 하나하나”가 또한 전면적으로 자유롭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 1차 중공중앙에서 과학발전관을 제창하고 다시 “以人爲本”을 강조했다. 이번 원촨 대지진은 무엇이 “以人爲本”인지를 진정으로 뚜렷이 보여줬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제기하고 어떠한 대가도 아깝지 않다고 한 것이 사람 하나하나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 중국 보통 사람의 생명을 일시에 이렇게 높은 지위로 놓은 것은 생명의 가치, 人性의 가치를 확실히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다. “以人爲本”은 진정으로 일반 국민을 역사의 주체로 삼은 것이고 사회의 주체로 삼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기나긴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험난한 때,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크게 분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학을 보편적 人學이 되게 하는 데 비교적 좋은 성장 환경을 갖게 해준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미 사람들이 직접 세계와 서로 연계를 맺는 광대한 네트워크에 진입했고, 중국은 이미 다시 자신을 봉쇄할 방법이 없다. 정보 시대, 네트워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수많은 중생이 그들의 주체성을 편리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네트워크 시대, 가장 보통의 사람도 네트워크 상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좌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역사는 다시는 한 두 사람이 주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민, 가장 보통의 국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중국에 이미 시작되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라도, 이 각도에서 말해서 우리는 역사학이 보편적 人學이 되고 그 미래는 반드시 빛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Chinese Historiography in the Global Age: from the Art of Rulership to the Study of Universal Humanity

JIANG Yihua

The Global Age is a time when capital, labor, knowledge, technology, information and resources are rapidly exchanged in a worldwide market, when material and spiritual production in every country, every region depends on and permeates into, but at the same time compete fiercely with each other in a global arena, when many trans-international corporations, organizations, international activities, international order and rules have already claimed priority over the nation, the region or the ethnic group, or are attempting to do so. It is also a time when the life and activity of every individual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outside world through the global market and the Internet, and thus enabling the individual to achieve self-fulfillment, a time when environmental crisis, ecological crisis and natural resources crisis have threatened the very existence and self-fulfillment of man through over-exploitation. It is the interactions of all these factors that highlights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and human value. Of all previous ages none had put the life and value of every man into such a prior position. It can therefore be said that human life, human rights, human value, and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man are discovered, recognized, confirmed and protected. This is the greatest achievement and most outstanding feature of the Global Age.

It is against this background that this paper attempts a brief review of Chinese historiography in the Global Age, that is, historical studies in the last thirty years when China has opened itself to the outside world and carried out a series of profound social,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reforms. As the Chinese society has been witnessing an unprecedented transformation, Chinese historiography has also been shifting its focus from the art of rulership to the study of universal humanity.

In its long tradition Chinese historiography had been mainly concerned with the nobility, the rulers, and their activities. The common people were virtually ignored as a historical subject. From the earliest historical work, the *Chunqiu* (*Spring and Autumn Annals*) which set down the principle of “recording what should be recorded, and omitting what should be omitted”, to the *Shiji*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written in 109-91 BC) which aims “to explore the interactions between heaven and man, and to understand the changes between ancient and modern times”, to the *Zizhi tongjian* (*Comprehensive Mirror to Aid in Government*, written in 1065-1084),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historiography was to provide guidance to rulers. History had thus become the art of rulership, an aid to government. Its aim was to help rulers and the ruling class to learn from the past in order to maintain their own control.

In the twentieth century, when Chairman Mao Zedong called for “subverting again history that had been subverted”, his aim was to break the tradition of Chinese historiography, to substitute slaves, peasants, and peasant leaders for the nobility and rulers as historical subjects, and to replace the view

that history was created by heroes with the idea that history was created by slaves. However, in Mao's time the main task of historiography was still to serve the cause of revolution and to strengthen the newly founded communist government. The subversion of history and the reconstruction of ancient and modern Chinese history were centered round this central task. It is only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that Chinese historiography has begun its transformation from the traditional art of rulership and instrument of government to a genuine modern discipline with its focus shifted to man himself. This is a true revolution in Chinese historiography.

This transformation is most clearly manifested in that historical studies have turned to understanding man himself, his nature, the value of his existence, the origins and future of the human kind, his modes of production and life, to examining what man creates, maintains, inherits, and reforms, on what basis and through which ways, and to exploring the ways of man's self-fulfillment and future development. To be more specific, historians have begun to pay due attention to the natural attributes of man and his relations to the natural world, both of which were largely ignored in the past. Secondly, studies on human society have turned from emphasizing class division and struggle to all forms of social relations, networks, and social activities. This include the study of kinship networks such as the family, the clan and marriage, of geographical networks such as local history, area history, countrymen associations, urban history and rural history, and of power networks such as various communities, associations, social groups, classes, nations, political parties, ethnic groups, even underground mafias. All of these have rendered a much fuller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and multi-facets of human society. Thirdly, much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human thinking and human ideas. Issues concerning the accumulation and transmission of knowledge,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knowledge and disciplines,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various ideas, as well as religion, beliefs, customs have become focuses of study.

In understanding man himself historians have been giving more weight to his material life, that is, his materi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r many years man's life and consumption had not been seriously studied as the focus of attention was on the relations of production, especially exploitation, oppression and class struggle, and man's livelihood had been largely ignored as a field of historical study. The situation has been reversed in the last thirty years and man's material needs are recognized. Moreover, man's spiritual life has also been emphasized, and historians have directed more energy to study the fundamental aspects of humanity including man's cognition, feelings and senses. In particular the study of common people's spiritual life has become a new development, which is an indication that history is no longer thought to be dominated by heroes, kings and leaders. Every individual has his position in history that cannot be displaced. History is made by all people together and it is here that the meaning of human existence lies. Separated from the common people history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 the common people, their thinking, their life, their social activities, their material and spiritual life becoming subjects of study, history has gained a far greater scope, and the methodologies adopted are far more varied. This is the most outstanding aspect of the Chinese historiographical transformation in the last thirty years.

Today China is already part of a wider network in which all people are directly connected to each other, and it is no longer possible for China to close itself from the outside world. The greatest advantage of the age of the Internet and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that they enable the common people to manifest their subjectivity. Even the ordinary people can publish their views and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The time that one or few persons maintain control is gone, and the age that the common people are the subjects of history has come in China. Although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s, I believe that history as the study of universal humanity has a bright future.

晚清中国阐述“亚洲”所延续的 “历史记忆”

— 兼论作为“他者”的日本与朝鲜 —

■ 章 清 (復旦大學校) ■

晚清中国阐述“亚洲”所延续的“历史记忆”

— 兼论作为“他者”的日本与朝鲜 —

章 清 (復旦大學校)

—〈目 次〉—

I. “天下”：缺席之“亚洲”	IV. 作為“亚洲”的中國
II. 世界構成中的“亚洲”	V. 日本、朝鮮作為“他者”
III. 來自日本的“東洋史”	VI. 餘論

本文擬探討晚清中國闡述“亚洲”所延續的“歷史記憶”。有關晚清中國對“亚洲”的闡述，論者已多有所論，不過問題主要圍繞“亚洲”本身，尤其是對照於日本展開。¹⁾ 依拙見，檢討晚清中國對“亚洲”的闡述，或有必要置於晚清認知“世界”的歷史長程加以考察，畢竟“亚洲”的言說是在從“天下”到“萬國”的轉換中凸顯的；同時，晚清認知“亚洲”的“他者”——朝鮮與日本，也需結合起來考察。不惟如此，審視這些問題時，還需要超越個別思想人物的言論，關注其他文本。本文即試圖依託延續“歷史記憶”的特殊媒介形式——“策問”及教科書，以此來呈現朝鮮與日本作為“他者”的“形象”。“歷史記憶”在晚清被喚起，算得上事出有因。遭逢“三千年來所未有之大變局”，使“記憶”的“倉庫”廣為開啟，並明顯受兩個因素的主導，一是由“反滿”所催生的恢復漢族的記憶；一是外來因素開啟的關乎中國歷史的記憶。對這些問題的探討，都有俾揭示中國歷史記憶延續的一些面向。²⁾ 將“外來因素”具體到“亚洲”意識的催生，並且關注於特殊的媒介，審視晚清中國“歷史記憶”如何延續，或能獲得新的視野。這裡的關鍵是，無論是“策問”還是“教科書”，都具有特殊意味。“策問”是參與國家考試時的答卷，無論是設“問”者還是應“策”者，大致都恪守於官方意識形態；教科書同樣是體現國家意志的產物。基於此，“歷史記憶”之延續如何構成晚清思想演進的象徵，也隨之得以“呈現”。重要的是，“傳統”或“歷史”是如何“發明”的，“歷史記憶”以怎樣的方式延續？³⁾

1) 這方面的研究參見葛兆光，《想像的和實際的：誰認同“亚洲”？——關於晚清至民初日本與中國的“亚洲主義”言說》，《臺灣大學歷史學報》，2003年第30期。最新的研究參見孫江《“東洋”的變遷——近代中國語境裡的“東洋”概念》；黃東蘭《“亚洲”的誕生——近代中國語境裡的“亚洲”概念》，均收入孫江主編《新史學(第二卷)——概念·文本·方法》，北京中華書局，2008年，頁3-26，27-46。

2) 王汎森分析了清末歷史記憶的復活，以及服制等生活傳統之隱而復現，如何影響到以章太炎為代表的一群知識份子在現實政治上的選擇。沈松橋則透過晚清知識份子對中國“民族英雄”系譜的建構，討論了歷史書寫與國族想像的關係。參見王汎森《清末的歷史記憶與國家建構——以章太炎為例》，《思與言》第34卷第3期，頁1-18，1996年9月；沈松橋《振大漢之天聲——民族英雄系譜與晚清的國族想像》，《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第33期，頁77-158，2000年6月。

3) Eric Hobsbawm and Terence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revised edition, London: Verso, 1991).

I. “天下”：缺席之“亞洲”

問題仍需從所謂的“天下”說起。孟子嘗謂，“諸侯之寶三：土地、人民、政事。”⁴⁾ 不可否認，在中國傳統資源中，也包含著對政治秩序的安排。今人解其意，即指出“這至少在形式上已接近西方政治學上以土地、人民、主權來界定‘國家’的說法。”⁵⁾ 然而，“天下”、“中國”與“四夷”的區分，又意味著這與現代社會界定“國家”的區別所在。⁶⁾ 這在顧炎武(1613-1682)《日知錄》關於“亡國”與“亡天下”的著名論辯中，已有清楚闡述：“有亡國，有亡天下。亡國與亡天下奚辯？曰：易姓改號，謂之亡國。仁義充塞，而至於率獸食人，人將相食，謂之亡天下。……是故知保天下，然後知保其國。保國者，其君其臣，肉食者與謀之；保天下者，匹夫之賤與有責焉耳矣。”⁷⁾ 這段被廣為徵引的話，確有其重要性，強化了“道尊於勢”的理想，體現出讀書人關於中國文化高於朝代興替的看法。陳寅恪(1890-1969)也注意到，每當朝代更迭，身逢其間的士人，其“品行之隆汙”與“學術之歧異”，或不可以一概而論，然其“心意中有一共同觀念，即國可亡，而史不可滅。”⁸⁾ 這也正如論者所強調的，古代中國主要“將中國看成一文化體系，而不是一定的政治疆域”，過去的“天下”一詞也具廣狹二義，分別對應著今日意義的“世界”和“中國”。⁹⁾ 錢穆(1895-1990)在論述“國”與“天下”的文字中，還將此區分為“心胸之知”和“耳目之知”。¹⁰⁾

無論如何解讀，“天下”在中國文化裡是有其象徵意義的，並且與士大夫的角色與身份緊密聯繫在一起。所謂“天下有道”，正構成了士大夫的精神憑藉和立言基石。由此檢討晚清在新的語境下對“天下”的論辯，也有相應的基礎。

接下來會討論到晚清科舉改制中強化了的考試體裁“策問”，不妨做些補充。“策問”乃早已有的體裁，其歷史甚至比科舉還要早。從歷代狀元殿試中，就不難發現其中以“天下”立說的情形。所謂“偃武修文”、“德化天下”之類，正說明“天下”所具有的文化意義。可以看到，儘管“策問”中涉及具體論述“天下”的內容並不多，但其呈現方式還是頗為突出的，這更說明儘管何謂“天下”不甚了了，“天下”也並非地理知識上的存在，但“天下”所具有的文化象徵意義，卻成為帝王言說的核心。所謂殿試策問，除了以“奉天承運，皇帝制曰”開篇外，往往都有這樣大同小異的表示：“朕紹承大統，撫禦萬邦”，或者說：“朕寅紹丕基，撫綏寰宇”，“朕寅承洪緒，統馭寰區”。儘管用詞有所不同，卻都要表達這樣的意思，一是其權力來源的統緒，二是強調其統治範圍。這樣，“天下”（或者是“寰宇”、“萬邦”之類的字眼），也成為一種象徵。而且，不單帝王關切於此，在此引導下，士人對此的認知也

4) 《孟子·盡心下》。注曰，“諸侯正其封疆，不侵鄰國，鄰國不犯，實土地也。使民以時，民不離散，實人民也。修其德教，布其惠政，實政事也。”見焦循，《孟子正義》，北京中華書局，1987年，頁1001。

5) 參見余英時，《國家觀念與民族意識》，收入氏著《文化評論與中國情懷》，臺北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1990年，頁18。

6) 葛兆光結合各種地圖，揭示了關於“天下”的想像及對“中國”的認知。見《天下、中國與四夷——古代中國世界地圖中的思想史》，《學術集林》第16卷，上海遠東出版社，1999年。

7) 顧炎武，《日知錄》卷十三，“正始”，此據黃汝成《日知錄集釋》，長沙岳麓書社，1986年，頁471。

8) 陳寅恪，《吾國學術之現狀及清華之職責》，《陳寅恪集·金明館叢稿二編》，北京三聯書店，2001年，頁361-63。

9) 參見邢義田，《天下一家——中國人的天下觀》，收入劉岱總主編《中國文化新論·根源篇》，臺北聯經出版公司，1981年，頁425-478；羅志田，《先秦的五服制與古代的天下中國觀》，《學人》，第10輯，1996年9月。

10) 其言曰：“余幼時備聞國人譴責古人，謂其閉關自守，不知有天下，而妄謂國之外有天下。但如中國之萬里長城，固可謂其閉關自守，然終不得謂中國古人不知長城外之有異民族同居此天下。唯能於天下內閉關自守，則乃中國文化之長處，而非中國文化之短處。豈西方之帝國主義資本主義所能比。若謂中國古人不知有西歐，則此乃耳目之知，非心胸之知。當時之西歐人，又豈知有中國。”見錢穆，《晚學盲言·國與天下》（上），《錢賓四先生全集》，臺北聯經出版公司，1998年，第48冊，頁418。

是如此。¹¹⁾ 不過, 透過 “狀元策” 對 “天下” 的闡述不難看出, 以 “天下” 設問, 更多是一種習慣性的姿態, 除了有關於特定時期的 “邊靖”, 鮮少實質性的內容, 只是符合所謂的 “治道”。儘管是 “策問”, 與八股文也未必有什麼不同。在晚清科舉考試中, 也不乏這方面的題目, 譬如, 光緒六年庚辰科(1880年)會試卷 “欽命四書詩題” 第二題即為 “柔遠人, 則四方歸之, 懷諸侯, 則天下畏之”。此為出自《中庸》的題目, 所收王詠霓(1839-1916)、沈曾植(1850-1922)等人的答卷, 就顯示出受制於八股文的程式, 鮮少新的氣息。¹²⁾

強調 “天下” 構成言說的中心, 並無意否認傳統中國缺乏對於其他 “國家” 與 “民族” 的認知。《史通·二體篇》言及《春秋》有這樣的話: “夫春秋者, 繫日月而為次, 列時歲以相續, 中國外夷, 同年共世, 莫不備載其事, 形於目前。” 書寫周邊民族乃至國家的歷史與文化, 也算得上中國史書的一個傳統。各代史書大多以 “列傳” 或 “志” 的形式, 介紹了其他民族乃至國家的情況(主要偏重周邊國家, 特別是有貢屬關係的國家)。清初所修《明史》, 西方國家也進入史書的書寫。“列傳” 方面,《土司》、《西域》之外, 還包括有《外國》列傳。只是, 大致說來, 中國主要是援據相關歷史資源 “想像” 關於世界的知識。以《明史》來說, 儘管當時已接受 “天下有五大洲” 的知識, 然而, 卻未必相信。內中寫道:

萬歷時, 其國人利瑪竇至京師, 為《萬國全圖》, 沿天下有五大洲: 第一曰亞細亞洲, 中凡百余國, 而中國居其一; 第二曰歐羅巴洲, 中凡七十余國, 而義大利亞居其一; 第三曰利未亞洲, 亦百余國; 第四曰亞墨利加洲, 地更大, 以境土相連, 分為南北二洲; 最後得墨瓦臘尼加洲為第五, 而域中大地盡矣。其說謊渺莫考, 然其國人充斥中土, 則其地固有之, 不可誣也。¹³⁾

所謂 “其說謊渺莫考”, 正揭示出關於世界地理的知識難以被接受的緣由, 這已超越中國本土援據相關歷史資源所能進行的 “想像”。然又指出 “其國人充斥中土, 則其地固有之, 不可誣也”, 則表明轉變是如何發生的, 畢竟中西之間通過人員往來發生的實實在在的溝通, 已難以否認。但總的說來, 所謂 “六合之外, 聖人存而不論” 的觀念, 還是有很大影響; 相應的, 關於世界地理方面的知識, 也被種種難以征實的 “想像” 充斥著。至中外發生直接交往, 這種局限性就表現出來。如姚瑩(1785-1852)所批評的, “自來言地理者, 皆詳中國而略外夷。《史記》、《前後漢書》凡諸正史外夷列傳, 多置不觀, 況外夷書乎?”¹⁴⁾ 在這個意義上, 指出 “天下” 觀主導下 “亞洲” 的缺席, 或不為過。

II. 世界構成中的 “亞洲”

用不著特別指明, 所謂 “亞洲” 圖景的塑造, 來自耶穌會傳教士的 “援西入中”。利瑪竇(Matteo Ricci, 1552-1610)明萬曆十年(1582)奉派來中國。除了傳教外, 還進行了天文、算學知識的傳播工作, 繪製了十餘幅世界地圖。圖中繪有當時已知的世界五大洲: 歐羅巴、利未亞、亞細亞、南比亞墨利

11) 參見鄧洪波、龔杭雲編著,《中國狀元殿試卷大全》, 上海教育出版社, 2006年, 上下冊。

12) 顧廷龍主編,《清代硃卷集成》, 臺北成文出版社, 1992年, 45-50冊。其中王詠霓此題答卷見45冊, 頁201-204; 沈曾植此題答卷見46冊, 頁261-264。

13) 見《明史·外國傳》卷三二六, 頁929, 此據《二十五史·明史》, 上海古籍出版社, 上海書店出版社, 1986年, 頁8703。

14) 姚瑩,《華外夷地理書》(《康輶紀行》卷九), 見《中復堂全集》,《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 臺北文海出版社, 1981年, 第6輯, 頁3309。

加、墨瓦臘泥加。¹⁵⁾ 地圖之外，成書于明天啟三年(1623)的艾儒略(Jules Aleni, 1582-1649)所著《職方外紀》，是最早一部用中文編寫的世界地理著作，內中包括：卷一，亞細亞洲；卷二，歐羅巴洲；卷三，利未亞洲；卷四，亞墨利加洲、墨瓦臘尼加洲；卷五，四海總說，介紹了五大洲各國的風土、民情、氣候、物產。“亞細亞總說”這樣寫道：“亞細亞者，天下一大洲也，人類肇聲之地，聖賢首出之都”，“其大者首推中國”。還給出了中國在亞洲之地位：“中國則居其東南。自古帝王立極，聖哲遞興，聲名文物禮樂衣冠之美，與夫山川土俗物產人民之富庶，遠近所共宗，仰其北極。”¹⁶⁾ 上述對“亞洲”的描繪，不無讚美之辭，然對照卷二之“歐羅巴總說”，可見其中的意味。內中寫道：“天下第二大洲名曰歐羅巴。……凡歐羅巴洲內大小諸國，自國王以及庶民皆奉天主耶穌正教，纖毫異學不容竄入。”突出“歐羅巴諸國皆尚文學。國王廣設學校，一國一郡有大學、中學，一邑一鄉有小學。”而且，“其諸國所讀書籍，皆聖賢撰著，從古相傳，而一以天主經典為宗。即後賢有作，亦必合于大道，有益人心，乃許流傳國內。”¹⁷⁾ 對比起來，主要強調歐洲在尚學與信仰上的特出之處。

應該說，將中國定位于“亞洲”，對中國士人的衝擊還是頗大的。葉向高(1559-1627)《〈職方外紀〉序》寫道：“泰西艾君乃復有《職方外紀》，皆吾中國曠古之所未聞，心思意想之所不到。”而且“其言皆鑿鑿有據，非汪洋謬悠如道家之諸天，釋氏之恒河、須彌，窮萬劫無人至也。”瞿式穀《職方外紀小言》也指出：“嘗試按圖而論，中國居亞細亞十之一，亞細亞又居天下五之一，則自赤縣神州而外，如赤縣神州者且十其九，而淺淺持此一方，胥天下而盡斥為蠻貉，得無紛井蛙之誚乎！”¹⁸⁾ 李之藻(1565-1630)《刻職方外紀序》還特別提到：“地如此其大也，而在天中一粟耳，吾州吾鄉，又一粟中之毫末。”¹⁹⁾

這裡清楚顯示“亞洲”言說對中國之意義——“亞洲”構成破解“天下”的利器。只不過是“亞洲”之一部分，何言“天下”。不過，所謂衝擊，仍是在部分士人中發生，耶穌會士帶來的地理新知，難以被更為廣泛的層面接受。《四庫全書總目》介紹到《職方外紀》，雖承認其“所紀皆絕域風土，為自古輿圖所不載”，卻表示“所述多奇聞不可究詰，似不免多所誇飾”。介紹到利瑪竇《坤輿圖說》更有意思，認為其中所記與東方朔《神異記》和周密《癸辛雜識》等書“全與相合”，因此“疑其東來以後，得見中國古書，因依仿而變幻其說，不必皆有實跡”。²⁰⁾ 馬噶爾尼(George Macartney, 1733-1806)使華，在中文世界傳遞的，也是天朝如何“撫有四海”；遠在重洋的外夷，又是如何“傾心向化”，“萬國來王”。

繼耶穌會士之後，主要是新教傳教士擔當知識傳播的工作。按照學者的揭示，來華耶穌會士為了緩和中國官僚學者對基督教的恐懼和不信任，努力傳播了歐洲的“神話”和“神話歷史”，中西文化最初的接觸實包含中國為世界中心與耶穌會士的歐洲神話的交鋒。²¹⁾ 此時，西方所具有的“強勢”意味，尤甚往昔。或許僅是堅船利炮，就足可賦予西方知識特殊意味。實際上，這一時期對亞洲的闡述，就有所區別。慕維廉(William Muirhead, 1822-1900)《地理全志》卷一“地理總志”之“亞西亞全志”這樣寫道：“亞西亞為五洲之最，其內山嶺環繞，高原曠野，人文萃聚，物類紛繁，氣候冷

15) 利瑪竇在《坤輿萬國地圖》的注釋中指明“以地勢分輿地為五大洲”，該圖繪製於1602年，禹貢學會1936年發行。“墨瓦臘泥加”乃想像中的大陸。

16) 謝方，《職方外紀校釋》，北京中華書局，1986年，頁32-33。

17) 謝方，《職方外紀校釋》，頁69-70。

18) 葉向高，《〈職方外紀〉序》；瞿式穀，《〈職方外紀〉小言》，見謝方《職方外紀校釋》，頁9-10，13-14。

19) 李之藻，《刻職方外紀序》，《天學初函》，臺北學生書局，1965年，(三)，頁1269。

20) 參見《四庫全書總目》卷七十一“史部·地理類四”，《職方外紀》條，《坤輿圖說》條，北京中華書局，1983年，上冊，頁632-34。

21) 陳明生，《南懷仁來華耶穌會士的地理學著作(1584-1674)》，魏若望編《南懷仁——魯汶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1年，第123-36頁。

熱適宜，田土腴瘠不等。”但在其中之“政論”部分，言及“學俗”卻這樣表示：“洲內學俗，優絀不同。昔時為五州靈敏之最，今則大抵衰微頹敗。”而在“歐羅巴洲全志”之“政論”部分，“學俗”已改稱“學藝”，強調“洲內學藝精備，為五州之最。”²²⁾此外，艾約瑟(Joseph Edkins, 1823-1905)所譯“西學啟蒙十六種”，其中的《希臘志略》、《羅馬志略》、《歐洲志略》等史志方面的著作，也強化了對“歐洲”的讚譽。《歐洲志略》一書就主要表達歐洲何以強盛，“自中朝之道光初年來，歐洲之大局變易，較前尤甚，至近三十年中，則其局態之變易極矣。”總之，“今歐地諸國政治，較前適宜，民皆愈得自主。而百工技藝，日異月新，信為上世所未有，亦盛矣哉。”²³⁾尚可補充《泰西新史攬要》一書闡述的看法。李提摩太(Timothy Richard, 1845-1919)在譯序中即強調了，中國曾經“巍然高出於亞洲為最久之大國，而聲名之所洋溢且遠及於他洲”，然而，“沿至今日，竟不能敵一蕞爾之日本，誰之咎歟，誰之咎歟！”²⁴⁾

透過新教傳教士創辦的刊物，大略可瞭解相關論述的轉換是如何發生的。《遐邇貫珍》言及中外，主要使用“中土”及“泰西”、“列邦”、“外邦”、“西邦”，也使用“天下”、“瀛寰”包容中外。在傳播新的地理知識的同時，還針對中國的相關見解提出質疑。《遐邇貫珍》曾撮要刊登慕維廉所著《地理全志》，其編者按就指出：“嘗考中國地理志書，卷軸無幾，其中所載，未盡詳明，且所紀者，大半隻屬中土偏隅，而乃名其書曰，天下地輿，未免小之乎視天下矣。”²⁵⁾不可否認，“天下萬國”的表述，就外人而言，同樣包含著自我價值維護的因素，往往是基於宗教的“普世性”來傳遞天下一家的情懷。《遐邇貫珍》在一篇文字中就指出：“或曰：各國風俗不同，則各國各從其教，斯可矣。然餘則以為人皆同類，教當同宗，合萬國為一天父之赤子，且為元始考批二人之裔苗，本當崇信一道，方可敬迓帝眷，而集天休。”²⁶⁾隨後“萬國”之意，才逐步落在超越宗教的“普遍性”的表達上，如丁韞良所譯之《萬國公法》，其《凡例》就特別指出，“是書所錄條例名為萬國公法，蓋系諸國通行者，非一國所得私也。又以其與各國律例相似，故亦名為萬國律例云。”²⁷⁾

略為梳理來華西人傳播的關於世界地理的知識，檢討晚清中國對相關知識的接受過程，也有了相應的基礎。這其中尤值重視的是，中國本土是基於怎樣的背景接納相關的知識，對此略作分析，當能瞭解接受“天下萬國”的緣起及困局所在。馬西尼(Federico Masini)謂“萬國”一詞首出於1854年羅森之《日本遊記》，恐不確。²⁸⁾其實“萬國”之名，在中國只是平常的表述，《易·乾》即有“首出庶物，萬國咸寧”的表述，杜佑《通志總序》尚有“萬國殊途，必通諸夏”的提法。值得重視的是，所謂“萬國”在中國古代文獻中同樣表述為“萬邦、天下、各國”，但與“諸夏”對舉，無疑是強調“諸夏”高於“萬國”。問題的複雜性還在於，儘管中國士人逐步接受了“天下萬國”，但所謂的“萬國”，究竟何所指，卻不無可議之處。²⁹⁾相較而言，斯時中國士大夫所持有之天下觀，所表達的萬國，卻是天下之萬國，仍強調中華在天下的特殊位置，二者適成對照。徐繼畲(1795-1873)《瀛寰志

22) 慕維廉，《地理全志》卷一，卷二，見王西清、盧樞青輯《西學大成》，上海醉六堂書坊，1895年，寅編“地學一”，頁1，2。

23) 《歐洲史略》，總稅務司署印，1886年，頁187-188。

24) 李提摩太譯，蔡爾康述，《泰西新史攬要》，“譯本序”，上海廣學會，1895年。

25) 《地理撮要》文後語，《遐邇貫珍》第3卷第6號，1855年6月，頁5。

26) 《續地理撮要終》，《遐邇貫珍》第3卷第9號，1855年9月，頁10。

27) 惠頓著，《萬國公法》，丁韞良譯，上海書店出版社，2002年，頁4。

28) 馬西尼著，《現代漢語辭彙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黃河清譯，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1997年，“附錄2：十九世紀文獻中的新詞詞表”，頁246。

29) 方維規已指出，十九世紀下半葉不少書名中有“萬國”二字，見《論近代思想史上的“民族”、“Nation”與“中國”》，《二十一世紀》，2002年4月號，頁33-43。

略》一書表達中國往往用“中土”，相應的稱大地之土為“四土”，即四洲之意。劉鴻翱(1778-1849)為該書所寫《序》提到“萬國”，仍恪守“夫中國天地之心，四夷天地之四肢也。故自開闢，神靈繼生，伏羲神農黃帝堯舜禹湯文武，代天立極，天君泰而百體從令，聖人出而萬國咸寧。”³⁰⁾ 針對丁韞良(WAP Martin, 1827-1916)所譯之《萬國公法》，斯時中國士大夫所表達的，也不無意味。或者指出：“今九州外之國林立矣，不有法以維之其何以國。此丁韞良教師萬國公法所由譯也。”或者強調：“間嘗觀天下大局，中華為首善之區，四海會同萬國來王遐哉，勿可及已，此外諸國一春秋時大列國也。”³¹⁾ 似乎中國是外于“萬國”的。因此，晚清中國對於世界秩序的表達，並不能以是否接受“萬國”為標誌，“萬國”本身即可能是“天下”之“萬國”。鄭觀應(1842-1922)，對此的論述，大致展現了轉變是如何發生的。“若我中國，自謂居地球之中，餘概目為夷狄，向來劃疆自守，不事遠圖。”即便通商以來，“中國亦不屑自處為萬國之一”。照其所見，“夫地球圓體，既無東西，何有中邊。同居覆載之下，奚必強分夷夏。如中國能自視為萬國之一，則彼公法中必不能獨缺中國，而我中華之法，亦可行于萬國。”³²⁾ 因此，重要的不在於接受“天下萬國”，而在於接受中國為“萬國之一”，與他國確立“國”與“國”的對等關係。

III. 來自日本的“東洋史”

美國學者任達(Douglas R. Reynolds)曾表達了這樣的看法，“中國在1898至1910這12年間，思想和體制的轉化都取得令人注目的成就。但在整個過程中，如果沒有日本在每一步都作為中國的樣本和積極參與者，這些成就便無從取得。”³³⁾ 審視晚清中國對“亞洲”的表述，不可或缺的，正是“日本管道”。福澤諭吉(1834-1901)1875年所著《文明論概略》，曾將現代文明作這樣的定位：歐洲各國和美國為“最文明”國家；土耳其、中國、日本等為“半開化”國家；非洲和澳洲的國家為“野蠻”國家，還強調了野蠻、半開化和文明是“人類的必經的階段”。³⁴⁾ 福氏1885年提出著名的“脫亞論”，更對日本產生極大影響。如論者所說，“脫亞入歐”在近代日本至少是一個基本論題，福氏名言——“我乃於心中謝絕亞細亞之惡友者”，在以後幾乎半個世紀裡，至少規定了近代日本路線方針的最基本命題之一。³⁵⁾

正是日本圍繞“亞洲”的闡述，直接強化中國的亞洲意識，並基於此產生了新的“認同”。所謂“他者”在這個層面上，也顯出特別的意義。梁啟超(1873-1929)《西學書目表》史學部分列為首篇的《萬國史記》，即是值得重視的一本書。該書在晚清為中國士人所重，宋恕(1862-1910)在給友人信中，即道明《萬國史記》“不可不細看一過，並宜廣勸朋友、門生讀之！”原因無他，“此書于地球萬國古今政教源流，言之極有條理，我國人所不能為也。”³⁶⁾ 那麼，《萬國史記》究竟哪些方面值得重視呢？這其中對於認識天下與萬國的轉變，極富意味。重野安繹(1827-1910)撰《萬國史記序》肯定該書揭示出“居宇宙至大，萬國至眾，林林然各稱雄長而無相統一”。尤其以此對照滿清，批評中國“殆以萬國之史為一國之史也”。內中寫道：

30) 徐繼畲輯著，《瀛寰志略》，臺北商務印書館，1986年，頁37，6。

31) 董恂，《序一》；張斯桂，《序二》，《萬國公法》，上海書店出版社，2002年，頁1，2-3。

32) 鄭觀應，《易言·論公法》，夏東元編《鄭觀應集》，上海人民出版社，1982年，上冊，頁67。

33) 任達著，《新政革命與日本》，李仲賢譯，南京江蘇人民出版社，1998年，頁7。

34) 福澤諭吉，《文明論概略》，北京編譯社譯，北京商務印書館，1959年，頁9-10。

35) 野村浩一，《近代日本的中國認識》，張學鋒譯，北京中央編譯出版社，1999年，頁110。

36) 宋恕，《致貴翰香書》(1895年7月)，胡珠生編《宋恕集》，北京中華書局，1993年，上冊，頁533-35。

吾每閱漢士史乘，至所謂外國傳、異域志，未嘗不嗤其自小。彼以中土自居，而儼然臨萬國。雖強大軼己者，不夷狄視之，則藩屬待之，其政治得失不相關也，國勢強弱不相問也，彼為彼，我為我，其所以自大，即其所以自小。近時有魏默深者，好論海防，能通天下之故，然其著書題曰《海國圖志》，是以五洲諸邦為海國也。夫大瀛寰之何往而不然，漢土亦一海國而已，何問大小哉。彼雖國大而不過方數萬里。寢處乎方數萬里之內，目不接海波，而自外來者，皆帆於海，遂日以海國而自稱曰中土。是童觀耳，井蛙之見耳。默深以達識著稱，猶局于素習而不自察，則其他可知已。……

《萬國史記》卷一之“亞細亞總說”，除描繪地理上的亞洲，也涉及人文方面的內容，“亞細亞為人類初生之地，他洲人民皆自此轉徙。”“洲內諸國，學俗優絀不同，昔時文物制度，卓絕五洲，今則瞠然在歐羅巴之後。”³⁷⁾ 這段出自日本學者描繪的亞洲圖景，也自有其意義在，對於中國，並沒有賦予其在亞洲什麼特別的地位。在其他論著中，也指明中國不再是特殊的國家。如《萬國地志》言及亞細亞洲政區，不僅先言“日本帝國”，次言“支那帝國”，而且明確指出，“日本而外，皆君主專制之半開國，如支那、朝鮮、波斯、暹羅是也。其次以下，不能獨立。雖其地廣民眾，而已為列強所吞併，為他人所管轄，或稱屬國，或稱保護國。”³⁸⁾

按照通常的看法，日本之歷史書寫所影響於中國史學界較早而較大，“大概是日本那珂通世的《支那通史》和桑原鷺藏的《中等東洋史》兩書；更其是前者，因為用漢文寫作的關係，影響更大。”³⁹⁾ 針對亞洲的闡述，後者更具影響。那珂通世(1851-1908)《中等東洋史原序》這樣寫道：“敘述歐洲之治亂興亡，名之謂世界史與萬國史，此一偏之見，非通論也。世界文明，非必盡由歐洲，東洋諸國，社會之勃興，風氣之進化，亦不弱於歐洲。東洋大國以四五數，既往現在將來，此國之與彼國，其間關係甚繁，既為國民，于東洋歷代之亂治興亡而不曉晰，可乎？故中學校之歷史科，國史、西洋史外，有東洋史之目。近人所著東洋史甚多，然皆詳中國而略塞外，若東西兩洋之交涉，與中央亞細亞之狀態，更掛其一而漏其萬，欲考求亞細亞古今之大勢，終未能瞭若指掌。予常憾之。邇者文學士桑原鷺藏君，將其所著《中等東洋史》視予，予受而讀之，史料取材於東西，而博引旁搜，東洋五千年來治亂興亡之事變，約而能得其要。予喜此書之出於世，足以激勵國民愛國之心也。”⁴⁰⁾ 該書對中國人士的影響，尤其是有關“亞洲”的認知，也起到重要作用。周同愈《重譯中等東洋史自序》這樣表示：

五洲未通以前，中國龐然自大，以為列於吾旁者，皆小蠻夷而已，不知域中之為東洋，安知海外之有西洋，今人人知有東西洋矣。而東洋之與東洋，百年來東洋之與西洋，國際之事日繁以密，吾中國無一人能舉重大要件，勒為一史以問世者，可愧也。桑原鷺藏君《中等東洋史》為日本人所著之東洋史，最晚出最完備之書，前之譯者隨俗無可稱道，又是書于每一國之治亂興亡，與重大要件，一以日本紀元組織其間。桑原鷺藏君為日本人，彼自愛其國，宜其爾爾。譯者既為中國人，仍其舊而不為改易，愛國之心何在？予故重為之譯。文必求其從，字必求其順，務合于韓退之家法而後止。每一國之治亂興亡與重大要件，之組織之以中國紀元。閱三月而全書告成。凡吾之所為勤敏而不敢忽者，無他故，總以吾愛國之心激動讀者愛國之心。⁴¹⁾

37) 岡本監輔著，《萬國史記》，上海申報館出版，1879年，頁2-3。

38) 日本矢津昌永著，樊炳清譯，《萬國地志》，見樊炳清編《科學叢書》第1集，教育世界出版所，1901年，上卷，頁12。

39) 周予同，《五十年來中國之新史學》，見朱維鈺編《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上海人民出版社，1996年，頁535。

40) 《中等東洋史教科書》，標明桑原鷺藏原著，上海科學書局藏版，頁1。

陳慶年編纂《中學中國歷史教科書》，所寫“後序”也介紹了該書所產生的廣泛影響：“桑原鷺藏東洋史自樊炳清譯本出於東文學社，其書盛行，殆遍于東南諸省，慶年在武昌時見諸校印者已有數本，蓋自己亥以來四五年間以此為教者相屬也，顧其為書世界史之例耳，而于國史所應詳者，尚多疏略。”進一步的還闡明如何以此為基礎編寫《中學中國歷史教科書》，“光緒癸卯兩湖立文高等學堂，慶年任歷史課教文普通學堂，欲以己意綴事別為本邦史，念是邦學子于桑原之書誦習已久，其書于全亞國際之關係最所注意。我邦經庚子之亂，甫閱數年隔以識世界，於義亦急遂不復自為，略依桑原篇題，補集事實，以為此編。”⁴²⁾

大致說來，關於“亞洲”的論述，更為日本學者所重視，晚清士人主要受此影響催生“亞洲”的意識。這方面的問題不是這裡可以討論的，⁴³⁾可以補充的是，辻武雄(1868-1931)著《支那教育改革案》就顯示，日本學人在思考中國問題時，往往立足亞洲進行論述：“余東瀛人也，少而讀聖賢之書，長而涉獵東西百家之論說，每慨東邦之不振，悲黃種之日衰。讀西勢東漸之史，未嘗不慨然掩卷也。今則印度先亡，緬甸、安南繼滅，亞細亞洲中稱為獨立國者，僅有日本、支那、朝鮮、波斯、暹羅五國耳。然暹羅、波斯則有獨立之名而無獨立之實，朝鮮則國勢衰微，危不能支。其在今日足稱霸于亞洲者，惟有日本、支那二國耳。二國而富強則東邦振，東邦振則黃種興。如是則雖西力東漸即可采，以究我文學，助我武備矣。”而他提出支那教育改革案，也是看重於，“是固支那一國之幸，且東亞三國之所慶也。況日本與支那，地則同洲，人則同種，書則同文，固唇齒輔車之邦，宜緩急相依，喜憂相共。”⁴⁴⁾

IV. 作為“亞洲”的中國

如前所說，儘管有關世界各大洲的知識，介紹到中國不算太晚，然而，接受與否，卻是另外一回事。1901年，李熙為蕭庸士輯《五洲述略》作《序》，即曾談及“授學村塾”時的體會：“以五洲輿圖示諸生，諸生聞亞歐之名，相與嘩笑而不能已。彼固以為自其高曾祖父以至鄰里鄉黨、朋友嫗姪，無論經商服賈，赴官應試，足跡未嘗經其地，求之經義策括，口耳未嘗習其名，事所必無，特教者傳妄以示謔耳。”⁴⁵⁾這裡點出在中國傳遞關於“五洲”的知識面臨的種種困難，不過，對廣泛吸收近代知識的士人來說，展示的卻是另外的情形。同樣在1901年，梁啟超在一篇文字中即曾把中國史分為三段：一、“自黃帝以迄秦之一統”之“上世史”，為“中國之中國”，“即中國民族自發達自爭競自團結之時代也”；二、“自秦一統後至清代乾隆之末年”之“中世史”，為“亞洲之中國”，“即中國民族與亞洲各民族交涉繁賾競爭最烈之時代也”；三、“自乾隆末年至於今日”之“近世史”，為“世界之中國”，“即中國民族合同全亞洲民族與西人交涉競爭之時代也”。⁴⁶⁾以這樣的方式劃分中國歷史，未必合適，然而內中所貫穿的“中國”——“亞洲”——“世界”，說明具備“亞洲”意識的中國士人已借助於此重新為中國定位。梁啟超此文的寫作已是在流亡日本之後，這也提示我們注意，由於日本的亞洲論述傾向於肯定日本在亞洲扮演領袖群倫的地位，由此也逼出了中國士人對此的論辯，值得進一步

41) 桑原鷺藏原著，周同予譯著，《中等東洋史》，上海文明書局發行，1904年初版，頁2。

42) 陳慶年編纂，《中學中國歷史教科書》，商務印書館，1909年初版，頁1。

43) 這方面前揭葛兆光的論文中，已勾畫出日本亞洲論述的基本線索。大致說來，關於日本的亞洲主義思潮要追溯到19世紀前半葉甚至18世紀末期。

44) 辻武雄著，《支那教育改革案》，《教育世界》卷三，頁1-3。

45) 李熙，《序》（光緒辛丑六月撰），蕭庸士輯《五洲述略》，紫藤書館印，1902年，頁1。

46) 梁啟超，《國家思想變遷異同論》，《清議報》第94、95冊，1901年10月。

分析。

前已提及《萬國史記》一書的影響，對於該書，就並非是完全的讚譽之聲。《西學書目答問》之“政學第一”為“史志學”，首列《萬國史記》，內中就評價：“是書以二十卷包舉全球數十國古今事蹟，其略而弗詳，不問可知。且與吾華為同文之國，乃記載亦多失實，並痛詆不遺餘力，尤失傳言之體。”⁴⁷⁾針對《萬國史記》所做評論，可看作一個象徵，中國士人是否接受來自日本對於萬國史及亞洲的表述。或許從一開始，在亞洲範圍就存在對於亞洲解釋權的爭奪。可以明確的是，“亞洲”也成為中國士人尋求驕傲的另一視域。晚清曾出版了多種西學彙編資料，⁴⁸⁾在這些資料中，即不乏按照“亞洲”進行編輯的例證。1902年出版之《西學三通》，分為“西政通典”、“西史通志”與“西藝通考”。陶鈞《西史通志序》就寫道：“大地猶全身也，五洲猶五體也。體有貴賤，洲有先後。”試圖強調，“亞洲為人類始生之地，中國為文明首出之邦。堂哉皇哉其元首哉，余若歐美斐澳，猶四支也。洲列多國，猶臂生多指也，國有大小，猶指分拇食也。”無非是要肯定，“四大地之中，亞齊亞最廣大”，“亞齊亞西方為各人類始祖之本地，道理術法與教門，一皆由亞齊亞出。故亙古至今，視為重地。”⁴⁹⁾這裡多少有借重亞洲來彰顯尊嚴之意味，也清楚交待了這些書籍何以選擇首言亞洲。

不管怎樣，基於“亞洲”為中國尋求新的定位，是大勢所趨。趙懿年編纂的《東洋歷史》“總論”部分這樣寫道：“東洋史者，專以紀東洋各國之事實，所以別乎中國史與西洋史、世界史之稱也。學者孰不知地球各國，鹹與我中國有至要之關係，而抑知最有關係者，尤莫如同洲諸國。蓋諸國自有史以來，或因我中國之文明而發達，或因宗教、商務、戰爭而彼此交通，其關係固已歷數千年。至於今，雖或盛或衰，或興或亡，而其關係要更切於曩日。故吾欲述西洋各國史，勢不能不先述東洋各國史。惟是東洋諸國，分離散漫，貫串為難。”⁵⁰⁾秦瑞玠譯編的《普通西洋歷史教科書》“總論”部分，還涉及到人種，指出“今區分世界之人種，其類有七，白哲人、蒙古人、馬來人、黑人、亞美利加印度人、南亞非利加人及澳大利亞黑人是也。白哲、蒙古二種，最為世貴，大地文明，此二種發之最先，其他五種，迄今多未開化，于文明大致，殆若無所關係者，而白哲、蒙古兩大種，所居部落，各不相接，歷史統系，亦各不相混，是故吾人研求歷史，分作東西兩洋，較為便捷。”⁵¹⁾著重突出“白哲、蒙古二種，最為世貴，大地文明，此二種發之最先”。商務印書館出版的《最新國文教科書》第六冊第一課“地球大勢”，也平實介紹了五大洲的知識，第二課“我國疆域”則指明，“我國本部，分十八行省，寒燠適宜，土壤膏腴。黃河、長江、西江三大水，貫注其間，實環球最富庶之區也。”⁵²⁾標明“學部審定”的《中學中國歷史教科書》(原名本朝史講義)“緒論”開篇，也立足于從“亞洲”進行定位。“本朝史者，中國史之一部，即全史中之最近世史也。中國之建邦，遠在五千年以前，有世界最長之歷史，又其文化為古來東洋諸國之冠。其疆域奄有東方亞細亞之什九，其興衰隆替，足

47) 趙惟熙，《西學書目答問》，“政學第一”，貴陽學署，1901年，頁1。

48) 章清，《“采西學”：學科次第之論辯及其意義——略論晚清對“西學門徑”的探討》，《歷史研究》2007年第3期。

49) 《西學三通》，署“光緒壬寅夏月萃新書館精本”，上海文盛堂印。其中“西史通志”署“古閩龍岩謝若潮慕韓鑒定”，“豐城袁宗濂、南昌晏志清編輯”。引文見“西史通志”卷一，頁1-4。其中“西史通志”目錄如下：太古志共二卷，日本志共十四卷，印度志共七卷，亞洲各國志共二卷，歐洲羅馬志共一卷，法志共八卷，英志共七卷，德志共二卷，希臘志共二卷，俄志共九卷，歐洲各國志共一卷，非洲各國志共一卷，美洲志共四卷，美洲各國志共一卷，澳洲各國志共一卷，疆域志共二十八卷，沿革志共十二卷，興盛志共四卷，戰伐志共八卷，禮俗志共二卷，圖籍志共一卷，人物志共七卷，編年表共四卷。

50) 趙懿年編纂，《東洋歷史》，上海科學會編譯部發行，作新社印刷，1914年4月三版，頁1。

51) 秦瑞玠譯編，《普通西洋歷史教科書》，上海文明書局，1907年，頁1-2。

52) 蔣維喬、莊俞編纂，高鳳謙、張元濟校訂，《最新初等小學國文教科書》，第6冊，商務印書館，1905年初版，頁1-3。

以牽動亞細亞洲之大勢，故中國史之範圍，實占東洋史全體之太半，而隱與西洋史為對待。”⁵³⁾ 鄒代鈞(1854-1908)撰《京師大學堂本國地理志講義》，第一課“疆域”開篇即謂，“本國在亞細亞洲之東南境，包括亞東高地，及中間高原。幅員大於歐羅巴全洲，為地球上一大邦。”所要強調的是，中國“約得亞細亞洲全洲面積之四分之一，地球全陸面十二分之一。與歐羅巴最大之國比較，俄羅斯之幅員，已倍大於我，而英吉利之地，又大於俄羅斯。惟俄屬之西伯利，皆荒寒瘠土，英之殖民，則散在五洲，亦多荒瘠。若土壤膏腴，氣候和緩，而又聯合為廣大之地域，當推我國為最矣。”⁵⁴⁾

在其他文本中，也不乏看到這樣的例證。往往基於亞洲重塑中國歷史及人物。羅振玉(1866-1940)在《教育世界》卷六所刊登的《〈論語〉講義一》，即提到“孔子為亞洲第一教育大家”。至於眾多的教科書，則大力表彰，“中華民族，分派極多。……經周秦漢唐宋明而其勢益盛，言東亞文化者，必推此族焉。”⁵⁵⁾ 孫寶瑄(1874-1924)在日記中，還讚譽梁啟超“閔言偉論，騰播于黃海內外、亞東三國之間”，“凡居亞洲者，人人心目中莫不有一梁啟超”。⁵⁶⁾ 這多少意味著，中國之亞洲論述，成為尋求驕傲新的參照。

V. 日本、朝鮮作為“他者”

有關中國亞洲論述之浮現，康有為(1858-1927)的《京師強學會序》值得重視，這是獲得了亞洲乃至“世界”地理概念後在論述中直接體現出來。其言曰：

俄北瞰，英西睽，法南臨，日東眈，處四強鄰之中而為中國，岌岌哉！況磨牙涎舌，思分其餘者，尚十余國。遼台茫茫，回變擾擾，人心皇皇，事勢僂僂，不可終日。昔印度，亞洲之名國也，而守舊不變。乾隆時英人以十二萬金之公司通商而墟五印矣。昔土耳其，回部之大國也，疆土跨亞歐非三洲，而守舊不變，為六國執其政，剖其地，廢其君矣。其餘若安南，若緬甸，若高麗，若琉球，若波斯，若阿富汗，若俾路芝，及國於太平洋群島非洲者，凡千數計，今或削或亡，舉地球守舊之國，蓋已無一瓦全者矣。……夫中國之在大地也，神聖繩繩，國最有名，以理制度文物，駕于國溟，其地之廣于萬國等在三，其人之眾等在一，其緯度處溫帶，其民聰而秀，其土腴而厚，蓋大地萬國未有之能比者也，徒以風氣未開，人才乏絕，坐受凌辱。⁵⁷⁾

不僅可以注意到康有為在論述中基於“亞洲”為中國尋求新的定位，關鍵還在援據“他者”的言說方式，對於中國的認知，不單定位于“亞洲”，尤其還突出了日本、朝鮮作為“他者”所具有的意義。因此，審視晚清中國的“亞洲”論述，還有必要結合作為“他者”的朝鮮與日本展開。事實上，晚清的亞洲論述，本是以“東亞三國”為核心的。

用不著特別指明，所謂“三千年來所未有之變局”，主要是受到來自日本的衝擊。中國士大夫受此影響，也甚為顯明，宋恕即曾對照日本表示，“日本能決然舍去數千年之衣冠以從西人冠，我國不能舍去二百年之衣冠以從西人，度量相越，豈不遠哉！”⁵⁸⁾ 出洋學生總監督夏偕復(1874-?)所撰《學校

53) 汪榮寶編纂，張元濟校訂，《中學中國歷史教科書》(本朝史)，一冊，商務印書館，1909年初版，頁1。

54) 鄒代鈞撰，《京師大學堂本國地理志講義》，北京大學圖書館古籍部藏書，頁1, 2, 32。

55) 潘武編輯，劉法曾參訂，《講習適用歷史教科書》，中華書局，1913年，頁2。

56) 孫寶瑄，《忘山廬日記》(1902年9月2日)，上海古籍出版社，1983年，頁562。

57) 康有為，《京師強學會序》，湯志鈞編《康有為政論集》，北京中華書局，1981年，上冊，頁165-166。

58) 宋恕，《致錢念劬書》(1895年7月25日)，《宋恕集》，上冊，頁535-36。

芻議》，也指出，“地球之上萬國並立，沿革不同，國體自異，學校之主義因是而微有歧趨。今者中國欲立學校，當先立主義，欲立主義，當審國體之如何，通國人民之弊習何在，宜用如何之主義乃可以匡濟艱難，挽回氣運。如是則教育之方針有所指而不至於凌雜無章。”所謂“主義”，實際是說明“取法”上要面向日本：“日本泰東之國也，政治宗教風土與泰西諸國未嘗有相同之比例。既神摹力追，師彼之長，尤苦心孤詣以保舊有之善。我於日本，古來政治之大體相同，宗教之並重儒佛相同，同洲同種，往來最久，風土尤相同。”⁵⁹⁾

然而，值得注意的是，日本之外，朝鮮也成為中國亞洲論述的中心，而且，原因並非只是因為同屬於“東亞”，而是因為日本、朝鮮作為“他者”，構成強弱對比的範例。蕭庸士輯《五洲述略》，在“凡例”中作者即指明，對於五洲是有所取捨的，“是書于歐洲諸強國及亞洲之日本，美洲之美利堅，採錄較詳，著其所以興也，其餘弱小之國，不過類及。”然而，“亞洲之朝鮮，歐洲之土耳其，雖為弱小之國，而採錄不視類及之例，著其所以衰也。”而正文開篇，也首選朝鮮，次為日本。⁶⁰⁾前已提及的《西學三通》，其《西史通志》卷九十一“沿革志一”“亞細亞洲總說”部分也寫道，“全洲計一百十二兆十一萬一千八百四十方里，英占十之一，俄占十之四，各國占十之二，餘三分則吾國之土也。日東侵俄，北削英，西略所存者此耳，由此而振，英日俄何足畏；由此而靡，朝鮮、越南、緬甸、波斯，皆吾土鏡也。借鏡于他國，自同洲之國始，故以亞洲冠篇首焉。”⁶¹⁾所謂“借鏡于他國，自同洲之國始”，正展示出晚清“歷史記憶”新的延續方式，日本、朝鮮成為新的記憶源泉，或曰“他者”。以往中國歷史記憶延續的方式明顯是基於本國展開，亞洲意識的提升，則改變了記憶的方式。

首先值得注意的是商務印書館1904年出版的《最新國文教科書》（初等小學堂課本），該書第五課與第六課分別介紹的是日本與朝鮮。第五課日本全文如下：

我國東海之濱，有島國焉，是曰日本。其居亞洲也，與我同。其為黃種也，與我同。而壤地之狹小，則等於四川一省耳。

日本皇室，一系相傳，更二千餘年，未嘗易姓。然幕府專權，列藩跋扈，歐美各國又時憑陵之，岌岌有不可終日之勢。明治即位，覆幕廢藩，削平內難，乃下詔定國是，力行新政。興學以育才，立憲以安國，百廢具舉，故不及四十年，國勢強盛，戰勝我國，稱雄于東亞。今又大敗強俄，環球震動，則變法之功也。嗚呼，觀於日本，吾國人可以興也。⁶²⁾

第六課朝鮮，則寫道：

我國周初，封箕子於朝鮮，其後雖數易主，然王朝鮮者，大率吾華人也。秦漢以來，時而內屬，時而自立。至我朝世修職貢，奉命維謹。

光緒初年，朝鮮始與各國通商，然其為我屬也如故。二十年，朝鮮內亂，求援於我。我師助之，日兵亦至。亂平，議退兵，不決，遂與日本開戰。我師失利，朝鮮遂自立，不復屬我矣。

俄人窺伺朝鮮，權力漸盛。日本爭之，不得。兵端又起，日本復大勝。遂置統監府於京城，幾內政外交，無不與聞，儼然日本之保護國也。

朝鮮為半島之國，地雖狹小，猶及日本之半，乃卒不自振，悲乎。⁶³⁾

59) 夏偕復，《學校芻議》，《教育世界》，卷13-15，引文見卷13，1901年10月，頁1-3。

60) 蕭庸士輯，《五洲述略》，紫藤書館印，1902年，“凡例”，頁1；正文，頁1。

61) 《西學三通》，“西史通志”卷一，頁1-4。

62) 《最新國文教科書》（初等小學堂課本），商務印書館，1904年，第九冊，頁4-5。

63) 《最新國文教科書》（初等小學堂課本），商務印書館，1904年，第九冊，頁5。

這裡值得重視的便是其中所展現的看問題的方式，所謂“觀於日本，吾國人可以興也”，無非是說明同屬亞洲之日本，可以作為中國振興的啟示。而強調朝鮮之“卒不自振”，則是將同屬亞洲之朝鮮，作為反面的例證。實際上這樣審視問題的方式，也構成晚清“亞洲”論述的核心所在。不妨通過其他資料來說明其中的轉變，以更好說明“歷史記憶”的延續方式。

在近些年的思想史研究中，研究者不乏這樣的主張，精英和經典的思想與普通的社會和生活之間，還有一個“一般知識、思想與信仰的世界”，而這個知識、思想與信仰世界的延續，也構成一個思想的歷史過程，因此它也應當在思想史的視野中。⁶⁴⁾問題的關鍵在於何謂“一般知識、思想與信仰”？晚清的科舉考試，對於呈現晚清“思想資源”的版圖來說，即是新的途徑。尤其是“廢除八股，改試策論”後的考試內容“各國政治藝學”，更是呈現了上層官員及一般士子對於中國所處境遇和世界事務的看法。關鍵還在於，“策問”的特殊體裁形式，具有明顯的導向作用，由“問策”的具體題目引導眾多士子關心這些問題。從“格致書院課藝”開始，這一類的考試就大致形成了由各級官員擔當“命題人”，而由考生作答的方式。透過這些“策問”，一方面我們可以瞭解晚清上層官員所憂心的樞機所在，另一方面清末參加科考的數十萬士子在“問策”的導向下所作應策，也呈現出知識階層一般的思想狀況。毋庸諱言，作為官方的考試，無論是問策者還是應策者，都不免恪守於官方意識形態。重要的是，內中體現出晚清改革的方向，並映射出所謂“新知”是如何被接納的。格致書院課藝所列出的相關問策，頗說明此，其中不乏有關日本、朝鮮作為“他者”的形象。

1900年《格致書院課藝》秋季課題為蘇松太兵備道聶緝規所列“朝鮮為中國藩屬宜如何保守論”，所展示的是原來的天下秩序瓦解後士人的思考。名列“超等第一名”的中郎朱有濂在應策中就明確提出：“夫朝固我之屬也，且我之藩也，不特於義不得外視之，即於勢亦不得外視之。設我坐視其覆亡而不救，若于英之緬甸，然俄必據朝。或曰目前姑且隱忍，迨其迫而救之，若于法之越南然，俄必擾我。”因此，“不保朝之朝，朝非我朝也；保朝之朝，朝為我朝也。朝為我朝，朝之人民，我之人民也；朝之土地，我之土地也。人民之所納，納於朝，即納於我也；土地之所有，有於朝，即有於我也。以後之所得，償今之所費，三百萬必可復得，且必不止復得。”⁶⁵⁾不難看出，儘管問題涉及的是作為中國藩屬的朝鮮如何“保守”的問題，但在論辯中卻是將中朝作為一體看待的，似乎藩屬的關係，可視作一國看待。就此而言，名列第二名的奉賢縣優廩生程廷傑在應策中所提出的看法，也基於同樣的前提。答卷援引了前日本隨員姚文棟之所獻三策，並加以評說：“舉高之土地、人民，悉以吾為之政，而酌取歲入之若干，以供高王度支。如英之於印度。上策也。朝鮮本吾屬地，取之無害。先夷之為郡縣，以絕他國覬覦。中策也。令與各國通商，藉各國共為保護。下策也。是三策者，下策既已行之矣。中國以字小為心，上二策所不為也。然則保高竟無策乎？”⁶⁶⁾

不僅對於中朝之間“藩屬”的關係沒有厘清，保守朝鮮的主張主要也是基於“自保”而展開，強調“朝鮮為東三省遮罩，迥非越南諸藩可比，所謂臥榻之側，不容他人鼾睡者也，顧可無策以保之哉。”這方面，名列第三名的松江府學廩生朱昌鼎，作出更明確的應策，針對這樣的言論，“去之亦無足惜。中國內地，如澳門、香港，且為葡英所得，何獨於朝鮮而靳之。”作者強調朝鮮乃“全局安危所及”，“不知朝鮮在明以前皆可棄，在本朝決不可棄。何則？朝鮮北距奉省，僅隔鴨綠江、圖們江二水，過此即長白山之陽，祖宗發祥之地，又北則逼近陪都，列聖陵寢在焉，非前代邊隅甌脫所比。其國東西南三面距海，與山東遙對，為中國海防外戶，非澳門香港之無關大局者。比況俄人久為中國患，得此

64) 葛兆光，《中國思想史》（第一卷為“七世紀前中國的知識、思想與信仰世界”，第二卷為“七世紀至十九世紀中國的知識、思想與信仰”），上海復旦大學出版社，1998、2000年。

65) 朱有濂答卷，《庚寅格致書院課藝》，上海圖書集成印書局印，1898年，頁31a-41b。

66) 程廷傑答卷，《庚寅格致書院課藝》，頁41b-42a。

則如虎展翼，其勢不復可制中國，無朝鮮為屏翰，特別東三省可危，而畿輔亦形岌岌。”⁶⁷⁾

用不著特別指明，既將朝鮮視作“藩屬”，所謂“保守”之道，也是基於此而展開的，內中所謂“主權”的觀念，自難以得到伸張。有意思的是，名列前三名的答卷，都未曾提及《萬國公法》一書，而名列第四、五位的答卷倒是有所涉及。安徽廬州府學優行稟善生李經邦的答卷名列第四，文中列舉了當時的諸多意見，但他的評價完全是負面的。其中也涉及到對《萬國公法》一書的評價：“或謂保守朝鮮既如此之難，不若停其封貢，卻其稱臣，進藩屬而與為鄰邦，明許其自主，一以《萬國公法》從事，毋稍偏枯，俄日兩國欲兼併之，則可據公法以力爭。”不過在其看來，“此或亦保守之一策”，然而問題在於，“不知彼為屬國，我尚不能收自主之權，易為友邦，更難措置矣。區區一紙公法，安能息俄日兩國之爭耶？”在批評了當時的各種應對之策後，作者也闡述了自己的見解，中國富強，才是根本之策，“中國既富矣，中國既強矣，即以自強者強朝鮮。無事則我之德惠，實足以固結之。有事則我之威力，實足以保守之。斯朝鮮永為我之藩屬，而中國可高枕無憂矣。”還是未見放棄“藩屬”之夢想。⁶⁸⁾在這個意義上再看名列第五名的是侯選從九品張玠的答卷，也不難見出其中頗有意思的一面。張玠是力主聯英拒俄的，他在答卷中倒是指出俄之侵削高麗，“大干《萬國公法》禁例”，如英助中拒俄，“正以行公法之大權”。“高麗世附中國，俄人侵之，是侵削小邦也，侵削小邦，大幹《萬國公法》禁例，英而助中拒俄，以存弱高，正以行公法之大權，展霸者之雄略，為天下彰公道，為萬世正人心。高人德之，中國感之，各國議之，俄何說之辭。”⁶⁹⁾儘管如此，這只是問題的一面，卻未曾考慮“高麗世附中國”是否與《萬國公法》相符合。可以說，通觀這些應策，都是將朝鮮作為屬國看待，所圖謀之策，也未見有基於國與國之關係進行思考者，主要著眼於利益進行評估。

格致書院課藝所反映出的中國士人對相關問題的思考無疑是值得重視的。這裡清楚展示了“天下”觀所具有的影響，這既反映在對《萬國公法》所奠定的國際新秩序的不信任，同時也說明已瞭解此的人士也難以將此轉換為對自身的認知。以此進行“自保”，或許還是可能的，當問題轉向與自身利益休戚相關的情景時，如何應對，又顯得沒有什麼辦法。交織著這樣的矛盾與困惑，或許正是“天下”觀面臨新的國際秩序時的遭遇。而且，內中文字幾乎沒有涉及對“亞洲”的闡述，也說明“天下”觀所主導的世界秩序沒有“亞洲”的位置。

《格致書院課藝》所反映的，還只是得風氣之先者的情況。當聚焦於科舉改革後的情況，則策問的意義已不可同日而語。“策問”在晚清科舉改革中地位明顯上升，也催生出各種彙編文字。這裡重點討論的《中外策問大觀》，其編輯出版，即應對著這樣的時勢。⁷⁰⁾透過這些資料，可以大致把握晚清中國“亞洲”論述之樞機所在。卷五收有《興亞策》，作者卜宗俊。內中明確指明，“今之紛紛說興亞者，著為議論，廣設方略，登之撰述，俚指計之，實更仆難數”。而且，有日本成功的例證，“興亞”似乎不是什麼問題，“今日之勢，日本既矯矯傑出於東方矣，所黯然無色者，獨一中國耳。中國即興，有日本以輔之，兩雄並立，權勢且將頓出歐洲之上，亞何患不興？”但作者亦指出，儘管如此，困難也不少，原因即在於“中日之不能合”：“以今日東亞而論，幅員之大莫大於中國，氣勢之強莫強於日本。大是足以有為，強似足以特立，而餘謂卒無補於亞洲之興者，非以中國之不大，日本之不強，正以大者之不能驟強，強者之不能驟大故也。”因此作者也提出：

67) 朱昌鼎答卷，《庚寅格致書院課藝》，頁43a-44b。

68) 李經邦答卷，《庚寅格致書院課藝》，頁44b-46b。

69) 張玠答卷，《庚寅格致書院課藝》，頁47a-49a。

70) 雷瑄編輯，《中外策問大觀》，硯耕山莊石印，1903年。相關討論參見章清《“策問”與科舉體制下對“西學”的接引——以〈中外策問大觀〉為中心》，《近代史研究所集刊》第58集，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2008年12月。

吾謂今日而不言興亞則已，言興亞則非先除中國之積習，繼去日本之驕心，終杜俄及歐洲列國之貪心，合亞洲諸國，同心一氣，通力合作，萬萬不可。雖然，此亦不易必之數也，是所望于力挽亞洲氣運者。⁷¹⁾

《中外策問大觀》直接以“亞洲”為題者尚有卷十九“問亞洲各國宗教異同”等問策。大致說來，援據“亞洲”對中國進行新的定位，是主流的見解，“亞洲”也成為確立新的驕傲的符號。如卷二十四所收“機器殖財策”，作者羅綱法就強調，“中土幅員之廣，甲于亞洲，而位界中球。又屬溫帶，財產富矣，植物繁矣。然邇年來，國瘠民貧，不能與歐洲各邦齊驅並駕者，非財產之匱，植物之凋，蓋有其產而不善用其產，有其物而不能精製其物故也。”⁷²⁾ 尤其值得注意的是，其中涉及朝鮮的問題並不多見，關於日本的問題卻很多。

通過《中外策問大觀》中所收錄的與“日本”相關的問策，更可以清楚看出“日本因素”是如何展現的。以其中的“西史”卷來說，綜觀“西史”卷總計23道“策問”，最突出的便是將中國之關切投射於外國歷史。往往是將當日中國所關心的問題投射於國外的歷史，如富強之由、治理之方及長治久安之道等，尤其重視“由弱至強”的例證。其中直接針對日本的話題即有四條之多：(1)日本明治維新策；(2)問普為法殘卒成霸業，日本蕞爾亦克稱雄。日皇得力維新，普王果操何道？(3)日本新政之行何者最先，何者成效最著。其一切改從西法，識者論其不無過當。而之伏於其間者，何事近。今有無補救之方，試條分縷析，切實指陳，以為中國考鏡之資策；(4)問泰西日本維新以前一切弊政與中國多相類者，能條舉之否？這些針對日本的設問，映射出晚清對日本的關切所在，而中國士人針對此的闡述，也反應出面對同屬亞洲的日本的複雜心態。以其中的第(3)題來說，該題收有兩條對策，陳曾矩之對策特別關注日本變革之次第，以及所產生的流弊，借此也闡述對中國改革之意見。所強調的是，“觀其先後緩急之序，則可以為我中國之前導；觀其卓著之成效，則可以為我中國之今日之柯則；觀其過當之流弊，則可以為我中國今日之車鑒也；觀其補救之方，則可以為我中國今日之成案也。故日本近三十年之歷史，實不啻我中國今日之榜式也。考察日本之政治者，其亦知所借鏡矣。”劉邦驥之對策開篇即謂：“日本新政之行之最先，而行之最著者，非西法也，乃中學也。”特別指出日本改革之先導，乃取法“春秋尊王大義。”最後表示，“今天下競言變法，宜師日本矣，吾願取其利，尤宜鑒其弊也。敢以一言斷之曰：欲立國於不弊者，必自尊尊親親始。”⁷³⁾

《格致書院課藝》與《中外策問大觀》，為我們展示了晚清以降中國普通士人思考中國局勢的“思想資源”，這樣的“思想資源”之所以值得深入分析，多少有關與“策問”資料的特殊性。實際上，有關“日本因素”在科舉考試中的展現，不只是在上述“揣摩”文字中，最後一次科舉考試的第二場，其“各國政治藝學策”之五道“問策”，第三策就直接針對日本：“日本變法之初，聘用西人而國以日強，埃及用外國人至千餘員，遂至失財政裁判之權而國以不振。試詳言其得失利弊策”。這也說明，有必要結合作為“他者”的日本與朝鮮，審視晚清中國對“亞洲”的闡述。

VI. 餘論

有關歷史與記憶的相關性，不是什麼新問題，對此的闡述，可以說本身即已有了悠久的歷史。弗

71) 卜宗俊，《興亞策》，《中外策問大觀》，卷五，頁16。

72) 羅綱法，《機器殖財策》，《中外策問大觀》，卷二十四，頁1。

73) 雷瑨編輯，《中外策問大觀》，卷二十八，頁6-7。

蘭西斯·培根(Francis Bacon, 1561-1626)在嘗試對人類的學問進行劃分時,就表示,“對人類學問(learning)的最好分類是根據學問活動的主要場所——理性靈魂(the rational soul)——所有的三種主要官能而作的分類。”由此,他也指出,“歷史與記憶相關,詩與想像相關,哲學與理性(Reason)相關。”⁷⁴⁾至20世紀,雅斯貝斯(Karl Jaspers, 1883-1969)對歷史認識的思考,也強調人類歷史通過記憶與現在聯繫起來,因此,“歷史是記憶,我們不僅懂得記憶,而且還根據它生活。如果我們不想化為虛無,而想獲得部分人性的話,歷史就是奠定了的基礎,我們繼續受它束縛。”⁷⁵⁾只是,這些文字都還只是強調了歷史與記憶的相關性,卻未曾涉及記憶是如何展開的。就此而言,莫里斯·哈布瓦赫(Maurice Halbwachs, 1877-1945)佔據重要位置,也不難瞭解。哈氏關注於“記憶的社會框架”,還通過具體例證說明,依據歷史所具有的重要意義。⁷⁶⁾如論者所指出的,“我們關於過去的概念,是受我們用來解決現在問題的心智意象影響的,因此,集體記憶在本質上是立足現在而對過去的一種重構,哈布瓦赫無疑是第一個強調這一點的社會學家。”⁷⁷⁾

以此來對照晚清中國所闡述的“亞洲”,或者可以說,援據歷史,亦即是喚起歷史的記憶,構成晚清中國理解陌生的外部世界的重要環節。職是之故,歷史記憶在晚清是如何延續的,對於我們理解這一時期思想文化的演進,也是重要的視野。畢竟,中國是以“信而好古”著稱於世的,借助於“歷史”進行合法性論證,也是推動社會變革的主要助力。而“外來因素”的加入,對於“托古”之論述策略則構成有力的衝擊,⁷⁸⁾因為“歷史記憶”之延續往往是在“會通”中外歷史的過程中展現出來,其中還糾纏著對於自我的認同。

哈布瓦赫對“記憶”的闡述特別追問到我們是如何記憶的,並指出,“我之所以回憶,正是因為別人刺激了我;他們的記憶幫助了我的記憶,我的記憶借助了他們的回憶。至少在這種情況下記憶的喚起並無神秘之處可言。”⁷⁹⁾確實,記憶往往是借助於“他者”所發生的。以晚清中國言之,這個“他者”無疑即是“外來因素”。用不著特別指明,就“外來因素”來說,“西方因素”無疑構成最突出的環節。然而,具體到晚清中國對“亞洲”的闡述,卻有必要置於認知“世界”的歷史長程加以考察,一方面,晚清關於“亞洲”的言說是在從“天下”到“萬國”的轉換中凸顯的;另一方面,晚清認知“亞洲”的“他者”——朝鮮與日本,也構成不可或缺的環節。依託延續“歷史記憶”的特殊媒介形式——“策問”及教科書,就不難看出朝鮮與日本作為“他者”的“形象”,構成晚清闡述“亞洲”重要的參照。而且,無論是“策問”還是“教科書”,都具有特殊的意味,這樣也可以超越個別思想人物的見解,審視晚清主流意識形態針對“亞洲”的立場。

74) 柳卸林選譯自De Augmentis Scientiarum, 引自何兆武主編《歷史理論與史學理論——近現代西方史學著作選》,北京商務印書館,1999年,頁12-21,引文見頁13。

75) 參見雅斯貝斯,《歷史的起源與目標》,魏楚雄、俞新天譯,北京華夏出版社,1989年。

76) 莫里斯·哈布瓦赫著,《論集體記憶》(On Collective Memory),畢然、郭金華譯,上海人民出版社,2002年,頁294。

77) 路易斯·科瑟,《導論——莫里斯·哈布瓦赫》,見莫里斯·哈布瓦赫著,《論集體記憶》,頁59。

78) 關於“托古”之論述策略及成因,參見章清《“傳統”系譜的建構與中國自由主義的論述策略》,收入劉青峰、岑國良編《自由主義與中國近代傳統》,香港中文大學出版社,2002年,頁251-88。

79) 莫里斯·哈布瓦赫前引書,《論集體記憶》,頁69。

청나라 말기 중국의 ‘아시아’ 담론에서 연장된 ‘역사의 기억’

— ‘타자’로서의 일본과 조선에 관한 담론까지 포함하여 —

章 清 (復旦大學校)

〈목 차〉

- I. ‘천하’에서 결핍된 ‘아시아’
- II. 세계 구성 속의 ‘아시아’
- III. 일본에서 들어온 ‘동양사(東洋史)’
- IV. ‘아시아’로서의 중국
- V. ‘타자’로서 일본과 조선
- VI. 결론

본고는 청나라 말기 중국의 ‘아시아(亞洲)’ 담론에서 연장된 ‘역사의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나라 말기 중국의 아시아 관련 담론에 대해 학자들은 제각기 나름의 이론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대부분 ‘아시아’ 자체, 특히 일본과의 대비에 집중되어 왔다.¹⁾ 그러나 필자는 청나라 말기 ‘아시아’ 관련 담론을 검토할 때, 당시 ‘세계’ 인식의 역사적 과정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담론은 ‘천하’에서 ‘만국’으로의 전환 속에서 부각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청나라 말기 ‘아시아’와 ‘타자’, 즉 조선과 일본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상가들의 개별적인 담론을 뛰어 넘어 다른 분야의 텍스트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역사 기억’ 연장의 특수한 매개 형식인 ‘책문(策問)’과 교과서를 빌어 ‘타자’로서 조선과 일본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청나라 말기 ‘역사의 기억’이 등장한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었다. 그 배경은 “3천 년 동안 전례 없었던 대변국(大變局)”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해 널리 ‘기억’의 ‘창고’가 개방되었고,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도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그 하나는 ‘반만(反滿: 청나라 만주족에 대한 항자-역자주)’에 의해 촉발되어 회복된 한족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열려진 중국 역사에 대한 기억이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구 과정은 곧 중국 역사 기억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²⁾ 따라서 본고는 ‘외부적 요인’을 ‘아시아’ 인식의 촉발로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특수

1) 이 분야의 연구로는 葛兆光, 「想像的和實際的: 誰認同“亞洲”?——關於晚清至民初日本與中國的“亞洲主義”言說」, 『臺灣大學歷史學報』, 2003년 제30기 참고. 최근 연구 성과로는 孫江의 「“東洋”의變遷——近代中國語境裡的“東洋”概念」와 黃東蘭의 「“亞洲”的誕生——近代中國語境裡的“亞洲”概念」 참고. 모두 孫江의 『新史學(第二卷)——概念·文本·方法』에 수록되어 있다. 北京中華書局, 2008년, 3~26, 27~46.

2) 王汎森은 청나라 말기 역사 기억의 부활과 의복 양식 등 생활 전통의 은밀한 부활이 章太炎을 위시한 지식인들의 현실적인 정치적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沈松橋는 청나라 말기 지식인들이 구축한 중국 ‘민족 영웅’ 제보를 통해 역사 서사와 국가 및 민족 상상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王汎森, 「清末的歷史記憶與國家建構——以章太炎為例」, 『思與言』, 제34권 제3기, 1~18쪽, 1996년

한 매개 형식(책문과 교과사역자주)에 주목하여, 청나라 말기 중국의 ‘역사 기억’이 어떻게 연속성을 확보하는가 또는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는가를 살펴본다. 여기서 핵심은 ‘책문’과 ‘교과서’가 모두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책문’은 국가 고시에 응시한 이들의 답안지이다. ‘질문(問)’을 설정한 자든 그 질문에 답해 ‘정책(策)’을 제시한 자든 모두 정부의 공식 이데올로기를 대체로 고수하였고,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의지를 체현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역사 기억’의 연장으로서 청나라 말기 사상 변천의 상징을 구성하는 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전통’ 또는 ‘역사’가 어떻게 ‘발명’되며 ‘역사의 기억’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장되는가일 것이다.³⁾

I. ‘천하’에서 결핍된 ‘아시아’

이 질문은 역시 소위 ‘천하(天下)’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일찍이 맹자(孟子)는 “제후의 세 가지 보물은 곧 토지, 인민, 정사(諸侯之寶三：土地、人民、政事)”⁴⁾라고 하였다. 중국의 전통 가치관 역시 정치 질서의 몫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곧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이미 서구 정치학에 근접하는, 토지, 인민, 주권으로 ‘국가’의 개념을 설정하는 담론”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천하’와 ‘중국’ 그리고 ‘사(四夷)’의 구분은 또한 이 담론이 현대 사회의 ‘국가’ 개념과 구분되는 지점을 의미하고 있다.⁶⁾ 이는 고염무(顧炎武, 1613~1682)가 ‘망국(亡國)’과 ‘망천하(亡天下)’를 논한 다음의 『日知錄』 구절에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다. “망국이 있고 망천하가 있다. 망국과 망천하는 어찌 구별하는가? 이르기(易姓)하여 연호를 바꾸면 이를 망국이라 이른다. 인의가 땅에 떨어져 금수가 사람을 잡아 먹고 사람이 서로 잡아 먹기에 이르면, 이를 망천하라 이른다……그러므로 천하를 보전할 줄 안 후에야 그 나라를 보전할 줄 알게 된다. 나라 보전은 그 군주와 그 신하가 지위가 높은 자와 도모하고, 천하 보전은 미천한 필부에게 책임이 있다.”⁷⁾ 이 언급은 광범위하게 인용되는 만큼 실제로 중요한데, 이는 ‘도(道)가 세(勢)보다 존귀하다’는 이상주의를 강화하였고, 중국 문화가 왕조 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독서인의 견해를 보여준다. 진인각(陳寅恪, 1890~1969) 역시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와중에 몸을 둔 사

9월 참고. 沈松僑, 「振大漢之天聲——民族英雄系譜與晚清的國族想像」,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제33기, 77~158쪽, 2000년 6월 참고.

3) Eric Hobsbawm and Terence eds, *The Invention of Traditi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revised edition, London: Verso, 1991).

4) 『孟子·盡心下』의 주에서 “諸侯正其封疆, 不侵鄰國, 鄰國不犯, 寶土地也。使民以時, 民不離散, 寶人民也。修其德教, 布其惠政, 寶政事也。”라고 하고 있다. 焦循, 『孟子正義』, 北京中華書局, 1987년, 1001쪽 참고.

5) 余英時, 「國家觀念與民族意識」, 그의 저서 『文化評論與中國情懷』에 수록, 臺北允晨文化實業股份有限公司, 1990년, 18쪽 참고.

6) 葛兆光是 여러 지도를 통합하여 ‘천하’에 대한 상상과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있다. 「天下、中國與四夷——古代中國世界地圖中的思想史」, 『學術集林』, 제16권, 上海遠東出版社, 1999년 참고.

7) 顧炎武, 「日知錄」卷十三, “正始”, 이는 黃汝成的 『日知錄集釋』에 수록되어 있다. 長沙岳麓書社, 1986년, 471쪽.

대부에 주목하고, 그 ‘품행의 고저’와 ‘학문의 갈래’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도, 그 ‘마음 속에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나라를 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사라질 수 없다.’⁸⁾고 하였다. 고대 중국에서는 주로 “중국을 일정한 정치 강역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문화 시스템으로 바라보았고”, 과거의 ‘천하’라는 어휘 역시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각각 오늘날의 ‘세계’와 ‘중국’에 대응하는 개념⁹⁾이라는 학자들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나라(國)’와 ‘천하(天下)’의 의미를 연구한 전목(錢穆, 1895~1990)은 이를 각각 ‘심장으로 아는 것’과 ‘눈과 귀로 아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¹⁰⁾

어떻게 읽어내든 관계 없이, ‘천하’는 중국 문화 속에서 나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사대부의 역할 및 신분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소위 ‘천하에 도가 있다(天下有道)’는 사대부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자 발언의 주춧돌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삼아, 새로운 담론 환경 속에서 청나라 말기에 나온 ‘천하’에 대한 언급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어 청나라 말기 과거 제도 개혁 속에서 강화된 시험 체재인 ‘책문’을 살펴보면, ‘책문’은 예전부터 있었던 체제로서 그 역사는 심지어 과거보다 앞선다. 역대 장원 전시(殿試)를 보면 ‘천하’를 시제로 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소위 ‘무기를 보관하고 학문을 닦는다(偃武修文)’든가 ‘덕으로 천하를 교화한다(德化天下)’든가 하는 말들은 ‘천하’의 문화적 함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책문’의 경우 구체적으로 ‘천하’를 논술하는 내용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아도, 매우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도대체 무엇을 ‘천하’라 이르는가는 잘 이해하지 못 할지라도, ‘천하’가 지리적인 인식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아도, 천하가 가진 문화 상징적인 의의는 제왕설의 핵심을 형성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소위 전시 책문은 대부분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가 이르기를[奉天承運, 皇帝制曰]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짐이 대통을 이어받아 만방을 위로하고 막으니[朕紹承大統, 撫禦萬邦]”라든지 “짐이 동방의 큰 터에 나아가 천하를 위로하고 편안케 하니[朕寅紹丕基, 撫綏寰寓]” 또는 “짐이 동방의 큰 시작을 이어 천하를 통솔하니[朕寅承洪緒, 統馭寰區]” 하는 식이었다. 비록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하나같이 두 가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권위가 시작(하늘-역자주)을 계승함에서 나온다는 점과 그 통치 범위를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천하’(또는 ‘寰宇’나 ‘萬邦’과 같은 표현) 역시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게다가 제왕만이 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며, 이를 좇는 사대부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였다.¹¹⁾ 하지만 천하에 대한 ‘장원책(狀元策)’의 기술을 보면, ‘천하’를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일종의 습관이였다. 특수한 시기에 ‘변경 안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고 단지 소위 ‘치도(治道)’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책문’이라고 해도 팔고문(八股文)과 다를 것도 없었다. 청나

8) 陳寅恪, 「吾國學術之現狀及清華之職責」, 『陳寅恪集·金明館叢稿二編』, 北京三聯書店, 2001년, 361~363쪽.

9) 邢義田, 「天下一家——中國人的天下觀」 참고. 劉岱總의 『中國文化新論·根源篇』, 臺北聯經出版公司, 1981년 425~478쪽에 수록되어 있다. 羅志田, 「先秦的五服制與古代的天下中國觀」, 『學人』, 제10집, 1996년 9월.

10) 其言曰: “余幼時備聞國人譴責古人, 謂其閉關自守, 不知有天下, 而妄謂國之外有天下。但如中國之萬里長城, 固可謂其閉關自守, 然終不得謂中國古人不知長城外之有異民族同居此天下。唯能於天下內閉關自守, 則乃中國文化之長處, 而非中國文化之短處。豈西方之帝國主義資本主義所能比。若謂中國古人不知有西歐, 則此乃耳目之知, 非心胸之知。當時之西歐人, 又豈知有中國。” 錢穆, 「晚學盲言·國與天下」(上), 『錢賓四先生全集』, 臺北聯經出版公司, 1998년, 제48책, 418쪽 참고.

11) 鄧洪波, 龔杭雲 편저 『中國狀元殿試卷大全』, 上海教育出版社, 2006년, 上下冊 참고.

라 말기 과거 시험의 과제를 보면, 광서(光緒) 6년 경진과(庚辰科(1880년) 회시(會試) 문제인 “欽命四書詩題” 두번째 문제는 “멀리 있는 자들을 아끼니 사방에서 귀의하고, 제후를 품으니 천하가 그를 두려워 한다[柔遠人, 則四方歸之, 懷諸侯, 則天下畏之]” 였다. 중용(中庸)에서 출제된 이 문제의 답안지로 수록된 왕영예(王詠霓, 1839~1916), 심증식(沈曾植, 1850~1922) 등의 글은 팔고문의 형식적 제약 때문에 새로운 맛이라곤 없었다.¹²⁾

‘천하’를 담론 구성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에 전통적으로 중국에 다른 나라나 민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다. 물론 『史通』이체편(二體篇) 및 『春秋』에 “무릇 춘추는 일월(日月)을 차례로 삼아 시세(時歲)를 열거해 서로 잇는 것으로, 중국과 오랑캐가 함께 시대를 같이하니, 그 일을 기록하여 현재에 그린다.”는 언급이 있듯이, 본래 중국 사서는 전통적으로 주변 민족과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기술하였다. 실제로 각 시대의 사서는 대부분 ‘열전(列傳)’이나 ‘지(志)’의 형식으로 다른 민족과 국가의 상황을 소개하였다. (주로 주변 국가, 특히 책봉 관계에 있는 국가에 편중되었다) 청나라 초기 편찬된 『明史』의 경우는 서구 국가까지 편입시켜, ‘토사(土司)’와 ‘서역(西域)’ 외에도 ‘외국(外國)’ 열전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중국은 주로 관련 역사 자료를 인용하여 세계에 관한 인식을 ‘상상’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明史』를 보면, 당시 ‘천하에 5대주가 있다.(天下有五大洲)’는 지식을 이미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를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구체적인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력(萬曆) 당시 그 국인 마테오 리치가 경사(京師)에 이르러 만국전도(萬國全圖)를 지었다. 그에 따르면 천하에는 5대주가 있으니, 첫째는 아시아주로 100여 나라가 있으며, 중국이 그 중 하나이다. 둘째는 구라파주로 70여 나라가 있으며, 이탈리아가 그 중 하나이다. 셋째는 아프리카주로 역시 100여 나라가 있다. 넷째는 아메리카주로 땅이 훨씬 크고 남과 북의 두개 주로 나뉘나 그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모와란자주가 다섯째로, 그 영역 안에서 대지가 끝난다고 한다. 그 설이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국인이 중토에 와서 그 땅이 분명 있다고 하니, 낭설일 리는 없으리라.¹³⁾

소위 “그 설이 황당무계하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곧 중국이 세계 지리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에 해당하는데, 중국 본토에서 관련 역사 자료를 인용하여 진행했던 ‘상상’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또한 “그 국인이 중토에 와서 그 땅이 분명 있다고 하니, 낭설일 리는 없으리라.”는 부분은 그러한 생각에 변화가 생긴 이유에 해당하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서양 사이를 왕래한 사람을 통한 실질적인 교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소위 “성인은 바깥 세상에 대해 부인하지도 않지만 거론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세계 지리에 관한 인식 역시 증거로 확인하기 어려운 갖가지 ‘상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중국과 외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생기자, 이러한 한계는 곧 노정되었다. 일례로 요형(姚瑩, 1785~1852)은 “자고로 지리를 말하는 자들은 모두 중국은 상세하고 오랑캐는 약소하

12) 顧廷龍, 『清代硃卷集成』, 臺北成文出版社, 1992년, 45~50책. 이 가운데 王詠霓의 답안지는 45冊, 201~204쪽에 나온다. 沈曾植의 답안지는 46冊, 261~264쪽에 실려 있다.

13) 『明史·外國傳』, 卷326, 929쪽 참고. 출처는 『二十五史·明史』, 上海古籍出版社, 上海書店出版社, 1986년, 8703쪽.

니 사기, 전한서, 후한서의 제 정사와 열전조차 대부분 보지도 않는데, 외국 오랑캐의 책이야 더 말해 무엇하는가?”¹⁴⁾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천하’ 관의 주도 하에 결집된 ‘아시아’를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I. 세계 구성 속의 ‘아시아’

예수회 선교사가 소위 ‘아시아’ 지도를 서구에서 중국으로 전했다는 사실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명나라 만력(萬曆) 10년(1582) 중국에 온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는 기독교 전파 외에도, 천문과 산학(算學) 지식을 전파하고 10여 장의 세계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도 속에는 당시 이미 알려진 세계 오대주(五大洲) 즉, 구라파, 아프리카, 아시아, 남북아메리카 및 모와란자¹⁵⁾가 그려져 있다. 지도 외에 명나라 천계(天啓) 3년(1623)에 완성된 알레니(Jules Aleni, 1582~1649)의 『직방외기(職方外紀)』는 중국어로 작성된 최초의 세계 지리서이다. 이 책은 1권 아시아주, 2권 구라파주, 3권 아프리카주, 4권 아메리카주와 모와란자주, 5권 사해 총설로 나누어, 오대주 각국의 풍토, 생활, 기후, 물산 등을 소개하였다. ‘亞細亞總說’에서는 “아세아는 천하에서 가장 큰 대륙으로, 그 땅에 인류가 번성하고 그 도읍에 성현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큰 나라는 첫째로 중국을 들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위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그 동남에 자리잡고 있다. 자고로 제왕이 즉위하고 성현이 연이어 흥했으며, 성명, 문물, 예악, 의관의 아름다움이 그 산천, 토속, 물산, 인민의 풍부함과 맞물려, 멀리 가까이 모두 받들어 북극으로 우러렀다.”¹⁶⁾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 대한 묘사는 비록 찬사가 대부분이지만, 2권의 구라파총설과 비교 대조해 보면 그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천하의 둘째 대륙은 구라파라 부른다..... 구라파주 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나라가 있고, 국왕부터 서민까지 모두 주 예수 정교를 받들어, 다른 학설이 끼어드는 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구라파 제국은 모두 문화를 숭상하여, 국왕은 널리 학교를 세우고 나라마다 지방마다 대학과 중고등학교가 있고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제국에서 읽는 서적은 모두 성현이 지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책으로, 천주 성경이 대중을 이룬다. 그 후의 현자들의 책도 반드시 대도(大道)에 맞고 인심에 유익하여야 국내에 널리 전하도록 허용한다.”¹⁷⁾고 적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학문과 신앙 측면에서 구라파주가 뛰어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을 아시아 안에 놓고 보는 것은 중국 사대부들에게 큰 충격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엽향고(葉向高, 1559~1627)는 『職方外紀』 서문에서 “이태리 알레니군의 직방외기를 다

14) 姚瑩, 『華人著外夷地理書』(『康輶紀行』卷九), 『中復堂全集』, 『近代中國史料叢刊續編』, 臺北文海出版社, 1981년, 제6집, 3309쪽 참고.

15) 마테오 리치는 『坤輿萬國地圖』의 주석을 통해 “지리적으로 나누면 5대주가 된다(以地勢分輿地為五大洲)”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지도는 1602년에 제작되어 禹貢學會에서 1936년 발행되었다. ‘모와란자(墨瓦臘泥加, Mowalanijia)’는 상상의 대륙이다.

16) 謝方, 『職方外紀校釋』, 北京中華書局, 1986년, 32~33쪽.

17) 謝方, 『職方外紀校釋』, 69~70쪽.

시 꺼내니, 모두 우리 중국이 예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바이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 곳이다.” 게다가 “그 말이 모두 근거가 있어 도가의 제천(諸天) 또는 석가의 환하(恒河)나 수미(須彌)처럼 만겁(萬劫)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 황당한 소리는 아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구식곡(瞿式穀) 역시 ‘職方外紀小言’에서 “지도에 따라 계산해 보면, 중국은 아시아의 10분지1이고 아시아는 다시 천하의 5분지1이니, 중국 바깥에 중국과 같은 것이 아홉이 있다는 것이다. 겨우 이 구석을 가지고 천하라 하고 나머지를 배척했으니 우물 안의 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도다!”¹⁸⁾라고 하였다. 또한 이지조(李之藻, 1565~1630)는 ‘刻職方外紀序’에서 “땅이 이렇게 크다고 해도 천하에서는 좁쌀 한 톨일 뿐이고, 중국의 고을은 다시 그 좁쌀의 터럭끝이다.”¹⁹⁾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아시아’ 담론이 중국에서 가지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시아’가 ‘천하’를 재해석하는 무기가 되면서, 단지 ‘아시아’의 일부인데 어찌 ‘천하’라 하겠는가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은 여전히 일부 사대부에 국한되었을 뿐, 예수회 선교사가 가져온 새로운 지리 지식이 보다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다.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은 『職方外紀』를 소개하면서 비록 그 “기록이 모두 절역(絕域)의 풍토로서 옛 지도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이 대부분 기이하고 고증할 수 없어 어느 정도 과장을 면할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도설(坤輿圖說)』에 대한 소개는 더 흥미로운데, 그의 기록이 동방삭(東方朔)의 『신경이(神經異)』와 주밀(周密)의 『계신잡식(癸辛雜識)』 등과는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그러므로 “그가 동쪽으로 온 이후에 중국의 고서를 얻어 보고 그 내용을 모방하여 자신의 학설로 바꾸었다면, 모두 실제로 가 볼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다.”²⁰⁾고 보고 있다. 조지 매카트니(George Macartney, 1733~1806) 영국 특사가 중국어 세계에 전달한 메시지 역시 청나라 조정이 “사해(四海)를 위로하자” 멀리 오랑캐가 “마음을 기울여 중국을 사모하여”, “만국(萬國)에서 찾아 왔다”는 식으로 해석되었다.

예수회 선교사의 뒤를 이어 지식 전파를 담당한 주체는 주로 기독교 선교사였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는 기독교에 대한 중국 관료와 학자들의 공포심이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럽의 ‘신화’와 ‘신화의 역사’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에 따라 최초의 동서 문화 접촉은 사실상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하는 중국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가져온 유럽 신화와 만난 것이었다.²¹⁾ 이 때 서구가 가진 ‘강세(強勢)’가 의미하는 바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박과 대포만으로도 서구의 지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이 당시 아시아에 대한 기술을 보면 어느 정도 변화가 일고 있었다. 뮤어헤드(William Muirhead, 1822~1900)는 『지리전지(地理全志)』 1권 ‘지리총지(地理總志)’의 ‘亞西亞洲全志’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세아는 오주(五洲)의 으뜸으로, 그 안에 산들이 둘러싸고 고원이 광활하며, 인문이 모여들고 물산이 번성하며, 기후가 적당하

18) 葉向高, 「〈職方外紀〉序」와 瞿式穀, 「〈職方外紀〉小言」. 謝方の『職方外紀校釋』, 9~10 및 13~14쪽 참고.

19) 李之藻, 「刻職方外紀序」, 『天學初函』, 臺北學生書局, 1965년, (三), 1269쪽.

20) 『四庫全書總目』卷71 ‘史部·地理類四’, ‘『職方外紀』조, 『坤輿圖說』조 참고. 北京中華書局, 1983년, 上冊, 632~34쪽.

21) 陳明生, 「南懷仁來華耶穌會士의地理學著作(1584~1674)」, 魏若望의『南懷仁——魯汶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년, 123~36쪽.

고 논밭이 비옥하다.” 고 한 그는 ‘정론(政論)’ 부분에서는 ‘학속(學俗)’ 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주내 학속은 우열이 달라, 과거 오주(五州)에서 가장 영민하였으나 오늘에는 크게 쇠퇴하였다.” 고 말하고 있다. 그는 『歐羅巴洲全志』의 政論 부분에서는 學俗 을 학예(學藝) 로 바꾸고 있으며 “(구라파) 주내 학예는 오대주의 으뜸” ²²⁾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트킨스(Joseph Edkins, 1823~1905)는 자신이 번역한 “서학계몽십육종(西學啓蒙十六種)” 가운데 『希臘(그리스)志略』, 『羅馬(로마)志略』, 『歐洲(유럽)志略』 등의 역사 서적을 통해 ‘유럽’ 에 대한 칭송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歐洲志略』은 주로 유럽이 얼마나 강성한가를 기술하고 있는데, “중국의 도광 초즈음부터 유럽 구도에 변화가 일면서 과거보다 더욱 강해졌고, 최근 30년에 이르러 그 변화가 극에 달했다.” 고 하면서 그 변화를 종합해보면 “오늘날 유럽 지역 각국의 정치는 과거보다 적절해지고 국민도 모두 점점 자주를 얻고 있다. 갖가지 기예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 세상에 전례 없는 것들이며 또한 융성하도다.” ²³⁾고 하였다. 『태서신사람요(泰西新史攬要)』에서 나타난 견해를 덧붙이자면, 리차드(Timothy Richard, 1845~1919)는 번역 서문에서 중국이 과거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국으로 우뚝 솟아 그 명성이 흘러 넘쳐 멀리 다른 대륙에까지 미쳤으나” 이제 “오늘에 이르러 조그만 일본도 대적하지 못하니,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²⁴⁾라고 강조하였다.

기독교 선교사들의 펴낸 간행물을 살펴보면, 관련 담론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하이관진(遐邇貫珍, Chinese Serial)』의 경우 중국은 주로 ‘중토(中土)’ 라 부르고, 외국은 주로 ‘태서(泰西)’, ‘열방(列邦)’, ‘외방(外邦)’, ‘서방(西邦)’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천하(天下)’ 와 ‘영환(瀛寰)’ 으로 중국과 외국을 포괄하여 언급하였다. 이는 새로운 지리 지식을 전파하는 동시에 중국의 관련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무어헤드의 저작인 『地理全志』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으면서 『遐邇貫珍』 편집자는 “중국의 지리서들을 고찰해보면 그 숫자는 적지 않으나, 그 가운데 실린 내용이 그다지 상세 명료하지 않고 기록 내용도 대부분 중토(中土)에 편중되어 있으면서도, 그 제목을 천하지여(天下地輿)라 하니, 천하를 작게 보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²⁵⁾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외인(外人) 역시 어느 정도는 ‘천하만국(天下萬國)’ 이라는 표현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면서 종교에 기반한 ‘보편주의(普世性)’ 를 통해 세상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遐邇貫珍』를 보면, “각국의 풍속이 달라 각국이 각자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혹자는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 동류(同類)라면 종교가 마땅히 같아야 하고, 만국(萬國)이 모두 한 하느님 아버지의 적자(赤子)이고 계다가 본래 두 사람에서 기원하였다면 마땅히 한 뜻을 믿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상제를 받들고 마중하여 모두 하늘에서 안식한다.” ²⁶⁾고 주장하고 있다. ‘만국(萬國)’ 의 의미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종교의 ‘보편성(普遍性)’ 을 역설한 것이다. 일례로 정위량(丁韋良)이 번역한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범례(凡例)’ 에서는 “이 책에서 수록한 조례를 만국공법이라 명명한 것은

22) 慕維廉, 『地理全志』 卷一, 卷二, 王西清&盧樸青의 『西學大成』, 上海醉六堂書坊, 1895년과 寅編의 “地學一”, 1, 2쪽 참고.

23) 『歐洲史略』, 總稅務司署印, 1886년, 187~188쪽.

24) 리처드 티모시 역, 蔡爾康 著, 『泰西新史攬要』, “譯本序”, 上海廣學會, 1895년.

25) 「地理撮要」 文後語, 『遐邇貫珍』 제3권 제6호, 1855년 6월, 5쪽.

26) 「續地理撮要終」, 『遐邇貫珍』 제3권 제9호, 1855년 9월, 10쪽.

한 나라의 사적인 성과가 아니라 각국에서 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이 각국의 율례(律例)를 서로 비교하고 있으므로 만국률례(萬國律例)라고도 부른다.”²⁷⁾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나라 말기 중국의 관련 지식 수용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국에 온 서양인이 전파한 세계 지리에 관한 지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이 이러한 지식을 수용하게 된 배경으로, 이 점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면 중국이 처한 곤경과 ‘천하만국(天下萬國)’을 수용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마시니(Federico Masini)는 ‘만국(萬國)’이라는 어휘가 1854년 나삼(羅森)의 『일본유기(日本遊記)』에 처음 나왔다고 했지만,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듯이 보인다.²⁸⁾ 사실 중국에서 ‘萬國’이라는 명칭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으로, 『易·乾』에 이미 ‘모두가 만물에서 나오니 만국(萬國)이 편안하다’고 하고 있으며, 두우(杜佑)의 『통지총서(通志總序)』에도 ‘만국(萬國)의 길이 달라도 모두 중국으로 통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 고대 문헌에서 만방(萬邦), 천하(天下), 각국(各國)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소위 ‘만국(萬國)’이 항상 ‘제하(諸夏)’와 함께 언급되고 있고, 이는 ‘諸夏’가 ‘萬國’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 까다로운 문제는 비록 중국 사대부가 점진적으로 ‘天下萬國’을 수용하였다고 하나, 그 ‘萬國’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개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²⁹⁾ 당시 중국 사대부가 가진 천하관 속에 드러난 만국(萬國)이란 ‘천하(天下)의 만국’으로, 여전히 천하에서 중화(中華)는 특수한 위치라고 강조하고 있어, 양자는 주로 대조에 활용되고 있다. 『영환지략(瀛寰志略)』에서 서계여(徐繼畬, 1795~1873)는 중국을 종종 ‘중토(中土)’라 일컫고, 이에 상응하는 개념을 사주(四洲)를 의미하는 ‘사토(四土)’로 표현하고 있다. 유홍고(劉鴻翱, 1778~1849) 역시 이 책을 위한 쓴 서문에서 ‘萬國’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 중국이 천지(天地)의 심장이요, 사이(四夷)는 천지의 사지(四肢)다. 고로 개벽(開闢) 이래 신령(神靈)이 이어 살아있고, 복희(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 요순(堯舜),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이 하늘을 대신해 제위에 올랐으니, 천군(天君)의 큰 위엄을 백성이 좇고, 성인이 나타나 만국(萬國)이 편안하다.”³⁰⁾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마틴(WAP Martin, 1827~1916)이 번역한 『萬國公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당시 중국 사대부들의 언급 역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혹자는 “오늘 구주(九州) 밖의 나라가 즐비하나 법통을 잊지 않았는데 어찌 나라라 한단 말인가. 여기 마틴 교사의 만국공법을 번역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적했으며, 또 혹자는 “그간 천하(天下)의 대국(大局)을 보면, 그 선함이 중화(中華)가 으뜸이다. 사해(四海)가 회동(會同)하여 만국(萬國)이 알현하러 오고자 하나 미치지 못하니, 이 밖의 제국(諸國)은 춘추(春秋) 당시의 큰 열국(列國)들이라.”³¹⁾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치 중국이 ‘萬國’의 바깥에 있는 듯한 표현들이다. 따라서 청나라 말기 세계 질서를 언급할 때 ‘萬

27) 휘턴, 『萬國公法』, 丁韞良 역, 上海書店出版社, 2002년, 4쪽.

28) 마시니, 『現代漢語辭彙的形成——十九世紀漢語外來詞研究』(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National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黃河清 역, 上海漢語大詞典出版社, 1997년, “附錄2: 十九世紀文獻中的新詞詞表”, 246쪽.

29) 方維規는 이미 19세기 하반기에 여러 책이름에 萬國이란 두 글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論近代思想史上的“民族”、“Nation”與“中國”』, 『二十一世紀』, 2002년 4월호, 33~43쪽 참고.

30) 徐繼畬 편저, 『瀛寰志略』, 臺北商務印書館, 1986년, 37~38쪽.

31) 董恂의 「序一」, 張斯桂의 「序二」, 『萬國公法』, 上海書店出版社, 2002년, 1, 2~3쪽.

國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곧 당시 중국이 ‘萬國’을 수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들이 언급한 ‘萬國’은 곧 天下의 ‘萬國’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관응(鄭觀應, 1842~1922)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어떻게 전환이 발생했는가를 대략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우리 중국이 스스로 지구(地球)의 중심으로 자처한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이적(夷狄, 오랑캐)으로 보는 것으로, 그래서 그 동안 강역을 구획지어 스스로 지키면서 멀리 도모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통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중국은 역시 스스로를 만국(萬國)의 일원으로 자처하지 않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는 “지구는 둥근 것으로 동서도 없는데 어찌 가운데와 바깥이 있단 말인가. 함께 하늘을 지고 있으면서 어찌 억지로 중국과 오랑캐로 나눈단 말인가. 중국이 스스로를 만국(萬國)의 일원으로 자처한다면 그들의 공법(公法) 가운데에도 오로지 중국만 없어서는 안될 것이 있고, 우리 중화(中華)의 법 역시 만국(萬國)에 시행 가능하다.”³²⁾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핵심은 ‘天下萬國’ 개념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중국이 ‘만국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와 나라 대 나라의 대등한 관계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는가에 있다.

III. 일본에서 들어온 ‘동양사(東洋史)’

미국 학자 레이놀즈(Douglas R. Reynolds)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898년부터 1910년의 12년 간 중국의 사고와 체제의 변화는 팔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중국의 표본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일본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³³⁾ 청나라 말기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담론을 살펴볼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는 채널이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가 1875년에 저술한 『문명론개략(文明論概略)』은 현대 문명을 다음과 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이 ‘가장 문명한’ 나라이고, 터키, 중국, 일본 등은 ‘반개화(半開化)’한 나라이며, 아프리카와 호주의 나라들은 ‘야만’ 국가이다.” 그는 또한 야만, 반개화, 문명은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하였다.³⁴⁾ 특히 그가 1885년에 내놓은 유명한 ‘탈아론(脫亞論)’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탈아입구(脫亞入歐)’는 근대 일본에서 적어도 하나의 기본 명제였고, “나는 마음 속으로부터 아시아의 나쁜 친구가 되는 것을 사절한다”는 그의 명언은 이후 거의 반 세기 동안 적어도 근대 일본이 걸어간 길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였다.³⁵⁾

‘아시아’를 둘러싼 일본의 담론이야 말로 중국의 아시아 의식을 직접적으로 강화시켰으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소위 ‘타자(他者)’는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양계초(梁啓超, 1873~1929)가 『서학서목표(西學書目表)』의 역사학 분야에서 첫째로 꼽은 책은 『만국사기(萬國史記)』인데, 이는 주목할 만한 책이

32) 鄭觀應, 「易言·論公法」, 夏東元の 『鄭觀應集』, 上海人民出版社, 1982년, 上冊, 67쪽.

33) 任達著, 『新政革命與日本』, 李仲賢 역, 南京江蘇人民出版社, 1998년, 7쪽.

34) 福澤諭吉, 『文明論概略』, 北京編譯社 역, 北京商務印書館, 1959년, 9~10쪽.

35) 野村浩一, 『近代日本の中國認識』, 張學鋒 역, 北京中央編譯出版社, 1999년, 110쪽.

다. 이 책은 청나라 말기 중국 문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고, 송서(宋恕, 1862~1910)는 친구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서 『萬國史記』는 “한 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문하생들에게도 읽으라고 권해야 한다.” 고 하면서,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책이 지구(地球) 만국(萬國)의 고금의 정교(政教) 원류(源流)를 극히 조리 있게 기술하고 있어, 우리 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바”³⁶⁾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萬國史記』는 과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 이 가운데 드러나는, 천하와 만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매우 의미 심장한 부분이다. 『만국사기서(萬國史記序)』에서 시게노 야스즈구(重野安繹, 1827~1910)는 이 책이 “크나큰 우주(宇宙)의 무수한 만국(萬國)이 각자 자웅을 겨루지만 서로 통일하지 않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청나라와 대비시켜 중국은 “처음부터 만국의 역사를 일국의 역사라 하였다” 고 비판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매번 중국의 사서를 읽으면서 소위 외국전(外國傳), 이역지(異域誌) 등에 이르면 그 의 스스로 작음을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중토(中土)로 자처하면서 이웃 만국(萬國)에 군림하여, 강대함이 자신을 넘는 나라도 오랑캐로 보고 변속(藩屬)으로 대하니, 그 정치 득실(得失)을 상관하지 않고 국세(國勢)의 강약(強弱)도 묻지 않으며 그는 그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그가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작은 것이다. 최근 위원(魏默深)이라는 자가 바다를 방어하면 천하에 통할 것이라 외치고 있으나, 그 책의 제목을 『海國圖志』라 붙이니, 오주(五洲) 제방(諸邦)을 해국(海國)으로 본 것이리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지 않겠느냐마는, 중국 역시 해국일 따름인데, 크고 작음을 물어서 무엇하랴. 그 나라는 크다하나 수만리에 불과하니, 몸은 수만리에 두어도 그 눈은 파도조차 본 적이 없지만, 외래자(外來者)들은 모두 범선으로 바다를 누비는데도, 비로소 눈을 해국(海國)에 돌렸으면서도 스스로 중토로 칭하는 구나. 어린아이의 식견이고, 우물안의 개구리 격이다. 위원은 식자로 칭하면서도 좁은 식견에 안주하여 스스로를 보지 못 하니, 다른 이들이야 익히 알만하다.……

『만국사기(萬國史記)』 1권의 ‘아세아총설(亞細亞總說)’은 지리상의 아시아를 묘사하는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인문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다. “아세아는 인류가 처음으로 탄생한 지역으로, 다른 대륙의 인민들이 모두 이로부터 파생된 무리이다.”, “주내(州內) 제국(諸國)의 학속(學俗)의 우열이 달라, 과거 문물(文物)과 제도(制度)가 오주(五洲)에서 탁월하였지만, 지금은 구라파의 뒷전으로 물러났다.”³⁷⁾ 일본 학자에 의해 묘사된 이러한 아시아의 풍경은 아시아에서 중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른 저서 속에서도 중국이 더 이상 특별한 나라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일례로 『만국지지(萬國地志)』는 아시아주의 정치 구도를 설명할 때 먼저 ‘일본제국(日本帝國)’을 언급하고 다음으로 ‘지나제국(支那帝國)’을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이외에는 모두 군주(君主)가 전제(專制)하는 반개국(半開國)으로, 지나, 조선, 페르시아, 삼 등이 그러하다. 그 이하는 독립하지 못하여, 비록 그 땅이 넓고 백성이 많으나, 이미 열강에 의해 겸병되어 타인이 관할하니 혹은 속국(屬國)이라고 하고 혹은 보호국(保護國)이라 한다.”³⁸⁾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36) 宋恕, 「致貴翰香書」(1895년 7월), 胡珠生, 『宋恕集』, 北京中華書局, 1993년, 上冊, 533~535쪽.

37) 岡本監輔 著, 『萬國史記』, 上海申報館出版, 1879년, 2~3쪽.

38) 일본 矢津昌永 著, 樊炳清 譯, 『萬國地志』, 樊炳清이 편찬한 『科學叢書』, 제1집, 教育世界出版所, 1901

일반적으로 일찍부터 중국 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역사책은 “대개 일본 학자 나가 미치요(那珂通世)의 『지나통사(支那通史)』와 구와바라 지츠조우(桑原鷺藏)의 『중등동양사(中等東洋史)』의 두 권으로, 특히 전자는 한문으로 쓰여진 관계로 영향이 더 컸지만,”³⁹⁾ 아시아에 대한 기술 측면에서는 후자의 영향이 더 컸다. 나가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의 『中等東洋史原序』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구주(歐洲)의 흥망성쇠를 기술하면서 그 이름을 세계사(世界史)와 만국사(萬國史)로 부르는데, 이는 한 편의 견해일뿐 통론(通論)이 아니다. 세계(世界) 문명(文明)이 반드시 구주에서 연유하지만은 않으며, 동양(東洋) 제국(諸國)의 사회(社會) 발흥(勃興)과 발전 기세 역시 유럽보다 미약하지 않다. 동양 대국(大國)은 너덧 국가로,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에 나라들 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니, 국민된 자가 동양의 역대 흥망 성쇠를 알지 못함이 어찌 가할 것인가? 이에 중고등학교 역사과는 국사(國史), 서양사(西洋史) 외에 동양사(東洋史) 과목이 있다. 요즘 사람들이 펴낸 동양사가 매우 많으나 모두 중국은 상세하고 해외(塞外)는 소략하며, 동서양의 교섭(交涉)은 중앙아시아만 다룰 뿐 더 큰 부분은 놓치고 있어, 결국 아시아 고금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고자 할 때 한 눈에 알기가 어렵다. 내 항상 이를 한탄하였다. 근자에 구와바라 지츠조우(桑原鷺藏) 군이 그 저서 『中等東洋史』를 나에게 보여 읽어 보니, 사료(史料)를 동서(東西)에서 취하고 인용이 광범위하여, 동양 5천 년 역사의 흥망성쇠의 요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기쁘게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니 국민(國民)의 애국지심(愛國之心)을 고취하기에 족하다.”⁴⁰⁾ 중국인들에 대한 이 책의 영향력 가운데, 특히 ‘아시아’에 관한 인식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동유(周同愈)는 『중역중등동양사자서(重譯中等東洋史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주(五洲)가 아직 통하기 이전 중국은 스스로 크다고 자처하고 그 옆의 나라들을 모두 작은 오랑캐라고 보았을 뿐, 스스로 동양(東洋)에 있는 줄 몰랐다. 해외(海外)에 서양(西洋)이 있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사람들은 동서양(東西洋)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동양의 동양 그리고 최근 백년 동양과 서양이 국제적으로 날로 빈번하고 긴밀하나, 우리 중국에는 아무도 그 중요 사건을 꼽을 줄 아는 자가 없으니,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다. 구와바라 지츠조우(桑原鷺藏) 군의 『中等東洋史』는 일본인이 저술한 동양사로,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완벽한 책이다. 이전의 역자(譯者)는 세속에 따라 말할 만한 것이 없고, 또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중요 사건을 일본 기원(紀元)으로 시기를 적었다. 구와바라 지츠조우 군은 일본인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니 그에 적절하나, 역자는 중국 인임에도 여전히 그 옛 것을 바꿈이 없으니 애국심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이를 다시 번역하였다. 문(文)은 그 따름이 있어야 하고 자(字)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하니, 한유(韓退之)의 가법에 맞게 힘쓰고 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중요 사건을 중국 기원에 따라 조직하였다. 3월에 전서(全書)가 마무리되었다. 내가 매사에 힘써 감히 소홀하지 않으려 하니, 다른 연고가 아니라 나의 애국심으로 독자의 애국심을 일깨우고자 함이다.⁴¹⁾

년, 上卷, 12쪽 참고.

39) 周子同, 「五十年來中國之新史學」, 朱維錚이 편찬한 『周子同經學史論著選集』, 上海人民出版社, 1996년, 535쪽 참고.

40) 『中等東洋史教科書』, 桑原鷺藏 원저로 밝히고 있다. 上海科學書局藏版, 1쪽.

41) 桑原鷺藏 원저, 周同予 역, 『中等東洋史』, 上海文明書局發行, 1904년 초판, 2쪽.

진경년(陳慶年)은 『중학중국역사교과서(中學中國歷史教科書)』를 편찬하면서 쓴 후서(後序)에서 이 책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구와바라 지츠조우의 동양사는 번병청(樊炳清)의 역본이 동문학사(東文學社)에서 출판되어 크게 알려지면서 동남(東南) 제성(諸省)에 퍼졌다. 내가 무창(武昌)의 몇몇 학교에서 찍어낸 것을 보았고, 을해(己亥)년 이후 4,5년 간 이를 교재로 쓰는 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는 세계사(世界史)로 국사(國史)에 대해서도 상세해야 하지만 소략한 편이다.” 그는 나아가 이를 기초로 『中學中國歷史教科書』를 펴낸 상세한 사정을 적고 있는데, “광서(光緒) 계묘(癸卯)에 양호(兩湖)에 고등학당(高等學堂)을 설립하고 내가 역사과를 맡아 가르치면서, 사건들을 꿰어 본방사(本邦史)를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구와바라 지츠조우의 책을 오래도록 읽고 공부하였는데, 그 책은 전체 아시아 국제(國際) 관계에 가장 주목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가 경자(庚子)년의 난을 겪으면서, 몇 년 동안 널리 읽어 세계(世界)를 알고자 하나, 급한 마음에 대략 구와바라 지츠조우의 편제(篇題)에 따라 사실을 수집 보완하여 이를 편찬한다.”⁴²⁾

대체적으로 볼 때, ‘아시아(亞洲)’ 담론에 더욱 주목한 것은 일본학자들이었고, 청나라 말기 지식인들이 주로 그 영향을 받아 아시아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문제를 물론 본고에서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⁴³⁾ 「지나교육개혁안(支那教育改革案)」에서 드러난 츠지 다케오(辻武雄, 1868~1931)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언급을 통해, 중국 문제를 다룰 때 일본 학자들은 아시아에 입각해 기술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우리 동영인(東嬴人)은 어려서 성현(聖賢)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동서(東西) 백가(百家)의 이론을 섭렵하면서, 늘 동방(東邦)의 부진(不振)을 개탄하고 황종(黃種)의 시대가 쇠함을 슬퍼한다. 서세동진(西勢東漸)의 역사를 읽으면서 분개하여 덮지 않은 적이 없다. 오늘 인도가 먼저 망하고, 미얀마, 안남(安南)이 이어 멸망하니, 아세아주에서 독립국으로 불릴 나라는 겨우 일본, 지나, 조선, 페르시아, 삼의 다섯 나라 뿐이다. 그러나 삼과 페르시아는 독립의 명(名)은 있으나 독립의 실(實)은 없고, 조선은 국세(國勢)가 미약하여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롭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족히 패자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일본과 지나 두 나라뿐이다. 두 나라가 부강하면 동방이 진흥하고, 동방이 진흥하면 황종이 흥한다. 만약에 서방 세력의 동진(東漸)에서 취할 것이 있다면 이로 우리 문학(文學)을 연구하고 이를 빌어 우리의 무장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가 제시한 중국 교육개혁 방안 역시 주안점은 “지나(支那) 한 나라의 행(幸)이 동아시아 삼국(三國)의 경(慶)이다. 게다가 일본과 지나는 같은 대륙에 있고 같은 인종이며 같은 문자를 쓰니, 입과 입술처럼 긴밀한 이웃이므로, 위급함을 서로 의지하여 해결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한다”⁴⁴⁾는 데에 있었다.

42) 陳慶年 편찬, 『中學中國歷史教科書』, 商務印書館, 1909년 초판, 1쪽.

43) 이에 대해 과거 葛兆光의 논문에서 이미 일본의 아시아 기술의 기본적인 실마리를 그려내고 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19세기 전반 심지어 18세기 말까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44) 辻武雄 저, 「支那教育改革案」, 『教育世界』, 권3, 1~3쪽.

IV. ‘아시아’로서의 중국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세계 각 대륙에 대한 지식이 중국에 소개된 시기는 그다지 늦었다고 할 수 없지만, 수용 여부는 다른 문제다. 소용사(蕭庸士)가 집필한 『오주술략(五洲述略)』을 위해 1901년 이희(李熙)가 쓴 서문에서, 그는 ‘촌숙(村塾)’에서 가르칠 당시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오주여도(五洲輿圖)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학생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이름을 생소하게 여겨 서로 보면서 웃음을 참지 못 하였다. 그들은 그 고증조부 이래 고향 이웃, 친구, 친지 가운데, 상업에 종사하던 과거에 응시해 관직에 나아가든 그 족적이 그 땅을 거친 적이 없고 귀로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없으니, 필시 없는 일이라고 여겨 선생이 허황된 것을 보여준다 생각한 것이다.”⁴⁵⁾ 여기서 중국에서 ‘오주(五洲)’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지식을 광범위하게 흡수했던 지식인들에 이르면 상황은 또 달랐다. 같은 해인 1901년, 양계초(梁啓超)는 자신의 글 속에서 중국사를 다음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단계는 황제(黃帝)에서 진(秦)의 통일에 이르는 ‘상세사(上世史)’로, 이 시기를 ‘중국의 중국(中國之中國)’이라 부르면서, 중국 민족이 스스로 발전하고 스스로 경쟁하며 스스로 단결했던 시대로 보았다. 두번째 단계는 진의 통일에서 청(淸)나라 건륭(乾隆) 말년에 이르는 ‘중세사(中世史)’로, 이 시기를 ‘아시아의 중국(亞洲之中國)’이라 부르면서, 중국 민족과 아시아 각 민족의 교섭이 빈번하고 경쟁이 가장 심했던 시대로 보았다. 세번째 단계는 건륭 말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근세사(近世史)’로, 이 시기를 ‘세계의 중국(世界之中國)’이라 부르면서, 중국 민족이 전체 아시아 민족과 함께 서양인과 교섭하고 경쟁하는 시대로 보았다.⁴⁶⁾ 중국 역사에 대한 이러한 시대 구분이 꼭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시대 구분 방식을 관통하는 개념은 바로 ‘중국—아시아—세계’였다. 이는 ‘아시아’ 의식을 갖춘 중국 지식인이 이미 이를 빌어 중국의 위치를 새롭게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양계초가 일본에 망명한 이후에 쓴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의 아시아론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우두머리가 되어 다른 나라를 이끄는 것을 긍정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양계초의 글은 이에 자극받은 중국 지식인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앞서 이미 『萬國史記』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책에 대해 칭송 일색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서학서목답문(西學書目答問)』의 「政學第一」은 「史志學」으로, 가장 먼저 『萬國史記』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 책은 20권으로 전세계 수십개 국의 고금의 사적(事蹟)을 포괄하고 있어, 상세하지 않고 간략함이 불문가지다. 게다가 우리 중화와 문자가 같은데도 기재(記載)에 오류가 많고, 통렬한 비방에 여력(餘力)을 아끼지 않으니 전언(傳言)의 체(體)를 잃고 있다.”⁴⁷⁾라고 평가하고 있다. 『萬國史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중국 지식인이 만국사와 아시아에 대한 일본에서 온 기술 수용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마도 이를 기점으로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해석권을 둘러싼

45) 李熙, 「序」(광서 신축 6월), 蕭庸士의 『五洲述略』, 紫藤書館印, 1902년, 1쪽.

46) 梁啓超, 「國家思想變遷異同論」, 『淸議報』, 94, 95쪽, 1901년 10월.

47) 趙惟熙, 『西學書目答問』, 「政學第一」, 貴陽學署, 1901년, 1쪽.

쟁탈전이 이미 시작되었는 지도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 지식인이 찾고자 하는 자긍심의 시야에 ‘아시아’가 포착된 것이다. 청나라 말기에는 여러 종의 서학(西學) 자료 총서가 간행되었는데,⁴⁸⁾ ‘아시아’를 기반으로 편집된 실례가 많다. 1902년 출판된 『서학삼통(西學三通)』은 ‘서정통전(西政通典)’, ‘서사통지(西史通志)’ 및 ‘서예통고(西藝通考)’로 나뉜다. 도균(陶鈞)은 『서사통지서(西史通志序)』에서 “대지(大地)는 한 몸과 같고, 오주(五洲)는 오체(五體)와 같다. 체(體)에 귀천이 있듯이 주(洲)에도 선후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亞洲)는 인류가 비로소 생겨난 땅이고, 중국은 문명이 처음으로 나온 나라이다. 당연히 그가 머리와 같고 그 밖의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는 사지(四支)와 같다. 아주의 여러 열국은 팔에서 생긴 여러 손가락이니, 손가락에도 엄지가 있듯이 나라에도 크고 작음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네 대지 가운데 아시아가 가장 넓고”, “서아시아가 각 인류 시조(始祖)의 본 고향이니, 도리(道理)와 술법(術法)과 교문(教門)이 모두 아시아에서 나왔다. 고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땅으로 여겼다.”⁴⁹⁾고 말하려는 것이다. 과거의 아시아를 강조하여 존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엿보이는 대목으로, 또한 이러한 서적들이 왜 아시아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찌됐든 ‘아시아’를 기반으로 중국의 새로운 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고가 이미 대세가 되었다. 『東洋歷史』의 총론(總論)에서 조의년(趙懿年)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동양사란 동양 각국(各國)의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중국사, 서양사, 세계사와는 달리 불러 구별하는 것이다. 학자가 지구(地球) 각국을 잘 모르는 것은 우리 중국과 중요한 관계(關係)가 적기 때문이요,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같은 대륙의 제국(諸國)이다. 대개 제국은 유사 이래, 혹은 우리 중국의 문명(文明)으로 인해 발달(發達)하고 혹은 종교, 상무(商務), 전쟁으로 인해 피차(彼此) 교통(交通)하여, 그 관계가 단단한 지 이미 수천 년이다. 오늘에 이르러 비록 혹은 성(盛)하고 혹은 쇠(衰)하고 혹은 흥(興)하고 혹은 망(亡)하나, 그 관계는 과거에 더욱 비추어야 한다. 고로 서양 각국사를 기술하고자 할 때 먼저 동양 각국사를 기술할 수밖에 없다. 단지 동양 제국만이 뿔뿔이 흩어져 이를 꿰뚫기가 어렵다.”⁵⁰⁾ 진서개(秦瑞玠)가 편역한 『진통서양역사교과서(普通西洋歷史教科書)』의 총론(總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종(人種)까지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인종을 구분하면 일곱이 있으니, 백색인(白晳人), 몽고인(蒙古人), 말레이인, 흑인, 아메리카인디언인, 남아프리카인, 오스트레일리아 흑인이 그것이다. 백색인과 몽고인이 대대로 가장 귀하니, 대지(大地)가 문명(文明)하고 가장 선두에 있기 때문이요. 기타 다섯 인종은 지금까지 대부분 개화(開化)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대체로 문명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백색인과 몽고인은 사는 마을이 서로 접하지 않고, 역사의

48) 章清, 「“采西學”: 學科次第之論辯及其意義——略論晚清對“西學門徑”的探討」, 『歷史研究』, 2007년 제3기.

49) 『西學三通』에는 “광서(光緒) 임인(壬寅)년 여름 신서관(新書館)에서 精本을 마쳤다.”라고 적혀 있으며, 上海文盛堂에서 찍었다. 여기에서 “西史通志”에는 “古閩龍岩謝若潮纂輯鑒定”, “豐城袁宗濂、南昌晏志清編輯”라고 적혀 있다. 인용문은 “西史通志” 卷一, 1~4쪽 참고. 이 가운데 “西史通志”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太古志 모두 3권, 日本志 모두 14권, 印度志, 모두 7권, 亞洲各國志 모두 2권, 歐洲羅馬(로마)志 모두 1권, 法(프랑스)志 모두 8권, 英(영국)志 모두 7권, 德(독일)志 모두 2권, 希臘志 모두 2권, 俄(러시아)志 모두 9권, 歐洲各國志 모두 1권, 非洲(아프리카)各國志 모두 1권, 美洲志 모두 4권, 美洲各國志 모두 2권, 澳洲各國志 모두 2권, 疆域志 모두 28권, 沿革志 모두 12권, 興盛志 모두 4권, 戰伐志 모두 8권, 禮俗志 모두 2권, 圖籍志 모두 1권, 人物志 모두 7권, 編年表 모두 4권.

50) 趙懿年 편찬, 『東洋歷史』, 上海科學會編譯部 발행, 作新社 인쇄, 1914년 4월 3판, 1쪽.

계통 역시 서로 섞이지 않는다. 고로 역사를 연구하매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는 편이 비교적 편리할 것이다.”⁵¹⁾ 이는 “백석인과 몽고인이 대대로 가장 귀하니, 대지가 문명하고 가장 선두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최신국문교과서(最新國文教科書)』를 보면, 제6책 제1과 ‘地球大勢’에서는 오대주의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제2과 ‘我國疆域’은 “우리나라는 (아시아의역자 덧붙임) 중심부로, 18개의 행성(行省)으로 나뉘는데, 기후가 적절하고 토양이 비옥하다. 황하, 장강, 서강(西江)의 세 강이 토지에 물을 대고 있어, 실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⁵²⁾이라고 적고 있다. ‘학부(學部)’에서 검정한 『중학중국역사교과서(中學中國歷史教科書)』(원제는 本朝史講義) ‘서론’의 도입부 역시 ‘아시아’에 입각하여 중국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본조사(本朝史)는 중국사(中國史)의 일부로서, 전사(全史) 가운데 최근세사(最近世史)이다. 중국의 국가 수립은 멀리 5천 년 이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문화는 예로부터 동양 제국(諸國)의 으뜸이었다. 그 강역은 동방(東方) 아세아의 구할을 덮고, 그 흥망과 교체는 아시아 열국(列國)의 대세(大勢)를 흔들기에 족했으니, 중국사의 범위는 실로 동양사 전체의 태반(太半)을 점하고 있어, 서양사와 비교할만 하다.”⁵³⁾ 추대균(鄒代鈞, 1854~1908)이 선정한 『경사대학당본국지리지강의(京師大學堂本國地理志講義)』의 제1과 강역(疆域) 서두는 “본국은 아세아주의 동남 지역으로, 아시아 동쪽 고지와 중간 고원을 포괄한다. 국토는 구라파 전체보다 커 지구의 대국이다.”로 시작한다.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중국이 “대략 아시아 전체 면적의 4분의 1, 즉 지구 육지 면적의 12분의 1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구라파의 최대국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영토는 우리의 두 배 이상 크고, 대영제국의 땅은 다시 러시아보다 크다. 그러나 러시아 영토인 시베리아는 모두 얼어붙은 땅이고, 영국의 식민지는 오대주에 흩어져 있고 또 비옥하지 못 하다. 토양의 비옥함과 기후의 온화함 그리고 광대한 지역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나라를 최고로 꼽아야 마땅하다.”⁵⁴⁾는 것이다.

다른 텍스트 속에서도 이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아시아를 기반으로 중국의 역사와 인물을 재구축하고 있다. 나진옥(羅振玉, 1866~1940)은 『교육세계(教育世界)』 권6에 실고 있는 「〈論語〉講義一」에서 “공자(孔子)는 아시아 제일의 교육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과서는 “중화민족은 분파가 극히 많다.……주(周), 진(秦), 한(漢), 당(唐), 송(宋), 명(明)을 거쳐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해져, 동아시아 문화를 말할 때 반드시 중화민족을 꼽는다.”⁵⁵⁾라고 고취하고 있다. 또한 손보선(孫寶瑄, 1874~1924)은 일기에서 양계초가 “크고 훌륭한 언론으로 황해(黃海) 안팎과 동아시아 삼국(三國)에 널리 전하니”, “무릇 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마음 속에 양계초를 품지 않은 자가 없다.”⁵⁶⁾고 칭송하고 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아시아 담론이 중국의 자긍심을 추구하는 또 다른 공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51) 秦瑞玠 편역, 『普通西洋歷史教科書』, 上海文明書局, 1907년, 1~2쪽.

52) 蔣維喬, 莊俞 편찬, 高鳳謙, 張元濟 교정, 『最新初等小學國文教科書』, 제6책, 商務印書館, 1905년 초판, 1~3쪽.

53) 汪榮寶 편찬, 張元濟 교정, 『中學中國歷史教科書』(本朝史), 一冊, 商務印書館, 1909년 초판, 1쪽.

54) 鄒代鈞 선정, 『京師大學堂本國地理志講義』, 北京大學圖書館古籍部藏書, 1, 2, 32 쪽.

55) 潘武編 편집, 劉法曾 수정, 『講習適用歷史教科書』, 中華書局, 1913년, 2쪽.

56) 孫寶瑄, 『忘山廬日記』(1902년 9월 2일), 上海古籍出版社, 1983년, 562쪽.

V. ‘타자’로서 일본과 조선

중국 아시아 담론의 출현과 관련해 강유위(康有為, 1858~1927)의 「경사강학회서(京師強學會序)」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라는 지리적 개념을 획득한 후 이를 글에 직접적으로 체현해 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내려다 보고 있으며, 서쪽에서는 영국이 엿보고 있고, 남쪽에서는 프랑스가 다가오고 있으며, 동쪽에서는 일본이 노려보고 있다. 중국이 4개의 열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니 매우 위태롭구나! 하물며 이를 갈고 침을 흘리면서 그 나머지를 나누고자 하는 나라가 또 10여 국이 있다. 변화가 어지러우니 민심이 흥흥하고 일들이 뒤엉켜 끝이 없다. 옛날에 인도는 아시아의 유명한 나라였으나 구습에 얽매어 변화를 꾀하지 않았다. 건륭 때, 영국인이 12만금의 회사로 통상하여 인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옛날에 터키는 회교권의 대국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에 걸친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구습에 얽매어 변화를 꾀하지 않아, 여섯 개의 나라가 터키의 정치를 집정했으며 그 토지를 분할하고 군주를 폐하였다. 그 밖에 베트남 미얀마 고려 유구열도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발로치, 그리고 태평양 열도 아프리카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현재 빼앗기거나 망했다. 세계적으로 구습에 얽매어 변화를 꾀하지 않는 국가는 대개 이미 온전한 나라가 없다. ……무릇 중국은 영토가 넓고 제왕이 신중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 이치로써 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다스리니, 그 영토의 광활함은 만국 가운데 세 번째이며, 그 인구의 많음은 첫 번째이다. 위도로는 온대에 속하고 국민은 총명하고 우수하며, 토지는 비옥하다. 아마 만국 가운데 비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단지 풍속이 아직 개화되지 않고, 인재가 모자라고 없어서 공연히 능욕을 당하는 것이다.⁵⁷⁾

이 글에서 강유위가 ‘아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을 새로이 자리매김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자’를 인용하는 서술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국 인식에 있어 중국을 ‘아시아’에 자리매김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타자’로서 갖는 의미를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따라서 청나라 말기 중국의 ‘아시아’ 관련 담론들을 살펴볼 때는 ‘타자’인 조선 및 일본을 결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청나라 말기의 아시아 담론은 원래 ‘동아시아 3국’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른바 ‘삼 천 년만의 비상 시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주로 일본으로부터 전해진 충격을 말한다. 중국 지식인들이 받은 영향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다. 송서(宋恕)는 일찍이 일본에 대해 “일본이 결연하게 수천 년의 의관을 버리고 서양인의 의관을 따르는데, 우리 나라는 200년의 의관을 버리고 서양을 따르지 못하니, 도량의 차이가 어찌 많이 나지 않는 것이겠는가!”⁵⁸⁾라고 하였다. 출양학생총감독(出洋學生總監督) 하해복(夏偕復, 1874~?)는 자신의 『학교주의(學校芻議)』에서 “지구에는 많은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다. 연혁이 다르고 국가 형태도 달라 학교 주의(主義) 역시 조금씩 지향점이 다르다. 현재 중국이 학교를 세우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주의를 세워야 하며, 주의를 세우려면 마땅히 국가 형태가 어

57) 康有為, 「京師強學會序」, 湯志鈞 편찬, 『康有為政論集』, 北京中華書局, 1981년, 上冊, 165~166쪽.

58) 宋恕, 「致錢念劬書」(1895년 7월 25일), 『宋恕集』, 上冊, 535~36쪽.

떠한지 살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폐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마땅히 어떤 주의를 사용해야만 어려움을 바로 잡고 운명을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교육의 방침에 지향점이 생겨 뒤죽박죽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는 실제로는 ‘방법’ 적인 면에서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 정치와 종교 및 풍토가 일찍이 서양 여러 국가와 같은 비중을 차지한 적이 없다. 정신을 모방하고 힘써 쫓아 서양의 장점을 배워 특히 심혈을 기울여 옛 것을 잘 보존하였다. 우리와 일본은 옛부터 정치의 큰 틀이 같고, 종교에서 유교와 불교를 함께 중시하는 것이 같으며, 모두 아시아 국가이고 또한 황인종으로 교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풍토도 특히 똑같다.”⁵⁹⁾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조선 역시 중국 아시아 담론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지 두 나라가 모두 ‘동아시아’에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강약이 대비되는 ‘타자’의 범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소용사(蕭庸士)는 『오주술략(五洲述略)』의 ‘범례’에서 “이 책은 유럽 대륙의 여러 강국과 아시아의 일본,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을 비교적 상세히 채록하여 그 나라들이 흥성한 이유를 적었으며, 그 밖의 다른 약소국은 유형을 나누었을 뿐이다.”라며 전세계의 나라를 선별해 적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조선과 유럽의 터키의 경우는 약소국이기기는 하지만 유형만 나누는 국가로 보지 않고 그 쇠락한 원인을 적었다.” 본문의 첫 편(篇)에서도 역시 조선을 먼저 선택했으며,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⁶⁰⁾ 앞에서 이미 언급한 『서학삼통(西學三通)』의 『서사통지(西史通志)』 권 91 ‘연혁지 1(沿革志一)’과 ‘아세아주총설(亞細亞洲總說)’ 부분에서도 “전 대륙이 모두 112조 11만 1천 840 평방리(平方里)이다. 영국이 1/10, 러시아가 4/10, 각국이 2/10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10은 우리 나라 영토이다. 일본이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침략하고 북쪽으로는 영국을 빼앗고 서쪽을 약탈하여 남은 것이 이것이다. 이로써 펼쳐 일어나면 어찌 영국 일본 러시아가 두렵겠는가. 이로써 쇠미한 나라들은 조선 베트남 미얀마 페르시아이니 모두 우리의 거울이다. 다른 나라를 거울로 삼는 것은 같은 대륙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에 아시아를 가장 첫 편에 놓는다.”⁶¹⁾라고 적혀있다. 여기에서 “다른 나라를 거울로 삼는 것은 같은 대륙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청나라 말기 ‘역사적 기억’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이다. 즉 일본과 조선이 새로운 기억의 원천, 혹은 ‘타자’가 된 것이다. 과거 중국의 역사적 기억은 분명 중국을 기반으로 연장되었지만, 아시아 의식의 향상으로 기억의 방식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이 1904년에 출판한 『최신국문교과서(最新國文教科書)』(초등소학당 교과서)가 있다. 책 제5과와 제6과에서 각각 일본과 조선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5과의 일본에 관한 소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동해에 인접해 있는 섬이 있는 국가로 일본이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있다.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황인종이다. 국토가 협소하여 사천성(四川省) 하나 정도에 불과하다.

59) 夏偕復, 「學校芻議」, 『教育世界』, 권13~15, 인용문은 권13 참조, 1901년10월, 1~3쪽.

60) 蕭庸士 집록, 『五洲述略』, 紫藤書館印, 1902년, “범례” 1쪽, 본문 1쪽.

61) 『西學三通』, “역사통지(西史通志)” 권1, 1~4쪽.

일본 황실은 한 혈통이 이어져 2000 여 년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막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여러 번(藩)들이 발호한데다가 구미 각국이 세력을 믿고 침범하여 위급함이 끝날 날이 없는 형세였다. 메이지 황제가 즉위하여 막부와 여러 번을 무너뜨리고 내란을 평정하고는 조서를 내려 국시를 정해 새로운 정치에 힘썼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입헌했으며, 많은 폐단을 모두 없앴다. 그로 인해 40년도 안되어 국력이 강성해져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이김으로써 동아시아에 군림하게 되었다. 현재 또 강국 러시아를 대패시켜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변법 덕분이다. 아, 일본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흥할 수 있다.⁶²⁾

제6과 조선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우리나라 주나라 초기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 후 비록 여러 차례 임금이 바뀌기는 했지만 조선의 왕은 대체로 우리 중국인이다. 진한(秦漢) 이후, 속국일 때도 있었고 독립국일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공손히 명을 받들었다.

광서 원년에 조선이 각국과 통상을 하기 시작했으나 우리 나라의 속국인 것은 여전하다. 20년, 조선 내란으로 우리에게 원조를 요청했다. 우리 군대가 도와주었으며, 일본군도 역시 도착했다. 내란이 평정되자 퇴군을 논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일본과 전쟁을 시작했다. 우리 군대가 패배하고 조선이 독립하여 더 이상 우리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러시아 사람이 조선을 넘보았는데 권력이 나날이 강해졌다. 일본이 싸웠으나 얻지 못했다. 전쟁의 발단이 또 일어났고, 일본이 다시 대승을 거뒀다. 그리하여 경성(京城)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여러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마치 일본의 보호국과 같다.

조선은 반도국으로 비록 영토가 협소하여 일본의 절반 정도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으니 슬프도다.⁶³⁾

여기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서 나타난 문제 인식 방식이다. 즉 “일본을 보니 우리나라 사람도 흥할 수 있다.” 라는 말은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일본을 중국 진흥의 계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조선이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음”을 강조하여 같은 아시아에 있는 조선을 반면 교사로 삼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 방식은 실제로 청말 ‘아시아’ 담론의 핵심이 되기도 했다. ‘역사적 기억’ 연장의 방식을 좀 더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그 변화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사상사 연구에서는 엘리트와 고적적 사상, 일반적인 사회와 생활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식과 사상 및 신앙의 세계’가 또 존재하며, 이러한 지식과 사상 및 신앙 세계의 연장 역시 한 사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를 사상사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⁶⁴⁾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일반적인 지식과 사상 및 신앙’이란 무엇

62) 『最新國文教科書』(초등소학당 교과서), 商務印書館, 1904년, 제9책(冊), 4~5쪽.

63) 『最新國文教科書』(초등소학당 교과서), 商務印書館, 1904년, 제9책, 5쪽.

64) 葛兆光, 『中國思想史』(제1권 “7세기 이전 중국의 지식과 사상 및 신앙의 세계”, 제2권 “7세기에서 19

인가 라는 점이다. 청나라 말기의 과거 시험은 청말 '사상 자원(思想資源)'의 판도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특히 '팔고문(八股文)'을 폐지하고 책론(策論)으로 바뀌 시험을 본' 후의 시험 내용인 '각국의 정치학'은 중국의 처지와 세계의 일에 대한 상급 관원 및 일반 지식인들의 관점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었다. '책문(策問)'이라는 특수한 체제도 중요하다. 이는 유도성이 명확한 것으로, 구체적인 '문책(問策)' 문제로 많은 지식인들이 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격치서원과예(格致書院課藝)'부터 이러한 시험은 대체로 각급 관원이 '출제자' 역할을 하고 응시생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책문'을 통해 청나라 말기 상층 관원들이 주로 무엇을 우려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말 과거 시험에 참가한 수 십만 지식인들의 '책문' 대응책은 당시 지식층의 일반적인 사상 상태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정부의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와 응답자 모두 정부측 이데올로기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청나라 말기 개혁의 방향이 드러났으며, 이른바 '신지식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격치서원과예에서 제시된 관련 문책들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그 중 일본과 조선을 '타자'로 보는 것들이 적지 않다.

1900년 『격치서원과예』의 추계 과제로 소송태병비도(蘇松太兵備道) 섭집규(聶緝規)가 제시한 '중국의 속국인 조선을 마땅히 어찌 지킬 것인가'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 후의 지식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었다. '초등제일명(超等第一名)'에 오른 중랑(中郎) 주유렴(朱有濂)은 "무릇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자 변방 지역으로 의(義)와 세(勢) 측면에서 모두 다른 나라라고 봐서는 안된다. 만약 조선이 멸망하는 것을 좌시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영국이 미얀마에 한 것처럼 러시아가 반드시 조선을 점령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잠시 참고, 조선이 절박해지면 구하자고 하는데 이는 베트남을 침략한 프랑스의 상황과 같으니, 러시아가 반드시 방해할 것이다."라고 하며, 따라서 "조선의 왕실을 보호하지 않으면 조선은 우리나라의 왕실이 아니며, 조선의 왕실을 보호하면 조선은 우리나라의 왕실이다. 조선은 우리나라 왕실이니 조선의 국민은 우리의 국민이며, 조선의 토지는 우리의 토지이다. 국민이 왕실에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내는 것이며, 왕실이 소유한 토지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다. 이후의 얻는 것이 지금의 비용보다 300만은 반드시 많을 것이며, 또한 분명히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⁶⁵⁾라고 하였다. 문제 자체가 중국의 속국인 조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기는 하지만, 답변에서 중국과 조선을 일체화하여 마치 속국처럼 한 국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2등을 한 봉현현(奉賢縣) 우품생(優稟生) 정정결(程廷傑)의 견해 역시 같은 전제조건 하에서 전(前) 일본 수행원인 요문등(姚文棟)이 제시한 삼책(三策)을 인용하고 이를 평론하는 답을 하였다. "고려의 토지와 국민은 모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다스리고, 이를 참작하여 약간의 세입을 취해 고려 왕의 재정에 제공한다. 인도에서의 영국과 같다. 이것이 상책이다. 조선의 원래 우리의 속지이니 취해도 무해하다. 우선 오랑캐를 군현으로 삼아 다른 나라가 넘보는 것을 막는 것이 중책이다. 각국과 통상하게 하여 각국을 빌어 공동으로 보호하는 것이 하책이다. 이 삼책 가운데 하책은 이미

세기 까지 중국의 지식과 사상 및 신앙"), 復旦大學出版社, 1998년, 2000년.

65) 朱有濂 답안지, 『庚寅格致書院課藝』, 上海圖書集成印書局 발행, 1898년, 31a~41b쪽.

실행하였다. 상책과 중책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를 지킬 방법이 없다.”⁶⁶⁾는 것이다.

중국과 조선의 ‘속국’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지키자는 주장 역시 주로 ‘자국 보호’라는 기저 위에서 전개되었다. 즉, “조선은 동북 3성의 보호막으로 베트남 등 다른 여러 속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침대 옆에 다른 사람이 코 골며 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이익을 다른 나라가 침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지만, 단지 보호할 방법이 없을 뿐이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3등을 한 송강부(松江府) 학품생(學稟生) 주창정(朱昌鼎)은 좀 더 명확하게 대응하였다. “잃어도 애석하지 않다. 중국 내륙의 마카오와 홍콩 역시 포르투갈과 영국이 가져갔는데 어찌 조선만 아까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작자는 조선이 “전국의 안위와 연관되며” “명나라 이전에는 조선을 포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청나라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조선의 북쪽은 봉성(奉省)과 인접하고 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여기를 건너면 바로 장백산의 남쪽으로 조상의 발상지이다. 또 북쪽으로는 선조의릉이 이곳에 잠들어 있는 제2의 수도와 매우 가까우니 전대의 변경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 조선은 동서남 3면이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산둥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해상 방위 지역이기 때문에 마카오나 홍콩처럼 전체 국면과는 상관없는 곳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중국의 우환이었던 러시아가 이곳을 얻으면 호랑이가 날개를 얻은 것과 같으니 그 세력이 회복되지 않아도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 조선을 울타리로 삼지 않으면 특히 동북 3성이 위험해지고 직례성(直隸省) 역시 형세가 위급해진다.”⁶⁷⁾라고 강조하였다.

특별히 밝힐 것도 없이 조선을 ‘속국’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 위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안에서 이야기한 ‘주권’ 개념은 자연히 더 이상 확장되지 못했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3등의 답안지는 모두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4등과 5등 답안지는 오히려 이를 어느 정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4등을 한 안휘성(安徽省) 려주부학(廬州府學) 우행품선생(優行稟善生) 이경방(李經邦)은 답안지에 당시의 여러 의견을 열거하고, 이 의견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중 『만국공법』에 관한 평가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선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봉공(封貢)을 끊고 신하로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 이웃 나라로 삼아 독립을 허락한 후 『만국공법』에 따라 처리하여 조금의 불공평함도 없으면,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조선을 합병하려고 할 때 공법에 따라 논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선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문제는 “조선이 속국인 것을 모르니 우리가 자주권을 회수하여 우방으로 삼을 수 없어 더욱 처리하기 어렵다. 보잘 것 없는 만국공법으로 어찌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의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작가는 당시의 각종 대응책을 비판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즉, 중국이 부강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중국이 부유하고 강하다면 중국의 강함으로 조선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무사하면 중국의 덕과 은혜로 실로 충분히 굳게 뭉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의 위력으로 실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조선이 영원히 중국의 속국이 되면 중국은 근심 걱정 없이 편히 잘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속

66) 程廷傑 답안지, 『庚寅格致書院課藝』, 41b~42a쪽.

67) 朱昌鼎 답안지, 『庚寅格致書院課藝』, 43a~44b쪽.

국'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⁶⁸⁾ 이런 의미에서 5등을 한 후선종구품(侯選從九品) 장개(張玠)의 답안지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장개는 영국과 연합해 러시아를 막을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는 답안지에 러시아가 고려를 잠식한 것은 '『만국공법』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이 중국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친다면 이는 바로 '공법의 대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려는 옛날부터 중국에 부속되어 있었으며, 러시아가 이를 침략하는 것은 작은 나라를 잠식하는 것이며, 작은 나라를 잠식하는 것은 『만국공법』의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영국이 중국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쳐 약한 고려가 존속하도록 하는 것은 공법의 대권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국의 웅대한 계획을 드러내어 천하의 도를 밝히고 만세의 인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고려인이 덕을 입고, 중국인이 감동하고, 각국이 의논하면 러시아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⁶⁹⁾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의 한 측면에 불과할 뿐, '고려가 옛날부터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이 『만국공법』과 부합되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대책들은 모두 조선을 속국으로 보았으며, 그들이 시도했던 책략들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익에 치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격치서원과예에서 드러난 관련 문제에 관한 중국 지식인들의 사고 방식을 중요하게 살펴볼 만하다. 여기에서 명확히 드러난 '천하' 개념의 영향은 『만국공법』이 다져 놓은 국제 질서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이미 알고 있는 인사들 역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전환하기 어려웠음을 설명해준다. 이로써 '자기 보호'는 아마 가능할 지 몰라도 문제가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모순과 곤혹이 어찌면 바로 '천하' 개념이 직면한 새로운 국제 질서와의 만남일지도 모른다. 또한 궁정 내부에 '아시아'에 대해 언급한 담론이 없었다는 것은 '천하' 개념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는 '아시아'라는 위치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격치서원과예』는 단지 기풍을 먼저 얻는 자의 경우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 개혁 이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경우, 책문의 의의는 이미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책문'은 청나라 말기 과거 개혁에서 그 지위가 현저히 상승했으며, 또한 각종 총집의 탄생을 촉진시켰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한 『중외책문대관(中外策問大觀)』의 편집과 출판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다.⁷⁰⁾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청나라 말기 중국의 '아시아' 담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권5에 수록된 「흥아책(興亞策)」의 작자는 복종준(卜宗俊)으로 "현재 분분히 흥아를 이야기하는 것을 의론으로 지어 널리 방책을 세워 책에 싣고 손으로 헤아려보니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게다가 일본이라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흥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형세는 일본이 동방에서 뛰어나게 걸출한데, 오직 중국만이 어둡다. 중국이 흥하면 일본이 (중국을) 도울 수 있다. 두 나라가 양립하면 그 세력이

68) 李經邦 답안지, 『庚寅格致書院課藝』, 44b~46b쪽.

69) 張玠 답안지, 『庚寅格致書院課藝』, 47a~49a쪽.

70) 雷瑒 편찬, 『中外策問大觀』, 硯耕山莊 석판 인쇄, 1903년. 관련 토론은 章淸의 「“策問”與科舉體制下對“西學”的接引——以〈中外策問大觀〉為中心」, 『近代史研究所集刊』 제58집 참조,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08년12월.

금새 유럽의 위에 있게 되니 어찌 아시아가 흥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겠는가?” 라는 것이다. 하지만 작가도 지적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원인은 바로 “중국과 일본의 협력 불가능”으로, “현재 동아시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것은 중국이며, 세력이 가장 강한 것은 일본이다. 영토가 넓으면 장래성이 있고 강하면 특출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시아의 흥성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중국이 크지 않거나 일본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대국이 함께 모여 강국이 되지 못하고, 강국이 함께 모여 대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작자 역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내가 오늘 아시아의 흥성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몰라도, 일단 아시아의 흥성을 말하려면 먼저 중국의 고질적인 습관을 없애고 일본의 자만을 제거한 후,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유럽 열강의 탐욕을 근절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가 협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 비록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의 운명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⁷¹⁾

『중외책문대관(中外策問大觀)』 가운데 직접 ‘아시아’를 제목으로 삼은 것으로는 권19의 “아시아 각국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問亞洲各國宗教異同)” 등의 책문이 있다. 대체로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중국을 새로이 자리매김 하는 것이 주된 견해였다. 이로써 ‘아시아’ 역시 새로운 자긍심을 확립시키는 부호가 되었다. 권24에 수록된 “기기식재책(機器殖財策)”의 작자 나강법(羅綱法)은 “중국 영토의 광활함은 아시아에서 으뜸으로 중반구에 위치한다. 또한 온대에 속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식물이 매우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가 척박해지고 백성이 가난해져 유럽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이는 자원이 없거나 식물이 시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 자원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식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해 정교한 물건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⁷²⁾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조선 문제는 많이 언급하지 않은 반면, 일본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중외책문대관(中外策問大觀)』에 수록된 ‘일본’ 관련 문책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일본 요소’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중 ‘서사(西史)’ 권의 경우, ‘서사’ 권에는 모두 23개의 ‘책문’이 있으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중국의 관심을 외국 역사에 투영했다는 점이다. 종종 부국강병의 원인과 정치법 및 장기간에 걸친 평온과 같이 그 당시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를 외국 역사에 투영하였다. ‘쇠약한 국가가 강건한 국가로 변모한’ 예를 특히 중시하였다. 그 중 일본을 직접 겨냥한 화제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1) 일본의 메이지 유신책(策). (2) 패잔병이 패업을 이루고, 작은 일본이 영웅으로 자처한다. 일황이 유신의 도움을 받으니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3) 일본의 새로운 정치는 무엇이 가장 먼저였으며, 무엇이 가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는가. 지식인들은 모두 일본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바꾸어 서양을 따른다고 한다. 그 사이에 숨겨진 것은 어디에 가까운가. 현재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조목조목 상세히 따져보고 적절하면 이야기하여 중국의 참고 자료로 삼는다. (4) 유신 이전 일본의 모든 정치적 폐단이 중국과 비슷한 경우를 예를 들어줄 수 있

71) 卜宗俊, 「興亞策」, 『中外策問大觀』, 권5, 16쪽.

72) 羅綱法, 「機器殖財策」, 『中外策問大觀』, 권24, 1쪽.

는지 서양 국가에게 물었다. 일본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은 청나라 말기 일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논술 역시 같은 아시아에 속하는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중 제(3)제목에는 두 가지 대책이 수록되어 있다. 진증구(陳曾矩)의 대책은 일본 변혁의 순서 및 그로 인한 폐단에 주목하고, 이를 빌어 중국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그 순서와 완급을 보면, 우리 중국의 안내자로 삼을 수 있다. 그 탁월한 효과를 보면, 우리 중국의 지금의 준칙으로 삼을 수 있다. 그 과하여 나타난 폐단을 보면 우리 중국의 지금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보완 방법을 보면, 우리 중국의 지금의 판례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30년간의 역사는 실로 현재 우리 중국의 본보기이다. 일본의 정치를 고찰하면 역시 참고할 만한 것을 알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 유방기(劉邦驥)는 대책 첫 편에서 “일본의 새로운 정치에서 가장 최초이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서양의 법이 아니라 중국의 학문이다. “라며 일본 개혁의 선도자가 “춘추존왕대의(春秋尊王大義)”를 본받았다고 특별히 지적하였다. 마지막에는 “지금 천하가 다투어 변법을 이야기하니 마땅히 일본을 배워 그 이익을 취하고 특히 그 폐단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감히 한 마디로 말한다면 ’ 폐단 없이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 73)고 하였다.

『격치서원과예(格致書院課藝)』와 『중외책문대관(中外策問大觀)』은 청나라 말기 이후 중국 형세를 숙고하는 중국 일반 지식인들의 ‘사상적 자원’을 드러내주었다. 이러한 ‘사상적 자원’을 심도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책문’ 자료의 특수성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일본 요소’가 과거 시험에 등장한 경우는 상술한 ‘추측’의 글만이 아니다. 마지막 과거 시험 두 번째 시간 ‘각국 정치예학책(政治藝學策)’의 다섯 번째 ‘책문’ 제3책(策)이 바로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이었다. “일본은 변법 초기에 서양사람을 초빙해 국가가 나날이 강성해졌다. 그러나 이집트는 외국인을 천 여 명 고용해 재정 재판권을 상실하고 국가가 부진하게 되었다. 그 이해득실을 상세히 이야기해보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타자’인 일본과 조선을 결합하여 청나라 말기 ‘아시아’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VI. 결 론

역사와 기억의 상관성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관한 담론 자체는 이미 매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학문을 분류하고자 한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인류 학문(learning)의 가장 좋은 분류는 학문 활동의 주요 장소—이성적 정신(the rational soul)—가 지니고 있는 3종의 주요 관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 역시 “역사와 기억, 시와 상상력, 철학과 이성(Reason)은 서로 관련이 있다” 74)고 지적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역사 인식에서 인류 역사는 기억을 통해 현재와 연계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역사는 기억이다. 우리는

73) 雷瑯 편찬, 『中外策問大觀』, 권28, 6~7쪽.

74) 柳卸林이 De Augmentis Scientiarum에서 선별하여 번역, 何兆武 주편 『歷史理論與史學理論——近現代西方史學著作選』에서 인용, 商務印書館, 1999년, 12~21쪽, 인용문은 13쪽 참조.

기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에 따라 생활한다. 우리가 허무해지지 않고 일부 인성을 획득하려 할 때 역사가 그 기반을 다져주기 때문에 계속 속박을 받게 된다.”⁷⁵⁾라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글들은 역사와 기억의 상관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기억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리스 알브바슈(Maurice Halbwachs, 1877~1945)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알브바슈는 ‘기억의 사회학적 테두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예증을 들어 역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를 설명하였다.⁷⁶⁾ 필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개념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지혜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집단 기억은 본질적으로 현실에 근거하여 과거를 대하는 일종의 이중 구조이다. 알브바슈는 분명 최초로 이 점을 강조한 사회학자이다.”⁷⁷⁾

이로써 청나라 말기에 쓰여진 ‘아시아’를 대조해보면 역사에 근거를 두는 것, 즉 역사적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 청나라 말기 낯선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일부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말기에 역사적 기억이 어떻게 연장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기 사상 문화 발전 이해에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옛 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역사’를 빌어 진행된 합법적인 논증 또한 사회 변혁을 촉진시킨 주요 동력이었다. 그러나 ‘외부 요소’가 가세되자 ‘옛 것에 기탁하는’ 논술 책략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⁷⁸⁾ 이는 ‘역사적 기억’의 연장은 종종 중국과 외국의 역사에 ‘정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그 속에 자기 긍정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기억’에 대해 알브바슈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내가 기억을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억이 나의 기억을 돕고, 나의 기억이 그들의 기억을 돕는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의 환기는 결코 신비스럽지 않다.”⁷⁹⁾라고 밝혔다. 확실히 기억은 종종 ‘타자’의 도움을 받는다. 청나라 말기 중국의 경우, ‘외부 요소’가 이러한 ‘타자’였음이 분명하다. 특별히 밝힐 필요도 없지만, ‘외부 요소’ 가운데 ‘서양 요소’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나라 말기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담론은 이를 ‘세계’ 인식의 긴 역사적 과정에 놓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나라 말기 ‘아시아’ 관련 담론이 ‘천하’에서 ‘만국(萬國)’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청나라 말기의 중국이 ‘아시아’의 ‘타자’인 조선과 일본 역시 없어서는 안되는 일부임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적 기억’을 연장하는 특수한 매개 형식으로써의 ‘책문’과 교과서에 의지하면 조선과 일본의 ‘타자’로서의 ‘이미지’가 청나라 말기 ‘아시아’ 담론의 주요 참조 사항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책문’과 ‘교과서’ 모두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사상가의 견해를 뛰어 넘어 청나라 말기 주류 이데올로기의 ‘아시아’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75) 칼 야스퍼스, 『역사의 기원과 목표(歷史的起源與目標)』, 魏楚雄&俞新天 공역, 華夏出版社, 1989년.

76) 모리스 알브바슈 저, 『論集體記憶』(On Collective Memory), 畢然&郭金華 공역, 人民出版社, 2002년, 294쪽.

77) 루이스 코저, 『도론——모리스 알브바슈』, 모리스 알브바슈의 저서 『집단기억론(論集體記憶)』 참조, 59쪽.

78) ‘옛 것에 기탁하는’ 논술 책략 및 그 원인은 章淸의 『“傳統”系譜的建構與中國自由主義的論述策略』 참조, 劉青峰과 岑國良 편찬 『自由主義與中國近代傳統』에 수록, 中文大學出版社, 2002년, 251~88쪽.

79) 앞에서 인용한 모리스 알브바슈의 저서, 『집단기억론(論集體記憶)』, 69쪽.

【Abstract】

“Historical memory” in the Late Qing discourses of “Asia”: Considering the “otherness” of Japan and Korea

ZHANG Qing

This article tries to track the “historical memory” passed on via the discourses of “Asia” in Late Qing China. A wide range of spirited scholarship has been contributed to the discursive analysis of “Asia”, albeit the focus is exclusively on “Asia” itself if not always in vivid contrast to Japan. It appears to me that, this topic equally deserves some scrutiny in the light of the long durée in which the “world” made sense to the Chinese, after all it was in the wake of China’s transition from “the world” to “one in the world” that naming “Aisa” became problematic. Simultaneously, heed is also required to how the “others” in “Asia”, i.e. Korea and Japan, were seen. With this in mind, it is helpful to see beyond the individual thinkers. In this regard, my intention is to examine the “images” of Korea and Japan as the “others” through two particular vessels of the “historical memory”, namely “*cewen*” (policy, which was a form of question in the Imperial Examination) and textbook. There is a good reason for the awakening of the “historical memory” in Late Qing China. In the shadow of “the biggest change in the three thousand years”, the “storage of memory” was open wide, from which flew two main streams of memories: one was the memory of the Han restored by the “Anti-Manchu” complexion; the other was the memory of the Chinese history switched on by the alien factors. These two flows open up opportunity for us to better understand the historical continuity in China. When considering the “alien factors”, zooming in on the generated consciousness of “Asia” via the above-mentioned vessels, cast a new light on the continuity of “historical memory” in Late Qing China. It is crucial herein to be aware of the specific orientation of both “*cewen*” and “textbook”. “*cewen*” as a form of question in the Imperial Examination, reflected the approved ideology flashed back through both the examiners and the examinees; while textbook was the offspring of the national will. This revealed how the continuity of “historical memory” stood as the symbol of the Late Qing intellectual process. It is significant to uncover the process of “inventing the tradition/history”, in other words, the way in which “historical memory” was passed on.

The topic is approached by examining five suggestive moments: Firstly, the absence of “Aisa” in “*tianxia*” (literally, under heaven). By highlighting this moment, I argue that the ancient Chinese cognition of the world order was based on the concept of “*tianxia*”, which mainly “saw China in its cultural integrity rather than a certain political territory”. “*Tianxia*” could refer to both “world” as understood nowadays and “China” in broad and narrow terms. The “*tianxia*” concept resulted in the absence of “Asia” and refusal of the identification of “*tianxia wanguo*” (literally, tens of thousands nations under heaven). Secondly, “Aisa” in the world. The first mapping of “Aisa” was one of the missionary efforts to “conduct the West into China” (*yuan xi ru zhong*). The Chinese intellectuals were

literally shocked to see China being located in “Aisa”. “Asia” served as an utensil to undermine the concept of “*tianxia*”—China was only the part of “Asia”, let alone “*tianxia*”. The sting of this new knowledge lay in China’s equal bit in the whole world (i.e. a nation in the world) rather than the holistic picture of “tens of thousands nations under heaven”. Thirdly, “*tōyōshi*”(oriental history) from Japan. The “Japanese channel” played an indispensable part in the Late Qing Chinese narrative of “Asia”. Kuwabara Jitsuzō’s *Chūtō tōyōshi* (Chinese History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apparently influenced the Chinese intellectuals, especially considering their views of “Aisa”. The Japanese narratives about “Asia” directly intensified China’s Aisan consciousness, hence gave birth to a new “identity”. Fourthly, China in “Asia”. This very moment saw the Chinese intellectuals take on the intention to see establish Japan as the leader of Asia in the Japanese discourses. On the one hand, the knowledge of “five continents” was hard to get its way in China; on the other hand, the modern minds sought the national pride by locating China in Asia. Lastly, Japan and Korea as the “others”. To look at China “through the lens of other nations,” “[one should] start with the nations on our own continent”. This profile of the memorial continuity turned Japan and Korea into a new spring of memory. In the Late Qing discourses on Aisa, not only the “three East-Asian nations” occupied the central stage, but also Japan and Korea became the showcases of the mighty-vs-weak dichotomy. Such statements as “I see the hope of our rise in Japan”, underlined Japan, as China’s counterpart in Asia, illuminated China’s self-strengthening vision. While, critique on Korea’s “lack of self-strengthening” was alert of the doom if China fell into step with Korea, the other neighbor on the continent.

By examining the Late Qing Chinese discourses on “Aisa”, we see history or historical memory served as a pivotal reference in China’s understanding of the outside worl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discourses on “Asia” in the long durée of China’s exposure to the “world”. On the one hand, these discourses gained their spotlights in the transition from “*tianxia*” to “*wanguo*”. On the other hand, the “otherness” of Japan and Korea played their indispensable parts in this cognitive process. By drawing upon the such sources as “*cewen*” and textbook, it just struck us that the contrastive display of Japan and Korea as the “other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the shape of these discourses.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 specific orientation of “*cewen*” and textbook opens up the opportunity for us to see beyond individual thinkers and feel the pulse of the mainstream when considering “Asia”.

歴史対話論

-日中韓共通歴史教材開発の成果と課題を例に-

■ 齋藤一晴 (明治大・学校) ■

歴史対話論

－ 日中韓共通歴史教材開発の成果と課題を例に －

齋藤一晴（明治大 schools）

〈目 次〉

- I. はじめに
- II. 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歴史教材作成の到達点と課題
- III. 『未来をひらく歴史』という歴史対話
- IV. 共通歴史教材の作成から歴史対話論へ
- V. おわりに

I. はじめに

2005年以降、日韓、日中韓共同編集による共通歴史教材の刊行が続いている。日中韓共通歴史教材『未来をひらく歴史 東アジア3国の近現代史』高文研、2005(以後、『未来をひらく歴史』と略)、を例にとれば、日中韓3国ですでに25万部以上が刊行されており、香港、台湾などで流通しているものを含めると、少なくない数が東アジアレベルで世に問われているといえる。また共通教材という形式以外にも、共同編集され各国で刊行された学術書や翻訳刊行された一般書などを含めると、近年の日中韓3国における学術研究の緊密化は急速に進んでいる。

一方、こうした動きが進むなかで、日中韓それぞれの国内のナショナリズムが他国のそれと共振関係を有しており、そうした関係性と各国における自国中心的な歴史認識の点検・更新作業とが表裏一体の関係として存在していることを指摘できる。そして今日、日本の歴史認識問題だけでなく、東アジアとは何なのか、東アジア史と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という問いが、ますます大きな課題として国境を越えて私たちの前に大きく浮上してきていることも、また事実であろう。

そこで本稿では、以下の3点について、『未来をひらく歴史』の作成過程を例に考えてみたい。

一つ目は、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歴史教材作成の到達点と課題である。二つ目は、『未来をひらく歴史』の作成という歴史対話が明らかにした歴史研究・歴史教育・歴史叙述の課題である。三つ目は、そうした課題にどのように向き合う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のか、共通歴史教材作成という取り組みを、東アジアのなかでどのように位置づけ、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のか、という問いに対する私なりの応答である。

そしてこれら三つを結びつけることによって、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歴史教材の編集・刊行を、日本の戦争責任を継承するための歴史和解に役立てるだけでなく、国境を越えた研究・実践・叙述のあり方を問い、各国で既成となっている自国中心的な歴史認識を自己点検・自己更新する土台づくりに結びつけたい。そして国境を越えた歴史対話を通じて、東アジアとは、東アジア史とは、という問いに答えようとする取り組みとして位置づけたい。こうした試みは、いうなれば共通歴史教材の作成から歴史対話論へ、という道筋をどう確保するのか、という今日的課題につ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といえよう。

Ⅱ. 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歴史教材作成の到達点と課題

1982年のいわゆる歴史教科書問題の発生以降、日本の歴史認識問題をめぐる歴史対話は本格化していった。なかでも日本と韓国の歴史対話が活発に行われ、共通歴史教材作成を目標に積み重ねられた10年以上におよぶ研究・実践交流は、日韓共通歴史教材の刊行に結実しただけでなく、すでに両国における自国史の問い直しや日本の植民地支配をめぐる幅広い議論を可能としている。

一方、日本と中国の歴史対話は、韓国との関係性に比べるといまだその経験は乏しい。しかし、2002年以降、毎年一度行われている「東アジアと歴史認識の平和フォーラム」を例にとれば、これまで7回のシンポジウムを経るなかで中国側の報告・発言内容が大きく変容してきていることもまた事実である。

2002年のフォーラム開催当初、中国側の報告は日本の歴史教科書問題への批判や戦争犯罪追及が中心であった。しかし2006年11月に京都・立命館大学で開かれたシンポジウムでは、中国側の報告者が朝鮮戦争における北朝鮮の先制攻撃に言及して、従来、中国国内でみられた韓国による武力北侵という歴史理解とは異なる内容を報告している。また先月(2008年11月)、北京・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で行われた第7回シンポジウムでも、中国政府の戦後補償裁判への対応のまずさや、日本の人民と軍国主義者とを区別するという戦後政策が戦争被害者個人の尊厳の回復を遅らせたとする批判がなされるなど、自国史を問い直そうとする動きが強まりつつある。

このように、今日、日本の歴史認識問題をめぐって行われてきた日中韓の議論は、徐々に各国における自国史の問い直し作業をどのように共有、発展させるのか、という方向へと移行しつつある。それは単純な日本批判へ陥ることを回避し、国境を越えて戦争被害者という視点から歴史事実を共有することで、日本の歴史認識問題をめぐる議論をさらに建設的に深めようとする動きが生まれつつあるといえる。

こうしたなか日韓、もしくは日中韓で編集・刊行された共通歴史教材は、2005年以降これまでにすでに5種類、6冊におよぶ。そのなかでも『未来をひらく歴史』は、唯一、日中韓3国で共同編集されたものである。

『未来をひらく歴史』は、2001年に発生した日本の教科書問題を発端として作成が検討、開始され、2002年から3年の歳月と10回の国際編集会議、3回の国際シンポジウムを経て刊行されている。

その特徴は、1982年の教科書問題以降、日本と韓国、日本と中国との間に築かれてきた歴史対話の成果と課題に依拠し、そのさらなる前進が目指されたこと。日本の戦争責任・戦後責任をめぐる歴史事実の共有が目標とされ、その実現のために歴史研究、歴史教育、歴史叙述、科学運動の「四位一体」の取り組みが行われたこと。また、自国中心的な歴史理解について国境を越えて行われる歴史対話によって克服する方法を具体的に模索しようとしたこと。そして国家の検定を受ける既存の歴史教科書とは異なる、民衆レベルで作成した共通歴史教材という代案を日中韓3国で作成、共有しようと試みたことである。

すでに刊行から3年あまりが経過し、内容に関する具体的な批判や建設的な批評¹⁾、作成過程における論点に言及した著作も刊行されるなど²⁾、その成果と課題を問い直す環境が整いつつある。

1) 『未来をひらく歴史』をめぐる議論としては、その戦争記述を批判的にとらえた林雄介「東アジア共通歴史教材を読んで」歴史科学協議会『歴史評論』2008年3月号と、それに応答した及川英二郎「林雄介『東アジア共通歴史教材を読んで』に苦言を呈する」歴史科学協議会『歴史評論』2008年7月号がある。

2) 『未来をひらく歴史』作成過程における論点や刊行後の活用方法、その成果と課題については、拙著『中

こうした状況を、成田龍一は近著で『『未来をひらく歴史』をめぐる議論が開始された』と指摘して、本格的な議論はこれから、という認識を示している³⁾。

今後、『未来をひらく歴史』は、英語版の刊行が予定されており、内容やそのあり方に関してこれまで以上の議論が予想される。また『未来をひらく歴史』の作成メンバーは、2011年をめどに上下巻の日中韓共同学術書の刊行を目標として、すでに7回の編集会議を行って、歴史対話を新たな段階へと到達させる努力を行っている。こうした状況をふまえると、今日、『未来をひらく歴史』の作成過程や教材の内容を改めて検討し、その成果と課題から学ぶ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といえよう。

さらに日本では歴史対話のあり方やその方向性をめぐって議論が活発化しつつある。例えば、ヨーロッパにおける国際歴史教科書対話を専門とする近藤孝弘は、以下のように問題提起を行っている。近藤は家永教科書訴訟の「成果と限界の両方を見据えて新たな努力を早急に始める必要」について言及したうえで⁴⁾、裁判を支えた論理の一部が、「国家あるいは民主的に選ばれた政府による教育内容への介入の否定が、政治教育という考え方にとって障害とな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と述べている⁵⁾。そしてヨーロッパで歴史問題の深刻化を防止する歴史政策が行われ、一定の成果を収めてきたことと東アジアにおける歴史対話の現状を比較しながら、「公権力による歴史問題に取り組む政治教育という観点にもう少し積極的であるべきではないか」と提起し⁶⁾、各国が歴史政策を具体化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歴史対話をこえ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指摘している。

一方、韓国では2007年に改定・告示された歴史科教育課程(日本の学習指導要領に相当)によって、高校選択科目として「東アジア史」の新設が決まった。すでにサンプル単元の開発が行われており、その報告書によれば、「政府が積極的に『東アジア史』新設という改定教育課程を打ち出せたのは、東アジア各国の歴史認識共有の必要性と、民間次元の成果が土台になったとみられる。これは教育部で各界の意見を集めて推進している、一連の歴史教育強化政策でもあった」とまとめられている⁷⁾。これは「東アジア史」の設置が、韓国政府の歴史政策の一環として行わ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さらに日中、日韓の両政府間で行われている日中共同歴史研究と日韓共同歴史研究(第二次)において、そのメンバーには民間レベルの共通教材作成経験者が少なからず含まれている。例えば日中共同歴史研究の場合、中国側10名のうち、座長の歩平と榮維木の2名が『未来をひらく歴史』の編集を経験している。日韓共同歴史研究でも、韓国側16名のうち4名(辛珠柏・鄭在貞・玄明喆・河棕文)が民間レベルの教材作成にたずさわっている。これは民間レベルの歴史対話の経験を、政府レベルにも反映しようとする各国の歴史政策の表れと考えられる。

一方、共同研究を歴史事実の検証というよりも、むしろ政治・外交戦略と位置づける日本政府にとって、日本側のメンバーに民間レベルの共通教材作成経験者を入れる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

国歴史教科書と東アジア歴史対話』花伝社、2008を参照頂ければ幸いである。

3) 成田龍一『『東アジア史』の可能性—日本・中国・韓国=共同編集『未来をひらく歴史』(2005年)をめぐる』小森陽一・崔元植・朴裕河・金哲編著『東アジア歴史認識論争のメタヒストリー「韓日、連帯21」の試み』(青弓社、2008)129頁。

4) 近藤孝弘編著『東アジアの歴史政策 日中韓 対話と歴史認識』(明石書店、2008)237-238頁。

5) 同前、237頁。

6) 同前、15頁。

7) 三橋広夫監修・翻訳『高等学校『東アジア史』サンプル単元開発報告書』2008、54頁。

ない。これは歴史政策という角度から見ると、日本と中韓には大きな隔たりがあるといわざるをえないだろう。

このように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歴史教材の到達点と課題は、幾つかの点で今日的検討を加える必要がある。まず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歴史教材作成の特殊性を、ヨーロッパにおける経験と比較検討すること。次に共通歴史教材の作成に代表される歴史対話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その担い手とは誰なのか、とうこと。そして、その担い手を育成するために求められているのは、あくまでも民間レベルの歴史対話を積み重ねていくことなのか、それとも各国政府による歴史政策の具体化なのか、ということなどである。

これらを言い換えれば、東アジアにおける歴史対話が、各国の歴史研究、歴史教育、歴史政策を問い直すことから始まることを意味しており、東アジアや東アジア史が誰にとっての何なのか、という議論をさらに深めていく必要がある時期に今日さしか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

これら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具体的な対象を手がかりに検証することが最適であろう。そこで次章では、『未来をひらく歴史』の内容と作成プロセスを歴史対話の具体例として、分析を加えてみたい。

Ⅲ. 『未来をひらく歴史』という歴史対話

『未来をひらく歴史』作成、刊行の成果は、日本の戦争責任・戦後責任をめぐる歴史事実を日中韓3国で共有しようと試みたこと。そして作成過程や議論において、東アジアや東アジア史を問うことの必要性和難しさを編集メンバー全員が学ぶことになったことだと思われる。今日までのところ、いずれも初歩的な成果といわざるをえないが、下記に記すような歴史対話の可能性を示したという意味において、大きな意義を持つと思われる。

『未来をひらく歴史』の作成過程で、議論が最も白熱、平行線をたどったのは、日本の加害、中韓の被害という枠組みをどのように乗り越え、戦争被害者という存在から歴史にともに向き合い、共有するのか、という点である。それは東京大空襲や原爆の被害者と重慶爆撃の犠牲者とを同列で論じることができるのかをめぐる行われた激しい議論が一例といえる。

3国の議論がかみ合わなかった原因を分析すると、それが感情記憶や犠牲者数といった角度から往々にして行われ、肝心な東京や重慶の当時の日常というもの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またそれがいかに破壊されたのか、というところまでを議論、共有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からだと思われる。それはたとえ被害国である中国側であっても、抗日戦争期の重慶の日常生活を論じることは容易ではなく、日本側にとってみればさらに難易度の高い課題であったと言ってよいだろう。

つまり上述した議論の迷走は、戦争被害者個人とその生活に3国の編集メンバーがたどりつかなかったことに起因しており、破壊された日常及び生活そのものを共有せずに、『未来をひらく歴史』の編集、刊行の目標であった戦争の歴史を共有するということは、そもそも困難であ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のである。

これは歴史対話において、過去の歴史事実を共有するためには、まずその議論の土台として、日常生活を相互に認識しておくことが不可欠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おり、それができなければ戦

争被害者個人の尊厳回復や、歴史対話のあり方そのものを議論するに至ら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る。よって日常というものをどれだけ個人レベルから克明に描くことができるのか、それを保障する実証研究が最も重要になる。また、日常をえがく、という行為は、描き手の主体性が問われることと同義であり、なぜそう描くのか、どうしてそうした研究手法を駆使して当時の日常を再現するのか、ということが問われることになる。これは実証研究の成果と課題を3国で共有するだけでは、必ずしも歴史対話を成立させるに至らないことを私たちに突きつけている。そこでは「実証以前」に各国の研究状況にとって、もしくは各国で暮す国民として、また歴史と向き合う一個人として主体性を問い続ける意味を相互に把握、尊重しあうこと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のである。

加害と被害という二元論的な議論や歴史叙述を克服し、複雑に重層化した歴史をひもとくためには、歴史と向き合う姿勢、主体性を問い続けることが欠かせない。それは私の言葉でいえば、歴史認識の自己点検と自己更新であり、歴史認識の共有、東アジアという存在やその歴史が、連帯・共有と自己・自国中心的な歴史理解、歴史像の押し付けと両義的に存在していることを意識的にとらえる思想的なとなみである。

日中韓3国で共同編集・同時刊行された『未来をひらく歴史』は、過去の戦争の歴史を共有する道筋を模索し、自己中心、自国中心の歴史認識を克服するための一例である。しかし、国家史を超えて関係史、地域史へと歴史や地域を把握する枠組みをいくら広げても、必ず枠組みの「内」と「外」にはラインが引かれ、そこからこぼれ落ちる歴史、人びとの記憶、そしてそれらを生みだす日常生活が存在す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よって、共通歴史教材を作成するという行為そのもののなかに、すでにそれを妨げる要素が内包されているといえるのである。それはいわば免疫源(抗原)から作り出される「ワクチン」と同じであり、決して歴史認識問題を解決する万能薬や特効薬ではないのである。よって自己中心、自国中心の歴史認識、歴史観に誘う危うさと主体的に向き合うことができなければ、共通歴史教材の使い道を誤り、21世紀版のアジア主義、大東亜共栄圏構想の再来という「連帯」・「共有」を生み出す劇薬になってしまうのである。

共通歴史教材という存在、そしてその作成過程が明らかにした最大の成果は、それ自体が、二元論的ではなく両義的に存在しており、その仕組みを学ぶ実践的な空間を確保できる、ということだと思われる。それは、加害と被害、支配と従属、植民地化と近代化、戦争動員と戦争協力といったものが、それぞれ別々に存在して関係性を有しているのではなく、いずれも両義的に、多義的に存在していることを学ぶことが読者や学習者にとって可能となる。

つまり自国中心、自己中心の歴史認識を克服するということは、つきつめれば自他国認識や自他認識を自己点検、自己更新していくことを指し、ともに歴史と向き合う個人の主体性を問い続ける行為なのである。その点検・更新履歴こそが、歴史認識の深まり、人間的な成長として培われ、国境を越えて共有される必要がある。よって『未来をひらく歴史』を、日本の戦争責任・戦後責任を問い、その歴史事実を共有するだけにとどめるのではなく、その活用方法、歴史対話のあり方を問い直す具体的な議論の場と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そのためには共通歴史教材の刊行を最終目的とするのではなく、それが歴史対話から導き出された到達点であり、また限界点でもあることを学ぶ姿勢が欠かせないのである。

『未来をひらく歴史』という歴史対話が明らかにしたことは、共通歴史教材の作成を、過去の克服だけに役立つのではなく、歴史の見方(研究手法)、描き方(歴史叙述)、そしてその担い手の育成(歴史教育)を、国境を越えて学び合う関係性をつくる今日的課題に取り組む必要性を改め

て明確にしたことであろう。よって、東アジアとは何なのか、東アジア史とは、という問いには、それに答えるための手順と土台をつくること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り、何か合理的かつ固定的な概念で表現されたり、事前に用意されているものではないのである。

このように歴史対話とは、各国政府の歴史政策とは本質的に異なる次元で行われる個人的な思想的いとなみであり、あくまでも民間レベルで行われる研究、教育、叙述を通じた交流が基本になること考えられる。また、『未来をひらく歴史』を作成するうえで議論になった、時代区分、地域概念、方法論などは、東アジアや東アジア史のあり方を国境を越えて検討するうえで、避けて通れない論点であり、共通歴史教材の作成という具体的な議論の場を確保できる、という面において、今後も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く必要があるといえるだろう。

IV. 共通歴史教材の作成から歴史対話論へ

共通歴史教材の作成は、各自の歴史認識の自己点検と自己更新の履歴を共有する場であり、歴史対話のあり方について国境を越えて問い続ける作業でもある。そこで求められるのは、各国において自国史の問い直しがどの程度おこなわれ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への視野と、東アジアや東アジア史を模索、構築するための世界史像の主体的な形成をとまなうことが欠かせ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とりわけ歴史認識問題を抱える東アジアにおいては、過去の戦争をいかに学ぶのか、という戦争学習と世界史像の主体的形成を結びつける必要がある。

ここで指摘した、東アジアや東アジア史の検討と戦争学習や世界史像の主体的な形成は、一見まったく関係ないようにも思えるが、歴史対話という大きな一つの環として考える必要があるように思う。それは日本の若い世代にとって日本の戦争の歴史と向き合うことが難しい理由の一つに、自らの歴史認識や戦争観を点検・更新できるだけの東アジア認識、東アジア史像が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からだ。これを裏返せば東アジア史像や世界史像の主体的な形成のとまなわない戦争学習は、歴史対話に結びつかないことを意味している。

もう少し、具体的に論じてみよう。例えば日本の歴史教科書において「太平洋戦争」ではなく、「アジア太平洋戦争」という歴史用語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2007年度からである。この「アジア太平洋戦争」という用語は、「太平洋戦争」と記述した場合、日本とアメリカとの戦争がメインとなり、同時期の中国や東南アジアにおける支配や抵抗戦争について学ぶことを遠ざけかねないとして、歴史研究や歴史教育から提起され実現したものである。ところが世界史教科書において、アジア太平洋戦争において戦場となった太平洋に関する記述は、いずれの教科書もヨーロッパの大航海時代における植民地化、そしてその後の列強各国による再分割の部分に内容が著しく限定されており、その分量も数ページにとどまっているのが実状である。

日本の世界史教科書において、太平洋という地域の記述が具体化するのには、上原専禄によって地域世界が複合的に構成する構造全体、動態全体として提起された、13地域区分論に基づく『高校世界史』（実教出版）が、1978年に刊行されて以降である。そこでは伝統的な航海術や食生活、文化や伝説の継承、高度な文明を築いた古代遺跡の紹介など、太平洋で暮す人びとの日常生活を歴史叙述に反映することが試みられ、生徒自身による世界史像の主体的な形成が目指されていた。しかし、こうした内容は、近年では限られた教科書にわずかに残るだけで、大幅に減少している。

1990年代の中頃以降、歴史修正主義の台頭や文部科学省による教科書検定の強化、そして教科書会社の自主規制などによって、日本の歴史教科書における戦争記述が大幅に後退したことは周知の事実である。しかしむしろそれよりも大きな問題なのは、戦争記述や戦争学習を支える世界史像や東アジア史像の主体的な形成をうながす内容が、歴史研究の進展や歴史教育の教育実践の蓄積にも関わらず減少していることである。つまり若い世代にとって、太平洋の人びとの登場しないアジア太平洋戦争をいくら学んだところで、かつての戦争や日常生活と、自分たちの生きる現在とを結びつけ、自らの今日的課題として主体的に問題意識を深めていくことは難しく、まして東アジア史像や世界史像の主体的な形成をともなった歴史対話に取り組むことなどは、望むべくもないのが実状なのである。

こうした課題の原因は、これまで幾度となく指摘されてきているように、日本の歴史研究、歴史教育、歴史叙述におけるヨーロッパ中心史観、そしてそれを支えてきた日本史・西洋史・東洋史の三分研究体制と日本史・世界史の二分教授法に行き着くと思われる。

歴史教科書は歴史研究の成果と歴史教育における実践の蓄積、そしてそれらを反映させた歴史叙述の総体と位置づけられる。日本の世界史教科書で最大のシェアを今日まで維持してきた山川出版社の世界史教科書の場合、日本の戦後直後に構成された世界史像やそれを支える歴史観を、今日も残したままである。

この教科書の原型は、1949年に刊行された東京大学文学部史学会編『世界史概説』であり、これ以降、近年のものまで、学習指導要領の変化や歴史研究の研究成果が盛り込まれるなどの影響を受けているにも関わらず、章立てにめだつた変更はみられない。なかでも世界の一体化を近代ヨーロッパの成立にみる点、各地域の歴史をえがいたうえでそれらを結びつけていく展開になっている点、世界の一体化以降の内容がヨーロッパ中心に置かれている点など、ヨーロッパ中心史観で貫かれていることは半世紀以上、大きな変化はない。

よって日本の若い世代が直面しているのは、日本の戦争に関する事実を歴史教科書から歴史認識として深め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ことと同時に、進んだヨーロッパと遅れた地域及びその歴史、という二元論的な歴史理解から抜け出ることが容易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今日の日本の若い世代は、世界各地の発展途上国が発展していくと、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そして日本と同じ近代化の道筋をたどるであろうという意識と、そうした地域への差別や偏見とが矛盾しない一つの歴史認識として持ち合わせていることが少なくない。そのため世界史像の主体的な形成のともなわない歴史教科書や歴史教育の場合、日本の侵略を受けたアジアの国々は、戦前、戦後を問わず弱く遅れた存在であり、さらに戦争が終わると戦時中に甚大な被害をもたらしたにも関わらず、日本のような近代化のモデルを今日までめざしているという自国中心的な歴史認識に陥りかねないといえるだろう。

ここには戦場の諸相や占領・植民地下におかれた人びとへの視野を欠いて、進んだ強いものが歴史をつくり、遅れた弱いものが従うという構図が存在している。さらにたとえ両者の間で戦争などの矛盾が発生しても、その構造は変わるどころか、むしろ遅れた弱いものの側から強化している歴史がある、という認識になりかねない。つまり戦争学習と世界史像の主体的な形成が結びつかなければ、そして世界史教科書や歴史教育に存在するヨーロッパ中心史観、言い換えれば二元論的な歴史認識を根底から覆す仕組みと具体的な方法が学び手に用意されなければ、いくら日本の戦争犯罪を教えられたところで、アジアとの歴史対話を可能とする歴史認識を形成することは難しいのである。

これは歴史研究と歴史教育の関係性から考えるうえでも非常に重要である。日本の戦争犯罪研究は、1980年代以降、教科書問題や戦争被害者本人による証言などを契機として、大きな進展をみたといえる。しかし、そうした歴史研究の成果は、世界史像の主体的な形成と充分結びついてきたといえるだろうか。また歴史教育でも戦争学習を通じて戦争を知ることやアジアへの視野を育てることを意識しながら、そうした方法や視野から世界史像の形成へ、そしてそれを土台とした戦争犯罪研究の課題を提起してきただろうか。

とりわけ近年、日本の歴史研究では帝国意識というテーマが取り上げられることが増えている。それは世界史像や世界観を問い直す取り組みであり、歴史研究のあり方を根本的に考え直すものだといえる。しかし、そうした取り組みが歴史教科書や歴史教育のあり方への異議申し立てをともしなければ、東アジアとは、東アジア史とは、といった問いに答えるための方法や手順を模索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える。

上述してきたような諸課題を、各自の点検と更新によって解決しようとするための具体的な場を、国境を越えて提供する役割を担うのが、共通歴史教材の作成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歴史教材の作成は、歴史和解という目標をふまえつつ、さらに各国の研究、実践、叙述を問い直すことを通じて、東アジア、東アジア史のあり方を議論していくことに役立て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V. おわりに

本稿では、東アジアにおける共通歴史教材の到達点と課題、そして作成過程における論点から何を学ぶことができるのかについて、『未来をひらく歴史』を例に論じてきた。そこから見えてくるものは、共通歴史教材の作成や刊行を、歴史和解や歴史対話の具体例として分析を加えると同時に、各国の歴史研究、歴史教育、歴史叙述が抱える根本的課題にどのように向き合えばよいのか、またその延長線上にある東アジアとは、東アジア史像とは、という問いに応える糸口を与えてくれる存在として研究対象に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

また今日、敗戦から60年余りがたつにも関わらず、日本の侵略戦争、占領・植民地支配の歴史をめぐる歴史認識問題は解決されどころか、むしろアジアとの摩擦を強めている。すでに日本の人口の3/4以上は戦争非体験世代である。それはアジア各地で暮す人々の多くも、すでに戦争を知らない世代であ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今後、こうした戦争非体験世代同士が、日本の戦争責任・戦後責任をめぐる歴史認識問題を、どのように対話、克服、継承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のかを考えた場合、日本の侵略戦争という歴史事実について国境を越えて共有するだけでなく、戦後半世紀以上がたつ今日まで、どのように戦争記憶が継承され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までを視野に入れた対話が欠かせない。その際、異なる歴史認識や戦後史経験をふまえた議論を可能とする具体的な対話の土台が必要になる。

では、いったいどのような対話の土台を、日本や東アジア各国の研究者や教育者、そして各地で暮す一人ひとりが用意できるだろうか。まさに今日、アジアと向き合う姿勢、歴史認識を深める方法としての歴史対話のあり方が問われている。そうしたなか作成された共通歴史教材は、具体的な対話の場となりうるが、それがそのまま歴史対話を成立させるのではないことを改めて確

認しておく必要があろう。あくまでも作成過程において、自国中心的な歴史研究、歴史教育、歴史叙述を自己点検・自己更新することによって、アジアや過去の歴史と向き合う姿勢を問い続けることが、異質の他者と向き合い、自らの歴史認識を深めることを可能にするのである。よって歴史対話とは個人レベルで行われるべきものであり、それを同じように国家レベルの歴史政策として求め実現することとは、歴史対話のあり方を考えるうえで必ずしも一致しないというのが私の現在の考えである。この歴史対話から歴史政策へ、という道筋については、今後さらに議論が必要になっていくであろう。

歴史対話のあり方を検討することは、歴史研究、歴史教育、歴史叙述いずれかの役割なのではなく、三位一体による対応が求められ、それぞれの存在意義や、歴史と向き合い現代社会を生きる私たちの主体性を問い続けていくことに他ならないのである。こうしたいとなみ全体を、一つの研究対象とし、歴史対話論という新たな学問研究分野として構築していくことを提起したい。それを本稿では、共通歴史教材の作成から歴史対話論へ、と表現した。

역사대화론

—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개발의 성과와 과제를 사례로 —

齋藤一晴 (明治大學校)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역사교과서 작성의 도달점과 과제
- III.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역사 대화
- IV. 공동 역사교과서 작성에서 역사 대화론으로
- V. 끝내면서

I. 들어가면서

2005년 이후 한일, 한중일 공동작업에 의한 공동 역사교과서 간행이 계속되고 있다.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고문연(高 文研), 2005 (이하 『미래를 여는 역사』라 함)을 예로 든다면 한중일 3국에서 이미 25만부 이상이 간행되었으며, 홍콩, 대만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적지 않은 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동교과서 라는 형식 외에도 공동 편집으로 각국에서 간행된 학술서와 번역 출판된 일반서 등을 포함하면 최근 한중일 3국에서의 학술연구의 긴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중일 각국내의 내셔널리즘이 타국의 내셔널리즘과 공진관계에 있으며 그러한 관계성과 각국에서의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의 점검·갱신작업이 표리일체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논의가 점점 더 큰 과제로 국경을 초월해 우리들 앞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 세 가지 과제에 대해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과정을 사례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의 공동 역사교과서 작성의 도달점과 과제다. 두 번째는 『미래를 여는 역사』라고 하는 역사대화가 명시한 역사연구·역사교육·역사서술의 과제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공동 역사교과서 작성이라고 하는 시도를 동아시아 내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발전시켜가는 것이 요구되는가 하는 논의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결지음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공동 역사교과서 편집과 출판을 일본의 전쟁책임을 계승하기 위한 역사 화해에 기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연구,

실천, 서술 방식을 논의하고, 각국에서 이미 성립된 자국중심적인 역사인식을 자기점점, 자기갱신하는 토대를 만드는데 연결해 가길 바란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역사대화를 통해 동아시아란,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고 싶다. 이러한 시도는 이른바 공동역사교과서 작성에서 역사대화론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오늘날의 과제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역사교과서 작성의 도달점과 과제

1982년 이른바 역사교과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역사대화는 본격화되어 갔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역사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공동역사교과서 작성을 목표로 쌓아온 10년 이상에 걸친 연구, 실천 교류는 한일공동역사교과서 간행이라는 결실을 맺었을 뿐 아니라 이미 양국에서의 자국사의 재검토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폭넓은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역사대화는 한국과의 관계성에 비하면 아직 그 경험은 깊지 않다. 그러나 2002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와 역사인식 평화포럼」을 보면 지금까지 개최된 7차례의 심포지엄을 통해 중국측의 보고와 발언내용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02년 포럼 개최 당시 중국측의 보고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비판과 전쟁범죄 추궁이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중국의 보고자가 한국전쟁에서의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 언급하여 기존의 중국 국내에서 나왔던 한국에 의한 무력 북침이라는 역사이해와 다른 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지난 달(2008년 11월) 베이징의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열린 제7차 심포지엄에서도 중국정부의 전후 보상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일본 인민과 군국주의자를 구별하는 전후 정책이 전쟁피해자 개인의 존엄과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등 자국의 역사를 재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한중일의 논쟁은 서서히 각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작업을 어떻게 공유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일본 비판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고 국경을 초월해 전쟁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역사 사실을 공유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한층 건설적으로 심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혹은 한중일이 편집, 출판한 공동 역사교과서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이미 5종, 6권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미래를 여는 역사』는 유일하게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편집한 것이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2001년에 발생한 일본의 교과서문제가 발단이 되어 작성을 검토, 시작해 2002년부터 3년의 세월과 10회의 국제편집회의, 3회의 국제 심포지엄을 거쳐 출판되었다.

그 특징은 1982년의 교과서 문제 이후 일본과 중국 간에 구축된 역사 대화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진전이 있었다는 점. 일본의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을 둘러싼 역사 사실의 공유가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역사연구, 역사교육, 역사사실, 과학운동이라고 하는 ‘사위일체’ 적인 대응을 했다는 점. 또한 자국 중심적인 역사 이해와 관련해 국경을 초월해 실시된 역사대화를 통해 극복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 검정을 받은 기존의 역사교과서와는 다른 민중 차원에서 작성한 공동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대안을 한중일 3국이 작성, 공유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미 출판된지 3년 정도가 지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비평,¹⁾ 작성과정에서의 논점에 대해 언급한 저작물도 출판되는 등,²⁾ 그 성과와 과제를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는 근처에서 「『미래를 여는 역사』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지금부터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³⁾

향후 『미래를 여는 역사』는 영어 번역판이 출판된 예정이며 내용과 방식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 위원들은 2011년을 목표로 상하권으로 구성된 한중일 공동학술서를 출판하기 위해 이미 7차례에 걸친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역사대화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오늘날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 과정과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그 성과와 과제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역사대화의 방식과 그 방향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의 국제역사교과서 대화가 전문인 곤도 다카히로(近藤孝弘)는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곤도는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家永教科書訴訟)의 「성과와 한계 양쪽을 바라보고 새로운 노력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에 대해 언급한 후,⁴⁾ 재판을 뒷받침한 논리의 일부가 「국가 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한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 정치교육이라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장애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⁵⁾ 그리고 유럽에서 역사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 정책을 실시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과 동아시아에서의 역사대화의 현황을 비교하면서 「공 권력에 의한 역사문제에 임하는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란 제기를 하고,⁶⁾ 각국이 역사 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역사대화를 초월」하는

1) 『미래를 여는 역사』를 둘러싼 논쟁으로는 그 전쟁기술을 비판적으로 본 하야시 유 스케(林雄介)「동아시아 공동 역사교과서를 읽고(東アジア共通歴史教材を読んで)」역사과학협의회(歴史科学協議会)『역사평론』2008년 3월호와 각각에 응답한 오이카와 에이지로(及川英二郎)「하야시 유스케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과서를 읽고』에 대한 고언」역사과학협의회(歴史科学協議会)『역사평론』2008년 7월호가 있다.

2) 『미래를 여는 역사』작성과정에서의 논점과 출판 후의 활용방법,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중국역사교과서와 동아시아 역사대화』가덴샤(花伝社), 2008을 참조바람.

3)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동아시아사』의 가능성－일본·중국·한국=공동편집 『미래를 여는 역사』(2005년)을 둘러싸고」고바야시 요이치(小森陽一)·최원식(崔元植)·박유하(朴裕河)·김철(金哲) 편저 『동아시아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 히스토리 「한일, 연대21」의 시도』(아오유미샤(靑弓社), 2008)p.129.

4) 곤도 다카히로(近藤孝弘)편저 『동아시아의 역사정책 한중일 대화와 역사인식』(아카시쇼텐(明石書店), 2008) p.237~238.

5) 앞의 책, p.237.

6) 앞의 책, p.15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7년에 개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 과정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해당)에 의해 고교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미 샘플단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사』신설이라고 하는 개정 교육과정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인식 공유의 필요성과 민간 차원의 성과가 토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교육 강화정책이었다」고 되어 있다.⁷⁾ 이는 「동아시아사」 개설이 한국 정부의 역사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중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실시되고 있는 중일 공동역사연구와 한일 공동역사연구(제2차)의 멤버에는 민간 차원의 공동교과서 작성 경험자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중일 공동역사연구의 경우 중국측 멤버 10명 중에서 좌장인 부평(步平)과 榮維木이 『미래를 여는 역사』의 편집을 경험했다. 한일 공동역사연구 에서도 한국측 멤버 16명 중에서 4명(신주백, 정재정, 현명철, 하중문)이 민간 차원의 교과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는 민간 차원의 역사대화의 경험을 정부 차원에도 반영하려고 하는 각국의 역사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동연구를 역사적 사실의 검증보다도 오히려 정치, 외교 전략으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일본측 멤버로 민간 차원의 공동교과서 작성 경험자를 포함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역사정책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일본과 중국, 한국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의 공동 역사 교과서의 도달점과 과제는 몇 가지 점에서 오늘날에 걸맞게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아시아에서의 공동 역사교과서 작성의 특수성을 유럽의 경험과 비교 검토할 것. 그리고 공동 역사교과서 작성으로 대표되는 역사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역사대화를 축적시켜가는 것인지, 아니면 각국 정부에 의한 역사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들을 바꾸어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의 역사대화가 각국의 역사연구, 역사교육, 역사정책을 재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가 누구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단서로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미래를 여는 역사』의 내용과 작성 과정을 역사대화의 구체 사례로 보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역사 대화

7) 미즈하시 히로오(三橋広夫) 감수·번역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샘플단원개발 보고서」 2008, p.54.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과 출판의 성과는 일본의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한중일 3국이 공유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작성과정과 논의에 있어서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과 어려움을 편집 위원 전원이 배우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초보적인 성과라고 할 수 밖에 없지만 다음에 기술하는 것과 같은 역사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래를 여는 역사』의 작성 과정에서 논쟁이 가장 뜨거웠고 평행선 상에 있었던 것은 일본의 가해, 한국과 중국의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전쟁피해자라고 하는 존재에서 함께 역사를 바라보고 공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도쿄 대공습과 원폭 피해자, 충킹 폭격의 희생자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3국의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그것이 감정 기억과 희생자수와 같은 각도에서 종종 벌어졌으며, 가장 중요한 도쿄와 충킹의 당시 일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하는 점까지를 논의,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가령 피해국이었던 중국도 항일전쟁기에 있던 충킹의 일상생활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일본측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더욱더 난이도가 높은 과제였다 해도 좋을 것이다.

즉 앞서 서술한 논의가 벌어진 이유는 전쟁 피해자 개인과 그 생활에 3국의 편집위원이 도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으며, 파괴된 일상 및 생활 그 자체를 공유하지 못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의 편집과 출판의 목표였던 전쟁의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이 애당초 무리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대화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논의의 토대로 일상 생활을 서로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전쟁 피해자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역사 대화 방식 자체를 논의하는데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개인 차원에서 극명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장하는 실증적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일상을 묘사하는 행위는 묘사자의 주체성을 따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왜 그렇게 묘사하는지, 어째서 그러한 연구방법을 구사해 당시 일상을 재현하는가 하는 것을 따지게 된다. 이는 실증적 연구성과와 과제를 3국이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역사대화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실증 이전’에 각국의 연구 상황에 있어서, 혹은 각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으로, 또한 역사와 마주하는 일개 개인으로서 그 주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의 의미를 상호 파악,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논의와 역사적 서술을 극복하고, 복잡하게 중층화된 역사를 풀기 위해서는 역사와 대면할 자세, 주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나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역사 인식의 자기점검과 자기 갱신이며, 역사인식의 공유, 동아시아라고 하는 존재와 그 역사가 연대·공유와 자기·자국중심적인 역사이해, 역사상(像)의 강요와 양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상적인 행위이다.

한중일 3국에서 공동 편집, 동시 출판된 『미래를 여는 역사』는 과거 전쟁의 역사를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기 중심, 자국 중심적인 역사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한 예다. 그

러나 국가사를 뛰어 넘어 관계사, 지역사로 역사와 지역을 파악하는 틀을 아무리 확대시켜 보아도, 반드시 그 틀의 ‘안’ 과 ‘밖’ 에는 선이 그어져 있으며 거기서 탈락된 역사,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상 생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 역사 교과서를 작성한다는 행위 그 속에 이미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면역원(항원)에서 만들어내는 ‘백신’ 과 같은 것이며 결코 역사인식문제를 해결 하는 만능약과 특효약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기 중심, 자국 중심적인 역사인식, 역사관으로 이끄는 위태로움과 주체적으로 마주하지 못한다면 공동 역사 교과서를 잘못 사용해 21세기판 아시아주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재림이라고 하는 ‘연대’ · ‘공유’ 를 만들어 내는 극약이 되버리는 것이다.

공동 역사교과서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작성 과정에서 규명된 가장 큰 성과는 그 자체가 이원론이 아닌 양의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실천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가해와 피해, 지배와 종속, 식민지화와 근대화, 전쟁 동원과 전쟁 협력과 같은 것이 제각기 별개로 존재하면서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양의적으로 다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독자와 학습자 모두 배울 수 있게 된다.

즉 자국 중심, 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을 극복한다는 것은 끝까지 파헤쳐보면 자국과 타국에 대한 인식과 자기 점검, 자기 갱신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와 함께 역사와 마주할 개인의 주체성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 점검과 갱신된 이력이야말로 역사인식의 심화, 인간적인 성장으로 축적되어 국경을 초월해 공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를 여는 역사』를 일본의 전쟁 책임과 전후 책임을 추궁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용 방법과 역사대화 방식을 재고하는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 역사 교과서의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 대화에서 도출된 도달점이며, 또한 한계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배우는 자세가 필수 불가결하다.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역사 대화가 규명한 것은, 공동 역사 교과서 작성을 과거를 극복하는 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연구방법), 묘사 방식(역사서술),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사람들의 육성(역사교육)을, 또한 국경을 초월해 서로 학습하는 관계성을 만드는 오늘날의 과제에 임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점일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그것에 답하기 위한 순서와 토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무언가 합리적이면서도 고정적인 개념으로 표현되거나 사전에 준비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역사대화란 각국 정부의 역사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상적 영위며,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구, 교육, 서술을 통한 교류가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여는 역사』를 작성하면서 논쟁이 된 시대 구분, 지역 개념, 방법론 등은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의 위상을 국경을 초월해 검토하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논점이며 공동 역사 교과서 작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공동 역사교과서 작성에서 역사 대화론으로

공동 역사교과서 작성은 각자의 역사 인식에 대한 자기 점검과 자기 갱신의 이력을 공유하는 장이며 역사대화 방식에 대해 국경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추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각국에서 자국사의 재검토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야와 동아시아, 동아시아사를 모색, 구축하기 위한 세계사상(像)의 주체적인 형성을 동반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역사인식문제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과거의 전쟁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하는 전쟁 학습과 세계사상(像)의 주체적 형성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적인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의 검토와 전쟁 학습, 세계사상(像)의 주체적 형성은 일견 무관해 보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 대화라고 하는 커다란 틀의 일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일본의 젊은 세대가 일본의 전쟁 역사와 마주하기 어려운 이유의 하나로 자국의 역사인식과 전쟁관을 점검하고 갱신할 수 있을 만큼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사상(像)이 없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동아시아사상(像)과 세계사상(像)의 주체적 형성을 동반하지 않는 전쟁 학습은 역사 대화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해보도록 하겠다. 가령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태평양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란 역사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부터다.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란 용어는 ‘태평양전쟁’이라고 기술했을 경우,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이 주가 되고 동시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지배와 저항전쟁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역사연구와 역사교육 쪽에서 제기해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 교과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전장이 된 태평양에 관한 기술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의 식민지화, 그리고 그 후의 열강 국가들에 의한 재분할한 부분으로 내용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그 분량도 몇 페이지에 지나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기술이 구체화된 것은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에 의해 지역세계가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구조 전체, 동태 전체로 제기된 13개 지역구분론에 기초한 『고교세계사』(짓교출판-実教出版)가 1978년에 출판된 이후였다. 거기서는 전통적인 항해술과 식생활, 문화와 전설의 계승, 고도의 문명을 세운 고대 유적에 대한 소개 등 태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역사 서술에 반영하는 시도를 했으며, 학생들에 의한 세계사상(像)의 주체적인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는 한정된 교과서에 일부 남아있을 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사수정주의의 대두와 문부과학성에 의한 교과서 검정 강화, 그리고 교과서회사의 자율규제 등에 의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전쟁에 대한 기술이 크게 후퇴했다는 점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전쟁기술과 전쟁학습을 뒷받침하는 세계사상(像)의 주체적인 형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역사연구의 진전과 역사 교육의 교육실천이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젊은 세대에 있어서 태평양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아무리 공부해봐야 과

거의 전쟁과 일상생활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재와 연결해 자신들의 오늘날의 과제로 보면서 주체적으로 문제의식을 키우는 것은 어려우며, 더욱이 동아시아상(像)과 세계사상(像)의 주체적인 형성을 동반한 역사대화에 임하는 것은 바랄 수도 없다는 것이 그 실상인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원인은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된 것처럼 일본의 역사 연구, 역사 교육, 역사 서술에서의 유럽중심사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온 일본사, 서양사, 동양사의 삼분연구체제(三分研究体制)와 일본사, 세계사로 나누는 이분교수법(二分教授法)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는 역사 연구의 성과와 역사 교육에서의 실천의 축적,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한 역사서술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일본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의 세계사 교과서의 경우 일 본의 전후 직후에 구성된 세계사상(像)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사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이 교과서의 원형은 1949년에 출판된 도쿄대학 문학부 사학회편 『세계사개설(世界史概説)』로 그 후 최근의 것까지 학습지도요령의 변화와 역사 연구의 연구 성과가 포함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구성에서 특별한 변화는 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세계의 일체화를 근대 유럽 성립으로 보는 점, 각 지역의 역사를 묘사한 후 그것들을 연결해가는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점, 세계의 일체화 이후의 내용이 유럽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 유럽 중심사관이 관철되어 있다는 사실은 반세기 이상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젊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전쟁에 관한 사실을 역사교과서에서 역사 인식으로 심화시키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진보된 유럽과 뒤쳐진 지역 및 그 역사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역사이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의 젊은 세대는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근대화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의식과 그러한 지역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역사인식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세계사상(像)의 주체적인 형성을 동반하지 않는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경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각국은 전쟁 전과 후를 막론하고 약하고 뒤쳐진 존재이며,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면 전시 중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같은 근대화 모델을 오늘날까지 지향하고 있다는 자국 중심적인 역사인식에 빠질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전장의 여러 모습과 점령, 식민지 하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시야가 결여되어 있으며 진보한 강자가 역사를 만들고, 뒤쳐진 약자는 이를 따른 다는 구도가 존재한다. 또한 양자 간에 전쟁과 같은 모순이 발생해도 그 구조가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쳐진 약자 쪽에서 강화하려는 역사가 있다는 인식을 할 수도 있다. 즉 전쟁 학습과 세계사상(像)의 주체적인 형성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에 존재하는 유럽중심사관, 바꾸어 말해 이원론적인 역사인식을 뿌리부터 뒤바꿀 시스템과 구체적인 방법이 학습자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일본의 전쟁 범죄를 가르쳐보아 아시아와의 역사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역사 연구와 역사 연구의 관계성을 고려해 봤을 때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전쟁 범죄연구는 1980년대 이후 교과서 문제와 전쟁피해자 본인에 의한 증언 등을 계기로 크게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 연구의 성과가 세계사상(像)의 주체적인 형성과 충분히 결합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역사교육에서도 전쟁 학습을 통해 전쟁을 아는 것과 아시아에 대한 시야를 키우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방법과 시야로 세계사상(像)을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쟁범죄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과제를 제기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최근 일본의 역사 연구에서는 제국 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세계사상(像)과 세계관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이며 역사 연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이 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동반하지 않으면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모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술한 여러 과제를 각자의 점검과 갱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을 국경을 초월해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공동 역사교과서의 작성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의 공동 역사교과서 작성은 역사의 화해라는 목표를 두면서도 각국의 연구, 실천, 서술을 다시 묶음으로써 동아시아, 동아시아사를 논의하는데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V. 끝내면서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공동 역사 교과서의 도달점과 과제, 그리고 작성과정에서의 논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미래를 여는 역사』를 예로 논해왔다.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공동 역사 교과서 작성과 출판을 역사 화해와 역사 대화의 구체적 사례로 분석을 함과 동시에 각국의 역사연구, 역사교육, 역사서술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동아시아란, 동아시아상(像)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존재로 보고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패전한지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쟁 침략, 점령, 식민지 지배 역사를 둘러싼 역사인식문제는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아시아와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일본 인구의 3/4 이상은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이다. 그것은 아시아 각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이미 전쟁을 모르는 세대임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러한 전쟁 비체험 세대들이 일본의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을 둘러싼 역사인식문제를 어떻게 대화, 극복, 계승해가야 하는지를 고려했을 때,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국경을 초월해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어떻게 전쟁에 대한 기억이 계승되어 왔는지에 대한 것까지 시야에 포함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때 서로 다른 역사 인식과 전후사 경험을 감안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대화의 토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대화의 토대를 일본과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자 및 교육자, 그리고 각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 하나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날 아시아와

마주하는 자세, 역사 인식을 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역사대화의 위상을 묻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작성된 공동 역사 교과서는 구체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역사 대화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작성 과정에서 자국중심적인 역사 연구, 역사 교육, 역사 서술을 자기점검, 자기갱신함으로써 아시아와 과거의 역사와 마주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질적인 타자와 마주하고 자신의 역사인식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대화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똑같이 국가 차원의 역사 정책으로 요구하고 실현하려 하는 것은 역사 대화의 방식을 고려하는데 있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나의 생각이다. 이 역사대화에서 역사 정책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논의할 필요가 나올 것이다.

역사 대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역사연구, 역사교육, 역사서술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며, 각각의 존재의의와 역사를 바로 보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묻는 것 외에는 없다. 이러한 영위 전체를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보고 역사대화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연구분야로 구축할 것을 제기하고 싶다. 그것을 본고에서는 공동 역사 교과서의 작성에서 역사대화론이라는 표현을 썼다.

【Abstract】

Methodology of historical dialogues: focusing on the Japan-China-Korea joint project for the creation of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its achievements and problems

SAITO Kazuharu

Introduction

In an effort to establish a Japan-China-Korea common history, history teaching materials have been created and published in Japan-China-Korea joint projects since 2005. For example, *History that Opens up Pathways to the Futur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Three East Asian Countries* (Kobunken, 2005) ("*History*") has a circulation of over 250,000. Considering academic and other books have been published for similar purposes, Japan-China-Korea joint research is now in rapid progress.

Meanwhile, while nationalism grows in one country in response to that in other two countries, in parallel with it, each country's self-centered understanding of history has been reviewed and renewed. And now,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Japan's understanding of history, we are facing other critical problems including those of what East Asia is and what East Asian history is like.

In this paper, therefore, we will discuss the creation of *History*, focusing on three problems. First, what are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in the creation of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in East Asia? Second, what historical research,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descriptions have been revealed by historical dialogues in the creation of *History*? And the third problem is how we should address the above two problems, in other words, how we should examine, in the context of East Asia, our efforts to create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in hopes of improving and furthering them. And we'll provide our answer to the last problem.

By discussing the above three problems correlatively, we would like the creation of history teaching materials to contribute to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hopes of taking on and taking over Japan's wartime and postwar responsibility, and to create a framework in which we can discuss what cross-frontier historical research, practice and history descriptions should be, as well as review and renew the established, self-centered understanding of history. We also hope, in so doing, historical dialogu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ill help us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of what East Asia is and what East Asian history is like.

1. Efforts to create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in East Asia, their achievements and problems

Since the so-called history textbook controversies in 1982, there have been serious historical dialogues on the problem of Japan's understanding of history. They were especially activ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leading to the review of each country's history and a wide range of discussions on Japan's colonial occupation.

On the other hand, Japan has less often had historical dialogues with China than with South Korea. But, China is now more ready to review its history and the focus of Japan-China-Korea discussions is shifting from the problem of Japan's understanding of history to the problem of how the three countries can share each country's efforts to review its history to improve and further them together.

Under such circumstances, six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in five ser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05 in Japan-Korea or Japan-China-Korea joint projects. Among them, only *History* was jointly edited by the three countries.

The publication of *History* was triggered by history textbook controversies in 2001 and it was completed after ten international editorial conferences and three international symposiums during three years from 2002. Its features include 1) that it reflects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historical dialogue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or China since the history textbook controversies in 1982 and aims to promote their further advances, 2) that it aims to share historical facts relating to Japan's wartime and postwar responsibility, 3) that it tries to determine specific ways to conduct historical dialogu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n an effort to go beyond the bounds of each country's self-centered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4) that it provides an alternative to the system of government authorization of textbooks as a non-governmental project of creating teaching materials commonly used in the three countries.

Three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its publication and it is time to discuss its achievements and problems. An English version of *History* is also scheduled to be released and then there will be more heated discussions than we've had. The authors of *History* have already had seven editorial conferences for the publication of an academic book in 2011. Considering such circumstances, it is time to reexamine the creation of *History* as well as its contents.

In Japan, moreover, heated discussions are being devoted to the problems of how historical dialogues should be conducted and what direction they should take. For example, European policies on history education have aimed to prevent historical issues from becoming serious and in effect achieved certain positive results. Some say the policies should be examined in the context of East Asia so that each East Asian country can formulate its own policy on history education. Also in South Korea, the curriculum for history (equivalent of Education Ministry's curriculum guidelines in Japan), revised and announced in 2007, includes the history of East Asia as a new elective course in high schools. This means that it is part of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history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members of joint historical research projects between Japanese and Chinese governments as well as between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include the authors of teaching materials jointly developed as private sector projects. This means, in its own policy on history education, each country tries to integrate its private sector's efforts in historical dialogues into its governmental projects.

To sum up, some of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in the creation of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in East Asia should be reexamined from today's viewpoint. First, East-Asia-specific efforts to create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reexamined in reference to the efforts European countries have made in their history education. Second, we ne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what exactly historical dialogues mean, as seen in the crea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dialogues. Finally, we need to determine ways to provide training for those who are expected to b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dialogues. For these purposes, we will discuss the creation of *History* as a historical dialogue.

2. *History* as a historical dialogue

The publication of *History* was significant in that the three countries tried to share historical facts relating to Japan's wartime and postwar responsibility and that all the editorial members learned how critical and yet how difficult it is to address the problems of what East Asia is and what East Asian history is like. These are still early-stage achievements but are important in that they opened up the following possibilities for historical dialogues.

In the creation of *History*, discussions often heated up but ended up without any progress especially when they focused on how to break out of the paradigm of Japan's victimization of China and Korea so that the three countries can establish and share one history as war victims. In effect, discussions remained as far apart as ever perhaps because each country often referred to its people's emotions, memories or the number of victims. Consequently, the members could neither discuss nor share the important problems of what daily life people led in Tokyo or in Chongqing and how it was destroyed.

This indicates that it is fundamentally important for each country to understand other people's daily life as a framework for discussions in an effort to share historical facts prior to historical dialogues. Accordingl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mpirical research that ensures the accurate representation of a daily life from a personal viewpoint. Since it is a subjective representation, it is also questioned why a daily life is represented in such and such a way, or why empirical research methods should be employed to represent a daily life.

In an effort to free historical discussions and descriptions from a victimizer/victim dichotomy and to understand the multi-layered, complicated history, we have to honestly face the history and constantly put our subjectivity in question. It is, in my own words, to review and renew our own understanding of history, a philosophical effort to keep in mind the fact that both the concept of shared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the problems of what East Asia is and what East Asian history is like are equivocal in themselves due to the people's solidarity and sharing, self-centered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the imposed view of history.

History is an attempt to identify ways to share the history of the war and to go beyond the bounds of each country's self-centered understanding of history. But, no matter how we try to expand the framework for historical approaches, for example from the history of one nation to that of relationships

between nations or to local histories, there are always things that fall out of the framework, including certain types of historical facts, people's memories, and their daily life as a source of the facts or the memories. Paradoxically, therefore, efforts to create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include in themselves factors that may undermine the efforts. Without conscientiously facing such precariousness of the efforts, we may see people's solidarity and sharing as if being a 21st-century version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about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and the efforts to create them is that they have proved themselves not to be dichotomous but to be equivocal and that they can provide practical opportunities to learn the fact. That lets us notice that there are not separate dichotomies of victimizer vs. victim, ruler vs. ruled, colonization vs. modernization, and wartime mobilization vs. wartime cooperation, that may have correlations, but that all of the views are equivocal or multivocal.

In short, when we try to go beyond the bounds of self-centered understanding of history, we will necessarily review and renew our understanding of our country and other countries, as well as self-other understanding, and constantly put our subjectivity in question. And the experience of accumulated reviews and renewals will deepen our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lead to our personal development. It is such experience that should be shared by the three countries.

3. Move from the creation of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towards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dialogues

In an effort to create common history teaching, each country constantly reviews and renews its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the experience is shared by the three countries, which at the same time constantly question one another what historical dialogues should be. In this respect, we have to be aware what advances there are in each country's review of its history and at the same time make conscientious efforts to construct a view of world history so that we can define what East Asia is and what East Asian history is like and construct an East Asian history. Especially, in East Asia that needs to tackle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problem of how to learn what the war was should be linked to conscientious efforts to construct a view of world history.

Since the mid-1990's, Japanese history textbooks have removed many references to the war as a result of the movement of historical revisionism, textbook authorization enforced by the Education Ministry, and self-regulation by textbook publishers. The more serious problem is, however, that the removal that has been done in spite of advances in historical research and the accumulated practice of history education may undermine conscientious efforts to construct a view of world history or a view of East Asian history, efforts required to determine how the war is represented or how to learn what the war was. In other words, when young people learn about Asia-Pacific War using a textbook in which there is no reference to people living in the Pacific, they can neither associate their own life with the wartime daily life, nor acquir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war as a present-day problem, nor seek historical dialogues in an conscientious effort to construct a view of East Asian history or a view of world history.

As often remarked by scholars, what are at the root of all problems would be the Europe-centered historical view in historical research,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descriptions, trichotomy in research (histories of Japan, the Occident and the Orient), and dichotomy in curriculum for history (histories of Japan and the world).

A history textbook is expected to include history descriptions in their integrity as a result of historical research and the accumulated practice of history education. For example, Yamakawa Publishing's *World History*, which has up to the present held the largest share of the domestic market for world history textbooks, still favors the Europe-centered view of world history, a view constructed in postwar Japan, and a historical view based on the Europe-centered view. Consequently, the facts of Japan's war in the textbook do neither help students acquir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nor break out of the dichotomy of advanced Europe vs. underdeveloped areas.

To sum up, if the problem of how to learn what the war was is not linked to conscientious efforts to construct a view of world history, and if learners are not provided with a curriculum and specific ways to break out of the Europe-centered historical view as now seen in world history textbooks or in history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dichotomous way of history understanding, it is difficult for the learners to construct such a view of history that enables them to conduct historical dialogues, no matter how they are inculcated with the ideas of Japanese war crime.

Efforts to create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will provide all the three countries with an opportunity to solve the above problems by each country's reviewing and renewing its understanding of history. These efforts by the East Asian countries should urge each country to review its historical research, practice and history descriptions and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what East Asia is and what East Asian history is like in hopes of attaining the goal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Conclusion

In this paper focusing on *History*, we have discussed the creation of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in East Asia, its achievements and problems, and what we can learn from arguments in the process.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creation of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analyzed as an example of historical reconciliation or historical dialogues and reexamined as a possible solution to the problem of how we should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s each country's historical research,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descriptions have and by extension to the problems of what East Asia is and what East Asian history is like.

Then, what framework each of us, a Japanese or East Asian researcher, educator or citizen, can create for historical dialogues? What historical dialogues we should conduct in order to face the reality of East Asia and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ts history? This is the very challenge we face today. We have to make sure, here again, that the creation of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can provide an opportunity for actual dialogues but not necessarily help construct historical dialogues. It is by reviewing and renewing each country's self-centered historical research,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descriptions in an effort to create the materials that we can constantly ask ourselves how we can face the past and the history of Asia, face others, an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problem of what historical dialogues we should conduct needs to be addressed, not separately but by a concerted effort made by professionals in historical research, history education and history descriptions. In so doing, we have to constantly put their *raison d'être*, our subjectivity in question. We propose that these efforts in their integrity be put in the scope of research so that we can establish a new academic field of historical dialogues. The field is called in this paper a move from the creation of common history teaching materials towards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dialogues.

近10年中国学术界 近代中日关系史研究综述

■ 王 新 生 (北京大學校) ■

近10年中国学术界近代中日关系史研究综述

王 新 生 (北京大學校)

〈目 次〉

- I. 中日历史研究中心文库
- I. 自选课题的中日关系研究
- II. 多卷本南京大屠杀史料集

此次会议的主题是“东亚知识交流与历史记忆”，需要强调的是，本来知识交流对双边或多边关系具有重要推动意义的活动，但在交流过程中却刺激了消极影响双边或多边关系的历史记忆，近10年来中国学术界近代中日关系史研究典型地反映了这一点。换句话说，随着知识交流的不断加强，越来越多的研究成果揭示了近代东亚地区关系史中日本对外侵略扩张带来的残酷一面，结果影响到双边或多边关系的顺利发展。本文从这一角度出发，分三个方面介绍近10年中国学术界有关近代中日关系史研究的主要状况，即中日历史研究中心文库、自主选题、南京大学南京大屠杀史研究所出版的专著及史料集。

I. 中日历史研究中心文库

1995年，日本政府实施为期十年以亚洲邻国为主要对象的“和平交流计划”，决定设立日中历史研究中心，希望中国提供协助，并给予必要的资助。作为交流窗口，1997年，中国社会科学院中日历史研究中心正式设立“中日历史研究课题”，通过课题指南形式，在国内公开招标研究者，重点研究近代日本侵华的历史以及与此相关的中日历史问题，研究中心给予经费资助。同时，为反映中国学者有关近代中日关系历史的研究成果，并使社会各界了解近代中日关系的历史事实，从上述研究成果中选择部分著作，以“中国社会科学院中日历史研究中心文库”的名义出版，至今已出版40余册。其中除论述教科书问题、战后日本右翼问题、国民政府资源委员会研究、近代日本政治体制等少数几部著作外，绝大部分是论述战争时期日本政府及其军队在中国大陆的战争罪行，是一种典型的知识交流与历史记忆的关系。下面按照出版时间分别予以介绍。

张海鹏、步平主编的《日本教科书问题评析》，2001年版。本书系统地介绍了日本教科书编撰及审定制度的由来及发展变化情况，论述了所谓“教科书问题”的实质是日本右翼势力对历史事实的有意歪曲与否认，以及日本政府文部省对此的姑息与默许。同时，本书还以大量的历史材料为依据，详细介绍、论述了日本帝国主义对中国的侵略及其犯下的罪行，如南京大屠杀、细菌战、强掠中国劳工、慰安妇等，有力地驳斥了日本右翼势力对历史事实的歪曲与否认。

史桂芳著的《“同文同种”的骗局——日伪东亚联盟运动的兴亡》，2002年版。东亚联盟理论是日本侵华战争期间出现的一种影响较大的侵略理论，在该理论指导下，汪伪政权曾兴起一场颇具规模的东亚联盟运动，受欺骗而参与的民众达数百万人之众。本书作者以翔实的史料，系统地介绍了东

亚联盟理论形成的社会历史条件及其基本内容以及东亚联盟运动兴起、发展及败亡的全过程，并从理论与实际两个层面予以深刻的批判。

袁韶莹、杨瑰珍著的《从人到鬼 从鬼到人——日本“归还者联络会”研究》，2002年版。二战后被关押在抚顺和太原战犯管理所的杀人魔鬼——日本战犯经过教育改造，开始恢复人的良心，并加以深刻的反省，认清了日本军国主义的本质和危害，成为热爱和平、反对侵略战争、维护中日友好关系、同日本右翼势力进行斗争的和平卫士。该书资料翔实，内容丰富，回顾了“中归联”成立后44年的艰难斗争历程，充分地论述了日本战犯“从人到魔鬼的嬗变”、“从魔鬼到人的还原”的过程。

何劲松著的《近代东亚佛教——以日本军国主义侵略战争为线索》，2002年版。本书基本上是按时间顺序和地域展开论述，在扼要介绍古代日本佛教与政治之间的关系、佛教所拥有的较高社会地位的基础上，论述了明治时期以来日本政府大力推行侵略战争政策这一特殊历史背景下，日本佛教经甲午战争、日俄战争直到第二次世界大战逐步沦为法西斯主义的工具和帮凶的过程，对处在日本帝国主义殖民统治之下的朝鲜和台湾地区的渗透，以及日本佛教诸宗在中国东北地区的传播状况。

李广民著的《准战争状态研究》，2003年版。从九一八事变直到太平洋战争爆发，日本虽多次在中国挑起武装冲突，特别是卢沟桥事变以后，更掀起了全面的侵华战争，但无论是发动侵略战争的日本，还是进行自卫抗战的中国，都没有明确表示开战的意向，日本始终坚持按“事变”处理中日关系，国民党政府也迟至1941年12月才公开对日宣战。这期间中日两国的关系仍按平时国际法行事，中日两国与第三国的关系也主要靠普通国际法来调整。这种事实上的战争状态存在而交战双方都不愿将其宣布为法律上的战争状态笔者将它暂时界定为“准战争状态”，并对这种状态下的中、日、国联等各方的行动、其深层原因及意义展开了研究。

王真著的《抗日战争与中国的国际地位》，2003年版。抗日战争是近代中国国际地位史上的一个辉煌的坐标，由此可以看到近代中国国际地位从痛苦的沉沦到艰难崛起的悲壮历程。随着国际和国内条件的变化，中华民族在20世纪30年代展开的中日战争中迎来了民族解放的黎明，并在与日本侵略者进行决战的东方战场上显示出不可征服的民族伟力。中国不仅以自己在反法西斯战争中的努力贡献于联合国，而且直接参与了联合国的创建过程。中国在创建联合国过程中的具体作用主要有三方面：一是参与决策作用，二是组织协调作用，三是小国代言人作用。中国在创建联合国过程中所起到的这些重要作用，有力地奠定了作为安理会常任理事国的大国地位。

步平著的《日本侵华战争时期的化学战》，2004年版。日本化学战问题不仅是个历史问题，也是一个影响中日关系现实问题。历史上，日本军队曾在中国进行化学战，给中国人民的生命财产造成极大损害；现实中，日本遗留在中国的化学炮弹、炸弹、毒剂等，仍不时地危害中国人民的生命财产。作者从日本化学武器开发史开始论述，分析了日本军队开发的化学武器种类、陆军科学研究所进行的生理实验、化学武器的制造及其系统等问题，系统地论述了日本的化学战问题。

李秉刚、赵晓光、阎振民著的《日本侵华时期辽宁万人坑调查》，2004年版。本书是辽宁境内万人坑的大型调研报告集，以大量第一手资料系统介绍日本侵华时期在辽宁省的旅顺、平顶山、新宾等地血腥屠杀中国人民，同时在抚顺、本溪、阜新、北票、长岭、大石桥、鸭绿江水丰水电站、大连金洲龙王庙、铁岭乱石山等开采矿藏、修建水电工程和军事工程中进行疯狂经济掠夺、残酷剥削和奴役中国劳工，形成许多大型万人坑的基本情况，阐明了日本帝国主义在侵华战争中留下的历史罪证。

居之芬、庄建平著的《日本掠夺华北强制劳工档案史料集(上、下)》，2004年版。本书以中国各地档案馆新发掘的日伪劳工档案为主，辅以日本“满铁”资料及日本在战争中驻华北各地经济情报机关形成的有关劳动调查统计资料，以“日本掠夺中国华北强制劳工事件始末”为框架编选，系统、

全面地揭露了日本帝国主义强掳华北中国劳工的主要政策、决策与执行机关、掠夺计划以及实施情况统计、主要掠夺手段、强制劳工与虐待劳工的暴行,材料翔实、证据确凿,有力地驳斥了日本右翼势力的谎言,也充分揭露了日本帝国主义侵略中国的罪行。

杨玉林、辛培林、刁乃莉著的《日本关东宪兵队“特别输送”追踪》,2004年版。作者以黑龙江和吉林两省档案馆馆藏日军关东宪兵队“特别输送”档案为线索,对日军细菌战人体实验受害者的亲人进行的实地调查,获得相当丰富翔实的实证资料,在侵华日军进行细菌战人体实验的人证、物证等方面取得许多令人振奋的突破,是对日本在“二战”期间建立七三一部队及进行细菌战罪行的极大揭露和深刻批判。对于认识日本及侵华日军细菌战部队实行“特别输送”的历史背景、实施的具体办法和过程、罪恶目的及其给中国人民造成的严重危害起到重要作用。

关捷著的《旅顺大屠杀研究》,2004年版。本书依据大量珍贵的第一手历史资料,全面系统地记述、评论日本军国主义者在中日甲午战争时期制造的旅顺大屠杀惨案,向世人真实地展现了110年前日本侵略军在旅顺口地区惨无人道地屠杀约二万名中国无辜平民的血腥情景,从历史与现实结合的角度,深刻地揭示了日本军国主义者发动侵华战争、制造旅顺大屠杀的历史渊源,有力地抨击了当代日本国内极右翼政治势力否认侵略历史、妄图复活军国主义的阴谋活动,并对中日关系未来的发展前景进行了深入的评论。

庄维民、刘大可著的《日本工商资本与近代山东》,2005年版。在充分利用日本方面文献档案、各类调查资料及地方文献的基础上,作者系统考察了1976—1945年日本工商资本在山东扩张活动的历史,通过对日本殖民政策与经济扩张、经济扩张与地区社会经济关系的实证研究,将殖民政策研究与经济扩张研究结合在一起,较完整地复原半个多世纪日本对山东殖民侵略和经济扩张的历史,理清了日本军、政、工商资本扩张活动与区域社会经济演变之间错综复杂的关系脉络,从而揭示殖民政策与经济扩张对地区市场经济、产业发展和现代化进程造成的影响,对殖民政策实施与地区社会经济殖民化的关系加以理论上的说明,也有助于加深对近代山东经济演变特征的认识。

朱成山著的《侵华日军南京大屠杀幸存者证言》,2005年版。该书是一部由315位亲历南京大屠杀幸存者证言文字编辑而成的证言集。全书由6部分组成,分别揭示了当年侵华日军在南京对手无寸铁的平民进行长达6周的集体屠杀、零散屠杀、性暴力、抢劫、焚烧,对南京城狂轰滥炸等惨绝人寰的血腥暴行以及当时的各慈善团体收埋被害者尸体的情况,史料翔实。伤痕累累的幸存者、受害者、目击者们以亲身受害经历对日本侵略者所犯滔天罪行的血泪控诉,不仅确证了侵华日军实施南京大屠杀暴行的存在,而且也是对日本国内一些政府官员及其右翼势力违背历史、百般抵赖、妄图否定南京大屠杀卑劣行径的有力回击。

戴建兵、王晓岚著的《罪恶的战争之债:抗战时期日伪公债研究》,2005年版。本书根据翔实的档案资料和历史文物,论述了战时日本的国内公债政策、伪满洲国的公债、华北伪政权的公债、汪伪政权的公债、台湾的公债及其性质、特点。系统地揭露了日本在侵华战争期间推行“公债政策”以及在中国沦陷区大量发行各种战争债券对中国人民进行疯狂的经济掠夺,分析了日本军队“以战养战”的罪恶目的及其给中国人民带来的深重苦难。

步平、王希亮著的《日本右翼问题研究》,2005年版。本书主要包括右翼思想与右翼运动的产生、国家革新运动与二十世纪初期右翼运动的演变、把日本引上战争道路的军队法西斯右翼、日本被占领时期的右翼势力、旧金山条约与右翼的复苏、岸信介内阁的反动政治与右翼运动的高涨、新右翼的登场与“民族派运动”、七十年代右翼的“昭和维新运动”、新保守主义时代的右翼、文化教育界右翼团体的形成及其活动。对日本右翼的涵义、由来、在历史上的影响与作用、战前右翼与战后的右翼以及现代右翼之间的渊源与区别等问题进行了理论上的研究和说明。

王希亮著的《战后日本政界战争观研究》，2005年版。从日本宣布战败投降到今天，在日本始终存在着不认账、不谢罪，不反省的现象。本文按时间顺序纵向分析了占领时期对战争责任的追究与放弃、日美安全保障体制下的反动政治回潮、经济主义政治下的皇国史观暗流、新保守主义的登场及战争责任问题的尖锐化、“体制”崩溃及《大东亚战争的总结》出笼、政界要员的战争认识与“国会决议”风波、政治右倾化的加剧、历史修正主义思潮泛起和新世纪不协调的“噪音”，论证了这一现象的根本原因在于战后执政党、内阁、国会以及政界大员们的战争观和历史观。

史丁著的《日本关东军侵华罪恶史》，2005年版。作者通过翔实的史料，纵向分析了日本关东军在中国活动的整个过程及其存在40年的历史，论证了在近代日本军国主义的侵略扩张过程中，关东军是侵华的急先锋、伪满洲国的“太上皇”、贪得无厌的财富掠夺者、笑里藏刀的精神奴役者。缘起于“关东洲”和“满铁线”，势力范围延伸到了华北和西北，在与国民党军队、共产党军队及苏联红军的较量后，终于走向灭亡。但其余毒并未散尽，细菌战和化学战的恶果仍伤害着中国人民，破坏着自然环境。

陈小冲著的《日本殖民统治台湾五十年史》，2005年版。1895年到1945年，台湾沦为日本殖民地长达50年之久，本书以日本统治时期台湾历史这一断代横面作为切入点，论述这一过程给台湾历史发展进程带来的影响。在政治方面，探讨了日本在台殖民统治机构和法律制度的建立、台湾人民的反抗斗争与日本殖民者的镇压活动、日据时期台湾与祖国大陆的关系等；文化教育方面着重研究了日本殖民者的皇民化运动对台湾社会的冲击及其带来的负面影响；社会经济方面探讨了台湾作为宗主国日本的资本投资场所、原料来源地和商品倾销地的殖民地社会经济特性，分析了殖民当局在台湾经济发展中的作用及其政策指导下形成的畸形社会经济结构。

谢忠厚、田苏苏、何天义著的《日本侵略华北罪行史稿》，2005年版。本书作者在吸收学术界研究成果的基础之上，运用新的档案文献和调查资料，对日本帝国主义侵略华北的罪行做了较为系统、全面的论述。本书所指“华北”指日本华北方面军、伪华北政权、伪蒙疆政权所管辖的区域，将其作为日本侵华史和中日关系史的典型事例加以考察，从历史、现实与未来发展的角度阐述日本侵略华北罪行的历史发展，分析了其历史特点及其遗留问题。

熊沛彪著的《近现代日本霸权战略》，2005年版。近现代日本的霸权战略涉及外交、军事、经济、思想、国际关系等方面，本书以丰富新颖的资料、最新的观点和最新的方法，对近现代日本的对外扩张战略与中日战争、东亚国际体制的动荡与日本对外侵略扩张、九一八事变与华盛顿体制的动摇、日本东亚新秩序政策、中日战争初期日本的战争目标与东亚战略、日本战略调整与武汉和广东会战、“东亚新秩序”与日本既定战略、欧洲大战的爆发与日本战略对策、日本南进的战略措施等问题进行了探讨，是抗战史和中日关系史研究的新突破和新成果。

吴广义著的《侵华日军南京大屠杀日志》，2005年版。本书依据加害方、中立方和受害方的照片及文字等第一手资料，采取图文互证、图随文行的体裁，依时间顺序，逐月逐日记述了南京大屠杀的实态，揭示了包括烧杀淫掠等暴行的最野蛮最残暴的大屠杀全过程，充分证明南京大屠杀是在日本对华实行恐怖屠杀既定政策的背景下发生的侵华日军有预谋、有计划、有组织的暴行。

胡德坤、韩永利著的《中国抗战与世界反法西斯战争》，2005年版。本书专门探讨了中国在第二次世界大战中的地位与作用，将中国抗日战争置于世界大背景下，从战略层面对中国抗日战场在世界反法西斯战争中的关键地位作了全方位的论述。揭示中国抗日战场一直拖住侵华日军主力，既牵制了日本北进攻苏的图谋，又迟缓了日本南进攻英美的步伐，具有世界战略意义。中国抗日战场以承担重大牺牲配合与支援了英美“先德后日”战略的实施，更有力保证了苏联避免东西两面作战而全力对付德国，在为世界反法西斯战争做出贡献的同时，也为中华民族的复兴创造了坚实的条件和

基础。

关亚新、张志坤著的《日本遗孤调查研究》，2005年版。该书作者先后用两年时间对东北三省和内蒙古东部地区的日本遗孤情况进行了大范围调查，查阅了3800名日本遗孤的档案材料，走访了百余名留华未归的日本孤儿与中国养父母，对日本遗孤产生的背景、被中国养父母收养的经过、回日寻亲定居的历程进行研究和分析，论证了日本遗孤产生的根本原因是日本移民侵略政策的产物，直接原因是日本战败后所形成的战争灾害。

沈予著的《日本大陆政策史(1868-1945)》，2005年版。“大陆政策”是日本军国主义的核心和最本质的体现，几乎贯穿于近代中日关系的始终。本书通过对明治维新与日本的大陆政策、明治初期的中日关系、中日甲午战争、日俄战争等直到发动太平洋战争并战败等问题进行了实证分析，全面、深入地论述了“日本大陆政策”制订形成、演变发展、最后破产的历史。

薛毅著的《国民政府资源委员会研究》，2005年版。资源委员会是民国时期国民政府属下专门负责工业建设的机构，该机构自1932年在南京成立至1952年撤销，在后方大力发展工矿企业，抗战胜利后统领全国(包括台湾省)近千家大中型企业，管辖30多万员工，成为直属行政院的内政部机构。新中国成立前夕，该会主要负责人从民族大义出发，领导在大陆的所有企业及其几十万员工弃暗投明，投身新中国的经济建设。对于中国工业现代化的发展和社会进步有着举足轻重的作用，为新中国的工业发展奠定了重要基础。

黄美真著的《日伪对华中沦陷区经济的掠夺与统制》，2005年版。这是一部揭露日本帝国主义在侵华战争期间扶植伪政权对华中沦陷区经济进行全面掠夺和统制的著作。该书在深入研究的基础上，以翔实的档案资料，从华中沦陷区的金融业、工矿企业、交通运输业和物资诸方面，分门别类地、深入地揭露日本侵略者的经济侵略罪行及其对华中沦陷区的社会经济和人民生活造成的严重恶果。

林庆元、杨齐福著的《“大东亚共荣圈”源流》，2006年版。本书重点分析了日本战略扩张主义的产生、理论及其破产，并与法西斯主义作了比较。通过决策、制造、发动和鼓吹侵略者之口和笔，本书全面系统剖析其“源”与“流”，是一部着重研究日本侵略思想、政策、理论的专著，是对至今仍为日本对外侵略百般辩护的右翼分子最有效的批驳。通过对日本侵华史料的梳理，阐明日本在近代史上究竟是侵略亚洲还是“解放亚洲”也是本书撰写的重要目的。

崔新京、李坚、张志坤著的《日本法西斯思想探源》，2006年版。该书通过分析日本法西斯思想的古代及近代渊源、日本法西斯思想的基本内容及主要特点，明确指出从古代的神创论、“日本精神”哲学到近代的日本主义、皇国思想，再到“二战”中的日本法西斯思想以及战后的日本思想逆流，其中存在着密切的逻辑关联，具有思想上的连续性和一贯性。当代日本依然存在着滋生法西斯主义的思想土壤，因而防止日本法西斯主义死灰复燃，铲除其赖以滋生的思想土壤，维护世界和平与繁荣依然是包括日本人民在内的世界人民应当坚持不懈的思想任务和历史职责。

孙乃民主编的《中日关系史(一、二、三卷)》，2006年版。中日两国存在着近两千年的政治外交、经济贸易、军事战争、文化教育、技术交流等各方面的关系，本书是迄今为止唯一一部将上述各方面关系结合在一起叙述的专著。该书指出中日两国间在政治、经济、军事和文化各方面存在的关系是在互相联系、互相制约的条件下发生的，从存在于中日两国的整体关系中揭示出每一个事件的内在联系及其规律性，以求对事件的发生发展有一个比较全面的认识。

殷燕军著的《近代日本政治体制》，2006年版。日本近代政治体制直到今天仍然对该国政治产生着深刻的影响，因此对近代日本政治体制的深入研究，成为全面认识今天乃至今后日本资本主义的一个重要条件。本书以现有研究成果特别是日方研究成果和日本政府发布的公开官方史料为基础，采用实证研究的方式，论述近代日本政治体制与其对外扩张政策之间的内在联系，同时也着重对一

些重大历史事件的决策过程进行个案研究,对相关人物及机构做出评估,资料翔实,论述充分。

关捷主编的《近代中日关系丛书之一日本与中国近代历史事件》、《近代中日关系丛书之二日本侵华政策与机构》、《近代中日关系丛书之三日本对华侵略与殖民统治(上下册)》、《近代中日关系丛书之四影响近代中日关系的若干人物》、《近代中日关系丛书之五中国人民奋起抗战》,2006年版。丛书比较全面、系统、具体生动而又力求通俗地介绍了近代中日两国关系,以大量详实的材料揭露近代日本军国主义者发动侵华战争给中日两国人民造成的巨大灾难,日军在侵华战争中对中国人民犯下的累累暴行,同时也客观地反映了近代以来中日两国人民友好往来的历史,尤其是在日本军国主义者发动侵华战争以后,两国人民在极端困难的条件下仍互相支持,共同打击日本军国主义者的动人情景。

周瑞海等著的《中国回族抗日救亡史稿》,2006年版。在日本入侵、国难当头的严重时刻,回族作为中华民族的一员与汉族、其他兄弟民族一道投入抗日救亡洪流。回族抗日是回族在反对外国侵略斗争中规模最大、时间最长、范围最广、形式最多、立场最为坚定、态度最为彻底的一次空前的民族解放战争,因而也是回族历史上最为光荣、最为自豪和最为骄傲的一页。本书即从不同角度、不同层面全方位论述了回族抗日救亡斗争的整个过程,并始终把回族人民的抗日斗争同其宗教信仰以及中华民族的命运紧密联系在一起,内容丰富。

王振德著的《新编第二次世界大战史(1937-1945)》,2006年版。本文试图改变长期以来二战史研究中偏重于欧洲战场和西方大国参与的状况,力争从世界全局阐述战争的完整过程。作者认为第二次世界大战始终是一场反法西斯战争,中国抗日战争作为二战的重要组成部分,作战时间最长,付出了巨大的民族牺牲,为世界反法西斯战争最终取得胜利作出不可磨灭的伟大贡献。

郭贵儒、张同乐、封汉章等人著的《华北伪政权史稿:从“临时政府”到“华北政务委员会”》,2007年版。1937年在北平粉墨登场的“中华民国临时政府”是日本发动全面侵华战争初期在关内扶植建立的最大伪政权,在协助日军巩固殖民统治秩序和扩大侵略等方面曾起过极为恶劣的作用。本书以华北伪政权的兴亡为主线,对其在政治、经济、军事、思想文化等方面的活动进行了比较系统的阐述,勾勒出该伪政权的演变情况,剖析了其汉奸理论的反动性,披露了许多鲜为人知的新材料和事实,进一步揭示了日本殖民统治的欺骗性和暴虐性。

彭敦文著的《国民政府对日政策及其变化:从九一八事变到七七事变》,2007年版。九一八事变至七七事变期间,是近现代中日关系重要的转折时期,由于各种因素的影响,国民政府这一时期的对日政策扑朔迷离,充满着各种矛盾及变化。本书在吸收国内外相关研究成果的基础上,仔细解读各种史料,深入寻求各种变化的历史轨迹和相关联系,依次考察了国民政府面对日本侵华所采取的不抵抗政策、有限抵抗政策、向国联的申诉政策、对日交涉政策及其调整和转变、大国合作制日政策等形成的国内外历史前提和制约因素,以及这些政策实施所包含的基本外交战略思路和实施效果。

徐旭阳著的《湖北国统区和沦陷区社会研究》,2007年版。本书以战时湖北国统区和沦陷区为解剖对象,通过对政权组织、社会经济、文化教育和民众生活等方面的解析还原和透射抗日战争时期中国国统区和沦陷区的社会历史,揭露日本帝国主义的侵略罪恶,歌颂中华民族的伟大斗争精神,是一部以小见大、透视战时社会历史的研究著作。

解学诗著的《满铁与华北经济》,2007年版。本书充分运用日伪密档资料,从1935年满铁进军华北地区作为切入点,采取宏观论证与微观分析相结合的方法,全面揭示日本以掠夺煤、铁、盐、棉四大资源为重点的经济兵站基地化政策。同时以此为基础,深刻剖析农工产业、交通运输和商贸金融所遭受的严重破坏,明确指出经济运行的结构性危机,以及暴力经济的凶狂本性与必然溃败的结局,为日本经济侵华研究的创新力作。

王士花著的《日伪统治时期的华北农村》2008年版。全书分别从政治结构与农村基层权力组织、粮食生产与流通、棉花生产与流通、合作社、经济封锁、文化教育等方面,具体阐述了日伪在华北沦陷区农村的政治、经济、文化教育等方面的统治政策及其计划与实施状况,揭示日本政治上“以华制华”、经济上“以战养战”政策在华北农村的具体表现,分析华北农村经济与农民生活由此发生的变化,重现日本入侵后华北农村居民的生存空间、生活境遇以及社会样态的主要方面。

岳谦厚著的《战时日军对山西社会生态之破坏》,2008年版。本书不仅从表层上描述日本的侵华暴行,而且以“社会生态”为角度,通过大量数据的统计及量化分析,从深层上挖掘战争对于山西生态环境、农业资源、人口资源以及民众身心环境的应时性与历时性破坏作用,使其证据及其分析结果成为无法翻案的历史“铁证”,并在此基础上论述了山西在中国抗日战争中的地位与贡献。

郭铁桩、吴捷主编的《日本殖民统治大连四十年史》,2008年版。该书通过对政治、经济、军事、文化、教育等方面多层次、多角度地系统论述了日本殖民统治大连近40年间所犯下的种种罪恶,同时全面展现处于日本统治下的大连人民在日本发动的各种侵华活动和战争——“满蒙独立运动”、“九一八事变”和“七七事变”——中的反抗斗争及其所发挥的重大作用。

I. 自选课题的中日关系研究

这些自选课题也大多集中在有关日本侵华战争历史的研究,例如日本军国主义、经济掠夺、屠杀事件、细菌化学战等,其时代背景是20世纪90年代以后“历史问题”成为中日关系中的主要障碍与摩擦的根源,因此,无论政府还是民间,均试图通过实证性历史研究,为解决历史问题上的冲突提供资料性根据,也属于知识交流与历史记忆的范畴。

任其恁著的《日本帝国主义对内蒙古的文化侵略活动》,内蒙古大学出版社2006年。该书论述了日本侵华期间通过奴化教育、“善邻协会”的医疗卫生活动、宗教及毒化社会风气等手段对内蒙古进行文化侵略的历史事实。作者着重指出以下几点,即日本帝国主义对内蒙古的文化侵略活动不只是奴化教育,还表现在宗教、医疗卫生、社会风气等各方面;在日本军方的指导下,许多团体和个人积极参与了文化侵略活动;另外,文化侵略活动反映了内蒙古的地区性和民族性等特点,且具有很强的欺骗性与破坏性,完全为其殖民战争和殖民统治服务。

孟国祥著的《大劫难——日本侵华对中国文化的破坏》,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5年。该书将中国在侵华战争中的文化损失分为两类加以论述,一类是公私文物财产上的损失,包括书籍、古建筑、文物等,并探讨了“北京人”头盖骨化石失踪之谜;一类是中国文化教育事业上的损失,包括高校内迁、沦陷区奴化教育、宗教文化事业劫难以及学校等教育机关的实物财产损失等。此外作者还论及了战后文物的接收和追索,以及目前各界对中国文化损害研究的若干问题,指出在文物价值界定、文物损失数量统计、起算时间和地域等方面上的研究还有待于细致与深化。

上海市档案馆编的《日本在华中经济掠夺史料》,上海书店出版社2005年。该书从时间上将1937-1945年间的史料划分为“一二八”事变前后、全面侵华战争后及太平洋战争爆发后三个阶段,史料的类别包括财产损失类、金融货币类、一般物资类、交通通讯机关类及矿物资源类等。该书选编的日军在华中推行经济统治政策史料多数选自馆藏的日本方面及伪上海市政府和国民党上海市政府等机构的档案,其内容全面反映了日军以“以战养战”为目的所采取的种种掠夺手段。

李秉刚著的《万人坑——千万冤魂在呼唤》,中华书局2005年。该书分析了日军侵华时期产生的

各种万人坑，将其分为四种类型：第一种类型是日军在战争中对中国人民进行屠杀后埋葬尸体所产生的万人坑，如旅顺大屠杀万人坑；第二种类型是日本对中国进行经济掠夺时埋葬受虐而死的劳工尸体所产生的万人坑，如抚顺煤矿万人坑；第三种类型是埋葬在战俘营中死亡的中国军民所产生的万人坑，如石家庄集中营万人坑；第四种类型是埋葬在建设大型工程中被虐杀而死的劳工而产生的万人坑，如东宁要塞工程万人坑等。作者指出“在中国北起黑龙江，南到海南岛，凡是日本侵占时间较长的地方，都存在着数量不等的万人坑。就是说，万人坑是与日本侵华相联系的，是当年日本侵略者在中国大地上对中国人民所犯下的一部分罪行的罪证。”

谢忠厚、张瑞智、田苏苏等人主编的《日本侵略华北罪行档案》，河北人民出版社2005年。该书是一套较系统、较全面地记录日本军国主义侵华战争期间在华北地区犯下的种种罪行的系列丛书，由中央档案馆、中国第二历史档案馆和河北省社会科学院共同编著，总共十卷，由综合卷与专题卷组成。综合卷包括第一卷《损失调查》、第二卷《战犯供述》，专题卷为第三至第十卷，分别为《大屠杀》、《无人区》、《细菌战》、《毒气战》、《集中营》、《奴役劳工》、《性暴力》与《文化侵略》等。

齐红深主编的《见证日本侵华殖民教育》，辽海出版社2005年。该书是一部超大规模的证人、证言和实物资料集，立项于“日本侵华殖民教育口述历史研究”等国家级课题，为国家教育科学“九五”、“十五”规划重点项目。为揭露日本侵略者以教育、文化为武器泯灭中华民族感情、摧残中华民族精神，主编者先后组织80多位专家学者参加，历时22年，抢救搜集到1284位日本侵华教育亲历者的回忆录和与之相关的4000余件历史照片、教科书等实物编辑成书。该研究揭露了日本侵华殖民教育的罪行，是一次最大规模的搜集日本侵华罪行的民间活动和实证研究。

张凤鸣、王敬荣主编的《残害劳工》，黑龙江人民出版社2000年。该书主要通过实地调查劳工被强迫劳动的地点并整理幸存劳工的证言来论述日本侵略者掠夺和残害中国劳工的历史事实。该书叙述的被残害劳工主要分三种情况：即第一，被骗征修筑边境军事工程的劳工，包括去修筑东宁、虎头、海拉尔军事要塞及黑河军用公路等地；第二，被强迫采矿的劳工，包括鸡西、鹤岗等大型煤矿；第三，被强征去东北或其他地区的劳工，包括长春、哈尔滨、尚志等地。

邹德明等人与中央档案馆等合编的《华北事变》，中华书局2000年。该书是一部关于华北事变的档案资料选编集。“华北事变，是‘七·七事变’前日本帝国主义为侵吞华北而制造的一系列事件的总称”，包括山海关事件、日军进攻华北、何梅协定等。该档案资料集收录了三方面的资料：一是中国官方档案，主要是国民政府军事、政治部门和审判日本战犯档案；二是日本档案资料，其中包括日本外务省、陆海军省档案胶卷，日本外务省编《日本外交年表与主要文书》所载文件等资料；三是事件当事人、见证人的证词和参与事件的日本战犯供词。

黑龙江省档案馆等机构编纂的《“七三一”部队罪行铁证 关东宪兵队“特殊输送”档案》，黑龙江人民出版社2001年。该书是中国黑龙江省档案馆馆藏六十六件侵华日本关东军宪兵队“特殊输送”日文档案中的五十一件组成。所谓“特殊输送”就是侵华日军各宪兵队、分队、分遣队，对被捕的爱国抗日者直接进行秘密审讯，然后将审讯报告逐级上报关东宪兵队司令部。经批准后，秘密地将其送至“七三一”部队，进行惨无人道的细菌试验直至残暴杀害。该书所收档案一部分为综合性报告、电报及报表，一部分为审讯报告及指令，皆为档案原件电子扫描，分色制版，同时还收录了一些相关新闻报道及学术论文。

刘宝辰、林凤升著的《日本掳役中国战俘劳工调查研究》，河北大学出版社2002年。该书对侵华战争期间日军强掳大批中国战俘劳工至日本并用暴力强迫他们在极端恶劣的生存条件下进行超长时间、超强度的体力劳动进行了详细的研究。将文献资料与工场实地调查取证、劳工口述经历等一

手资料相接合,具体的论述了被强掳到广岛案野发电站工地、大阪驻港码头、日立铜矿、大江山镍矿、七尾码头等地中国劳工的悲惨遭遇及部分劳工拼死抗争事迹。同时也以“花冈事件诉讼案”为例,探讨了幸存下来中国战俘劳工应如何通过诉讼来获得日方赔偿的问题。

孙继武、郑敏等人主编的《日本向中国东北移民的调查与研究》,吉林文史出版社2002年。该书以地方史与学术论文相结合的方式,论述了日本“开拓团”在中国东北地区的侵略史实。作者收集整理东北地区30余个市县的史实,并且大多采用了实地调查的方式,指出“日本侵略我国东北是殖民侵略的一种表现形式”,“日本移民入侵东北,给中国东北带来的是深重的灾难和殖民地化,根本没有什么现代化,”批判了一些错误的研究倾向,强调研究日本移民侵略的历史必须运用科学的方法。

张海泉著的《太阳旗下的毒魔——侵华日军毒气战真相》,中国人民解放军出版社2003年。该书是一部论述侵华战争时期日军进行细菌武器试验及在实战中使用细菌武器经过的论著,作者为一名防化兵,曾作过记者和特约通讯员,因而以史料、事实为基础,大量运用文学创作手法,形象深刻地揭露了日军残酷实施毒气战的暴行以及中国军队将领、士兵和普通百姓在毒气战中受到的伤害。

中央档案馆、中国第二历史档案馆、吉林省社会科学院等机构合作编写的《华北经济掠夺》,中华书局2004年。该书是一部关于日军在华北进行经济掠夺的史料选编集,第一部分和第二部分论述了日军未全面占领华北时对华北进行经济侵略和渗透的状况;第三部分到第七部分从资源掠夺、经济操控等方面叙述日军对华北进行经济掠夺的方式和造成的后果。收录的资料“主要来自中国第二历史档案馆和吉林省社会科学院满铁资料馆所藏的历史档案资料,其中日文资料占相当比重。……尽量使用当时形成的文献和资料,少用或不用战后的资料。”

王宏斌著的《鸦片——日本侵华毒品政策五十年:1895-1945》,河北人民出版社2005年。该书论述了日本侵华期间通过经营毒品来暴敛军费以及毒化中国人健康与思想,首先介绍了毒品的种类与国际禁毒公约,然后分地区剖析了日军对中国台湾、伪满洲国、华北、华中、华南以及蒙疆地区的毒化政策。作者指出日本侵略者在中国占领区推行的毒化政策有两个目的,一是搜刮社会财富,筹集军费,以战养战;二是“利用麻醉品大量毒杀中国人,欲亡其国而灭其种”。同时指出“日本在中国占领区所推行的毒化政策,既是有组织的,也是有计划的,是一种地地道道的国家机关犯罪。”

秦永章著的《日本涉藏史——近代日本与中国西藏》,中国藏学出版社2005年。该书是一部专门探讨19世纪末至20世纪中叶日本与中国西藏之间历史关系的著作,主要依据日本外务省的档案资料、旅藏日本人的各种游记资料、中华民国和原西藏地方政府的档案资料以及部分口碑传承资料而作。作者根据日本与我国西藏之间在不同时期相互接触的特点,将日本近代涉藏史分为三个时期来论述,即明治时期、大正时期以及昭和时期。作者认为从19世纪末开始,日本即已经染指西藏,包括日本僧侣在内的各种人员的活动,因此,“无论从其目的、宗旨、行为来看,无不围绕着日本的国策与对华侵略目标而行事,……活动的实质是一种侵略行为。”作者最后指出,“近代日本和中国西藏的关系,从本质上讲,就是侵略与被侵略、反侵略的关系。”

陈传刚著的《侵华谍枭——土肥原贤二》,世界知识出版社1999年。该书以富有文学色彩的人物传记形式,讲述了日军间谍魁首土肥原贤二自初入中国一直到1948年被处刑为止的间谍生涯。具体分析了土肥原进行的几次主要间谍活动,包括炸死张作霖、策划“满蒙独立”、劫持溥仪、诱降吴佩孚及扶植汪伪政权等。

王俊彦、王意书著的《掠夺的开端——日本侵略中国的甲午战争》,花山文艺出版社1998年。该书是一部以叙事小说形式描写中日甲午战争的作品。该书内容分三个部分,第一部分记叙日本帝国主义是如何蓄谋已久,挑起中日甲午战争;第二部分则顺次描写了中日间四场大战,即黄海之战、金旅之战、鸭绿江之战及山东半岛之战;第三部分记述了中国清政府屈辱签订中日《马关条约》的过程。

梅桑榆著的《日本浪人祸华录》，中共党史出版社2005年。该书通俗易懂地分析了日本浪人在甲午战争、“满蒙独立”、张勋复辟以及“一二八”上海事变等事件中，通过充当日本谍报机关的鹰犬来为日本侵略中国的行动推波助澜。此外，还揭露了日本浪人以“满洲国”为基地，在东北及华北地区进行贩毒和走私等罪恶勾当。

亢稚文、谢春河编著的《日本侵华的铁证——日本记者镜头下的九一八事变》，吉林文史出版社2005年。该书利用1931年日本发动“九·一八”事变前后日本记者拍摄下来的照片所编写而成，绝大部分资料由杨柏林个人提供，以日本方面所作的《满洲——上海事变写真帖》、《满洲事变——上海事变——新满洲国写真大观》两本图集为主。主要包括四部分内容，第一部分是叙述日军制造“九·一八”事变，并进攻黑龙江省；第二部分是日军为巩固侵略“战果”大举进攻辽西；第三部分是关于日军组建的傀儡政权——伪满洲国；第四部分是附录，包括上海事变、天津事件等。

II. 多卷本南京大屠杀史料集

南京大学中华民国史研究中心主任张宪文主编的《南京大屠杀史料集丛书》，江苏人民出版社·凤凰出版社2006年。该从属的材料收集、整理、编辑和出版开始于2000年，至今已出版55卷，字数达到3000余万。由史学专家、翻译等六十余名专业人员组成的团队汇编而成，资料来源于中国大陆、台湾地区、日本、美国、德国、英国等国家和地区。目前出版的资料主要来自三方——加害方日本、被害方中国以及旁观者，都是当事人的第一手原始材料，比如日本官兵、日方军事文件、中国受害者、国民政府的调查材料等。长时期以来，团体的主要成员常常放弃暑假在全国各地和国外收集整理资料，在浩如烟海的档案中寻找所有与南京大屠杀有关的资料，具有一种重要意义上的知识交流与历史记忆。该丛书各卷目录如下：

- 南京大屠杀史料集. 1, 战前的南京与日机的空袭
- 南京大屠杀史料集. 2, 南京保卫战
- 南京大屠杀史料集. 3, 幸存者的日记与回忆
- 南京大屠杀史料集. 4, 美国传教士的日记与书信
- 南京大屠杀史料集. 5, 遇难者的尸体掩埋
- 南京大屠杀史料集. 6, 外国媒体报道与德国使馆报告
- 南京大屠杀史料集. 7, 东京审判
- 南京大屠杀史料集. 8, 日军官兵日记
- 南京大屠杀史料集. 9, 日军官兵日记与书信
- 南京大屠杀史料集. 10, 日军官兵与随军记者回忆
- 南京大屠杀史料集. 11, 日本军方文件
- 南京大屠杀史料集. 12, 英美文书·安全区文书·自治委员会文书
- 南京大屠杀史料集. 13, 拉贝日记
- 南京大屠杀史料集. 14, 魏特琳日记
- 南京大屠杀史料集. 15, 前期人口伤亡和财产损失调查
- 南京大屠杀史料集. 16, 抗战损失调查委员会调查统计. 上
- 南京大屠杀史料集. 17, 抗战损失调查委员会调查统计. 中

南京大屠杀史料集. 18, 抗战损失调查委员会调查统计. 中
 南京大屠杀史料集. 19, 日军罪行调查委员会调查统计. 上
 南京大屠杀史料集. 20, 日军罪行调查委员会调查统计. 中
 南京大屠杀史料集. 21, 日军罪行调查委员会调查统计. 下
 南京大屠杀史料集. 22, 赔偿委员会调查统计
 南京大屠杀史料集. 23, 南京大屠杀案市民呈文
 南京大屠杀史料集. 24, 南京审判
 南京大屠杀史料集. 25, 幸存者调查口述. 上
 南京大屠杀史料集. 26, 幸存者调查口述. 中
 南京大屠杀史料集. 27, 幸存者调查口述. 下
 南京大屠杀史料集. 28, 历史图像
 南京大屠杀史料集. 29, 国际检察局文书·美国报刊报道
 南京大屠杀史料集. 30, 德国使领馆文书
 南京大屠杀史料集. 31, 英国使领馆文书
 南京大屠杀史料集. 32, 日本军方文件与官兵日记
 南京大屠杀史料集. 33, 日军官兵回忆
 南京大屠杀史料集. 34, 日本军国教育·百人斩与驻宁领馆史料
 南京大屠杀史料集. 35, 南京市临时参议会调查(上)
 南京大屠杀史料集. 36, 南京市临时参议会调查(下)
 南京大屠杀史料集. 37, 幸存者调查口述续编(上)
 南京大屠杀史料集. 38, 幸存者调查口述续编(中)
 南京大屠杀史料集. 39, 幸存者调查口述续编(下)
 南京大屠杀史料集. 40, 财产损失统计
 南京大屠杀史料集. 41, 中央机构财产损失调查
 南京大屠杀史料集. 42, 市民财产损失
 南京大屠杀史料集. 43, 市民财产损失
 南京大屠杀史料集. 44, 市民财产损失
 南京大屠杀史料集. 45, 市民财产损失
 南京大屠杀史料集. 46, 市民财产损失
 南京大屠杀史料集. 47, 市民财产损失
 南京大屠杀史料集. 48—55, 遇难同胞名录(I—VIII)

在出版的史料集中, 特别值得提及的是《遇难同胞名录》, 在八册的名录中初步收录了一万三千余名大屠杀遇难者较为详尽的个人信息, 包括姓名、性别、年龄、籍贯、住所、职业、被害时间、被害地点、被害方式、调查人、陈述人等。每位遇难者名单, 均有史料来源或出处。除已出版的55卷史料集外, 尚有约一千万字的史料正在编纂中, 预计第三批将于2009年出版。届时《南京大屠杀史料集》能达八十本、近五千万字。

综上所述, 尽管知识交流能够达到历史文献资源的共享, 并促进研究方法的相互交流及其应用, 但最初的结果是加深了带有负面影响的历史记忆, 有可能激发民族主义的进一步高涨。因此, 历史学者如何在相关的历史研究中客观地、冷静地加以分析, 并引导普通国民避免情绪化意识是一项必要但困难的工作。

최근 10년 중국 학술회의 근대 중일관계사 연구 종합서술

王 新 生 (北京大學校)

〈목 차〉

- I. 中日歷史研究中心文庫
- II. 자주적으로 테마를 선택하는 중일관계 연구
- III. 남경대학살 사료집

이번 회의의 주제는 “동아시아 지식 교류와 역사 기억”인데, 강조해야 할 것은 본래 지식 교류는 양자 혹은 다자 관계에 대해 중요한 촉진 의의를 갖는 활동이지만, 교류 과정에서 양자 혹은 다자 관계 역사 기억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자극하기도 한다. 근 10년 동안 중국 학술회의 근대 중일관계사 연구는 이점을 전형적으로 반영했다. 다시 말해서 지식 교류가 끊임없이 강화됨에 따라, 수많은 연구 성과가 근대 동아시아 관계사에서 일본의 대외침략의 확장이 가져온 잔혹한 일면을 드러내게 되었고, 마침내 양자 혹은 다자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각도에서 출발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최근 10년 중국 학술회의 근대 중일관계사 연구와 관련한 주요 상황, 즉 中日歷史研究中心文庫, 자주적 테마 선정, 南京大學南京大屠殺史中心이 출판한 전문저서 및 사료집에 대해 소개하겠다.

I. 中日歷史研究中心文庫

1995년, 일본정부는 10년을 기한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한 “평화 교류 계획”을 실시하고 일중역사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여, 중국이 협조해 주고 또한 필요한 물질적 원조를 해줄 것을 희망했다. 교류 창구로서, 1997년 중국사회과학원 중일역사연구중심은 정식으로 “중일역사연구과제”를 세우고, 과제 지침의 형식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근대 일본 중국 침략의 역사 및 이와 관련된 중일 역사 문제를 중점 연구하고, 연구중심이 경비를 원조했다. 동시에 중국학자의 근대 중일관계 역사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또 사회 각계에서 근대 중일관계의 역사 사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 상술한 연구 성과 가운데 일부 저작을 선택해서 “中國社會科學院 中日歷史研究中心文庫”란 이름으로 출판하여, 지금까지 이미 40여 책을 출판했다. 그중 교과서 문제, 전후 일본 우익 문제, 국민정부 資源委員會 연구, 근대 일본 정치 체제 등을 논술한 소수의 몇몇 저작을 제외하고, 절대 다수가 전쟁 시기 일본 정부 및 그 군대가 중국 대륙에서 행한 범죄행위를 논술한 것인데, 일종의 전형적인 지식 교류와 역사 기억의 관계이다. 아래에서는

출판 시기에 의거하여 각각 소개하도록 하겠다.

장하이펑(張海鵬), 부핑(步平) 主編, 『日本教科書問題評析』, 2001. 이 책은 일본 교과서 편찬 및 심의 제도의 유래 및 변화 발전 상황을 체계적으로 소개했고, 소위 『교과서문제』의 본질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 事實을 의도적으로 왜곡, 부인한 것이고 일본 정부 문부성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고 묵인했던 것을 논술했다. 동시에 이 책은 대량의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및 그것이 범한 죄행을 상세히 소개하고 논술했다. 예를 들어 남경대학살, 세균전, 중국인 강제노동, 위안부 강탈 등등을 통해,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 사실을 왜곡하고 부인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스구이팡(史桂芳), 『“同文同種”의 騙局－日僞東亞聯盟運動의 興亡』, 2002. 동아연맹론은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 기간에 나타났던 비교적 영향력이 큰 침략 이론의 일종으로, 이 이론의 지도 아래, 왕징웨이(汪精衛) 괴뢰정권이 일찍이 꽤 규모를 갖춘 동아연맹운동을 흥기시켰고, 여기에 기만되어 참여한 민중이 수백만에 달했다. 이 책의 저자는 상세하고 확실한 사료로써 동아연맹론이 형성된 사회 역사 조건과 그 기본 내용 및 동아연맹운동의 흥기, 발전과 패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개했고, 또 이론과 실제의 두 측면에서 깊이 있게 비판했다.

위앤사오잉(袁韶瑩), 양구이전(楊瑰珍), 『從人到鬼 從鬼到人－日本 “歸還者聯絡會” 研究』, 2002. 이차 대전 후 푸순(撫順)과 타이위안(太原) 전범관에 수감된 살인귀－일본 전범은 교육개조를 거쳐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또 깊이 반성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본질과 위해를 청산하여, 평화를 사랑하고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중일 우호 관계를 옹호하며 일본 우익 세력에 투쟁한 평화 호위병이 되었다. 이 책은 자료가 상세하고 확실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中歸聯” 성립 후 44년간의 혹독한 투쟁 역정을 회고하여, 일본 범죄의 “인간에서 마귀로의 변천”, “마귀에서 인간으로의 환원” 과정을 충분히 서술했다.

허징송(何勁松), 『近代東亞佛教－以日本軍國主義侵略戰爭爲線索』, 2002.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와 지역에 따라 논술을 전개하고, 고대 일본 불교와 정치 사이의 관계, 불교가 보유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의 토대를 요령 있게 소개하는 것에서, 메이지 시기 이래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 정책을 힘껏 추진한 이 특수한 역사 배경 아래 일본 불교가 갑오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점차 파시스트주의의 도구와 공범자가 된 과정과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를 당하게 된 조선과 타이완 지구에 침투한 것, 일본 불교의 여러 종파가 중국 동북 지구에 전파된 상황을 논술했다.

리광민(李廣民), 『准戰爭狀態研究』, 2003. 9·18 사변에서 태평양전쟁 발발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비록 여러 차례 중국에서 무장 충돌을 도발했고 특히 루거우차오사변(盧溝橋事變) 이후 전면적 침략전쟁을 일으켰는데, 침략전쟁을 발동한 일본이든 자위항전을 한 중국이든 모두 명확하게 개전의 의향을 표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시종 “사변”에 의해 중일관계를 처리하기를 견지했고 국민당 정부도 1941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대일선전포고를 했다. 이 기간 중일 양국의 관계는 여전히 평상시 국제법에 따라 처리되었고 중일 양국과 제3국의 관계도 주로 일반 국제법에 의거해 조정되었다. 이렇듯 사실상의 전쟁 상태가 존재하면서 교전 쌍방이 모두 그것을 선포하여 법률상의 전쟁 상태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필자는 이를 잠시 “准戰爭狀態”로 정의내리고, 이러한 상황 하의 중, 일,

국제연합 등 각 측의 행동, 그 심층 요소 및 의의에 대해 연구했다.

왕진쥘(王眞著), 『抗日戰爭與中國的國際地位』, 2003. 항일전쟁은 근대 중국 國際地位史에 있어서 하나의 찬란한 좌표인데, 이로부터 근대 중국 국제 지위가 고통의 나락에서 간난골기하기까지의 비장한 역정을 볼 수 있다. 국내외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중화민족이 1930년대에 전개한 중일전쟁은 민족 해방의 여명을 맞이했고, 또한 일본 침략자와 결전한 동방 전장에서 정복될 수 없는 민족의 위력을 과시했다. 중국은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연합국에 힘껏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창건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이 연합국 창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한 역할은 주로 세 가지 면이었다. 1, 결책 참여 역할. 2, 협조 조직 역할. 3, 小國의 대변자 역할. 중국이 연합국을 창건 과정에서 했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란 大國 지위를 강력하게 다져주었다.

부평(步平), 『日本侵華戰爭時期的化學戰』, 2004. 일본 화학전 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중일관계 현실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상, 일본 군대는 일찍이 중국에 화학전을 행했고, 중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현실에서, 일본이 중국에 남겨놓은 화학포탄, 폭탄, 독물 등은 여전히 불시에 중국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저자는 일본의 화학무기 개발에서 논술을 시작하여 일본 군대가 개발한 화학무기의 종류, 육군과학연구소가 진행한 생체실험, 화학무기의 제조 및 그 시스템 등의 문제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일본의 화학전 문제를 논술했다.

리빙강(李秉剛), 자오샤오광(趙曉光), 연전민(閻振民), 『日本侵華時期遼寧萬人坑調查』, 2004. 이 책은 랴오닝(遼寧) 경내의 만인갱에 대한 대형 조사연구 보고집으로, 대량의 일차 자료 계통을 가지고서 일본의 중국침략 시기 랴오닝성의 루순(旅順), 평딩산(平頂山), 신빈(新賓) 등지에서 중국 인민을 학살된 것을 소개하고, 동시에 우순, 번지(本溪), 푸신(阜新), 베이파오(北票), 창링(長嶺), 다스차오(大石橋), 압록강 수이핑(水豊) 수력발전소, 다롄(大連) 진저우(金洲) 룡왕묘(龍王廟), 테링(鐵嶺) 란스산(亂石山) 등에서 광산 채굴, 수력전기 공정과 군사공정 중에 경제를 약탈하고 중국 노동자를 잔혹하게 수탈하고 奴役시켜 수많은 만인갱을 만들어낸 기본 정황이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침략 전쟁 중에 남겨놓은 역사 罪證임을 명료하게 설명해준다.

취즈펀(居之芬), 장젠핑(庄建平), 『日本掠奪華北強制勞工檔案史料集(上, 下)』, 2004. 이 책은 중국 각지 당안관이 새로 발굴한 일본 만주국 노동자 당안을 위주로 하여 일본의 “만철” 자료 및 일본이 전쟁중 화베이(華北) 각지에 주재한 경제정보기관에서 형성한 노동조사통계 관련 자료를 보충하고, “일본의 중국 화베이 약탈과 강제 노동의 시말”을 구조로 편찬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화베이 중국 노동자를 강제로 사로잡은 주요 정책, 결책과 집행기관, 약탈 계획 및 실시 상황 통계, 주요 약탈 수단, 강제 노동과 노동자를 학대한 폭행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폭로했다. 자료가 풍부하고 증거가 확실하여 일본 우익 세력의 망언을 강력히 반박했고 일본 제국주의가 일본을 침략한 죄행도 충분히 폭로했다.

양위린(楊玉林), 신피이린(辛培林), 닌나나리(刁乃莉), 『日本關東憲兵隊 “特別輸送” 追踪』, 2004. 저자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지린성(吉林省) 당안관이 소장한 일본 관동 헌병대 “특별수송” 당안을 실마리로 하여, 일본군 세균전 인체실험 피해 당사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상당히 풍부하고 자세한 실증자료를 얻었고,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세균전,

일체실험 진행했다는 인적 증거, 물적 증거들은 흥분할 만한 새로운 진전을 획득했다. 일본군이 “이차대전” 기간에 731부대를 세우고 세균전을 진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최대한 폭로하고 심도 깊게 비판했다. 일본 및 중국 침략 일본군 세균전 부대가 “특별수송”을 실행한 역사 배경, 실시의 구체적 방법과 과정, 극악한 목적 및 그것이 중국 인민에게 조성한 엄청난 위해를 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관제(關捷), 『旅順大屠殺研究』, 2004. 이 책은 대량의 진귀한 일차 사료에 의거하여, 일본 제국주의자가 중일 갑오전쟁 시기에 조성한 루순 대학살 참안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기술, 평론했고, 세인을 향해 110년전 일본 침략군이 루순커우(旅順口) 지구에서 약 2만 명의 중국 인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정경을 사실적으로 전개했고, 역사와 현실을 결합시킨 각도에서 일본 군국주의자가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하고 루순 대학살을 행한 역사 연원을 제시하여, 당시 일본 국내의 극우 정치 세력이 침략 역사를 부인하고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음모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고 또 중일 관계의 미래의 발전 전장에 대해 심도 깊게 평론했다.

장웨이민(庄維民), 류다커(劉大可), 『日本工商資本與近代山東』, 2005. 일본측 문헌 당안과 각종 조사 자료 및 지방 문헌을 충분히 이용한 토대 위에서, 저자는 1876-1945년 일본 工商 자본이 산둥(山東)에서 활동을 넓혀갔던 역사를 체계적으로 고찰했고, 식민정책 연구와 경제 확장 연구를 함께 결합하여 비교적 완전무결하게 반세기 이상 산둥에서의 일본의 식민 침략과 경제 확장의 역사를 복원했으며, 일본이 軍, 政, 工商 자본의 활동을 넓혀갔던 것과 구역 사회경제 변화간의 착종되고 복잡한 관계의 맥락을 밝혔고, 그리하여 식민정책과 경제 확장이 지구 시장경제, 산업발전과 근대화 진행 과정에서 빚어낸 영향을 드러내고 식민지 정책 실시와 지구 사회경제의 식민화 관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근대 산둥 경제 변화의 특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청산(朱成山), 『侵華日軍南京大屠殺幸存者証言』, 2005. 이 책은 남경대학살을 직접 겪고 살아남은 315명의 증언을 가지고서 편집하여 만든 증언집이다. 전체 6부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 일본 침략군이 남경에서 비무장 일반인에게 6주간의 집단 학살, 분산 학살, 성폭력, 약탈, 방화를 저지르고 南京城을 불태우는 등의 참절한 폭행을 했던 것과 당시 각 자선단체가 피해자의 시체를 매장한 정황에 대한 사료가 충실하다. 상흔이 치렁치렁한 생존자, 피해자, 목격자들이 직접 당한 피해 경력으로써 일본침략자가 저지른 범죄를 피눈물로 고발한 것은 일본 침략군이 남경대학살이란 폭행을 저지른 존재임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본 국내에 여러 정부 관원 및 우익 세력이 역사를 위배하고 잘못을 부인하며 남경대학살을 부정하려는 망상을 꾀하는 비열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반격한다.

다이젠빙(戴建兵), 왕샤오강(王曉崗), 『罪惡的戰爭之債: 抗日時期日僞公債研究』, 2005. 이 책은 충실한 당안 자료와 역사 문물에 의거하여, 전시 일본의 국내 공채 정책, 만주국 괴뢰국의 공채, 화베이 괴뢰정권의 공채, 왕징웨이 괴뢰정권의 공채, 타이완의 공채 및 그 성질과 특징을 논술했다. 일본이 중국 침략 전쟁 기간에 “공채 정책”을 널리 시행하고 중국 함락구에서 대량으로 각종 전쟁 채권을 발행하여 중국 인민에게 경제 약탈을 저질렀던 것을 체계적으로 폭로하고, 일본 군대가 “전쟁으로써 전쟁을 부양”했던 악랄한 목적 및 그것이 중국 인민에게 가져다준 막심한 고난에 대해 분석했다.

부평, 왕시량(王希亮), 『日本右翼問題研究』, 2005. 이 책은 주로 우익사상과 우익운동의 생산, 국가혁신운동과 20세기 초 우익운동의 변화,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어낸 군대 파시스트 우익, 일본의 피점령 시기의 우익세력, 舊金山條約과 우익의 復蘇, 岸信介 내각의 반동 정치와 우익운동의 고양, 신우익의 등장과 “민족파운동”, 70년대 우익의 “쇼와유신운동”, 신보수주의 시대의 우익, 문화교육계 우익 단체의 형성 및 그 활동을 포괄한다. 일본 우익의 함의, 유래, 역사상 영향과 작용, 전전 우익과 전후 우익 및 현대 우익 사이의 연원과 구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이론상으로 연구하고 설명했다.

왕시량, 『前後日本政界戰爭觀研究』, 2005. 일본은 패전 항복을 선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점령 시기 전쟁 책임에 대한 규명과 방기, 일미 안전보장 체제 하의 반동 정치 퇴조, 경제주의 정치 하의 황국사관 압류, 신보수주의의 등장과 전쟁 책임 문제의 침예화, “체제” 붕괴 및 『大東亞戰爭的總結』 출판, 정계 요원의 전쟁 인식과 “국회결의” 풍파, 정치 우경화의 격화, 역사 수정주의 사조의 붕괴와 신세기와의 조화롭지 못한 “소음”을 분석하여,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이 전후 집권정당, 내각, 국회 및 정계 고관의 戰爭觀과 歷史觀에 있음을 논증했다.

스딩(史丁), 『日本關東軍侵華罪惡史』, 2005. 저자는 풍부한 사료를 통해 일본 관동군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전 과정 및 그것이 존재한 40년의 역사를 종향으로 분석하고, 근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관동군이 중국 침략의 선봉이고 만주 괴뢰국의 “太上皇”이며 재부 약탈자이고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정신 노역자임을 논증했다. “關東洲”와 “滿鐵線”에 연원하여, 그 세력이 화베이와 시베이(西北)에까지 이어졌는데, 국민당 군대, 공산당 군대 및 소련 홍군과 대결한 후 결국 멸망했다. 그러나 그 여독은 결코 흩어지지 않았으니, 세균전과 화학적 악과가 여전히 중국 인민을 해치고 있으며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천샤오충(陳小沖), 『日本殖民統治臺灣五十年史』, 2005. 1895년에서 1945년까지, 타이완이 일본 식민지로 된지 50년이 되었는데, 이 책은 일본 통치 시기가 타이완 역사를 횡으로 잘라낸 것을 절입점으로 하고, 이 과정이 타이완 역사 발전 진행과정에 가져다준 영향을 논술했다. 정치면에서 일본의 타이완 식민 통치 기구와 법률 제도 건립, 타이완 인민의 반항 투쟁과 일본 식민자의 진압 활동, 일제 강점기에 타이완과 조국 대륙의 관계 등을 탐구했다. 문화 교육 면에서는 일본 식민자의 황민화 운동이 타이완 사회에 준 충격과 그것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사회 경제 방면에서는 타이완이 결국 일본의 자본 투자 장소, 원료 공급지와 상품 덩핑지가 된 식민지 사회 경제 특성을 탐구했고, 식민당국이 타이완 경제 발전에 한 역할과 그 정책 지도 아래 형성된 기형적 사회 경제 구조를 분석했다.

세중허우(謝忠厚), 텐수수(田蘇蘇), 허텐이(何天義), 『日本侵略華北罪行史稿』, 2005. 이 책의 저자는 학술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당안 문헌과 조사 자료를 운용하여 일본 제국주의가 화베이를 침략한 범죄 행위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논술을 했다. 이 책이 가리키는 “화베이(華北)”는 일본 화베이 방면군, 화베이 괴뢰정권, 몽장(蒙疆) 괴뢰정권이 관할한 구역인데, 이를 일본 침략사와 중일관계사의 전형적 사례로 삼아 고찰하고

역사, 현실과 미래 발전의 각도에서 일본의 화베이 침략 범죄행위의 역사발전을 명백히 논술하며, 그 역사의 특징과 남은 문제를 분석했다.

쑹페이바오(熊沛彪), 『近代日本霸權戰略』, 2005. 근현대 일본의 패권 전략은 외교, 군사, 경제, 사상, 국제관계 등 방면에 관련되는데, 이 책은 풍부한 신자료, 최신 관점과 최신 방법을 가지고 근현대 일본의 대외 확장 전략과 중일전쟁, 東亞 국제체제의 출렁임과 일본의 대외 침략 확장, 9·18 사변과 워싱턴 체제의 동요, 일본 동아신질서 정책, 중일전쟁 초기 일본의 전쟁 목표와 동아전략, 일본의 전략 조정과 우한(武漢)과 광둥(廣東) 회전, “동아신질서”와 일본의 기정전략, 유럽 대전의 폭발과 일본의 전략 대책, 일본의 남진 전략 실시 등의 문제를 탐구했는데, 항전사와 중일관계사 연구의 새로운 성과다.

우광이(吳廣義), 『侵華日軍南京大屠殺日誌』, 2005. 이 책은 가해자측, 중립측과 피해자측의 사진과 글 등등의 일차 자료에 의거하여, 그림과 글로 함께 증명하고 그림이 글을 따라가는 체제를 택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날마다 남경대학살의 하루하루의 실태를 기술했고, 燒殺陰掠 등 폭행을 포괄하여 가장 야만적이고 잔학했던 학살의 전 과정을 제시하여, 남경대학살이 일본이 중국에 대해 테러 학살할 것을 이미 정해두고 실행한다는 배경 아래 발생했던 것이고 일본 침략군이 미리 공모하고 계획하고 조직한 폭행이었음을 증명한다.

후더쿤(胡德坤), 한용리(韓永利), 『中國抗戰與世界反法西斯戰爭』, 2005. 이 책은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전문적으로 탐구했다. 중국 항일전쟁을 세계대전이란 배경 아래 두고서 전략 측면으로부터 중국 항일 전장이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논술을 했다. 중국 항일전장이 계속해서 일본군 주력을 꼼짝 못하게 하여, 곧 일본이 북진하여 소련을 공격하려는 것을 견제하고 또 일본이 남진하여 영미를 공격하려던 것을 늦췄던 것은 세계 전략의 의의를 갖는다. 중국 항일전장은 중대한 희생을 함으로써 협력하고 영미의 “선독일 후일본” 전략 실시를 지원한 것은 소련이 동서 양면으로 작전을 피해 전력으로 독일에 대응하는 것을 힘껏 보증했던 것이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 공헌한 것임과 동시에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견실한 조건과 토대를 창조했다.

관야신(關亞新), 장즈쿤(張志坤), 『日本遺孤調查研究』, 2005. 이 책의 저자는 2년간 동북 삼성과 내몽고 동부 지구의 일본 고아의 상황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3800명의 일본 고아의 당안 자료를 찾아내 열람하고, 중국에 남아 일본으로 귀국하지 못한 백여 명의 일본 고아와 중국인 양부모를 직접 만났으며, 일본 고아가 만들어진 배경, 중국인 양부모에 의해 입양된 과정, 일본으로 돌아가 친부모를 찾고 거처를 정하는 역정에 대해 연구 분석했다. 일본 고아가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일본의 이민 침략 정책의 산물이고 직접 원인은 일본 패전후 형성된 전쟁 재해라고 논증했다.

선위(沈予), 『日本大陸政策史(1868-1945)』, 2005. “대륙정책”은 일본 군국주의의 핵심과 최고 본질의 체현인데, 근대 중일관계의 시작과 끝을 관통한다 할 수 있다. 이 책은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대륙정책, 메이지 초기의 중일 관계, 중일 갑오전쟁, 러일전쟁 등에서 태평양전쟁 발동과 패전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증 분석했고,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일본 대륙정책”의 제정 형성, 변화 발전, 최후 파산의 역사를 논술했다.

쉐이(薛毅), 『國民政府資源委員會研究』, 2005. 資源委員會는 민국시기 국민정부 산하의

공업 건설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기구로, 이 기구는 1932년 남경에서 세워지고 1952년 폐기 될 때까지 후방에서 공업과 광업을 힘껏 발전시키고, 항전 승리 후에는 전국(타이완성 포함)의 근 천 개에 이르는 중형 기업을 통솔하고 30만 이상의 노동자를 관할하여 행정원 직속의 部級 기구가 되었다. 신중국 성립 전야에, 이 회의 주요 책임자는 민족 대의에서 출발하여 대륙의 모든 기업과 그 몇 십 만 노동자가 올바른 길로 향하하여 신중국 경제건설에 투신하도록 지도했다. 중국 공업 근대화의 발전과 사회 진보에 대한 거족경중한 역할은 신중국 공업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

황메이전(黃美貞), 『日僞對華中淪陷區經濟的掠奪與統制』, 2005.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 전쟁 기간에 괴뢰 정권을 양성하여 화중(華中) 함락구 경제에 전면적으로 약탈하고 통제했음을 폭로한 저작이다. 이 책은 연구를 깊이 있게 한다는 토대 위에서, 상세한 당안 자료로써 화중 함락구의 금융업, 공광업 기업, 교통 운수와 물자의 여러 방면으로부터 부문 별로 깊이 있게 일본 침략자의 경제 침략 죄행과 그것이 화중 함락구 사회경제와 인민생활에 조성한 극심한 악과에 대해 폭로했다.

린칭위안(林慶元), 양지푸(楊齊福), 『“大東亞共榮圈” 源流』, 2006. 이 책은 일본의 전략확장주의의 탄생, 이론과 그 파산을 중점 분석했고, 또 파시스트주의와 비교했다. 결핵, 제조, 발동과 고취, 침략자의 말과 글을 통해, 이 책은 그 “源” 과 “流” 를 전면적으로 체계 있게 분석했고, 일본의 침략 사상, 정책, 이론 연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문서적이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일본의 대외침략을 변호하는 우익 분자에 대해 가장 유효하게 비판하고 있는 연구서다. 일본의 중국침략 사료에 대한 가래질을 통해, 일본이 근대사에서 도대체 아시아 침략인지 아니면 “아시아 해방” 인지를 명백히 증명하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이다.

추이신징(崔新京), 리젠(李堅), 장즈쿤(張志坤), 『日本法西斯思想探源』, 2006. 이 책은 일본 파시스트 사상의 고대 및 근대 연원과 일본 파시스트 사상의 기본 내용과 주요 특징의 분석을 통해, 고대의 神創論, “日本精神” 철학에서 근대 日本主義, 皇國思想, 다시 “이차대전” 중 일본 파시스트 사상 및 전후 일본사상 역류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밀접한 논리관계가 사상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녔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해내었다. 당시 일본은 여전히 파시스트주의를 야기하는 사상 토양이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일본 파시스트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이 자라나는 사상 토양을 제거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옹호하는 것은 여전히 일본 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이 응당 견지해야 하는 사상 임무와 역사 책임이다.

쑨나이민(孫乃民) 主編, 『中日關係史(一, 二, 三)』, 2006. 중일 양국에는 근 2천 년의 정치 외교, 경제 무역, 군사 전쟁, 문화 교육, 기술 교류 등 각 방면의 관계가 존재해왔는데, 이 책은 지금까지 상술한 각 방면 관계를 종합하여 함께 서술한 유일한 전문서적이다. 이 책은 중일 양국 사이에 정치, 경제, 군사와 문화 각 방면에 존재한 관계가 상호 연계, 상호 제약의 조건 아래 발생한 것으로 중일 양국의 모든 관계에 존재하는 것에서 매 사건의 내재 관계 및 그 규율성을 드러내어, 사건의 발생과 발전에 비교적 전면적인 인식을 구한다.

인옌쥔(殷燕軍), 『近代日本政治體制』, 2006. 일본 근대 정치 체제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나라 정치에 대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따라서 근대 일본 정치 체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오늘날과 이후 일본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 책은 현존 연구 성과 특히 일본의 연구 성과와 일본 정부가 반포한 공개 관측 사료를 기초로 하고 실증 연구의 방식을 채용하여, 근대 일본 정치 체제와 그 대외 확장 정책 사이의 내재 관계를 논술하고 동시에 여러 중대 역사사건의 결정 과정에 대해 개별 연구도 집중적으로 했고, 관련 인물 및 기구에 평가를 하고, 자료가 충실하며, 논술도 충분하다.

관제 主編, 『近代中日關係叢書之一日本與中國近代歷史事件』, 『近代中日關係叢書之二日本侵華政策與機構』, 『近代中日關係叢書之三日本對華侵略與植民統治(上下冊)』, 『近代中日關係叢書之四影響近代中日關係的若干人物』, 『近代中日關係叢書之五中國人民奮起抗戰』, 2006. 이 총서는 비교적 전면적, 체계적,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또 통속적으로 근대 중일 양국 관계를 소개했다. 수많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서, 근대 일본 군국주의자가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하여 중일 양국 인민에게 조성해준 거대한 재난과 일본군이 중국 침략 전쟁 중에 중국 인민에게 범한 폭행들을 폭로했고, 동시에 근대 이래 중일 양국 인민이 우호 왕래한 역사, 특히 일본 군국주의자가 중국 침략 전쟁을 발동한 이후 양국 인민이 극단적으로 곤란한 상황 아래에서도 여전히 상호 지지하여 공동으로 일본 군국주의자를 타격한 감동적인 정경을 객관적으로 반영했다.

저우루이하이(周瑞海), 『中國回族抗日救亡史稿』, 2006. 일본이 침입하고 국난에 직면한 엄중한 때, 回族은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한족, 기타 형제 민족과 항일 구망의 격류에 뛰어들었다. 회족의 항일은 회족이 외국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중 규모가 가장 크고 시간도 가장 길었으며 범위가 가장 넓고 형식이 가장 많고 입장이 가장 견고하고 태도가 가장 철저했던 미증유의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 따라서 회족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은 다양한 각도, 다양한 측면에서 회족의 항일 구망 투쟁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서술했고 또한 시종 회족 인민의 항일투쟁을 그 종교 신앙 및 중화민족의 운명과 긴밀하게 연결해내었으며 내용이 풍부하다.

왕전더(王振德), 『新編第二次世界大戰史(1937-1945)』, 2006. 이 책은 오랫동안 2차대전 연구가 유럽 전장과 서방 대국이 참여한 상황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고 시도하여 세계 전체 국면에서 전쟁의 전체 과정을 명백히 논증하려 했다.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종 반파시스트 전쟁이었고 중국 항일 전쟁이 이차대전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 되고 작전 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거대한 민족희생을 지불하여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이 결국 승리하는데 지울 수 없는 위대한 공헌을 했다고 보았다.

귀구이루(郭貴儒), 장통러(張同樂), 평한장(封漢章) 등, 『華北偽政權史稿: 從“臨時政府”到“華北政務委員會”』, 2007. 1937년 베이핑(北平) 편헤이(粉黑)에 등장한 “中華民國臨時政府”는 일본이 전면침략전쟁을 발동한 초기에 관내에 육성 건립한 최대 괴뢰 정권으로 일본군을 도와 식민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고 침략을 확대하는 일 등에서 일찍이 매우 악랄한 역할을 했다. 이 책은 화베이 괴뢰정권의 흥망을 주로 하여, 그것의 정치, 경제, 군사, 사상 문화 방면 등 활동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서술했고, 이 괴뢰정권의 변화 상황을 명확하게 그려내서 漢奸 이론의 반동성을 분석했고, 수많은 신자료와 증거를 드러내어 일본 식민 통치의 기만성과 폭력성을 더 잘 보여줬다.

펑둔원(彭敦文), 『國民政府對日政策及其變化: 從九一八事變到七七事變』, 2007. 9·18사변에서 7·7사변에 이르는 기간은 근현대 중일관계에서 중요한 전환 시기인데, 각종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정부의 이 시기 대일정책은 매우 복잡하게 뒤섞여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각종 대립과 변화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국내외 관련 연구 성과를 흡수한 기초 위에서, 각종 사료를 자세하게 해독하고 각종 변화하는 역사 궤적과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국민정부가 일본 침략에 직면하여 채택한 不抵抗政策, 有限抵抗政策, 국제연합을 향한 신고정책, 대일교섭정책 및 그 조정과 변환, 대국과 합작하여 일본을 제어한다는 정책 등이 형성한 국내외 역사 전제와 제약 요소를 고찰했고, 또 이러한 정책 실시가 포함한 기본적인 외교 전략 사고방식과 실시 효과를 고찰했다.

쉬쉬양(徐旭陽), 『湖北國統區和淪陷區社會研究』, 2007. 이 책은 전시 후베이 國統區와 함락구를 해부 대상으로 하여 정권 조직, 사회 경제, 문화 교육과 민중 생활 등 방면의 해석을 통해, 항일 전쟁 시기 중국 국통구와 함락구의 사회 역사를 환원하고 투사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죄악을 폭로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투쟁 정신을 찬양했으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보아낸 전시 사회 역사를 투시한 연구 저작이다.

세쉐스(解學詩), 『滿鐵與華北經濟』, 2007. 이 책은 일본의 비밀 당안 자료를 충분히 운용하여 1935년부터 만철이 화베이 지구로 진군한 것을 점점으로 하고 거시 논증과 미시 분석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일본이 석탄, 철, 소금, 면의 4대 자원을 약탈한 것을 중점으로 한 경제병참기지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이를 기초로 하여 농공 산업, 교통 운수와 상업 무역 금융이 심각하게 파괴당한 것을 깊이 분석하여, 경제 운행의 구조적 위기 및 폭력 경제의 흉악한 본성과 필연적 궤멸이란 결말을 명확하게 지적한, 일본 경제 침략 연구의 참신한 저작이다.

왕스화(王士花), 『日偽統治時期的華北農村』, 2008. 이 책은 정치 구조와 농촌 기층 권력 조직, 곡물 생산과 유통, 면화 생산과 유통, 합작사, 경제 봉쇄, 문화 교육 등의 방면으로 나누어 있다. 화베이 함락구 농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방면에 대한 일본, 만주국의 통치 정책 및 그 계획과 실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의 정치적으로는 “以華制華”, 경제적으로는 “以戰養戰” 정책이 화베이 농촌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제시하고, 화베이 농촌 경제와 농민 생활에 이로 인해 발생한 변화를 분석하고, 일본 침입 후 화베이 농촌 거주민의 생존 공간과 생활환경 및 사회 양태의 주요 방면을 잘 나타냈다.

웨첸허우(岳謙厚), 『戰時日軍對山西社會生態之破壞』, 2008. 이 책은 표층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 폭행을 묘사했을 뿐 아니라 “사회 생태” 각도에서 대량의 데이터 통계 및 계량화 분석을 통해, 심층에서 전쟁의 산시(山西) 생태 환경, 농업 자원, 인구 자원 및 민중 신심 환경에 대한 應時性和 파괴 작용을 찾아내어, 그 증거와 분석 결과가 반복할 수 없는 역사 “확증” 이 되게 하고, 또 이 기초 위에서 중국 항일전쟁 중 산시의 지위와 공헌을 논술했다.

귀테쥡(郭鐵椿), 관제 主編, 『日本植民統治大連四十年史』, 2008. 이 책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등 방면에 대한 다양한 층차,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이 다롄을 근 40년간 식민통치하여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을 체계적으로 논술하고, 동시에 일본의 통치를 당하고 있는 다롄 인민이 일본이 발동한 각종 침략 활동과 전쟁－“滿蒙獨立運動”, “9·18事變”과 “7·7事變”－에서 반항 투쟁한 것과 그것이 발휘한 중대 작용을 전체적으로 전개했다.

II. 자주적으로 테마를 선택하는 중일관계 연구

이러한 자유 테마 선정도 대다수는 일본 침략 전쟁 역사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 군국주의, 경제 약탈, 학살 사건, 세균화학전 등이다. 이 시대 배경은 1990년대 이후 “역사문제”가 중일 관계의 주요 장애와 마찰의 근원이 되었고, 따라서 정부나 민간을 막론하고 모두 실증적 역사 연구를 통해 역사 문제에서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 근거를 제공하려 한 것인데, 이 또한 지식 교류와 역사 기억의 범주에 속한다.

런치이(任其憚), 『日本帝國主義對內蒙古的文化侵略活動』, 內蒙古大學出版社, 2006. 이 책은 일본 침략 기간 노예화 교육, “善隣協會”의 의료 위생 활동 및 사회 풍기에 해독을 끼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내몽고에 문화 침략을 진행한 역사 사실을 논술했다. 저자는 다음의 몇 가지 점, 즉 일본 제국주의의 내몽고에 대한 문화침략 활동은 노예화 교육만 아니라 종교, 의료 위생, 사회 풍기 등 각 방면에서 나타났다는 것과 일본군의 지도 아래 수많은 단체와 개인이 문화 침략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 그 밖에 문화 침략 활동이 내몽고의 지역성과 민족성 등의 특징을 반영하면서 매우 강한 기만성과 파괴성을 지녀, 완전히 식민전쟁과 식민 통치를 위해 봉사한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맹귀상(孟國祥), 『大劫難－日本侵華對中國文化的破壞』,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이 책은 중국의 전쟁 중 문화 손실을 두 종류로 나눠 논술했는데, 하나는 공사 문물 재산상의 손실인데, 서적, 고건축 문물 등을 포함하고 또 “北京人” 두개골 화석 실종의 비밀을 탐구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 문화 교육 사업상의 손실로, 고교의 내지 이전, 함락구 노예화 교육, 종교 문화 사업의 겁난 및 학교 등 교육 기관의 실물 재산 손실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 저자는 계속해서 전후 문물의 접수와 환수 독촉 및 오늘날 각계의 중국 문화 손실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도 논급하여 문물 가치의 확정, 문물 손실 수량 통계, 기산 시간과 지역 방면 등의 연구가 좀 더 정교해지고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上海市檔案館 編, 『日本在華中經濟掠奪史料』, 上海書店出版社, 2005. 이 책은 시간상 1937-1945년간의 사료를 “128” 사변 전후, 전면침략전쟁 후 및 태평양전쟁 폭발이란 세 단계로 나누고, 사료의 분류는 재산 손실, 금융 화폐, 일반 물자, 교통 통신기관 및 광물 자원 등을 포함한다. 이 책이 편찬한, 일본군이 화중에서 시행한 경제 통치 정책 사료의 다수는 일본 측과 상해시 괴뢰 정부와 국민당 상해시정부 등의 기구가 소장한 당안에서 선택한 것인데, 그 내용은 일본군이 “以戰養戰”을 목적으로 채택했던 여러 가지 약탈 수단을 전면적으로 반영한다.

리젠강(李兼剛), 『萬人坑－千萬冤魂在呼喚』, 中華書局, 2005. 이 책은 일본군의 중국 침략 시기에 만든 각종 萬人坑을 분석했는데,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첫째 유형은 일본군이 전쟁중에 중국 軍民을 학살한 후 시체를 매장하여 만든 만인갱으로, 예로 루순대학살 만인갱이 있다. 두번째 유형은 일본이 중국에 경제 약탈을 할 때 매장 학살된 노동자 시체로 만든 만인갱으로, 우순 석탄광 만인갱이 있다. 셋째 유형은 전쟁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한 중국 군민을 매장하여 만든 만인갱으로 스자좡(石家莊) 강제 수용소 만인갱이 있다. 넷째 종류는 대형 건설 중에 학살된 노동자를 묻어 만든 만인갱인데, 둥닝(東寧) 요새 건설

만인갱 등이 있다. 저자는 “중국에서 북쪽의 헤이룽강에서 남쪽의 하이난다오(海南島)까지, 대체로 일본 강점 기간이 길었던 곳에는 모두 만인갱이 존재하는데, 그 수는 제각각이다. 만인갱은 일본의 침략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당시 일본 침략자가 중국 대지에서 중국 인민에게 범한 범죄 행의 증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지적한다.

세중허우(謝忠厚), 장루이즈(張瑞智), 텐수수(田蘇蘇) 등 主編, 『日本侵略華北罪行檔案』, 河北人民出版社, 2005. 이 책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한 기간에 화베이 지구에 범했던 여러 가지 죄행을 기록한 총서 계열로, 中央檔案館, 中國第二歷史檔案館과 華北省社會科學院이 공동으로 편저한 것으로 총10권이다. 종합권과 주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권은 제1권 『損失調查』, 제2권 『戰犯供述』을 포함하고, 주제권은 제3권에서 제10권까지인데, 『大屠殺』, 『無人區』, 『細菌戰』, 『毒氣戰』, 『集中營』, 『奴役勞工』, 『性暴力』과 『文化侵略』 등으로 구별된다.

치홍선(齊紅深) 主編, 『見證日本侵華植民教育』, 寧海出版社, 2005. 이 책은 대규모의 증인, 증언, 실물자료집으로, “日本侵華植民教育口述歷史研究” 등 국가급 과제에 항목으로 입안되어 국가 교육 과학 “九五”, “十五” 계획의 중점 항목이 되었다. 일본 침략자가 교육, 문화를 무기로 삼아 중화민족의 감정을 소멸시키고 중화 정신을 훼손한 것을 폭로하기 위해, 주편자가 차례로 80명 이상의 전문학자가 참가하도록 조직하고, 22년 동안 1284명의 일본의 중국 침략 교육을 직접 겪은 이들의 기억을 찾아 모으고, 4000여 건의 관련 역사 사진과 교과서 등의 실물을 모아서 책을 편성했다. 이 연구는 일본 侵華 식민교육의 범죄 행위를 폭로한 것인데, 일본 侵華 범죄 행위를 수집한 최대 규모의 민간 활동과 실증 연구다.

장평밍(張鳳鳴), 왕징중(王敬榮) 主編, 『殘害勞工』, 黑龍江人民出版社, 2000. 이 책은 주로 징용자가 강제로 노동했던 지점을 현지 조사하고 또 생존자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 일본 침략자가 중국 노동자를 약탈하고 잔인하게 해쳤던 역사 사실을 논술한다. 이 책이 서술하고 있는 강제노동의 피해는 주로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변경 군사 공사 건설에 속아서 강제 징용 노동한 것으로, 둥닝, 후터우(虎頭), 하이랄얼(海拉爾) 군사 요새 및 헤이허(黑河) 군용 공로 등지 건축을 포함한다. 둘째, 광산 노동 강제 징용으로, 기시(鷄西), 허강(鶴崗) 등의 대형 석탄 광산을 포괄한다. 셋째, 동북이나 기타 지구에 강제로 징집된 강제노동으로 창춘(長春), 하얼빈(海爾濱), 상즈(尙志) 등지를 포괄한다.

저우더밍(鄒德明) 등, 中央檔案館 등 編, 『華北事變』, 中華書局, 2000. 이 책은 화베이 사변에 관한 당안 자료 선편집이다. “화베이 사변은 7·7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화베이를 침략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련의 사건들의 총칭”으로, 산하이관(山海關) 사건, 일본군 화베이 진공, 우메츠-하웅흠 협정(何梅協定) 등을 포함한다. 이 당안 자료집은 세 가지 방면의 자료를 수록했다. 하나는 중국관방 당안으로 주로 국민정부의 군사, 정치 부문과 일본 전범 심판 당안이다. 둘째, 일본의 당안 자료로, 이 중에는 일본 외무성, 육해군성 당안 필름과 일본 외무성이 편집한 『日本外務年表與主要文書』에 게재된 문건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셋째, 사건 당사자, 목격자의 증언과 사건에 참여한 일본 전범의 자백이다.

黑龍江省檔案館 등 編纂, 『“七三一”部隊罪行鐵証關東憲兵隊“特殊輸送”檔案』, 黑龍江人民出版社, 2001. 이 책은 중국 黑龍江省檔案館이 소장하고 있는 66건의 侵華 일본 관동군 헌병대 “특수수송” 일본어 당안 중의 51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위 “특수수송”은 곧 일본 침

략군의 각 헌병대, 분대, 분견대가 체포된 애국항일자에게 집적 비밀 심판하고, 그 후 심판 보고를 급에 따라 관동 헌병대 사령부에 보고한 것이다. 비준을 거친 후, 비밀리에 이를 “731” 부대로 보내 잔학무도한 세균실험을 하여 살해했던 것이다. 이 책이 수록하고 있는 당안은 일부분은 종합성 보고, 전보 및 보고서로 나뉘고, 일부분은 심판 보고서 및 지령으로 나뉘는데, 모두 당안 원문이 전자 스캔되어 있고, 분색 제판되어 있으며, 관련된 신문 보도 및 학술논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류바오천(劉寶辰), 정민(鄭敏) 등 主編, 『日本向中國東北移民의調查與研究』, 吉林文史出版社, 2002. 이 책은 지방사와 학술 논문을 서로 결합한 방식으로써, 일본 “開拓團”의 중국 동베이 지구에서의 침략 史實을 논술했다. 저자는 동베이 지구 30여 개 시, 현의 史實을 수집 정리하였고, 또한 현지조사 방식을 채용하여 “일본이 우리나라 동베이를 침략한 것은 식민 침략의 한 표현 형식”이고, “일본 이민이 동베이를 침입하여 중국 동베이에 심중한 재난과 식민지화를 가져다주었는데, 근본적으로 전혀 근대화가 아니었다”고 지적하여, 여러 가지 잘못된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 일본 이민 침략의 역사 연구가 반드시 과학적 방법을 운운해야 함을 강조했다.

장하이취안(張海泉), 『太陽旗下的毒魔—侵華日軍毒氣戰真相』, 中國人民解放軍出版社, 2003. 이 책은 侵華 전쟁 시기 일본군이 세균 무기 실험을 진행한 것과 실제 전쟁에서 세균 무기를 사용한 경과를 논술한 논저다. 저자는 화학병으로서 일찍이 기자와 특약 통신원을 지냈고, 그리하여 사료, 사실을 기초로 하고 문학 창작 방법을 대량으로 운운하여 일본이 잔학하게 독가스전을 실시했던 폭행과 중국 군대 장령, 사병과 민간인이 독가스전에서 입은 상태를 인상 깊게 폭로했다.

中央檔案館, 中國第二歷史檔案館, 吉林省社會科學院 編, 『華北經濟掠奪』, 中華書局, 2004. 이 책은 일본군이 화베이에서 경제 약탈을 했던 것에 관한 사료 선편집으로,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일본군이 아직 화베이를 전면 점령하지 못했던 때 화베이에 경제 침략을 진행하고 침투한 상황을 논술했다. 셋째 부분에서 일곱 째 부분은 자원 약탈, 경제 조종 등 방면에서 일본군이 화베이에서 경제 약탈을 진행한 방식과 빚어진 결과를 서술했다. 수록한 자료는 “주로 중국 第二歷史檔案館과 吉林省社會科學院 滿鐵資料館이 소장한 역사 당안 자료이고, 이 가운데 일본어 자료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 . . 가능한 한 당시 만들어진 문헌과 자료를 사용하고, 전후 자료는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왕홍빈(王宏斌), 『鴉片—日本侵華毒品政策五十年: 1895—1945』, 華北人民出版社, 2005. 이 책은 일본 侵華 기간에 독물 경영을 통해 군비를 가혹하게 징수한 것과 중국인의 건강과 사상을 해쳤던 것을 논술했다. 먼저 독물의 종류와 국제 독물 공약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중국 타이완, 만주국, 화베이, 화중, 화난(華南) 및 명장(蒙疆) 지구에 대해 실시했던 毒化 정책을 지구별로 분석했다. 저자는 일본 침략자가 중국 점령 지구에서 시행한 毒化 정책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회의 재부를 걷어 들이고 군비를 모아서 以戰養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취품을 써서 중국인을 대량 독살한 것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여 그 인종을 멸하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일본이 중국 점령구에서 시행한 독화 정책은 조직일 뿐 아니라 계획적인 것으로 일종의 명실상부한 국가기관 범죄”라는 것을 지적했다.

친용장(秦永章), 『日本涉藏史－近代日本與中國西藏』, 中國藏學出版社, 2005.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엽까지 일본과 중국 시장(西藏) 사이의 역사 관계를 전문적으로 탐구한 저작으로, 주로 일본 외무성의 당안 자료, 시장을 여행한 일본인의 각종 여행기 자료, 중화민국과 原西藏地方政府的 당안 자료 및 일부 구비전승 자료에 의거하여 썼다. 저자는 일본과 중국의 시장이 다양한 시기에 상호 접촉했다는 특징에 근거하여 일본 근대 涉藏史를 3개 시기 즉 메이지 시기, 다이쇼 시기 및 쇼와 시기로 나눠 논술했다. 저자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일본이 이미 시장에 손을 대었던 것과 일본 승려가 포함된 각종 요원의 활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목적, 중지, 행위를 막론하고 보아, 일본의 국책과 대중국 침략 목표들 둘러싸고 행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 . . 활동의 본질은 일종의 침략 행위다.” 저자는 최후에 “근대 일본과 중국 시장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침략과 피침략, 반침략의 관계다.” 라고 지적한다.

천완강(陳傳剛), 『侵華謀梟－土肥原賢二』, 世界知識出版社, 1999. 이 책은 문학적 색채가 짙은 인문 전기 형식으로 일본군 간첩 괴수 도이하라 겐지(土肥原賢二)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부터 1948년에 처형되어 간첩 생애를 마친 때까지를 서술했다. 도이하라가 했던 몇 차례의 주요한 간첩 활동을 분석했는데, 장쑤린(張作林) 폭사, “滿蒙獨立” 획책, 푸이(溥儀) 납치, 우페이푸(吳佩孚) 투항, 왕징웨이 정권 육성 등을 포함한다.

왕진옌(王俊彦), 왕이수(王意書), 『掠奪의開端－日本侵略中國의甲午戰爭』, 花山文藝出版社, 1998. 이 책은 서사소설의 형식으로 중일 갑오전쟁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책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부분은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오랫동안 음모를 꾸며 중일 갑오전쟁을 일으켰는가를 서술했다. 둘째 부분은 중일간의 네 번의 대전 즉 黃海之戰, 金旅之戰, 鴨綠江之戰과 山東半島之戰을 차례로 묘사했다. 셋째 부분은 중국의 청 정부가 중일 『馬關條約』을 굴욕적으로 체결한 과정을 기술했다.

메이쌍위(梅桑榆), 『日本浪人禍華錄』, 中共黨史出版社, 2005. 이 책은 일본 낭인이 갑오전쟁, “만철독립” 장쑤(張勳)복벽 및 “128” 상해 사변 등 사건에서 일본 첩보기관의 앞잡이가 된 것을 통해 일본의 중국 침략을 선동한 것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했다. 이 밖에 일본 낭인이 “만주국” 을 기지로 하여 동베이와 화베이 지구에서 마약을 팔고 밀수를 하는 등의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폭로했다.

강즈원(亢稚文), 세춘허(謝春河) 編, 『日本侵華의鐵証－日本記者鏡頭下的九一八事變』, 吉林文史出版社, 2005. 이 책은 1931년 일본의 “9·18” 사변 발동 전후에 일본 기자가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서 편집하여 쓴 것인데, 자료의 절대적 부분은 양바이린(楊栢林) 개인이 제공한 것인데 일본 측에서 만든 『滿洲－上海事變寫眞帖』, 『滿洲事變－山海事變－新滿洲國寫眞大觀』의 圖集 2권을 위주로 했다. 주로 네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째 부분은 일본군이 “9·18사변” 을 조장하고 또 헤이룽장성을 진공했던 것을 서술한다. 둘째 부분은 일본군이 침략 “戰果” 를 공고히 하기 위해 랴오시(遼西)에 대거 진공한 것이다. 셋째 부분은 일본군이 조직한 괴뢰정권－滿洲國에 관한 것이다. 넷째 부분은 부록으로 上海事變, 天津事件 등을 포함한다.

III. 남경대학살 사료집

장셴원(張憲文, 南京大學 中華民國研究中心 主任) 主編, 『南京大屠殺史料集叢書』, 江蘇人民出版社·鳳凰出版社, 2006. 이 책에 속한 자료의 수집, 정리, 편집과 출판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미 55권이 출판되었고, 글자수는 3000여만 자에 달한다. 사학전문가, 번역 등 60여 명의 전문 요원으로 조직된 단체가 집성하여 만들었는데, 자료는 중국 대륙, 타이완 지구,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국가와 지구에서 구한 것이다. 요즘 출판한 자료의 출처는 주로 세 곳이다. 가해측 일본, 피해측 중국 및 방관자 모두 당사자의 1차 원시자료인데, 예를 들어 일본 관병, 일본 군사 문건, 중국 피해자, 국민정부의 조사 자료 등이다. 오랫동안 단체의 주요 성원은 자주 휴가도 반납하고 전국 각지와 국외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했는데, 하오루옌하이(浩如烟海)의 당안에서 찾아낸 남경대학살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의상의 지식 교류와 역사기억을 갖는다. 이 총서 각 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남경대학살사료집. 1, 戰前的南京與日機的空襲 (전전의 남경과 일본기 공습)
- 남경대학살사료집. 2, 南京保衛戰 (남경 보위전)
- 남경대학살사료집. 3, 幸存者的日記與回憶 (생존자의 일기와 기억)
- 남경대학살사료집. 4, 美國傳教士的日記與書信 (미국 선교사의 일기와 편지)
- 남경대학살사료집. 5, 遇難者的屍體掩埋 (우난자 시체 암매)
- 남경대학살사료집. 6, 外國媒體報道與德國使館報告 (외국 매체 보도와 독일 사령 보도)
- 남경대학살사료집. 7, 東京審判 (토쿄 심판)
- 남경대학살사료집. 8, 日軍官兵日記 (일군 관병 일기)
- 남경대학살사료집. 9, 日軍官兵日記與書信 (일군 관병 일기와 편지)
- 남경대학살사료집. 10, 日軍官兵與隨軍記者回憶 (일군 관병과 종군 기자 기억)
- 남경대학살사료집. 11, 日本軍方文件 (일본측 문건)
- 남경대학살사료집. 12, 英文文書·安全區文書·自治委員會文書
(영미 문서·안전구 문서·자치위원회 문서)
- 남경대학살사료집. 13, 拉貝日記 (라베이 일기)
- 남경대학살사료집. 14, 魏特琳日記 (웨이터린 일기)
- 남경대학살사료집. 15, 前期人口傷亡和財產損失調查 (전기 인구 사망과 재산 손실 조사)
- 남경대학살사료집. 16, 抗戰損失調查委員會調查統計 上 (항전손실조사위원회조사통계. 上)
- 남경대학살사료집. 17, 抗戰損失調查委員會調查統計 中 (항전 손실조사위원회조사통계. 中)
- 남경대학살사료집. 18, 抗戰損失調查委員會調查統計 中 (항전 손실조사위원회조사통계. 中)
- 남경대학살사료집. 19, 日軍罪行調查委員會調查統計 上 (일군죄행조사위원회조사통계. 上)
- 남경대학살사료집. 20, 日軍罪行調查委員會調查統計 中 (일군죄행조사위원회조사통계. 中)
- 남경대학살사료집. 21, 日軍罪行調查委員會調查統計 下 (일군죄행조사위원회조사통계. 下)
- 남경대학살사료집. 22, 賠償委員會調查統計 (배상위원회조사통계)
- 남경대학살사료집. 23, 南京大屠殺案市民呈文 (남경대학살안 시민 정문)

- 남경대학살사료집. 24, 南京審判 (남경심판)
 남경대학살사료집. 25, 幸存者調查口述 上 (생존자 조사 구술. 상)
 남경대학살사료집. 26, 幸存者調查口述 中 (생존자 조사 구술. 중)
 남경대학살사료집. 27, 幸存者調查口述 下 (생존자 조사 구술. 하)
 남경대학살사료집. 28, 歷史圖像 (역사도상)
 남경대학살사료집. 29, 國際檢察局文書・美國報刊報道 (국제검찰국 문서·미국 신문 보도)
 남경대학살사료집. 30, 德國使領館文書 (독일사령관 문서)
 남경대학살사료집. 31, 英國使領館文書 (영국 사령관 문서)
 남경대학살사료집. 32, 日本軍方文件與官兵日記 (일본군측 문건과 관병 일기)
 남경대학살사료집. 33, 日軍官兵回憶 (일본 관병 기억)
 남경대학살사료집. 34, 日本軍國教育・白人斬與駐寧領館史料
 (일본 군국 교육·백인참과 주닝영관 사료)
 남경대학살사료집. 35, 南京市臨時參議會調查(上) (남경시 임시참의회 조사(상))
 남경대학살사료집. 36, 南京市臨時參議會調查(下) (남경시 임시참의회 조사(하))
 남경대학살사료집. 37, 幸存者調查口述續編(上) (생존자 조사 구술 속편(상))
 남경대학살사료집. 38, 幸存者調查口述續編(中) (생존자 조사 구술 속편(중))
 남경대학살사료집. 39, 幸存者調查口述續編(下) (생존자 조사 구술 속편(하))
 남경대학살사료집. 40, 財產損失統計 (재산 손실 통계)
 남경대학살사료집. 41, 中央機構財產損失調查 (중앙기구 재산 손실 조사)
 남경대학살사료집. 42, 市民財產損失 (시민 재산 손실)
 남경대학살사료집. 43, 市民財產損失 (시민 재산 손실)
 남경대학살사료집. 44, 市民財產損失 (시민 재산 손실)
 남경대학살사료집. 45, 市民財產損失 (시민 재산 손실)
 남경대학살사료집. 46, 市民財產損失 (시민 재산 손실)
 남경대학살사료집. 47, 市民財產損失 (시민 재산 손실)
 남경대학살사료집. 48-55, 遇難同胞名錄(I-VIII) (조난 동포 명록(I-VIII))

출판된 사료집 가운데 가장 언급할 만한 것은 『遇難同胞名錄』인데, 전 8책 명록 중에 1만 3천 여 대학살 조난자의 비교적 상세한 개인 정보가 초보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성명, 성별, 연령, 본적, 주소, 직업, 피해 시기, 피해 지점, 피해 방식, 조사인, 진술인 등이 포함된다. 매 조난자의 명단은 모두 사료 근원이나 출처가 있다. 이미 출판된 55권의 사료집 외, 약 일천만 자의 사료가 편찬 중이고, 2009년에 세 번째 목록이 출판될 예정이다. 『南京大屠殺史料集』은 80권, 근 5천만 자에 달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자면, 지식 교류가 충분히 역사 문헌 자원을 함께 누리는 데도 달할 수 있고 또 역구 방법의 상호 교류와 그 응용을 촉진한다 할지라도, 단 최초의 결과는 부정적 영향을 지닌 역사 기억을 심화시켰고 민족주의를 한층 더 격발시키기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학자가 어떻게 관련 역사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할 것인가와 일반 국민이 감정적 의식을 피하도록 이끄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다.

【Abstract】

Study Summary of the History on Modern China-Japan Relations in China Academia for last Ten Years

WANG Xinsheng

The theme of this conference is *Knowledge Exchange and History Memory in East Asia*, and it'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knowledge exchange is originally a kind of significant movement for promote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but it would also stimulate the history memory negatively influencing the relations in the exchange process. The study of the history on modern China-Japan relations in China academia typically reflects above point. In other words, with the strengthen of knowledge exchange, more and more researches revealed the cruel part of Japan's invasion and expansion in modern history of East Asian regional relations, which resulted in effecting the normal developmen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relations. From above perspective this essay would, in three aspects, introduce the main status of studies on the history of modern China-Japan relations in China academia for last ten years. That is monograph and collection of historical materials published by Library of China-Japan Research Center, self-selection, and the Institute of Nanking Massacre History in Nanking University.

In 1995, for implementing the Peace Exchange Program of ten years' duration, which took the Asian neighbour as main objects, Japan government decided to set up Japan-China History Research Center, expecting assistance of China, and offered necessary supports. As exchange window in 1997, China-Japan Research Center of CASS(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officially set up *China-Japan History Study Subject*, which invited domestic researchers by public bidding. With subject-oriented form, their studies would focus on the history of Japan's modern invaded war against China and correlative issues, and the Center would offer funding supports. Meantime for reflecting Chinese scholars' study on the history of modern China-Japan relations and making the social communities understand the historical facts, the Center selected some productions of above scholars' and published over 40 volumes in the name of CASS Library of China-Japan Research Center. Thereinto most of them discuss the war criminals of Japanese government and troops during the Anti-Japanese War, which represent the typical relations between knowledge exchange and history memory. And a few volumes are on the textbook issue, postwar Japan right-wing issue, ROC Government Resource Council studies and modern Japan political system, etc.

Taking *the Chemical Warfare during the Japan's Invading War against China*, published in 2004 by Lu Ping, as example, the author indicates the Japan's chemical warfare problem is not only a history issue, but also a practical issue influencing China-Japan relations. In the past history Japan troops carried out chemical warfare and caused great damages on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Chinese people. In reality, the remains of chemical cannonballs, bombs, poisons, etc., of Japan troops still do harms to

the Chinese people's life and property from time to time. The author begins from the developing history of Japan's chemical weapons, and then analyses the categories of chemical weapons developed by Japan troops, the physiological experiment of the Army Science Institute, the manufacture and system of chemical weapons and other issues, systematically discusses the Japan's chemical warfare issue.

The Investigation of Mass Graves in Liaoni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China(2004), by Li Binggang, Zhao Xiaoguang and Yan Zhenmin, is a large-scale research reports' collection focusing on the mass graves in Liaoning province. With a large number of first-hand materials, this book systematically introduces a series of bloody massacres to the Chinese people in Lvshun, Pingdingshan, Xinbin and other places in Liaoning provinc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China, exposes Japan's extreme economic plunder, exploiting and enslaving Chinese labors by mining, constructing hydropower stations and military projects in Fushun, Benxi, Fuxin, Beipiao, Changling, Dashiqiao, Yalujiang, Dalian, Tieling, etc. And by all above this book illustrates the historical criminal evidences of Japanese Imperialism during the invasion against China.

Archives and Historical Materials Collection on Japan's Plunder of Forced Labor in Northern China(Vol.1&2, 2004), by Ju Zhifen and Zhuang Jianping. This book mainly focuses on the new found archives on Japan puppet government's labors, supplemented by Japan's Manchuria Railway files and correlative investigation information statistics by Japan's various economic agencies in China during the war, which taking the *the whole incident of Japan's plunder of forced labors in Northern China* as framework, systematically and roundly exposes the major policies,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bodies, plunder plans and statistics, major means of looting, the violence against forced labors and etc., of Japanese imperialists' plunder of Chinese labor. Its detailed and accurate materials, evidences and files effectively refute the lies of Japan's right-wing, but also exposes the the invasion crimes of Japanese imperialism.

The track of Japan Kanto Military Police's Special Delivery(2004), by Yang Yulin, Xin Peilin and Diao Naili. The authors, taking the archives on Japan Kanto military police in Heilongjiang and Jilin provinces as clues, carry out field survey to the relatives of the victims of Japanese troops' germ warfare experiments, get abundant detailed and accurate data, making a number of excited breakthrough on witness and material evidence aspects of Japan's germ warfare experiments during the invasion war against China. The book is a great exposure and profound criticism to the 731 germ troop and their crimes of germ warfare in World War Two, which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on the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concrete measures and process, its evil purpose and the serious harm to Chinese people of Japanese germ troop's Special Delivery.

Study on Lvshun Massacre(2004), by Guan Jie. This book, based on a large number of valuable first-hand historical materials, roundly and systematically records and reviews the Lvshun Massacre(Port Arthur Massacre) executed by Japanese Imperialists in first Sino-Japan war, and exhibits to the whole world the bloody scenes in Lvshunkou 110 years ago, in which over 20000 innocent Chinese civilians were butchered by Japanese troops. From history and reality perspective, the author profoundly reveals the historical origins of invasion war against China and the Lvshun Massacre made by the Japanese

militarists, and effectively deprecates Japanese right-wing political forces' conspiracy of denying the history of aggression and reviving militarism, and also comments on the future development prospects of China-Japan's relations.

Japanese Industrial and Commercial Capital and Modern Shandong(2005), by Zhuang Weimin and Liu Dake. Basing on full use of document, archives, various of investigations and local literatures, the author systematically studies the expansion history of Japanese industrial and commercial capital in Shandong between 1876 and 1945, and with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 between Japanese colonial policy and economic expansion, the economic expansion and regional socio-economy, this book combines the researches of colonial policy and the studies on economic expansion, recovers Japan's colonial invasion and economic expansion history in Shandong for over half a century, clarifies the complicated relations between Japanese military, politics, industrial&commercial capital's expansion and the evolvement of regional socio-economy, thereby reveals the influences of colonial policy and economic expansion to the regional market economy,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theoretic explan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colonial policy and colonization of regional socio-economy would be better to understand the evolution characteristics of modern Shansong's economy.

The studies of self-selection on China-Japan's relations mostly focus on the history of Japanese invasion war against China, for example, Japanese militarism, economic plunder, massacre incident, germ and chemical warfare, etc. The background is that since the 1990s the so-called History Problem became the major obstacle and the root causes of friction of China-Japan relations, therefore whether the government or the civilian are trying to provide data basis to solve the conflicts in History Problem by empirical history research, and that are also in the field of knowledge exchange and history memory.

For example, *Japanese Imperialists' Cultural Aggression against Inner Mongolia*(Inner Mongolian University press, 2006), by Ren Qiyi. This research discusses the historical facts of Japan's cultural aggression to Inner Mongolia during the invasion war against China, whose measures included enslaving education, medical treatment activities of Association of Neighbour, religions and poisoning the social ethos, etc. The author stresses the following points, that is, the Japanese imperialists' cultural aggression to Inner Mongolia not only included the enslaving education, but also the religions, medical treatment and health, social ethos and other aspects. Under the guidance of Japanese military, a number of groups and individual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ultural aggression. In addition, the cultural aggression reflected region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of Inner Mongolia, and appeared highly deceptive and destructive, therefore, entirely served for its colonial war and rules.

Great Catastrophe: Japanese invasion's destruction to Chinese Culture(2005), by Meng Guoxiang, published by Chinese social science press. This book divides the China's cultural loss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war into two categories as follows: one is the losses of public and private cultural property, including books, ancient architecture, cultural relics, and so on, and the author explores the the mystery of Peking Man fossil skull's missing; the other is the losses of culture and educations, including migr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enslaving education in occupied areas, religious and cultural

catastrophe and their property loss, etc. Moreover, the author also discusses the cultural relic's inception and seeking in post-war time, as well as current problems consisting in the cultural losses' studies in China, and indicates that the research on appraisal of cultural relic's value, the statistics of number, starting time and areas and other aspects, need to be detailed and deepen.

Historical Materials of Japanese Economic Plunder in Central China(2005), edited by Shanghai archives, published by Shanghai Bookstore Publishing House. According to time this book divide the historical materials of 1937-1945 into three stages, that is, around January 28th Incident, post the break of entirely invasion war against China and post the break of Pacific war. The categories of historical materials includes property losses, finance and currency, general goods, transport and communication, mineral resources, and others. Most materials in the book are selected from archives of Japan and the puppet government and Kuomintang government of Shanghai, which entirely reflects Japanese troops' various means of plunder whose purpose was to support the war by war.

Mass Graves: Tens of Millions of Innocent souls call(2005), by Li Binggang, published by Zhonghua Book Company. This research analyses various mass graves made by Japanese invasion troops, dividing them into four types, that is, the first type was produced by Japanese troops' massacres against Chinese military and civilians, such as Lvshun Massacre mass graves; the second one was made of the forced labors' bodies who died from the abuse during Japanese economic plunder against China, such as Fushun coal mine mass graves; the third type was made of Chinese captives who died in Japanese troops' prisons, such as the mass graves of Shijiazhuang concentration camp; the fourth type war to buried the killed forced labour who participated in the large-scale constructions, such as mass graves of Dongning fortress construction. The author stressed that "in China, from Heilongjiang in the north to Hainan in the south, all the place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there are a number of mass graves. In other words, mass graves is linked to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China, and it's part of the evidences of Japanese aggressors' crimes committed to the Chinese people."

Archives of Japanese Invasion Crimes in Northern China(2005), edited by Xie Zhonghou, Zhang Ruizhi and Tian Susu, published by the People's press of Hebei. This studies are a series of books that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record various crimes committed by Japanese militarists' invasion in Northern China, and co-edited by Central Archives, Second Chinese Historical Archives and Academy of Social Sciences of Hebei Province, including ten volumes, consist of comprehensive volumes and topic volumes. The former volumes including Vol. One, *Investigation of Losses*, Vol. Two, *War Criminals' Statements*, and the topic volumes consist of eight volumes, that is, *the Massacres*, *No Man's Areas*, *Germ Warfare*, *Gas Warfare*, *Concentration Camps*, *Slaved labour*, *Sexual Violence* and *Cultural Aggression*.

Historical Materials Series of Nanking Massacre(2006), edited by Zhang Xianwen, the chief of Centre of POC History Study in Nanking University, published by the People's Publishing House of Jiangsu Province&Phoenix Press. This series of books began at 2000, and till now have published 55 volumes, over 30000000 Chinese characters. The edition group consists of more than 60 professional historians and translators, and the materials and date come from Mainland China, Taiwan,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Britain and other countries and regions. At present the published materials are mainly from three parts, that is, Japan the persecutor side, China the victim side and spectator side, most of which are first hand, such as Japanese soldiers, Japanese military documents, the Chinese victims, ROC's investigation and other materials. For a long time, the key members of the group gave up summer vacation and collected the vast domestic and abroad archives to find all the information related to Nanking Massacre, and that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on the knowledge exchange and history memory.

In all the published historical materials, it should be particularly mentioned the *Victims List of Compatriots*, including eight volumes. This collection primarily embody more than 13000 Massacre's victim, including their detailed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sex, age, origin, residence, occupation, murdered time, place and way, investigator, statements and so on. Each list of the victims have the source of the materials. In addition to the 55 published volumes, about ten million words are under compilation, and the third part is expected to be published in 2009, when the *Historical Materials Series of Nanking Massacre* would consist of 80 volumes, nearly 50000000 Chinese characters.

To sum up, the knowledge exchange would promote the share of historical literature resources and the mutual exchange of research methods and its application, but the initial results is to deepen the negative historical memory, and may also stimulate the further rising of nationalism. Therefore, it is a necessary but difficult task for historical scholars to how to make objective and dispassionate analysis in related history studies, and to guide the common civilians to avoid emotional consciousness.

‘동아시아사’ 교육을 위한 성찰

■ 金正仁 (春川教大學校) ■

‘동아시아사’ 교육을 위한 성찰

金正仁 (春川敎大學校)

〈목 차〉

- I.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탄생
- II. 문명화 논리에 입각한 역사 인식 : 화이의식과 오리엔탈리즘
 - 1. 세계 인식 : 중국 중심에서 서구 중심으로
 - 2. 중국 인식 : 문명의 화(華)와 미개한 오랑캐(夷)
 - 3. 일본 : 왜? 왜구? 일본? 배은망덕한 존재
 - 4. 근현대 동아시아 : 원인 없이 현상만 그리다
- III. ‘동아시아사’의 출발 : 선린을 지향하며

I.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탄생

한국의 고등학생은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배우게 된다.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채택된 과정에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동했다. ‘동아시아사’는 교육과정 개정을 논의하는 초기에 잠시 관심을 끌다가 사라졌으나, 급작스럽게 막차를 타고 선택과목의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역사교육계에서조차도 동아시아사에 대해 아직 호/불호가 확연히 나뉜다.

게다가 역사학계에서도 눈길이 곱지 않다. 한국사학계에서는 동아시아사가 결국 친일·친중 노선을 취할 것이라 우려하고 서양사학계에서는 세계사 외에 동양사 과목이 하나 더 있다고 그 편중을 비판한다. 동양사학계에서는 한국에서 동아시아사가 학문적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지리, 일반사회를 포함한 사회과교육계는 물론이요, 역사교육계와 역사학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동아시아사, 하지만 학교 현장의 관심은 예상 외로 높다. 신생 교과목이라 1순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기엔 아직 망설이지만, 2순위로는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가 있다. 교사연수와 교수-학습 개발, 그리고 풍부한 자료 제공이 전제된다면, 최소한 ‘선방’은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여기서 일단, 동아시아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를 되짚어 보자. 우선,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사 연구가 아직 미진한 가운데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으니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연구 없는 교육.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선례가 있다. 독립운동사 교육이 그렇다. 해방 후 대부분 역사학자가 월북·납북 등으로 남한 역사학계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친일 성향의 학자들이 차지하면서 독립운동사를 비롯한 당대사 연구는 금기시되었다.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가리기 위해 제자들에게 강조했다. ‘당대사는 역사가 아니라고.’ 그 족쇄를 풀 것이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었다. 근현대사 연구는 그 뒤 봇물 터

지듯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교육계의 사정은 달랐다. 연구를 금기시할 수는 있어도, 신생 독립 국가 역사 교육에서 독립운동을 가르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요사이 논란이 되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입각한 우파 편향·반공주의적인 독립운동사가 급조되었고, 지금까지 별 변동없이 그 체제대로 교육되고 있다. 해방 직후부터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했던 이병도가 쓴 교과서(『국사교본』)에는 독립운동을 ‘민족의 반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항이 아니고 반항으로, 우리에게 독립운동사 교육이 연구를 선도한 경험이 있다면, 일본은 동양사 교육이 연구를 선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세기 정한론 등이 등장하고 대만을 정벌하면서 대륙침략을 도모했던 일본은 ‘적’을 아는 것(연구)도 중요했지만, 침략에 대비해 전사의 양성도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동아시아사 역시 일본의 동양사처럼 매우 정치적인 교과목이다. 독립운동사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측면이 크다. 강국인 일본, 중국과 역사 전쟁·‘영토 분쟁’을 치루고 있고 예비해야 하는 처지에서 1회성 항의로는 늘 허둥댈 수밖에 없다. 적대감·증오심만을 키울 수도 없다. 약자인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이 도덕적 정당성을 선점하는 방식의 준비도 필요하다. ‘적’을 향해 善隣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방법이 없다. 분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평화를 화두로 동아시아의 ‘유대’를 선도하는 수밖에. 한일, 한중일 공동 역사 교재의 경험은 이 정치적 과목의 채택에 일조했다.

그런데, 동아시아사는 정말 우리 역사교육계에서 처음 등장하는 ‘신’ 과목인가. 완벽하게 똑같은지는 않지만, 우리 역사교육에도 동아시아사 교육의 ‘단초’가 있었다. 『이웃나라의 생활: 역사』는 해방 직후 사용된 중학교 1학년 동양사 내용명이자 교과서명이다. 이 과목의 성격은 이렇다. ‘시각 면에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이는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중시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웃나라 역사와 문화가 우리와 가깝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였으므로 이웃을 잘 알아야 친선도모와 세계 문화 창조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웃을 주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내용적으로 ‘이웃나라 역사’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실을 중시하고 국사와 세계사의 상호 관련성에 주목했고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사실은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다. 중국사를 상대화하여 구성체제 면에서 보면 중국사의 비중 자체가 극히 적고 대신 주변 소국 및 그것과 중국과의 관계가 중시되었다. 일본과 베트남의 역사도 중시되었다. 이렇게 ‘이웃나라 역사’는 오늘날 동아시아사가 추구하는 교육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교과서를 넘기노라면 지금 동아시아사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자못 안심을 하게 된다.

이처럼, 동아시아사가 현실적 필요에서 등장한 과목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그와 같은 선례가 있었다. 그리고 ‘이웃나라의 역사’에서 동아시아사 교육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II. 문명화 논리에 입각한 역사 인식 : 화이의식과 오리엔탈리즘

우리 역사교육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타는 쇼비니즘적이라는 것이다. 늘 역사

학은 민족주의의 아성이요, 역사교육은 민족주의의 재생산을 선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이 ‘민족주의 비판’도 지나치게 남용되어 관용어구가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다민족·다종족 관련 문제를 논할 때도, 민족주의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대중은 약간 혼란스럽다. 민족주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도 ‘Be the Reds’ 옷을 입고 열광하는 논객들을 보며 헛갈려한다.

역사교육의 기본 도구는 교과서다. 혹자들은 교과서 분석을 통해 ‘우리’ 혹은 ‘민족’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가를 세면서 민족주의의 과잉을 비판한다. 여기서는 이런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도대체 한국사 관련 교과서에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던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하는 관심에서 더 나아가 ‘이 옷’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를 살펴 다시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이다. 국정인 고등학교 『국사』를 집중 분석했고, 검인정인 『한국근·현대사』는 필요할 경우 함께 분석했다.

1. 세계 인식 : 중국 중심에서 서구 중심으로

국사 교과서 III단원 통치구조와 정치활동의 각 장의 서두에는 해당 시기의 세계사 변화가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고대의 세계’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을 이룬 중국이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서두를 시작한다. 서양사를 포함해 세계사를 개관하면서 중국사부터 시작하고 있다.

주나라가 쇠퇴하고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이 통일국가를 수립하였다. 한은 영토 확장하고 서역과 교역하며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여 유교주의적 중국 문화 기틀을 확립하였다. 5호 16국시대·남북조 시대에는 양쯔강 이남 지방 개발 본격화되고 문벌 귀족이 사회지배세력화되었다.

주나라부터 시작하여 춘추전국시대, 한, 5호16국 시대, 수, 당 등이 나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중세의 세계’ 역시 5대 10국, 송, ‘원’ 등 중국사부터 서술하고 있다. ‘근세의 세계’도 명과 청의 역사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근대의 세계’부터 갑자기 표변한다. “16세기 이후 유럽은” 이렇게 서양사부터 시작하고 있다. 아시아, 동양이라는 용어가 새로이 등장하면서 ‘동양사’ 관련 부분은 이렇게 시작된다.

서양의 근대화는 상대적으로 동양 사회에 위협을 주었다.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자 국력을 증강시킨 서양의 열강은 후진 지역으로 진출을 꾀하였다. 이에 비하여 그동안 번영을 자랑하던 청을 비롯한 아시아의 전통 왕조들은 내부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점차 쇠약해져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서양 열강의 아시아 침략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위협으로서 아시아 대부분 지역을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만들어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중국 중심의 전근대 세계사 인식이 근대로 오게 되면 급작스럽게 서구 중심으로 바뀐다. 서구 중심주의가 고스란히 재현된 ‘근대의 세계’ 말미는 더욱 비극적이다. 서구화는 곧 근대화지만, 성공한 일본을 제외한 ‘동양’의 근대화는 문제가 있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하면서도 근대적 제도의 도입과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그것은 진정한 근대화의 길이 아니라 식민지 체제로의 편입 과정이었기 때문에 동양의 근대화는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근·현대의 세계’에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이외에는 중국은 물론 동양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다. 『한국근·현대사』의 세계사 관련 개관 역시 19세기는 서구 산업혁명부터, 20세기 전반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 처리부터, 20세기 후반은 미소 대립과 냉전 체제 형성부터 설명이 시작된다. 이웃나라의 역사로부터 출발했던 세계 인식이 근대에는 먼 나라, 서구 제국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동양’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규정된다. 근·현대에서는 서구적 안목의 세계 체제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한다. 전근대에는 중국이 중화이고, 근대는 서구가 중화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요, 지금의 세계 인식이요, 그것이 고스란히 역사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주체적인 세계 인식도 아니고, 일관된 세계 인식도 아니고,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강자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아시아와 함께 중국이 다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세계 인식은 또 어떻게 변하고 역사 교육에 반영될까. 분명한 건 역사 교육을 관통하는 세계 인식이 구태의연하다는 사실이다.

2. 중국 인식 : 문명의 화(華)와 미개한 오랑캐(夷)

중국은 20세기에 등장한 나라 이름이다. 그 전엔 중국이란 나라는 없었다. 진, 한...명, 청이 현재 중국 지역에 존립했던 나라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침없이 고대사를 쓸 때부터 중국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모든 나라가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다고 쓴다. ‘백제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통일신라의 체제 변화는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전제 국가로 발전한 것’, 고려 ‘태조는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되물어보자. 어느 중국인가?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고구려가 700여년 존속하는 동안 중국 지역에서는 30여개 나라가 흥망을 달리했다. 도대체 어느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중국은 공간적으로 현재 중국 지역을 차지하던 나라들을 부르는 대명사다. ‘중세의 세계’는 “10세기 초 중국에서는 당이 망하고”라고 시작된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25사’를 하나의 중국사로 인식하고, 전근대에서 동아시아의 패자는 늘 중국 지역에 세워졌던 나라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이 한국사와 가장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은 고구려사 부분이다. 교과서에는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제도를 완비한 대제국을 형성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힘을 겨뤘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시아란 중국을 뺀 동북아시아를 의미하는가. 중국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는 뜻을 지닌 동이족 중에 패자라는 이야기인가. ‘중국과 대등한 지위’ 에서 말하는 중국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이 시기 지금 우리가 아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패자는 ‘중국(?)’ 과 고구려 쌍두마차가 있었다고 표현하던가, 둘 중 하나라고 해야 논리적 정합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고구려사를 둘러싼 혼란은 수와 당이 고구려를 정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동아시아의 패자라 할 수 없어 거듭 전쟁을 도발했고, 그것이 고구려 멸망의 원인임에도, 신라가 강자 중국의 ‘당’ 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서술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당과 연합했으니 통일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그 자주성만을 논란한다. 동아시아 역사상이 없는 가운데 자국 중심의 사관이 가져오는 자가당착적 역사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역사 인식의 분열증은 화이의식에 기반한다. 우리 안의 화이사상! 물론 고구려사 인식에서는 충돌되었지만, 일관되게 전근대사에서 우리는 우리를 화, 더 정확히는 중국은 중화이고 우리는 소중화라고 생각한다. 근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등국민의식인 것이다. 소중화 의식은 조선후기에 맹위를 떨쳤다. 하지만, 지금도 엄존한다. 이는 북방민족에 대한 서술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등장하는 고대사에서는 북방민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고려 시기부터는 거란, 여진은 침략을 일삼으며 은을 갖고 와서 농기구, 식량과 교환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묘청은 금 정벌을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침략해도 상관없는 오랑캐일 뿐이다. 원간섭기인가? 몽고간섭기인가? 교과서에는 몽고 간섭기로 나온다. 왜 몽고풍인가? 원풍이 아니고, 중국의 과거 국명을 아낌없이 쓰지만 원이란 국명은 아껴 거의 쓰지 않는다. 조선 시기 서술에서는 ‘사대교린’ 이 등장한다. 전형적인 화이의 논리다. 명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선진문물을 흡수하려는 문화 외교’ 라는 서술이 등장한다. 북방민족인 여진에 대해서는 ‘회유와 토벌의 교린책’ 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그리고 청에 대한 설명 중 이런 서술이 나온다. “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군신관계를 맺고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것이 조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후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청과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맺었다.” 게다가 청의 발전을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호, 장려하고 서양의 문물까지 받아들여 문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오랑캐인 여진족이 세운 청이 한족의 문화와 서구 문명을 결합하여 문화국가가 되었으나 우리는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적자인 한족의 전통과 근대의 적자인 서구의 문명을 흡수하여 성공했지만 오랑캐는 오랑캐인 것이다.

혹자는 역사적 진실일 뿐이라고 일갈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부터 지속된 동아시아 외교 질서의 축, 조공-책봉 관계에 대해서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조선 시기에 처음으로 두 번 등장한다. 조선 초에 류큐, 시암, 자바 등에서 조공 진상을 받은 사실과, 앞서 언급한 ‘조선에 조공을 바치던 오랑캐, 여진족’ 등에 조공이란 단어가 나온다. 세계사를 설명하든, 우리 역사를 설명하든 조공-책봉 관계에서 대해 침묵한다. 우리가 책봉 받고 조공을 받던 역사를 알 길이 없다. 일본과의 외교사에서도 과거 서로 조공했다며 조공-

책봉 논란이 여전하고, 중국도 한 때 북방민족에 조공을 받친 역사가 엄존하는데, 우리는 북방민족이 고려시기 이후 일관되게 조공을 받쳤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가르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가르치고 싶은 역사와 가르치고 싶지 않은 역사가 있는 것이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지금 무리하게 동북공정·서북공정 등을 추진하며 다민족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화-이 의식을 고수하며 이웃의 역사를 차별하고 구별 지어 가르치고 있다.

3. 일본 : 왜? 왜구? 일본? 배은망덕한 존재

일본을 어떻게 서술했을까는 짐작하기 쉽다. 전근대사에서는 중국이라는 대명사가 남발되는 반면, ‘일본’이란 단어 사용에 인색하다. 왜, 혹은 왜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서술이 거칠다. 본래 일본이라는 국명은 왜국이 7세기 후반 바뀌면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백제는 일본 큐슈 지방에 ‘진출’ 했고, 변한은 왜에 철을 수출했고, 백제부흥운동 다시 왜의 수군이 백제부흥군을 지원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왜와 일본의 경계선이 모호하다. 통일신라와의 교류를 설명할 때는 일본이라고 정확히 서술한다. 그런데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를 설명할 때는 일본이라는 국명만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삼국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 구체적 내용이 상술되어 있다.

그런데, 고려시기로 오면 일본은 사라지고 왜구만 등장한다. 왜구에 대한 정의는 없다. 왜구=일본 해적단이라는 고정관념에 기반해 고려에 대한 침략의 역사만을 서술한다. 하지만, 일본의 교과서들은 원명교체기에 등장한 왜구에 일본인이 다수였지만, 중국인이나 ‘조선인’도 일부 포함되었으며, 약탈과 함께 무역 행위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역사 인식의 차이가 확연하다.

조선시기에도 일본과의 관계는 왜구로 시작된다. 계속된 왜구 약탈에 쓰시마섬을 토벌했다고 한다. 쓰시마섬 토벌이라 함은 앞선 큐슈 진출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이다. 우리의 이중 잣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본은 침략했고, 우리는 토벌하고 진출했다. 물론 ‘임진년 조일전쟁’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침략의 정도를 비교할 수 없으나, 일본의 대륙진출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는 우리로서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쓰시마섬 토벌 이후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3포를 개항하고 16세기에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참 모호하다. 액면 그대로 제3자가 보면 왜구는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군사세력인 듯하다.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해적인 ‘왜구’의 요구를 수용하고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행위가 어떻게 동등하게 서술될 수 있을까. 해적과 일본 정부가 동급의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축약해서 서술했다 변명하더라도, 그런 서술이 문제시되지 않는 역사의식이 정말 문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역사는 임진왜란·정유재란이다. 삼포왜란, 을묘왜변의 표현도 그렇지만 동아시아 3국이 전쟁에 휩쓸렸던 사건을 왜란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민망하다. 물론 ‘호란’도 마찬가지다. 실제 그렇게 불렸던 때가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늘날

해당 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걸맞는 용어는 아니다. 이 때 조명연합군에 대항하는 일본군은 줄곧 ‘왜군’으로 표현되고 있다. ‘명과 왜군 사이의 휴전 협상이 벌어졌고 정유재란이 발발했으나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격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주어는 일본으로 바뀐다. ‘일본의 문화약탈이 일본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조선통신사 관련 서술이 가장 일방적이다. 조선 역시 일본을 후진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본 역시 상당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조선을 후진으로 인식하던 그 시절, 조선과 일본과의 교류를 원하는 쓰시마 섬 도주가 양국 국서를 위조함으로써 조선통신사 파견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여전히 이렇게 쓰고 있다. “도쿠가와 막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 파견을 요청하였다”,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여전히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개관의 17세기 이후 일본이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크게 발전했다고 하는 서술과 충돌한다. 일본이 네덜란드 등을 통해 서구문물을 수용하며 발전했지만, 여전히 조선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들여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인가. ‘근대의 세계’는 일본의 발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19세기에 서양 열강과 타협하여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일본의 근대 발전을 타협이라는 명사와 끼인다는 피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 그려진 일본 인식은 이렇다. 우리가 고대부터 선진문물을 전해주었더니 왜란을 일으키고, 그 후 용서하고 다시 선진문물을 전해 주었는데, 운 좋게 서양과 타협하여 근대화에 좀 성공했다고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었다니! 그런 ‘놈’들은 왜라고 쓰던, 왜구라고 표현하던 그건 문제될 것이 아니지. 그리고 그들이 왜구나 조선통신사 등과 관련해 다른 역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근거를 따지며 곱씹기보다는 바로 용감하게 ‘왜곡’으로 치부하고 문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4. 근현대 동아시아 : 원인 없이 현상만 그리다

동아시아라는 말은 ‘고대의 세계’에 한번 등장하고 끝이다. 동아시아 사회와 동아시아 문화권이 고대에 형성되었다는 얘기다. 동아시아 상이 없는 가운데 그려지는 한국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현대다. 이 시기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와 함께 우리 역사를 설명하지 않으면 맥락적인 역사 이해가 어렵다. 그런데,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이 근현대사 인식에 깔려서인지 『국사』는 물론 『한국근·현대사』에서 중국과 일본의 근현대사는 별로 존중받지 못해 만나기 어렵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일국의 상황만으로 자국사를 기술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삼국의 역사가 상호 얽혀 있다. 그런데, 교과서는 이런 역사 현실을 유념해 두지 않고 ‘자기애’적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강화도 조약을 비롯해 문호 개방을 하

고 임오군란 당시 청에 원병을 청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근대사는 일본과 청이라는 상대의 대응이 어떤 '사정'에 나온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 역사 현실과 관련된 그들의 대응만을 현상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왜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했는지, 중국의 만주가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는데 왜 다른 나라 땅에서 독립운동이 가능했는지 설명해주지 않는다. 배은망덕한 일본의 약탈성, 그것이 식민지화의 원인이었고, 식민 통치를 통해 유감없이 재현되었다는 전제하에 현상적인 식민 지배와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만을 가르친다. 상대가 약탈국가 일본이니 더 알 필요를 없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주에서의 자치와 무장투쟁 등을 매우 당연시하는 것도 본래 만주가 우리 땅이고 이후 오랑캐가 차지했다는 고토(古土)의식·화이의식 때문이 아닐까.

현대사도 일본은 침략자, 중국은 독립운동의 기지이자 지원세력이라는 이미지만 현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동아시아 역사상 자체가 전무한 근대사와 사정이 대동소이하다. 1945년 이후 한(북한포함)중일 상호간에는 '단절'의 역사가 지속되었고 지금도 아직 이어지지 않은 역내 관계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의 현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술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내부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세계사 교육에 등장하는 대표적 국제전인 6·25전쟁의 경우도 국제전에 참가한 각국의 논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미국, 소련,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참전과 개입에 대한 설명이 인색하다.

다른 시대보다 근현대의 경우, 중국사는 물론 일본사와 연결 지어 설명해야 맥락적 이해가 가능함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다시 말해 동아시아라는 관점이 기존의 역사 교육에는 없다.

III. '동아시아사'의 출발 : 선린을 지향하며

화이사상과 오리엔탈리즘의 공존. 우리 역사교육의 현주소다. 나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남을 어떻게 읽느냐도 나를 돌아보게 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전 근대사는 중국은 한족의 중화와 오랑캐의 북방민족으로 가르고, 일본 역시 오랑캐이고 우리만은 소중화라는 화이의식에 근거해 가르치고 있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된 뿌리 깊은 역사 인식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화의 주변에 살면서 자신을 소중화로 자부하던 나라가 우리 뿐이던가. 유서 깊은 역사 인식이라고 해도, 오늘 이 시점에서든 계승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차원을 달리 하는 문제다. 근현대사에서는 화이의식을 정확히 오리엔탈리즘이 대신한다. 이쯤 오면, 서구화=근대화가 전가의 보도가 된다. 그 정도 차이가 문명과 미개를 가른다. 성공은 찬사를 받고 실패는 비난받는다.

화이사상과 오리엔탈리즘은 모두 문명화 논리다. 거칠게 표현하면, 선진이 후진을 선진화하고, 문명이 미개를 문명화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교과서의 선진문화 이동 통로는 조선후기까지 일관되게 중국→한국→일본이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그 경로가 다소 모호해진다. 일본이 서구 근대화에 가장 먼저 성공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중국과 한국이 직수입

했는지, 아니면 중개상이 있었는지 설명이 없다. 누가 중개상인지는 다 알면서도 표현하지 않는다. 서구화가 아니라 일본화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명화 논리를 강자의 논리다. 일본도 침략과 지배를 줄곧 문명화 논리로 합리화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동아시아 역사, 세계 역사에서 강자였는가. 왜 강자로서의 역사 인식을 갖고 있고 또한 가르치는가. 그건 사대(事大)의 산물이다. 역사 인식의 주체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아와 비아를 구별하는 나름의 주체성·정체성의 논리가 있는가. 단일민족주의는 주체성·정체성의 발현이라고 보기에 설득력이 약하다. 근대의 산물인 단일민족주의는 강자의 논리가 될 수도 있고 약자의 논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역사의 정체성·주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다. 한가지는 분명하다.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한 인종주의는 단일민족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역사 인식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화이사상과 오리엔탈리즘, 그 속에서 사대를 당연시하는 소중화와 이등국민으로서 정체이자 주체라고 착각했던 우리 모두의 슬픈 자화상이다.

오랑캐라는 표현은 『한국근·현대사』에도 등장한다. 19세기 중엽 일본과 서양을 오랑캐로 인식했다는 서술이 그것이다. 위정척사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서슴없이 일반화하여 서술하는 역사 인식이 문제다. 이 현상을 ‘고래로부터 우리는 어떤 상대를 오랑캐라고 인식하는 습속이 있었다. 그걸 액면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그만일까. 이웃나라와 세계를 향해 계속 우등과 열등, 선진과 후진, 문명과 미개의 등급을 매기는 걸 우리는 사회진화론이라고 배웠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의 논리가 되었고, 또한 친일의 논리가 되었다고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극복대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 인식에는 그 극복해야 할 논리가 깊숙이 배여 있다. 그리고 지금 강자의 논리인 문명화의 논리, 사회진화론이 아시아인을 멸시하고, 흑인을 혐오하는 인종주의로 재현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중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걸 사대주의의 극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화이사상이 오리엔탈리즘과 결합되면서 사대의 주체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사대의 대상이 서양의 미국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중국마저도 근대화=서구화가 될 뻔 된 ‘오랑캐’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우리 이웃 모두를 오랑캐로 보게 된 것이다! 오랑캐 인식은 이웃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과 역사를 함부로 대하고 취급하여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는 善隣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동아시아사는 선린의식을 지향한다. 기존 역사 교육, 특히 한국사 교육이 화이의식과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미래에는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길 기원한다. 이웃의 역사와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선린의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역사 인식의 주체·정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는데 역사는 어떤 안목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으로서의 동아시아사의 목표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동아시아 지역사를 파악하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

해하는 안목을 기른다.

나.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한다.

다.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탐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라. 각 시기에 전개된 교류와 갈등 요소를 탐구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를 갖는다.

마.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 비판, 종합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앞에서 언급했던 역사 교육, 특히 한국사 교육의 문제점을 동아시아사를 통해 우회하여 해결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나르시시즘적 요소는 수없이 지적되어 왔으나, 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즘적 요소 중 제일 심각한 것은 사료 취사의 편협성이다.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의 역사상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생산된 사료에 근거하고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을 골간으로 엮어져 왔다. 하지만, 이웃나라 역사서에는 타자로서 보는 우리에게 대한 언급이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非我), 즉 타자의 시선을 염두에 두면서 아(我)의 주체·정체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최근 전근대사 연구에서 중국측 사료는 종종 인용되는 변화가 있지만, 일본 사료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우리가 보는 우리와 함께 이웃이 보는 우리를 함께 버무려야 제대로 된 우리의 과거 궤적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 역시 동아시아사에서는 극복의 대상이다.

동아시아사는 이웃과 함께 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을 생각하고 나아가 선린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역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Abstract】**Perspectives on the Teaching of "East Asian History"**

KIM Jeongin

1. The Birth of "East Asian History" as a Subject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will learn "East Asian History" as an elective subject starting from 2012. Political motivations strongly influenced the process by which East Asian history was selected as an elective subject for high school. Therefore, the history education community is clearly divided into those who advocate the subject of East Asian history and those who do not. Moreover, members of the historian community are also not favorably disposed toward the subject.

First of all, many point out that it is problematic that East Asian history has been included in the curriculum, as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East Asian history. One may conclude that education without research sounds dangerous. However, there is a precedent—namely, education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ince the liberation of the country, most historians disappeared from the historian community in South Korea, as they crossed the border to North Korea or were kidnapped by North Korea. Scholars with pro-Japan inclinations replaced them and their doing research on contemporary history, including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considered taboo. However, circumstances in the education circle were different, as, although it was possible to consider certain research topics taboo, it was impossible not to teach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in the history education of a newly independent state. Therefore, right-wing, anti-Communist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based on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created and has formed the basis of history education without much change until now. If Korea has an experience in which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took the lead in history research, Japan has experienced Asian History taking the lead in history research in the country. In Japan, ideology that justified its invasion of Korea emerged in the 19th century and Japan attempted to invade the continent after conquering Taiwan. Thus, for Japan, although it was important to research and understand the "enemy," it was also important for it to foster warriors in preparation for invasions.

Like Japan's Asian History, East Asian history in Korea is a very political subject. Like the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the subject is largely called for by the era. In a situation where Korea is currently engaged in history wars and "territorial disputes" with Japan and China, which are powerful nations, and need to prepare for them, if Korea only has "one-off" protests, it will inevitably remain flustered. It is also impossible to foster only hostility and hatred. As it has been always historically, Korea, which is the weaker, also needs to prepare by occupying the moral high-ground in advance. It may sound unrealistic to emphasize good neighborliness toward the "enemy," yet there is no choice.

The experience of Korea-Japan and Korea-China-Japan joint history books contributed to adopting this political subject.

But then, is East Asian history really a "new" subject that is appearing in Korea's history education for the first time? Albeit not completely identical, there was a clue to East Asian history education in the nation's history education. "Life of Neighboring Countries: History" was the name of the Asian history subject for fir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used soon after liberation. This subject was intended to teach students that considering our coexistence with the history and cultures of neighboring countries, when we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our neighbors from independent perspectives, we can better promote friendship and contribute to creating the world culture.

2. Historical Awareness Based on the Logic of Civilization: The Huayi View (civilized China and barbarian neighbors) and Orientalism

This section examines how East Asian history, including China and Japan, has been described in textbooks related to Korean history. This is intended to reflect on ourselves as Koreans again by investigating how we understand our "neighbors," not merely being fixated in how the Korean people viewed themselves. High school "Korean History," a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has been intensively analyzed in this paper, and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n authorized textbook, was also analyzed, when necessary.

1) World Views: From Sino-Centrism to West-Centrism

The introductory part of each chapter of Part 3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 titled, "The Ruling Structure and Political Activities," offers an overview of world history of corresponding periods. In "The World in the Ancient Era" the introduction begins with a description of Chinese history by saying "China, which had served as the center of East Asian culture, had a grea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societies," followed by a detailed description of Chinese dynasties from Zhou, the Spring and Autumn and Warring States Period, Han, the 16 States, the Sui Dynasty, and the Tang Dynasty. The "World in the Middle Ages" also starts with a description of Chinese history from the Five Dynasties and Ten Kingdoms, the Song Dynasty, and the Yuan Dynasty. The "World in the Early Modern Period" also starts from the history of China's Ming and Qing Dynasties. However, it suddenly changes from the "World in Modernity," whose introduction starts with "Europe since the 16th century." The "Asian History" described in the latter part of the introduction starts with a phrase that "Modernization in the West posed a relative threat to Oriental society." The world history perspective, which was centered on China in the pre-modern era, shifts to the Western-centered era. In the "World in Modernity and Contemporary Eras" chapter, there is no description on the Orient while only Western history is described.

The world history-related introduction in the textbook,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 Korea" also starts with a description about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West, through the 19th century, with World War I and post-war arrangements for the first part of the 20th century, followed by the U.S.-Soviet confrontation and the Cold War regime for the latter part of the 20th century. The world view that started with the history of a neighboring country shifted to distant countries, which are Western empires in the modern period, thus defining the history of the "Orient" as the history of failure. In the modern era, the world is understood on the basis of Western perspective.

2) The Chinese Viewpoint: *Hua* Meaning "Civilization" and *Yi* Meaning "Barbarians"

China is a country name that appeared in the 20th century. However, Korean people unreservedly used the term "China" since ancient history. In Korean history textbooks, there appear such expressions as "The Baekje Kingdom accepted China's advanced civilization," "The change in the ruling system of the Unified Silla evolved into a strong, centralized and autocratic state by accepting Chinese systems," and "King Taejo of the Goryeo Dynasty based their political system on those of the Silla Kingdom and China." As such, for Koreans, China is a pronoun that generally refers to dominant states in the region of China. The Korean people consider China's history involving more than 25 dynasties that prospered and declined as a single Chinese history and believe that the supreme rulers in East Asia always were states that arose in the Chinese region during the pre-modern period. The area in which this Sino-centric world view conflicts with Korean history most seriously is the history of the Goguryeo Kingdom. The textbooks say that "the Goguryeo Kingdom emerged as the supreme ruler in Northeast Asia. It occupied expansive territory spanning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formed a great empire with political systems, vying for power on an equal status with China." However, some unanswered questions arise, such as—What state does "China" here refer to? And, who was the genuine supreme ruler at that time: China or Goguryeo?

Such a divided perspective of history is based on the *Huayi* view. Although there was a conflict in the view of Goguryeo history, Korean people have consistently believed that in pre-modern history they were *Hua* (civilized). More accurately, China was seen as the major center of power and Korea the smaller. In modern expression, it could be "second-grade citizen" consciousness. Such "small centrism" prevailed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yet it still exists even today. This is well found in Korea's description of the Northern races. In Korean history books, Khitan people and Jurchens are described as barbarians that often invaded others countries and exchanged their silver for agricultural tools and food. Such consciousness is also reflected in descriptions of the Yuan Dynasty established by the Mongols. During the Joseon Dynasty, such expression as *Sadaegyorin* appeared, which meant that the Dynasty pursued a "cultural foreign policy to absorb advanced civilization" with the Ming Dynasty of China, while pursuing a "friendly relationship of conciliation and subjugation" with Jurchens.

Concerning the Qing Dynasty founded by the Jurchens, they describe that, although the Qing Dynasty became a cultured state by combining the culture of the Han people and Western civilization, the Joseon Dynasty merely maintained a token relationship of serving the Qing Dynasty. It means that although the Qing Dynasty was successful by absorbing the tradition of the Han people, who were the heirs of Chinese, and Western civilization, the Qing Dynasty were still considered to be barbarians.

3) Japan: *Wa*? *Wakou*? Japan? An ungrateful Country

Although it is easy to assume how Japan is described in Korean history textbook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word "Japan" in the introduction part of the "World in the Ancient Era." Instead, it is full of stories about *Wa* (the ancient name for Japan) or *Wakou* (meaning "Japanese pirate invaders"). Originally, the country name, "Japan," appeared when the *wa* state was replaced at the end of 7th century. However, Korean history textbooks describe that the Baekje Kingdom "advanced into" the Kyushu region in Japan and the Byeonhan confederacy exported steel to *Wa*, and *Wa*'s naval forces supported the Baekje revival forces during the Baekje Revival Movement. When explaining Korean culture transmitted to Japan, the country name "Japan" is emphasized, as indicated by description that the "culture of the Three Kingdoms was transmitted to Japan, having a great impact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Japan's ancient culture." When explaining the Goryeo period, references to Japan disappear, and only *Wakou* appears.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Wakou*. Based upon the stereotyped notion of "*Wakou*=Japanese pirate invaders," the textbooks describe the history of aggression by *Wakou* against the Goryeo Dynasty. During the Joseon period, Korea's relationship with Japan starts with *Wakou*. The textbooks say "after clearing Tsushima Island, which is a hotbed of *Wakou* pirates, of the *Wakou* pirates, the Joseon Dynasty accepted demands of *Wakou* and opened three ports and dispatched envoys to Japan in the 16th century." From the perspective of a third party, *Wakou* appears to be military forces guarante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How, then, could Joseon's acceptance of the demands of "*Wakou*," who were pirates, and equal recognition of the dispatch of envoys to Japan be stated? Concerning the *Imjinwaeran*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a war in which three East Asian countries were embroiled was expressed as the "Japanese invasions." Although there was a time and people that used the term, it is not terminology commensurate with today's historical assessment of the war. The Japanese forces confronting the allied force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Ming Dynasty were consistently referred to as "*wagun*" (*wa* forces). The description by *Joseontongsinsa* (cultural mission dispatched to Japan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Korean history textbooks is the most one-sided. It is already well known that, at the time when the Joseon Dynasty considered Japan an underdeveloped country and Japan also considered Joseon an underdeveloped country in its process of achieving considerable development, the dispatch of *Joseontongsinsa* was made possible through the forgery of credentials of both countries by governor of Tsushima Island, who favored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Japan. Nevertheless, textbooks still describe that the "Tokugawa shogunate requested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o resolve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roduce advanced civilization" and "*Tongsinsa* not only acted as a diplomatic mission, but also transmitted Joseon's advanced culture to Japan." They still describe Japan, which achieved phenomenal development by accepting Western civilization since the 17th century, as an entity that still required the advanced culture of Joseon. In the "World in the Modernity Era" the textbooks describe Japan's development as follows: "As a result of active modernization policy in compromise with Western powers in the 19th century, Japan came to be sandwiched between the imperial powers." It is in fact disparaging Japan's modern development by using the noun "compromise" and the verb "be sandwiched."

4) Modern and Contemporary East Asia: Merely Portraying Phenomena without Studying the Underlying Causes

Korean history is being portrayed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 of East Asia. The most problematic part is modern and contemporary era. For this era, it is difficult to have a contextual understanding of history without explaining Korean history, along with the history of China and Japan. However, probably due to the fact that West-centered Orientalism lies in with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view,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and Japan is little respected not only in the "Korean History" textbook, but also in the textbook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Since the 19th century, in East Asia, the history of the three countries has been interwoven to an extent that it is impossible to describe one country's history only in terms of the situation of that country alone. However, the textbooks do not keep in mind such historical reality and merely describe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self-interest." Korea's modern history, which starts with opening up of the nation with the Treaty of Ganghwa and the then government's request for rescue forces from the Qing Dynasty during the *Imogunran* (military revolt), does not explain from what circumstances Japan and the Qing Dynasty are mentioned. It merely enumerates their reactions related to Korean history as phenomena. When Korea was relegated to a colony of Japan, the textbooks do not explain why Japan tried to colonize the Korean Empire and, concerning Manchuria in China serving as a base for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they do not explain how the nation's independence movement was made possible in another country.

As for contemporary history, the image that Japan was an aggressor and China offered a bas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supplied forces as an ally, is repeated in phenomena and thus the contemporary history is almost identical with modern history which has virtually no historical image of East Asia. Since 1945, the history of "disconnection" has continued among Korea (including North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re are still relationships in the region which have not been connected to this day. And the United States is deeply intervened in the reality of East Asia, and Korean history textbooks give a hugely insufficient account of this aspect, while giving a full account of Korea's internal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the case of the Korean War, which is one of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wars that appear in world history education i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Korean history textbooks do not introduce the logic of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war. They

are miserly in their accounts of participation and intervention in the war. not only by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China, but also by other countries.

3. The Start of "East Asian History": Seeking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Both the *Huayi* view and Orientalism are the logic of civilization. Roughly speaking, it is a logic that justifies that advanced nations can make nations lagging behind more advanced and civilized nations can civilize barbarians. The Korean people have learned that continuously grading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orld into the superior and the inferior, the advanced and those lagging behind, and the civilized and the barbarian, was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They learned that it became the logic of aggression and the rule of imperialism and the logic of pro-Japanism. In common sense, it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overcome. However, this very logic of requiring to be overcome is deeply ingrained in the Korean people's historical perceptions. And the logic of civilization and social evolution theory, which is the logic of the powerful, is recreated in racism that despises Asian people and hates black people.

Meanwhile, although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s on China have changed, it may not be viewed that they have overcome the *Huayi* view. As the *Huayi* view has been combined with Orientalism, the subject for worshipping the powerful was shifted from China to Japan, and then again to the United States. Since the subject for serving the powerful was changed to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people started to view even China as "barbarians" which are still yet to be modernized and Westernized. Eventually, the Korean people have come to view all neighboring countries as barbarians! Such perceptions of neighbors as barbarians ignores and does not respect neighboring countries and thus tends to treat the people and history of the countries thoughtlessly, so it is easy to cause conflicts. With such percep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East Asian history pursues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My criticism is that history education in the past, and particularly Korean history education, failed to get out of the *Huayi* view and Orientalism and hope that Korea will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I intend to describe the history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neighborliness. By doing so, I intend to think hard about what are the subject and identity of historical perceptions. I also intend to explore from what perspectives and what content should be taught in history education in looking back on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 and seeking the future of the nation. East Asian history intends to contribute to looking back on the past of Korea and thinking about today and building a future of friendly relation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It intends to contribute to preparing alternatives to cure the deep-rooted evil practices of the nation's history education.

• Panel 2-2 衛生과 東아시아 近代

Moderator 河元鎬 (HA Wonho, 東國大)

Panelist-1 余新忠 (YU Xinzhong, 南開大)
： 清潔与衛生 - 晚清清潔觀念的演變
（청결과 위생 - 만청 청결 개념의 변화）

Panelist-2 辛圭煥 (SIHN Kyuhwan, 延世大 醫史學教室)
： 1910-1911년 滿洲페스트의 流行과 植民地 朝鮮의 對應

Panelist-3 松本武祝 (MATSUMOTO Takenori, 東京大)
： 朝鮮における「植民地近代」分析のための視点
－ 医療・衛生を 素材として
（조선의 ‘식민지근대’ 분석을 위한 시점 - 의료·위생을 소재로）

Panelist-4 申東源 (SHIN Dongwon, 韓國科學技術院)
： 20世紀 前後 東學, 天道敎의 衛生 實踐

Discussant 裴城浚 (BAE Sungjoon, 東北亞歷史財團)
全遇容 (CHUN Wooyong, 서울大 病院)

清洁与卫生

—晚清清洁观念的演变—

■ 余 新 忠 (南開大學校) ■

清洁与卫生

—晚清清洁观念的演变—

余新忠(南开大学)

〈目次〉

I. 引言	III. 卫生防疫视野下的清洁观
II. 传统认识中的清洁与疾疫	IV. 结语

I. 引言

今天,若说到清洁,人们恐怕会自然而然地将其与卫生、健康等概念联系起来。清洁,即干净,洁净¹⁾,而洁净,也就预示着卫生乃至健康²⁾。在今人的认识中,这无疑是不言而喻的常识。清洁是一个古老的词汇,这一义项也为其本来之义,不过在近代以前,清洁的意涵却明显要丰富得多,而且也几乎没有与“卫生”或“养生”连用的(详见后文),那么近代的“清洁”是如何生成的呢?

不过在今天,清洁几乎就意味着卫生,保持清洁卫生以防疫病,也早已成为人们心目中的科学常识。虽然好洁恶秽,似为人之天性,在不同的文化中,都不乏追求净洁的习俗,但是,是否污秽就必然等于疾疫,防疫就意味着必须设法清洁呢?在不同的历史时空中,答案恐怕就不那么统一了。不管怎样,在科学的名义下,将清洁与卫生捆绑在一起,则是晚清时期才逐步登上中国历史舞台的。那么这一历史进程是如何实现的呢?对此,国人又是如何因应并接受的?

在以上问题的指引下,笔者开始了对中国清洁观念问题的思考和探索。毫无疑问,这一探索仍是在卫生史的框架中展开的,关于中国近代的卫生史研究,海外的中国史学界已有不少的成果问世³⁾,最近也日益受到国内史学界的关注⁴⁾。不过,就管见所及,尚未见有从清洁的角度来检视中国近代卫生变迁的研究,与此比较相关的则是拙稿《中国近世的粪秽处置及其变动——兼论近代公共卫生观念的形成》⁵⁾,该文钩沉了前近代中国城市的粪秽处置办法以及西方影响下的近代变动历程,并论及

- 1) 在现代汉语中,干净、洁净基本就是清洁的唯一义项。《新华词典》未收“清洁”一词的解释,不过在“洁”的条目下,解释道:“干净。例清洁/洁白。”(商务印书馆1988年版,第451页)最新版的《辞海》有“清洁”一词,释义有两条,1、“洁净无污。如注意清洁卫生。”2、“表示生丝品质的主要指标之一。”(缩印本年版[音序],上海辞书出版社2002年版,第1359页)第二义项系日常生活甚少用到专业术语,于此不论。就日常的使用清洁而言,清洁就是干净、洁净,而且与卫生密切关联。
- 2) 将清洁与卫生相联结甚至相混同,是近代的产物,与西方近代卫生观念与机制的出现密不可分。关于这两者联结乃至混同的过程,可参阅Jean-Pierre Goubert, *The Conquest of Water: The Advent of Health in the Industrial Age*, Translated by Andrew Wilson, Cambridge: Polity Press, 1989, pp34-51
- 3) 笔者曾在《清代江南的卫生观念与行为及其近代变迁初探——以环境和用水卫生为中心》(《清史研究》2006年第2期,第12-26页)的引言部分,对此有简略的评述,可参阅。
- 4) 除了日渐增多的论文外,刚刚出版的两部专著——杨念群的《再造“病人”——中西医冲突下的空间政治(1832-1985)》(中国人民大学出版社2006年版)和张大庆的《中国近代疾病社会史(1912-1937)》(山东教育出版社2006年版)都有相当的篇幅讨论中国近代公共防疫卫生建立的问题。
- 5) Yu Xinzhong, “Treatment of Night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in Angela Ki Che Leung eds, *Health and Hygiene in Modern Chinese East Asia*, Duke University Press, 2008, forthcoming.

了城市的整洁欲求对近代公共卫生观念形成的直接促动作用。而本文则意欲在社会和文化双重视野下,考察在中国近代防疫机制的建立过程中,传统的清洁观念是如何被“近代化”的。

需要指出的是,关于清洁,日人小野芳朗曾著有《“清洁”的近代:从“卫生唱歌”到“抗菌商品”》一书,作为环境工程学家,他带着对现代环境问题隐忧的警觉,检视了近代以来日本日渐成为“清洁而健康的国度”的踪迹⁶⁾。虽然该著关注的是日本的问题,而且也很少对清洁概念与观念本身着墨,但笔者对清洁问题的关注,无疑与此有关。另外,英国著名史家Christopher Hamlin在考察英国查德威克(Chadwick)时代的公共卫生中对卫生“近代性”的深刻省思⁷⁾也对促发笔者的思考起到积极引领作用。

II. 传统认识中的清洁与疾疫

清洁是个古老的词汇,先秦时代的《韩非子》中就有清洁的一词,《外储说左下》言:“辩察于辞,清洁于货,习人情,夷吾不如弦商,请立以为大理。”不过这里的清洁是指“不贪污财货”,即清廉之义⁸⁾。不过,清之本义乃“澄水之貌”⁹⁾,即清澄。清、洁连用,意指洁净,当亦为题中之义。不管怎样,检诸《四库全书》(电子版)不难发现,汉代以后,清洁一词出现的频率日渐增多,其中虽然也时有表示洁净之意的,比如东汉的荀爽在注解《周易》的井卦时言:“渫,去秽浊,清洁之意也。”¹⁰⁾不过其含义显然不像现在这么单一,根据《汉语大词典》的解释,其义有五:1、清白,洁净无尘;2、清廉,廉洁;3、清除;4、清楚,明白;5、犹清爽¹¹⁾。而就检索《四库全书》的结果来看,总体上,以前三项的用法较为常见,不过,用来表示洁净、清除的场合,似乎也远不如用来形容某人清正廉洁的品行的情形为多。“在仕清洁自守”¹²⁾、“母以清洁闻”¹³⁾之类的说法,在汉唐以降的史籍中,可谓是相当常见的。

虽然近代以前,“清洁”并不总是甚至较少被用来表示环境和人身的洁净,而且人们也甚少将“清洁”与卫生或养生相联系,但这并不表示古人全然没有认识到清洁与否与疾疫之间存在某种关联。实际上,在唐宋以降的文献中,不时有认为不够清洁可能导致疾疫的论述出现,比如:

沟渠不通,处处秽恶,家家湿润,人之血气,触此则壅气不行,病于是乎生。今通达广路,犹无洁净之所,而偏街曲巷,使人掩鼻疾趋,如此则安得不病¹⁴⁾。

于春之初,必尽去牢栏中积滞蓐粪,亦不必春也,但旬日一除,免秽气蒸郁,以成疫病¹⁵⁾。

沟渠通浚,屋宇洁净无秽气,不生瘟疫病¹⁶⁾。

6) 小野芳朗『清潔の近代「衛生唱歌」から「抗菌グッズ」』,東京:講談社,1997。

7) Christopher Hamlin, *Public Health and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Chadwick: Britain 1800-18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8) 罗竹风主编:《汉语大词典》(缩印本),上海:汉语大词典出版社1997年版,中卷,第3298页。

9) 舒新城主编:《辞海》(合订本),上海:中华书局1947年版,第802页。

10) 李鼎祚:《周易集解》卷十《井》,上海古籍出版社1989年版,第159页。

11) 罗竹风主编:《汉语大词典》(缩印本),中卷,第3298页。

12) 郑樵:《通志》卷一百三十九,《列传第五十二·杨公则》,浙江古籍出版社2000年版,第2191页。

13) 解缙等:《古今列女传》卷三《宋》,载《四库全书》,台北:商务印书馆1986年版,第452册,第112页。

14) 宋·欧阳守道:《巽斋文集》卷四,《书·与王吉州论郡政书》,载《四库全书》,第1183册,第539页。

15) 宋·陈旉:《农书》卷中,《牛说》,载《四库全书》,第730册,第184页。

16) 元·佚名:《居家必用事类全集》丁集《宅舍·沟渎》,载《北京图书馆古籍珍本丛刊》,北京:书目文献出版社1988年版,第61册,第135页。

己酉(弘治二年, 1489), 蜀大饥, 民流入会府, 日如蚁, 公为广室于城内十余区, 为粥以食之, 而勤涤其秽以防疫, ……¹⁷⁾

一曰修街道。街道污秽, 易生疾病, 荒疫相因, 尤不可不慎。故当修洁街道, 以防其渐¹⁸⁾。

为申严监狱事, 照得囹圄重地, 干系匪轻, 提牢官吏, 每日清晨督率禁卒打扫洁净, 毋使秽气蒸人, 致起疾疫¹⁹⁾。

卜居最直审慎, 住房不论大小, 必要开爽通气, 扫除洁净²⁰⁾。

若将这些并非常见史料合而观之, 我们不难发现, 其实在近代以前, 国人对不清洁与疾疫的关系已有清晰的认识, 无论公共环境还是家庭居室乃至个人的卫生均以涉及。应该说古人有这样的认识, 并不奇怪, 是当与当时人们对瘟疫病源的认识是相一致的, 关于古人对瘟疫的认识, 笔者通过以清代江南为中心考察认为, 瘟疫由天地间别有一种戾气而非四时不正之气所致, 这种戾气系由四时不正之气混入病气、尸气以及其它秽浊之气而形成, 主要通过“秽气熏蒸”, 即空气传染²¹⁾。既然“秽气熏蒸”会导致疾疫传染, 那么涤秽、清洁以免秽气, 对避免疫病自然就是必要的了。

不过, 从上举例子中, 我们似乎并不能认为清洁已成为时人防疫举措的重要内容。面对疾疫, 无论是官府还是地方社会力量, 普遍采取的行为不外乎延医设局、施医送药、刊刻医书以及建醮祈禳等²²⁾。在上述资料中, 虽也有灾年除秽防疫的例子, 但那不过是针对特别人群(饥民、流民、囚犯)的特定行为, 而非整体专门性的防疫举措。在欧阳守道和魏禧的例子中, 浚城河和清洁街道固然可以被视为防疫举措, 但其基本只是士人对为政者一种期待或建议, 而非普遍的实际行动。实际上, 魏禧之类的建议, 在近代以前, 很少为人所提及, 更遑论化为行动了²³⁾。浚城河虽然是官府与地方社会力量不时举行的行为, 但其目的似乎主要还在水利、交通、防火等方面, 防治疾疫只是其中一项甚至是一项不太重要的目的, 而且也不算是官府必须施行的职责, 就一个地方来说, 基本属于缺乏保障的个别行为²⁴⁾。而关于屋宇和沟渠清洁的论述, 更只是面向个人的一种建议而已。

而且, 还必须指出, 我们也不能将这些“集粹”而成的清晰观念视为具体的历史时空中普遍认识, 总的来说, 虽然人们多少觉得污秽与疾疫有关, 但清洁似乎较少受到特别的关注, “吃得邈邈, 做得菩萨。”“不干不净, 吃了没病”等一些大家都耳熟能详的民间俗语, 无疑反映了民间对此部分认识。而且就是士人, 对于不洁, 也不是一概排斥, 魏晋风度中“扞虱而谈”自不必说, 白居易曾“经年不沐浴, 尘垢满肌肤”。王安石也特别不爱洗澡更衣, 常常带一身污垢、满脚泥土就钻进被窝, 弄得夫人都不愿与他共枕。一次上朝, 一只虱子从他的衣领中钻出, 顺着胡须往上爬, 逗得皇上龙颜大开。这只曾经御览的小虫也成了宝物²⁵⁾。这些自然不能证明古人完全不追求清洁, 但至少表明清洁并不

17) 明·罗玘:《圭峰集》卷十八《故都察院右副都御史谢公行状》, 载《四库全书》, 第1259册, 第244页。

18) 清·魏禧:《救荒策》, 载李文海、夏明方:《中国荒政全书》第二辑第一卷, 北京古籍出版社2004年版, 第17页。

19) 清·凌铭麟:《新编文武金镜律例指南》卷一《监门示》, 载《四库全书存目丛书》, 济南:齐鲁书社1997年版, “史部”第260册, 第298页。

20) 清·王士雄:《随息居霍乱论》卷上, 载曹炳章校刊:《中国医学大成》, 北京:中国中医古籍出版社1995年版, 第四册, 第667页。

21) 参阅拙稿:《清人对瘟疫的认识初探——以江南地区为中心》, 《中国社会历史评论》第三卷, 北京:中华书局2001年版。

22) 参阅拙稿:《清代江南疫病救济事业探析——论清代国家与社会对瘟疫的反应》, 《历史研究》2001年第6期, 第45-56页。

23) 参阅拙稿:《清代江南的卫生观念与行为及其近代变迁初探——以环境和用水卫生为中心》, 第13-14页。

24) 参阅拙稿:《清代江南的卫生观念与行为及其近代变迁初探——以环境和用水卫生为中心》, 第14-15页。

25) 参阅徐可:《古人的洁与不洁》, 《北京师范大学报》2006年4月20日第4版。该文承蒙赵献海博士提供,

像今日这样具有重要的健康和象征意义²⁶⁾。

可见，对于秽恶，古人可能未必见得有今人这般敏感，而且在当时疫气致疫的认识中，人们主要需要避免的只是秽恶之气。不仅如此，就是对于秽恶之气的防避，清洁也并非主要的努力方向。清代著名的温病学家刘奎曾论述瘟疫时，列有“除秽”一节，其称：

凡瘟疫之流行，皆有秽恶之气，以鼓铸其间。……凡凶年饥岁，僵尸遍野，臭气腾空，人受其熏触，已莫能堪，又兼之扶持病疾，殓埋道殍，则其气之秽，又洋洋而莫可御矣。夫人而日与此二气相习，又焉得不病者乎！使不思所以除之，纵服药亦不灵，即灵矣，幸愈此一二人，而秽气之弥沦布濩者，且方兴而未有艾也，可不大大畏乎！兹定数万，开列于左，倘瘟疫之乡，果能焚烧佩带，则不觉，秽气之潜消，而沉疴之顿起矣²⁷⁾。

很明显，刘奎认为秽恶之气能致疫，要免除疾疫，应该除秽而不能仅仅依靠医药，但除秽并不是指清洁环境，而是指焚烧佩带辟瘟药材。通过使用辟瘟丹之类的药来防避疫，是明清时期普遍的观念，只是一般论著中没有直接将其视为除秽的手段而已²⁸⁾。从此，我们可以相当清晰地看出，当时人们思考问题的重点并不是如何清洁环境以除秽，而是如何更好地适应既存的环境，以使自己的生活得更游刃有余。

综上所述，可见，在传统时期，清洁是一个含义相当广泛的词汇，洁净只是其中的用法之一，而且似乎不是最常用的义项。虽然有关污秽可能致疫，清洁有助于防疫的观念已经形成，但在具体的历史情景中这些观念既非世人普遍的认识，更未化为广泛的实际行动，清洁与卫生也无必然的联系。清洁既不是防疫的重要举措，也非国家和官府应尽的职责，更谈不上是一种公共议题和行为。

III. 卫生防疫视野下的清洁观

虽然在传统时期，清洁并未成为防疫行为中的重点关注对象，不过，针对在传统主要由社会和市场主导，缺乏国家和行政介入的粪秽处理机制下城市卫生状况的不良，仍时有人发出不满和抱怨之声，有些甚至还直接指出其有碍健康。而且随着城市环境状况的日渐恶化以及霍乱的传入和流行，嘉道以降至少在江南地区，人们开始更多关注到河水污秽与健康的关系。但这些言论均没有意识到应从根本上改进传统的粪秽处置机制，或改变传统的防疫策略²⁹⁾。与晚清粪秽处理机制的变动一样，近代防疫卫生视野下的清洁观念也是在西方文明的影响下逐渐形成。

谨致谢忱。

26) 这种古今观念上的差异，在西方也同样存在，甚至表现得更明显。达尼尔·罗什的研究指出：“在长时期里，有气味的人意味着力量与富裕，许多谚语表明了这一点。人们用粪便臭味来抵抗瘟疫，大门口的粪便垃圾堆不使任何人感到不适，而是代表这家人的富足——这是了解未婚妻可能得到的遗产的可信标志。(Daniel Roche著，吴鼎译：《平常事情的历史——消费自传统社会中的诞生(17世纪初—19世纪初)》，天津：百花文艺出版社2005年版，第194-195页)

27) 刘奎：《松峰说疫》卷二，北京：人民卫生出版社1987年版，第63页。

28) 关于传统与近代防疫观念的变化，请参阅拙稿：《从避疫到防疫：晚清因应疫病观念的演变》，《华中师范大学学报》2008年第2期。

29) 参阅拙稿：“Treatment of Night 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清代江南的卫生观念与行为及其近代变迁初探——以环境和用水卫生为中心》，第18-20页。

应该与国人因为城市环境卫生状况不良而日渐关注河水等的污秽等有关，当西方文明展现于国人面前时，清洁问题很快引起了国人的注目。最初刺激国人思考的一方面是租界的卫生实践及其租界与华界在城市卫生面貌上的鲜明对比。以近代最重要的上海租界为例，自开埠不久，上海的殖民者就开始设立专门卫生管理人员和机构，到1870年代初，已经初步建立起由工部局行政介入，设有专门监管人员和机构的城市粪秽处理机制³⁰⁾。这些使得租界具有较为整洁的城市环境，从而与上海城内的污秽狼藉形成鲜明的对象，进而引发了当时一些士人的关注和议论。只要翻翻较早出版的《申报》，大概就不难体会到，城市的清洁问题已经引起不少人的关注，比如：

上海各租界之内，街道整齐，廊檐洁净，一切秽物裹衣无许暴露，尘土拉杂无许堆积，偶有遗弃秽杂等物，责成长夫巡视收拾，所以过其旁者，不必为掩鼻之趋，已自得举足之便。甚至街面偶有缺陷泥泞之处，即登时督石工为之修理；炎天常有燥土飞尘之患，则常时设水车为之浇洒；虑积水之淹浸也，则遍处有水沟以流其恶；虑积秽之熏蒸也，则清晨纵粪担以出其垢。盖工部局之清理街衢者，正工部局之加意闾阎也。……试往城中比验，则臭秽之气，泥泞之途，正不知相去几何耳。而炎蒸暑毒之时，则尤宜清洁，庶免传染疫气，而谓可任其芜秽，纵其裸裎耶？达时务者，尚以予言为然乎？³¹⁾

这样的议论在早年的《申报》中出现得颇为频繁，他们往往从与租界的对比中，明确指出城市环境与水质的污秽是疾疫流行重要根源，故吁请地方当道应该今日仿行租界的做法，清洁街道，维护用水卫生。从上面的论述，我们已经看到，污秽的环境与水质会引发疾疫，在当时的中国并不是什么新的观念，实际上，近代以前就不时有人论及，不过有意思的是，当时的这些议论除了有人追及三代《周官》之政外，均未言及近世国人有这样的认识，而一概从租界和西人之政寻找思想资源。当然，这样的认识虽然传统也有，但就这一问题如此集中而专门详尽的议论，并明确提出清洁以防疾疫乃当道者之职责，则显然是一种新的现象。从中，可以看到，一方面，传统的认识便利了时人从对比中充分认识到清洁的重要性，另一方面也说明，传统似乎有关清洁与疾疫的观念显得隐晦而并未给人以深刻的印象。与此相对，租界的状貌和西人清洁行为却对时人产生了直接而强烈的刺激。同时，西人颇具新意的粪秽处理机制给国人提供了新的如何清洁环境的思考空间。

另一方面，这种刺激也来自于当时众多洋人对中国不洁的描述与批评。20世纪中期，西方一份有关19世纪中西方人的中国观的研究指出：“中国人另一个被西方人批评的缺点是不讲卫生。……中国城镇在卫生和清洁方面远远落后于西方，作者们经常描写中国街道的肮脏情况。”这样的描述实在不胜枚举³²⁾，比如，

有一个作者曾说道，在上海中国人居住的城区转一圈之后，他简直想吊在晾衣绳上被大风吹一个星期；天津肮脏的程度和难闻的气味还要糟糕；即使是在北京，据大家所说，大街小巷也污秽不堪，令人厌恶，卫生条件之差超出相像。如果连首都都处于这样一种恶劣的状况，那么，外国人罕至的内地城市又会是什么样子呢？³³⁾

30) 参阅拙稿：“Treatment of Night 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31) 《租界街道清洁说》，《申报》同治十一年六月十五日，第1版。

32) M. G. 马森著，杨德山译：《西方的中国及中国人观念(1840-1876)》，中华书局2006年[1938年]版，第192页。

33) 约翰·斯塔德著，李涛译：《1897年的中国》，山东画报出版社2004年版，第78页。

对此, 国人自然深有体会, 并引以为痛, 20世纪初的一篇文章谈到:

呜呼! 中国者, 以不洁闻于世者也。观外人游历所记, 莫不曰: 其街道则暗黑阴湿, 一入其市, 秽气冲鼻, 行片刻, 不觉头岑岑而痛矣。……。呜呼! 终此以往, 几何而不殀其国。吾故曰: 中国而不欲改革则已, 苟欲改革, 必自注意卫生始, 不然者, 且不能战胜于天演, 又乌能与列强相抗耶?³⁴⁾

这内外两方面的触动, 与以下两方面的影响一道, 促成国人开始将清洁和卫生密切联系起来, 并日渐专一地从防疫卫生的角度来理解清洁和使用“清洁”。

鸦片战争以后, 随着西方文化影响的扩大, 特别是光绪初年以降, 西方乃至日本的近代“科学”的卫生学知识也随着西方的译著以及国人游记之类的著作开始日渐增多地传入中国³⁵⁾。其介绍的内容涉及卫生学的方方面面, 其中有不少涉及清洁防疫的内容, 其显然都是从卫生的角度来谈论清洁的。比如, 刊于光绪二年《格致汇编》的《格致论略·论人类性情与源流》则有关洁净的详细论述:

第二百七十六, ……免百体之乱用, 应知百体之公理与职司, 如欲百体各循其职司, 全身坚壮, 则有四事: 曰空气, 曰饮食, 曰运动, 曰洁净。

第二百八十一, 洁净亦保身之要事, 每日或两三日洗浴全身, 更换衣服, 则皮肤能循其出汗等职司, ……而所居之房屋, 亦必干燥, 每日扫除数次, 多通风气, 凡有臭恶之物, 不可存于屋内。又街上应每日扫除, 所有垃圾移至远处, 为肥田之用。凡城市应有阴沟童遍各房屋前后, 应有多水常冲其阴沟, 则免各种恶气。³⁶⁾

译于光绪八年(1882年)、次年在广州出版的《卫生要旨》(嘉约翰译)一书, 也在论述家庭和乡邑的卫生责任时指出:

一家内外, 应时洗扫, 不可堆集垢秽之物, 粪溺要日日倾泻远方, 以免臭污熏触。家中所用之水, 需洁净, ……³⁷⁾

光绪十六年(1890年)稍后出版的《居宅卫生论》则言:

凡人烟多处, 日遗粪秽尿不少, 如不设法销除, 必污溅街道, 熏坏人民, 有碍卫生之道, 以无奈必设法理之, 以利民生。³⁸⁾

从这些论述表明, 清洁不仅关乎个人的养生, 有利于预防疾疫, 而且也是一项公共防疫事业, 应由国家设法推行。

与此同时, 当时出洋的一些文人使臣虽然没有像日本的长与专斋考察欧美时那样对西方的卫生行政制度产生浓厚的兴趣, 不过也对西洋以及日本的洁净留下了深刻的印象³⁹⁾, 而且也有一些人对相

34) 《江苏》第三期, 1903年7月, 第78-79页。

35) 有关光绪前期西方卫生学知识传入中国的情况, 可参阅拙稿: 「清末における「衛生」概念の展開」、「東洋史研究」第六十四卷第三号、2005年12月, 第115-123页。

36) 傅兰雅辑: 《格致汇编》, 光绪二年十二月, 光绪七年格致汇编馆刊本, 第4a-5b页。

37) 嘉约翰口译、海琴氏校正: 《卫生要旨》, 光绪九年刊本, 第35a页。

38) 傅兰雅辑: 《居宅卫生论》十四, 光绪十六年刊本, 第29b页。

39) 参阅拙稿: 《清代江南的卫生观念与行为及其近代变迁初探——以环境和用水卫生为中心》, 第21页。

矣的卫生机制作了介绍,比如,黄遵宪在定稿于光绪十三年(1887年)的《日本国志》中介绍了日本的卫生局,其中谈到:“凡粪除街衢、疏通湮匿、洁净井灶,皆督饬府县官及警察官,使地方人民扫除污秽,以防疾病。”⁴⁰⁾ 张德彝也在光绪十四年的游记中详细记载了德国的卫生制度,其中也有不少涉及清洁的内容:

德国因瘟疫传染,前曾设法预防,近来考究愈详,总国设一公署,专管其事,曰御灾司。……凡易传染之证,皆须告知巡捕,巡捕应即照法使地洁净,如修治阴沟等类。……街道不可使有秽气,须时时洒扫,人家屋内中厕并一切秽水,皆由沟筒流至乡间,其未有沟道之处,宜用车载赴乡间。然不可使秽气外蒸,亦不可运入河内,以防鱼害。……是皆养生防病之善举也。⁴¹⁾

这些知识的译介自然会产生一定的影响,比如,光绪七年(1881年)一则《清秽除疫》的报道,最后特别指出:“诚如西人所云易染疫疠,苟垃圾局早为认真禁止,则方便居民不浅矣。”⁴²⁾ 不过,总体上,这些译著和国人著述,在中日甲午战争以前,似乎都没有产生非常重要的影响,特别是国人探论这一问题的著述,甲午之前,大都均没有正式刊行,比如像《日本国志》虽然光绪十三年已经定稿,但正式出版则在二十一年(1895年)以后,而《五述奇》当时只有抄本流传⁴³⁾。不过,在中国在甲午战争中失败后,随着民族危机日趋深重,这一局面很快发生了改变。相当多的精英痛感国家的衰蔽、种族的病弱,而开始迫切地寻求救亡之道。他们开始认为,中国国家的衰败实源于种族的孱弱,而欲振兴中华,则须“新民”,“其人皆为病夫,其国安得不为病国也”⁴⁴⁾ 所以“强国必先强种”⁴⁵⁾,而要强种,则必须学习西方和日本,讲究卫生之道⁴⁶⁾。在此背景下,卫生问题开始越来越多受到精英人士的关注,中国社会对于西方和日本的卫生知识和制度也不再只是被动而接受,而开始主动地吸收。精英们日渐增多地开始将西方的卫生知识转化了自己的论述⁴⁷⁾。颇具意味的是,虽然在西方的译著和国人的介绍中,清洁只是防疫卫生的举措之一,但在国人的转述中,清洁则被置于了特别显要的位置,比如戊戌前后一篇有关卫生的论说,在介绍了西方卫生知识和中国的实际情况,在结论中写道:

所望有治民之责者,以西人之法为法,衢巷则勤于粪扫,市肆则严以稽查,庶民间灾害不生,咸登寿域乎⁴⁸⁾。

即最终将目前卫生最紧要之处归结了街衢和饮食的清洁。差不多同时的一则时论则指出,“瘟疫之起,原由于不洁,既由东西人士数十年之考求,而知之至确矣。”并认为当时上海的瘟疫的原因主要在于尸棺的暴露和街道不洁⁴⁹⁾。光绪三十年,严复在《社会通论》的译评中亦称:

40) 黄遵宪:《大日本国志》卷十四《职官志二》,上海古籍出版社2001年影印版,第164页。

41) 张德彝:《五述奇》卷四,光绪十四年四月二十七日,光绪十八年序抄本。

42) 《申报》,光绪七年三月初七日,第3版。

43) 参阅拙稿:「清末における「衛生」概念の展開」,第111-123页。

44) 梁启超:《新民说·论尚武》,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8年版,第191页。

45) 《卫生论》,《东方杂志》2卷8期,1905年9月23日,第157页。

46) 详细的论文,可参阅拙稿:“Treatment of Night 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47) 参阅拙稿:「清末における「衛生」概念の展開」,第123-128页。

48) 邵之棠:《皇朝经世文统编》卷九十九《格物部五·医·续卫生说》,沈云龙主编:《中国史料丛刊续编》72-719,第4061页。

49) 《论凭藉鬼神》,载金生煦:《新闻报时务通论·民政第九》,上海新闻报馆排印本,第2a-2b页。

夫国之有大疫者，其社会必贫而不洁，此历验无一爽者也。……且卫生之事，莫重于洁清，甚贫之社会，未有能洁清者也。容膝之室，夫妻子女聚居其中，所嘘噓者，皆败血之残气；处城闉湫隘之地，为微生疫种之所蕴生，而其人又至愚，与言卫生，彼不知何语；其国之旧教，又有以使之信鬼神雩禳之谬说，甘穷约溷浊，而不耻恶食与恶衣，夫如是之民，其初之所以不至于大疫者，徒以地广人稀已耳。使一旦庸增谷贱，将勤嫁娶，而生忽蕃，人烟既稠，而不洁愈至，则大疫不起者，未之有也⁵⁰⁾。

与此同时，甲午以后，日本对中国的影响迅速增强，日本卫生行政的成功经验也开始被广泛引入国内，并产生重要影响⁵¹⁾。日本的明治以后卫生行政，早期明显是围绕着防疫展开的，防疫重心大致经历从病家标示和隔离、阻断交通到实施“清洁法”的过程，清洁在日本卫生防疫策略中地位相当突出⁵²⁾。这显然也影响了国人对清洁问题的关注，比如，晚清大儒吴汝纶于光绪二十八年(1902)以京师大学堂总教习的身份，奉命赴日本考察教育，他特别注意到了日本和学校卫生，专门聘请日人早川新次翻译《学校清洁法》，以备采行⁵³⁾。光绪三十一年(1905)访问日本的段献增在游记中介绍了日本卫生行政制度后，借当时日本卫生局长之口言：

卫生第一要义洁净，中国街市人户，多堆秽物，积臭水，非特熏蒸致疾，而且多生蝇蚋等虫，大有妨碍，应扫除净尽。又厕所不得法，甚或无之，大小便随处皆是，宜求造厕规则，二便分所，均起屋盖之。⁵⁴⁾

可见，随着西方和日本文化影响日渐加深以及中国民族危机的日趋严重，国人对卫生的关注也不断增多，作为近代卫生知识和防疫策略的重要内容的保持环境和饮食的清洁，也随之越来越多融入国人的观念，并被置于了非常突出的位置。

除了以上两个方面以外，外国人在香港以及租界的防疫实践也是促发国人重新理解清洁的重要动因。这一点，从光绪二十年香港鼠疫暴发期间，《申报》的有关报道和言论中可以得到充分的认识。这一年的春天，一场猛烈的鼠疫开始在广东和香港蔓延流行⁵⁵⁾，这一事件很快受到了远在上海的《申报》的撰稿者的关注和议论。光绪二十年四月十八日的《申报》，详细记载了香港的防疫章程，当时，面对瘟疫，港英很快成立了专门防疫机构，《申报》称之为“洁净局”。报载，“香港洁净局初七日锁定防疫章程，业经批准施行，计共十二款，兹将大略译供众览”。所涉及的条款，主要隔离、送医和清洁消毒等事宜⁵⁶⁾。此后，也一直对香港和广东疫情予以关注⁵⁷⁾。与此同时，上海的租界的

50) 甄克思著，严复译：《社会通论》，商务印书馆1981年版，第136-137页。

51) 参阅拙稿：“Treatment of Night 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52) 参阅小林文広：『近代日本と公衆衛生：都市社会史の試み』、東京：雄山閣出版株式会社、2001年、第15-37页。

53) 吴汝纶：《日记》卷十《教育》，施培毅、徐凯寿校点：《吴汝纶全集》第四册，合肥：黄山书社2004年版，第722页。

54) 段献增：《三岛雪鸿》，载刘雪梅、刘雨珍编：《日本政法考察记》，上海古籍出版社2002年影印光绪三十四年京华印书局排印本，第86页。

55) 关于这次鼠疫的情况，可参阅Carol Benedic: *Bubonic Plague in Nine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31-149; 飯島涉『ペストと近代中国：衛生の「制度化」と社会変容』、東京：研文出版、2000，第28 - 40页。饭岛涉的著作还进一步论述了上海的应对，即当时上海租界殖民当局所采取的检疫举措。

56) 《香港治疫章程》，《申报》光绪二十年四月十八日，第10版。

57) 张中华曾摘录了部分相关资料，可参看。（《〈申报〉载1894年香港疫情及应对措施摘要》，《北京档案史

殖民当局也很快展开的防疫活动，工部局董事会在这一年的五六月间(公历)，多次会议防疫事宜，除了要求严格按港口章程实施检疫，研究设立隔离设施以外，还主张采取预防措施，以防疫病流行。为此工部局要求会审公堂的谘员发布示谕，要求华人遵循⁵⁸⁾。四月廿三日的《申报》报道了这则示谕：

钦加五品衔代理上海英美租界会审事务宋为出示晓谕事，据英美工部局函称，近来广东香港等处盛行痄子、痒子等疫症，恐上海亦有传染，设法将街道阴沟收拾洁净，已登华洋各报，劝谕租界居户人等，务宜打扫洁净，勿使垃圾堆积致沾时症，函请示谕等因，到廉合行出示晓谕。为此示，仰租界居民、铺户诸色人等，一体遵照，尔等须知，疫气传染，虽曰天时，然人事亦不可不尽，况时当夏令，凡一切居住之所，尤宜扫除洁净，勿任垃圾堆积，使秽恶之气，触发致病。现在工部局议有定章，并刊传单，挨户分送，无论大街小巷，每日清晨九点钟以前，各将垃圾扫至门首，由工部局马车夫役沿户扫载，惟不得过九点钟以后。自示之后，尔居民铺户诸色人等，务各查照工部局所定时刻，每日督令佣人勤加扫除，一总倒至门首。此为驱疫养生起见，切弗视为末务，稍有忽略，自干未便。懍之慎之，毋违。特示！⁵⁹⁾

显然，所谓预防的措施，主要即为环境的清洁。有意思的是，对于这样的防疫举措，特别得到精英人士的赞同。五月初四日，该报在简要报道了上海实行检疫、消毒等防疫举措外，特别议论道：

而本馆犹有望者，上海各处污秽留存者，日内急须扫除净尽，租界中贫苦小民，往往将尸棺抛弃荒郊，无力营藏，炎天毒日，秽气熏蒸，行人触之，最易致病。虽昨经英界谘员出示查禁，犹恐小民视若具文，所期城厢内外，各官实力施行，辅工部局之所不及，则居民戴德，益觉寤寐弗諠矣。⁶⁰⁾

也就是说，面对疾疫的威胁和外人的防疫举措，时人对其中的清洁措施，不仅认同，而且还特别重视。这从当时的一些议论中也可以明显看出，比如，有人对中西防疫之法详加比较，认为华人治疫，除了设局施医送药外，就是设坛祈禳，“徒事张皇，毫无实际”。而西人则不同，

地方一有时疫，即由洁净局派人逐户查察，如屋中有不洁之物，必令洗涤净尽，更以药水遍洒室中，使无污秽之气。凡患者，则另设一地以处之，免致传染他人。街衢秽物，亦必辟除使尽。其有患疫而毙者，亦另择一地而葬之，随毙随葬，不少停留，以免秽气熏蒸。各厕所每日洗涤，投以生灰，以辟秽恶。一切事宜，皆派委员专理，防疫之法，可谓无微不至。

进而认为，“西人于防疫之法，既周且密，而有时疫疔之兴，或且蔓延不已，未能即息。此亦时事之适然，非人事之有未尽也。”⁶¹⁾作者不仅对西人的防疫赞赏有加，而且所述的西人防疫举措亦几乎尽为清洁行为。另一则议论虽然未对当时香港的防疫举措未能立即使“疔气潜消”做曲意辩解，但对极力称颂上海租界的防疫，说：“租界中既已辟疫章程，尽善尽美，凡城厢以及南市，推而至于乡村市镇，次第仿照，百密而无一疏，则香港虽祸患难除，此间断不沾染濡毫。”认为，“苟既有疫而始谋

料》2003年第3期，北京：新华出版社2003年，第221-227页。）

58) 上海市档案馆编：《工部局董事会会议录》，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年版，第十一册，第625-627、634-635页。

59) 《辟除污秽示》，《申报》光绪二十年四月廿三日，第3版。

60) 《上海防疫》，《申报》光绪二十年五月初四日，第3版。

61) 《论中西治疫之不同》，《申报》光绪二十年四月廿一日，第1版。

施治，虽良医亦有力难施，诚不如防之于未然，为得诗人未雨绸缪之道也。”指出：“防之之法，奈何？一曰洁清屋宇……一曰清洁道路……一曰清洁食物……一曰清洁用物……以上四端，皆防疫中最要之务。”⁶²⁾ 所举防疫要务，无一不为清洁。

当然，这一认识并不仅仅限于一时一地，此后，每有瘟疫流行，往往都会出现类似的评论。比如，光绪三十三年，营口出现鼠疫，《盛京时报》的一则时评称：

其(指西国)防瘟疫之法，不知几经考验，确有其实据，始谕通国奉行之，而后能奏明效也。东三省督抚与各巡警局，既关心于民瘼，深以恶疫之传染为虑，念及思患预防，必应熟悉列国法则，于瘟疫之始末，为之研究其详，以表示于众庶，施行强迫洁净之法，不令稍行疏虞，庶几补救于万一，可倖免于异日也⁶³⁾。

这些议论显然都从外人的防疫举措中感受或联想到了清洁的重要性。

在租界良好的卫生状貌的刺激、西方和日本卫生资讯的传入以及日趋主动地被接受以及外人防疫实践等因素的影响下，清洁这一古老的词汇无论在用法还是含义上都发生了明显的变化。检诸晚清时期的文献，可以感受到，不仅清洁一词使用频率日渐增高，而且也较少用来描述一个人品行，而主要用来表示洁净。这一点，从我们前面所举的资料中就不难看出。不仅如此，人们关于清洁或洁净的普遍认识也发生了很大的变化，清洁与疾疫的关系不再是人们心目不甚关注甚或模糊的认识，而成了具有近代科学根据的清晰观念⁶⁴⁾，而且，清洁与否不但关乎卫生，还是防疫的重要甚至头等的事务，至少从19世纪末开始，这样的论述在当时的文献中可谓相当常见：

照得卫民以防疫为先，防疫以除秽为本⁶⁵⁾。

卫民之生，莫先清理街道。……臭秽污塞，易染疾病，殊与卫生有碍⁶⁶⁾。

至清洁街道，尤为防疫要务⁶⁷⁾。

伏思各国防疫之法，治本莫要于清洁卫生，治标莫亟于查验消毒⁶⁸⁾。

从当时的报章中，还可以发现，人们在批评国人防疫不尽人事，徒事祈禳时，往往以无视街道的污秽而不加清洁作为不尽人事的证据，比如，

苏州省城子入春来，喉症盛行，入夏又盛行霍乱吐泻疫症，死者不少。据云此症俗名黑螺痧，又名子午痧。居民遂终日以禳醮符篆为事，好事者，异神游行街市，装神饰鬼，恐吓小儿。家家门首

62) 《防患未然疏》，《申报》 光绪二十年五月初一日，第2版。

63) 《论防疫之法》，《盛京时报》 光绪三十三年八月十五日，第2版。

64) 时人往往会以西方的细菌学说解释污秽与疫病的关系，比如《申报》的一则议论指出：“闻之西国岐黄家谓，疫盛行时，有毒虫飞舞风中，中之即染疫症，辟之之法，无他秘诀，惟在居处、饮食事事求其洁清，自能使疫虫无可藏身，疫气消弭于不觉。”（《续防患未然说》，《申报》 光绪二十年五月初五日，第1版。）又如，严复在论述何以疫病源于不洁时说：“容膝之室，夫妻子女聚居其中，所嘘噓者，皆败血之残气；处城闾湫隘之地，为微生疫种之所蕴生，而其人又至愚，与言卫生，彼不知何语。”（甄克思著，严复译：《社会通论》，商务印书馆1981年版，第137页。）

65) 《卫生局示》，《大公报》 光绪三十年正月廿八日，第5版

66) 《苏商总会拟定治理城市卫生简章(光绪三十三年二月)》，载华中师范大学历史研究所、苏州市档案馆合编：《苏州商会档案丛编(1905年—1911年)》（第一辑），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1991年版，第689页。

67) 《民政部奏陈办理防疫情形折》，《盛京时报》 宣统三年二月十六日，第2版。

68) 盛宣怀：《愚斋存稿》 卷十九 《奉直地方防疫拟派医随车查验折(宣统三年正月)》，民国二十八年思补楼刊本，第38a页。

俱贴黄符，画钢叉。官长形同聋瞽，亦不知清街道秽污。天气渐暑，此疫尚不知伊于何底也？⁶⁹⁾

若将这些报道与光绪初年《申报》中的类似报道作一比对的话，时人有关清洁观念的变化则彰显无遗。当时的报道是这样的：

宁波于入正后，其城乡等处复有疫疔流行。……该(苏州)处自去年腊月至今，亦有患此者。一遇此病，便噤口而不能言，宛如中风光景，速则周时，迟则亦不过三日，医家亦莫能实指其症，惟束手以待其自毙已耳。……顾余以为，天定胜人者，亦可人定胜天，苟各人能修省于厥躬而无惭衾影，或转足以驱除疹疔，亦未可知也。若徒事禱禳，则亦何益之有哉。⁷⁰⁾

当时对于清洁之举，几乎是一片赞同之声，就是某些对近代防疫中的检疫颇有微词之人，对于清洁之举，同样是赞赏有加，比如当时《大公报》刊载的一则读者来函说：

至于西人防疫甚严，观其清洁房屋，涤除必勤，稽查市物，腐烂必倾，法良意美，华人昧焉，毫不措意。然其于轮舟出进之时，医官检验之法，却未善也⁷¹⁾。

同时，清洁也不再被视为个人的私事或某种特定行为和当政者值得称道的义举，而被看作是应有行政强制介入的普遍的公共事务，比如当时的一些议论指出：

夫防疫行政，非赖官府强制之力，则民间不易服从⁷²⁾。

噫，民政之行难也，不认真稽查，而徒恃示谕，可乎哉？夫总厅颁发示谕，令人知时疫所由传染，必能预为之防，方可以免于患，言固深切著明矣，然尤非势驭强迫，指示清洁之法，使之实事求是，而无或殆误，则其所谕者，究属空文耳，何实政之足云⁷³⁾？

既然清洁乃卫生防疫之根本要务，而卫生防疫又是关系到健身强种的大事，同时，个人的健康、种族的强壮，乃为国家强盛的前提，就此，清洁对于国家民族的重要性，已不言而喻了。毫无疑问，清洁事物早已不再是无关国家宏旨的个人细务，而是被推到了一种相当崇高甚至神圣的地位。当时的一些议论往往将清洁与否看做是民族盛衰的原因与表征。比如20世纪初报端的一则议论将“迷信与不洁”视为造成当前中国衰微的主因，不过，两者“虽同为亡国灭种之大端，而就二者之中，较其轻重，则似乎迷信尚可，而不洁必不可”，因为“不洁之习，危害至大，而其故最无以自解。其最可怪者，观其人秽净之程度，即可得其盛衰之概”⁷⁴⁾。

污秽不洁不但有碍卫生，应予强制清除，而且也成了被鄙视的对象。进而，不洁已被赋予了某种象征意义，比如，当时一篇讨论洁净的文章称：

(洁净的好处)头一节，与卫生有益，可以坚强身体，加增智慧。第二节，能振作人的精神，可以

69) 《瘟疫流行》，《大公报》光绪二十八年六月初一日，第5版。

70) 《苏垣时疫》，《申报》光绪元年正月廿一日，第3页。

71) 《疫症杂说汇志》，《大公报》光绪二十八年六月廿七日，附张。

72) 《民政司张贞午司使亲临防疫会演说词》，《盛京时报》宣统二年十二月二十日，第3版。

73) 《论防疫之法》，《盛京时报》光绪三十三年八月十五日，第2版。

74) 《论中国人之不洁》，《中外日报》1903年10月31日，转引自张仲民：《卫生、种族与晚清的消费文化——以报刊广告为中心的讨论》，《学术月刊》2008年第4期。

免去懶惰。第三节，脏净分清，能使人作事有次序，肮脏邈邈的人，与这三节全相反。

肮脏邈邈，不讲究洁净的人，身体必不坚强，智慧必不灵敏，因循懒惰，作事毫无精神，脏净不分，动作毫无次序。影响与一身一家一国，全有极大的关系⁷⁵⁾。

在这里，清洁与否不仅关乎卫生，而且还直接与智力与品行相联系。清洁显然有些被神圣化了。

需要指出的是，这些虽然可能多为当时精英人士的认识，不过通过当时的白话的解说、告示以及小说，已经开始逐步向下层民众渗透。比如前举丁国瑞有关洁净的议论就是由白话写成。当时一部专门的卫生小说也介绍说：

至于平常卫生的法则，尤与疫病有关系，今试将要紧数条，讲给你听听：第一要戒不洁，凡这疫虫的来路每每隐伏那污埃秽尘之内，人苟有隙缝可进，他即乘势而入，所以住宅之内，宜时时洒扫，内外衣服，宜常常洗涤，厨房之中，万要清洁，那些腐败及隔宿的食物，断断不可入口，坑厕不可接近，粪溺更当除净，庶几恶毒新疔气，无路可入，是为免疫⁷⁶⁾。

综上所述，可以看到，晚清时期，随着西方文明影响的日渐加剧和国内局势的变动，清洁和清洁问题也不再像以前那样，较少受到关注，清洁成了一个使用频繁，基本专指洁净的词汇，清洁问题也成了人们观念中防疫卫生的关键甚至头等要务，进而被视为关乎国家和民族兴亡的大事。清洁甚而渐渐开始超越防疫卫生的范畴，而被赋予了文明、进步的隐喻。从19世纪末以后，“清洁”的倍受推崇，一方面固然与清洁在西方近代的卫生观念和制度中占有重要地位以及相对更注重清洁的日本卫生行政对中国影响较大有关，另一方面更与中国自身的状况有关：首先，不洁可能导致疾疫乃是中国就有的观念，西方文明中这部分认识与中国旧有观念具有衔接性，相对容易被国人接受。其次，与“文明”、“发达”的西方诸国及日本相比，中国的清洁卫生状况明显不良，这也使得国人对解决清洁问题更感迫切，民初身在日本彭文祖在讨论卫生时，痛感中国缺乏必要的清洁，而特别主张，“先以清洁二字为卫生之主，有清洁而后有健康，非奢谈卫生即可获健康也。”⁷⁷⁾清楚地说明了这一点。最后，也因为将清洁视为摆脱民族危亡的举措中的重要一环，而且清洁与否不仅关乎卫生，而且象征文明、积极向上，甚至关乎“国体”⁷⁸⁾。故而也就更加突出清洁的重要性。

IV. 结语

一般认为，近代以来逐渐形成欧洲的现代卫生制度乃是现代化的重要内容，而且其对挽救人类生命中的作用并不亚于近代医学科学的发展。不过，近二三十年以来，随着对现代社会新的环境卫生问题日渐增多以及后现代思潮的兴起，在国际学术界，对这一制度形成实践过程中，制度背后的权

75) 丁国瑞：《论洁净的益处(见光绪三十三年十二月二十二日第一百三十八号竹园白话报)》，载丁国瑞：《竹园丛话》第三集，天津敬慎医室1923年版，第67-75页。

76) (清)儒林医隐编：《医界镜》第六回《张善人卫生谈要略 钱塘县签票拿名医》，呼和浩特：远方出版社、内蒙古大学出版社2001年版，第37页。

77) 彭文祖：《盲人瞎马之新名词》，东京：秀光舍1915年版，第170页。

78) 当时的一则倡导街衢整洁的评论认为道路的整洁有三善，首善即为“壮国体”，并引薛福成的日记为证，说：“薛福成日记称，比国都成，街道因整精洁，德国柏林城中，街衢宽阔，道路整洁，望而知为振兴气象。”(《金甸丞工部平治街道沟渠议》，《集成报》光绪二十三年五月廿五日，第六册，北京：中华书局1991年影印本，上册，第297页。)

力关系和制度本身的反省也日渐增多。不过，在中国，无论在史学研究还是现实操作中，这样的省思基本均未展开。在目前的卫生史研究中，“近代化叙事”模式无疑占据主导地位，在这一模式中，大家主要关注和着力呈现的乃是近代以来，中国是如何在西方的影响和中国有识之士的努力下，克服困难，破除迷信，开启民智，努力引入并实践或创造性地实践西方和日本的卫生行政体制。就清洁问题而言，无论在历史的论述中还是现实中，清洁崇高深而神圣的地位都未曾有任何质疑，不洁不仅有碍卫生，还受人鄙夷。在现代的防疫策略中，清洁依然是其中重要的内容。在今日中国，与发达国家相比，环境和个人的清洁似乎也仍具有相当大的改进空间。显然，近代清洁机制在中国形成的历史意义和现实价值是不可否认的。本文自然无疑于做诸如此类的否定，而只是希望通过对尽可能全面细致呈现这一历史进程表明，清洁与卫生之间的紧密关系并非是天然的、不言而喻的。晚清以降，清洁重要性被突出和强调，无疑跟当时中国在强势的西方的冲击下，整个社会强烈的求变图强、求新求洋的心态和愿望分不开的，当时有关清洁的认识，显然已经超出纯粹疾病医疗的范畴，而被太多政治、文化意涵，我们应该有理由进一步质疑，对于防疫和健康来说，清洁的重要性和必要性是否真是不证自明的吗？

청결과 위생

- 만청 청결 개념의 변화 -

余 新 忠 (南開大學校)

〈목 차〉

- I. 서 론
- II. 전통적인 인식에서의 청결과 전염병
- III. 위생방역 관점에서의 청결관
- IV. 결 론

I. 서 론

오늘날 청결에 대해 말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보건, 건강 등 개념과 연관지을 것이다. 청결이란 즉, 깔끔함, 깨끗함¹⁾을 말하며, 깨끗하다는 것은 위생, 나아가 건강²⁾까지 보여준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는 두말할 필요 없는 상식일 것이다. 청결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어휘로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근대 이전 청결의 의미는 매우 풍부해졌고, ‘보건’ 또는 ‘섭생’과 연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뒷 문장 참조), 그렇다면 근대의 ‘청결’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그러나 오늘날 청결은 거의 위생을 의미하고, 청결, 위생을 유지하여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일찍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과학 상식이 되었다. 비록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천성이고 다른 문화 속에서도 청결을 추구하는 풍속이 적지 아니 발견되고 있지만, 불결함은 전염병과 같고, 전염병 예방은 반드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역사 속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마도 답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청결과 위생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만청시기에야 비로소 중국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1) 현대 중국어에서 깨끗함과 정갈함은 기본적으로 청결의 유일한 뜻이다. 『신화사전(新華詞典)』에 “청결”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설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결” 항목에 “깨끗하다. 예: 청결, 결백”라고 해설하였다. (상무인서관, 1998년, 451쪽) 최신판 『사해(辭海)』에서는 “청결”을 두 가지로 해설하고 있다. 1,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다. 예: 위생 청결에 주의하다.” 2, “생사(生絲)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 (축약본 [음서(音序)], 상해사서출판사(上海辭書出版社), 2002년, 1359쪽) 두 번째 뜻은 일상 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청결은 바로 깨끗하고 정갈하다는 뜻으로, 이는 보건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청결과 보건위생을 상호 연관을 시키거나 심지어 서로 혼동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생긴 것으로, 서양의 근대적인 위생 개념과 메커니즘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결과 보건위생의 상호 연관 혹은 혼동되는 과정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Jean-Pierre Goubert, The Conquest of Water: The Advent of Health in the Industrial Age, Translated by Andrew Wilson, Cambridge: Polity Press, 1989, pp34-51

이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게 되었을까?

상술한 문제에 따라서 필자는 중국의 청결 관념이라는 문제에 대한 사고와 탐색을 시작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이 탐색은 보건사의 틀에서 진행되었고, 중국 근대의 위생사(衛生史) 연구는 해외의 중국사학계(中國史學界)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가 보고되었고,³⁾ 최근에도 국내 사학계의 주목을 (점점 더) 받고 있다.⁴⁾ 그러나 과묵한 탓으로 현재 청결의 관점에서 중국 근대 보건의 변천에 대한 연구는 보지 못했고, 이와 관련된 것은 줄고 『중국 근대의 분노와 오물 처리 및 그 변화—근대 공공보건 관념의 형성』⁵⁾이다. 해당 논문에서는 전 근대 중국 도시의 분노, 오물 처리 방법 및 서양 영향 하에서의 변동 과정을 살폈고, 또한 도시의 청결 욕구의 근대 공공 보건 관념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촉진 작용을 논하였다. 본문에서는 사회와 문화의 두 가지 관점에서 중국 근대 방역기제의 건립 과정 가운데서 전통적인 청결 관념이 어떻게 ‘근대화’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적해독 것은 청결에 관해 일본인 오노 요시로(小野芳朗)는 『청결한 근대: ‘위생가’에서 ‘세균상품’까지(清潔の近代: 從 “衛生唱歌” 到 “抗菌商品”)』라는 책에서 환경공학자로서 현대 환경 문제의 숨겨진 근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근대 이후 일본이 점차 ‘청결하고 건강한 국가’⁶⁾가 되어가는 과정을 주시하였다. 비록 이 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의 문제이고 청결의 개념과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필자의 청결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Christopher Hamlin의 영국 Chadwick 시대의 공중 위생 중 위생의 ‘근대성’에 대한 깊은 고찰⁷⁾ 역시 필자의 생각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I. 전통적인 인식에서의 청결과 전염병

청결은 오래된 어휘로 선진(先秦)시대의 『한비자(韓非子)』에도 이미 이 단어가 있다. 『외저설좌하(外儲說左下)』에 “양쪽의 말을 잘 판별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清潔于貨) 세

3) 필자가 일찍이 『청대 강남의 보건위생 개념과 행위 및 근대에서의 변천 탐구—환경과 물을 사용한 보건위생을 중심으로(清代江南的衛生觀念與行為及其近代變遷初探——以環境和用水衛生爲中心)』(『청사연구(淸史研究)』, 2006년, 제2기, 12-26쪽)의 서론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논하였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4)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논문 이외에도 이제 막 출판된 두 권의 저서—양니엔쥘(楊念群)의 『“환자” 재생 — 중국과 서양 의학 충돌 하에서의 공간 정치(1832-1985)(再造 “病人” ——中西醫衝突下的空間政治(1832-1985))』와 장따칭(張大慶)의 『중국 근대 질병 사회사(1912-1937)(中國近代疾病社會史(1912-1937))』(산둥교육출판사, 2006년)에서 모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 중국 근대 공공 위생 방역 건립 문제를 논하였다.

5) Yu Xinzong, “Treatment of Night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in Angela Ki Che Leung eds. *Health and Hygiene in Modern Chinese East Asia*, Duke University Press, 2008, forthcoming.

6) 오노 요시로(小野芳朗) 『清潔の近代「衛生唱歌」から「抗菌グッズ」』, 도쿄, 講談社, 1997.

7) Christopher Hamlin, *Public Health and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Chadwick: Britain 1800-18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상 물정을 잘 압니다. 제가 신엔상만 못하니 그를 사법을 관장하는 대리로 세우십시오.(清潔于貨) 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의 청결은 ‘재물을 횡령하지 않는’, 즉 ‘청렴’⁸⁾의 의미이다. 그러나 청(淸)의 원래 의미는 ‘물이 맑은 모양’⁹⁾으로, 즉 맑다는 의미이다. 청(淸)과 결(潔)을 나란히 쓰면 깨끗하다는 뜻으로, 이 역시 청(淸)의 원래의 뜻에 속한다. 어쨌든 『사고전서(四庫全書)』(전자판)을 살펴보면 한(漢) 이후 청결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가 점차 많아 진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한(東漢)의 신수왕(荀爽)이 『주역(周易)』의 정괘(井卦)에 주해를 달 때 ‘제거하다. 더러움을 없애다. 청결의 의미’¹⁰⁾라고 한 것처럼 그 중에는 때로는 청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 내포된 의미는 분명히 지금 처럼 단순하지 않다.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에 따르면 그 뜻은 다섯 가지가 있다. 1, 결백하고, 깨끗하여 오염되지 않다. 2, 청렴 결백하다. 3, 일소하다. 4, 명확하고 분명하다. 5, 매우 맑고 상쾌하다.¹¹⁾ 하지만 『사고전서(四庫全書)』 검색 결과 전체적으로 1번부터 3번 항목까지의 용법이 비교적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깨끗함을 나타내는 상황은 어떤 사람의 청렴한 품행을 표현하는 상황보다는 매우 적은 듯하다. ‘벼슬에 있으면서 청빈하여 분수를 지킨다’¹²⁾와 ‘나는 절개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¹³⁾와 같은 표현이 한나라(漢)와 당나라(唐) 이후의 역사책에서 매우 자주 보인다.

근대 이전 ‘청결’은 환경과 인체의 청결을 나타내는 의미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매우 적게 사용되었다. 게다가 ‘청결’과 위생 혹은 양생(養生)을 연관시키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옛날 사람들이 청결 여부가 질병의 상관관계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당나라와 송나라 이후의 문헌에서는 깨끗하지 않으면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왔다. 예를 들어 :

하수도가 막히면 모든 곳이 더러워지고 집집마다 습기가 차니, 사람의 혈기가 이것을 접하면 기가 통하지 않고 막혀 병이 생기게 된다. 지금 길을 뚫고 넓혔으나 여전히 청결한 곳이 없고, 외진 골목에서는 코를 막고 빨리 지나가야 한다. 이러하니 어찌 병에 걸리지 않겠는가.¹⁴⁾

초봄에 반드시 외양간에 쌓인 명석과 분뇨를 다 제거해야 하는데 반드시 봄일 필요는 없다. 단지 열흘에 한 번만 제거하면 더러운 기운이 많아져 전염병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다.¹⁵⁾

하수도가 잘 통하면 집이 깨끗하고 더러운 기운이 없어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다.¹⁶⁾

8) 루어주평(羅竹風) 주편 :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축약본), 상해, 한어대사전출판사.

9) 수신청(舒新城) 주편 : 『사해(辭海)』(합본), 상해, 중화서국(中華書局), 1947년, 802쪽.

10) 리딩쭈어(李鼎祚) : 『주역집해(周易集解)』 권10 『정(井)』,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1989년, 159쪽.

11) 루어주평 주편 :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축약본), 중권(中卷), 3298쪽.

12) 쟡차오(鄭樵) : 『통지(通志)』 권139, 『열전 제52·양공칙(列傳第五十二·楊公則)』, 절강고적출판사(浙江古籍出版社), 2000년, 2191쪽.

13) 지에진(解縉) 등 : 『고금열녀전(古今列女傳)』 권3, 『송(宋)』, 『사고전서(四庫全書)』에 실려있음. 타이베이(台北),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1986년, 제452책, 112쪽.

14) 송(宋)·어우양서어파오(歐陽守道) : 『손재문집(巽齋文集)』 권4, 『서·왕지저우와 군정서를 논하다(書·與與王吉州論郡政書)』, 『사고전서(四庫全書)』 수록, 1183책, 539쪽.

15) 송·천푸(陳旉) : 『농서(農書)』 권 중(中), 『우설(牛說)』, 『사고전서(四庫全書)』 수록, 제730책, 184쪽.

기유년(홍치(弘治) 2년, 1489), 축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이 마치 개미처럼 도시로 유입되었다. 공(公)은 성 안 10여 곳에 넓은 방을 짓고 죽을 쑂아 그들에게 먹였으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부지런히 그 더러움을 청소했다.……¹⁷⁾

하루는 거리를 가꾼다. 거리가 더러우면 질병이 생기기 쉽고 기근과 전염병은 서로 따르니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마땅히 거리를 깨끗이 가꾸 전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¹⁸⁾

감옥의 일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명령하니, 말 하자면 감옥은 중요한 곳으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니, 감옥을 통솔하는 관리는 매일 새벽 간수들을 인솔하여 청소하고 청결해야 한다. 더러운 기운이 사람에게 닿아 질병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¹⁹⁾

길흉을 점쳐서 거처를 정할 때 가장 신중해야 한다. 집의 크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쾌적하고 통풍이 잘 시키고 청결히 청소해야 한다.²⁰⁾

이처럼 결코 자주 볼 수 없는 사료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근대 이전에 중국인들은 이미 불결함과 질병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 환경이나 가정 환경, 더 나아가 개인 위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도 일치한다. 필자가 청대 강남을 중심으로 전염병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인식을 고찰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전염병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일종의 나쁜 기운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사계의 기운이 바르지 않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나쁜 기운은 바르지 않은 사계의 기운에 병의 기운과 죽음의 기운 그리고 기타 더럽고 혼탁한 기운이 혼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주로 ‘더러운 기운이 혼증되어’, 즉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²¹⁾ ‘더러운 기운이 혼증되어’ 질병의 전염을 유발한다면 당연히 더러움을 씻고 청결하게 하여 더러운 기운을 제거하는 것이 전염병을 피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예들을 봤을 때, 청결이 이미 당시 사람들의 중요한 방역조치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질병에 관해 관부(官府)나 지방 사회에서는 모두 의사를 부르거나 관련 국(局)을 설치하여 치료를 하고 약을 보내거나 의서를 발행하거나 기도하거나 액막이 기원하는 하는 등의 일 밖에는 하지 않았다.²²⁾ 위에서 이야기 한 자료 중 재해

16) 원(元)·이명(佚名) :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사용되는 사류 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 정집(丁集), 『주택·하수도(宅舍·溝瀆)』, 『북경도서관 고적 진본 총간(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書刊)』, 베이징, 서목문헌출판사(書目文獻出版社), 1988년, 제61책, 135쪽.

17) 명(明)·루어치(羅玘) : 『구봉집(圭峰集)』 권18, 『고 도찰원 우부도어사 사공 행장(故都察院右副都御史謝公行狀)』, 『사고전서(四庫全書)』 수록, 제1259책(冊), 244쪽.

18) 청(淸)·웨이시(魏禧) : 『구황책(救荒策)』, 리원하이(李文海)와 샤밍팡(夏明方)의 『중국 황정 전서(中國荒政全書)』 제2집 제1권 수록, 북경고적출판사(北京古籍出版社), 2004년, 17쪽.

19) 청·링밍린(凌銘麟) : 『신편 문무 금경 율예 지남(新編文武金鏡律例指南)』 권1 『감문시(監查門示)』, 『사고전서 존목 총서(四庫全書存目叢書)』 수록, 제남, 치루서사(齊魯書社), 1997년, “사부(史部)” 제260책, 제298쪽.

20) 청·왕쓰송(王士雄) : 『수이시취 콜레라론(隨息居霍亂論)』 권 상(上), 차오빙장(曹炳章)이 교정 발행한 『중국 의학 대성(中國醫學大成)』에 수록, 베이징, 중국중의고적출판사(中國中醫古籍出版社), 1995년, 4책, 제667쪽.

21) 줄고 참조 : 『청나라 사람의 전염병 인식 탐구——강남 지역을 중심으로(淸人對瘟疫的認識初探——以江南地區爲中心)』, 『중국 사회 역사 평론(中國社會歷史評論)』 제3권, 베이징, 중화서국(中華書局), 2001년.

가 있던 해에 더러움을 없애 방역을 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특수한 일부 사람들(굶주린 백성, 유민, 죄수)에 대한 특정 행위였을 뿐이지 결코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방역 작업은 아니었다. 어우양서우따오(歐陽守道)와 웨이시(魏禧)의 예에서 해자를 준설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을 방역 조치로 볼 수는 있지만, 그 근간은 단지 위정자에 대한 선비의 기대와 건의일 뿐, 보편적인 실제 행동은 아니었다. 실제로 웨이시와 같은 건의는 근대 이전에는 그다지 언급되지조차 않았으니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²³⁾ 비록 관부와 지방 사회가 비록 종종 해자를 준설하기는 하였지만 그 목적은 아마도 주로 수리와 교통 및 방화 등이었을 것이다. 질병 예방은 단지 그 중의 하나, 심지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목적 중의 하나였으며, 관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직책도 아니었다. 지방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결여된 개별 행위였던 것이다.²⁴⁾ 따라서 가옥과 하수도 청결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이 개인을 향한 건의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순수한 것만을 골라’ 이루어진 명확한 개념을 구체적인 역사의 시공 속에서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결국 더러움과 질병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청결이 특별히 주목을 받은 경우는 비교적 적었다. ‘더러운 것을 먹고 보살 노릇을 한다.’와 ‘깨끗하지 않아도, 먹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와 같은 익숙한 민간 속담들이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주고 있다. 게다가 선비들 역시 불결한 것을 모두 배척하지는 않았다. 위진(魏晉)의 사회 분위기 속에 ‘이를 잡으며 이야기 하는 것’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백거이(白居易)는 일찍이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 때가 온 피부를 덮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왕안석(王安石) 또한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늘 온 몸이 더럽고 발에는 흙을 묻힌 채로 잠자리에 들어 부인이 그와 동침하기를 싫어했다. 한 번은 조정에서 이 한 마리가 왕안석의 옷깃에서 나와 수염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황제가 크게 웃어, 황제를 알현한 이 이는 보물이 되었다.²⁵⁾ 이러한 예들을 통해 물론 옛날 사람들이 전혀 청결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청결이 지금처럼 중요하게 건강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22) 참고 참조: 『청대 강남의 전염병 구호 사업 탐구——전염병에 대한 청대 국가 및 사회의 반응(清代江南疫病救療事業探析——論清代國家與社會對瘟疫的反應)』, 『역사연구(歷史研究)』 2001년 제6기, 제45-56쪽.

23) 참고 참조: 『청대 강남의 위생 개념과 행위 및 그 근대 변천과정 탐구——환경과 용수 위생을 중심으로(清代江南的衛生觀念與行爲及其近代變遷初探——以環境和用水衛生爲中心)』, 제13-14쪽.

24) 참고 참조: 『청대 강남의 위생 개념과 행위 및 그 근대 변천과정 탐구 청대 강남의 보건위생 개념과 행위 및 근대에서의 변천 탐구——환경과 물을 사용한 보건위생을 중심으로(清代江南的衛生觀念與行爲及其近代變遷初探——以環境和用水衛生爲中心)』, 제14-15쪽.

25) 쉬커(徐可)의 『옛날 사람의 청결과 불결(古人的潔與不潔)』, 『베이징사범대학보(北京師範大學報)』 2006년 4월 20일 제4판 참조. 이 문장은 자오센하이(趙獻海) 박사가 제공해주셨으며, 감사의 뜻을 표한다.

26) 이러한 옛날과 현재의 개념 차이는 서양에도 존재한다. 심지어 서양에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다니엘 로스의 연구는 “장시간 동안 냄새가 나는 사람이 힘과 부유를 의미했음을 많은 속담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분노의 악취로 전염병에 대항했다. 대문 입구에 분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상징했다. 이는 약혼녀가 얻을지도 모르는 유산을 측정하는 신뢰할 만한 징표였다.”라고 지적했다. (Daniel Roche 저, 우땡(吳浬) 역: 『일상사의 역사—전통 사회에서의 소비의 탄생(17세기 초-19세기 초)(平常事情的歷史—消費自傳統社會中的誕生(17世紀初—19世紀初))』, 티엔진(天津), 백화문예출판사(百花文藝出版社),

이를 통해 더러움에 대해 옛날 사람들이 현대인들처럼 민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전염병에 대한 인식에서 사람들이 주로 피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나쁜 기운이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나쁜 기운에 대한 예방에 있어서도 청결은 결코 주력하는 부분이 아니었다. 청나라의 저명한 전염병 학자인 리우쿠이(劉奎)의 전염병에 관한 글 중에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전염병의 유행에는 모두 나쁜 기운이 있어 병을 조장한다. …… 무릇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해에는 시체가 온 들을 뒤덮어 악취가 하늘을 찌르니, 사람이 그것을 접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또한 병을 수발하고 장례를 치르니 그 기운의 더러움이 또 매우 커서 막을 수가 없다. 대저 사람이 매일 이 두 가지 기운과 서로 익숙해지나 또 어찌 병에 걸리지 않겠는가! 어찌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약을 복용하니 효과가 없으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 두 사람에게 불과하고, 나쁜 기운에 빠진 사람이 매우 많아 줄어들 기미가 없으니 어찌 두렵지 아니한가! 이에 만 명의 사람이 왼쪽에 병렬하니, 만약 전염병이 난 곳이라면 과연 능히 가지고 있던 것을 태우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기운이 조용히 사라지지만, 고질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²⁷⁾

리우쿠이는 나쁜 기운이 전염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지 의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가지고 다니던 전염병을 피하는 약재를 태우는 것을 의미하였다. 전염병 예방약과 같은 약을 사용해 병을 예방하는 것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의 보편화된 관념이었다. 단지 일반적으로 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더러움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다.²⁸⁾ 이로써 당시 사람들의 사고의 중점이 결코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환경을 청결히 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에 어떻게 더 잘 적응해 여유로운 생활을 할 것인가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전통적인 시기에 청결은 매우 많은 뜻을 내포한 어휘로써, 깨끗하다는 뜻은 단지 그 용법 중의 하나에 불과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 항목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더러움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청결이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 이미 수립되어 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아니었으며, 더 나아가 광범위한 실제 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결과 위생 역시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청결은 방역의 중요한 조치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관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직무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공의 의제와 행위였다고는 더더욱 말 할 수 없다.

2005년, 194-195쪽)

27) 리우쿠이(劉奎): 『송봉설역(松峰說疫)』 권2, 베이징, 인민위생출판사(人民衛生出版社), 1987년, 63쪽.

28) 전통과 근대 방역 개념의 변화에 관해서는 줄고 참조: 『전염병을 피하는 것에서 전염병을 방지하는 것까지: 만청 전염병 개념의 변화(從避疫到防疫: 晚清因應疫病觀念的演變)』, 『화중사범대학 학보(華中師大學學報)』, 2008년, 제2기.

III. 보건방역 관점에서의 청결관

비록 전통 시기에 청결이 방역 행위 가운데서 중점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전통 사회에서 주로 사회와 시장이 주도하고 국가와 행정 개입의 결여되어 있던 분뇨 처리 시스템 하에서의 열악한 도시 위생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종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도시 환경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콜레라가 유입되어 전염되자, 가도(嘉道) 이후 적어도 강남 지역에서는 하수 오염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분뇨 처리 시스템을 바꾸거나 전통적인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는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²⁹⁾ 만청 시기 분뇨 처리 시스템의 변화처럼 근대 방역 위생의 관점에서의 청결관 역시 서구문명의 영향을 받아 점차 형성되었다.

중국인들이 열악한 도시 환경 위생 상황 때문에 점차 하수 등의 오염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것과 연관되어 서구문명이 중국인들의 눈 앞에 펼쳐졌을 때 청결 문제는 매우 빠르게 중국인들의 관심을 얻었다. 가장 먼저 중국인들에게 자극을 준 것은 조계(租界)의 위생과 그 조계와 화계(華界)의 선명하게 대조되는 도시 위생 상태였다. 근대의 가장 중요한 상하이 조계의 경우, 개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하이의 식민 통치자들은 전문적인 위생 관리 인원과 기구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1870년대 초에 이르러 공부국(工部局)이 행정 개입하여 전문적인 감시 인원과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 분뇨 처리 시스템을 대략 완성하였다.³⁰⁾ 이로써 조계는 비교적 정갈한 도시 환경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불결하고 지저분한 상하이 시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당시 일부 사람들의 관심과 논의를 유발하기까지 하였다. 비교적 초기에 출판된 『신보(申報)』를 살펴보기만 해도 도시의 청결 문제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

상하이의 각 조계 안은 길이 반듯하고 낭하의 처마가 깨끗하다. 모든 오물과 속옷은 밖에 내 놓아서는 안되며 먼지와 쓰레기를 쌓아 놓아서는 안 된다. 간혹 오물과 잡동사니 같은 물건을 버리면 장부(長夫)가 책임지고 돌아다니며 치운다. 따라서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을 필요가 없으니 통행의 편의를 이미 얻은 것이다. 심지어 간혹 끼지거나 진창이 된 노면이 있으며 즉시 독사공(督石工)이 수리를 한다. 더운 날이면 종종 마른 먼지가 날아다니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항상 살수차(設水車) 이를 위해 물을 뿌린다. 물이 고여 물에 잠길까 염려해서 도처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그 물을 흘려 보낸다. 오물이 혼증될까 염려해서 새벽에 똥지게꾼을 부려 그 오물을 내보낸다. 대개 공부국이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바로 공부국이 평민들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다. ……상하이 시내와 비교해보니 더러운 공기와 진창인 길이 바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폭염일 때 더

29) 참고 참조 : “Treatment of Night 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 『청대 강남의 보건위생 개념과 행위 및 근대에서의 변천 탐구——환경과 물을 사용한 보건위생을 중심으로(清代江南的衛生觀念與行為及其近代變遷初探——以環境和用水衛生爲中心)』, 제18-20쪽.

30) 참고 참조 : “Treatment of Night 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

욱 청결해야 대체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데 황폐하게 방치하고 옷통을 드러내놓고 다니도록 방치하는가? 시류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내 말이 옳다고 여기는가?³¹⁾

이러한 논의는 초기 『신보(申報)』에 매우 자주 나타났다. 그들은 종종 조계와 비교해가며 도시 환경과 수질 오염이 전염병 유행의 중요한 원인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지방 관리들에게 조계처럼 거리를 청결히 하고 생활용수 위생을 지킬 것을 호소하였다. 앞의 논의에서 더러운 환경과 수질이 전염병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 당시 중국에서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근대 이전에 이미 종종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이러한 논의들이 누군가 삼대(三代) 『주관(周官)』의 정치까지 거슬러 올라가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세 중국인들이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조계와 서양인의 정치에서 그 사상적인 자원을 찾았다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이 전통적으로도 있기는 하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집중적이고 전문적이며 상세하게 논의하고 전염병 예방에 위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의 직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전통적 인식의 기반 위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비교를 통해 청결을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과 청결과 전염병에 관한 전통적 개념이 모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계의 상황과 서양인들의 청결한 행동은 당시 중국인들에게 직접적이고 강렬한 자극이 되었다. 또한 매우 신선한 서양식 분노 처리 시스템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환경을 청결히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시 많은 서양인들의 중국인의 불결함에 대한 묘사와 비평을 통해서도 이러한 자극을 받았다. 20세기 중반, 서양의 19세기 서양인의 중국관에 대한 연구에서 “서양인의 비평을 받는 중국인의 또 다른 결점은 위생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중국 도시의 위생과 청결 상태는 서양보다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작가들은 늘 중국 거리의 더러움을 묘사한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실제로 매우 많다.³²⁾ 예를 들어 :

한 작가가 일찍이 “상하이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돌아본 후 그는 정말이지 빨랫줄에 매달려 일주일 동안 환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티엔진의 더러움과 견딜 수 없는 냄새는 더 심하며, 베이징 역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리마다 오물이 많아 혐오감을 일으킨다. 위생 조건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조차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외국인도 잘 가지 않는 내륙의 도시는 어떻겠는가?³³⁾”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 역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 가슴 아프게 생각했으며, 20세기 초 한편의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31) 『조계 거리 청결설(租界街道清潔說)』, 『신보(申報)』 동치(同治) 11년 6월 15일, 제1면.

32) M. G. Mason 저, 양더산(楊德山) 역 : 『서양의 중국관 및 중국인관(1840-1876) (西方的中國及中國人觀念(1840-1876))』, 중화서국(中華書局), 2006년[1938년]판, 제192쪽.

33) John L Stoddard 저, 리타오(李濤) 역 : 『1897년의 중국(1897年的中國)』, 산동화보출판사(山東畫報出版社), 2004년, 78쪽.

오호! 중국은 불결함으로 세상에서 유명하다. 외국인들의 여행기를 보니 “거리가 어둡고 습하며, 시내에 들어가면 악취가 코를 찌르고, 조금만 걸으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 라고 하지 않은 여행기가 없다. 오호라!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얼마나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는가. 내가 그래서 말하니 “중국이 개혁을 하지 않으려면 모르되 이미 개혁을 하고자 하니, 반드시 스스로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화에서 이길 수 없으니 또 어찌 열강과 대항할 수 있겠는가?”³⁴⁾

이러한 안팎의 충돌과 아래에 나오는 두 가지 측면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은 청결과 위생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기 시작했으며, 또한 점차 집중적으로 방역 위생의 측면에서 청결을 이해하고 “청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서양문화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특히 광서(光緒) 원년 이후 서양 더 나아가 일본의 근대 “과학” 적인 위생학 지식 또한 서양의 번역 작품 및 중국인의 여행기 등과 같은 저서를 통해 점차 더 많이 중국에 유입되었다.³⁵⁾ 위생학의 여러 측면이 소개되었으며, 그 중 청결 방역에 관한 내용도 매우 많았는데 모두 위생의 관점에서 청결을 논한 것임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광서 2년에 발간된 『격치회편(格致匯編)』의 『격치논략·인류 성정과 원류론(格致論略·論人類性情與源流)』에 청결에 관한 상세한 논술이 실려있다.

제276, ……신체 각 부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각 부위의 이치와 직무를 알아야 한다. 만약 각 부위가 그 직무를 따르고 전신이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4가지 사항이 있다. 공기, 음식, 운동, 청결이 그것이다

제281, 청결은 또한 보신에 있어 중요하다. 매일 혹은 이삼 일에 한 번 전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 입으면 피부가 땀을 내는 것과 같은 본연의 직무를 따를 수 있고, …… 거처하고 있는 집 역시 반드시 건조해야 하고 매일 여러 차례 청소를 하며 자주 통풍을 시켜야 한다. 무릇 악취가 나는 물건을 집안에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거리는 매일 청소해야 하며 모든 쓰레기는 먼 곳으로 옮겨 비료로 사용해야 한다. 무릇 도시에는 하수구가 모든 집의 앞뒤에 있어야 하고, 많은 물을 자주 하수구에 내려 보내면 각종 악취를 면할 수 있다.³⁶⁾

광서 8년(1882년)에 번역되고, 그 다음 해 광저우(廣州)에서 출판된 『위생요지(衛生要旨)』(자위에한(嘉約翰) 번역) 역시 가정과 시골의 위생 책임을 논술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집의 안팎을 때마다 청소하고 더러운 물건을 쌓아두면 안되며, 분노는 매일 먼 곳에 쏟아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에서 사용하는 물은 깨끗해야 하며, ……³⁷⁾

34) 『장쑤(江蘇)』 제3기, 1903년 7월, 제78-79쪽.

35) 광서 초기 서양 위생학 지식의 중국 유입 상황은 줄고 참조: 「清末における「衛生」概念の展開」, 『동양사연구(東洋史研究)』 제64권 제3호, 2005년 12월, 제115-123쪽.

36) 보란야(傅蘭雅) 편집: 『격치회편(格致匯編)』, 광서 2년 2월, 광서 7년 격치회편관간본(格致匯編館刊本), 제4a-5b쪽.

37) 자위에한(嘉約翰) 통역, 하이친쓰(海琴氏) 교정: 『위생요지(衛生要旨)』, 광서 9년본, 제35a쪽.

광서 16년(1890년)에 다소 늦게 출판된 『거택위생론(居宅衛生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사람이 많은 곳은 하루에 버려지는 분뇨가 많아 만약 방법을 강구해 없애지 않는다면 필시 거리를 더럽혀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게 되니 위생에 방해가 된다. 부득이 반드시 방법을 세워 그것을 처리하여 민생을 이롭게 한다.³⁸⁾

이러한 글들은 청결이 개인의 양생(養生) 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또한 공공 방역 사업으로 국가가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에 외국에 간 일부 문인과 사신들이 비록 일본의 나가요 센사이(長與專齋)가 구미를 시찰했을 때처럼 서양의 위생 행정 제도에 많은 관심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서양 및 일본의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³⁹⁾ 또한 관련 위생 시스템을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황준시엔(黃遵憲)이 광서 13년(1887년) 탈고한 『일본국지(日本國志)』에서

“무릇 분뇨를 거리에서 치우고,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를 소탕시키고, 우물과 부뚜막을 청결히 하는데, 모두 부현관과 경찰관을 감독하고 명령하여 그 지방 백성들로 하여금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더러움을 청소하도록 하였다.”⁴⁰⁾ 라고 일본의 위생국(衛生局)을 소개하였다. 장더이(張德彝) 역시 광서 14년의 유람기에 독일의 위생 제도를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 그 중 청결을 언급한 내용이 적지 않다.

독일은 전염병이 전파되어 일찍이 방법을 강구해 예방한 적이 있는데, 최근 더욱 세세하게 고려하여 총국(總國)에 공서(公署)를 설치하여 이 일을 전담하게 하니 이를 어재사(御災司)라고 한다. ……무릇 전염이 되기 쉬운 증상들은 모두 반드시 경찰에 알려야 하며, 경찰은 마땅히 법에 따라 하수도를 고치는 등 땅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거리에 악취가 나서는 안되며 수시로 물을 뿌려 청소해야 한다. 사람들의 집 안의 화장실과 모든 오수는 모두 수채나 하수구의 토관을 통해 시골로 흘러 보내야 한다. 하수구가 없는 곳에서는 수레에 실어 시골로 보내야 한다. 이처럼 악취가 밖으로 흘러 나오지 않게 하고 또한 강으로 흘러 보내지 않는 것은 물고기가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모두 양생과 질병 예방에 좋은 조치이다.⁴¹⁾

이러한 지식들이 번역되어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예를 들어 광서 7년(1881년) 『청예제역(淸穢除疫)』의 한 보도에서 마지막에 특별히 “진실로 서양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염병에 쉽게 걸린다면, 만약 략급국(垃圾局)이 일찌감치 진지하게 금지하면 주민들에게 매우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⁴²⁾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38) 보란야(傅蘭雅) 편집 : 『주택위생론(居宅衛生論)』 14, 광서 16년 간본, 제29b쪽.

39) 줄고 참조 : 『청대 강남의 보건위생 개념과 행위 및 근대에서의 변천 탐구——환경과 물을 사용한 보건위생을 중심으로 (清代江南的衛生觀念與行為及其近代變遷初探——以環境和用水衛生爲中心)』, 제21쪽.

40) 황준시엔(黃遵憲) : 『대일본국지(大日本國志)』 권14 『직관지 이(職官志二)』,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2001년 영인본, 제164쪽.

41) 장더이(張德彝) : 『오술기(五述奇)』 권4, 광서14년 4월 27일, 광서 18년 초사본.

때, 이러한 번역서와 중국인의 저술은 중일 갑오 전쟁 이전에는 모두 중요한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 논한 중국인의 저술은 갑오 이전에는 대부분 정식으로 출간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본국지(日本國志)』의 경우 광서 13년에 이미 탈고하였지만, 정식으로 출판된 것은 21년(1895년) 이후이며, 『오술기(五述奇)』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필사본만이 전해졌을 뿐이다.⁴³⁾ 하지만 중국이 갑오 전쟁에서 실패한 후, 민족의 위기가 나날이 가중되자 이러한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였다. 상당수의 엘리트들이 국가의 쇠락과 민족의 병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방법을 절박하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들은 중국이 쇠퇴한 것은 민족이 허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중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을 새롭게(新民)”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모두 병부(病夫)인데, 그 나라가 어찌 병국(病國)이 안될 수 있는가?’⁴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를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민족을 강건히 해야’⁴⁵⁾ 하기 때문에, 민족을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양과 일본을 배워 위생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⁴⁶⁾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점차 더 많은 엘리트들이 위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서양과 일본의 위생 지식과 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중국 사회의 태도 역시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엘리트들이 서양의 위생 지식을 소화하여 자신의 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⁴⁷⁾ 서양의 저서와 중국인의 소개에서 청결은 단지 방역 위생 조치 중의 하나일 뿐이었지만, 이들 엘리트들의 논술에서 청결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 예를 들어 무술(戊戌) 전후의 위생 관련 논설에서는 서양 위생 지식과 중국의 실제 상황을 소개하였는데 결론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있다.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서양인의 방법을 본받아 거리의 분뇨를 부지런히 치우고 상점을 사찰하면 서민들에게 재해가 생기지 않으니 모든 사람이 천수를 누리는 태평성대가 된다.⁴⁸⁾

이렇듯 최종적으로는 당시 위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거리와 음식의 청결이라고 정리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의 한 시론에서는 “전염병 발발의 원인이 불결이라는 것은 동서양의 사람들이 수 십 년간 연구한 것으로 매우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또 당시 상하이의 전염병의 원인은 주로 관이 밖에 나와 있는 것과 거리가 불결한 것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⁹⁾ 광서 30년, 연푸(嚴復)도 『사회통전(社會通詮)』 역평(譯評)에서 다음과

42) 『신보(申報)』, 광서 7년 3월 7일, 제3면

43) 줄고 참조: 「清末における「衛生」概念の展開」, 제111-123쪽.

44) 량치차오(梁啟超): 『신민설·상무를 논함(新民說·論尚武)』, 쟁저우(鄭州), 중주고적출판사(中州古籍出版社), 1998년, 191쪽.

45) 『위생론(衛生論)』, 『동방잡지(東方雜誌)』 2권 8기, 1905년 9월 23일, 제157쪽.

46) 상세한 논문은 줄고 참조: “Treatment of Night 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

47) 줄고 참조: 「清末における「衛生」概念の展開」, 제123-128쪽.

48) 사오즈탕(邵之棠): 『황조경세문통편(皇朝經世文統編)』 권99 『격물부 오·의·속위생설(格物部五·醫·續衛生說)』, 선원룡(沈雲龍) 주편: 『중국사료총간 속편(中國史料叢刊續編)』 72-719, 제4061쪽.

49) 『귀신을 믿는 것을 논함(論憑藉鬼神)』, 진성취(金生煦)의 『신문보 시무 통론(新聞報時務通論·民政第九)』 수록, 상해신문보관(上海新聞報館) 판각본, 제2a-2b쪽.

같이 말했다.

무릇 큰 전염병이 있는 국가의 경우 그 사회는 반드시 가난하고 불결하니 이 경험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위생에서 청결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매우 가난한 사회에서 능히 청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다. 매우 좁은 집에서 부부와 자녀가 사는데, 그들이 마시는 공기는 모두 패혈증의 해로운 기운이다. 성문 낮은 곳이 전염병의 싹이 은밀히 생기는 곳인데, 사람이 극히 우매하여 내가 위생을 이야기해줘도 그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 나라의 구교(舊敎) 또한 귀신을 섬기고 제단을 쌓는 황당한 이야기로써, 자진하여 가난하고 혼탁하도록 하니 나쁜 음식과 나쁜 옷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대저 이러한 국민이 처음에 큰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은 모두 국토가 넓고 사람이 적기 때문일 따름이다. 만약 일단 일꾼이 증가하고 곡식 가격이 떨어지면, 장차 빈번히 결혼을 하여 출산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 사람은 많아지고 불결이 점점 심해졌는데, 큰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있었던 적이 없다.⁵⁰⁾

이와 동시에 갑오 전쟁 이후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일본 위생 행정의 성공적인 경험 역시 광범위하게 중국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⁵¹⁾ 메이지 이후 일본의 위생 행정은 초기에는 분명히 방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방역은 중심이 대체로 환자가 있는 집 표시와 격리 그리고 교통 차단이라는 방법에서부터 ‘청결법’ 실시로 이동하는 과정을 겪었다. 청결은 일본 위생 방역 전략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⁵²⁾ 이는 청결 문제에 관한 중국인들의 관심에도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만청의 대학자인 우루룬(吳汝綸)이 광서 28년(1902년)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총교습(總敎習)의 신분으로 황제의 명을 받아 일본을 시찰하였는데, 일본의 학교 위생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기 위해 일본인 하야카와 신지(早川新次)를 초빙해 『학교청결법(學校清潔法)』을 번역하도록 하였다.⁵³⁾ 광서 31년(1905년) 일본을 방문한 단센쩡(段獻增)은 유람기에서 일본 보건 행정 제도를 소개한 후 당시 일본 보건국장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보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청결이다. 중국의 거리와 가정에는 오물과 오수가 많이 쌓여 있어 혼중되어 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파리와 파리매와 같은 벌레가 많이 생겨 매우 지장을 주니 마땅히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이 마땅치 않고, 심지어 없는 경우도 있어 대소변이 도처에 있으니 마땅히 화장실 규칙을 만들어 대소변을 구분하여 모두 화장실을 지어야 한다.⁵⁴⁾

50) E. Jenks 저, 엔푸(嚴復) 역 : 『사회통전(社會通詮)』,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1981년, 136-137쪽.

51) 줄고 참조 : “Treatment of Night soil and Waste in Modern China and Remarks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Public Health Concepts” .

52) 코바야시 타케히로(小林丈広)의 『近代日本と公衆衛生：都市社會史の試み』 참조, 도쿄, 유잔가구 출판주식회사(雄山閣出版株式會社), 2001년, 제15-37쪽.

53) 우루룬(吳汝綸) : 『일기(日記)』 권10, 『교육(敎育)』, 스펜이이(施培毅)와 쉬카이셔우(徐凱壽)가 교정한 『우루룬 전집(吳汝綸全集)』 제4책, 허페이(合肥), 황산서사(黃山書社), 2004년, 722쪽.

54) 뚜안시엔쩡(段獻增) : 『삼도설홍(三島雪鴻)』, 리우쉐메이(劉雪梅)와 리우위전(劉雨珍)이 편집한 『일본정법 고찰기(日本政法考察記)』에 수록, 상해고적출판사, 2002년 영인, 광서 34년, 경화인서국(京華印書

서양과 일본 문화의 영향이 커지고 중국의 민족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대 보건 지식과 방역 책략의 중요한 내용인 환경 유지와 음식 청결 역시 이에 따라 점차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융화되었으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도 홍콩과 조계에서 외국인들이 실시한 방역 역시 중국인들이 청결을 다시 한 번 이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광서 20년 홍콩에 페스트가 발발했던 시기 『신보(申報)』의 관련 보도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이해 봄, 페스트가 맹렬히 광둥(廣東)과 홍콩을 휩쓸었으며,⁵⁵⁾ 이 일은 멀리 상하이에 있던 『신보(申報)』 집필자의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광서 24년 4월 18일자 『신보(申報)』에 홍콩의 방역 규정이 상세히 게재되었다. 당시 페스트에 대처하기 위해 홍콩과 영국은 발 빠르게 방역 전담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신보(申報)』는 이 기구를 “결정국(潔淨局)”이라고 불렀다. 기사에는 “홍콩 결정국은 첫 7일 동안 방역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미 비준하여 실시하고 있다. 모두 12항으로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번역해서 제공한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서 언급된 조항은 주로 격리와 병원 호송 및 청결 소독과 같은 사안이다.⁵⁶⁾ 그 후에도 홍콩과 광둥의 페스트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⁵⁷⁾ 같은 시기, 상하이 조계의 식민 당국 역시 발 빠르게 방역 활동을 전개하여 공부국 이사회는 이 해 5~6월에(양력) 여러 차례 모여 방역 사안을 논의하였다. 홍콩 규정에 따라 검역을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격리 시설 설립에 대해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부국은 회심공당(會審公堂) 언원(讞員)이 고시를 발표해 중국인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⁵⁸⁾ 4월 23일 『신보(申報)』에 아래와 같은 고시가 실렸다.

흥가5품함(欽加五品銜)으로 상하이 영미 조계를 대신해 사무를 심의하는 송(宋)씨가 유고를 고시한다. 영미 공부국이 근래 광둥과 홍콩 등지에서 결핵과 가려움 등의 전염병 증상이 성행해 상하이에 전염될까 우려되어 방법을 강구해 거리의 하수도를 깨끗이 한 것이 이미 중국과 서양의 각 신문에 실렸으니, 조계의 사람은 반드시 깨끗이 청소함이 마땅하며 또한 쓰레기를 쌓아 놓아 전염병에 걸리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서한으로 유고를 발표해 줄 것을 부탁하니 관청이 이에 유고를 고지한다. 조계의 주민과 점주 등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비록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지만 사람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물며 여름이니 무릇 모든 거주지를 특별히 깨끗이 청소하고 쓰

局) 판각본, 제86쪽.

55) 이번 페스트 상황에 대해서는 Carol Benedic: Bubonic Plague in Nine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pp131-149 참조. 이이지마 와타루(飯島渉) 『ペストと近代中國：衛生の「制度化」と社會変容』, 도쿄, 研文出版, 2000, 제28-40쪽. 이이지마 와타루의 저작은 더 나아가 상하이의 대응, 즉 당시 상하이 조계 식민당국이 취한 검역 조치를 논술하였다.

56) 『홍콩의 전염병 치료 규정(香港治疫章程)』, 『신보(申報)』 광서 20년 4월, 18일, 제10면.

57) 장중화(張中華)가 일찍이 일부 관련 자료를 발췌 기록했는데 참조할만하다. (『〈신보〉에 수록된 1894년 홍콩의 전염병 상황 및 대응 조치 적요(〈申報〉載1894年香港疫情及應對措施摘要)』, 『베이징 파일 사료(北京檔案史料)』, 2003년 제33기, 베이징, 신화출판사(新華出版社), 2003년, 제221-227쪽.)

58) 상하이시 당안관(檔案館) 편집: 『공부국 이사회 회의록(工部局董事會會議錄)』, 상하이,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2001년, 11책, 625-627쪽과 634-635쪽.

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여 더러운 기운을 접촉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부국이 의논해 정한 규정이 있으니 전단으로 발간하여 집집마다 배포하겠다. 모든 거리는 매일 아침 9시 전에 쓰레기를 문 앞에 모아 공부국 마차와 일꾼이 집집마다 쓰레기를 실어 내게 하며, 9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유고가 고시된 후 주민과 점주 및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국이 정한 시간에 맞춰 매일 일꾼이 부지런히 청소하고 모두 문 앞에 버리도록 각자 감독해야 한다. 전염병을 쫓아내고 양생을 도모하기 위해 결코 이를 하찮은 일로 여겨서는 안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된다.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어기지 말아야 한다! 59)

예방 조치는 주로 환경을 청결히 하는 것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트 인사들이 이러한 방역 조치를 특히나 많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5월 4일, 『신보(申報)』는 간략하게 상하이의 검역과 소독 등과 같은 방역 조치를 보도하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본관이 아직 바라는 것은 상하이 각처의 더러움이 남아 있는 것은 며칠 내에 빨리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조계의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관을 교외에 버려두고 이를 간수할 여력이 없다. 찌는 듯이 더운 날 더러운 기운이 훈증되어 행인이 이를 접하면 병에 걸리기가 매우 쉽다. 비록 어제 영국 조계의 언원이 나와 금지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사람들이 이를 내용 없는 공문이라고만 생각하니 성 안팎 각 관에서 실력으로 실시하여 공부국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을 돕길 바란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은덕에 감사하여 더욱 자나깨나 잊지 않을 것이다. 60)

즉, 전염병의 위협에 직면하고 외국인의 방역 조치를 살펴본 당시 사람들은 그 중의 청결 조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당시 일부 의론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중국과 서양의 방역 방법을 자세히 비교한 사람의 경우 중국인의 전염병 치료법은 국(局)을 설치하여 치료하고 약을 주는 것 외에는 단을 세워 액막이 기도를 하는 것 밖에 없어 “할 일 없이 과장되기만 하고 실제 효과는 전혀 없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양은 달랐다.

지방에 전염병이 생기면 즉시 결정국(潔淨局)이 사람을 보내 집집마다 조사하였는데, 만약 집 안에 불결한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도록 명령하고 물로 된 약을 온 집 안에 뿌려 더러운 기운을 없앴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릇 환자는 한 곳을 정해 그곳에 있게 하였다. 길거리의 오물 역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 역시 한 곳을 정해 장사 지냈으며, 사망한 즉시 장사를 지냈다. 더러운 기가 훈증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조금도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각각의 화장실을 매일 청소하고 석회를 뿌려 더러워지는 것을 막았다. 모든 일은 다 위원을 파견해 전문적으로 처리하였으니 방역 방법이 매우 세밀하다고 할 수 있다.

59) 『더러움을 피하고 제거하는 것에 관한 공문(辟除汚穢示)』, 『신보(申報)』광서 20년 4월 23일, 제3면.

60) 『상하이 방역(上海防疫)』, 『신보(申報)』광서 20년, 5월 4일, 제3면.

더 나아가 “서양인의 방역법이 주도면밀하기는 하지만 때로 전염병이 창궐해 혹은 계속 만연하여 전염병을 바로 없애지 못한다. 이것 역시 당연한 것으로 사람이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⁶¹⁾라고 하였다. 작자가 서양의 방역에 찬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언급된 서양의 방역 조치 역시 거의 청결 행위이다. 또 다른 의론에서 비록 당시 홍콩의 방역 조치가 즉각적으로 ‘전염병을 유발하는 나쁜 기운을 없애지’는 못한 것에 대해 왜곡된 변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계에 이미 방역 규정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무릇 성의 안과 밖 및 남시(南市)에서 실시하여 시골 도시에까지 이르면 순서대로 따라 하여 만의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다. 홍콩은 전염병을 없애기 어렵지만, 이곳은 결코 조금도 전염되지 않는다.”라며 상하이 조계의 방역을 극찬하였다.

“만약 전염병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서 치료를 하고자 하면 비록 뛰어나 의사라 할지라도 고칠 수 없다. 진실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 못하니 비가 오기 전에 근심하는 시인의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집을 청결히 하는 것이 그 중의 하나요……도로를 청결히 하는 것이 그 중의 하나이며……음식을 청결히 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고……물건을 청결히 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니……앞에서 이야기 한 네 가지는 모두 방역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⁶²⁾라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열거된 방역의 주요 업무들은 모두 청결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결코 한 시기와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종종 유사한 평론이 등장하고는 했다. 예를 들어 광서 33년 잉커우(營口)에 페스트가 출현하자 『성경시보(盛京時報)』의 한 시평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그들의(서양 국가) 방역 방법이 몇 번이나 검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실증이 있어 비로서 온 나라에 그것을 따르도록 알리니 그 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삼성(東三省) 독무(督撫)와 각 순경국(巡警局)이 백성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전염병의 전염을 매우 염려하여 생각이 예방에까지 미쳤다. 반드시 각 나라의 방법을 잘 알고 전염병의 모든 것을 상세히 연구하여 대중들에게 알리고 강제적인 청결 방법을 실행함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도 용납치 않으니 만의 하나라도 구하기를 바라니 훗날 전염병을 면할 수 있다.⁶³⁾

이러한 의론들은 모두 외국인의 방역 조치에서 청결의 중요성을 느끼거나 연상하게 된 것임이 분명하다.

조계의 양호한 위생 상태에서 받은 자극과 유입된 서양 및 일본의 위생 정보를 점차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 또 외국인의 방역 실천 등과 같은 요소의 영향으로 청결이라는 이 역사 깊은 어휘의 용법과 의미가 현저하게 변화하였다. 만청 시기 여러 문헌을 점검해보면 청결이라는 어휘의 사용 빈도가 점차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품행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는 비교적 적었으며 깨끗함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자료에서 이러한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결 혹은 깨끗함

61) 『중국과 서양의 전염병 치료의 차이를 논함(論中西治疫之不同)』, 『신보(申報)』 광서 20년 4월 21일, 제1면.

62)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주문(防患未然疏)』, 『신보(申報)』 광서 20년 5월 1일, 제2면.

63) 『방역법을 논함(論防疫之法)』, 『성경시보(盛京時報)』 광서 33년 8월 15일, 제2면.

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역시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 청결과 질병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심지어 모호하기까지 한 인식이 아니라 근대 과학적 근거를 지닌 뚜렷한 개념이 되었다.⁶⁴⁾ 또한 청결 여부는 위생과 관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역의 중요한, 심지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말부터 이러한 글들이 상당히 자주 당시의 문헌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말씀 드리자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이 우선되어야 하며,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방역의 근본입니다.⁶⁵⁾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거리를 깨끗이 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냄새 나는 더러운 것으로 막혀 있으면 쉽게 병에 걸리니 위생에 매우 방해가 된다.⁶⁶⁾

거리를 청결히 하는 것은 특히 방역은 주요 업무이다.⁶⁷⁾

각국의 방역 방법을 엮으려 생각하니, 근본적인 해결법으로 청결 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일시적 해결법으로는 검사와 소독보다 급한 것이 없다.⁶⁸⁾

당시의 신문을 보면 중국인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액막이 굿을 한다고 비판할 때, 거리의 더러움은 무시하고 이를 청결하게 하지 않는 것을 종종 최선을 다하지 않은 증거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쑤저우성(蘇州省) 성(城)에서 입춘 이후 후두병이 성행하고, 입하에 또 토사곽란 유행성 전염병이 성행하여 죽은 사람이 적지 않다. 듣자하니 이 병을 속칭 흑라사(黑螺痧) 혹은 오사(午痧)라고 한다. 주민들이 그리하여 액막이 굿을 하고 부적을 썼으며, 호사가는 신을 들고 거리 행차를 하며 귀신 분장을 하고 아이를 놀라게 하였다. 집집마다 문 앞에 모두 황색 부적을 붙이고 쇠스랑을 그렸다. 관리는 눈과 귀가 먼 사람처럼 역시 거리의 더러움을 깨끗이 할 줄 몰랐다. 날씨는 점차 더워지는데 이 병은 언제나 그칠 것인가?⁶⁹⁾

64) 이 당시 사람들은 종종 서양의 세균 학설로 더러움과 전염병의 관계를 해설하였다. 예를 들어 『신보(申報)』의 한 의론에서는 “서양 의사들의 말을 들으니 전염병이 성행할 때는 독충이 바람 속에서 춤을 추기 때문에 이에 맞으면 전염병에 걸린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다른 비결이 없고 단지 집에 있으면서 음식과 모든 일에 청결을 기하면 자연스럽게 병균이 몸을 숨길 곳이 없어져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염병이 사라진다고 했다.”(『속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서(續防患未然說)』, 『신보(申報)』 광서 20년 5월 5일, 제1면.)라고 하였으며, 또 옌푸는 불결이 전염병의 원인인 이유를 논하며 “매우 좁은 집에서 부부와 자녀가 사는데, 그들이 마시는 공기는 모두 패혈증의 해로운 기운이다. 성문 낮은 곳이 전염병의 싹이 은밀히 생기는 곳인데, 사람이 극히 우매하여 내가 위생을 이야기해줘도 그는 무슨 모른다.”(E. Jenks 저, 옌푸 역, 『사회통전(社會通詮)』, 상무인서관, 1981년, 137쪽.)라고 하였다.

65) 『위생국시(衛生局示)』, 『대공보(大公報)』 광서 30년 1월 28일, 제5면.

66) 『소상총회가 도시 위생 요강을 입안하다(蘇商總會擬定治理城市衛生簡章(광서 33년 2월))』, 화중사범대학(華中師範大學) 역사연구소와 쑤저우시(蘇州市) 당안관(檔案館)이 함께 편찬한 『소주상회 당안 총편(1905년 - 1911년)(蘇州商會檔案叢編(1905年—1911年))』(제1집)에 수록, 우한(武漢), 화중사범대학출판사, 1991년, 689쪽.

67) 『민정부가 상서를 올려 방역 처리 상황을 일일이 진술함(民政部奏臚陳辦理防疫情形折)』, 『성경시보(盛京時報)』 선통(宣統) 3년 2월 16일, 제2면.

68) 성셴화이(盛宣懷): 『우재존고(愚齋存稿)』 권19 『지방 검역 의원 수행 검사기(선통 3년 1월)(奉直地方驗疫擬派醫隨車查驗折(宣統三年正月))』, 민국 28년 쓰부러우(思補樓) 판본, 제38a쪽.

69) 『전염병 유행(瘟疫流行)』, 『대공보(大公報)』 광서 28년 6월 1일, 제5면.

이 보도들과 광서 초년 『신보(申報)』의 유사한 보도를 비교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청결 개념의 변화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당시의 보도는 다음과 같았다.

닝보(寧波)가 음력 1월에 들어선 후, 그 도시와 농촌 등지에서 또 다시 전염병이 유행했다.……이 곳(쑤저우)에도 작년 음력 선달부터 지금까지 이 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 이 병에 걸리면 즉시 입을 다물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니 마치 중풍에 걸린 모습과 같다. 빠르면 하루 낮밤, 늦어도 3일을 넘기지 못하니 의사들도 사실 그 증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단지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릴 뿐이다.……다만 하늘이 결정한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역시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을 이길 수도 있으니, 진실로 각각의 사람들이 함께 수양하고 반성하며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혹은 홍역과 전염병을 없애기에 충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헛되이 기도와 액막이 굿을 한다면 또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⁷⁰⁾

당시 청결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근대 방역에서의 검역에 관해 완곡한 비평을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청결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대공보(大公報)』에 실린 독자의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서양 사람은 방역을 매우 엄격히 하는데 그 청결한 집을 보면 청소를 반드시 열심히 하고, 시장의 물건을 검사하여 썩은 것은 반드시 버린다. 법이 잘 만들어졌고 취지가 아름다운데도 중국인이 어리석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지만 배가 들고 날 때에 의사가 검역하는 방법은 완전하지 않다.⁷¹⁾

또한 청결은 더 이상 개인의 일, 혹은 모종의 특정한 행위이자 정치인들 이야기할 만한 의거가 아니라, 강제적 행정 개입이 필요한 보편적인 공공 업무로 인식되었다. 당시의 의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무릇 방역 행정은 관부의 강제력인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복종하기 어렵다.⁷²⁾ 아, 민정(民政)을 실시하기 어렵구나. 열심히 검사하지 않고 오직 유고(諭告)에만 의존하니 그래서 되겠는가? 무릇 총청(總廳)이 유고를 반포하여 전염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알게 하면 반드시 예방할 수 있어 비로서 병을 면할 수 있으니, 그 유고의 말은 당연히 적절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더욱 강제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의 방법을 지시하고 실사구시할 수 있도록 하면 혹시라도 그릇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포된 유고는 결국 빈 문장에 불과했으니 어찌 다스림을 충분히 했다고 말하는가?⁷³⁾

청결이 위생 방역의 근본적인 주요 업무라면, 위생 방역은 또한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민족을 강건하게 하는 대업이다. 또한 개인의 건강과 민족의 강건함은 강국의 전제조건이

70) 『쑤저우성의 전염병(蘇垣時疫)』, 『신보(申報)』광서 원년 1월 21년, 제3쪽.

71) 『전염병 증상 잡설 회지(疫症雜說匯志)』, 『대공보(大公報)』광서 28년 6월 27일, 부록.

72) 『민정사 장진우 사사가 방역회에 직접 참석한 연설문(民政司張貞午司使親臨防疫會演說詞)』, 『성경시보(盛京時報)』선통(宣統) 2년 12월 21일, 제3면.

73) 『방역법을 논함(論防疫之法)』, 『성경시보(盛京時報)』광서 33년 8월 15일, 제2면.

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에게 있어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이미 더 이상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청결 업무가 이미 더 이상 국가의 원대한 뜻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자질구레한 일이 아닌 매우 숭고한, 심지어는 신성화되기까지 했음이 분명하다. 당시의 일부 의론들은 종종 청결 여부를 민족 성쇠의 원인이자 징표로 보았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신문지상의 한 의론은 “미신과 불결”을 그 당시 중국 쇠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비록 모두 망국과 멸족의 큰 원인이지만, 이 두 가지 가운데 경중을 헤아려 보면 미신은 아직 괜찮은 듯 하지만 불결은 반드시 안된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불결한 습관은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고, 그 원인을 스스로 해결하기 가장 어렵다. 가장 이상한 점은 사람의 청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쇠를 대략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⁷⁴⁾

위생을 저해하는 불결은 마땅히 강제적으로 제거해야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불결은 이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 받았다. 예를 들어 당시 청결에 관해 토론한 한 문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청결의 장점) 첫째, 위생에 도움이 되어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지혜를 증강시켜준다. 둘째, 정신을 진작시킬 수 있어 나태하지 않게 한다. 셋째, 더러움과 청결함을 명확히 구분하면 일을 순서대로 할 수 있다.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은 이 세 가지와 완전히 상반된다.

더럽고 지저분하여 청결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반드시 건강하지 않고 지혜가 반드시 영민하지 않다. 나태함을 따르니 일을 해도 정신이 없으며, 더러움과 청결함을 구분하지 않으니 동작에 순서가 없다. 개인과 가정 및 국가에 영향을 주니 모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⁷⁵⁾

여기에서 청결 여부는 위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 및 품행과도 직접적인 상관 관계를 갖는다. 청결이 약간은 신성시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당시 엘리트층의 인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 백화해설과 고시 및 소설을 통해 이미 점차적으로 하층민들에게 침투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덩귀루이(丁國瑞)의 청결에 관한 의론이 바로 백화로 쓰여진 것이다. 당시 전문 위생 소설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평소의 위생 법칙은 특히 전염병과 관련이 있다. 오늘 중요한 몇 항목을 말해주고자 한다. 첫째, 불결함을 끊어야 한다. 무릇 이 전염병의 경로는 매번 더러운 먼지 속에 잠복해 있다. 사람에게 만약 들어올 틈이 있으면 틈을 타 바로 들어오니 집 안을 수시로 청소함이 마땅하다. 속옷과 겉옷은 늘 세탁하는 것이 좋으며, 주방은 절대적으로 청결해야 한다. 부패되고 하룻밤을 넘긴 음식들은 절대 입에 넣어서는 안된다. 화장실은 가까우면 안되고 분뇨는 더더욱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오직 악독한 새로운 전염병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74) 『중국인의 불결을 논함(論中國人之不潔)』, 『중외일보(中外日報)』 1903년 10월 31일, 장중민(張仲民)의 『위생과 종족, 그리고 만청의 소비문화—신문 광고를 중심으로 토론(衛生, 種族與晚清的消費文化——以報刊廣告爲中心的討論)』에서 인용. 『학술월간(學術月刊)』 2008년 제4기.

75) 덩귀루안(丁國瑞) : 『청결의 장점을 논함(論潔淨的益處)』(광서 33년 12월 22일 제138호 죽원백화보(竹園白話報)참조), 덩귀루안(丁國瑞) : 『죽원총화(竹園叢話)』 제3집, 천진경신의실(天津敬慎醫室), 1923년, 67-75쪽.

하는 것만이 면역이다.⁷⁶⁾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만청 시기 서양 문명의 영향이 나날이 확대되고 국내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청결과 청결 문제 역시 더 이상 예전처럼 비교적 적은 관심만을 받지는 않게 되었다. 청결은 사용빈도가 높고 기본적으로 깨끗함을 지칭하는 어휘가 되었다. 청결 문제 역시 방역 위생의 중요한,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사람들의 뇌리에 자리 잡았다.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흥망과도 관련이 있는 중대사로 인식되었다. 청결은 심지어 점차적으로 방역 위생의 범주에서 벗어나 문명과 진보라는 은유적인 의미조차도 내포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이후, “청결”은 더욱 추앙 받았다. 이는 물론 근대 서양의 위생 개념과 제도에서 청결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상대적으로 청결을 더욱 중시하는 일본의 위생 행정이 중국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더욱 중국 자체의 상황과 관계가 있다. 우선, 불결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은 원래 중국에도 있던 개념이었다. 서양 문명의 이러한 인식은 기존 중국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중국인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둘째, ‘문명적이고’ ‘발달한’ 서양의 여러 나라 및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청결 위생 상황은 확실히 불량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더 절박하게 청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꼈다. 민추선(民初身)이 일본에서 평원주(彭文祖)와 위생에 대해 토론할 때, 중국에 필요한 청결이 결핍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특별히 “우선 청결이라는 두 글자를 위생의 골간으로 삼는다. 청결이 있는 다음에야 건강도 있다. 과도하게 청결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면 건강을 얻을 수 있다.”⁷⁷⁾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또한 청결을 민족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했으며, 게다가 청결 여부가 위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과 적극적인 진취성, 심지어 ‘국체(國體)’⁷⁸⁾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청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IV. 결 론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 점차 형성된 유럽의 현대 보건제도는 현대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현대 보건 제도가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은 결코 근대 의학 과학의 발전보다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2,30년 이래로 현대 사회의

76) (청)루린이인(儒林醫隱) 편찬: 『의계경(醫界鏡)』 제6회 『장산련의 위생 이야기 요약, 첸탕셴이 어음에 서명해 명의를 데려오다 (張善人衛生談要略 錢塘縣笠票拿名醫)』,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원방출판사(遠方出版社)와 내몽고문학출판사(內蒙古大學出版社), 2001년, 37쪽.

77) 평원주(彭文祖): 『매우 위험한 새로운 어휘(盲人瞎馬之新名詞)』, 도쿄, 秀光舍, 1915년, 170쪽.

78) 당시 거리 청결을 주창한 한 평론은 도로의 청결은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여겼다. 첫째, “국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으로 “쉐푸청은 일기에서 ‘벨기에의 수도는 도로가 넓고 깨끗하며, 독일의 베를린은 거리가 넓고 도로가 정결하니, 이를 보고 진흥의 기상임을 알았다.’” 라고 하였다” 라며 쉐푸청(薛福成)의 일기를 증거로 제시했다. (진피엔청 공부지사가 거리 하수도를 다스리는 것을 의논하다 『(金甸丞工部平治街道沟渠議)』, 『집성보(集成報)』광서 23년 5월 25일, 제6책, 베이징, 중화서국, 1991년, 영인본, 상(上)책, 제297쪽.)

새로운 환경 위생 문제가 증가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전하면서 국제 학술계에서 이러한 제도의 형성, 실천 과정 가운데서 제도 배후의 권력 관계와 제도 자체에 대한 반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사학연구(史學研究)나 현실에서의 실천에 있어서 이러한 반성이 기본적으로는 아직 전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보건사(衛生史) 연구에서 ‘근대화 서사’ 양식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주로 관심을 보이고 주력하는 것은 바로 근대 이후 중국이 어떻게 서양의 영향과 중국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미신을 타파하여 국민의 지혜를 일깨웠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서양과 일본의 위생 행정 체제를 도입하여 실천 혹은 창조적으로 실천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청결 문제에 있어 역사적인 논술이든 혹은 현실에서든 청결의 숭고하고 신성화된 지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불결은 위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현대의 방역 전략에서도 청결은 여전히 중요한 일부분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현재 중국은 환경과 개인 청결에 있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매우 많은 듯하다. 하지만 근대 청결 시스템이 중국에 형성된 역사적 의미와 현실적 가치는 부인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물론 이 글에서 이러한 부정을 했음은 틀림없지만, 단지 최대한 전반적이고도 상세하게 이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청결과 위생의 밀접한 관계가 결코 자연적으 생긴 것이 아니며 또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만청 이후 청결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강조된 것은 분명 그 당시 열강의 공격에 처한 중국의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변화, 강건함, 새로움, 서양화를 추구하던 사회 전체의 심리 상태 및 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청결 인식은 이미 순수한 질병 의료의 범주를 벗어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문을 제시해야 한다. 방역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증명하지 않아도 청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는가?

【Abstract】

Cleanliness and Hygien

– Evolution of the Conception of Cleanliness in the Late Qing –

YU Xinzhong

I. Introduction

Speaking of “cleanliness” today, it is only natural for people to relate it to hygiene and health. Cleanliness signifies neatness, and being clean indicates being sanitary or even being in good health, which is indubitably self-evident general knowledge to present generations. As an age-old term, cleanliness intrinsically has the sense of neatness. Cleanliness, however, obviously meant much more before the modern times. Moreover, it was seldom or never associated with “hygiene” or “regimen”. Only during the late Qing did the conjunction of cleanliness and hygiene, in the name of “science”, gradually emerge on the historical stage. How was this historical process completed? And how our people respond to and accept it? This paper seeks to review the historical process in the double perspectives of society and culture, and how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cleanliness was “modernized” in the course of the establishment of China’s modern anti-epidemic mechanism.

II.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Cleanliness and Epidemics

Cleanliness is a fairly old term, which was contained in *Han Feizi* in the Pre-Qin Period. A retrieval of *Imperial Collection of Four* (electronic version) reveals the increasing appearance of “cleanliness” after the Han. Although in some instances it meant being clean or neat, it evidently meant more than it does today. And in general it seemed to be far more often used to describe a particular person to be righteous and incorrupt than indicate neatness or practice of cleaning out.

“Cleanliness” was not always, or not even used much to describe environment and human body, in addition, people rarely connected it with “hygiene” or “regimen” before the modern times, but all this didn’t lead to a conclusion that the ancients totally ignored a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cleanliness and diseases. In fact, from the Song and Tang on, remarks on the fact that impurity might result in epidemic diseases were recorded from time to time, from which we see in pre-modern China people already had a clear idea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rity and diseases relating to public environment, family housing, and even personal hygiene.

Nonetheless, it seems that we can’t decide by this, that “to be clean” became an important part of epidemic prevention measures taken by people at that time. It is inadvisable for us to see a clear version engendered by a collection of records as what we believe to have taken place widely in history. As a whole people did know dirtiness had something to do with diseases, and yet cleanliness seemed not to

receive special attention. Some such popular proverbs all-too-familiar to us as “Have a coarse diet, be a Bodhisattva”(chide lata, zuode pusa), “Unclean food will not produce diseases(bugan bujing, chile meibing)”, undoubtedly reflected some aspects of the popular understanding. Even the literati didn’t completely distance themselves from dirtiness. It certainly didn’t demonstrate that the ancients totally lacked concerns about “to be clean”, but at least it indicated cleanliness didn’t have the important health-related and symbolic meanings as today.

Based on the above arguments, I believe that, in traditional society “cleanliness” was a term with very board meanings, one of which was “being clean or neat”, and it seemed not to be the most common one. Despite the formation of the ideas that dirtiness might cause epidemic diseases and to be clean helped to prevent epidemics, they were neither the popular belief in a particular historical context, nor were put into action widely. And cleanliness was not associated with hygiene yet. To be clean was not an important measure of epidemics prevention, or the bounden duty of state and government, let alone a public subject and behavior.

III. Conception of Cleanliness in the Perspective of Sanitary Epidemics Prevention

Poor environmental hygiene and unclean drinking water in cities drew much attention from the mid-Qing onward. Confronted with western civilization, Chinese people soon began to take notice of the issue of cleanliness. What first stimulated people’s thinking were the sanitation-related activities in the concessions and the shape contrast of sanitary conditions between concessions and the Chinese residential areas. As the mechanism of public health was gradually established in Shanghai’s concessions, after the 1860s, they looked cleaner, which strikingly differed from the filthy and messy Chinese residential area of Shanghai. All this induced lots of attention and discussions of scholars. A browse through the earlier *Shenbao* will probably tell this fact. Those correlative discussions of the time tended to make it clear that the terrible city environment and drinking water were the essential roots of epidemics by making a comparison between the two locales. Therefore they pleaded to the local government, advising emulating the concessions, cleaning streets and keeping the drinking water safe. Besides that, westerners’ innovative mechanism of nightsoil treatment incited further consideration of how to create cleaner surroundings.

On the other hand, stimulus also came from the description and criticism of foreigners of Chinese impurity, which made some Chinese deplore that, “It is ok if China doesn’t intend to reform. If she intends to, the reform must begin with an emphasis on the issue of hygiene. If not, even the epidemic diseases cannot be conquered, how can she compete against the powers?”

The stimulus from both inside and outside, together with the affects in the following three ways, caused the people to begin to associate closely cleanliness and hygiene, and to comprehend and use the term “cleanliness” in a increasingly single perspective of sanitary epidemic prevention.

First is the influence of western knowledge of sanitation and hygiene. After the mid-19th century an increasing number of western works on medial and health services began to be introduced into China

and be published in Chinese. Those works covered all the dimensions of hygiene, among which many were about sanitary epidemic prevention, and “cleanliness” was discussed in the light of hygiene. Simultaneously, although some of the scholar envoys visiting abroad of the time didn’t take a strong interest in western administrative system of hygiene like Nagayo Sensai, a Japanese, when he was on an investigation trip around Europe and America, they were also deeply impressed by the cleanliness of the west and Japan. What’s more, some of them introduced the correlative hygienic mechanism too, which certainly would make an impact. What should be pointed out is that, to be clean was only one of the anti-epidemic measures both in the translated copies and introductions of some Chinese scholars, yet it was highlighted much in scholars’ paraphrases. An essay on hygiene around the reign of Wuxu, for example, even deemed it the most crucial thing of hygiene to make streets and food clean after presenting hygienic knowledge of the west and the real situation in China.

Second is the influence of Japanese practice in hygiene.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impact on China got stronger rapidly, and the successful experiences of Japanese hygienic administration began to be introduced into China and affected it greatly. In an initial stage of hygienic administration in Japan after Meiji Restoration, apparently the focus of it was epidemic prevention, whose emphasis shifted roughly from patient indication and isolation to the implement of “method of cleanliness”. “Cleanliness” enjoyed a prominent position in Japanese strategies of sanitary epidemic prevention, which obviously influenced Chinese people’s concerns about cleanliness.

Third, the epidemic prevention measures carried out by foreigners in Hongkong and concessions was a spur to some Chinese people’s reconsideration of the issue of cleanliness, which could be seen through the accounts and comments in *Shenbao* during the plague outbreak in Hongkong in the 20th year of the reign of Emperor Guangxu(1894). After the plague broke out in Hongkong, *Shenbao*, dated August 24, 1894, recorded at length the regulations for epidemic prevention in Hongkong, and paid attention to the epidemic in Hongkong and Canton thereafter. At the same time, the colonialist government in Shanghai concession also launched a movement against the epidemic. The Municipal Council convened several times between May and June (solar calendar) that year, proposing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 stop the spread of the disease, among which to keep environment clean was the major step. Such measures won the approval of Chinese elites. In the face of the threat of the plague and foreigners’ anti-epidemic measures, they not only accepted the methods concerning cleanliness, but also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m. They admired westerners’ anti-epidemic practice very much, and what they noted about their measures was almost cleanliness-related.

Under the stimulus and influence of the above factors, cleanliness, the old term, underwent notable changes in its usage and meanings. Looking over literature in the late Qing, we will find that “cleanliness” was used increasingly frequently, meanwhile it was mostly used to indicate neatness rather than describe a person’s morality. Not only that, the popular understanding of cleanliness or neatness also altered a lot. The obscure knowled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nliness and epidemic diseases in the people’s mind was replaced by a vivid conception with modern scientific foundation. Furthermore, whether the surroundings or food was clean and safe not only had a bearing on hygiene, it

was also of much, even primary significance for anti-epidemic business. Such remarks were fairly common among literature of the time, since at least the late 19th century. As we have also seen in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while criticizing the Chinese people for not making every effort to prevent epidemics, but engaging in praying and practicing magic, the elites tended to demonstrate the point with the fact that the Chinese streets and roads were always left filthy, without any cleaning.

Moreover, they applauded the sanitary practice almost in chorus. Simultaneously, to be clean didn't be seen any more as a personal business, a particular action, or a praiseworthy righteous deed of those in power, but as a common public affair in which the executive should participate compulsorily.

Since to be clean was the fundamentally important job for sanitary epidemic prevention, and the latter was a matter of prime importance relating to health improvement and making the people stronger; at the same time, personal health and strong people were regarded as a prerequisite to a powerful China, the importance of cleanliness to the nation and the Chinese people spoke for itself. Without question, cleanliness-relating affairs were no longer personal trifles that were independent of nation's grand purpose, but were put to a very lofty even sacred position. Being clean or not was looked upon as the cause and sign of our nation's ups and downs in some of the speeches at that time. What's more, impurity became the object of disdain, and being clean was further endued with some symbolic meanings, namely, the symbol of advancement and civilization.

To sum up, we see that during the late Qing, as the impact of the western civilization increasingly deepened and the domestic situation changed, the issue of cleanliness didn't attract little attention as before. From the Guangxu reign onward, particularly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cleanliness became a frequently used term with a basic meaning as neatness, and the issue of cleanliness also became a key one or even a matter of priority for sanitary epidemic prevention. It was further viewed as a great matter connecting with the fate of the country, and even gradually went beyond the bounds of epidemic prevention and hygiene, becoming a metaphor for civilization and advancement. The reasons why "cleanliness" was valued that much since the late 19th century, on the one hand, was that the significant position of cleanliness in modern western hygienic concept and system, as well as the Japanese hygiene administration that paid comparatively more attention to cleanliness, had a greater impact on China.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s of China itself were also involved: first, that impurity would produce diseases was an old idea in China. The connectivity between western knowledge and Chinese idea of it made it easier for the Chinese people to accept it; second, measured against the sanitary situation of the "civilized", "developed" west and Japan, that of China was evidently terrible, which caused some Chinese to feel it very pressing to solve the problem of cleanliness; and finally, "to be clean"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step toward the elimination of national crisis; and it not only related to hygiene, but also symbolized civilization and positive spirits, or even concerned "polity", therefore, more prominence was given to the significance of cleanliness.

IV. Conclusion

Generally considering, the modern hygienic system that grew up in Europe since the modern times is the important content of modernization. However, over the past two or three decades, as new issues of environmental hygiene increased in modern society and the postmodernist thoughts rise, reflections in the international academic circles on the power relations behind the system and the system itself during its formation have grown too. But in the current hygienic history research in China, the “modernization narrative pattern” is certainly dominant. What scholars mainly concern about and strive to show are how China, from the modern times on, under the western influence and efforts of awake Chinese people, got over difficulties, abolished superstition, enlightened the populace, and tried to introduce and practice, even practice creatively the hygienic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west and Japan. For the issue of cleanliness, its lofty or even sacred position was never questioned no matter in historical discourses or in real life. Being unclean hinders hygiene, and invites despise as well. To be clean is still very important among the modern anti-epidemic strategies.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environmental and personal sanitation in China today seemingly still need further improvement. The pursue of cleanliness in contemporary China is incomplete yet. We can’t deny utterly that the formation of modern sanitary mechanism in China is of historical significance and practical value. And yet, through the above discussions, we can also find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cleanliness and hygiene was not natural and self-evident. That the importance of being clean was highlighted and emphasized since the late Qing, when China was being impinged on by the more powerful western countries, undoubtedly involved the strong feeling and desire of the whole society for innovations, things new and exotic. The understanding of cleanliness of the time already transcended what would simply be called illness and medical care, and was given too many political and cultural meanings. So we have good reasons to ask such a question: for epidemic prevention and health, is “being clean” really of self-evident significance and necessity?

1910-1911년 만주페스트의 유행과 식민지 조선의 대응

■ 辛 圭 煥 (延世大學校 醫史學敎室) ■

1910-1911년 만주페스트의 유행과 식민지 조선의 대응

辛圭煥 (延世大學校 醫史學敎室)

〈목 차〉

- I. 머리말
- II. 페스트의 확산과 북만저우(北滿洲)의 방역시스템
- III. 식민지 조선의 페스트 방역
- IV. 맺음말: 식민당국의 페스트방역과 그 효과

I. 머리말

최근 필자는 위생의료의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가 일제시기 식민통치의 억압성을 강조하면서도 위생의료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긍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¹⁾ 1910년 만주에서 페스트가 유행한 시기는 이미 일제가 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병탄한 시기로 식민당국의 페스트방역과 관련하여 식민통치 초기의 전개양상과 성과를 검토할 수 대상이 되는데, 1910-11년 페스트방역에 대한 평가도 기존 연구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박윤재(2000)는 일제가 페스트 방역활동을 통해 강제성을 동원하기는 하였지만, 방역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제의 지배정책에 조선인들을 순응케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일련의 페스트 방역활동의 결과 조선에는 단 한 명의 페스트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²⁾

그러나 방역의 성공여부는 단순히 방역주체의 능력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며, 질병 매개체의 성장환경, 인간 면역기제의 작동, 백신 및 치료제의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방역활동이 성공했다는 평가는 결과에만 치우친 평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식민당국은 두창과 콜레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역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통제된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적리나 티푸스와 같은 급성전염병뿐 아니라 결핵이나 성병 같은 만성전염병 역시 증가 추세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억제된 말라리아 역시 방역활동의 성공이라기보다는 키니네라는 효과적인 치료제 덕분이었다.

1) 辛圭煥, 「20世紀前半, 京城と北京における衛生・醫療制度の形成と衛生統計-「植民地近代性」論批判-, 「歴史學研究」834, (200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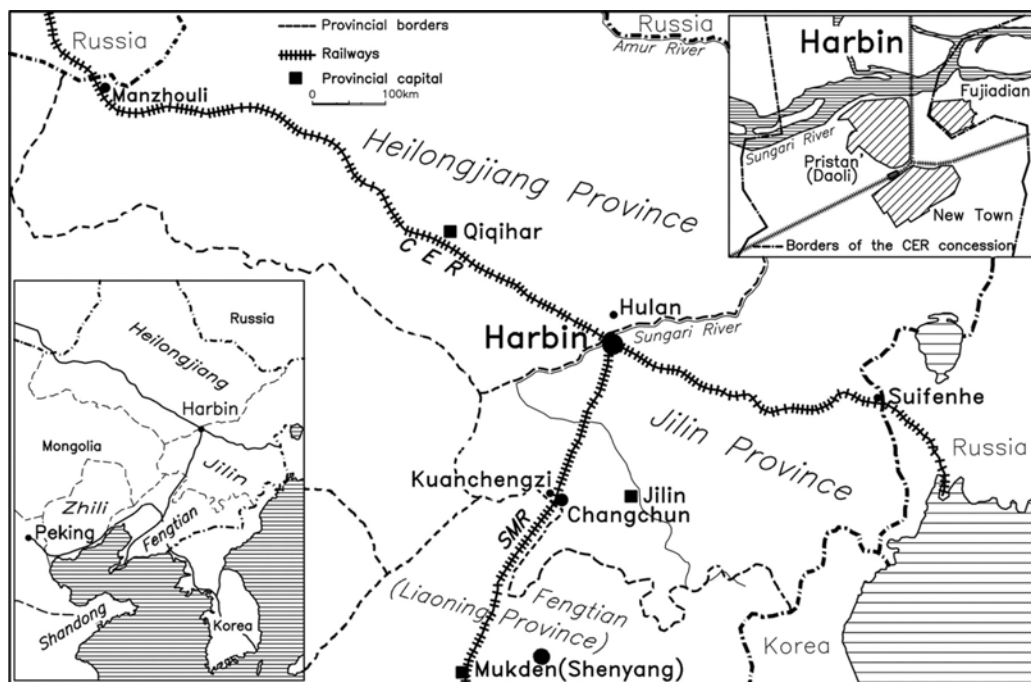
2) 朴潤栽, 「1910年代 初 日帝의 페스트 防疫活動과 朝鮮支配」, 『河炫綱敎授定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2000), pp.786-787.

II. 페스트의 확산과 북만저우(北滿洲)의 방역시스템

1894년 알렉산더 여신(Alexandre E. J. Yersin: 1863-1943)과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郎: 1853-1931)가 홍콩에서 선페스트균을 발견하고, 이후 페스트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다. 페스트는 치사율이 높고, 페스트균의 숙주인 벼룩이 설치류에 기생하는 특성상 겨울철에도 얼마든지 유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했다.

페스트에는 선페스트, 폐페스트, 패혈성페스트 등이 있는데, 선페스트는 쥐나 마멋 등 설치류에 기생하는 벼룩 등을 통해서 전염된다. 그 중 일부가 폐페스트로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자주 유행했던 것은 선페스트였고, 20세기 이후 중국 동북부에 등장한 것이 폐페스트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흑사병(黑死病)’, ‘흑역(黑疫)’, ‘베스도(Pest)’ 등으로 불리었는데, 1899년 이래로 대한제국시기 동안 법정전염병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페스트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1910-11년 중국 동북지역에서 폐페스트가 크게 창궐하여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1915년부터는 한국에서도 페스트가 법정전염병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페스트는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서는 자주 빈발하는 전염병인데다가 지리적 위치상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페스트에 대한 검역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898년 12월부터 일본 고베(神戸)에서 페스트가 유행하자 인천에서는 1898년 12월 28일부터, 부산에서는 12월 30일부터, 원산항에서는 1899년 12월에 검역규칙을 행하여 일본으로 경유하는 선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실시되기도 하였다.³⁾



〈그림 1〉 만주지역 철도상황과 만주 페스트의 확산⁴⁾

3) 「잡보: 흑사병과 각항검역」, 『황성신문』 (1899년 12월 2일), 2면.

4) Mark Gamsa, "The Epidemic of Pneumonic Plague in Manchuria 1910-1911", *Past and Present*, no.190 (Feb. 2006), 149쪽.

특히 19세기말 중국 동북부와 일본 등지에서 페스트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정부(1897. 10~1910. 8)와 통감부(1906. 2~1910. 8) 역시 페스트의 유행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시기 동안 페스트로 인한 우려할만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중국 동북지역에서 페스트가 폭발하여 최소 4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던 1910~1911년 시기에도 조선에서 페스트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콜레라가 조선사회에 빈발했던 것과 달리,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페스트가 말썽이 되었던 것은 새로운 수렵환경의 변화와 철도교통의 발달 때문이었다. 원래 중국 동북부 지역은 청조의 발상지로 인구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세기말 20세기초 서구열강의 각축장으로 변모하면서 인구이동과 자본유동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동북부 지역에서 이권을 차지하려는 러시아와 일본, 이에 대한 청조의 군사적 방어목적 등으로 철도가 건설되면서 중국 동북부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은 크게 변모하였다. 아울러 20세기초 유럽지역에서 모피값이 폭등하자 페스트의 전염원이기도 한 마멋 가죽을 얻기 위해 서구 자본이 중국 동북부 지역에 모이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겨울철 농한기를 활용하여 소득을 올리려는 계절노동자들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냥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1910년 9월 16일, 러시아 지역 국경 부근에서 일하던 중국인 목수들 중에서 최초의 환자가 목격된 이래로 열악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집단 거주했던 노동자 및 수렵꾼 등에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0월에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만저우리(滿洲里)로 확산되었다. 만저우리는 러시아인 5천여 명, 중국인 2천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촌락이었는데, 4월에서 10월까지 수렵 시즌이 되면, 중국인들이 1만여 명으로 늘었던 곳이다. 19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만저우리에서 392명이 페스트로 사망하였다. 이후 페스트는 만저우리에서 하얼빈, 장춘, 지린 등 철도 연선을 따라 각지로 퍼져나갔다.⁵⁾ 페스트가 남쪽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던 것은 겨울이 되자 산둥(山東) 쿨리들이 철도를 통해 본격적인 귀향길에 오르면서였다. 페스트 감염에는 빈부격차가 뚜렷했기 때문에, 단지 쿨리라는 이유만으로 철도 승차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동북삼성(東北三省) 69개소에서 페스트 환자가 발견되었는데, 평톈성(奉天省, 현 遼寧省) 29개소, 지린성(吉林省) 24개소, 헤이룽장성 16개소였다. 하얼빈, 장춘, 후란(呼蘭, 만저우리 이남) 등지에서만 5천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관동도독부 임시방역부(關東都督部 臨時防疫部)가 작성한 사망통계에 의하면, 1910년 10월에서 1911년 2월에 이르기까지 반년 만에 페스트 사망자는 43,972명에 이르렀다.⁶⁾ 페스트는 동북지역을 넘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지난(濟南) 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5) Ch'uan Shao Ching, Ch'uan Shao Ching, "Some Observations on the Origin of the Plague in Manchouli", International Plague Conferenc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Plague Conference held at Mukden, April, 1911* (Manila: Bureau of Printing, 1912), pp.27-28; 余新忠 等著, 『瘟疫下的社會拯救: 中國近世重大疫情與社會反應研究』 (北京: 中國書店, 2004), pp.264-267.

6) 關東都督部 臨時防疫部の 공식통계상 페스트 사망자수는 43,972명인데, 飯島涉은 5만여 명, 伍連德, Nathan, 焦潤明 등은 6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飯島涉, 『ペストと近代中國: 衛生の制度化と社會變容』 (東京: 研文出版, 2000), pp.141-142; Wu Lien-teh, *Plague Fighter: The Autobiography of Modern Chinese Physician*, p.33; Carl F. Nathan, *Plague Prevention and Politics in Manchuria, 1910~1931*, pp.1-2; 焦潤明, 「1910~1911년의東北大鼠疫及朝鮮應對措施」, 『近代史研究』2006년 第3期, pp.108-110.

페스트가 확산되자 러시아와 일본은 제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하고자 했고, 만저우의 지역사회에서도 방역에 적극 나섰다.⁷⁾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중국정부도 페스트 통제에서 밀릴 경우 주권의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10년 12월 경사방역국(京師防疫局)의 설립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서는 평토평방역총국(奉天防疫總局), 평토평성방역사무소(奉天省城防疫事務所), 북부방역분국(北部防疫分局) (이상 평토평성), 지린전성방역총국(吉林全省防疫總局), 하얼빈방역국(哈爾濱防疫局), 장춘방역국(長春防疫局) (이상 지린성), 강성전성방역회(江省全省防疫會) (헤이룽장성) 등 각종 방역국을 설치하여 방역행정을 본격화하였다. 중국정부가 방역을 위해 전면에서 나선 것이다.⁸⁾

페스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청조 방역당국과 러시아의 조치는 검역과 격리였다. 북만저우 지역에선 1910년 11월 청조당국, 러시아 대표, 상회 및 자치회 등은 방역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호별 검역을 실시하고, 환자는 요양원에 송치 및 격리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러시아측은 중국인 노동자의 연해주 진입을 금지시키고, 중국인 노동자의 동청철도의 승선을 금지시켰다. 다만 급행열차의 중국인 승객은 예외로 했다. 그 후 하얼빈의 검역은 중국인 서양의사인 우렌더(伍連德 1879-1960)가 주도하였고, 사체소각과 경찰을 동원한 강경수단 등으로 방역행정을 실시하였다.

장춘과 평토평에서는 1911년 1월 2일 처음 발견된 환자는 하얼빈에서 되돌아온 상인이었는데, 당시 동청철도는 산둥쿨리의 유입을 제지하지 않아 페스트환자들이 철도를 통해 하얼빈에서 장춘으로 계속해서 유입되었다. 2월초를 정점으로 2월 하순부터는 이 지역에서 페스트 유행은 상당부분 억제되었다. 동삼성(東三省) 총독 스량(錫良: 1853-1917)은 평토평시 방역소를 설치하였는데, 산둥쿨리를 격리시키고, 환자가 발생한 가옥을 소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산둥쿨리를 배제하는 대대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관동주(關東州)는 1898년 러시아의 조차지가 되었고, 다롄(大連)·뤼순(旅順) 등 도시건설이 진전되었다. 러시아는 조차기간 동안 동청철도가 경영하는 철도병원과 중국인을 위한 전염병병원 등을 건설하고 성병검진 등을 실시하였다. 러일전쟁 중에 일본은 다롄을 점령하고 러시아의 도시계획을 계승하였다. 평시 관동주의 위생사업은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 만철[南滿洲鐵道株式會社], 관동청해무국(關東廳 海務局) 등이 주도하였는데, 만철은 17개의 만철부속의원을 설치하여 위생사업에 개입하였고, 관동청해무국은 관동지역 위생행정의 핵심사업인 검역을 주도하였다.

1910년 겨울 만저우 북부에서 페스트가 유행하자, 10월 하순 만철다롄의원(滿鐵大連醫院)의 아베(安部仲雄) 원장은 하얼빈을 시찰하고 만철부속지에 대한 방역 필요성을 제기하고 검역실시 및 격리병동의 설치, 쥐잡기(驅鼠)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현지로부터 의사를 고빙하고 거류민 등에 대해서 예방 및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11월 25

7) 러시아와 일본의 페스트방역 및 청조와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는 飯島涉, 『ペストと近代中國: 衛生の制度化と社會變容』, pp.143-157, pp.187-194.

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清末東北地區爆發鼠疫史料(上)」, 『歷史檔案』2005-1期, pp.20-26;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清末東北地區爆發鼠疫史料(下)」, 『歷史檔案』2005-1期, pp.21-32; 焦潤明, 「1910~1911年的東北大鼠疫及朝野應對措施」, 『近代史研究』2006年 第3期, pp.110-118.

일 기차검역이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는 대두(大豆)의 수출시기로 정차장에서는 검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기차에 검역 의사를 배치하여 운행 중에 검역을 실시하였다. 반면 장춘 등 만철부속지의 중국인과 여관 등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엄격한 검역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중국인 노동자의 해고, 중국인의 일본인 상점 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실행되었다. 1911년 1월 5일 다롄에서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자 차중 검역이 정차장 검역으로 변경되었다. 만철부속지에서는 1910년 12월 31일 장춘 남방지역에서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1911년 3월 1일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기까지 페페스트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아울러 중국인 노동자의 기차 승선이 금지되었으며, 일본인 관할지역으로의 중국인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7일간의 검역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를 위해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었다.

만철부속지를 비롯한 일본 통치지역에서 특징적인 방역 중의 하나는 검역 이외에 쥐잡기[驅鼠] 작업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는 점이다. 관동도독부 임시방역부의 조사에 의하면, 뤼순·다롄·잉커우·펑톈·장춘·안동 등지에서 1911년 1월에서 4월까지 70,556마리의 쥐를 잡아들였고, 그 중에서 35,225마리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페스트균이 검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⁹⁾ 당시 페페스트 방역을 위해 쥐잡기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쥐잡기운동이 과도하게 실행된 점은 단순한 정책적인 실수이거나 위생조건의 개선을 목표로 했다고보다는 전염원의 포획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냄으로써 점령지역의 위생수준을 확인시키고 검역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III. 식민지 조선의 페스트 방역

중국 동북부 지역의 페스트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1910년 10월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북만저우 지역의 페스트가 남만저우로 향하고 있으며 국경을 인접한 조선에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1910년 11월 경무총감부(警務總監府)는 각도에 예방경계령을 내려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했다.¹⁰⁾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한반도 내에서 특별한 검역이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1월 중순이 되어서야 검역을 시작하고 각종 훈령과 법령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검역과 훈령 역시 의례적인 것들이었다. 심지어 1월 12일 경무총감부 위생과장이 반포한 통첩은 유독지 혹은 의심지역에서 온 여행객에게 10일간의 검역기간을 거치도록 했다.¹¹⁾ 하지만 1월 14일 인천항에서는 오히려 콜레라 방역을 위해 진행되어온 검역마저 중단하기에 이르렀다.¹²⁾ 같은 날 조선총독부는 신의주 세관에서는 페스트 검역을 개시하도록 하였다.¹³⁾ 1911

9) 飯島涉, 『ペストと近代中國: 衛生の制度化と社會變容』, p188.

10) 「滿洲의 黑死病과 朝鮮」, 『每日申報』 (1910. 11. 20), 2면.

11) 「黑死病과 諭達」, 『每日申報』 (1911. 1. 15), 2면.

12) 「仁川港 檢疫廢止」, 『每日申報』 (1911. 1. 14), 2면.

13) 「黑死病과 道廳의 諭告」, 『每日申報』 (1911. 1. 21), 2면; 「總督府公文」, 『每日申報』 (1911. 1. 22), 1면.

년 1월 15일, 경무총감부는 중국인의 경우 10일간의 검역을 거치도록 하였다.¹⁴⁾ 1월 19일 발표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2호」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처소에 체류케 하고 또는 격리소에 수용하였다가 확실히 건강자로 인정치 아니하면 그 여행을 불허함’ 이라고 하였는데, 격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¹⁵⁾ 1월 20일 신의주에서는 의심여행객에게 3일간의 검역만을 실시하였다.¹⁶⁾ 물론 만저우 지역 교역품에 대한 금수조치, 방역헌병의 증원, 평양의 기차검역 등 강제적이고 무단적인 조치가 동원되었다.¹⁷⁾ 신의주에서 실제 검역은 1월 21일 시작되었고, 1월 23일부터는 원산에서 검역이 시작되었다.¹⁸⁾ 아울러 신의주에서는 경찰력을 활용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흑사병명심록(黑死病銘心錄)』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석탄산을 산포하여 페스트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안평선(安奉線)을 타고 조선에 들어오는 여행객에게는 3일 동안 검역을 거치게 하였다.¹⁹⁾ 1월 26일 북만저우의 페스트 유행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신의주 세관 관내 지서(支署) 네 곳의 수출 입수속을 중지하고 페스트 유행지역에서 건너온 여행객의 상륙을 금지하였다.²⁰⁾ 1월 27일부터는 만저우 및 기타 중국 등지에서 내항하는 선박은 신의주, 진남포, 인천, 부산 등지에서 검역을 거쳐야 입항이 가능하였다.²¹⁾

신의주를 비롯한 주요 국경 및 항구에서 일련의 검역 조치가 강화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병원조차 없는 실정이었고, 안동현(安東縣)과 상호협력을 기대했으나 안동현에는 별다른 방역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겨울철 결빙기를 이용하여 천여리에 걸쳐있는 압록강을 도보로 건너는 유민들을 일일이 검역하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신의주 검역지부를 중심으로 상류 벽동(碧潼)으로부터 하류 용암포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리간은 헌병을 파견하고, 부족인력은 조선인을 강제 징집하여 밤낮으로 경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헌병분견소 및 파출소에서 사역하는 조선인만 약 800명에 달하였다. 1월 26일까지 신의주 격리소에 수용된 인원은 91명이며, 모두 조선인과 일본인이고, 중국인은 단 1명뿐이었다.²²⁾ 2월 1일부터는 두만강 연안에서도 검역이 시작되었다.²³⁾

1월 14일부터 1월 27일에 이르기까지 신의주에서 검역한 인수는 일본인이 1,029명, 조선인이 521명, 중국인이 778명, 기타 외국인이 1명이었고, 격리소에 수용한 인수는 일본인이 128명, 조선인이 20명, 중국인이 20명인데, 페스트 감염 혐의자는 1명도 없었고, 또한 1월 21일부터는 중국인 노동자의 상륙을 금지하는 방침을 취한 고로 검역인수는 점차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일본인 여관으로 이를 충당하였다.²⁴⁾

북만저우 지역에서 페스트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자, 경기도 경무부에서는 수백리에

14) 「黑死病과 諭達」, 『每日申報』 (1911. 1. 15), 2면.

15) 「黑死病과 總監部」, 『每日申報』 (1911. 1. 21), 2면.

16) 「新義州防疫嚴密」, 『每日申報』 (1911. 1. 24), 2면.

17) 「黑死病과 總監部」, 『每日申報』 (1911. 1. 21), 2면.

18) 「總督府公文」, 『每日申報』 (1911. 1. 24), 1면.

19) 「新義州防疫嚴密」, 『每日申報』 (1911. 1. 24), 2면.

20) 「總督府公文」, 『每日申報』 (1911. 1. 28), 1면.

21) 「總督府公文」, 『每日申報』 (1911. 1. 29), 1면.

22) 「鴨綠江防疫完備(明石警務總長談)」, 『每日申報』 (1911. 1. 29), 2면.

23) 「豆滿江岸과 防疫」, 『每日申報』 (1911. 2. 3), 2면.6

24) 「新義州의 檢疫數」, 『每日申報』 (1911. 2. 7), 2면.

달하는 경기도 연안에 경찰서와 주재소를 중심으로 감시 보초를 세워 감시하도록 하였고, 각 동리(洞里)에는 방역자위단(防疫自衛團)을 조직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도록 했다.²⁵⁾ 경기도 연안에 설치된 방역자위단은 각 동마다 설치한 것으로 각 동의 장정 30명 정도로 구성되는 것으로 연안 경계를 위해 순번제로 감시초소를 운영했다. 경기도 헌병대장 야쿠시가와(藥師川)에 의하면, 방역자위단에 자원하는 자가 있을 정도로 방역자위단의 조직은 위생조합과 같은 자율적인 분위기였으며,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하여 단순 방역에 그치지 않고 위생조직이나 소방조직 등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²⁶⁾ 그러나 방역을 책임졌던 군경의 입장과 동원되는 민간의 입장을 고려할 때, 페스트방역에 대한 시각은 상반될 수밖에 없었다.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순번제로 연안을 감시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일 수밖에 없었다.²⁷⁾

일제가 페스트 방역 초기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쥐잡기운동이었다. 1911년 1월 15일, 경무총감부 위생과장은 쥐덫(捕鼠器)을 설치하여 쥐잡기를 실시한다는 통첩을 전국에 발표하였다.²⁸⁾ 특히 신의주와 인천에서는 쥐를 매입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²⁹⁾ 경성 북부경찰서에서도 쥐잡기를 통해 페스트를 예방할 수 있다는 교육과 선전을 강화하여 쥐잡기에 전력하도록 고무하였다.³⁰⁾ 쥐잡기를 고무하기 위해 경무총감부는 쥐덫을 직접 판매하였는데, 왕가에서 쥐덫 350개를 구입하여 창덕궁에 200개, 덕수궁에 150개를 비치하였다는 점을 선전하기도 하였고, 다수 포획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포상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³¹⁾ 실제로 2월 1일부터는 경성내 경찰서를 중심으로 쥐잡기운동을 본격화하여 6일 동안 7,900마리의 쥐를 포획했다.³²⁾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누계 15,253마리를 포획했으며, 2월 12일 포획자에 대한 포상 추첨을 실시하였다.³³⁾ 그밖에도 방역당국은 페스트 방역을 목적으로 부산항에서도 매일 200-300마리의 쥐를 사들이기도 했다.³⁴⁾

일제는 관동주 지역에서도 쥐잡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바 있었기 때문에, 쥐잡기운동이 조선에서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식민당국은 수백 수천건의 쥐 세균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10년 발생한 만저우 페페스트가 사실상 쥐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바 없었다. 식민당국의 쥐잡기운동의 목적은 페스트방역에 있었다기보다는 조선의 위생수준을 각인시키고 방역의 성과를 선전하고 위생활동을 훈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5) 「防疫自衛團組織」, 『每日申報』 (1911. 2. 10), 2면.

26) 「防疫自衛團(藥師川隊長의 談)」, 『每日申報』 (1911. 3. 1), 2면.

27) 「朝鮮의 防疫方針(中野警務官談)」, 『每日申報』 (1911. 3. 3), 3면.

28) 「黑死病과 諭達」, 『每日申報』 (1911. 1. 15), 2면.

29) 「因疫檢鼠」, 『每日申報』 (1911. 1. 15), 2면.

30) 「鈴木署長の 諭示」, 『每日申報』 (1911. 1. 26), 2면.

31) 「兩宮의 捕鼠獎勵」, 『每日申報』 (1911. 1. 27), 2면.

32) 「買鼠의 好成績」, 『每日申報』 (1911. 2. 10), 2면.

33) 「捕鼠一萬五千餘(12일 오후 1시 추첨)」, 『每日申報』 (1911. 2. 14), 3면.

34) 「釜山港의 買鼠數」, 『每日申報』 (1911. 2. 17), 2면.

IV. 맺음말: 식민당국의 페스트방역과 그 효과

일제의 페스트 방역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까? 첫째, 경무총감부의 방역대책은 초반부터 쥐잡기운동에 집중되었다. 대만에서 선페스트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당국은 쥐잡기운동에 매진하였다. 한성부민회나 총독부의원 등도 나서서 쥐잡기운동이 필요하다고 선전하였다. 조선에서 쥐잡기운동은 포상책 등으로 말미암아 크게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쥐뿔을 살 돈이 없는데 인민에게 손해를 끼친다거나 관청에서 쥐를 이용할 곳이 있어 쥐잡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등 쥐잡기운동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³⁵⁾ 조선을 방문했던 기타사토 역시도 선페스트와 달리 페페스트가 쥐를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에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기타사토는 페페스트의 감염원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인노동자의 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³⁶⁾

둘째, 페페스트는 사람을 통해 전염이 가능했고, 불결한 주거환경에서 집단 거주하는 20-30만명의 중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검역이 가장 중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만저주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검역은 사실상 실패였다. 신의주 지역에서 검역이 시작된 것은 1911년 1월 14일이었고, 만저우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1월 21일이었다. 이 시기는 이미 페스트로 인한 사망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였다. 1월 31일 설날에 고향에서 새해를 맞이하고픈 중국노동자들의 마지막 귀향으로 노동자들의 이동은 사실상 막바지였다. 말하자면 신의주의 검역 자체가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격리소 설비가 전무하여 의심환자 조차도 별도 격리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저우의 페페스트가 조선에 유입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중국인노동자의 이동경로에 조선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셋째, 검역기간에도 문제가 있었다. 방역 초기에는 10일간의 검역을 의도하였으나 방역 시설이 미비하여 실제로는 3일 정도 격리소를 경유하는 방안을 유지하였다. 러시아의 경우는 페스트방역을 위해 5일 정도를 소요했는데, 실질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11일 이상을 필요로 했다.

넷째, 방역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었나 하는 점이다. 뒤늦게 시작된 일제의 페스트 방역은 경찰과 군대를 활용한 방역이었다. 그것은 강압적이고 무단적인 조치였고, 조선에 페스트가 들어온 흔적이나 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적 방역은 지나치게혹심하다는 비평이 나올 정도였다.³⁷⁾

이처럼 일제 식민당국에 의한 페스트 통제는 대대적인 선전구호와 경찰과 군대를 활용한 무단적 통제가 강행된 탓에 그 효과가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결과를 예측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일제 식민당국의 페스트 통제는 식민공간을 훈육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목적에서 쥐잡기운동과 같은 사태의 본질을 벗어난 선전선동에 열중하고 있었고, 시기적으로 그 대처는 매우 미흡한 것이었다. 다만 만저우 페페스트 확산의 주범이었던 중국

35) 「捕鼠令 誤鮮者에게」, 『毎日申報』(1911. 2. 8), 1면.

36) 「北里博士의 講話(京城호텔로歡迎會席上)」, 『毎日申報』(1911. 2. 28), 3면.

37) 「朝鮮의 防疫方針(中野警務官談)」, 『毎日申報』(1911. 3. 3), 3면.

노동자의 귀향 노선에 조선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당국은 만저우로부터 불어오는 페스트의 공포를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만주페스트에 대한 식민당국의 방역대책은 식민지근대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제1차 만주페스트의 유행에서 조선이 별다른 인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식민당국의 철저한 방역으로 인한 필연적인 성공이 아니라 페스트의 전염병원이 조선으로 유입되지 않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었다.

만주방역은 서양의학이 국가위생의료체제에 극적으로 등장하게 된 중국근대 의학사상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여겨진다.³⁸⁾ 만주방역이 국가적인 중대사였듯이 대륙팽창을 기대하고 있던 일제로서도 제국의 경영과 식민지 운영에 방역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방역정책이 효과적인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대부분 군대와 경찰력을 동원한 억압적인 검역이나 효과 없는 백신투여 등 진부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제는 페스트 방역활동을 통해 강제성을 동원하기는 하였지만, 방역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제의 지배정책에 조선인들을 순응케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일련의 페스트 방역활동의 결과 조선에는 단 한 명의 페스트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사실 1910-1911년 조선에서 일제 식민당국의 페스트방역은 의외의 성공이었다. 검역은 뒤늦게 시작되었고, 효과적인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도 거의 없었으며, 식민당국은 페페스트의 억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쥐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식민당국이 왜 이런 정책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일본내무성 자료 등에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1920-1921년 제2차 만주페스트가 발생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페스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제1차 만주페스트에 대한 식민당국의 페스트 방역이 의외의 성공이었음을 반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8) Seon Hsiang-lin Lei, "Sovereignty and the Microscope: Constituting Notifiable Disease and Containing the Manchurian Plague", In Angela Leung and Charlotte Furth, eds., *Hygiene and Modernity in Chinese East Asia* (forthcoming, Duke University Press)의 연구사정리를 참고.

【Abstract】

Unexpected Success: The Spread of Manchurian Plague and the Response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1910-1911

SHIN Kyuhwan

1. Foreword

In regard to assessment of colonial modernity in sanitary medical service, I have recently pointed out that the existing research acknowledged its achievement to some degree while emphasizing oppression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¹⁾ The prevalence of plague in Manchuria in 1910 coincided with the period that Japan violated sovereignty of Joseon dynasty, and the preventive measures taken can b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initial deployment of the colonial rules. The current evaluation of the plague prevention in 1910-1911 did not deviate much from the main research trend.

Concerning this issue, Park Yun-jae (2000) noted that although Japanese government conducted plague prevention in a forced manner, it stressed public nature of epidemic prevention to justify the colonial rules, conformed Joseon people to the rules. It was reported that no one was infected with plague in Joseon.²⁾

However, the success of epidemic prevention did not solely depend on capacity of the authority. Various factors – growth environment of the disease medium, working of human immune system, effect of vaccine and treatment, etc. – are involved comprehensively, thus the successful epidemic prevention cannot be fully credited to the preventive measures taken.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preventing smallpox and cholera to some degree, but did not entirely control them. Also it needs to be noted that acute epidemic such as dysentery and typhoid as well as chronic epidemic like tuberculosis and venereal disease were on the rise. The relatively successful prevention of malaria was due to effective treatment of quinine rather than to preventive measures.

2. Spread of plague and epidemics prevention system in northern Manchuria

On September 16, 1910, the first plague patient was identified among the Chinese carpenters working

1) Sihm Kyu-hwan, “20seiki Zenhan, Keijo to Beijing niokeru Eisei Iryo Seido no Keisei to Eisei Tokei: ‘Shokuminchi Kindaisei’ron Hihan(The Making of a Modern Health Care System and Criticism of Colonial Modernity: Focusing on Health Statistics in Kyeongseong(Seoul) and Beijing during the 1st Half of 20th Century)”, *Rekishigaku Kenkyu(Journal of Historical Studies)* 834, (Tokyo, 2007. 11).

2) Park Yun-Jae, “1910nyeondae-cho Ilje-ui Pest Bangyeok-gwa Joseon Jibae(Japanese Anti-Plague Activities in the early 1910s Korea)”, *Ha Hyeon-gang Gyosu Jeongnyeon Ginyeom Noncong(Essays in Celebration of Prof. Ha Hyeon-gang’ Retirement)* (Seoul: Hyeon, 2000), pp.786-787.

near the Russian border. The epidemic began to spread among laborers and hunters who formed a settlement in a terribly unsanitary condition. By October, the disease reached Heilongjiang province and Manchuria. At that time, Manchuria was a small village where 5,000 Russians and 2,000 Chinese dwelled. The number of Chinese rose up to 10,000 during hunting seasons between April and October. During three months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1910, some 329 people died of plague in the region. The disease spread further to Harbin, Changchun, Jilin along the railroad route.³⁾ The disease spread rapidly southwards as the coolies in Shandong area got on the way home by train in the winter. Outbreak of plague had much to do with a person's status of wealth; some coolies were rejected from getting on the train.⁴⁾ Plague patients were found in 69 locations in three northeast provinces. According to the death statistics compiled by Kanto Totokufu Rinji Boekibu (關東都督府 臨時防疫部: Department of Temporary Epidemic Prevention of Office of the Governor General of Guandong), some 43,972 people died of plague between October 1910 and February 1911.⁵⁾ The disease reached as far as Beijing, Tianjin and Jinan.

To maintain domination over the empire, Russia and Japan pursu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pidemic prevention system. The local community in Manchuria was also active in preventing the disease.⁶⁾ The Chinese government failed to deal with the issue promptly, but began to realize that the epidemic prevention had much to do with maintenance of sovereignty. The government set up the Military Epidemics Prevention Office in December 1910, followed by many branches in provinces. The Chinese government made an all-out effort to control the epidemic. The general manager of epidemic prevention administration, Wu Liande(1879-1960) executed strong policies including incineration of bodies backed by the police force.⁷⁾

3) Ch'uan Shao Ching, Ch'uan Shao Ching, "Some Observations on the Origin of the Plague in Manchouli", International Plague Conference, *Report of the International Plague Conference held at Mukden, April, 1911* (Manila: Bureau of Printing, 1912), pp.27-28; Yu Xin-zhong eds., *Wenyixiade Shehui Zhengjiu (Social Relief under the Contagious Disease)* (Beijing: Zhongguo Shudian, 2004), pp.264-267.

4) In their 'exposure to death' coolies and beggars ranks first, the wealthy and the foreigners last. Mark Gamsa, "The Epidemic of Pneumonic Plague in Manchuria 1910-1911", *Past and Present*, no.190 (Feb. 2006), pp.154-155.

5) Estimates of the number of peopl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epidemic (more than half of them in Jilin province) range from 42,000 to 60,000. The highest figure of sixty thousand dead is put forward by Wu Liande, Nathan, and Qiao Runming. Iijima Wataru, *Pesuto to Kindai Chukoku(Plague and Modern China)* (Tokyo: Kenbun Shuppan, 2000), pp.141-142; Wu Lien-teh, *Plague Fighter: The Autobiography of Modern Chinese Physician*, p.33; Carl F. Nathan, *Plague Prevention and Politics in Manchuria, 1910~1931*, pp.1-2; Qiao Run-ming, "The Epidemic of Manchurian Plague and the Measure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Jindaishi Yanjiu(Research of Modern History)*, no.3, 2006, pp.108-110.

6) About Russian and Japanese preventive measure in Manchuria and conflict between Chinese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see Iijima Wataru, *Pesuto to Kindai Chukoku(Plague and Modern China)* (Tokyo: Kenbun Shuppan, 2000), pp.143-157, pp.187-194.

7) Qiao Run-ming, "The Epidemic of Manchurian Plague and the Measure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Research of Modern History(Jindaishi Yanjiu)*, no.3, 2006, pp.110-118.

The outbreak of plague reached a peak at the beginning of February; from the end of the month and on, the disease was mostly repressed. The governor-general of Three Eastern Provinces, Xi Liang(1853-1917), established Fengtian Temporary Epidemics Prevention Center; he took extensive measures including removal of Shandong coolies from the region, acknowledging that it was necessary to isolate the workers and to burn down houses that accommodated plague patients.

Japan acquired the Guandong territory at the end of the Russo-Japanese War in 1905, and institutions such as Kanto Totokufu (Guandong Office of the Governor General of Guangdong), South Manchuria Railroad Co., Ltd (Manchuria Railroad), (關東廳 海務局: Bureau of Maritime Affairs of Guandong Colonial Office) office led the actions to prevent the disease. The Manchuria Railroad installed 17 medical centers to engage in sanitary activities. Guandong maritime affairs office took charge of inspection, which was a core activity of sanitation administration.

In late October, 1910, the Manchuria Railroad raised an issue about necessity of inspection for its domains; subsequently, the company conducted inspection, installed quarantine wards and started rat removal movement. However, the breakout of pneumonic plague continued in the domain of Manchuria Railroad since the first patient was identified in southern Changchun region on December 31, 1910. The last patient was identified on March 1, 1911. Chinese workers were banned to get on a train and were denied access to Japanese administrative areas. In case they had a special reason to enter the area, a 7-day quarantine period was imposed. The police and military were mobilized to enforce the regula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epidemics prevention in Japanese governed areas including Manchuria Railroad domain was vigorous activity of rat trapping in addition to inspection. According to a survey by Kanto Totokufu Rinji Boekibu, some 70,556 rats were caught between January and April, 1911 in Lushun, Dalian, Yingkou, Fengtian, Changchun, Andong. 35,225 of them were inspected for virus infection, but none yielded plague virus.⁸⁾ The rat removal movement was not critical for epidemics prevention, but was very active nonetheless. Either it was simply a misguided policy or an intentional measure to demonstrate the sanitary level of the region and to justify the inspection by capturing source of infection and producing visible outcome.

3. Plague prevention in colonial Joseon

The news of the plague spread in northeast China reached Joseon on October 1910; two months after Japan occupied the country by force. Plague was moving from northern Manchuria to southern Manchuria, and posed a critical hazard to Joseon that bordered on the region. Nevertheless no special measure was taken for the next two month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started inspection by mid-January and announced related directives and regulations. However, they were more of a formal gesture than substantial measures. In Shinuiju, actual inspection began on January 21; Wonsan joined two days later.⁹⁾ Despite the fortifying inspection in major border areas and ports including Shinuiju, no

8) Iijima Wataru, *Pesuto to Kindai Chukoku(Plague and Modern China)*, p188.

quarantine ward was established. Also it was impossible to inspect everyone who walked across the Aprok River that stretched longer than 1,000 *li*.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expected cooperation of Andong district, but the district did not actively seek measures, which made it very difficult to inspect people who crossed the frozen river on foot during the winter. Therefore,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had to dispatch military policemen for the length of 300 *li* between Byeokdong in the upstream and Yongampo in the downstream, with Shinuiju inspection point as a center. Joseon people were forced to join as inspectors to fill the posts. Some 800 people were imposed forced labor, working at MP offices and police stands. By January 26, 91 people were confined in the Shinuiju quarantine ward. Everyone was either from Joseon or Japan except one Chinese.¹⁰⁾ The inspection also began along the Duman River from February 1.¹¹⁾

During January 14 through 27, the Shinuiju inspection center examined 1,029 Japanese, 521 Joseon people, 778 Chinese and one from another country. The quarantine ward accommodated 128 Japanese, 20 Joseon people and 20 Chinese. None was suspected of having plague. The ban of disembarkation of Chinese worker was lifted by January 21, which loosened the inspection. Meanwhile, the quarantine ward did not have sufficient capacity and some Japanese inns were used for the quarantine purpose.¹²⁾

From the early stage of epidemics prevention, Japan focused on rat removal movement. Between January 21 and February 9, 15,253 rats were captured. On February 12, prize was given to participants through drawing.¹³⁾ The colonial authority bought 200-300 rats daily at Busan port to prevent plague.¹⁴⁾ Thousands of virus tests were conducted, but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 rat and pneumonic plague.¹⁵⁾ This shows that the purpose of the movement was not preventive measure of pneumonic plague, but disciplining Joseon people as well as propagating sanitary activity of colonial authority.

4. Conclusion

How effective was the plague prevention activities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 measures of the Police Inspector General focused on rat removal movement from the beginning. Dr. Kitasato Shibasaburo(1853-9131), upon visiting Joseon, showed doubt about spread of pneumonic plague through rat unlike bubonic plague. Dr. Kitasato emphasized that the migration of Chinese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as primary source of pneumonic plague.¹⁶⁾

Pneumonic plague is contagious through a human body, thus the priority was to inspect the Chinese

9) "The Official Document of the Government-General", *Maeil Shinbo* (Daily News in Korean), (1911. 1. 24), p.1.

10) "The Completion of Disinfection in Aprok River", *Maeil Shinbo*, (1911. 1. 29), p.2.

11) "Duman Riverside and the disinfection", *Maeil Shinbo*, (1911. 2. 3), p.2.

12) "The Number of Quarantine in Shinuiju", *Maeil Shinbo*, (1911. 2. 7), p.2.

13) "The Deratizing Number 15,000", *Maeil Shinbo*, (1911. 2. 14), p.3.

14) "The Number of Buying Rats in Busan port", *Maeil Shinbo*, (1911. 2. 17), p.2.

15) "The Inspection of Rats from Contagious Disease", *Maeil Shinbo*, (1911. 1. 15), p.2.

16) "Dr. Kitasato's Lecture", *Maeil Shinbo*, (1911. 2. 28), p.3.

coolies in number of 200,000-300,000, who lived in an unsanitary settlement. However, the attempt at Manchuria was not successful. The actual inspection began in late January 1911 in Shinuiju area, and the mortality rate by plague reached peak by then. Also, the quarantine facility was insufficient that some people could not be effectively isolated. The reason pneumonic plague did not spread from Manchuria to Joseon was mostly because Chinese coolies did not enter Joseon.

The inspection period was also inappropriate. In the beginning, 10-day inspection was planned; due to insufficient facility, 3-day stay at a quarantine ward was opted. In case of Russia, the inspection was conducted for 5 days; 7 days in Guandong Leased Territory managed by Japan.

Next, there is a question on whether the epidemics prevention program was operated adequately. The belated actions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volved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 The effect of their epidemics prevention actions is in doubt.

One is likely to presume high effectiveness of the plague control policies taken b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due to extensive propaganda and the police and military force using forceful measures.¹⁷⁾ However,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focused on instigative and sometimes irrelevant aspect of the activities such as rat removal movement to re-organize the order in the colony. The fact that Joseon was out of the returning route of the Chinese coolies explains how the country could avoid the fiasco of the epidemics coming from Manchuria.

Medical Historians have described the containment of the Manchurian plague as a watershed event in the history of modern medicine in China.¹⁸⁾ To expand imperial territory,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China and Korea concentrated on the containment of the Manchurian plague. However, at least it is hard to regard the epidemics prevention measure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in Korea as a success case in modernizing the colony. It resulted more from unexpected success of avoiding influx of virus into Joseon than from measures taken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at Joseon was not affected by the first spread of plague in Manchuria.

17) "The Policy of Disinfection in Korea", *Maeil Shinbo*, (1911. 3. 3), p.3.

18) Seon Hsiang-lin Lei, "Sovereignty and the Microscope: Constituting Notifiable Disease and Containing the Manchurian Plague", In Angela Leung and Charlotte Furth, eds., *Hygiene and Modernity in Chinese East Asia* (forthcoming, Duke University Press).

朝鮮における「植民地近代」
分析のための視点
－ 医療・衛生を素材として －

■ 松本武祝（東京大 schools） ■

朝鮮における「植民地近代」分析のための視点

－医療・衛生を素材として－

松本武祝（東京大 schools）

〈目 次〉

- I. はじめに
- II. 植民地朝鮮における衛生・医療制度の展開
 - 1. 衛生制度の展開
 - 2. 植民地下の医療行政
- III. 医療・衛生機関の配置および利用状況
 - 1. 医療機関
 - 2. 衛生行政機関
- IV. 朝鮮人社会の反応
 - 1. “啓蒙” 運動の展開
 - 2. 医療をめぐる “伝統” と “近代” の交錯
 - 3. 医療行為としての巫俗
- V. おわりに

I. はじめに

近年、「植民地近代」という視点から、植民地朝鮮の社会経済史分析が数多くなされている。報告者も、この視点からいくつかの論稿を発表してきた¹⁾。これらの研究成果に対しては、植民地下の朝鮮社会における近代性の浸透程度および植民地権力のヘゲモニーを強調しすぎるという批判がある。「(「植民地近代」 論は－引用者)、 植民地権力の朝鮮社会の包摂性を重視するものであって、近代性も皇民性も容易に内面化し得ず苦悶を深める朝鮮民衆の精神世界への関心は薄い。植民地権力に回収しきれない人々や社会の諸相がみえ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²⁾ という趙景達氏の指摘に「植民地近代」批判の論点が端的に示されている。

本報告は、こうした批判を受け止めたうえで、「植民地近代」 論をいっそう深化させようとする試論である。ただし、誤解を避けるために、本論に入る前に3点を述べておきたい。

第1に、報告者の「植民地近代」分析の枠組は、(西洋由来の)近代的知識・装置－植民地権力－朝鮮人社会という3層の構造を前提としている。ヘゲモニー関係は、第1層の近代的知識・装置と第3層の朝鮮人社会とのあいだに成立したのであって、第2層の植民地権力と朝鮮人社会とのあいだに成立した(すなわち、朝鮮人社会は植民地権力に “合意” を与えた)ものとは捉えていない。

1) 松本武祝『朝鮮農民の<植民地近代>経験』社会評論社、2005年、は、近年の論稿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また、本報告は、その後に発表した「植民地朝鮮における衛生・医療制度の改編と朝鮮人社会の反応」『歴史学研究』第834号、2007年、を要約加筆したものである。

2) 趙景達「15年戦争下の朝鮮民衆——植民地近代論批判試論——」『朝鮮奨学会学術論文集』第25集、2005年、9頁より引用。

朝鮮人社会にとって植民地権力は、最大の近代的知識・装置の供給者であった。そのために、統治権力として“合意”を与え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朝鮮人は、植民地権力に接近することなしには、近代的知識・装置を需要することが困難であった。この構造にこそ、朝鮮人の「苦悶」の原因があると捉えている。

第2に、「植民地近代」の特質を考える際、近代的知識・装置の浸透程度においては、第3層の朝鮮者会内部において、「京城」－地方都市－農村のあいだに格差があったことを考慮に入れることが重要である。そして、植民地朝鮮と帝国との間での社会的分業(農工間垂直分業)が朝鮮農村に過剰人口を滞留させ、その結果、農村(村落)には“伝統的”な生活様式と社会関係が維持されていた、という視点を提示した。趙論文が言うところの「朝鮮民衆の精神世界」が再生産される空間の存在を、消極的にはあれ示唆したつもりである。少なくとも、分析対象に関しては類似性が大きいと考える。

第3に、「ヘゲモニー」という関係性に関する論点を付け加えておきたい。鹿島徹氏は、アカウンタビリティに「申し開き可能性」という訳語を当て、その権力作用に言及している³⁾。ヘゲモニーの効果は、個人や集団に対して特定の思考/生活様式を押しつけるという局面においてだけ作用するわけではなく、それから逸れようとする者(上の第2の論点に即していえば“伝統的”生活様式を営む朝鮮農民)に「申し開き」を強いる力でもあるといえるのではないか。

以上、「申し開き」を試みた上で、あらためて冒頭での「植民地近代」論批判に立ち戻ると、これまで、「植民地近代」論は、いわば戦術的に、植民地社会における“近代的”要素を抽出することに力を傾けてきたといえる。しかし、「植民地近代」批判に対して生産的に応えるためには、“近代”のヘゲモニーの外側に存続し続けた領域をも分析の内部に積極的に取り込む工夫が求められる段階に至っているといえそうである。その上で、“近代”のヘゲモニーの領域が「民衆世界」の側に拡散してゆく(しかし、おそらくは拡散しきることのない)過程を動態的に分析する作業が重要であると考ええる。

本報告では、「近代」を体現する装置の典型のひとつとして衛生・医療制度に着目する。植民地下における拡散過程とその境界を分析することで、上述の課題の接近を試みる。

II. 植民地朝鮮における衛生・医療制度の展開

1. 衛生制度の展開

1880年代以来、朝鮮の衛生行政においては伝染病予防がもっとも重要な課題として設定されていた。そして、衛生行政においては、細菌学など欧米由来の科学知識に依拠していた点および警察行政による一元的所管という体制がとられた点において、朝鮮(韓国)政府から朝鮮総督府へと制度が継承されていった側面が強い。

朝鮮総督府は、1911年に海港検疫のための法令を整備し(「海港検疫ニ関スル件」「海港検疫手続」)、さらに1915年には「伝染病予防令」を制定した。いずれの法令も、伝染病予防のために関係官吏が強制力を発動することを可能にするものであった。

3) 鹿島徹『可能性としての歴史』岩波書店、2006年、第5章を参照。

とくに後者の法令は、伝染病予防のための清潔・消毒、伝染病患者の隔離、交通手段と旅客に対する検疫など広汎な作業を、特定の対象に対して強制的に実施することのできる権限を関係官吏に与えている。そして、「朝鮮ハ未タ衛生思想発達セス為メニ一家族中ニ伝染病患者アレハ之ヲ隠匿スルカ如キ悪習迷信等ヲ脱セサルカ故ニ取締ノ任ニ当ル警察官ハ常ニ道途ノ風説売薬ノ販売授受等ニ注意シ能ク裏面ノ観察ニ勉メサル可ラス」⁴⁾とあるように、朝鮮総督府は、伝染病予防行政において、朝鮮人との日常的な接触の頻度の高い警察官による取締りをとくに重視した。

2. 植民地下の医療行政

大韓帝国政府は、1900年に「医師規則」を制定して医療行政の改革を進展させた。この規則に関して2つの特徴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⁵⁾。ひとつは、免許制度を導入することによって、国家が医師の質を管理しようとした点である。もうひとつは、「医学」の定義のなかに「診脈」など漢医学を念頭においた表現が挿入されており、西洋医だけでなく漢医に対しても「医師」としての資格を与えることを方針としていた点である。

その後の朝鮮総督府の医療行政は、免許制度という点では韓国政府のそれを継承したものの、西洋医を中心に据えるという点では大きな断絶がある。朝鮮総督府は、1913年に「医師規則」を制定して医師の資格とその職務や義務を定めた。朝鮮総督の指定した医学校の卒業者あるいは朝鮮総督の定めた医師試験の合格者などが医師免許を得ることとなった(同規則第1条)。すなわち、西洋医の教育を受けた者以外は、「医師」免許を受けることが不可能となったのである。

ただし、朝鮮総督府は漢医の存在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西洋医を養成するための社会的費用を考慮すると、短期間のうちに西洋医を漢医に代替することは困難であった。総督府は、1913年に「医生規則」を制定し、同規則発布以前に2年以上医業に従事している満20歳以上の朝鮮人の申請に対して、適当と認められた者に「医生」の免許を交付して医療行為を行うことを認めている。

医師の場合とは異なり、医生養成のための教育機関や試験制度は設けなかったため、医生の世代間の再生産は実質的に不可能となった。しかし、農村部の医師不足という状況を踏まえて⁶⁾、総督府は1919年に医生規則を改訂し、当分の間、3年以上医生に就いて医術を修得した朝鮮人のなかで適当な者には5年以内の期限を付して医生免許を与えることとした(「医生規則」付則)。なお、そのための申請に際しては、警察署が「漢法医トシテノ試験問題及其ノ答案ヲ添エ意見ヲ付シ」て、警察部長経由で警務総長に進達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⁷⁾。医生免許のために、試験制度が実質的に採用されたといえる⁸⁾。

こうして、漢医学は朝鮮総督府とりわけ警察によってその“質”を監視される対象となった。さらに、医生は、診断書、処方箋あるいは診療簿などの業務に関して医師と同様の職責を負った(「医生規則」第7条)。医療行政にとっても、こうした新たな能力を医生に身につけさせることが

4) 「衛生警察」朝鮮総督府警察官講習所『警察教科書』1924年、所収、33頁より引用。

5) 申東源「1910년대 일제의 보건 의료 정책——한의학 정책을 중심으로——」『韓国文化』第30号、2002年、337~338頁を参照。

6) 朝鮮総督府『朝鮮衛生要覧』1929年、38頁を参照。

7) 警務総監部衛生課白石安成『朝鮮衛生要義』1918年、52~53頁を参照。

8) 『医生試験問題解答集』という本が出版されて版を重ねている(여인석「조선개항 이후 韓医의 動態」『東方学志』第104号、1999年、308頁を参照)。

政策課題となった。西洋医学や衛生に関する知識を講義する「医生講習会」が、警察署長の責任のもとに、各地域で開催されるようになった。その際、教育内容を統一するために、警務總監部は「医方綱要」という著作まで準備している⁹⁾。

ところで、漢医(医生)と関連深い業種として、漢薬を扱う薬種商がある¹⁰⁾。すでに大韓帝国政府は、1900年に「薬種商規則」を制定し、地方庁による認可を薬種商の資格要件とする制度(試験制度はなし)を設けていた¹¹⁾。1912年に朝鮮總督府は、「薬品及薬品営業取締令」を制定した。同令および関連通牒は、漢薬を取扱っている者を念頭におきつつ、薬種商の営業許可のための手続きを定めている。すなわち、業者から出願書を受け付けた警察署は、出願者の知識、経験、素行、前科の有無などを調査した後に警務部長に進達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その後、“質”の維持が課題となり、1917年以降は、薬学校の卒業生など一部の申請者を除いて、警察署が「一定ノ標準ニ基キ試問ヲ行」なうこととなった¹²⁾。医生と同様に、薬種商もまた、その“質”が行政(警察)の監視対象とされたのである。

Ⅲ. 医療・衛生機関の配置および利用状況

1. 医療機関

医師(現地開業医/公医を含む)の総数¹³⁾は、1915年の953名から40年の3,633名へと3倍以上に急増している。とくに、朝鮮人医師は10倍近くに増えている(209名→2,283名)。1926年の数値によると、医師ひとり当たりの平均人口は、府部の1,870名に対して郡部はその約13倍に当たる24,408名であった。これに対して、医生ひとり当たり平均人口は、府部1,639名に対して、郡部では4,020名であった¹⁴⁾。府部・郡部間の格差も、医師のそれ(1:13)に比べて、医生のそれは1:2.5と格段に小さい。医生は、郡部での医療機関として重要な位置を占め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

ただし、医生の総数(すべて朝鮮人)は、1915~40年間に5,804名から3,604名へと、38%減少している。医生養成のための教育機関が設けられなかったこと、定期的に免許の更新が必要であったこと、が減少の原因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くわえて、医生よりも免許取得が容易な薬種商となって、漢医とほとんど違いのない診療活動を行う事例が少なくなかったという指摘がある¹⁵⁾。薬種商数は、1921年7,104名から25年には10,001名に増加している(以後漸減)¹⁶⁾。20年代後半以降の減少は、前述のような警察による監視の強化が影響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なお、前掲の「薬品及薬品営業取締令」は、売薬を患者(消費者)に直接販売する業者として売薬請負業と売薬行商という範疇を設けて、それぞれ警察署への願出許可を義務付けている。

9) 여인석同上論文、309頁を参照。

10) 植民地朝鮮の衛生・医療における漢薬や薬種商の重要性については、愼蒼健氏からご教示いただいた。

11) 申東源前掲「1910년대 일제의 보건 의료 정책」338頁を参照。

12) 以上、白石安成前掲書、107頁を参照。

13)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統計年報』各年版を参照。

14) 以上、白石安成前掲書、119頁を参照。

15) 여인석前掲論文、310頁を参照。

16) 朝鮮總督府警務局『朝鮮警察の概要』1927年、同『朝鮮警察概要』1939年、を参照。

2. 衛生行政機関

植民地朝鮮においては、急性感染症のうちコレラ・天然痘の感染は減少傾向にあったものの、赤痢・腸チフス・ジフテリアの抑制は困難であった。結核の流行が顕在化したのも植民地期の特徴であった¹⁷⁾。

急性伝染病感染の抑制に関しては植民地行政による衛生事業の展開が一定の役割を果たしたといえる。腸チフスの患者発見方法に関する日本と朝鮮の府・郡別の統計資料によると、医師による発見比率は、朝鮮の場合は府部94.4%(医生を含めて94.8%)、郡部31.8%(同じく45.5%)対して、日本の場合は市部93.3%、郡部84.0%であった¹⁸⁾。日本では都市－農村間での格差がほとんどなかったのに対して、朝鮮では大きな格差が存在した。朝鮮の農村部だけが医師による発見の比率が極端に低く、その分、警察など行政による検病調査に依存する比率が高かった。警察など行政機関による衛生事業は、先述したように、検病検査、消毒清潔、隔離など強制力をともなう事業であった。こうした強制力に対して、朝鮮人社会の側が、患者隠匿によって対抗することも頻発した。ただし、他方では、後述のように、朝鮮人社会の側が衛生行政に対して“協力”する場合もあった。

IV. 朝鮮人社会の反応

1. “啓蒙”運動の展開

伝染病に対する強制的な対処が、朝鮮人側の抵抗を伴いつつも、繰り返し実施されることによって、それらの対処が伝染病予防に有効であることを朝鮮人が経験的に了解するようになった可能性がある。さらに、経験的了解にとどまらず、朝鮮総督府、警察あるいは地方行政機関による“啓蒙”事業を通じて、伝染病の原因が細菌感染であること、西欧医学によって感染予防が可能であることを朝鮮人が広く理解するに至ったことも重要である。なお、それらの“啓蒙”事業は、主に博覧会、展覧会、講習会あるいは幻燈・活動写真会といった場において実施された。模型、写真、映像など参加者の視覚に訴える展示は、“啓蒙”の説得力を増強する機能を果たしたといえる¹⁹⁾。

行政機関による衛生に関する“啓蒙”活動によって啓発された朝鮮人知識人や地域のリーダー層が、次には“啓蒙”者として、地域住民に向き合うようになった。1920年代の「文化運動」にとって、衛生は重要な論点となった。そして青年団体などが、朝鮮各地で衛生に関する講演会などを開催した。

ところで、この「文化運動」においては、「農村改良が朝鮮文化建設の出発点²⁰⁾」という指摘

17) 飯島渉「医療・衛生事業の制度化と近代化——『植民地近代性』への試論」濱下武志・崔章集編『東アジアの中の日韓交流』慶應義塾大学出版会、2007年、所収、248頁を参照。

18) 前掲『朝鮮衛生要覧』121頁を参照。朝鮮の数値は1926・26年の平均値、日本のそれは1920年の数値。

19) 「京城」で開催された共進会での衛生に関する展示については、申東源前傾「세균설과 식민지 근대성 비판」を参照。警察・地方行政機関の催し物については前掲拙書、第1章を参照。

20) 同上書、221頁を参照。

があるほどに、農村での活動が重視されていた。上述のように、都市に比較して農村では“近代的”医療施設分布が希薄であった。この「文化運動」においては、それを都市部に対する農村部での文化の“遅れ”と理解した上で、その状況を「改良」という課題を設定したといえる。

ところで、1920年代末の「模範部落」事業にはじまって1932~40年の「農村振興運動」に至る朝鮮総督府の農村組織化政策においても、衛生事業は主要課題のひとつ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模範部落」事業では、井戸改修、便所改良、共同浴場、掃除、種痘といった衛生に関する事業が村落レベルで推進された。1937年時点で、朝鮮の72,065の「部落」のなかで、「改良井戸」を有する「部落」数は35,774(50%)に及んでおり、12項目に亘る「地方改良に関する施設」のなかでもっとも高い数値であった²¹⁾。

衛生行政や朝鮮人知識人による「啓蒙」活動を通じて、朝鮮農民は“<啓蒙される主体>として自らを認識する主体”さらには“啓蒙されるべき主体”へと作り上げられていったといえよう。総督府は、朝鮮農村を対象として村落ごとの自主事業として「改良井戸」の設置を奨励する事業を行った。その事業は一定の進捗を示したが、その要因のひとつとして、“啓蒙されるべき主体”という朝鮮農民の自己認識の広がりを挙げることができよう。

2. 医療をめぐる“伝統”と“近代”の交錯

植民地行政機関および朝鮮人「文化運動」による衛生に関する“啓蒙”事業は、西洋医学が依って立つ“科学性”をその説得力の根拠とした。前述のように、朝鮮総督府は細菌学説を紹介しながら、伝染病の感染と予防をめぐる因果関係を“科学的”に説明した。急性伝染病に苦しむ朝鮮人社会はその説明を受け入れて、自らも“啓蒙”活動を立ち上げた。

これに対して、陰陽五行説に依拠する漢医学は、疾病(とくに急性伝染病)の原因と治療に関する直接的な因果関係を説明することには不得手であったため、西洋医学からは“非科学的”という批判を受けることになる。また、巫俗などの民間信仰は、朝鮮人の治病行為と深く結びついていたが(この点後述)、西洋医学の“科学的”な視点からは迷信として排斥の対象とされてゆく。“啓蒙”は、朝鮮人社会の内部にある“非科学的なもの”を措定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説得力を補強したといえる。

ただし、西洋医学と漢医学や民間信仰は、つねに対立的な関係にあ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これに関して、ふたつの事例を紹介したい。

ひとつは、薬の新聞広告である²²⁾。植民地期には、新聞が“近代的”なマス・メディアとして登場し、新聞広告が広告媒体として影響力を増してゆく。新聞広告において、薬の広告は重要な位置を占めた。新聞は、“啓蒙”を唱える記事だけでなく、新聞広告を介しても、朝鮮人の衛生・医療観に影響を及ぼしていったことになる。細菌学説に接して、自身が日常生活において疾病(細菌)に露出された状態であることを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朝鮮人は、薬への志向を強めてゆく。新聞広告は、朝鮮人のこうした志向をいっそう刺激していった²³⁾。

21) 前掲拙書、第1章を参照。

22) 以下の記述は、고병철 「일제시대 건강 담론과 약의 구원론——<매일신보> 약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第30号、2003年、に依る。

23) 植民地下において新聞の読者は限定的であったが、代理店や行商あるいは通信販売による販売網の拡大とともに、新聞広告の内容もまた農村部に至るまで広く流通し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

新聞広告での表現に着目すると、第一に、洋装の男女など、“近代性”を可視化するようなデザインが選択され、薬の“近代”的イメージが強調されている。第二に、その一方で、「前近代的」とも見なされるような概念が選別的に使用されて、「万病通治薬」のイメージ創出に動員されている。すなわち、「妙薬」「霊薬」といった用語や〇〇丸・△△丹という薬名の多用や、ときには関帝のイメージ²⁴⁾の動員がそれである。新聞広告という“近代的”な媒体において、“近代的”な西洋医学と“伝統的”な薬のイメージとを結合され、「万病通治薬」という、それまでは民間信仰や漢医学の文脈において流通してきた観念が再生産されつつ、資本主義的市場という“近代的”な場で流通していったのである。

もうひとつの事例として、漢医学の西洋医学に対する対応を指摘しておきたい。この論点は、1930年代に朝鮮人の西洋医学者と漢医学者との間におこった「東西医学論争」および漢医学者の間で展開された「漢医学復興運動」の内容と密接に関わる。愼蒼健論文は、この過程で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漢医学者・趙憲泳の発言にとくに着目している²⁵⁾。

西洋医学者のなかにも漢医学に一定の理解を示す者がいたが、彼らは、漢医学と陰陽五行説を分離した上で、一部の治療方法や漢薬の“科学的”な効能のみを評価した。これに対して、趙は、一方では、西洋医学の病名に即して漢医学の治療法を示すなどの「漢医学の科学化」を試みる。そして、他方では、より根本的な課題として、陰陽を矛盾概念として捉え直した上で、陰陽説を弁証法として読み替える試みを行った。それによって、陽＝漢医学と陰＝西洋医学の交流から陰陽調和状態としての新医学の成立を展望している。そして、趙は、当時の朝鮮民衆の経済状況(貧困)とそれに伴う体質(菜食)という条件、そして漢医学の簡便性という条件を挙げて、植民地朝鮮における漢医学の適合性を強調した。さらには、「民衆の医術化(＝自分で自分を治療する)」を主張して、西洋医学と漢医学がともに抱える、患者に対するパターンリズムという限界を克服するという課題を提示した。

このように、1930年代後半に、漢医学者のなかから、西洋医学のヘゲモニーに対抗ながらも、それを排除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西洋医学との交流を通じて漢医学を「科学化」し、さらに新医学の成立そして「民衆の医術化」までも展望する者が現れたのである。

ただし、戦時期においては、それまで総督府にとって否定の対象であった“伝統的なもの”さえが“科学的”に解析されて、動員の対象へと改編されてゆく傾向が強まった²⁶⁾。漢医学をめぐる論争自体は1935年ごろに終結してしまうものの、漢医学の側からの課題提示は、その後、総力戦下の植民地権力と無関係ではいられなかった²⁷⁾。

24) 韓末には、関帝を祀る巫覡が数多く存在した(이용범 「근현대 한국무속의 역사적 변화」 『종교연구』 第30号、2003年、109頁を参照)。

25) 愼蒼健 「覇道に抗する王道としての医学——1930年代朝鮮における東西医学論争から——」 『思想』 第905号、1999年、を参照。

26) たとえば、農業生産力増強という視点から、日本人農学者の手によって朝鮮の「伝統的農法」の“科学的”な分析が進められて、その合理性が解明されている。あるいは社会学者(京城帝大)の鈴木栄太郎は、年中行事を「農村の人々の長い経験の中に合理化された一年間の生活の予定表」と規定した上で、いっそうの「合理化」を提案している(前掲拙書、第4章を参照)。

27) 戦時期には、洋薬不足に対応するために漢薬活用政策が強化された。また、道立医生講習所の設置、「公医生」制度の開始あるいは薬種商への医生資格賦与など医生を増強する政策がとられた(以上、申東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医史学』 第12巻第2号、2003年、を参照)。また、一連の論争のやりとりが一冊の著作に取り纏められたのが、1942年であった点にも着目すべきであろう。

3. 医療行為としての巫俗

朝鮮總督府は、1912年に「警察犯処罰規則」を設けて、巫俗および巫俗による医療行為を取締りの対象とした。1920年代には、警察当局が、「崇神人組合」などの中間組織を介して巫覡を組織化し、その行為の統制を図る手法が取られたが、十分に機能するに至らなかった²⁸⁾。1930年代には、總督府は、①その疾病治療行為は衛生思想の普及を遅らせ、また、危険をとまなう、②高額な祈祷への出費が朝鮮農村の疲弊の要因となっている、③合理的・自主的な精神の発達を阻害している、という認識を示しつつ、農村振興運動のなかで「迷信打破」を主張して、巫俗の漸次的な縮小を目指した²⁹⁾。

巫俗を対象とする「迷信打破」は、總督府だけでなく、朝鮮社会内部からも主張された³⁰⁾。1920~30年代には、各地の青年団体が「文化運動」の一環として「迷信打破運動」を展開した。青年団体が警察当局に巫俗取締りを強化するよう要請する事例もあった。あるいは、前項で述べた漢医学復興運動に関わった趙憲泳は、「漢医学の科学化」の一環として、「病人のそばに行き、読経・祈祷をして、香をたき、手足を撫でる」などの行為について、「漢医学の迷信と伝説の衣を脱ぎ捨て」ることの必要性を強調している³¹⁾。巫俗による医療行為は、漢医たちによっても、「非科学的」なものとして排除されたといえる。

とはいえ、巫俗が消滅することはなかった。巫覡の数については、12,380人という1930年の調査結果が残されている³²⁾。医生や薬種商の数を上回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村落において迷信・虚礼を打破し生活改善することを申し合わせたものの、医薬で治らない病気に対しては巫俗の儀礼を許容していた事例など、危機的状況が契機となってむしろ巫俗への依存が高まる傾向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³³⁾。

西洋医学による疾病の治療可能性に関する知識の流布は、治療に対する欲望を増大させる機能を果たしたといえる。ただし、すべての疾病に関して西洋医学による治療が可能となったわけではないし、さらに大多数の朝鮮人は西洋医学から疎外されていた。朝鮮人は、その増大した欲望の一部を巫俗に向け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V. おわりに

最後に、「植民地近代」に関して残された課題を提示して、本稿のまとめとしたい。冒頭で紹介した「植民地近代」論批判に加えて、報告者の「植民地近代」論は、じつは、もうひとつの深刻な批判に曝されている。すなわち、これまでの「植民地近代」論は、「植民地における近代」を論じたに過ぎず、「植民地近代」なるものを積極的に措定することに成功していないという批判

28) 青野正明『朝鮮農村の民族宗教——植民地期の天道教・金剛大教を中心に——』社会評論社、2001年、36~39頁を参照。

29) 同上書、109~112頁を参照。

30) 以下、이용범「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한국무속학』第9集、2005年、169~174頁を参照。

31) 愼蒼健前掲論文、36頁を参照。

32) 朝鮮總督府『朝鮮の巫覡』1932年、6頁を参照。

33) 이용범前掲「근현대 한국무속의 역사적 변화」128頁を参照。

である³⁴⁾。

「植民地近代」なる範疇を成立させるためには、「植民地」の本来的な定義からして、「民族」(異民族間での支配－従属関係)という視点が不可欠である。「植民地朝鮮」に関する研究史を整理した別稿で、この視点を、次ぎのようなかたちで仮説的に示唆したことがある³⁵⁾。植民地朝鮮(とくに農村部)においては、“伝統的”な生活領域の中に、“近代的”な装置や制度が闖入してゆく。慣習的な生活様式しか知らない人々が“近代的”な装置を間接・直接に経験したときに生じる身体上の違和感は、自身たちの生活様式を対自的に認識する契機となりうる。植民地朝鮮においては、この対自化の契機が、主として知識人の言動を介して、「民族」という観念に回収される傾向を有していたといえるのではないか。

「民俗信仰が我々民俗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伝統文化芸術の宝庫で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日帝強占期にマウル・クッ(마을·국)を維持し存続させたことは、我々の民族伝統の守護であり、自主的民族守護運動であったといえる」³⁶⁾、あるいは、「一般民衆は、我々伝来の漢医学を馴染みやすいものとして捉えており、漢医たちもまたこの事実をよく認識していた。この意味において漢医学は明らかに“民族的”性格の医学であった」³⁷⁾という、巫俗や韓医学に対する今日の歴史研究者の評価は、上の仮説と一見、整合的である。

ただし、本論で論じたように、同時代の朝鮮人知識人が巫俗や漢医学に対して示した否定的な評価とは隔たりが大きい³⁸⁾。このことは、一面では、植民地下での朝鮮人社会の“伝統的”領域に対して朝鮮人知識人がいかなる認識をしていたのかを、その多面性に着目して詳細に分析する作業を要請している。本稿では、その作業はまったくなされていない。そして、他面では、「植民地近代」という分析の枠組みを、植民地下での“近代”経験という過程だけでなく、それに対する解放後の再解釈という過程までも含めた長期の過程として設定すべきであ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³⁹⁾。

34) 朴ソプ「書評：松本武祝『朝鮮農村の＜植民地近代＞経験』」『歴史と経済』第194号、2007年、70頁を参照。

35) 前掲拙書、序章を参照。

36) 허용호「일제 강점기 경기도 민속신앙의 양성과 의의」『한국민속학』第11集、2006年、380頁より引用

37) 여인석前掲論文、320頁より引用

38) 愼蒼健前掲論文によると、漢医学を肯定的に捉えた「漢医学復興運動」においては、「民族文化の一構成要素として伝統医学を位置づけ、民族文化の危機を克服するためにこれを改革し保守しようとする」(72頁)動きは見られなかったという。

39) 辛炯基氏は、1930年代に活躍したモダニスト李孝石の小説が、その「雑種性」にもかかわらず、解放後の韓国においては民族主義文学として「誤読」されたことを指摘している(「李孝石と植民地近代」宮嶋博史ほか編『植民地近代の視点』岩波書店、2004年、所収)。ただし、この誤読が、解放後韓国の地政学的な配置によって構造化されていたものなのか、あるいは1930年代の同時代の人々によっても誤読すでに始まっていたものなのかについては論じられていない。

조선의 ‘식민지근대’ 분석을 위한 시점

— 의료·위생을 소재로 —

松本武祝 (東京大學校)

〈목 차〉

- I. I. 시작하면서
- II. 식민지 조선의 위생·의료제도의 전개
 - 1. 위생제도의 전개
 - 2. 식민지 하의 의료행정
- III. 의료·위생 기관의 배치 및 이용상황
 - 1. 의료기관
 - 2. 위생행정기관
- IV. 조선인 사회의 반응
 - 1. “계몽” 운동의 전개
 - 2. 의료를 둘러싼 “전통”과 “근대”의 교착
 - 3. 의료행위로서의 무속
- V. 끝내면서

I. 시작하면서

최근 「식민지근대」라는 시점에서 식민 지조선의 사회경제사에 대해 많은 분석이 되고 있다. 보고자도 이러한 시점에서 몇 가지 논문을 발표해왔다.¹⁾ 이 논문들의 연 구성과에 대해서는 식민지하 조선사회에서 의 근대성의 침투 정도 및 식민지권력의 헤게모니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이 있다. 「(「식민지근대」론은—인용자), 식민지권력의 조선사회의 포섭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근대성과 황민성 모두 용이하게 내면화하지 못하고 깊이 고뇌하는 조선민중의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은 깊지 않다. 식민지 권력으로 회수되지 못한 사람들과 사회의 제상(諸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²⁾와 같은 조경달의 지적에 「식민지근대」 비판의 논점이 단적으로 나타나있다.

본 보고는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식민지근대」론을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시론이다. 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론에 들어가지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말해 두고 싶다.

우선 보고자의 「식민지근대」 분석의 틀은 (서양에서 유래한) 근대적 지식·장치-식민

1) 마쓰모토 다케노리(松本武祝) 『조선농민 의 <식민지근대> 경험』 사회평론사(2005년)은 최근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또한 이 보고는 그 후에 발표한 「식민지 조선의 위생·의료제도의 개편과 조선인 사회의 반응」 『역사학연구』 제834호 2007년을 요약 가필한 것이다.

2) 조경달(趙景達) 「15년 전쟁 하의 조선민중——식민지 근대론 비판 시론——」 『조선장학회 학술논문집』 제25집(2005년) p.9에서 인용.

지 권력-조선인 사회라고 하는 3층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헤게모니 관계는 제1층의 근대적 지식·장치와 제3층의 조선인 사회 간에 성립했던 것으로 제2층의 식민지 권력과 조선인 사회 간에 성립되었던 (즉 조선인 사회는 식민지 권력에 “합의”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지 는 않다. 조선인 사회에 있어서 식민지 권력은 가장 큰 근대적 지식·장치의 공급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력으로 “합의”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식민지 권력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근대적 지식·장치를 수요하기가 어려웠다. 이 구 조에 바로 조선인의 「고민」의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식민지근대」의 특질을 고려할 때 근대적 지식·장치의 침투 정도에 서는 제3층인 조선사회 내부에서 「경성」-지방도시-농촌 간에는 격차가 있었다는 점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 민지 조선과 제국과의 사이의 사회적 분업 (농공간 수직 분업)이 조선농촌에 과잉 인구를 체류하게 하고 그 결과 농촌(촌락)에는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사회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시점을 제시했다. 조정달의 논문에서 지적하는 「조선 민중의 정신세계」가 재생산되는 공간의 존재를 소극적이 기는 하지만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분석대상과 관련해서는 유사성이 크다고 본다.

세 번째로, 「헤게모니」라고 하는 관계성에 관한 논점을 추가하고 싶다. 가시마 도루(鹿島徹)는 어카운터빌리티를 「변명의 가능성」이란 말로 번역해 그 권력 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³⁾ 헤게모니의 효과는 개인과 집단에 대해 특정 사고/생활양식을 강요하는 국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 (상기 두 번째 논점에 비추어 말하자면 “전통적” 생활양식을 영위하는 조선 농민)에게 「변명」을 강요하는 힘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변명」을 시도한 다음 다시 한 번 서두에 나왔던 「식민지근대」 비판론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까지 「식민지근대」론은 이른바 전술적으로 식민지 사회의 “근대적” 요소를 추출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근대」 비판에 생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대” 헤게모니의 외부에 계속 존재해 온 영역까지도 분석 내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 다음 “근대” 헤게모니의 영역이 「민중세계」 축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러나 아마도 확산되는 일은 없을)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에서는 「근대」를 체현하는 장치 의 전형적인 하나로 위생·의료제도에 주목 한다. 식민지 하에서의 확산과정과 그 경계를 분석함으로써 상기 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II. 식민지 조선의 위생·의료제도의 전개

1. 위생제도의 전개

1880년대 이후, 조선의 위생행정에 서는 전염병 예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

3) 가시마 도루 『가능성으로서의 역사(可能性としての歴史)』 이와나미서점(2006년) 제5장 참조.

었다. 그리고 위생행정에서는 세균학 등 구미에서 들어온 과학지식에 의존 했다는 점 및 경찰행정에 의한 일원적 소관과 같은 체제를 택했다는 점에서 조선 (한국)정부에서 조선총독부로 제도가 승계 된 측면이 강하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에 해항검역을 위 한 법령을 정비하고 (「해항검역에 관한 건」, 「해항검역수속」) 1915년에는 「전염병예방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 모두 전 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관리가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의 법령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청결·소독, 전염병 환자 격리, 교통수단과 여객에 대한 검역 등 광범위한 작업을 특정 대상에게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 을 관계 관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은 미비한 위생 사상 발달시키기 위 해 가족 중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를 은닉시키는 악습과 미신 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단속 임무를 하는 경찰관은 항시 길가에서 악을 판매하는 행위에 주의 하고 늘 뒤에서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⁴⁾고 되어 있듯이 조선총독부는 전염병 예방 행정에서 조선인과의 일상적인 접촉 빈도가 높은 경찰관에 의한 단속을 특히 중시했다.

2. 식민지 하의 의료행정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에 ‘의사규칙’ 을 제정하여 의료행정 개혁을 진전시켰다. 이 규칙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⁵⁾ 하나는 면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의사의 질을 관리하려고 한 점이다. 또 하나는 「의학」의 정의에 「진맥」 등 한의학을 염두에 둔 표현이 삽입되어 있어, 서양의 뿐만 아니라 한의에게도 「의사」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 방침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후 조선총독부의 의료행정은 면허 제 도라고 하는 점에서는 한국정부의 제도를 계승했으나, 서양의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 서는 큰 단절이 있다. 조선총독부는 1913 년에 「의생규칙」을 제정해 의사의 자격과 그 직무 및 의무를 정했다. 조선총독이 정한 의학교 졸업자 혹은 조선총독이 정한 의사시험 합격자 등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었다(동 규칙 제1조). 즉 서양의 교육 을 받은 자 외에는 「의사」 면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단, 조선총독부는 한의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서양의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서양의를 한의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총독부는 1913년에 「의생규칙」을 제정 하고, 동 규칙 발포 이전에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의 조선인이 신 청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의생」 면허를 교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와는 달리 의생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시험제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생의 세대간 재생산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농촌부의 의사부족이 라고 하는 정황을 감안해⁶⁾, 총독부는 1919 년에 의생규칙을 개정해 당분간 3년 이상 된 의생으로부터

4) 「위생경찰」 조선총독부 경찰관 강습소 『경찰교과서』 (1924년) p.33에서 인용.

5) 신동원 「1910년대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한의학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30호(2002년) p.337~ 338 참조.

6) 조선총독부 『조선위생요람』 (1929년) p.38 참조.

의술을 습득한 조선인 중 에서 적당한 자에게는 5년 이내라는 기한으로 의생 면허를 주게 되었다(「의생규칙」 부칙). 또한 이를 신청했을 때에는 경찰서가 「한법의로서 시험문제 및 그 답안을 첨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경찰부장을 경유해 경무총장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다⁷⁾. 의생면허를 위해 실질적으로는 시험 제도가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

이렇게 해서 한의학은 조선총독부, 특히 경찰에 의해 그 “질” 을 감시당하는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의생은 진단서, 처방전 혹은 진료부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사와 같은 직책을 맡았다(「의생규칙」 제7조). 의료행정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능력을 의생이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 과제가 되었다. 서양의학과 위생에 관한 지식을 강의하는 「의생강습회」가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각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 강습회의 교육 내용을 통일하기 위해 경무총감부는 「의방 강요(醫方綱要)」라고 하는 저작물까지 준비했다⁹⁾.

한편 한의(의생)과 관련이 깊은 업종으로 한약을 취급하는 약종상이 있다¹⁰⁾. 이미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에 「약종상규칙」을 제정해 지방청의 인가를 약종상의 자격 요건으로 삼는 제도(시험제도는 없음)를 마련했다¹¹⁾. 1912년에 조선총독부는 「약품 및 약품영업 단속령」을 제정했다. 이 단속령 및 관련 통첩은 한약을 취급하는 자를 엄두에 두면서 약종상의 영업허가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업자가 경찰서에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자의 지식, 경험, 소행, 전과 유무 등을 조사한 후 경무부장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질” 의 유지가 과제가 되어 1917년 이후에는 약학교 졸업생 등 일부 신청자를 제외하고 경찰서가 「일정한 표준을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¹²⁾. 의생과 마찬가지로 약종상 또한 그 “질” 이 행정(경찰)의 감시대상이 된 것이다.

III. 의료·위생 기관의 배치 및 이용상황

1. 의료기관

의사(현지개업의/공의를 포함)의 총수¹³⁾ 는 1915년 953명이었던 것이 40년에는 3,63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조선인의사는 10배 가까이 늘어났다(209명 → 2,283명). 1926년의 수치에 따르면 의사 일인당 평균 인구는 부부(府部)의 1,870명인데 비해 군부(郡部)는 그 약 13배에 달하는 24,408명이었다. 이에 비해 의생 일인당 평균 인구는 부부(府部)가 1,639명인데 비해 군부(郡部)는 4,020명이었다¹⁴⁾. 부부(府部)와 군부(郡部)간의 격차도 의사의 비

7) 경무총감부 위생과 시라이시 야스나리(白石安成) 『조선위생요의(朝鮮衛生要義)』 (1918년) p.52~53 참조.
 8) 『의생시험문제 해답집』이란 책이 출판 되어 중판되었다. (여인석 「조선개항 이후 韓醫의 動態」 『동방학지』 제104호, (1999년) p.308참조.
 9) 여인석 상동 논문, p.309 참조.
 10) 식민지 조선의 위생·의료에서의 한약과 약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신창건(愼蒼健)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11) 신동원 앞의 책 「1910년대 일제의 보건 의료 정책」 p.338 참조.
 12) 이상 시라이시 야스나리(白石安成)의 앞의 책, p.107 참조.
 13)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 각년판 참조.

율이 1:13인데 비해 의생의 비율은 1:2.5로 상당히 적다. 의생은 군부(郡部)에 서 의료기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의생의 총수 (모두 조선인)는 1915~40년까지 5,804명에서 3,604명으로 38% 가 감소했다. 의생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과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감소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의생보다도 면허취득이 용이한 약종상이 되어 한의와 거의 차이가 없는 진료 활동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 적이 있다¹⁵⁾. 약종상 수는 1921년 7,104명 에서 25년에는 10,001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서서히 감소)¹⁶⁾. 20년대 후반 이후의 감소는 앞서 서술한 경찰에 의한 감시 강화가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앞에 나온 「약품 및 약품영업 단속령」은 매약(売藥)을 환자(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자로서 매약청부업(売藥 請負業)과 매 약 행상이라는 범주를 마련해 각각 경찰서 에서 허가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위생행정기관

식민지 조선에서는 급성감염증 중 콜레라·천연두 감염은 감소세에 있었으나 이질·장티푸스·디프테리아를 억제하기 힘들었다. 결핵이 현저히 유행하기 시작한 것도 식민 지기의 특징이었다¹⁷⁾.

급성전염병 감염 억제와 관련해서는 식민 지 행정에 의한 위생 사업의 전개가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장티푸스 환자발견방법에 관한 일본과 조선의 부·군(府·郡)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사에 의한 발견비율은 조선의 경우에는 부부(府 部)가 94.4%(의생을 포함하면 94.8%), 군 부(郡部)가 31.8%(의생포함시 45.5%)인 데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시부(市部) 93.3%, 군부(郡部)는 84.0%였다¹⁸⁾. 일본에서는 도시-농촌간의 격차가 거의 없었던데 비해 조선에서는 큰 격차가 있었다. 조선의 농촌부 만이 의사에 의한 발견율이 극단적으로 낮았으며, 그만큼 경찰 등 행정에 의한 검병조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찰 등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사업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검병검사, 소독청결, 격리 등 강제력을 동반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강제력에 대해 조선인 사회가 환자 은닉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일도 빈번했다. 단 그런 한편으로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조선인 사회가 위생행정에 대해 “협조” 하는 경우도 있었다.

14) 이상 시라이시 야스나리 (白石安成)의 앞의 책, p.119 참조.

15) 여인석 앞의 논문, p.310 참조.

16)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1927년) 동 『조선경찰개요』(1939년) 참조.

17) 이지마 와타루(飯島渉) 「의료·위생사업의 제도화와 근대화 - 『식민지 근대성』으로 의 시론」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최장 집(崔章集) 편 『동아시아 속의 한일 교류』 게이오 의숙 대학 출판회(慶應義塾大学出版 会)(2007년) p. 248참조.

18) 앞의 책 『조선위생요람』 p.121 참조. 조선의 수치는 1926년의 평균치. 일본은 1920년의 수치.

IV. 조선인 사회의 반응

1. “계몽” 운동의 전개

전염병에 대한 강제적인 대처가 조선인들의 저항을 동반하면서도 되풀이 실시되면서 그러한 대처가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조선인이 경험적으로 납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험적 납득으로 끝나지 않고 조선총독부 경찰 혹은 지방 행정기관에 의한 “계몽” 사업을 통해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것, 서구의학에 의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을 조선인이 널리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계몽” 사업은 주로 박람회, 전람회, 강습회 혹은 환등·활동사진회와 같은 곳에서 실시되었다. 모형, 사진, 영상 등 참가자들의 시각에 호소하는 전시는 “계몽”의 설득력을 더욱 높이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¹⁹⁾.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에 관한 “계몽” 활동으로 인해 계발될 조선의 지식인과 지역 의 지도층이, 그 다음으로 “계몽” 자로서 지역주민들을 대하게 되었다. 1920년대 「문화운동」에 있어서 위생은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그리고 청년단체 등이 조선 각지에 서 위생에 관한 강연회 등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 「문화운동」에 있어서는 「농촌개량이 조선 문화 건설의 출발점」²⁰⁾이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농촌에서의 활동이 중시되고 있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에서는 “근대적” 의료시설의 분포가 희박했다. 이 ‘문화 운동’에서는 그것을 도시부에 대한 농촌부의 문화의 “후진”으로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개량」하려는 과제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20년대 말의 「모범부락」 사업으로 시작해 1932~40년의 「농촌진흥운동」에 이르는 조선총독부의 농촌조직화 정책에 서도 위생사업은 주요 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모범부락」 사업에서는 우물 개보수, 화장실 개량, 공동 목욕탕, 청소, 종두와 같은 위생과 관련된 사업이 촌락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1937년 시점에서 조선의 72,065개 「부락」 중에서 ‘개량 우물’이 있는 「부락」 수는 35,774(50%)에 달하며, 12개 항목에 달하는 「지방 개량에 관한 시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였다²¹⁾.

위생 행정과 조선인 지식인에 의한 「계몽」 활동을 통해 조선 농민은 “〈계몽된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주체” 나아가 “계몽되어야 할 주체”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총독부는 조선 농촌을 대상으로 촌락 단위 자율 사업으로 「개량우물」의 설치를 장려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그 사업은 일정 정도 진척이 있었으나 그 요인의 하나로 “계몽되어야 할 주체”라고 하는 조선 농민의 자기 인식 확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 「경성」에서 개최된 공진회에서의 위생에 관한 전시에 대해서는 신동원의 앞의 책 「세균설과 식민지 근대성 비판」을 참조. 경찰·지방행정기관의 행사에 대해서는 앞의 책 제1장 참조.

20) 상동, p.221 참조.

21) 앞의 책, 제1장 참조.

2. 의료를 둘러싼 “전통” 과 “근대” 의 교착

식민지 행정 기관 및 조선인 「문화운동」에 의한 위생 관련 “계몽” 사업은 서양 의학에 의해 성립된 “과학성” 을 설득력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세균학설을 소개하면서 전염병의 감염과 예방을 둘러싼 인과관계를 “과학적” 으로 설명했다. 급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조선인 사회는 그 설명을 받아들여 자신들 도 “계몽”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비해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하는 한의학은 질병(특히 급성전염병)의 원인과 치유에 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 의학으로 부터는 “비과학적” 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무속 등의 민간신앙은 조선인의 치병 행위와 깊이 결속되어 있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 서양 의학의 “과학적” 인 시점에서는 미신으로 보고 배척의 대상 이 되어간다. “계몽” 은 조선인 사회의 내부 에 있는 “비과학적인 것” 을 규정함으로써 그 설득력을 더했다고 할 수 있다.

단 서양의학과 한의학, 민간신앙이 항상 대립적인 관계였던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해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하나는 신문에 실린 약 광고다²²⁾. 식민지 기에는 신문이 “근대적” 인 매스 미디어로 등장해, 신문 광고가 광고 매체로 영향력을 더해간다. 신문광고에서 약의 광고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신문은 “계몽” 을 주창 하는 기사만이 아니라 신문 광고를 통해서 도 조선인의 위생·의료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세균학설에 접하고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질병(세균)에 노출된 상태임을 인식하게 된 조선인은 약에 대한 지향을 강화 해 간다. 신문광고는 조선인의 이러한 지향 을 더욱 자극했다²³⁾.

신문광고에 실린 표현에 주목해 보자면, 우선 양장을 한 남녀 등 “근대성” 을 가시화 하는 듯한 디자인이 선택되었으며 약의 “근대” 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 로는 그런 한편 「전근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 선별적으로 사용 되어 「만병통치약」의 이미지 창출에 동원 되었다. 즉, ‘묘약’ ‘영약’ 과 같은 용어와 ○○환·△△단과 같은 약명의 과용과 때로는 관운제의 이미지²⁴⁾가 동원된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의 하나다. 신문광고라고 하는 “근대적” 인 매체에서 “근대적” 인 서양의 학과 “전통적” 인 약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이제까지는 민간신앙과 한의학의 문맥에서 유통된 개념이 재 생산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이라고 하는 “근대적” 인 장에서 유통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 한의학의 서양의학에 대한 대응을 지적해두고 싶다. 이 논점은 1930년대에 조선인 서양의학자와 한의학 자 간에 있었던 「동서의학논쟁」 및 한의 학자들 사이에 전개된 「한의학 부흥 운동」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창건(愼蒼健)의 논문은 이 과정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한의학자 조헌영(趙憲泳)의 발언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²⁵⁾.

22) 이하의 기술은, 고병철 「일제시대 건강 담론과 약의 구원론——<매일신보> 약 광고 분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30호(2003년)에 의한 것이다.

23) 식민지 하에서 신문 독자는 한정적이었 으나 대리점과 행상 혹은 통신판매를 통한 판매망의 확대와 함께 신문 광고 내용 또한 농촌부에 이르기까지 널리 유통해 갔다고 볼 수 있다.

24) 한말에는 관운제를 모시는 무속신앙이 다수 존재했다(이용범 「근현대 한국무속의 역사적 변화」 『종교연구』 제30호, (2003년) p.109참조).

25) 신창건 「패도에 저항하는 왕도로서의 의 학 —— 1930년대 조선의 동서의학논쟁에서 ——」 『사상』

서양의학자들 중에도 한의학을 일정 정도 이해하는 학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한의학과 음양 오행설을 분리한 후 일보 치료방법과 한약의 “과학적”인 효능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현영은 한편으로는 서양의학의 병명에 따라 한의학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다 근본적인 과제로 음양을 모순 개념으로 바라본 다음 음양설을 변증법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시도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한 의학과 음=서양의학의 교류에서 음양이 조화된 상태에서 의 신의학 성립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조현영은 당시의 조선 민중의 경제상황(빈곤)과 그에 따른 체질(채식) 조건 그리고 한의학의 간편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들어 식민지 조선에서의 한의학의 적합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민중의 의술화 (=자신이 직접 치료하는)」를 주장하여 서양 의학과 한 의학 모두가 갖고 있는 환자에 대한 패터널리즘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처럼 1930년대 후반에 한의학자 중에 서도 서양의학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면서도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 의학과 교류를 통해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신의학의 성립 그리고 「민중의 의술화」까지 내다본 자가 나타난 것이다.

단 전시기에는 그 때까지 총독부에게 부정의 대상이었던 “전통적인 것”조차 “과학적”으로 해석되어 동원의 대상으로 개편되어 가는 경향이 강화되었다²⁶⁾. 한의학을 둘러싼 논쟁 자체는 1935년경에 종결되기는 하지만 한의학 제시한 과제는 그 후 총력전 하의 식민지 권력과 무관할 수는 없었다²⁷⁾.

3. 의료행위로서의 무속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경찰범 처벌 규칙」을 마련해 무속 및 무속에 의한 의료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1920년대에는 경찰 당국이 「숭신인조합(崇神人組合)」 등의 중간조직을 거쳐 무당을 조직화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법을 썼으나 충분히 기능하는데 이르지 못했다²⁸⁾. 1930년대에는 총독부는 ①그 질병 치료행위는 위생사상의 보급을 지연시키고 또한 위험을 동반한다 ②고액의 기도에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 조선농촌이 피폐해 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③합리적·자주적인 정신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농촌진흥운동 중에서 「미신 타파」를 주장하여 무속의 점진적인 축소를 지향했다²⁹⁾.

제905호(1999년) 참조.

26) 가령 농업생산력 증강이라는 시점에서 일본인 농학자 손에 의해 조선의 ‘전통적 농법’의 “과학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그 합리성이 해명되었다. 혹은 사회학자(경성 제대)인 스즈키 에이타로(鈴木栄太郎)는 연중 행사를 ‘농촌 사람들의 오랜 경험 속에서 합리화된 1년간의 생활 예정표’로 규정한 후 더욱더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앞의 책 제4장 참조).

27) 전시기에는 양약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한약 활용 정책이 강화되었다. 또한 도립 의생강습소 설치, 「공의생」제도 개시, 혹은 약종상에게 의생자격을 부여하는 등 의생을 증강하기 위한 정책이 채택되었다(이상, 신동원(申東源) 「조선총독부의 한의학 정책——193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의사학(医史学)』 제12권 제2호(2003년)참조). 또한 일련의 논쟁 내용이 한 권의 저작물에 담긴 것이 1942년이었던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8) 아오노 마사아키(青野正明) 『조선농촌의 민족 종교——식민지기의 천도교·금강대교를 중심으로——』 사회평론사(2001년) p.36~39참조.

29) 상동 p.109~112 참조.

무속을 대상으로 한 「미신타파」는 총독부만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에서도 주장되었다³⁰⁾. 1920~30년대에는 각지의 청년단 체가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미신타파 운동」을 전개했다. 청년단체가 경찰당국에 무속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혹은 전향에서 서술한 한의학 부흥운동에 참여한 조현영은 「한의학의 과학 화」의 일환으로 「환자 옆에 가서 독경·기도를 하고, 향을 태우고, 손발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해 「한의학의 미신과 전설 이라는 탈을 벗어던질 미신 타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³¹⁾. 무속에 의 한 의료행위는 한의사들 에게도 “비과학적”인 것으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무속이 소멸되는 일은 없었다. 무당의 수와 관련해서는 12,380 명이라는 1930년의 조사결과가 남아있다³²⁾. 의생과 약종상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촌락에서 미신·허례를 타파하고 생활을 개선하기로 했으나 의약으로 낫지 않는 병에 대해서는 무속의 의례를 허용하는 사례 등 위기적 상황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무속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³³⁾.

서양의학에 의한 질병의 치유가능성에 관한 지식의 유포는 치료에 대한 욕망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단 모든 질병을 서양의학이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을 아니며, 또한 대다수 조선인은 서양의 학으로부터 소외되었었다. 조선인은 그 증대된 욕망의 일부를 무속으로 돌린 것은 아닐까.

V.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식민지근대」와 관련해 남아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본고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서두에서 소개한 「식민 지근대」 비판론에 더해 보고자의 「식민지 근대」론은 실은 또 하나의 심각한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즉 지금까지의 「식민지근대」론은 「식민지에서의 근대」를 논한 것 에 지나지 않으며 「식민지근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³⁴⁾.

「식민지근대」라는 범주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의 근본적인 정의부터 시작해서 「민족」(이민족간에서의 지배- 종속 관계)라고 하는 시점이 반드시 필요 하다. 「식민지 조선」에 관한 연구사를 정리한 다른 원고에서 이 시점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가설적으로 시사한 일이 있다³⁵⁾. 식민지조선(특히 농촌부)에서는 “전통적”인 생활영역 중에서 “근대적”인 장치와 제도가 난입해 간다. 관습적인 생활양식 외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근대적”인 장치를 간접·직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생기는 신체상의 위화감은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대자

30) 이하 이용범 「무속에 대한 근대 한국사 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 학』 제9집(2005년) p.169~174참조.

31) 신창건 앞의 책, p.36 참조.

32) 조선총독부 『조선의 무당』 (1932년) p.6참조.

33) 이용범 앞의 책 「근현대 한국무속의 역사적 변화」 p.128 참조.

34) 박섭(朴ソプ) 「서평: 松本武祝 『조선 농촌의 〈식민지근대〉 경험』」 『역사와 경제』 제194호(2007년) p.70 참조.

35) 앞의 책, 서장 참조.

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식민지조선에서는 이 대자화의 계기가 주로 지식인의 언동을 거쳐서 「민족」이라는 관념에 회수 되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민속신앙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예술의 보고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마을 곳을 유지하고 존속시킨 것은 우리들의 민족 전통의 수호이며 자주적 민족수호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혹은 「일반 민중은 우리에게 전래되어 온 한의학을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의학은 명백하게 “민족적” 성격의 의학이었다」³⁷⁾고 하는 무속과 한의학에 대한 오늘날의 역사연구자들의 평가는 위의 가설과 일견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단 본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동시대 조선인 지식인이 무속과 한의학에 대해 나타낸 부정적인 평가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³⁸⁾. 이것은 일면 식민지하 조선인사회의 “전통적” 영역에 대해 조선인 지식인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를, 그 다면성에 주목해 상세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근대」라고 하는 분석의 틀을 식민지 하에서의 “근대” 경험이라고 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방 후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 장기간의 과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³⁹⁾.

36) 허용호 「일제 강점기 경기도 민속신앙의 양성과 의의」 『한국민속학』 제11집(2006년) p.380에서 인용

37) 여인석 앞의 논문, p.320에서 인용

38) 신창건의 앞의 논문에 따르면 한의학을 긍정적으로 바라 본 ‘한의학부흥운동’에서는 ‘민족문화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전통 의학을 보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개혁하고 보수하고자 한다’ (p.72)의 움직임은 볼 수 없었다고 한다.

39) 신형기(辛炯基)는 1930년대에 활약한 모더니스트 이효석의 소설이 그 ‘잡종성’에 도 불구하고 해방후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문학으로 ‘오독’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효석과 식민지근대」 미야자키 히로시(宮嶋博史)의 편 『식민지근대의 시점』 이와나미 서점, 2004년) 단 이 오독이 해방 후 한국의 지정학적인 배치로 인해 구조화 된 것인지, 혹은 1930년대 동시대 사람들 에게도 이미 오독이 시작되었는지는 논하고 있지 않다.

【Abstract】

A Perspective on the Analysis of Colonial Modernity in Korea: With the Focus on Medical and Sanitary Systems

MATSUMOTO Takenori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a number of analyses have been published on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colonial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al modernity.” I have also had a few papers published examining such history from this perspective. These research outcomes are criticized as excessively emphasizing the degree of infiltration of modernity in Korean society under colonial rule and the hegemony of colonial power. The point at issue of criticism on “colonial modernity” is plainly expressed in Cho Gyeong-dal’s indication that “the colonial modernity theory places importance on the colonial power’s subsumption of Korean society and it failed to internalize either modernity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serving the Japanese Emperor. It also shows little interest in the spiritual world of the Korean grassroots society whose agony was deepening. It does not explain various aspects of people and society that have no choice but to be subject to the colonial power.”

Until now, “colonial modernity” theory has focused on strategically extracting “modern” elements of colonial society. However, it has reached a stage where areas, which existed outside the “modernity,” need to be a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l analysis in order to productively respond to criticism on colonial modernity. After the process, it is deemed important to conduct a dynamic analysis of the process where the areas of hegemony of “modernity” are spreading into the “grassroots world” (However, comprehensive dissemination is not occurring).

This paper focuses on sanitary standards and medical systems as typical examples of something that exemplifies “modernity.” It attempts to approach the aforementioned task by analyzing the dissemination process and the boundaries under the colonial rule.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confrontation and mixture among modern Western medicine, which was used for sanitary and medical services, Korea’s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herbal medicine, and shamanistic customs.

1.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Medical and Sanitary Organizations

In 1925, the numbers of doctors and oriental doctors (herb doctors) stood at 1,448 and 4,915, respectively. According to statistics in 1926, difference in average population per doctor by cities and counties showed that the figure of herb doctors stood at 1:25, sharply smaller than 1:13 of that of doctors. Herb doctors occupied important position as a medical institution for counties. In counties, sellers of medical goods who dealt in herbal medicine and easily obtained licenses played an important

medical role. In 1925, the number of herb merchants amounted to 10,001, more than double the number of Oriental doctors.

However, in colonial Korea, although infection with cholera and smallpox was on the decline, among the acute infectious diseases, it was difficult to control the spread of dysentery, typhoid fever, and diphtheria.

Concerning control over acute infectious diseases, sanitary improvement projects by the colonial administration played a certain role. According to statistics on ways of discovering typhoid fever patients in Japan and Korea by cities and counties, diagnoses by doctors in Korea amounted to 94.4% in cities (including herb doctors: 94.8%) and 31.8% (including herb doctors 45.5%) in rural areas. In Japan, the figures were 93.3% in cities and 84% in rural areas. In Japan, there was littl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whereas there was a big gap in Korea. Only rural areas in Korea showed extremely low ratios of diagnoses by doctors and the ratio of dependency on health and disease surveys by the administration including the police was much higher. Sanitary projects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were carried out with legal force, including disease surveys, disinfection and sanitization, and isolation of patients. Resistance against such forced inspections frequently took place with Korean people concealing patients.

2. Reaction of Korean Society toward Medical and Sanitary Administration

1) Development of the “Enlightenment” Movement

Korean people resisted forced sanitary inspections and administration, whereas there were cases where Korean society “cooperated” with the sanitary administration. It is presumed that while witnessing the repeated process of such forceful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e number of Korean people who understood that such measures were effective in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would have increased. Moreov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mplemented the “enlightenment” movement (including exhibitions, lecture courses, and stereopticon and motion picture sessions) via the police and reg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disseminated information among Korean people that the cause of infectious diseases was bacterial infection and prevention of infection was possible with Western medicine.

Korean intellectuals and regional leaders who became enlightened through “enlightenment” activities on sanit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gradually came to approach local residents as “enlighteners.” In the “Culture Movement” in the 1920s, sanitation becam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debated. Moreover, youth organizations organized lectures on sanitation across Korea.

In the “Culture Movement,” activities in rural areas were considered important as much as saying that “improvement of rural areas was the starting point of building Korea’s culture.” As mentioned earlier, “modern” medical facilities were rare, compared to urban areas. Thu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is Culture Movement understood that culture in rural areas lagged behind that of urban areas, so it tackled these tasks to improve the situation.

Furthermore, sanitation projects were established as one of the major tasks in the rural village reform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the 1930s, which was represented by “rural village promotion movement.” Sanitation projects, including repair of wells, toilet improvement, construction of communal bathhouses, cleaning, and vaccination were implemented on village level.

Korean farmers can be described as “subjects for enlightenment” through sanitation administration or “enlightenment activities” by Korean intellectual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encouraged the installation of “improved wells” as a self-help project in villages of rural areas in Korea. The project showed steady progress and one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rogress was heightened awareness of Korean farmers who were the “subjects for enlightenment.”

2) Conflict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over Medical Services

Compared to Western medicine, Oriental medicine was insufficient in explaining the direct correlations between causes and treatment of diseases, particularly acute infectious diseases. Thus, it came to be criticized by Western medicine for being “unscientific.” In addition, folk beliefs such as shamanistic customs were closely related to acts of curing diseases among Korean people (this will be elaborated later), yet from the “scientific” perspective of Western medicine, it was a superstition and thus was an object of boycotting. Thus, it can be said that “enlightenment” reinforced its persuasive power by rectifying “unscientific” aspects in the Korean society.

However, Western medicine, Oriental medicine and folk beliefs were not always at confrontational relationships. Two case studies are introduced here concerning this aspect.

One is newspaper advertising of medicines. During the colonial era, newspapers emerged as “modern” mass media and increased its influence as an advertising medium. Medicine advertising occupied important position in newspaper advertising.

Concerning images in newspaper advertising, firstly, design which appeared to visualize “modernity” such as a couple wearing Western clothing was selected, emphasizing the “modern” image of medicine. Secondly, on the other hand, concepts which appeared to be “premodern” were selectively utilized to create an image of a panacea. In the “modern” medium of newspaper advertising, the image of “modern” Western medicine and image of “traditional” medicine were combined to represent a “panacea.” Thus, the notion which had been circulated in the context of folk beliefs and Oriental medicine, was reproduced and distributed in the “modern” capitalist market.

Another example is Oriental medicine’s response to Western medicine.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the “East-West Medicine Debate,” which occurred between Korean Western medical scientists and their Oriental medicine counterparts, and the “Oriental Medicine Revival Movement,” which emerged among Oriental medicine doctors. Dr. Shin Chang-geon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remarks by Oriental Medicine doctor Cho Heon-yeong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Cho attempted to “make Oriental medicine scientific,” showing treatments of Oriental medicine based on disease names in Western medicine. Moreover, he forecasted the establishment of new medicine through exchanges between Orient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Cho stressed the

appropriateness of Oriental medicine with such conditions as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Korean people at that time (poverty), conditions for constitu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vegetarian diet), and convenience of Oriental medicine.

As examined above, in the late 1930s, among Oriental medicine doctors, those who attempted to make Oriental medicine more scientific through exchanges with Western medicine and forecasted the establishment of new medicine, rather than confronting the hegemony of Western medicine and excluding it, emerged among Oriental medicine doctors.

3) Shamanism as Medical Practic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racked down on shamanistic customs and medical practice by such shamanistic practices. In the 1930s, based on recognition that 1) the Shaman practice of treating diseases delays the dissemination of sanitary awareness and is risky; 2) Spending on high-priced prayers causes impoverishment of Korean rural villages; and 3) Shamanism undermines the development of rational and independent spiri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called for “abolition of superstitions” within its rural village promotion movement, thereby seeking gradual reduction in shamanistic customs.

“Abolition of superstitions,” which were geared toward shamanism, was called for not only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t also within Korean society. In the 1920s and 1930s, youth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pushed ahead with a “movement to abolish superstitions” as part of the “Culture Movement.” There were even cases where youth organizations requested the police to reinforce its crackdown on shamanism. In addition, Cho Heon-yeong, who was involved in the aforementioned Oriental medicine revival movement, rejected medical practice by shamanism as being “unscientific” as part of his call for “making Oriental medicine scientific.”

This did not mean that shamanism became extinct. A 1930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shamans amounted to 12,380, exceeding the numbers of herb doctors and drug merchants. As indicated by the fact that, although it was agreed to improve life by eliminating superstitions and formalities within villages, there were cases where medical practice by shamans on diseases uncured through medical practice and drugs was allowed, reliance on shamanism continued in rural areas.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on possibilities of disease cures via Western medicine increased the Korean people’s desire for medical treatments. However, it was not possible to cure all diseases by using Western medicine, a majority of Korean people were estranged from Western medicine. Korean people still depended partly on shamanism.

Conclusion

Finally, I intend to close this paper by presenting some remaining challenges regarding “colonial modernity.” Not only criticism on “colonial modernity” theories introduced in the Introduction part, my “colonial modernity” theory itself also faces another serious criticism, which is that “colonial

modernity” theories until now merely discuss “modernity in colonies” and failed to succeed in actively defining colonial modernity.

In order to establish the category of “colonial modernity,” a perspective of dominance-subordination relationships between peoples with different customs and languages is essential from the fundamental definition of “colony.” I once theoretically indicated the methodology on such viewpoint in a separate article that summarized the history of research on “colonial modernity.” In colonial Korea (particularly in rural areas), “modern” mechanisms and systems intruded into “traditional” lifestyles. A sense of incongruity in the body that is generated when people, who only know customary lifestyles, hav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f “modern” mechanisms may serve as an opportunity to view their lifestyles objectively. In colonial Korea, it can be said that there were tendencies that such opportunities for objectification were recuperated into the notion of “the people” through remarks and actions of mainly intellectuals.

There have been assessments by present history researchers on shamanism and Oriental medicine as the following: “Folk religion had been said to be the treasure house of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and traditional culture and art,” “The maintenance and continuation of shamanistic exorcism rit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can be described as protection of Korean people’s tradition and independent national protection movement,” and “The general populace was used to Oriental medicine that had been handed down for a long time and Oriental doctors were also well aware of this and in this sense, Oriental medicine was a medicine of “national” nature.” Such assessments appear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aforementioned hypothesis.

Yet, as discussed in the paper, they have a huge gap with negative assessments by Korean intellectuals of the time on shamanism and Oriental medicine. This requires in-depth analysis of what perceptions Korean intellectuals had of “traditional” realms of Korean society under the colonial rule, based on their multifaceted aspects. This paper did not deal with such aspect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n indication that the analysis scope of “colonial modernity” should be set in the long-term, rather than merely being confined to the “modernity” experience under the colonial rule, but also including the process of its reinterpretation after liberation of the country.

20세기 전후 동학, 천도교의 위생 실천

■ 申 東 源 (韓國科學技術院) ■

20세기 전후 동학, 천도교의 위생 실천

申 東 源 (韓國科學技術院)

〈목 차〉

- I. 머리말
- II. 동학의 치병과 위생
- III. 갑진년(1904)의 단발(斷髮), 그 위생론적 함의
- IV. 천도교의 위생계몽운동
- V. 에필로그

I. 머리말

20여 년 전 내가 한말 한국 보건의료의 역사를 막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받은 질문이 기억이 난다. “1894년 동학교도들이 주축을 이룬 갑오농민군이 정부에 내정 개혁을 요구한 가운데 의학, 보건위생에 관한 내용 도 들어 있지 않았나요?” 물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가 읽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신분제의 폐지, 토지의 평균분작, 외세의 배격, 국정의 혁신 등 의학이나 위생보다 더욱 커다란 사항을 요구했을 뿐이다. 오히려 외세의 배격이 주요 목표 중 하나였으므로, 그들의 요구로부터 서양에서 유래한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근래에 동학과 천도교의 위생론을 연구하게 되면서 내 생각은 크게 바뀌었다.¹⁾ 의학이나 위생이 동학 또는 그 후계자들의 사고와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었다 해도 중요한 위치를 점했을 깨닫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나는 천도교의 위생론을 통해 “몸과 한국 근대의 형성”에 관한 또 다른 한 길이 존재했음을 밝히려고 한다. 기존의 내 연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대다수의 근대의학에 관한 연구는 근대성의 형성에서 미선교사의 역할, 일본제국주의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서양의 의학과 위생이 외래적인 요소이므로, 그것의 1차적인 담지자로 볼 수 있는 서양과 일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구는 대체적으로 근대인의 탄생에서 서양선교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하거나 일본제국주의의 억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영향을 미 선교회보다 더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식민지 제도를 통해 전면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양상은 억압적인 방법을 통해 외형적인 근대를 실현시켜 나가는 이른바 “식민지적 근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천도교의 몸과 위생을 다루는 이번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향, 즉 외부적

1) 신동원, “1910년 전후 천도교의 위생론－치병에서 위생으로”, 『갑진개화혁신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발표회 자료집』, 2004.10, 55-73쪽. 이 논문은 여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인 근대화, 강제적인 근대화와 다른 경향이 있었음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말의 동학, 이후의 천도교는 20세기 전후 매우 규모가 큰 집단으로 성장했는데, 이 종교의 범위 내에서 서양의 위생이 자발적이고, 내재적으로 수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 때 천도교 신도가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팽창했는데, 숫자의 과장을 감안한다 해도 그 규모는 가히 컸다. 천도교는 아직 신도 수 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의 견주어볼 때 훨씬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다. 천도교인들은 의식적으로 서양의 위생학을 수용하여 생활로 연결시켜 나갔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간 한국 근대 위생론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II. 동학의 치병과 위생

종교와 치병은 떼기 힘든 관계에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병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병에 관심을 가진다. 성인과 현자가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부지기수이며, 많은 종교가 그것을 드러내어 포교에 활용한다. 또 종교 경전은 직접 병에 대한 의학을 창안하기도 하며, 독특한 의술과 기도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게다가 병의 원인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종교에 따른 경건한 수행이 병을 극복하게 하고,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1860년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1824-1864)가 도를 얻어 포덕을 처음 펼칠 때부터 질병 구제는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空中으로 [한울님의] 말이 들리어갈오되 나의 靈符를 받아 사람들의 疾病을 건지고 나의 呪文을 받아 사람을 가르치되 나와 같이 되게한 즉 네 | 또한 長生하야 德을 天下에 퍼리라”²⁾는 내용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광제창생(廣濟蒼生)이 될 것이다. 이 광제창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의학적 측면에서 널리 질병을 구하고 목숨을 오래 살게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영적인 측면으로 병든 세상을 구제해 도가 영원히 펼쳐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영부는 사람의 病을 건지고 사람의 죽은 魂을 救하야 산 魂으로 돌이키며 人間社會의 모든 죄악과 弊癘을 다스리는 不死藥이니”³⁾ 라는 한울님의 말은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최제우가 “광제창생”의 도를 펼치던 시대는 정말로 그것이 절실히 요청되던 때였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피해, 외세의 확장으로 인한 두려움을 차치하더라도, 끊임없는 기근과 역병, 자연재해 때문에 온전히 삶을 영위하기 힘든 시대였다. 특히 역병의 피해는 대단해서 한 차례 유행에 수 십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최제우가 포덕을 시작하던 무렵인 1859-1860년 콜레라 대유행 때에는 사망자 수가 대략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대략 800만 전후였음을 감안한다면, 콜레라 단일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으로도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콜레라 한 경우만

2) 『천도교창건사』, 『동학사상자료집』2, 아세아문화사, 1979, 11-12쪽

3)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13쪽

을 셈한 것이고, 이에다 장티푸스, 두창, 이질, 성홍열 등 다른 전염병 유행까지를 계산한다면 전염병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

전염병으로 인한 민중 생활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염병이 돌면 그 해의 농사도 덩달아 지을 수가 없어서 기근이 반드시 뒤따랐다. 1821년 콜레라 유행은 농번기인 4-8월에 있었고 많은 역병이 농사철에 발생했다. 또한 굶주린 사람들은 유민으로 떠돌면서 하루하루 제대로 끼니를 잇기조차 힘들었다. 기아로 인한 처참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식을 굶주림 끝에 죽여 먹기도 했고”, “3-4살 난 어린아이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으며”, “남편이 쓰러져 굶어죽어감에도 자신의 죽그릇을 그러잡고 죽을 퍼먹던 여인의 모습”⁵⁾도 있었다. 즉,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목숨을 앗아가는 역병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은 일반 질병에도 크게 시달렸다. 약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 수두룩했다. 최제우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직접 환자를 고쳤다는 기록이 두 가지 남아 있다. 1861년(포덕2년) 의성 지방 김공서의 외아들의 중병을 고친 것⁶⁾과 1862년(포덕3년) 경주부윤 부인의 졸도병을 고친 것⁷⁾이 그것이다. 특히 경주부윤 부인 치료의 경우 “부윤이 예리를 보내여 대신사께 고하야 같으되 「들은즉 공이 요병의 묘술이 있다하니 청천대 공은 그 술을 시하소서」한대”라는 언급으로 봤을 때 최제우의 치병술이 세간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제우는 일부러 신통함과 이적(異蹟)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이제 病이 快差되엿으니 네 돌아가 告하라하시니 禮吏ㅣ 그말을 傳함애 果驗하엿는지라.
一府中이 다 이상히 생각하고 大神師를 따라 病을 治療하고자함애 大神師ㅣ 다 道德으로써
말씀하시고 조금도 異蹟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지아니하시다.⁸⁾

모든 것은 특별한 신통술 때문이 아니라 “도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김공서 외아들을 치료한 후에도 최제우는 “그것은 모두가 偶然이라 君의 알바 아니로되 내 그대에게 한말을 하고자하노니 삼가 잊지말라 세상의 큰 病을 고치면 적은 病은 自然히 없어지는것”이라 말했다.⁹⁾

최제우에게서 치병이 개인적인 행위로 나타나지만, 2대 교주 최시형(1827-1898)에게서는 좀더 집단적인 행위로 나타났다. 최시형은 1886년에 악질(惡疾)이 대유행할 것이라 하면서 교인들에게 악질을 피할 수 있는 묘책을 일러주었다. 그 내용을 「본교력사」(1912년 11월)

4) 조선 후기 전염병 피해에 대해서는 조 광(趙 瑠),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1982, 198쪽을 볼 것. 또한 16세기-17세기 전염병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김 호(金 皓), “16세기말-17세기초 의서(醫書) 편찬의 배경과 허준의 『동의보감』”,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논문, 1993, 4-23쪽을 볼 것.

5) 박영규(朴榮圭), “조선조 현종(顯宗) 경신년(庚申年間)의 기근에 대하여-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19, 1963, 19-20쪽.

6)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61쪽.

7)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71쪽.

8)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71쪽.

9)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62쪽.

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포덕 이십칠년 병술에 신스 | 강화의 골으치므로써 도인들은 성심으로 슈도하야 괴질 먼
홀 도리를 힘쓰라하시다. 이 췌에 신스 | 종용이 문도다려 닐너 골으샤쇠 금년에 반다시
악질이 대치하야 슈다흔 인명을 감홀터이니 그덕들은 몸조심을 극진히 하야 직앙을 피하도
록 힘쓰라 하시고 또 각처도인에게 통지하야 왈 슈도하기를 그전보다 갑절이나 더하되 마
음을 직히고 기운을 받으게하며 전일흔 정성으로 주문을 오이며 지성으로 청수를 들여서
써 한울의 다형함을 준비하라하시더니 과연 괴질이 대치하야 그병에 걸린자 | 벽에 한명이
살기어려웠스되 오작 도인의 집에는 한아도 걸닌자 | 업섯고 또 신식계신 동리 스십여호에
는 비록 교외인이라도 그병 알은자 | 한아도 업더라. (『본교력사번역』28, 1912.11월, 『한말천
도교자료집』2, 209쪽)

실제로 1886년에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다. 아마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대유행이
었다. 최시형은 그것을 예지하고 모든 교도에게 예방에 철저하라고 당부했다. 예방법은 다
음 두 가지였다. 첫째, 수도하기를 그전보다 갑절 더하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받을 것,
둘째, 전일한 정성으로 주문을 외며 지성으로 청수를 들여서 기도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백에 한 명도 살기 힘든” 그 병을, 동학교도의 집안과 최시형이 사는 마을 40여 호에
서는 아무도 앓지 않았다고 한다.

후대의 기록은 「본교력사」(1912년)와 약간 달리 기술하고 있다. 첫 기록인 「본교력사」에
서는 “더욱 열심히 수도하는 것”으로써 외부의 역병을 막았다고 했다. 하지만 「천도교회사
초고」(1920년)에서는 “지성기도(至誠祈禱)와 심화기화(心和氣和)와 함께 “도량(道場)을 청결
케” 했다는 청결(淸潔)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¹⁰⁾ 또한 100명에 1명도 살기 힘들다는 표현
이 “傳染에 免한 자 百에 1이 稀하였으되 오죽 道家에서는 1人도 傳染된 자가 無하고”로 바
뀌었다. 즉 「본교력사」의 기록은 병의 끔찍한 치사율을 말한 것인데 반해, 「천도교회사초
고」는 그것이 높은 발병률로 바뀌어 있다.

1933년에 정리된 「천도교창건사」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띠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布德27년 丙戌(1886) 4월에 神師 | 徒弟에게 일러갈으되 今年에 惡疾이 大熾하리라 하시
고 敎徒에게 一層祈禱에 힘쓰게하시니 특히 淸潔을 주로하라하니 그 要目인즉 묵은밥을 새
밥에 섞지말라 묵은 음식은 새로끌여먹으라 춤을 아무데나 밟지말라 만일 길이어든 땅에
묻고가라 大便을 본 뒤에 路邊이거든 땅에 묻고 가라 흘인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 집안
을 하로 두 번式 淸潔히 닦으라 하더니 이해 6월에 果然 | 怪疾이 大熾하야 傳染을 免한자
| 百에 하나이 없으되 오죽 道家에는 所犯이 없었고 神師 | 所居村 40戶에는 病에 걸린자
| 한사람도 없음에 遠近의 사람이 이 所聞을 듣고 神師를 찾아 道에 드는자 | 其數를 헤
일 수 없었다.¹¹⁾

「천도교회사초고」에서는 단지 도량의 청결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청결”의 내용을 부연했

10) 『천도교회사 초고』,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431쪽

11) 『천도교창건사』, 앞의 책, 128쪽.

다. 그것은 곧 1)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2)묵은 음식을 새로 끓여 먹으라, 3) 침을 아무 데나 뱉지 말고, 만일 길이어든 땅에 묻고 가라, 4)대변을 본 후 땅에 묻고 가라, 5)구정 물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 5)집안을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하라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이 기록에서는 또한 교도가 역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고 최시형을 찾아 교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1888년(포덕29년) 교도를 위한 내수도문(內修道文)에서 정형화했다. 내수도문은 여섯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2조와 3조가 이와 관련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집안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恭敬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奴隸를 子息같이 사랑하라. 牛馬六畜을 虐待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울님이 怒하시나니라.
2. 朝夕飯米를 낼 때에 한울님께 心告하라. 清潔한 물을 길어 飲食을 清潔케 하라.
3.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흙인물을 함부러 버리지 말라. 痰이나 鼻汁을 아모데나 吐하지 말라. 萬一 길이어든 반드시 묻으라 그러면 한울님이 감응하시나니라.
4. 일체 모든 사람을 한울로 認定하라. 손이 오거든 한울님이 오셨다하고 어린아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울님을 치는 것이니라.
5. 孕胎ㅣ 잇거든 몸을 더욱 操心하되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지말라. 모든일에 胎兒를 위하여 操心하라.
6. 다른 사람을 是非하지말라. 이는 한울을 是非하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貪하지 말라. 다만 勤勉하라.¹²⁾

이상의 추가 과정은 이전의 기억을 더욱 상세히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것일 수도 있다. 내수도문의 존재로 보아 후대에 임의로 추가한 것은 아닌 듯 보이지만, 시기에 따라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처음 기록에서는 동학의 수도 정신을 강조했고, 둘째 기록에서는 청결에 대한 관심을 약간 드러냈고, 셋째 기록에서는 청결과 위생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내수도문에서는 그러한 청결과 위생의 방법이 궁극적으로 한울님과 감응하려는 종교적 청결에서 비롯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과 감응할 때 청결의식은 많은 종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새 밥과 묵은 밥을 섞지 말라”, “침을 함부로 뱉지 말라”, “구정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대변을 보고 나서 흙으로 덮어라”, “물을 끓여 먹으라” 는 구체적인 위생지침은 일반적인 청결의식보다 한결음 더 나아간 측면이 있다.

나는 이러한 위생 지침이 동학이라는 종교의 청결과 관련된 것임과 동시에 근대위생지식의 수용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1876년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위생 지식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1882년에 발간된 『한성순보』를 통해서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¹³⁾ 또한 1885년 콜레라 유행의 조짐이 보이자 조선정부에서는 제증원의사 알렌을

12)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130-131쪽.

13) 개항이후 1880년대 위생사상의 보급에 대해서는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제2장을 참고할 것.

내세워 방역을 위한 위생 지침을 한성부민에게 포고한 바 있었다. 그 포고문에는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할 것, 하수구에 석회를 뿌릴 것, 물은 반드시 끓여 먹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⁴⁾ 나는 최시형이 이러한 근대적 위생지식을 접하고서 그것을 정성과 청결이라는 동학의 정신과 생활의식에 수용해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결과 동학교도는 역병에 전염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광제창생의 이념의 실현을 의미했다.

동학의 위생론은 3대 교주 손병희(1861-1922)에 의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1901년 그는 교도를 대상으로 하여 ‘위생에 관한 글월’을 발표했다. 이 무렵 손병희는 갑오농민전쟁 이후 위태해진 교세를 부흥해야 할 입장에 있었으며, 근대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마음먹었다. 일본 유학길에 오른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일본에는 그는 오세창, 박영효 등 개화인사와 접촉하면서 ‘개화’를 배우고 시국을 논의했다.¹⁵⁾ 1901년 일본에서 잠깐 국내에 돌아온 상황에서 손병희는 이 위생론을 교도에게 반포했다.

이 위생론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생리론, 서양의 위생학 지식을 동학의 교리에 흡수한 형태를 띠었으며 총론과 실행 지침인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각론을 보면 1888년 최시형이 제시한 내수도문은 한층 심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심(守心), 정기(正氣), 음식조절(飮食調節), 거처청결(居處清潔) 등 다음 네 가지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 守心이니 마음을 잠시라도 精脈이 떠나지 말게할지라 떠나지 안는바는 日用行事간 이것을 念念不忘하야 三端에 相違케말것이며
2. 正氣이니 喜怒哀樂間에 過度히말라. 怒가 過하면 經脈이 不通하고 愛가 過하면 精脈이 不和하고 喜樂이 過하면 散脈이 不調하나니 必是大害가 有할지라 愼之愼之하라
3. 飮食調節이니 飮食이 過하면 胃에 溢하고 胃에 溢하면 經絡이 不調하야 消食치못하는故로 害가 多하니라 人이 食하는物이 多하되 其中五穀은 純然한 精氣라 利가 有하고 餘外之物은 利害가 相反하니 제일 肉類는 害가 多하며 酒類도 또한 多害하니라
4. 居處淸淨이니 비록 土屋이라도 内外를 朝夕灑掃하고 居處를 精潔히하며 또는 近處에 水를 棄하지말라 腐敗하야 惡臭가 나면 有害하며 또는 몸을 자주 沐浴하라 몸에 汗津이 많으면 有害하니라.¹⁶⁾

수심에서는 마음의 정성이 꼭 찬 형태로 유지하는 것, 정기에서는 희로애락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음식조절에서는 지나친 음식 섭취를 삼갈 것, 거처청결에서는 거처와 신체 위생을 담았다. 거처 청결에서는 집 안팎을 깨끗이 유지하고, 근처에 물을 버리지 말고, 몸을 자주 씻을 것 세 가지를 명문화했다.

왜 이런 각론이 나왔는가 하는 이유는 총론에 담겨 있다. 위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손병희는 “方今世界에 衛生이 甚要하나 人이 모다 定命을 充치못한바 多함은 無他라 生의 根本을 몰음이오 或知하는자ㅣ 有하드래도 그대로 能守치 못하는까답이라 能知能行한다면 어찌 命을 充치 못하리오”라 말하면서 세계가 위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방법이 알려져 있

14) 김원모 완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출판부, 1991, 103쪽.

15)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203쪽.

16)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207-208쪽.

으나 그것을 모르거나 혹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임을 밝혔다.

손병희는 심(心)·성(性)·정(精)의 삼단론(三端論)을 제기하면서 총론과 위생 각론을 연결 지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것은 음양동정조화(陰陽動靜造化)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초로 생명이 태어날 때 순연한 음양의 이기(理氣)가 교응이 되어 생기며, 형체가 우선 생기고 그 다음에 기(氣)가 접하며, 기가 접하면 사지가 움직이고 이목이 열려 동작하게 되는 것이다. 손병희는 이것이 바로 심·성·정 삼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셋은 달리 말해 심은 기(氣)이고, 성(性)은 질(質)이고, 정(精)은 뇌골폐부개개절절(腦骨肺腑箇箇節節)에 응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손병희는 동작할 때 심(心)이 먼저 발하여 정(精)을 동하게 하고, 정이 동함으로 몸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움직일 때 심을 먼저 발하여 백체(百體)에 혈액과 정신이 통한 후에 동작하여야 잘못됨이 없게 되고, 말할 때에도 심(心)을 먼저 발하여 정맥(精脈)이 서로 통한 후에야 소모함이 없을 것이다. 만일 무심코 말을 줄지에 발하면 기혈이 크게 상하게 된다. 음식의 경우에도 무심코 폭음폭식하면 해가 생기고, 기거의 경우에도 무심코 줄지에 동하면 해가 생긴다.¹⁷⁾ 따라서 손병희는 심(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서 수심(守心)이 맨 처음에 놓고, 희로애락 등 심기(心氣)의 지나침을 경계하는 정기(正氣)를 그 다음에 놓고, 몸의 기를 해치는 외부의 음식과 불결한 기운에 대한 경계를 그 다음에 놓은 것이다.

질병 치병과 역병 불전염은 단지 말의 수사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치병과 위생은 많은 사람이 동학에 입교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 1900년 10월 선천에서 체포된 원의 길은 동학을 믿으면 질병을 물리치고 목숨을 연장하며 일생을 편히 지낼 수 있다고 해서 동학에 입교하였고, 선천의 오치덕은 어머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동학을 믿었으며, 선천의 이원선은 무병연수(無病延壽) 이외에도 자식을 갖게 해준다고 하기에 동학을 믿었다고 하였다. 또한 1901년 영변에서 체포되었던 강병업은 병을 제거하여 주고 농업과 축산업에 도움을 준다고 하기에 동학을 믿었다.¹⁸⁾ 이처럼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게 된다”는 동학에 대한 소문이 신도를 얻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통은 이후의 천도교에도 그대로 이어져 “우리 도는 세상의 병을 고치는 종교”임을 크게 강조했다.

III. 갑진년(1904)의 단발(斷髮), 그 위생론적 함의

1904년 9월 동학에서는 전 교도가 일제히 단발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떤 기록은 16만 명이라 하고 어떤 기록은 20여 만이라고도 한다. 단발과 함께 일제히 흑의(黑衣)를 입었다고도 하기 때문에 ‘단발흑의(斷髮黑衣)’ 운동이라고 말한다. 또 이 일이 있던 해가 갑진년이

17)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207-208쪽.

18) 『非章訓學存案』(규장각 도서번호 古5125-4).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21집, 1990, 70쪽.

기 때문에 천도교에서는 이를 ‘갑진개화(혁신)운동’이라고 부른다.

천도교 내부에서는 1904년 단발의 자초지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그것을 최초로 정리한 「본교력사」(1915년)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포덕 스십오년 갑진에 성시 크게 인계의 장인을 썬치고려야 도력을 행하시다.

성스ㅣ－일본서 권동진 오세창 도회연으로 더브러 의론하야 도인 회합할 계책을 명하사 진보회를 조직하라고 취지와 강령과 규칙을 만들어 리용구로 하야곰 한국에 건너와 그 일을 주관하게 하니라.

성스ㅣ글으샤디 지금세계에 단발안은 나라이 업슴은 다 위싱에 유익하고 일하기에 편리함을 위함이니 이 세상에 뜻잇는 자ㅣ 단발하지 안을슈 업슬쥔더러 더구나 우리도인이 머리를 깎지 안으면 도인의 독실한 뜻을 증험할슈업고 쏘한 세계사람의 공본된 인허를 엿을 슈업스니 우리종도는 일제히 머리를 깎는 것이 가하다 하시니 그히 구월일일에 도인의 단발하자ㅣ 십륙만여인이라 조선인 두루마기에 모즈쥔 제도가 이로부터 시작하니라.

이적 각처에서 지목이 심하야 도인이라고 즈쳐하지 못하고 모다 숨어지닌들 진보회를 조직하고 처처에 집회가 된다하니 도인들은 죽으나사나 기운을 다하야 세상구경을 하러 나오느디 각군 교졸비는 숨엇던사람이 나셔는 것을 다형이 녀여 뒤를짜르느자 만은지라.……

성스ㅣ 오세창 권동진 량한묵으로하야곰 대헌을 만들고 쏘 교병칙만장을 인쇄하야 한국으로 실어보느고 쏘 권도문을 반포하시다.¹⁹⁾

이 기록을 보면, 1904년 손병희가 전 교도의 단발을 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에 있으면서 권동진, 오세창, 조희연과 논의하여 동학의 “장애를 깨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그것은 동학을 진보회라는 단체로 재조직하고 국정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일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동학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 이후로 정부의 강한 탄압을 받아 지하에 숨어 있던 처지에 있었던 차, 외세와 근대문물을 배격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근대문물을 수용하여 정치적으로 부활하려고 한 것이 갑진년 ‘개혁’의 직접적인 동기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발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한 것이다. 손병희는 전 교도의 단발을 명했고 그 결과 16만 명이 단발을 했고, [검정] 두루마기에 모자를 쓰게 되었다. 단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손병희가 직접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단발 안한 나라가 없고, 둘째 단발이 위생에 유익하고 단발과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일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히 머리를 깎음으로써 동학의 문명화를 향한 뜻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세계 사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즉 동학의 폐쇄성을 벗고 문명화에 동참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으로서 단발과 흑의 착용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넓게 “세계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좀더 직접적으로는 당시 조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본”의 동학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

「본교력사」보다 5년 늦게 집필된 『천도교회사 초고』(1920)의 서술은 「본교력사」의 서술

19)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276쪽.

과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성사 왁 若配 大義를 擧코자할진대 반다시 一般道人的 結束이 必要하고 道人的 結束을 鞏固히 하려면 斷髮로써 盟함이 必要하니 먼저 道人的 斷髮을 勵行할지오……8월 30일에 성사 1의 令敎로써 道會의 斷髮한 자 16萬에 至하였더라.”²⁰⁾ 여기서 “세계 사람의 인정” 보다는 “도인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단발을 한 점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이에서는 1904년 무렵 동학의 위기의식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크게 느껴진다.

『천도교창건사』(1933년)의 서술은 단발과 흑의 착용이 “국정개혁을 위한 절규”를 드러낸 것이라 하여 그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 기록에서는 1904년(갑진년) 7월, 이미 동학이 설립했던 대동회라는 단체를 중립회로 바꾸었다가 다시 이를 진보회로 바꾸면서 4대 강령을 내놓았으며, 단발과 흑의착용은 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4대 강령이란 첫째,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 기초를 공고히 할 사”, 둘째, “정부를 개선할 사”, 셋째, “군정재정을 정리할 사”, 넷째,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사” 등과 같다. 단발과 흑의착용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百萬徒衆을 一朝에 動員케하고 京鄕各地에서 一齊開會하고 斷髮黑衣로써 死를 決하여 政府改革 國情更新을 絶叫하니 이 때에 會員 斷髮된 자 二十餘萬人에 達하고 八域 各郡에 進歩會의 旗幟가 森立하니 實로 天地에 壯觀이오 宇宙間 大快事였다.……一朝 二十餘萬人의 斷髮과 三百六十餘州의 會所를 設게 된 것은 실로 異蹟이라면 一大異蹟임으로써이였다. 그러나 멀지 아니하여 進歩會의 內容은 곧 東學黨인 것을 알게 되었다.²¹⁾

기 기록은 이전 두 기록보다 훨씬 웅변적인 어투로 씌어져 있으며, 단발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단발한 수자가 16만 명에서 20여만 명으로 증가되어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갑진년의 단발에 대해 천도교 측의 설명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연구자는 단발이 손병희와 일제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일제가 “갑오년과 같이 背日세력화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증표로 단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다.²²⁾ 즉 “이 때 단발은 명분은 문명개화와 단결이었지만 실제로는 背日을 안한다는 약속의 표현이었고 일진회와의 결합을 전제로 한 전단계적인 작업으로써 단결의 표시였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일제는 동학의 막대한 인적자원을 러일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고, 동학은 일제의 힘을 입어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요지이다.²³⁾

16만 명인지, 20여 만 명인지 정확한 수자는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진보회를 주축으로 하는 단발과 흑의 착용 운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측의 보고조사에 따르면, 1904년 11월 11일 진보회 참가자는 평안북도가 12개 군 2만여 명, 평안남도가 18개 군 5만여 명, 함경남도가 7개군 1만여 명, 황해도가 13개 군 6천여 명으로 조

20) 『천도교회사 초고』,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511-512쪽.

21) 『천도교창건사』, 『동학사상자료집』2, 아세아문화사, 1979, 223쪽, 228쪽.

22) 박정동, 『侍天敎宗釋史』3편, 1915, 6쪽, 이은숙, “동학교도의 ‘갑진개화운동’ (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사학과 석사논문, 1990, 37쪽에서 재인용.

23) 이은숙, “동학교도의 ‘갑진개화운동’ (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사학과 석사논문, 1990, 38쪽.

선 북부 지역에서만 참여자가 9만 여 명에 달하는 수자이며, 이는 전국의 진보회원 수의 약 3/4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는 약 12만여 명 정도의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²⁴⁾ 즉 일본측에서 파악한 수자와 동학내에서 파악한 수자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만 이상의 대규모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실제로 각 지역의 진보회의 창립대회에 대해서는 당시의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서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²⁵⁾

진보회를 흡수한 일진회의 단발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 1904년도 음력 8월 17일자(60호)에서 「단발천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향일에 일진회원이 단발한이후로 거괴의방한야 단발한는자가 날로 다증가한야 근일니로 단발한 사람이 천여명이 되느고로 진고지양복점에 와서 모조구한는 사람이 만타더라.

이를 보면, 서울에서 일진회원 천 여명이 단발한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실제로 이 때 단발에 참여했던 양구군 회장인 민영순이라는 인물은 후에 갑진년의 단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가평서 진보회를 해산하고 서울을 나온지 얼마 아니되어 진보회가 일진회와 화합하는 동시에 나는 스스로 양구군회장이 되어 개회할 날자는 시월입십팔일로 정하여 일반회원에게 미리 통지는 하고 개회림시하여 양구읍에를 당도하는데 그 고을 회원들은 구름모이듯합니다. 위선 가위 몇개를 준비하여노코 각처의 회원이 들어오는대로 상투짜르는 것이 큰일이외다. 가위를 들고 상투를 짜르는 사람이나 망건을 벗고 상투들어서 찢라달나고 대드는 사람이나 모다 병글병글 웃으며 깃뼘을 이기지 못하는데 회원 아닌 의인들은 큰변이나 난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모아 수군거려댁니다.²⁶⁾

이 회상에서는 단발하게 된 결연한 의지와 기쁜 마음으로 단발을 하는 모습, 주변사람의 의아함이 잘 드러나 있다.

갑진년 단발의 전반적인 모습과 의의에 대해서 필명 단발령인(斷髮令人)이 다음과 같이 충실하게 정리했다.

상투黨이 絶對의 勢力을 가지고 斷髮黨은 勢力이 아주 微弱하야 敢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甲辰 2月 8日 夜에 旅順에서 日露交戰의 大砲소리가 大地를 울리고 그 餘響이 半島江山을 震撼하니 朝鮮사람의 상투에는 前古에 없던 大受難期가 돌아왔다. 그것은 當時부터 號曰 300萬이라 하고 莫大한 潛勢力을 가지고 있던 東學黨이 進步會란 政治團體를 일으키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를 깎고 染色옷을 입게된일이였다. 進步會는 후에 宋秉畯의 一進會와 合勢하다 그들은 원래 宗教的으로 團合이 있고 自覺이 있기 때문에 그 指導者 孫義庵의 命令이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數十萬 大衆의 상투를 秋風落葉과 같이 無難

24) “陸海軍往復附一進會”,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참조.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계의 동향과 민족운동”, 1994,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논문, 5쪽에서 재인용.

25) 이에 대해서는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21집, 1990, 85쪽을 볼 것.

26) 민영순, “닛치지아는 갑진년개회”, 『신인간』 제2호, 1916.6, 46쪽.

하게 勇斷한 것이었다.

그때 斷髮하던 光景이야말로 참으로 可觀이오 奇觀이었다. 일시에 數百數十名式이 한곳에 모여서 斷髮을 하니 一般사람들이 駭怪驚愕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그때만하야도 地方에는 아직까지 理髮所도 없고 지금과 같이 理髮器械도 흔치 못하던때이라 자기네 손으로 가위를 가지고 급하게 깎고보니 마치 이붓장인 무덤에 벌초하야 놓은것같이 머리털이 折半은 듚성 듚성남아서 어찌보면 귀부스럼 앓은 사람의 머리도 같고 또 모양을 본다고 백호칼로 싹싹 깎다가 머리에 포(脯)를 떠서 流血이 狼藉한 사람도 있고 男子는 다만 自覺으로 깎는 다 할지라도 그의 父母와 妻子들은 그것을 보고 울며불며 떠러진 상투를 收拾도 하고 郡守觀察은 그들이 당장에 무슨일을 칠가바 무서워 불볼 떨기도 하였다.

머리털을 모아 한곳에 쌓으면 山덤이 같고 거기에다 또 불을 지르면 그 냄새에 一境의 사람들이 코를 외로 쥔었다. 洞里사람들이 退物網巾을 많이 獲得한 것은 勿論이거니와 宕巾장사, 납작帽子(所謂一進會帽子=캡)장사가 一時에 暴利를 얻었다. 兩班常놈 有識無識, 少年老少할 것 없이 거기 參與한 사람은 一時宕巾을 쓰게되니 鄭鑑錄에 所謂 李氏之末에 家家及第요 人人進士란말은 거기에 꼭 드러맞았다. 一進會의 末路行事야 어찌되었던 朝鮮斷髮黨에서 第一功勞者를 褒彰하라면 누구나 이 一進會를 먼저 손꼽을 것이다.²⁷⁾

여기서 단발령인은 조선 단발의 최고 공로로 일진회, 곧 동학당을 꼽았다. 또 동학당은 의암 손병희의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자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단행했음을 말했다. 끝으로 누구든지 반상(班常)과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자른 동학당의 모습이 마치 정감록이 말하는 대동세상과 같은 분위기와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10여 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제히 단발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1895년 을미년 단발령의 실패를 곰씹어 볼 때 그 의의는 더욱 크다.

최초의 단발령은 1895년 12월 30일 단행되었다. 이는 을미사변으로 왕비가 살해당하고, 국왕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었으며, 조정에서 일본의 입김이 쇠퇴하던 정치적 환경에서 단행되었다. 즉, 갑오년, 을미년의 개혁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1895년 12월 30일자 내부대신서리 유길준의 이름으로 발표된 단발령에 관한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번 단발함은 생(生)을 위(衛)함에 이롭고, 사(事)를 작(作)함에 편하기 위하여 우리 성상 폐하께옵서 정치 개혁과 민국 부강을 도유(圖猷)하사 솔선 궁행하사 표준을 시하심이라. 무릇 우리 대조선국민인은 이와 같은 성의(聖意)를 앙체(仰體)하되 의관 제도는 다음과 같이 고시함. 개국 504년 11월 15일 내부대신서리내부협판 유길준

1. 국복(國服)이 신(身)에 재(在)하니 의관(衣冠)은 국복 기한 전에 잉구(仍舊)하여 백색을 사용함.
1. 망건을 폐지함.
1. 의복제도는 외국제를 채용하여도 무방함.

27) 斷髮令人, “「상투」의 受難實話”, 『조광』 제1권 제2호, 1935.12, 216-217쪽.

여기서 단발과 의복 제도 변화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넓은 차원에서 정치 개혁과 민국 부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개혁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위생과 일하기 편리함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단발령은 구습의 혁파와 철저한 개혁의 상징으로 선택되었다.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같은 강압 조치는 이전에 전무한 일이었다.

상투는 남성, 성인, 결혼 등을 뜻하는 관념,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인과 일본인과 다른 조선인의 수백년 또는 수천년의 역사성이 응축된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상투를 자르는 행위를 위생을 증진시키고,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행위로 인식하기 보다는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을 허물기 위한 사악한 의도로 파악하였다. 조선인에게 상투는 조선인을 오랑캐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전통 중의 하나였다. 만주족이나 일본인, 더 나아가 서양인과 달리 존주(尊周)의 전통이 면연하게 이어져 있는 결정체가 조선인의 의관과 상투였기 때문이다.²⁸⁾

따라서 일시에 강제적인 권력에 의해서 사회적인, 역사적인 삶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 인민으로서는 치욕을 감수하거나 그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단발을 당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사람들은 관리의 눈을 피해 운둔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일어섰다. 지방 곳곳에서 의병이 세차게 봉기했으며, 그것은 단지 단발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단발을 자행한 정부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였다.²⁹⁾ 이같이 저항이 거세자 1896년 1월말 총리대신 김홍집은 단발령이 단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단발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³⁰⁾ 또한 2월 초 아관파천이 있는 후 고종은 2월 11일자로 “상투를 자른 것에 대하여 짐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긴박한 문제였던가? 반역자들은 힘과 강압을 사용하여서 상투 사건을 일으켰다.……상투를 자르는 경우와 같이 어느 누구도 의복과 망건에 대해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백성을 괴롭히는 악은 정부에 의해 바로잡힐 것이다.”³¹⁾라는 조칙을 발표하여 일단락 되었다. 발표 직후 집무실을 지키다 체포된 총리대신을 비롯한 대신들이 붙잡혀 거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즉, “상투가 승리한 것이다.”³²⁾

이후 단발은 국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단발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관리가 되려는 자, 기독교 신도 가운데 단발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04년 갑진년 동학교도의 자발적인 단발로 해서 10여만 명 이상이 동시에 단발을 단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³³⁾ 이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십여 만 명 이상이 단발하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단발에는 비록 ‘위생(衛生)’이라는 논리가 가장 밑바탕에 놓여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그 자체는 단발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단발을

28) 이근원, 「화이의복변(華夷衣服辨)」, 『금계집(錦溪集)』 권 15.

2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 240-277쪽.

3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 243쪽.

31)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421-2쪽.

32) 위의 책, 살림, 1994, 423쪽.

33) 이후 일본의 강한 압력 속에서 대한제국은 1908년 고종의 양위 이후 융희 원년 8월에 황제의 이름으로 ‘단발령’과 ‘의복개제’를 내렸다.(『황성신문』, 1908, 8월 19일자.)

강제한 논리라 보기는 힘들다. 단발은 “문명화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냐” 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었다. 달리는 “일본을 따를 것인가 아니냐” 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강하게 풍겼다. 즉 단발은 근대화와 식민지화 양단에 걸쳐 존재했다. 따라서 그 어디를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동학교도가 일제히 단발을 시행할 때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었다. 동학은 자신의 진보회가 화합한 일진회가 후에 노골적인 친일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근대화의 측면보다는 식민지화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진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손병희는 1906년 동학을 천도교로 고치면서 일진회가 풍기는 친일의 색채를 걷어냈다. 그 이후 1919년 3·1운동까지의 궤적을 보면, 천도교는 근대화를 통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노선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³⁴⁾ 이런 노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갑진년의 “단발흑의운동” 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시천교(侍天敎)쪽에서 주장하는 친일을 통한 교단의 인정이라는 측면보다는 교도, 더 나아가 조선 민중의 문명화를 통한 독립의 쟁취라는 측면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발적인 의지로, 스스로 단발이라는 용단을 내린 데에서는 지도자 손병희의 카리스마 뿐만 아니라 동학교도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 나라의 독립과 자강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타인의 경악 속에서 ‘싱글벙글’ 머리를 자를 수 있었던 힘은 거기에 있었다. 또한 몇몇 개인이 아니라 십여 만의 신도가 일제히 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염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준다.

IV. 천도교의 위생계몽운동

1901년도에 반포된 손병희의 위생론이 수십여기의 교도의 개인위생에 치중한 것이었다면, 일본에 장기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여 내놓은 위생론은 그보다 훨씬 원대한 국가차원의 공중위생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동학교도(천도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근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입헌군주제 국가를 건설하려는 손병희의 야심만만한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906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는 한편 천도교 중앙본부를 서울에 설치하는 한편, 입헌군주제를 골간으로 하는 자신의 구상을 「준비시대」라는 글로 드러냈다.

이 논문의 총론에서 손병희는 “生理學으로써 其養生을 知케함”³⁵⁾라 하여 서양생리학을 양생의 기초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전국의 지방자치 조직과 활동을 논한 ‘鄉自治’의 부록을 통해 각 지방에서 반드시 해야 할 위생사무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좀 길지만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人의 不幸은 疾病에서 莫過호니 疾病의 來함은 不潔함으로부터 始함이 다호니 不潔者

34) 이에 대해서는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2)의 제1장 “1905~1919년간 천도교단의 문명개화노선과 3·1운동”을 볼 것.

35) 최기영·박명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300쪽.

는 家宅 附近에 腐水와 穢物과 汚濕之氣가 最大함으로 以함이라 是故로 平時에는 家諭戶說
 ㅎ야써 清潔法을 務行홀식 厠溷之戶을 密閉ㅎ야 其穢臭之洩을 防ㅎ며 汚水之道를(汚水者
 는 滌衣와 滌器의 水야) 疏通ㅎ야 其鬱濕之蒸을 祛ㅎ고 闔房과 庭階의 灑掃를 恒勤ㅎ며 塵
 芥는 必掃ㅎ고 草菜는 必除ㅎ야 若怠惰者 | 有ㅎ면 督迫홀지며 且市售之物은 腐魚敗肉과
 時果의 不熟者는 其販賣함을 禁하며 飲用水에 至ㅎ야는 其用意를 尤新홀지니 不潔之水는
 萬病之源이 됨이라 傳染病이 流行ㅎ는 時에 至ㅎ야는 豫防之法을 敎行홀지니 豫防法者는
 病家附近之地에 警戒線을 劃定ㅎ야써 行人의 交通함을 遮斷ㅎ고 此其家에 臨檢ㅎ야 石炭
 灰酸等物로써 病人의 衣衿과 排泄器(大小便)에 消毒法을 行ㅎ야 黴菌을 殺ㅎ야 傳染ㅎ는
 媒介을 絶除ㅎ느니 黴菌者는 蟲之極小者인고로 現微鏡이 아니면 見之을 不能하는 바이라

凡怪疾과 癘疫과 天然痘등의 一切傳染病이 是等蟲이 皆有ㅎ야 或飲食之時를 因ㅎ며 或
 呼吸之氣을 因ㅎ야써 人之口腹에 入ㅎ면 頃刻에 繁滋ㅎ야 其病을 傳ㅎ는고로 撲滅을 不爲
 ㅎ면 其蔓延ㅎ禍를 遏치 못홀지오 若少少遲緩ㅎ야 其流布가 已廣이면 全消함을 不得ㅎ야
 深ㅎ면 天下에 橫行ㅎ야 無數호生靈을 殺害함에 竟至ㅎ느니 小小히 忽之함은 切切히 不可
 ㅎ바이라. 盖 傳染病의 毒은 兵禍之慘에서 深ㅎ니 戰爭은 對手의 壯丁을 只殺홀뿐이며 其
 圍城도 有限이어니와 傳染病은 老少와 婦孺을 母論ㅎ고 當호者는 必殺이며 媒介之物을 隨
 ㅎ야 歐洲之蟲이 亞洲에 飛入者도 有ㅎ고 美洲의 菌이 濠洲의 流傳者도 有ㅎ야 人의 夢想
 不到호는處에 出ㅎ며 意慮不及호地에 至호니 可히 大懼深懼치아님을 不能함이라.

天然痘는 其豫防이 他病에 比ㅎ야는 甚易호니 卽牛痘法이시라. 鄉務所에서 篤行之ㅎ야
 我生이 百日以上者는 必種之케호며 又每春에 全鄉之童穉의게 必施함이라.

獸疫도 亦不可不嚴防홀지니 家畜의 牛馬와 鷄狗之類가 其病이 傳染性에 係호는者는 雖
 人의 所有을 母論ㅎ고 卽殺之深埋ㅎ야써 其流播의 患을 絶케함이라.³⁶⁾

여기에 담긴 내용은 전염병을 막기 위한 청결법의 실시,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우두법
 의 시행, 수역 예방 등과 같다. 청결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변소의 청결관리, 하수의 청
 결 관리, 집안팎의 청결한 관리, 음식물의 청결 관리, 음용수의 청결 관리, 전염병 유행 때
 의 교통 차단과 검역, 전염병자와 환가의 소독과 청결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사실 이상의 내용은 당시 근대국가라면 어디서나 다 시행하던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 또
 한 이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손병희의 위
 생론이 가치는 지니는 것은 이런 위생사무가 주민의 자치적인, 자발적인 형태로 해나가야
 할 일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손병희는 이런 위생사무가 모두 각 지방의 향무소(鄉務所)가
 주관이 되어 해야 할 일이라 보았다. 대한제국 정부의 위생사무는 아직 지방 각처에서 활
 발히 위생사무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1906년 통감부 설치 일제의 청결사무는 자발성을 최
 대한 끌어낸다고보다는 경찰과 헌병의 무단적인 감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위생은 행정 단속보다 자발적 참여와 계몽이 더 중요하다. 1906년 손병희 「준비시대」 이
 후에 천도교는 위생계몽에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 일제의 강점 이후 창간된 『천도교회월
 보』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 초반 『천도교회월보』에서는 적지
 않는 위생 내용을 소개했다. 1910년 8월 제1호부터 1913년 제30호까지의 위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343-346쪽.

급병치료단방(제1호, 1910.8)
 구급단방(제4호, 1910.11)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제19호, 1912.2)
 오희 길으는 법(제23호, 1912.6)
 오희 길으는 법(제24호, 1912.7)
 미균론란(黴菌論, 제23호, 1912.6)
 급히 죽은 사람 살리는 법(제23호, 1912.6)
 오희 길으는 법(속)(제24호, 1912.7)
 미균론란(속)(黴菌論, 제24호, 1912.7)
 위생에 힘쓸 일(제25호, 1912.8)
 위생(전호 속)(제26호, 1912.9)
 위생(속)(제27호, 1912.10.15)
 위생(長壽法研究)(제28호, 1912.11)

이상의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한글로 씌어져 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계몽과 교화를 위한 것임을 뜻한다.

위의 내용 가운데 급병치료단방(제1호, 1910.8)에서는 갑작스러운 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팔콕질이 과도할 때, 목매달아 죽게 되었을 때, 충치가 심할 때, 독약을 먹었을 때, 상기(上氣)되었을 때, 죽은 태아를 빼내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모두 한의학이나 민간요법을 소개한 것이다. 구급단방(제4호, 1910.11)도 서양위생학 지식보다는 한의학 또는 민간요법을 소개한 것이다. 구급상황으로는 지네를 잘못 삼켰을 때, 바늘을 삼켰을 때, 각종 물고기뼈가 인후에 걸렸을 때, 닭 뼈가 목에 걸렸을 때, 곡식 까끄러기가 목에 걸렸을 때, 나무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가위눌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급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제23호, 1912.6)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실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자, 얼어죽는 자, 목매여 죽게 된 자, 얼어죽게 된 자, 벼락맞아 죽게 된 자, 가위눌려 죽게 된 자, 목매어게 된 자, 광란토사로 죽게 된 자를 소생시키는 법을 담았다. 앞의 기사와 달리 여기서는 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서양의 인공호흡법을 소개했다. 직접 입을 맞대고 호흡하는 법을 신지는 않았지만, 환자를 눕히고 발이나 복부를 들어 호흡하는 법 등을 제시했다.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에서는 쌀밥, 돼지고기, 생계란, 쇠고기와 양고기 따위가 소화되는 시간을 간단히 소개했다. 아이 기르는 법(상)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었다. “신체를 건강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아이들이 천연적으로 운동하려는 것은 본질이니 이를 억지로 억눌러서는 안된다는 것,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는 것이 아이의 정신상 좋지 않다는 것, 아이를 해먹 같은 것에 눕혀 흔들어 키우면 좋다는 것을 소개했다.

2회에 걸쳐 실린 미균론란은 본격적인 위생학 지식을 소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균의 특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 미균(세균)이 세상에 가득차 있다는 것, 먼지속에도 미균이 그득하다는 것, 그것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먹는 물을 끓여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계몽했다.

모두 4회에 걸쳐 실은 ‘위생에 힘쓸 일’ 조항에서는 집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생법을 소개했다. 이 위생론에서는 “사람마다 위생에 크게 주의하여 아무쪼록 내의 신체

부터 강건케하고 집안 식구로부터 전국동포의 행복을 온전케 하는 것이 가하도다.” 는 입장에서 위생하는 조건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1. 먹는물을 취택할 것
2. 공기 좋은 것을 취할 것
3. 음식을 정결히 할 것
4. 운동을 잘하여 음식도 잘 소화케 하고 혈액도 유통케 하는 것
5. 수목을 많이 심어 맑은 공기의 재로는 만드는 것

장수법연구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 의식주의 청결과 함께 장수하기 위한 생활습관과 정신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양의학자와 생리학자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다음 18가지를 장수법의 기본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1.잠은 여덟시간만 자고, 2.잠 잘 때에 오른편으로 눕고, 3.밤이 깊도록 천장에 창을 열고 단층집에는 도리 밑에 구멍을 내어 공기를 잘 통하게 할 것, 4.자리는 집으로 두껍게 만든 다다미가 좋고, 5.바람벽에 몸을 대지 말 일, 6.아침에 냉수목을 불가하고 저녁에 따뜻한 물로 몸을 문지르고, 7.조식으로 시간을 정하여 산보할 일, 8.고기를 많이 먹지 말 것, 9.어른은 우유를 먹지말되 아이는 무방하고, 10.기름을 많이 먹을 것(이것이 미균을 죽이기 때문이다), 11.술은 백혈구를 해롭게 하니 먹지말 것, 12.운동을 자주할 일, 13.집안에서 짐승을 기르지 말 것, 14.아무쪼록 복잡잡한 일을 피할 일, 15.힘써 맑은 물을 택하여 먹을 일, 16.때때로 하는 일을 바꾸어 할 일, 17.때때로 일하던 처소에 떠나서 쉴 것, 18.야심을 줄일 일, 19.성내지 말 것 등과 같다.

1910년대 전후 천도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실천하는 위생생활은 그들이 식산에 근대 지식을 도입하고, 자연과학을 익혀 합리적인 삶의 지침으로 삼는 문명화의 일환이었다.³⁷⁾ 그것은 1910년대 초반 교세가 급작스럽게 확장되어 1916년 현재 천도교 내부의 추산으로 3백만 명, 『반도시론』의 추산으로 1백만 여명³⁸⁾의 신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그것이 이 시기 2천 만 한국인의 1/10 이상이 천도교의 근대화에 따른 위생 실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과 언론을 통해 위생계몽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와 달리 한편에서는 천도교라는 종교의 내부적인 개화의 발로로서 위생계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일제의 강압적인 위생 행정의 결과로서만 식민지 조선의 위생상태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혁신의 한 형태로서 위생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V. 에필로그

20세기 전후 한국이 제국주의적 질서에 편입됨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선인의 ‘몸’은 치열한 정치 투쟁의 장소였다. 그 몸들은 ‘나’와 다른 낯선 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여 상

37) 김정인,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30, 2003, 327-329쪽.

38) 김정인,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30, 2003, 312쪽.

전으로 행세함을 목도했고, 그들이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다고 느꼈다. 난생 처음 겪는, 나라 주권이 없어질지도 모를 위기감을 느꼈다. 그 ‘몸’ 들에게서는 육체적 생존과 그 생존에 버금가는 자존의 유지가 병존했다.

그런 가운데, 서양의 것과 다른 학문인 동학이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크게 어필했다. 동학은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집단 종교적 성격을 띠고 확산되었으며, 그 교리는 조선인들에게 고통의 해소, 현실에 대한 안정,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현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어필했다. 그 가운데 병에 대한 치유 사례는 직접적으로 교인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일일이 병을 치료하는 것 이외에 교리에 따른 위생지식의 실천은 천도교인 콜레라 같은 역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또는 동학농민전쟁)이 관군과 일본 연합군에 의해 패퇴를 하면서 동학의 교세가 일시에 크게 꺾였지만, 3대 교주인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고 서양의 위생론 등 서구 문명적 요소를 교리에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쥐고자 했다. 이 위생론은 동과 서를 막론하고 교도들을 자연의 병마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천도교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서양 위생론의 실천을 천도교의 핵심인 정신 수양 안에 포섭해내려고 했다. 동쪽의 정신 안에 서양의 문물을 포섭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서양위생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유교계나 불교계와 크게 다른 것이었다.

위생의 효용은 지극히 큰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당연히 그것의 제도화에 큰 신경을 썼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나가는 제국주의 일본의 경우에는 ‘식민화’의 가장 큰 과실로서 발전된 위생을 이식해준다고 선전했다. 또 그것이 조선인의 생명을 지키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경찰력을 동원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기독교 선교사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 의학과 위생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세를 넓혀 나갔다. 천도교도 기독교 처럼 교인을 확보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데 서양의 위생학을 적절히 활용했다. 그렇지만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잘 조직화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조선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컸다. 또 계몽을 통한 자발적인 실천이라는 점에서 무단적 성격을 띤 식민지 위생 실천과는 크게 달랐다.

【Abstract】

Hygiene Concept of Donghak and Cheondogyo around 20th Century - from disease treatment to hygiene

SHIN Dongwon

1. Introduction

This study tries to establish the fact there was another path to "the body in modern Korea" by reviewing the concept of hygiene espoused by Cheondogyo. Most studies of Korean modern medicine focused on the roles of US missionaries and the Japanese imperialism, seen as the primary deliverers of western medicine and hygiene, which were exogenous factors. These studies tend to emphasize the positive role of western missionaries and Japanese imperialist oppression in shaping Korea's modern history. In fact, Japanese imperialism probably had a bigger impact than US missionaries, because of its scale and reach through colonial institutions. The Japanese impact can be called "colonial modernization," an external modernization imposed through oppression.

This paper, in addressing Cheondogyo's concept of body and hygiene, aims to demonstrate that there was a path different from the aforementioned two (external and forced modernization). Donghak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and the following Cheondogyo (around 20th century), each grew to substantial size, and these religious groups showed a willing internal acceptance of the western concept of hygiene. At its peak, Cheondogyo is known to have had a staggering 3 million followers, and even accounting for the possible exaggeration, it was a sizeable presence. It was much larger in size than Christianity, which numbered only tens of thousands. The Cheondogyo followers consciously accepted western concept of hygiene in their everyday life, a fact that was largely ignored in the study of Korean modern practice of sanitation.

2. Donghak's healing and hygiene

Religion and healing are inseparably interrelated, as one of the biggest human sufferings is illness. Without exception, religions pay deep attention to human illness. There are countless anecdotes of saints or wise men healing the sick, and many religions actively communicate them as a way to proselytize. And some religious canons offer their own brand of medical practice, or unique healing skills or prayers. Because a disease is often caused by a complex set of factors such as physical, mental, psychological or social, practicing religious discipline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overcoming illness and maintain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development of Donghak, the predecessor of Cheondogyo, healing was an important part of proselytizing efforts of its founder Choi Jae-woo, 2nd leader Choi Shi-hyeong, and 3rd leader Sohn

Byeong-hee. From the moment Choi Jae-woo (1824-1864) founded Donghak in 1860, he promoted relief from sickness as one of his most urgent missions, by declaring "relief to all" (*gwang-jae-chang-saeng*). At the time it was what the people desperately needed. Aside from the political confusion, economic hardship, foreign influence's expansion, there were endless hunger, epidemics and natural disasters which put people's lives under a constant threat. Epidemics would particularly wreak havoc, taking away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in one sweep. Around the time when Choi founded Donghak, 1859-1860, a cholera outbreak is known to have killed around 400,000. Not only such lethal epidemics, but other diseases continued to plague the people of Joseon. Many of them were not treatable with the medicine available at the time. There are many records that Choi exercised supernatural power to heal the sick.

While healing remained a personal act during Choi's time, from the 2nd leadership under Choi Shi-hyeong (1827-1898), it became more of a group exercise. Choi Shi-hyeong predicted a virulent disease outbreak in 1886, and taught his followers how to avoid its malignant effect. In fact, there was a cholera outbreak in 1886, on a scale that would have taken away thousands of lives. Choi Shi-hyeong predicted its onset and emphasized prevention to all members, through largely two ways: first, to double their religious practice and keep the mental equilibrium to receive the energy; and second, chant the incantations with the utmost devotion and pray with pure water. As a result, while "even one out of a hundred" hardly survived, reportedly none of the Donghak families and Choi Shi-hyeong's neighboring 40 households suffered from it.

I believe that such hygiene guideline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cleanliness of Donghak as a religion, and the acceptance of modern sanitation knowledge. Since the opening of the nation's ports in 1876, modern knowledge of hygiene was introduced from the west, reaching the public through the Hanseong daily founded in 1882. When there were signs of cholera outbreak in 1885, the Joseon government issued a sanitation decree to citizens of Hanseong (today's Seoul) through doctor Alan, who worked at Jejoongwon (Korea's first modern hospital). The decree included such instructions as "thoroughly clea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house, throw limestone over sewage holes, drink boiled water only." I suspect that Choi Shi-hyeong, coming upon such modern hygiene concepts, tried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spirit of Donghak (devotion and cleanliness) and everyday rule. As a result, Donghak followers were not inflicted by the epidemic, a manifestation of "relief to all."

Donghak's hygiene concept was further refined by the 3rd leader, Sohn Byeong-hee (1861-1922). He published his "Writing on Hygiene" to his followers in 1901. Sohn was burdened with the task of reviving the group's influence, much weakened after the 1894 Peasants' War, and he decided to do that by actively introducing elements of modern civilization. This was the reason why he went to study in Japan. It was there that he came in contact with liberal leaders such as Oh Se-chang and Park Young-hyo, discussing the issues of the time, including "enlightenment." He returned home briefly in 1901, when he published the hygiene concept.

His written theory combined oriental medicine with western physiology and hygiene knowledge into Donghak's religious principles, and consisted of the main body and sub-provisions which served as an

action plan. The sub-provisions were a developed version of Choi Shi-hyeong's 1888 teaching for women's discipline (*nae-su-do-moon*). They offer four principles: protecting the mind (守心), uprightness (正气), diet control (饮食调节) and clean living quarters (居处清洁).

Disease treatment and epidemic prevention were not mere rhetorics. Healing and hygiene were two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why many people sought out Donghak. The rumor that "you will not get sick and live a long life" gave a significant boost to its membership. This tradition was passed on to Cheondogyo, which claimed, "Ours is a religion that heals the world's illnesses."

3. 1904 Donghak "hair cutting" – hygienic implications

In September 1904, all members of Donghak undertook hair-cutting en masse. Some records say 160,000, some say 200,000. After shedding long hair they donned black garments, which led to the name, "hair-cutting and black clothes campaign." As the year was *gapjin*, Cheondogyo members called this "*gapjin* enlightenment (renewal) campaign." The hair-cutting and black clothes became quite widespread. According to Japanese records, as of November 11, 1904, members of the Progressive Association numbered 20,000 in 12 counties of North Pyeongan Province, 50,000 in 18 counties of South Pyeongan Province, 10,000 in 7 counties of South Hamgyeong Province, 6,000 in 13 counties of Hwanghae Province, for a total of 90,000 in the northern part of Joseon alone. It was 3/4 of the nationwide membership of the Progressive Association, which stood at around 120,000. The difference between the Japanese tally and Donghak's own calculation aside, it was still a large number, over 100,000.

Over 100,000 Joseon citizens cutting off their long hair was a sensational event. Its significance is heightened even further when compared to the 1895 hair-cutting decree, which ended in failure. Since then hair-cutting was undertaken voluntarily, without the government's enforcement, but the number was quite small. Those aspiring to join the government or Christians would trim their hair, but only at a minimal scale. Then all of a sudden in 1904, over 100,000 people nationwide, followers of Donghak, cut off their hair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past attempts, it is not hard to imagine what a big sensation it must have been.

4. Cheondogyo's hygiene enlightenment campaign

If Sohn's 1901 theory of hygiene was emphasizing personal hygiene by protecting the mind and controlling energy, what he published after coming back from a long stay in Japan was more geared toward public sanitation at the national level. Because it was part of his ambition to build a constitutional monarchy by actively embracing the west's modern civilization through Donghak (Cheondogyo). Upon his return in 1906, Sohn renamed Donghak to Cheondogyo, set up its headquarter in Seoul, and expressed his plans centered on constitutional monarchy through the writing "Era of Preparation."

In the main part of this paper, Sohn made it clear that western physiology was to be the basis of self-preservation, declaring "we should learn to care for ourselves through physiology." In the appendix titled, "Self-governance in non-capital regions," laying out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needed for non-capital regions to govern themselves, he finely detailed the sanitation activities as well. It included implementation of hygiene law to prevent epidemics, vaccination (with cowpox) to prevent small pox, and prevention of livestock epidemics. As for details of the hygiene law, he proposed controlling: toilets, sewage, inside and outside of the house, food, drinking water, traffic control and quarantine during epidemic outbreaks, and disinfection and sanitation of epidemic patients and their premises.

What Sohn had proposed was actually nothing new, as it was already implemented in almost all modern countries and Korea was no exception. But his hygiene theory was still valuable in that he defined it as something to be undertaken by the citizens themselves, as part of their self-governance. Sohn believed that sanitation activities should be overseen by each region's governing office. At the time in Korea, there was no active sanitation administration at the regional level, and under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set up in 1906, hygiene was enforced by police and military police monitoring, rather than voluntary implementation.

But sanitation is more effectively implemented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and enlightenment, not administrative enforcement. Since Sohn's 1906 paper, "Era of Preparation," Cheondogyo paid close attention to sanitation enlightenment. The Cheondogyo Monthly Newsletter launched after Japan's forcible annexation provides evidence. In the early 1910s, the Newsletter gave extensive coverage to hygiene. From the 1st issue in August 1910 to the 30th in 1913, hygiene and sanitation topics included: emergency room, food digestion, child care, bacteria, sanitation and longevity. Notably, it was mostly written in Korean characters, indicating that it was specifically targeting women. It implies that the purpose of the coverage was enlightenment and edification.

Around 1910, such sanitary life habits by Cheondogyo followers was part of their efforts toward a better civilization, where they tried to apply modern knowledge to build industries and live a rational life based on natural science. It was made all the more significant by the fact that it was targeted to Cheondogyo membership, which went on a growth spurt in the early 1910s to reach either 3 million (by the group's own estimate) or 1 million (by *Peninsula Time's* estimate) as of 1916. This means that possibly more than 1/10 of the 20 million Korean population was associated with Cheondogyo's sanitation campaign. There was sanitation education through schools and media, but Cheondogyo's represented a religious approach, through internal enlightenment. This implies that the level of sanitation improved in Joseon not only through Japanese imposition but also through religious renewal.